



How's Life? 2017

웰빙의 측정



How's Life? 2017

웰빙의 측정

이 번역서는 OECD와의 합의를 거쳐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이 번역서는 OECD에 의해 번역된 것이 아니기에 공식적 OECD 번역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OECD는 이 번역서의 내용이나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OECD KOREA Policy Centre 번역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의견과 논의들이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OECD(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본 출판물의 영문 원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7-en.

본 출판물의 국문 pdf 파일은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oecdkorea.org/user/nd3855.do>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7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참조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How’s Life? 2017: 웰빙의 측정)”은 웰빙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웰빙의 추세, 원인, 대책에 관해 OECD가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민자와 거버넌스 영역을 조명하고 있으며, OECD 35개국과 기타 주요 6개국(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별 현황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김덕곤 부분부장, 박유선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사회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맹 호 영**

서 문

‘How’s Life?’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장려하는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OECD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부로, OECD의 최우선 미션(overarching mission)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How’s Life?’는 2년마다 발간되는 통계 보고서로 광범위한 웰빙 성과들과 그 성과들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구집단 간 및 국가 간 변화 추이를 기록한다. 이 평가는 현재 11개의 웰빙 영역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의 유지를 돕는 4가지 자원을 다룬 다차원 프레임워크(multi-dimensional framework)에 근거한다. 각 판(issue)은 또한 웰빙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상세한 시각을 제공하는 특별한 장(chapter)을 담고 있다. 2017년 판은 웰빙의 불평등, 이민자들의 웰빙 경험, 웰빙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 보고서는 공공거버넌스국(Public Governance Directorate)의 공공 부문 개혁 부서(Public Sector Division)(제4장)의 도움을 받아 OECD 통계국의 가구 통계 및 진도 측정 부서(Household Statistics and Progress Measurement Division)에서 작성했다. 각 장의 수석 작성자는 Carrie Exton(제1장), Carlotta Balestra(제2장), Kate Scrivens과 David Marguerit(제3장), Santiago Gonzalez(제4장), Joshua Monje-Jelfs과 Elena Tosetto(제5장)이다. Elena Tosetto는 두 온라인 부록의 주요 저자이기도 하다. Carrie Exton는 Romina Boarini, Marco Mira d’Ercole, Martine Durand가 감독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Lara Fleischer와 Giampaolo Bonomi는 보고서와 미디어 노트에 실린 분석에 크게 기여했다. Martine Zaïda는 ‘How’s Life?’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로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초안이나 특정 질의에 대한 도움, 의견, 통찰력을 제공해 준 OECD의 많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곳에 전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Rolf Alter, Anil Alpman, Yves Breem, Francesca Borgonovi, Marie-Clémence Cnaud, Orsetta Causa, Jean-Christophe Dumont, Michael Förster and the Income Distribution team, Mikkel Hermansen, Chris James, Gaetan Lafortune, Zsuzsanna Lonti, Edwin Lau, Luiz de Mello, Fabrice Murtin, Matthew de Queljoe, Jennifer Ribarsky, Nicolas Ruiz, Sonia Primot, Miguel Cardenas Rodriguez, Sarah Sentier, Markus Schwabe, Cécile Thoreau, Bettina Wistrom, Isabelle Ynesta에게 감사드린다. 사내 간행물 및 제작팀은 Cicely Dupont-Nivore, Vincent Finat-Duclos, Audrey Garrigoux, Kate Lancaster, Julia Stockdale-Otarola로 구성되었으며, Patrick Hamm은 편집 관련 조언과 지침을 제공했다. Virginie Elgrably는 텍스트 구성 방식을 지원했다. 아낌없이 지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OECD 통계정책위원회(OECD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와 OECD 공공거버넌스위원회(OECD Public Governance Committee)(제4장)의 각국 대표들이 제공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유용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제3장은 또한 OECD 이주 작업반(OECD Working Party on Migration)에 제출되었다. 그들의 기여와 조언에도 감사드린다.

논평: 모두를 위한 웰빙 달성

분열된 사회에서는 웰빙이 변영할 수 없다.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 세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상처를 남겼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이후 여러 OECD 국가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30~40년 간의 경제적 변화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다.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GDP를 넘어서(beyond GDP)” 운동은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술할 때 거시경제 통계의 한계에 주목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정책 입안자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통적인 지표에서 누가 그리고 어떤 삶의 측면이 누락되는지 묻게 한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2011년부터 수집해온 통계는 이러한 문제에 직접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을 제공하며, 이 가운데 어렵게 얻은 일부 증거 자료는 포괄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사용한다.

경제가 강해질수록 웰빙이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OECD 국가가 격변의 10년을 보낸 이후, 오늘날의 삶이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보다 더 나아졌는가? 물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다. 2005년에 비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평균 가구소득, 연소득, 기대수명이 개선되었다. 전체 OECD 국가의 약 절반에서 2005년 이후 고용률이 증가했다. 장시간 근로 빈도는 감소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하며 살인이 줄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중 일부에서는 개선 속도가 더디고 비정상실업률, 주택 구매력은 2005년 이후 전체 OECD 국가의 약 절반에서 악화되었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OECD 국가의 4/5에서 더 높아졌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은 OECD 국가의 최소 1/4에서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삶의 여러 측면에서 아직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득 이외의 불평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은 개인의 웰빙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웰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 내부와 국가 간에 웰빙의 손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때 그러하다. 이번 판에서는 불평등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최근 많은 논쟁이 소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2장에서는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 청년과 기성세대,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그룹에서의 경계선을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 또는 소득 불평등의 크기 등 일부 측면에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비교적 작은 국가는 청년과 기성세대의 격차, 건강

불균형의 크기 등 다른 측면에서 훨씬 더 불평등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시각과 하나 이상의 결과에서 불평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OECD 국가의 이주민들의 웰빙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더욱 확대한다. 자국민에 비해 이주민들은 저소득 일자리부터 거주 지역의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에 대한 노출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면이 많다. 이주는 정서적 웰빙에도 큰 피해를 준다. 유럽 OECD 국가의 2/3 이상에서 이주민은 자국민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낮다고 보고하며, 낙담하거나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인해 미래의 웰빙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반영하고 나타낼 때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몇몇 세력들이 OECD 국가에서 사회적 이동성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일찍부터 영향을 미쳐서 저소득 가정의 아이는 나중에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것에 끌리면 서로 여전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가족 형성 패턴에 의해 더 악화된다. 임금 근로자의 1/3 이상이 동일한 소득 분위의 파트너와 살고 있다. 또한 상속 패턴은 기존의 분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 중 약 10%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만 소득 상위 계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받는다. 한편 오늘날의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학력의 이주민은 자국민에 비해 일자리보다 필요 이상의 경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일자리 부문에서 더 큰 격차를 경험한다.

공공 기관에 “공공” 되돌려 주기

분열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OECD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공공 기관을 멀게 느낀다. 평균적으로 33%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며,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2005년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유럽 국가의 설문 응답자들은 선거 공정성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하지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치에는 불만을 내비친다. 11개국의 국회의원 직업 배경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대신 전문 직종이나 고위 경영직에 종사했을 확률이 더 높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다. 투표율이 하락하고 공적 생활에서 대표자가 거의 없는 그룹(청년,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투표할 확률이 가장 낮고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고 느낄 가능성도 가장 낮다. 이는 정부가 “무효 통치” 위협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시민들, 특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나은 데이터와 더 나은 삶 간의 격차 해소

뒤쳐져 있는 사람과 부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OECD가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를 시작한 지 6년이 흐른 지금 웰빙 증거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어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도 많이 남아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 특히 사회의 웰빙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에는 큰 격차가 있다. 그래서 웰빙 통계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더 나은 데이터와 더 나은 삶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의사 결정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경험을 숫자와 연계시키고 웰빙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문제는 격차의 크기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격차를 좁히고 모두에게 웰빙을 제공할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에 있다.



마틴 듀란(Martine Durand)
OECD 수석 통계학자
OECD 통계국장

목 차

한국어판 서문	3
서 문	4
논평: 모두를 위한 웰빙 달성	5
독자를 위한 가이드	17
요 약	18
제1장 2017년의 삶은 어떠한가?	21
서론: 웰빙 측정에 대한 OECD 접근법	22
현재 웰빙: 2017년의 삶은 어떠한가?	27
현재 웰빙과 불평등	32
현재 웰빙의 변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33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2017년 점검	45
지난 10년 간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변화와 위험 요소	47
향후 통계적 의제	55
주	57
참고문헌	58
참고 데이터베이스	60
부록 1.A.	61
제2장 웰빙의 불평등 측정	67
서론: 웰빙의 불평등이 왜 중요한가	68
웰빙의 불평등 측정	70
웰빙 성과의 불평등에 대한 증거	79
웰빙의 불평등에 대한 향후 통계적 의제	102
주	103
참고문헌	106
참고 데이터베이스	110
부록 2.A. 보충 통계	111
제3장 이주민의 웰빙: 더 나은 삶으로의 이주?	125
서론: 이주민의 웰빙과 이것이 중요한 이유	126
이주민의 웰빙 이해	126
이주민의 웰빙 측정	128

이주민 웰빙에 대한 증거	136
이주민의 웰빙 측정에 대한 향후 통계적 의제	153
주	155
참고문헌	157
이주민 현황에 대한 전문 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160
부록 3.A. 이주민의 웰빙 측정에 관한 추가 차트	162
제4장 거버넌스와 웰빙	165
서론: 거버넌스가 웰빙에 중요한 이유	166
거버넌스의 정의와 측정	168
거버넌스와 웰빙에 대한 증거	171
거버넌스에 대한 향후 통계적 의제	195
주	197
참고문헌	202
참고 데이터베이스	207
제5장 국가별 현황	209
국가별 현황에 대한 독자 가이드	210
호주의 삶은 어떠한가?	217
오스트리아의 삶은 어떠한가?	220
벨기에의 삶은 어떠한가?	223
캐나다의 삶은 어떠한가?	226
칠레의 삶은 어떠한가?	229
체코의 삶은 어떠한가?	232
덴마크의 삶은 어떠한가?	235
에스토니아의 삶은 어떠한가?	238
핀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241
프랑스의 삶은 어떠한가?	244
독일의 삶은 어떠한가?	247
그리스의 삶은 어떠한가?	250
헝가리의 삶은 어떠한가?	253
아이슬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256
아일랜드의 삶은 어떠한가?	259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한가?	262
이탈리아의 삶은 어떠한가?	265
일본의 삶은 어떠한가?	268
한국의 삶은 어떠한가?	271
라트비아의 삶은 어떠한가?	274
룩셈부르크의 삶은 어떠한가?	277
멕시코의 삶은 어떠한가?	280

네덜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283
뉴질랜드의 삶은 어떠한가?	286
노르웨이의 삶은 어떠한가?	289
폴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292
포르투갈의 삶은 어떠한가?	295
슬로바키아의 삶은 어떠한가?	298
슬로베니아의 삶은 어떠한가?	301
스페인의 삶은 어떠한가?	304
스웨덴의 삶은 어떠한가?	307
스위스의 삶은 어떠한가?	310
터키의 삶은 어떠한가?	313
영국의 삶은 어떠한가?	316
미국의 삶은 어떠한가?	319
국가별 현황: OECD 파트너 국가	323
브라질의 삶은 어떠한가?	324
콜롬비아의 삶은 어떠한가?	327
코스타리카의 삶은 어떠한가?	330
리투아니아의 삶은 어떠한가?	333
러시아의 삶은 어떠한가?	33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삶은 어떠한가?	339
주	342
참고문헌	342
참고 데이터베이스:	343
부록 5.A. 국가별 현황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평가	344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	347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413
표 목 차	
1.1. 물질적 조건에서 상대적 강점 및 약점, OECD 국가	28
1.2. 삶의 질에서 상대적 강점 및 약점, OECD 국가	29
1.3. 현재 웰빙에 관한 OECD와 동등한 상대적 강점과 약점, 파트너 국가	30
1.4. 평균 성과와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현재 웰빙 성과	32
1.5. 제1장에서 고려한 미래 웰빙 지표를 위한 자원	46
2.1. 웰빙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과 지표	78
2.A.1. 제2장에 사용된 불평등과 결핍의 지표	112
2.A.2. 웰빙의 수직적 불평등,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115
2.A.3. 성별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116

2.A.4. 연령대별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청년층 vs. 중년층,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117
2.A.5. 연령대별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노년층 vs. 중년층,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119
2.A.6. 교육에 따른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초등교육 vs. 고등교육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120
2.A.7. 교육에 따른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중등교육 vs. 고등교육,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121
2.A.8. 웰빙의 결핍,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122
3.1. 이주민의 웰빙 차원 및 지표	131
4.1. 거버넌스 통계에서 선택된 영역과 차원	169
4.2. 이번 장에서 검토한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통계 출처	171
4.3.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유럽인의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만족도, 2012년	179
4.4. 직접 경험여부별 공공 서비스 만족도, EU 국가의 평균값, 2013년	188
5.1. 현재의 웰빙의 중심 지표	210
5.2. 자연 자본의 설명 지표	214
5.3. 인적 자본의 설명 지표	214
5.4. 경제 자본의 설명 지표	215
5.5. 사회 자본의 설명 지표	215
5.6. 현재 웰빙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임계점	344
5.7.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임계점	346

그림목차

1.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22
1.2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2030 의제 비교	26
1.3 물질적 조건(x-축)과 삶의 질(y-축)에 대한 상대적 성과	31
1.4 9개 현재 웰빙 지표 중 하나에 대한 평균 성과와 불평등 사이의 상관관계	33
1.5 2005년 이후 OECD 평균 가구소득과 임금	35
1.6 2005년 이후 OECD 평균 고용률과 직무 긴장	36
1.7 2005년 이후 OECD 평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	36
1.8 2005년 이후 OECD 평균 주택 구매력	37
1.9 2005년 대비 물질적 조건 지표의 변화	38
1.10. 2005년 대비 선택된 물질적 조건 결과의 국가별 변화	39
1.11. 2005년 이후 OECD 평균 장시간 근로 직원	40
1.12. 2005년 이후 OECD 평균 기대수명과 인지된 건강	40
1.13. 2005년 이후 OECD 평균 사회적 지원과 투표율	41
1.14. 2005년 이후 OECD 평균 대기오염과 수질 만족도	42
1.15. 2005년 이후 OECD 평균 안전감과 삶의 만족도	42
1.16. 2005년 대비 선택된 삶의 질 지표의 변화	43
1.17. 2005년 대비 선택된 삶의 질 결과의 국가별 변화	44
1.18. 2005년 대비 국가별 현재 웰빙 개선	45
1.19.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대해 국가별 상대적 성과	47

1.20. 2005년 이후 선택된 자연 자본 지표의 OECD 평균	49
1.21. 2005년경 대비 선택된 자연 자본 지표의 변화	49
1.22. 2005년 이후 OECD 평균 흡연 및 비만을	50
1.23. 2005년경 대비 선택된 인적 자본 지표의 변화	51
1.24. 2005년 이후 OECD 평균 생산된 고정 자산과 총 고정 자본 형성	51
1.25. 2005년 이후 OECD 평균 지적 재산 자산과 R&D 투자	52
1.26. 2005년 이후 OECD 평균 총경제의 금융순자산과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	52
1.27. 2005년 이후 OECD 평균 가계 부채와 은행 부문 레버리지	53
1.28. 2005년경 대비 경제 자본 지표의 변화	53
1.29. 2005년 이후 OECD 평균 투표율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54
1.30. 2005년경 대비 선택된 사회 자본 지표의 변화	55
1.A.1. 2005년 대비 선택된 자연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62
1.A.2. 2005년 대비 선택된 인적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63
1.A.3. 2005년 대비 선택된 경제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64
1.A.4. 2005년 대비 선택된 사회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65
2.1. 웰빙 성과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76
2.2. 웰빙의 수직적 불평등	80
2.3. 국가별 소득 불평등과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 사이의 중복	81
2.4. 지표별 소득 불평등과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 사이의 중복	82
2.5. 웰빙 성과에 따른 국가별 수직적 불평등 분포	82
2.6. 선택된 웰빙 성과에 대한 수직적 불평등의 변화	84
2.7. 성별에 따른 수평적 불평등	85
2.8. 연령별 수평적 불평등	87
2.9. 교육 수준별 수평적 불평등	88
2.10. 웰빙의 결핍	90
2.11. 소득 및 자산 기반 빈곤	91
2.12. 선택된 OECD 국가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 상관관계	92
2.13. 선택된 OECD 국가에서 다양한 웰빙 차원의 상관관계	93
2.14. 선택된 OECD 국가에서 소득, 건강, 교육 분포의 동일한 5분위수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	96
2.15. 개인 수입에 기반한 선택 결혼	97
2.16. 선택된 OECD 국가에서 교육에 따른 선택 결혼의 추세	98
2.17. 순자산 5분위수에 따른 상속과 증여	99
2.18. 성인이 되기 전에 불리한 경제 여건에 의한 소득 빈곤율	100
2.19. 11세에 과밀집 주거 환경을 경험한 것에 따른 50세 이상 사람들의 나쁜 건강 상태율	101
3.1. 성별 이주민의 비율	132
3.2. 이주 상태별 0~14세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132
3.3. 선택된 데이터 출처에서 이주민의 대표성	135
3.4. 가구 이주 상태별 균등화 가처분 중위 소득	137
3.5. 가구 이주 상태별 가구당 평균 순자산	138

3.6. 이주민 신분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15~64세 중 필요 이상의 자격 비율	139
3.7. 이주상태별 근로자의 신체 건강 위험 노출	140
3.8. 이주상태별 비정규 시간에 일하는 직원	141
3.9. 이주상태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별 문해력 점수 차이	142
3.10. 이주상태별 과학, 읽기, 수학에서 학생의 성과	143
3.11. 이주상태별 개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	143
3.12. 이주상태별 사회적 지원	145
3.13. 선택된 유럽 국가에서 차별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주민	146
3.14. 선택된 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특성에 따라 스스로 차별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주민	147
3.15. EU 국가의 대부분의 자국민은 이주민이 가져오는 것보다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고 믿음	147
3.16. 가구 이주 상태별 기준 미달 및/또는 과밀집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	148
3.17. 가구 이주 상태별 나쁜 환경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	149
3.18. 이주상태별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	149
3.19. 이주상태별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150
3.20. 이주상태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151
3.21. 이주상태별 삶의 만족도	151
3.22. 출생 국가와 지역의 소득 수준별 이주민과 대응하는 체류자의 삶의 만족도	152
3.23. 이주상태별 낙담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153
3.A.1. 15~64세 자국민과 외국 출생의 교육 수준	162
3.A.2. 체류 기간별 15~64세 이주민의 분포	163
3.A.3. 연간 이주민 유입	163
4.1.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총선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	173
4.2. 교육 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투표할 가능성이 낮음	174
4.3. 지난 12개월 동안 뚜렷한 형태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사람	175
4.4. 유럽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 2012년	180
4.5. 국회의원과 일반 대중 간 직업적 배경의 차이	182
4.6. 규제 개발 시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OECD 종합 지표, 2014년	183
4.7.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185
4.8. 부문별로 유럽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3년	186
4.9. 주요 공공 서비스에 만족한 인구의 비율, 2016년	187
4.10. 유형별 분쟁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	190
4.1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191
4.12. 개인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부 내 발언권	192
4.13. 2014~2016년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 2005-2007년 이후의 변화	193
4.14.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장기 추세, 미국	194
5.1. 호주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17
5.2. 오스트리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20
5.3. 벨기에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23

5.4. 캐나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26

5.5. 칠레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29

5.6. 체코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32

5.7. 덴마크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35

5.8. 에스토니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38

5.9. 핀란드의 현재 웰빙의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41

5.10. 프랑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44

5.11. 독일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47

5.12. 그리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50

5.13. 헝가리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53

5.14. 아이슬란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56

5.15. 아일랜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59

5.16. 이스라엘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62

5.17. 이탈리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65

5.18. 일본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68

5.19. 한국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71

5.20. 라트비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74

5.21. 룩셈부르크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77

5.22. 멕시코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80

5.23. 네덜란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83

5.24. 뉴질랜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86

5.25. 노르웨이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89

5.26. 폴란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92

5.27. 포르투갈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95

5.28. 슬로바키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298

5.29. 슬로베니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301

5.30. 스페인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304

5.31. 스웨덴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307

5.32. 스위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310

5.33. 터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313

5.34. 영국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316

5.35. 미국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319

5.36. 브라질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324

5.37. 콜롬비아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327

5.38. 코스타리카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330

5.39. 리투아니아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333

5.40. 러시아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336

5.4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339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library>



<http://www.oecd.org/oecdirect/>

이 보고서에는 인쇄된 페이지에서 엑셀 파일을 제공하는 **StatLinks** 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표 또는 그래프 오른쪽 하단에 있는 **StatLinks** 를 찾아보세요.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관련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PDF 버전을 보는 경우 링크를 클릭만하면 관련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독자를 위한 가이드

표기 규칙

- 각 그림에서 “OECD”라고 표시된 데이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그림에 나타난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치이다. 모든 OECD 35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그림에 명시된다(예: OECD 33개국).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그림에 표시되는 경우, OECD 평균은 모든 시점에 가용 데이터가 있는 국가만을 의미한다.
- 인구 가중치를 준 OECD 평균이 사용된 경우 이는 그림 주석에 명시된다. 이는 총 OECD 인구의 비율로서, 각 국가의 인구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준 평균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구가 적은 국가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며, “평균 OECD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평균 OECD 국민”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 각 그림은 해당 기간을 명시하고, 그림 주석은 국가별로 데이터의 연도가 다를 경우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데이터는 OECD 국가들에 대한 그림과 별도로 제시된다.

그림에 사용된 국가별 지역별 코드

AUS	호주	FIN	핀란드	MEX	멕시코
AUT	오스트리아	FRA	프랑스	NLD	네덜란드
BEL	벨기에	GRB	영국	NOR	노르웨이
BRA	브라질	GRC	그리스	NZL	뉴질랜드
CAN	캐나다	HUN	헝가리	OECD	OECD 평균
CHE	스위스	IRL	아일랜드	POL	폴란드
CHL	칠레	ISL	아이슬란드	PRT	포르투갈
COL	콜롬비아	ISR	이스라엘	RUS	러시아
CRI	코스타리카	ITA	이탈리아	SVK	슬로바키아
CZE	체코	JPN	일본	SVN	슬로베니아
DEU	독일	KOR	한국	SWE	스웨덴
DNK	덴마크	LTU	리투아니아	TUR	터키
ESP	스페인	LUX	룩셈부르크	USA	미국
EST	에스토니아	LVA	라트비아	ZAF	남아프리카공화국

요 약

2017년의 삶은 어떠한가?

좋은 삶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 풍부한 인간 경험을 수치만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통계는 사람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래를 위한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오늘날의 웰빙이 달성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올해로 네 번째 발간되는 ‘How’s Life?’는 OECD 국가와 파트너 국가 국민들의 웰빙 현황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일부 측면에서 삶이 개선되었지만 웰빙의 몇 가지 측면은 뒤쳐져 있다.

금융위기는 사람들의 삶에 깊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자리에서 더욱 그러하다. 제1장에서는 2005년 이후 웰빙의 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점에서는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아졌지만 금융위기 이후 그 개선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웰빙의 몇 가지 측면에서는 뒤쳐져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소득과 연평균 소득은 2005년 이후 점증적으로 각각 8%, 7% 증가했지만 이는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기록한 성장률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낮은 수준임)은 약 1/3 이상 하락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OECD 평균 기대수명은 2015년에 정체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년간 약간 증가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웰빙의 다른 측면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전체 OECD 국가의 절반 정도에서 장기 실업률은 2005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7년 처음 측정을 시작했을 때보다 약 1/3 높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투표율은 하락했고 OECD 평균 삶의 만족도 역시 약간 감소했다. 그리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3% 포인트 낮아졌다. 웰빙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원의 경우 전체적인 상황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도 일부 지표(예: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하락, 흡연율 하락, R&D 투자 증가, 생산된 경제 자산 증가)는 개선되었지만 다른 조건(예: 대다수의 국가에서 가계 부채 증가, 정부의 금융순자산 감소, 비만 증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악화되면서 그 영향이 상쇄되었다.

불평등의 여러 측면

불평등은 국민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분배의 상하위 간 차이부터 성별, 나이, 교육에 따른 웰빙의 차이까지 다각도로 웰빙의 불평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일부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더 평등하지만 모든 OECD 국가에는 불평등 수준이 높거나 낮은 여러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불평등은 상호작용을 통해 약점을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상위 20% 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하위 20%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2배 높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4배 높다. OECD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소득 충격(income shock)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자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5개국의 자료에 따르면, 3개월 간 소득이 없을 경우 1/3 이상이 빈곤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주민들은 웰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인구의 13%는 외국 태생이다. 전체 OECD 국가의 이주민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고숙련 전문가부터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삶이 이주민들의 웰빙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민의 중위 소득은 자국민보다 25% 더 낮고, 중간 순자산은 50% 더 낮다. 이주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자국민과 비슷할지라도 정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무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며 위험하거나 유해한 근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경우에 따라 이주민은 자신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이주민의 약 30%가 일자리에 비해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의 20%와 대비된다. 이주민은 근로 환경뿐 아니라 생활 환경도 열악하다. 이주민 4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자국민의 5명 중 1명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주민의 41%가 기준 미달 또는 과밀집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에 비해 자국민의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이주민은 자국민에 비해 건강 상태, 사회적 지원, 주관적 웰빙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의 가구 설문조사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웰빙 측정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공공 기관과 시민들 간의 간극

OECD 국가의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한 것은 수년 동안 우려의 대상이었다. 제4장에서는 국민들이 공공 기관에 거리감을 느끼는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OECD 거주자의 50% 이상이 정부 내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200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의 33%만이 정부가 수행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거리감은 공적 생활에서 대표자가 불충분한 국민들에게서 더욱 커지고 있다.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정책 결정에 발언권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다. 상위 20% 소득 계층에 비해 하위 20% 소득 계층의 자기보고 투표율 (self-reported voter turnout)은 13% 포인트 낮다. 유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방식에는 만족하지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치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공공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최근에 사용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될 때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 1 장

2017년의 삶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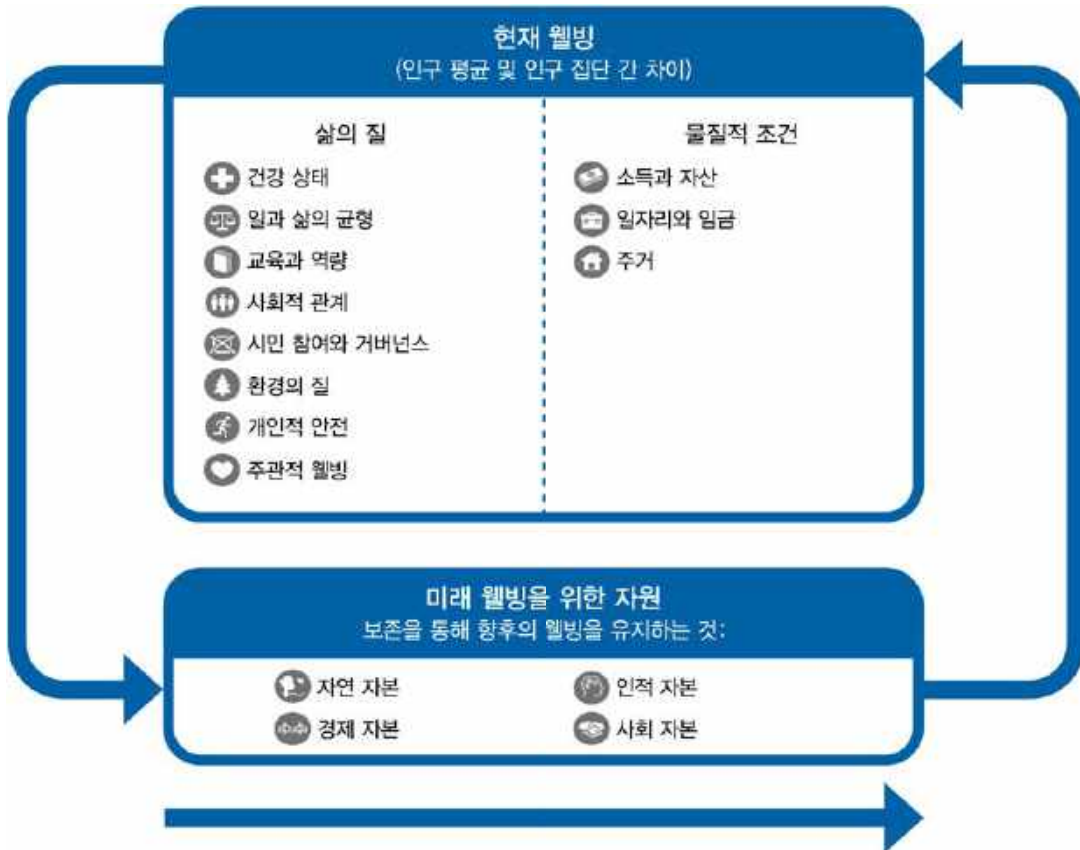
웰빙을 측정하는 주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번 장에서는 현재 웰빙의 11가지 측면에서 OECD 국가의 성과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자본 자산 (capital stock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가구자산부터 여가 시간까지, 대기오염부터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까지 다양한 통계를 제공한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격변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의 웰빙 변화에 특히 중점을 둔다.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인 2005년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 제공된 개요는 현재 웰빙 성과의 불평등을 살펴보는 제2장과 각 OECD 국가와 OECD 파트너 6개국의 현황을 제공하는 제5장으로 보완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론: 웰빙 측정에 대한 OECD 접근법

많은 정부, 자선단체, 기업의 사명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럼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웰빙을 측정하는 목적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웰빙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관심을 받은 개념이지만 여전히 “웰빙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은 자주 듣는다. 따라서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이다. 공공 정책이든 사업이든 또는 제3의 부문이든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려면 웰빙 개념을 구체화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 나은 삶”이 국내총생산(GDP) 이상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여전히 격렬한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웰빙 성과가 사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평균적으로 삶이 더 나아졌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이 개선되었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출처 : OECD(2015), How's Life? 웰빙 측정,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OECD 프레임워크(그림 1.1)는 다양한 개인, 가계, 사회 수준별 결과와 시간 경과에 따라 웰빙 성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 자산을 포함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2011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과거에 발표된 모든 ‘How’s Life?’의 근간을 제공한다. 프레임워크는 “좋은 삶”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결과의 조합을 명시하지 않지만 그 대신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 중 일부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의 웰빙에 기여하는 여러 결과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는 광범위한 국제 사례(박스 1.1)와 다수의 문헌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테면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상태, 기술, 환경, 거버넌스, 개인적 안전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웰빙과 같은 삶의 경험적 요소의 중요성도 이러한 접근법에서 점차 인정받고 있다.

박스 1.1. OECD 웰빙 측정 접근법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OECD 프레임워크는 ‘How’s Life? 2011’에 소개되었다.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이니셔티브뿐 아니라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2009)의 권고와 OECD 통계정책위원회의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개념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는 *실현능력 접근법*(Sen(1985), Alkire 및 Sarwar(2009), Anand, Durand 및 Heckman(2011))의 요소를 반영하며, 건강, 교육, 소득 등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는 여러 차원을 포함한다(OECD, 2013a 참조).

현재의 웰빙을 측정하는 접근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 평가의 중심에 **사람**(개인 및 가구)이 있으며, 그들의 생활 환경과 웰빙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 웰빙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투입물과 산출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측면인 웰빙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에 지출하는 돈이나 숙련된 교사의 숫자가 아닌 성취한 기술과 역량에 중점을 둔다.
- **객관적 성과**(제3자에 의해 관찰 가능)와 본질적으로 **주관적 성과**(관련된 사람만이 내면의 감정과 상태를 보고할 수 있음)를 포함하며, 생활 환경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사람들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통해 유용하게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나이, 성별, 교육, 소득과 관련한 불균형을 비롯해 사회의 웰빙을 형성하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인구 전체에서 웰빙 성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고려한다. 이는 국가 평균이 **국민**의 경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감추기 때문이며, 평균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모든 그룹에서 삶이 더 나아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을 평가하는 OECD 접근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웰빙을 확고히 하고 지속시키는 광범위한 자연, 경제, 인적, 사회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본” 자산 또는 자원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미래 가치의 비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이 가치가 반드시 금전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가치라기보다 물질 자산이며, 본 보고서에 나타난 예시 지표에서 평가된다. 이러한 자산을 주요 측정 초점으로 보는 것은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2009)의 권고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측정에 관한 UNECE-Eurostat-OECD 태스크포스(UN, 2009), UNU-IDHP 및 UNEP의 *포괄적 재정 보고서*(2012), *지속가능발전 측정에 관한 유럽통계기관장회의의 권고*(UNECE, 2014), 여러 국가별 *이니셔티브*(예: FSO(2015), 뉴질랜드 통계청(2011)) 등 최근의 여러 측정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은 “현재 이곳(here and now)”의 웰빙과 “나중(later)”의 미래

박스 1.1. OECD 웰빙 측정 접근법(계속)

세대의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자산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접근법은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나 위협 받는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 단순히 자산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뛰어 넘는다(박스 1.2 참조).

출처: OECD(2015), *How's Life? 웰빙 측정*,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웰빙 측정의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관한 “리우+20” 지속가능발전회의(UN 경제사회국, 2012)의 초점이 여기에 해당했다. 리우+20에서 시작하여 2015년 모든 UN 회원국은 보편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채택했다. 이러한 목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 약속을 통해 웰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실천에 옮긴다. 범부처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IAEG)에서 제안한 169개의 세부 목표와 232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17가지 목표의 원대한 의제를 설정했다(UN 통계국, 2017). *SDG 세부 목표와의 차이 측정*(OECD, 2017a)이라는 새로운 OECD 연구에 기술된 바와 같이, SDG와 OECD의 웰빙 프레임워크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 의도와 측정 방식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박스 1.2).

*How's Life? 2017*에 실린 데이터는 웰빙에 대한 국제적인 견해를 제공한다. 세계적 추세와 공통의 경험을 기술할 뿐 아니라 OECD와 파트너 국가에 상대적 강점과 약점 분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은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며, 최근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측정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OECD 활동은 국가별로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웰빙에 대해 수집한 상세한 정보와 일반 시민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더욱 풍부하고 정성적인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How's Life?*의 이번 장에서는 2005년 이후 삶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비롯해 OECD 국가의 웰빙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현재 웰빙에 대한 가장 최신 데이터,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요약하고 향후 통계적 의제를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 웰빙 수준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웰빙 불평등을 조사하는 제2장(즉 OECD 국가 내 결과 분포)에 의해 보완된다. 제3장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웰빙 성과를 기술함으로써 많은 OECD 국가에서 중요한 소수 집단의 경험을 살펴본다. 제4장은 특히 사람들의 공공 기관과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거버넌스와 웰빙 문제를 검토한다. 제5장과 제6장은 OECD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3개국(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과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포함된 파트너 3개국(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각 OECD 국가의 웰빙 현황을 제시한다.¹ 국가별 현황은 각 국가의 평균 성취 수준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의 웰빙과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뿐 아니라 2005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약한다.

박스 1.2.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및 진단 도구인 반면, 2030 의제는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한 정책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의제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서 고려한 모든 측면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 1.2와 같다.

- 17개 SDG 중 8개는 현재의 웰빙에 대한 OECD 프레임워크의 11가지 측면 중 9가지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대일로 일치한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한 SDG 3은 OECD의 “건강 상태”와 연관된다. 그런데 하나 이상의 SDG가 하나의 OECD 웰빙 차원과 관련된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각각 빈곤과 식량에 관한 SDG 1과 2의 다양한 측면은 OECD의 “소득과 자산”에 대응한다. 하나의 SDG가 여러 OECD 차원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SDG 8의 양질의 일자리 측면은 OECD의 “일자리와 임금” 및 “일과 삶의 균형”에 대응한다.
- 17개 SDG 중 3개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상호 교차하는 “불평등”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평등 해소에 관한 SDG 10의 경우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빈곤에 관한 SDG 1도 특히 하위 40%의 소득을 올리는 세부 목표를 통해서 불평등을 다루며, 양성 평등에 관한 SDG 5는 특정 인구 집단이 겪는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SDG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ing no one behind)”에 중점을 두는 것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다양한 인구 특성 전반에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OECD 프레임워크에서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4가지 유형의 “자본 자산”은 17개 SDG 중 11개를 명확하게 반영한다. 지속 가능한 생산에 관한 SDG 12, 기후에 관한 SDG 13, 해양에 관한 SDG 14, 생물다양성에 관한 SDG 15의 주요 특징은 자연 자본이다. 에너지에 관한 SDG 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에 관한 SDG 8, 인프라에 관한 SDG 9에서는 경제 자본을 인정한다. 인적 자본은 건강에 관한 SDG 3, 교육에 관한 SDG 4의 초점이며, 사회 자본은 제도에 관한 SDG 16에서 다룬다. 일부 경우에 동일한 SDG는 현재 웰빙 및 지속가능성 모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한 SDG 3은 사망률과 질병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미래를 위한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비록 건강에 관한 SDG 3에 “모두를 위한 웰빙 증진”이 포함되지만 OECD의 현재 웰빙 프레임워크의 2가지 차원, 즉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만이 SDG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2030 의제의 두 가지 측면은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SDG 17(시행 수단)이며, 이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가별 정책 대신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에 집중하기 위해 ‘How’s Life?’의 선택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2030 의제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는 데 있어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이것은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주요 요소지만(OECD, 2015a, OECD, 2013a) 지금까지 ‘How’s Life?’는 국가 간 상호관계와 웰빙 성취보다는 각 OECD 국가에서 지배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췄다. 2030 의제에서 글로벌 공공재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과 소비 패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환영할 만한 특징이며, *지속가능발전 측정에 관한 유럽통계기 관장회의의 권고(UNECE, 2014)*의 권고사항에 강조된 “다른 곳(elsewhere)” 차원을 표현한다.

박스 1.2.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UN 지속가능발전목표(계속)

그림 1.2.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2030 의제 비교

OECD 웰빙 프레임워크	지속가능발전목표	
 소득과 자산	SDG 1(빈곤), SDG 2(식량)	
 일자리와 임금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주거	SDG 11(도시)	
 건강 상태	SDG 3(건강)	
현재 웰빙  일과 삶의 균형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교육과 역량	SDG 4(교육)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SDG 16(제도)	
 환경의 질	SDG 6(물), SDG 11(도시)	
 개인적 안전	SDG 16(제도)	
현재 웰빙의 불평등	SDG 1(빈곤), SDG 5(여성), SDG 10(불평등)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자연 자본	SDG 13(기후), SDG 14(해양), SDG 15(생물다양성), SDG 12(지속 가능한 생산)
	 경제 자본	SDG 7(에너지),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SDG 9(인프라), SDG 12(지속 가능한 생산)
	 인적 자본	SDG 3(건강), SDG 4(교육)
	 사회 자본	SDG 16(제도)
SDG에서 다루지 않는 OECD의 현재 웰빙 차원	 주관적 웰빙	
	 사회적 관계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지 않는 SDG의 요소	SDG 17(시행) “글로벌 기여, 초국가적 영향, 국제적 노력”	

출처: OECD (2017a), SDG 목표와의 연관성 측정: OECD 국가의 현황 평가, OECD 출판국, 파리, www.oecd.org/std/measuring-distance-to-the-sdgs-targets.htm.

현재 웰빙: 2017년의 삶은 어떠한가?

최신 자료에 따르면 평균 OECD 거주자²는 순가처분소득이 31,000달러에 약간 못 미치며, 평균 순자산이 330,000달러를 조금 넘는 가구에 살고 있으며(15~64세인 경우) 직업을 가질 확률이 67%이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총 연수입이 평균적으로 약 44,000달러이다. OECD 근로자의 1/3 이상은 작업 요구(예: 육체적 요구, 노동 강도, 근무 시간의 유연성 부족)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직무 자원(예: 업무 재량권 및 자율성, 교육 및 학습 기회, 승진 기회)을 초과하는 ‘직무 긴장(job strain)’을 경험한다. 2016년 OECD 노동인구의 2%는 1년 이상 실업 상태였다. OECD 평균 주택에는 1인당 1.8개의 방이 있지만, 2.1%가 기본 위생시설(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부족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가구는 모기지예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제외하고 주택 임대료와 유지비로 가처분소득의 19%를 지출한다.

OECD의 근로자 8명 중 1명은 정기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며, 정규 직원의 경우 여가와 개인 생활(수면 포함)에 소비하는 평균 시간이 하루 15시간 미만이다. 건강 상태 측면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신생아는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이지만 69%만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한다. 거의 3/4이 최소한 고등 교육을 받는다. 사회적 지원에 관해서는 거의 89%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다. 유권자의 2/3가 가장 최근 선거에서 투표를 한 반면, OECD 거주자의 1/3만이 정부가 자국에서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적으로 OECD 거주자는 WHO가 권장하는 한도인 1m³당 10 μ g보다 약 40% 높은 수준으로 초미세먼지(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에 노출된다. OECD 국민의 약 80%는 지역 상수도의 질에 만족한다. 현재 OECD의 살인율은 평균 10만 명당 3.6명이며, 2/3 정도가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0~10까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평균 OECD 거주자는 7.3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본 보고서에서 보듯이 OECD 국가 내에서(제2장) 그리고 국가 간에(제5장) 사람들의 웰빙 경험에는 큰 차이가 있다. 쉬운 설명을 위해 현재 웰빙에 대한 중심 지표 세트는 그림 1.1과 같이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영역으로 나뉜다. 표 1.1과 1.2는 각 국가가 OECD의 상위(1), 중간(2) 또는 하위(3) 1/3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평가하여 국가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요약한다.³ 파트너 국가(표 1.4 및 1.5)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성취 수준은 OECD 국가의 상위, 중간, 하위 1/3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1)은 파트너 국가가 전체 OECD 국가의 상위 1/3과 동등한 성취 수준이며 (2)는 전체 OECD 국가의 중간 1/3과 동등하고 (3)은 전체 OECD 국가의 하위 1/3에 해당한다.

현재 물질적 조건의 수준(표 1.1)에 관해서는 일부 OECD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우수하지만 전체 10개 지표에서 보편적으로 좋은 (또는 나쁜) 성과를 낸 국가는 거의 없다.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은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를 포함하는 지표의 4/5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다. 또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은 중간 수준의 실적을 내는 일부 분야가 있지만 지표에 대한 상대적 약점을 가진 분야는 없다.

표 1.1. 물질적 조건에서 상대적 강점 및 약점, OECD 국가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		
	가구 순가처분 소득	가구 순자산	고용률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수입	노동시장 불안정	장기 실업률	직무 긴장	1인당 방의 수	주택 구매력	기본 위생시설
호주	1	1	1	1	2	2	2	1	1	..
오스트리아	1	1	2	1	2	2	2	2	2	2
벨기에	1	1	3	1	3	3	1	1	2	2
캐나다	1	1	1	1	2	1	1	1	2	1
칠레	..	3	3	3	3	..	3	2	1	3
체코	2	..	2	3	1	2	3	3	3	2
덴마크	2	3	1	1	1	1	1	2	3	2
에스토니아	3	3	2	3	2	2	2	2	1	3
핀란드	2	2	2	2	2	2	1	2	3	1
프랑스	1	2	3	2	3	3	1	2	2	2
독일	1	2	1	2	1	2	2	2	2	1
그리스	3	3	3	3	3	3	3	3	3	2
헝가리	3	3	2	3	3	2	3	3	1	3
아이슬란드	1	1	1	1	2	2	3	1
아일랜드	2	2	3	1	1	3	1	1	2	1
이스라엘	2	2	1	1	2	3
이탈리아	2	2	3	2	3	3	2	3	3	2
일본	2	..	1	2	1	1	3	2	2	3
한국	2	2	2	3	1	1	3	3	1	3
라트비아	3	3	2	3	..	3	2	3	3	3
룩셈부르크	..	1	2	1	2	2	1	1	..	1
멕시코	3	..	3	3	2	1	3	3	2	3
네덜란드	2	3	1	1	1	3	1	2	1	1
뉴질랜드	..	1	1	2	3	1	1	1	3	..
노르웨이	1	2	1	1	2	1	1	1	1	1
폴란드	3	3	3	3	2	2	3	3	3	3
포르투갈	3	2	2	3	3	3	2	2	2	2
슬로바키아	3	3	3	3	3	3	3	3	3	2
슬로베니아	3	2	2	2	2	3	2	2	1	1
스페인	2	1	3	2	3	3	2	2	2	1
스웨덴	1	..	1	2	3	1	1	2	1	1
스위스	1	..	1	1	1	2	3	2	2	1
터키	3	..	3	2	3	3	1	3
영국	2	1	1	2	1	1	2	1	3	1
미국	1	1	2	1	2	1	1	1	1	1

주: 각 국가가 OECD의 상위(1), 중간(2) 또는 하위(3) 1/3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지표 정의는 제5장의 표 5.1에 나와 있다. 모든 소스 데이터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웹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표 1.2. 삶의 질에서 상대적 강점 및 약점, OECD 국가

	일과 삶의 균형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 질		개인적 안전		SWB*
	근로 시간	휴식	기대 수명	인지된 건강	교육 성취도	성인 역량	15세의 인지 능력	사회적 지원	정부 내 발언권	투표율	수질	대기 질	살인율	안전감	삶의 만족도
호주	3	3	1	1	2	2	2	1	2	1	1	1	2	3	2
오스트리아	2	3	2	2	2	2	2	2	2	2	1	3	1	1	1
벨기에	2	1	2	1	3	1	2	2	2	1	2	2	2	2	2
캐나다	1	3	2	1	1	2	1	1	2	2	1	1	3	1	1
칠레	3	..	3	3	3	3	3	3	1	3	3	3	3	3	..
체코	2	..	3	3	1	2	2	2	3	3	2	3	2	2	3
덴마크	1	1	2	2	2	2	2	1	1	1	1	1	2	1	2
에스토니아	1	2	3	3	1	2	1	2	2	2	2	1	3	2	3
핀란드	1	1	2	2	1	1	1	1	1	2	1	1	3	1	1
프랑스	3	1	1	2	2	3	2	3	3	2	2	2	1	2	2
독일	2	1	3	3	2	2	1	1	3	2	1	2	1	2	2
그리스	2	..	2	1	3	3	3	3	1	2	3	3	2	3	3
헝가리	1	..	3	3	2	..	3	3	..	3	3	3	3	3	3
아이슬란드	1	1	3	..	3	1	..	1	1	1	2	1	1
아일랜드	2	..	2	1	2	3	1	1	2	2	2	1	1	2	2
이스라엘	3	..	1	1	1	3	3	3	2	2	3	3	3	2	..
이탈리아	1	2	1	2	3	3	3	2	3	1	3	3	2	3	3
일본	..	2	1	3	..	1	1	2	3	3	2	2	1	2	..
한국	..	3	1	3	1	2	1	3	1	1	3	3	2	3	3
라트비아	1	3	3	3	1	..	3	3	..	3	3	2	3	3	3
룩셈부르크	1	..	1	2	2	..	3	2	..	1	2	2	1	2	2
멕시코	3	..	3	2	3	..	3	3	..	3	3	2	3	3	1
네덜란드	1	..	2	1	2	1	1	2	1	1	1	2	1	1	2
뉴질랜드	3	2	2	1	3	1	1	1	1	1	1	1	3	3	1
노르웨이	1	1	1	1	2	1	2	1	1	1	1	1	1	1	1
폴란드	2	3	3	3	1	2	2	3	2	3	3	3	2	2	2
포르투갈	3	..	2	3	3	..	2	3	..	3	2	1	2	2	3
슬로바키아	2	..	3	2	1	2	3	2	3	3	2	3	2	3	3
슬로베니아	2	2	2	3	1	3	1	2	3	3	2	3	1	1	2
스페인	2	1	1	2	3	3	2	1	3	2	3	2	1	1	3
스웨덴	1	1	1	1	2	1	2	2	1	1	1	1	2	2	1
스위스	1	1	1	..	1	1	..	3	1	2	1	1	1
터키	3	..	3	2	3	3	3	3	3	1	3	3	3	3	..
영국	3	2	2	2	2	2	2	1	2	2	2	2	1	1	1
미국	3	3	3	1	1	3	2	2	1	2	2	1	3	2	..

* SWB는 주관적 웰빙을 나타낸다.

주: 각 국가가 OECD의 상위(1), 중간(2) 또는 하위(3) 1/3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지표 정의는 제5장의 표 5.1에 나와 있다. 모든 소스 데이터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삶의 질(일과 삶의 균형,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을 다루는 결과 중에서 유사하게 전체 15개 지표에서 모두 강점을 보인 국가는 없었다(표 1.2). 삶의 질 결과의 2/3 이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국가는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이다. 약점에 있어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유일하게 OECD의 하위 1/3에 속하는 결과가 없는 3개 국가이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현재 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훨씬 더 제한적이다. 표 3.1은 OECD와 동등한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즉 성취 수준을 감안할 때 파트너 국가는 OECD 국가의 상위, 중간 또는 하위 1/3에 속하는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모든 파트너 국가가 주택 구매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주택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한편 모든 국가는 기대수명, 살인율, 안전감 측면에서 상대적 약점을 가진다. 파트너 국가의 성과는 장기 실업률, 근로시간, 교육 성취도, 투표율, 대기의 질과 관련하여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일부 국가는 OECD의 상위 1/3과 동등한 성과를 거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는 하위 1/3에 해당한다.

표 1.3. 현재 웰빙에 관한 OECD와 동등한 상대적 강점과 약점, 파트너 국가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		
	가구 순가처분 소득	가구 순자산	고용률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수입	노동시장 불안정	장기 실업률	직무 긴장	1인당 방의 수	주택 구매력	기본 위생시설
브라질	③	③
콜롬비아	②	①	..	③	①	..
코스타리카	③	②	..	③	①	②
리투아니아	③	..	②	③	..	③	③	②	①	③
러시아	②	②	③	③	①	③
남아프리카공화국	③	③	②	..	①	③

	일과 삶의 균형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SWB*
	근로 시간	휴식	기대 수명	인지된 건강	교육 성취도	성인 역량	15세의 인지 능력	사회적 지원	정부 내 발언권	투표율	수질	대기 질	살인율	안전감	삶의 만족도
브라질	②	..	③	..	③	..	③	②	..	①	③	②	③	③	..
콜롬비아	③	..	③	..	③	..	③	②	..	③	③	①	③	③	..
코스타리카	③	..	③	..	③	..	③	②	..	②	②	①	③	③	..
리투아니아	①	..	③	③	①	②	③	③	①	③	③	②	③	③	③
러시아	①	..	③	③	①	②	②	②	①	②	③	②	③	③	..
남아프리카공화국	③	②	③	..	③	③	..	②	③	③	③	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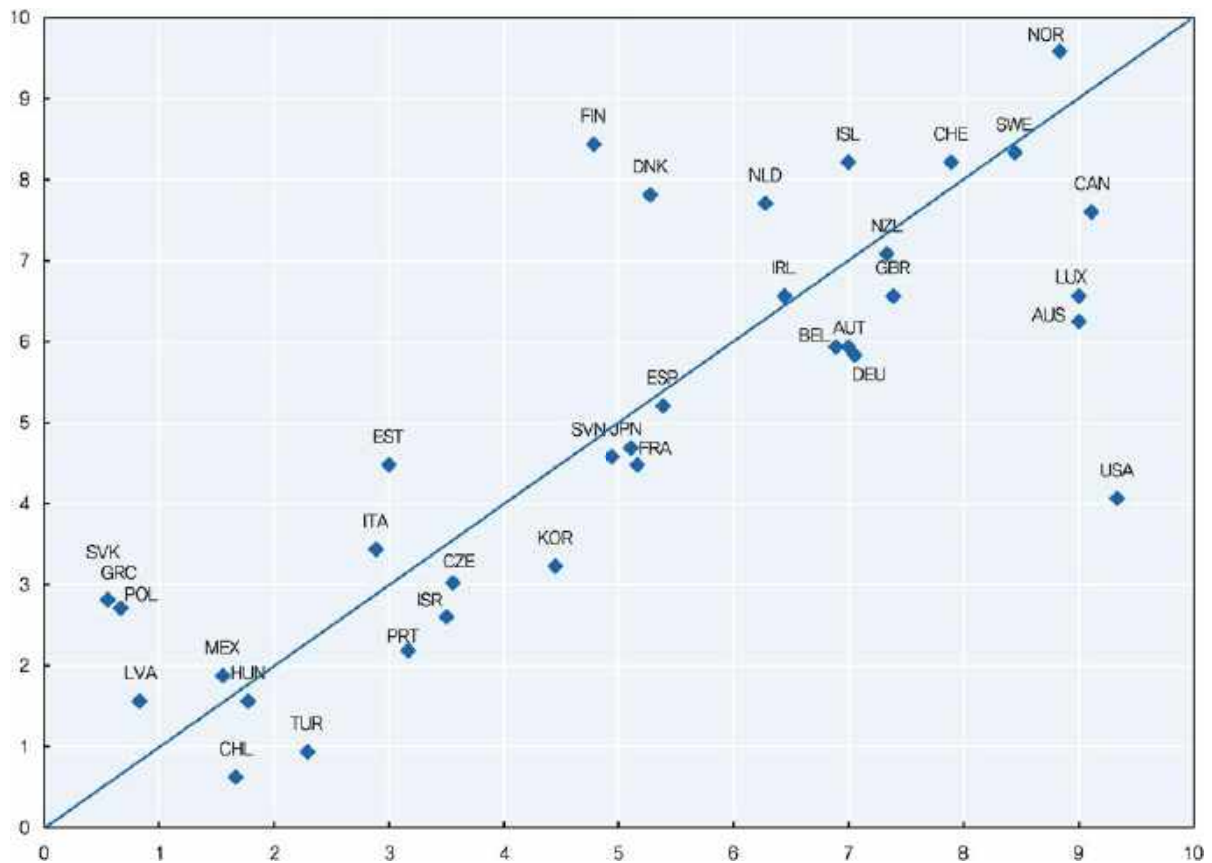
* SWB는 주관적 웰빙을 나타낸다.

주: 이 표에 표시된 순위는 “OECD와 동등한” 순위를 나타낸다. 즉 파트너 국가의 성취 수준은 OECD 국가의 상위, 중간, 하위 1/3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표 정의는 제5장의 표 5.1에 나와 있다. 모든 소스 데이터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 how life-2017-en).

일반적으로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결과에 대한 상대적 성과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표 1.3).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는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영역 모두에서 많은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우측 상단). 반대로, 칠레, 터키, 헝가리, 멕시코, 라트비아(좌측 하단)는 물질적 조건 또는 삶의 질에서 상대적 강점이 거의 없다. 파란색 대각선 위에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조건에 비해 삶의 질 결과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낸다. 대각선 아래에 있는 국가들은 그 반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덴마크는 물질적 조건에서 중간 위치인데 반해 삶의 질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대로, 미국, 호주,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상대적 위치와 비교할 때 물질적 조건에서 많은 상대적 강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3의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 사분면에 속하는

그림 1.3. 물질적 조건(x-축)과 삶의 질(y-축)에 대한 상대적 성과
OECD 국가, 최신 데이터



주: 물질적 조건은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 등 3가지 차원에 걸쳐 10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삶의 질은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상태,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등 8가지 차원에서 15개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각 지표에 대해 각국은 상대적 성과(0=OECD의 하위 1/3, 5=OECD의 중간 1/3, 10=OECD의 상위 1/3)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 다음 차원에 걸쳐 평균을 내기 전에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카테고리의 각 차원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차원 내에서 점수를 평균한다(각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누락된 데이터 점수는 각 국가의 점수에서 제외되므로 데이터 격차가 큰 경우에 점수가 크게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파란색 대각선은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에 대한 성과가 완벽히 일치하는 국가가 해당하는 선이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451>

국가는 매우 드물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 조건의 중간 수준을 달성하지 않고 삶의 질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OECD 국가는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웰빙과 불평등

제2장에서는 OECD 국가의 웰빙 불평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누가 무엇을 차지하는가”라는 질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장에서는 불평등 측정에 대한 여러 접근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 격차 크기에 집중한 “수직적 불평등”(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상위 20%의 평균 점수와 하위 20%의 평균 점수 비교), 특정 인구 집단(남성과 여성, 또는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평균 성과의 격차에 집중한 “수평적 불평등”, 기본적인 성취 임계점 이하의 비율을 고려하는 “결핍”이 포함된다.

현재 웰빙에 대한 평균 성과 수준과 인구 전체의 성과 분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를 탐구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수직적 불평등”의 척도를 고려한다. 이는 웰빙 점수의 전반적인 분산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즉 분포의 상위와 하위에 속하는 사람 간 격차의 크기). 표 1.4에는 9개의 현재 웰빙 성과가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해 “수직적 불평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표에서 불평등은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에서 가장 높았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가장 낮았다(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그림 1.4는 이러한 9개 지표에 대해 국가별로 성취한 평균 성과 수준과 인구 전체에서 해당 결과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요약한다. 이번 장에서 제시한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표 1.4. 평균 성과와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현재 웰빙 성과

차원	결과	수준 지표	불평등 지표 (수직적 불평등)
소득과 자산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순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 가구순자산	S80/S20 가구 가처분소득 S90 가구순자산
일자리와 임금	수입	정규 직원당 연평균총수입	P90/P10 총수입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S80/S20 근로시간
건강 상태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여명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교육과 역량	성인 역량	문해력 및 수리력 PIAAC 평균 능숙도	문해력 및 수리력 P90/P10 평균 능숙도
	15세의 인지 능력	읽기, 과학, 수학 PISA 평균 점수	읽기, 과학, 수학 P90/P10 평균 점수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정부 내 발언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16~65세의 비율	S80/S20 정부 내 발언권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평균 값, 0-10 척도	S80/S20 삶의 만족도

주: 불평등 지표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장에 나와 있다. 중심 지표에 대한 정의와 측정 단위에 관한 추가 정보는 제5장에 나와 있다. S80/S20는 분포의 하위 20%의 평균 결과 대비 상위 20%가 달성한 평균 결과의 비율을 나타낸다. P90/P10는 90번째 백분위수에서 달성한 결과와 10번째 백분위수에서 달성한 결과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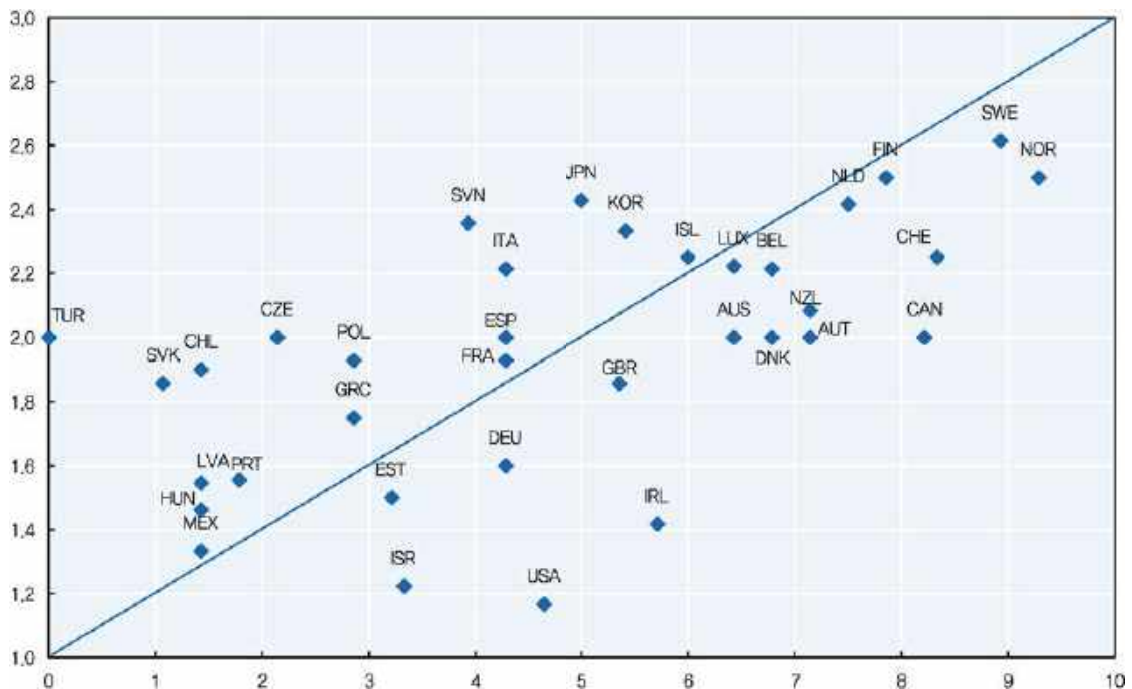
평균 성과는 각 지표에 대해 OECD의 상위, 중간, 하위 1/3에 속하는가를 기반으로 하며, 불평등은 OECD의 최고, 중간, 최하 1/3에 속하는 국가로 이해된다.⁴

그림 1.4의 결과 패턴은 평균 성과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9개 지표에서 수직적 불평등이 낮고 평균 웰빙 수준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우측 상단)이다. 반대로 평균 웰빙 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직적 불평등이 높은 국가로는 멕시코,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좌측 하단)이 있다. 파란색 대각선보다 위에 있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평균 성과 측면보다 평등 측면에서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는 전반적인 평균 성과 측면에서 OECD 중간 지점에 위치하지만 불평등 측면에서 약간 더 나은 편에 속한다. 반대로 대각선 아래에 있는 국가는 불평등에 비해 평균 성과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 예를 들어, 미국과 아일랜드는 중간 수준의 평균 성과와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이 분석 결과는 누락된 값의 비율에 민감한데,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위스, 터키, 일본의 경우 누락된 값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웰빙의 변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 몇몇 OECD 국가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 기간

그림 1.4. 9개 현재 웰빙 지표 중 하나에 대한 평균 성과와 불평등 사이의 상관관계
1-3 척도의 평균 불평등(y-축)에 대해 표시된 0-10 척도의 평균 성과(x-축)



주: 9개의 각 지표에 대해 각국은 평등 수준(1=OECD의 하위 1/3, 2=OECD의 중간 1/3, 3=OECD의 상위 1/3)과 평균 성과 수준(0=OECD의 하위 1/3, 5=OECD의 중간 1/3, 10=OECD의 상위 1/3)에 따라 “평가”된다. 하나 이상의 지표가 있는 차원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지표를 합산한 다음 전체 차원에서 단순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전체 결과를 계산했다. 파란색 대각선은 평균 성과 수준과 평균 평등 수준이 완벽히 일치하는 국가가 해당하는 선이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470>

동안 사람들의 웰빙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분석은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5년보다 현재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의 최근 변화를 조사한다. 전체 OECD의 현재 웰빙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드문 데이터 수집, 시계열 데이터를 가로막는 방법론적 중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잡해진다. 박스 1.3(아래)은 일반적인 접근법을 설명한다.

박스 1.3. 현재 웰빙의 변화 평가

10가지 물질적 조건 지표¹ 전체와 15가지 삶의 질 지표 중 11가지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국가 범위, 방법론적 중단,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OECD 평균에는 전체 OECD 국가가 포함되지 못했다. 아래의 그림과 표에서 OECD 평균에 포함된 국가의 수는 그림의 범례에 괄호로 표시되며(예: OECD 33) 일반적으로 인구 가중치이다(그림 주석에 표시). 이 과정을 통해 인구가 적은 국가에 비해 인구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며, “평균 OECD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평균 OECD 국민”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된다. 누락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OECD 파트너 국가의 현재 웰빙 변화는 아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5장의 국가별 현황은 전체 35개 OECD 국가와 6개 파트너 국가의 평균 웰빙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2005~2015/2016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주 수집되지 않는 지표(예: 가구순자산, 1인당 방의 수, 기본적인 위생시설) 또는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포착하는 지표(예: 투표율)의 경우, OECD 평균은 계산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년간(3년 또는 5년)으로 계산된다. 갤럽 세계 설문조사(Gallup World Poll)에서 제공한 데이터의 경우, 표본 크기를 늘리고(일반적으로 국가당 연간 1,000명으로 제한) 데이터의 단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3년 평균이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대기의 질 평가에 사용되는 초미세먼지(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노출은 OECD의 녹색성장지표(Green Growth Indicators)에서 채택된 접근법에 따라 3년 연속 평균으로 계산된다(OECD, 2017b).

OECD 평균과 개별 국가의 시계열에 대한 전체 정보는 본 간행물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 자세히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life-2017-en). 해당 국가에 대한 시계열이 9년 미만인 경우, 그림 1.9와 1.16에 나와 있는 분석에서 제외되고 그림 1.10, 1.17, 1.18에 “누락”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예외는 모든 국가에서 단 2개의 시점만 사용할 수 있는 가구순자산과 대부분의 OECD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계열의 중대한 중단으로 인해 가장 최근 3년만 고려된 고등 교육 성취도이다.

국가 간 결과를 설명하는 요약 그림(그림 1.9, 1.10, 1.16, 1.17, 1.18)에서 2005년과 2015년(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한다. 카테고리 “개선”,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악화”는 그림 주석에 설명된 임계점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제5장의 부록 5.A에서 설명한다. 소수의 지표(특히, 기본적인 위생시설, 장기 실업률, 장시간 근무 빈도, 살인율)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OECD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해당 국가에서 관찰된 총 개선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 그림 1.10, 1.17, 1.18).

1 OECD 평균 가구순자산 변화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시간에 따른 데이터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특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6개국에 대해 2008~2016년 동안 2년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 1.9에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물질적 조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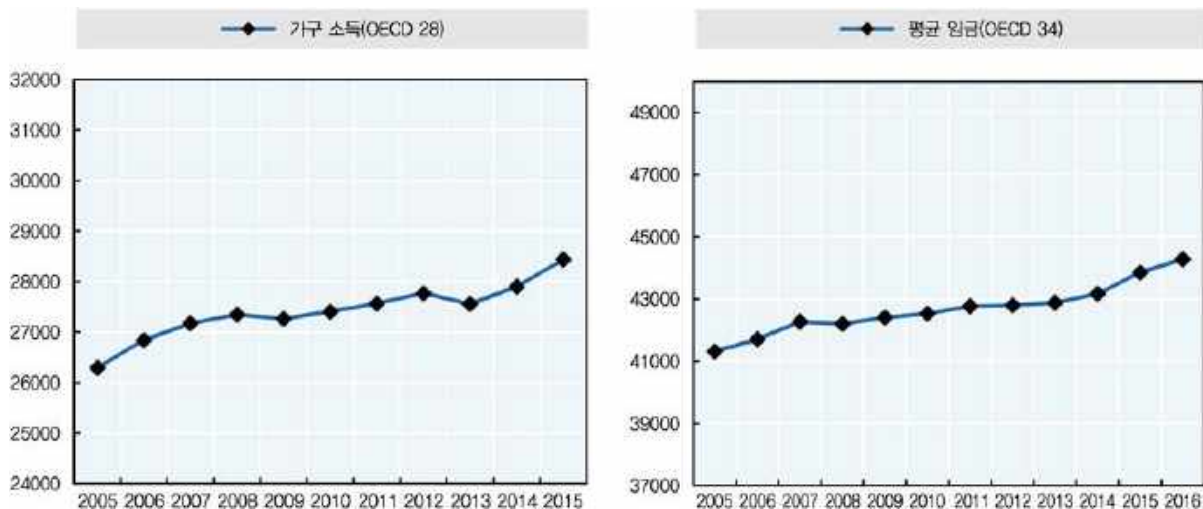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OECD 국가들은 여러 물질적 조건(특히 일자리)에 대해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OECD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실질적으로 8% 더 높았고,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수입은 2016년에 7% 증가했다(그림 1.5).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전후 사정에 대입해보면 이는 1995년과 2005년 사이에 관찰된 누적 성장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1995~2005년의 속도로 성장했다면 OECD 평균 소득이 2배가 되는 데 약 40년이 걸렸을 것이고, 2005~2015년의 속도로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면 85년이 걸릴 것이다.⁵

고용률은 금융위기 초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었다. 고용률이 2005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10년이 걸렸으며, 2016년에는 2007년 최고점을 겨우 넘어섰다. 일자리의 양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는 직무 긴장을 경험한 유럽 OECD 근로자의 비율이 2005년 42%에서 2010년 43%로 약간 증가했지만, 그 후 2015년에 38%로 하락했다(그림 1.6).

실업으로 인한 OECD 평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4배 증가했고 2010년에 급격히 하락했으며 2015년이 2007년보다 여전히 약 1/3 더 높았지만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다. OECD 평균 장기 실업률은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2.1%에서 1.5%로 하락했고, 이후 2013년에 2.8%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후 2005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그림 1.7).

그림 1.5. 2005년 이후 OECD 평균 가구소득과 임금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 OECD 28(좌측) 및 2016년 PPP일 때 달러, OECD 34(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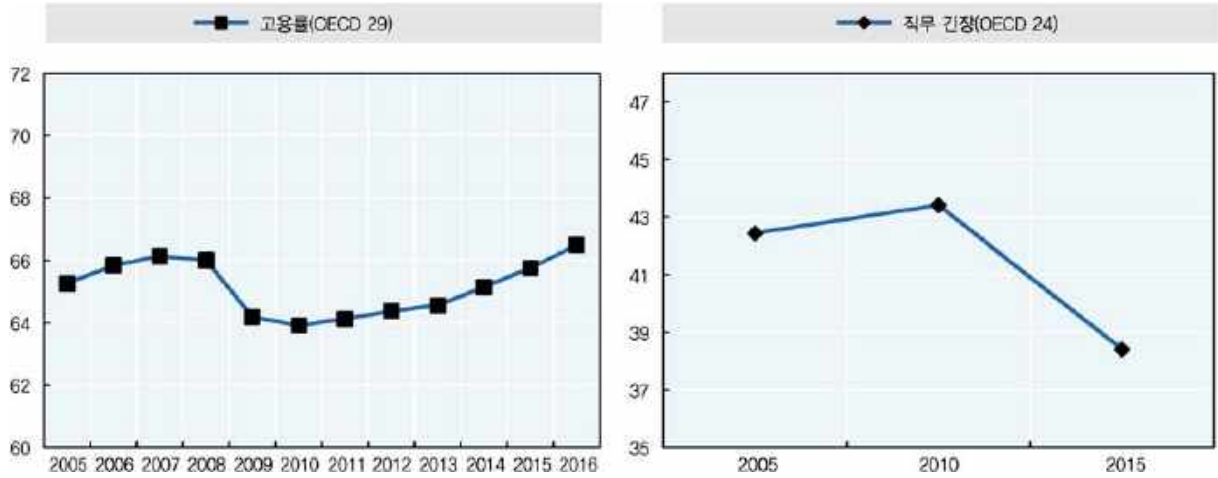
주: OECD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임금의 경우, OECD 평균은 각 국가의 직원 수에 의해 가중되고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가구소득: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평균 소득: OECD 연평균 임금 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489>

그림 1.6. 2005년 이후 OECD 평균 고용률과 직무 긴장
15~64세 고용 인구 비율(좌측),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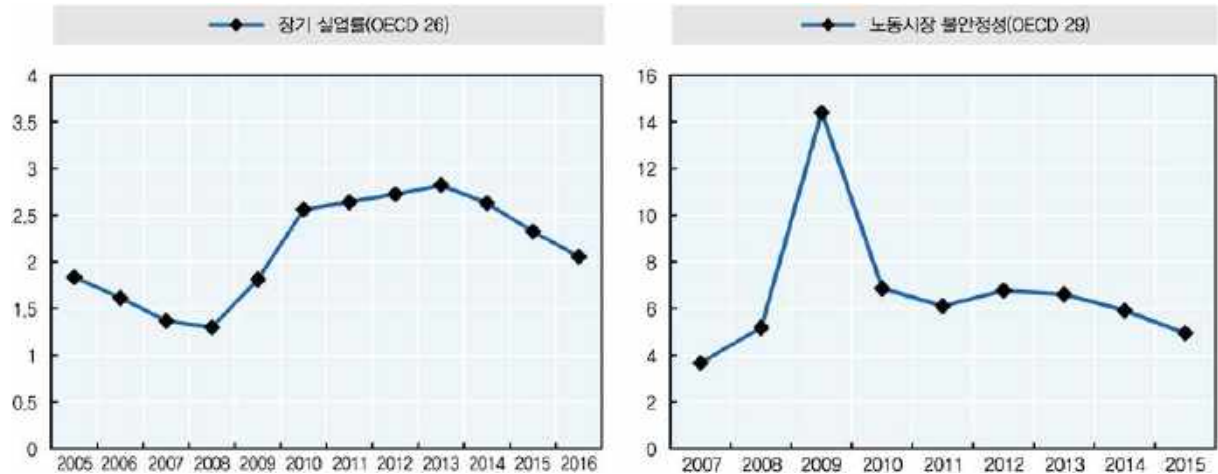
주: OECD 평균 고용률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는 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OECD 평균 직무 긴장은 인구 가중치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고용: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직무 긴장: OECD 일자리의 질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작성된 잠정적(2017년 9월) 추정치,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508>

그림 1.7. 2005년 이후 OECD 평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직한 노동인구 비율(좌측), 이전 임금 비율로서 실직 상태와 관련한 평균 예상 금전적 손실(우측)



주: OECD 평균 장기 실업률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독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OECD 평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한국,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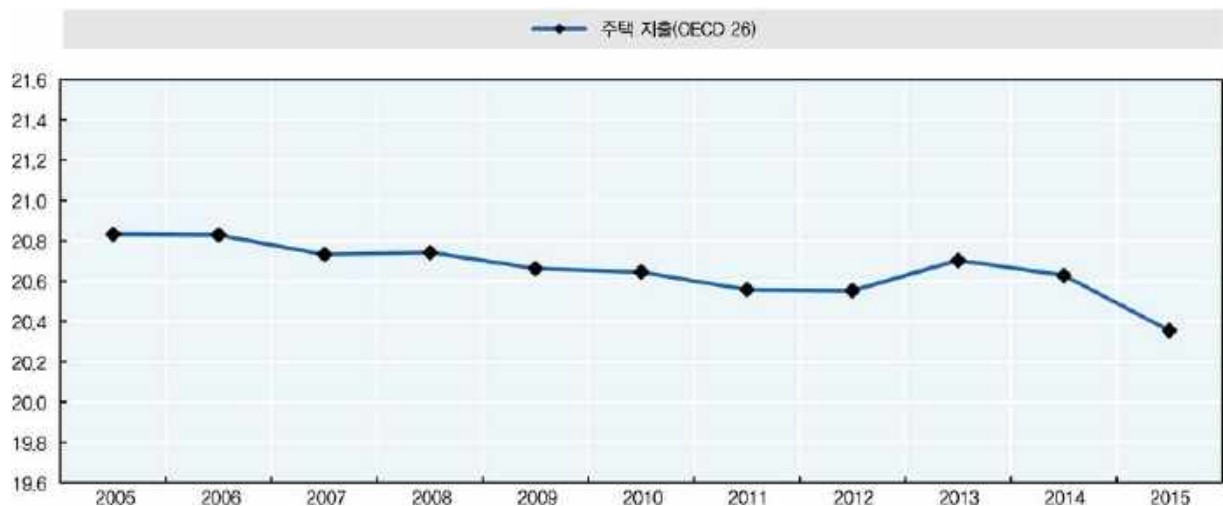
출처: 장기 실업률: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노동시장 불안정성: OECD 일자리 질 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527>

평균 OECD 거주자의 주거 결과는 개선되었고 기본적인 위생시설 지표가 가장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평균 비율은 약 1/3 하락했다.⁶ 주택 비용에 지출된 소득 비율은 2005년 이후 약 0.5% 포인트 하락했으며(그림 1.8) 변화 정도를 평가한 국가에서 평균 OECD 주택의 1인당 방 수 역시 1.8에서 1.9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OECD 평균은 국가 경험의 다양성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그림 1.9). 전체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2005년 이후 평균 임금, 가구소득, 고용률이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비율이 거의 또는 전혀 변화하지 않거나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은 스페인(6%), 이탈리아(10%), 그리스(27%)에서 2005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현재 전체 OECD 국가의 절반은 2005년보다 주택 구매력과 장기 실업률이 더 나쁘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 비율은 OECD 국가의 약 1/3에서 개선되었지만 스위스,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에서는 악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마지막으로 측정된 해)에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대체로 2007년(처음 측정된 해)보다 높지만 매우 소수의 국가에서 개선되었다. 전반적으로 물질적 조건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는 독일,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체코 등이 있다(그림 1.10).

그림 1.8. 2005년 이후 OECD 평균 주택 구매력
가계 총가처분소득 비율로서 주택에 대한 평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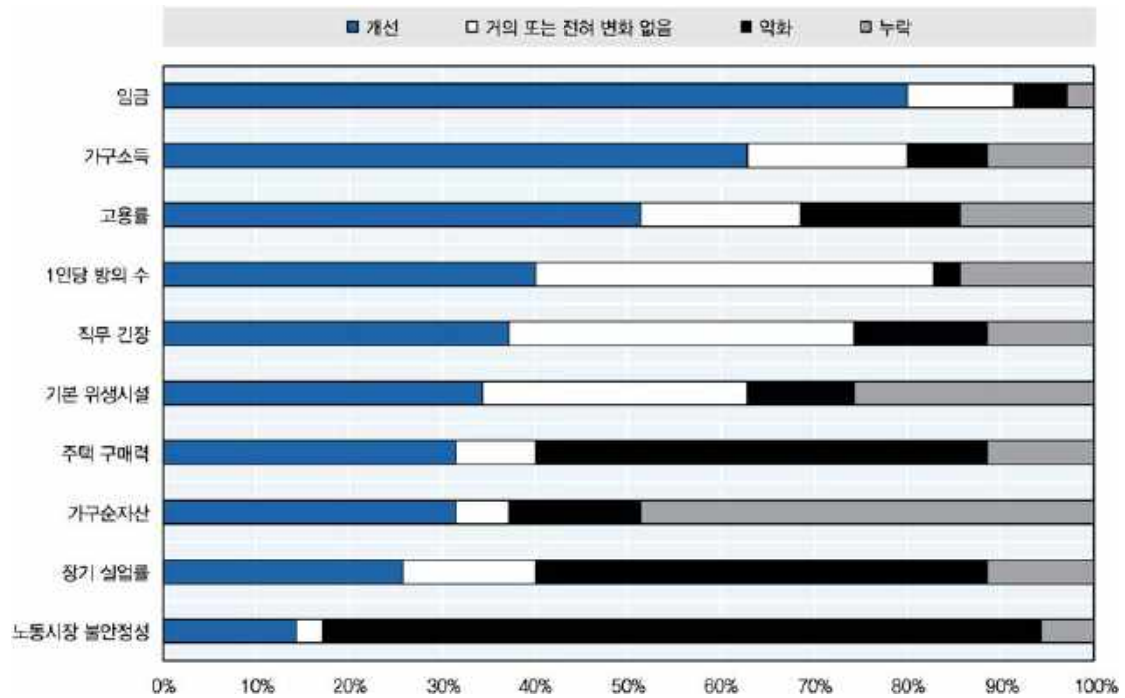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546>

그림 1.9. 2005년 대비 물질적 조건 지표의 변화
OECD 국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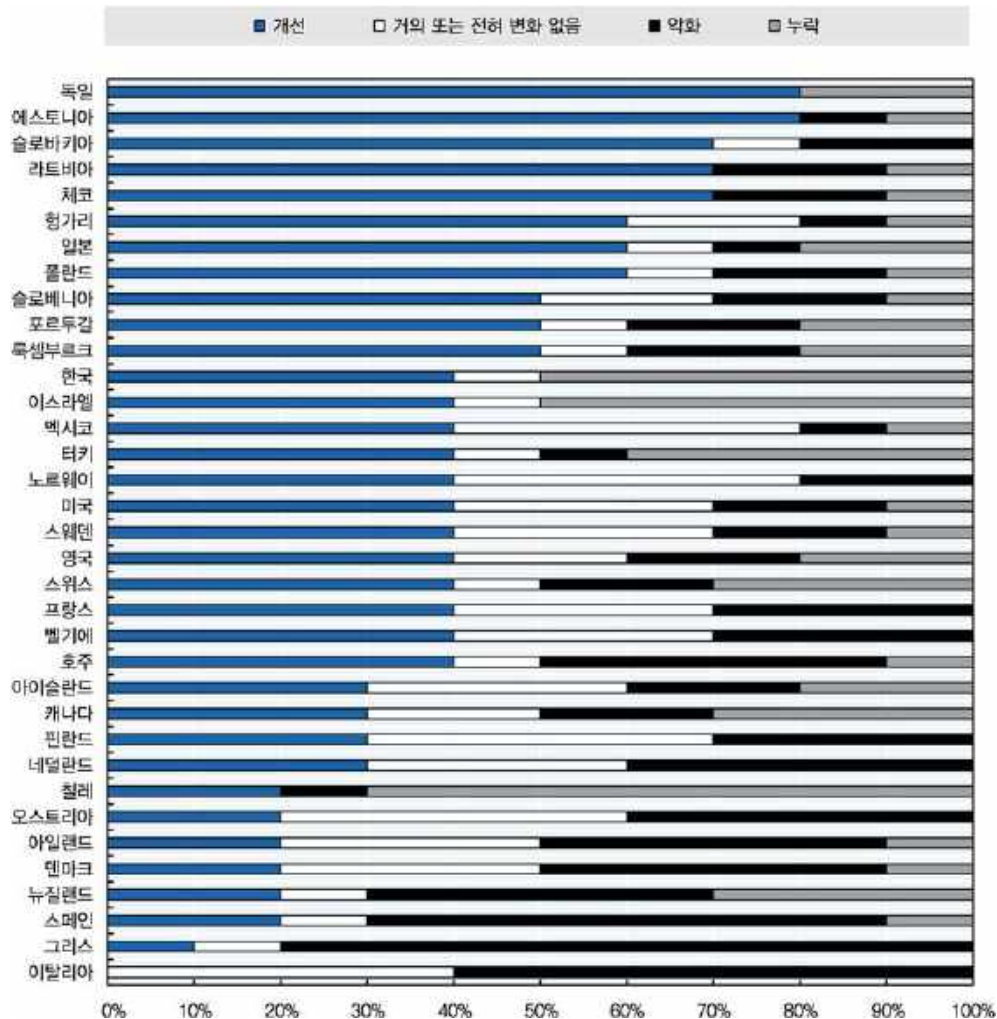


주: 9년 미만의 시계열을 가진 국가는 이 분석에서 제외된다. 단, 모든 국가에서 두 시점의 데이터만 제공한 가구순자산은 예외로 한다. 2005~2015년(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임계점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수입: +/-1,000달러, 가구소득: +/-1,000달러, 고용률: +/-1.0%, 1인당 방의 수: +/-0.1, 직무 긴장: +/-3.0%, 기본 위생시설: +/-0.4%, 주택 구매력: +/-0.4%, 순자산: +/-9,000달러, 장기 실업률: +/-0.2, 노동시장 불안정성: +/-0.3.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부록 5a를 참조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 나와 있다.


(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565>

그림 1.10. 2005년 대비 선택된 물질적 조건 결과의 국가별 변화
지표의 비율(총 10개 지표 중)



주: 9년 미만의 시계열을 가진 국가에 대해 변화는 “누락”으로 표시된다. 단, 모든 국가에서 두 시점의 데이터만 제공한 가구 순자산은 예외로 한다. 소수의 지표(특히, 기본 위생시설 이용, 장기 실업률)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OECD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해당 국가에서 관찰된 총 개선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584>

삶의 질 변화

장시간(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OECD 평균 비율은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거의 1% 포인트 하락했으며, 그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1.11).

평균 OECD 시민의 경우,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거의 2년이 증가했다. 그러나 OECD(인구 가중치) 평균과 전체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5년에 멈췄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의 인지된 건강이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동력을 얻지 못했다(그림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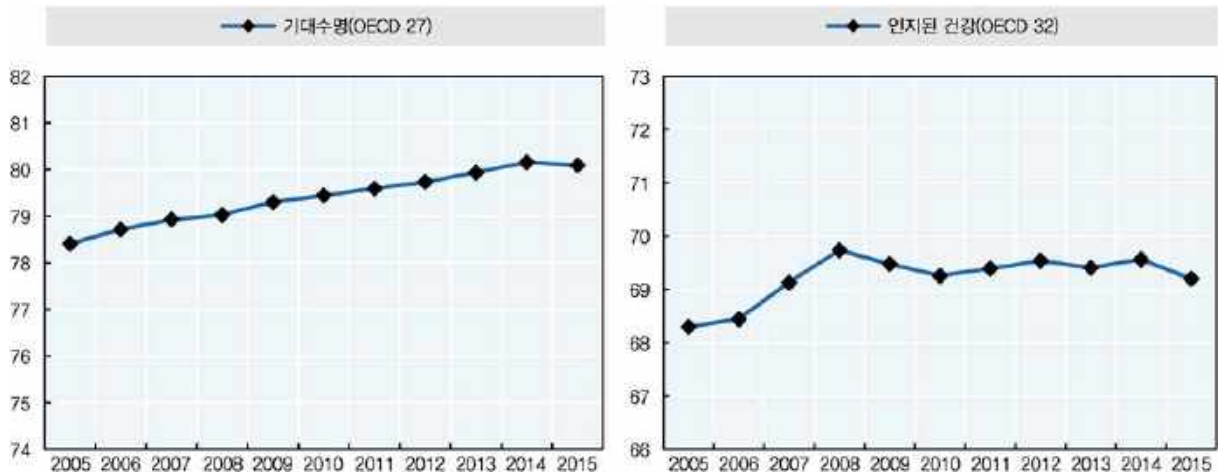
그림 1.11. 2005년 이후 OECD 평균 장시간 근로 직원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 및/또는 데이터 중단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의 “노동력 통계”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603>

그림 1.12. 2005년 이후 OECD 평균 기대수명과 인지된 건강
기간(좌측), “양호” 또는 “매우 좋은” 건강이라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우측)



주: OECD 평균 기대수명은 인구 가중치이며, 벨기에, 캐나다,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인지된 건강의 경우, OECD 평균 시계열은 일부 국가에 대해 시계열의 누락된 데이터 포인트를 내삽하여 추정되었다. 각 국가별로 누락된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이전 해와 다음 해의 평균으로 대체되었다. 시계열에 최소 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고 그 중 적어도 하나가 2014년이나 2015년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OECD 평균에 포함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고 칠레와 스위스(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멕시코(단 2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제공)는 제외되었다.

출처: 기대수명: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인지된 건강: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data-00540-en>과 코스타리카 국민 건강 조사에 기반한 INEC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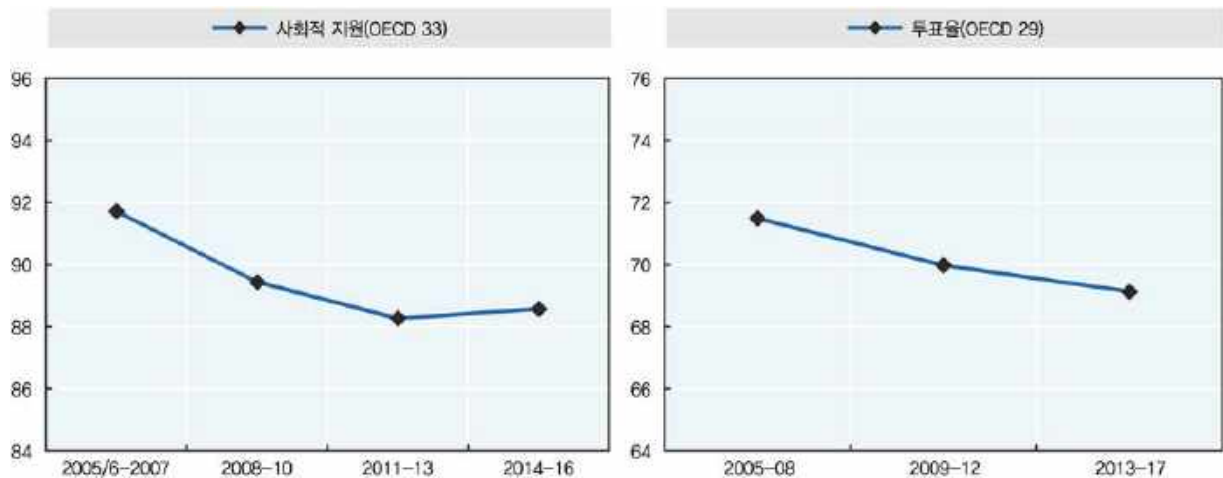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622>

평균 OECD 시민의 경우,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과 2014년 사이에 거의 2년이 증가했다. 그러나 OECD(인구 가중치) 평균과 전체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5년에 멈췄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의 인지된 건강이 약간 개선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동력을 얻지 못했다(그림 1.12).

대부분의 OECD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중단으로 인해 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최소 고등 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73.5%에서 74.6%로 1%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사회적 지원(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은 2005~2007년 92%에서 2014~2016년 8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투표율(투표한 유권자 비율)도 72%에서 69%로 떨어졌다(그림 1.13).

그림 1.13. 2005년 이후 OECD 평균 사회적 지원과 투표율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좌측), 유권자 중 투표한 비율(우측)



주: OECD 평균 사회적 지원은 인구 가중치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투표율의 경우 OECD 평균은 4년 기간에 대해 계산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를 제외해야 했다. 칠레 역시 2012년 의무 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시계열이 중단되어 제외되었다.

출처: 사회적 지원: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투표율: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 협회(IDEA)(2017), www.idea.int, 코스타리카 최고 선거 재판소 등록부, 스위스의 연방통계청(FSO).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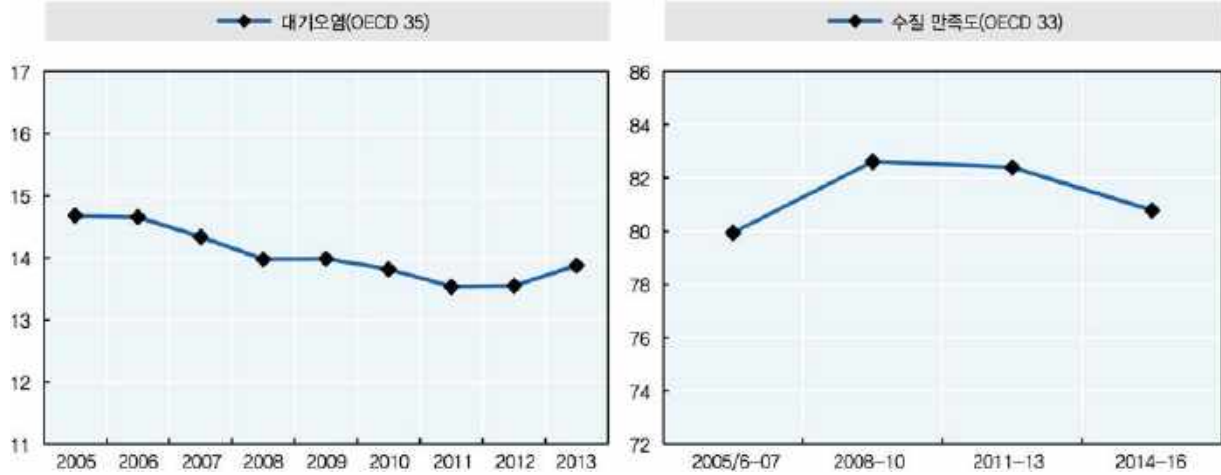
OECD 평균 대기오염 노출과 수질 만족도 모두 상반기에서 개선되었지만 그 이후 악화되어 결국 거의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그림 1.14).

개인적 안전의 경우,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66%에서 2014~2016년 69%로 증가했다(그림 1.15). 그러나 폭행으로 인한 OECD 평균 사망률도 10만 명당 3.4에서 3.9로 증가했다.⁷ 2005년 이후, 삶의 만족도는 약간 감소했으며 평균 점수(0=“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함”까지의 척도)는 2005~2007년 6.7에서 2014~2016년 6.5로 하락했다(그림 1.15).

물질적 조건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 결과의 변화 패턴은 국가마다 다르다(그림 1.16). 현재

그림 1.14. 2005년 이후 OECD 평균 대기오염과 수질 만족도

PM_{2.5} 농도(ug/m³)에 대한 인구 가중치를 준 노출, 3년 이동 평균(좌측), 전체 인구 중 만족한 사람의 비율(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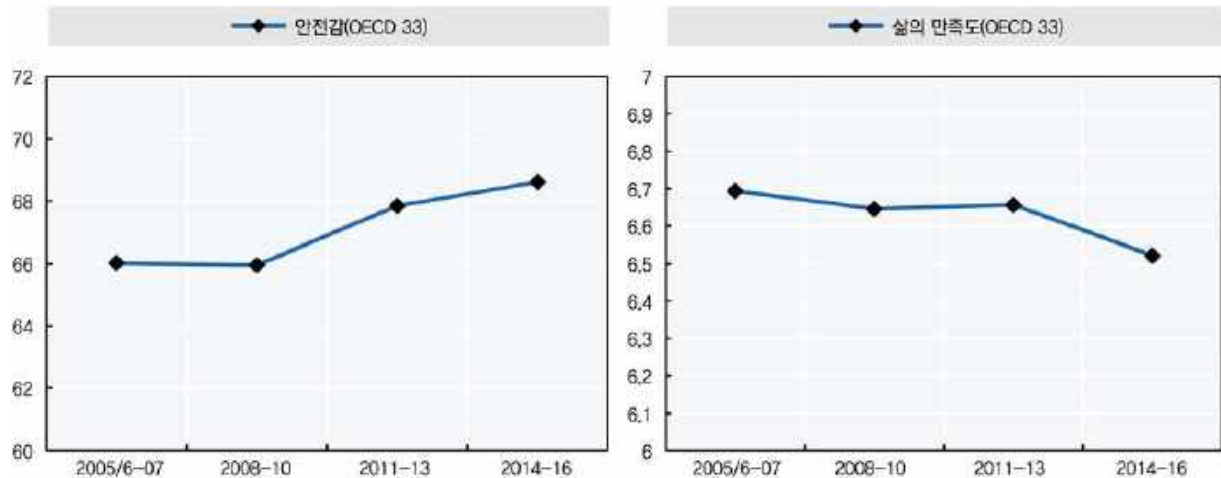


주: 대기오염의 경우 값은 3년 이동 평균이다. 2013년 값은 2014년의 추정치가 없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015년에서 내삽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다. 수질 만족도의 경우,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대기오염: OECD 대기오염 노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수질 만족도: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660>

그림 1.15. 2005년 이후 OECD 평균 안전감과 삶의 만족도

도시나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한 인구의 비율(좌측), 0-10 척도로 삶의 만족도 평균 값(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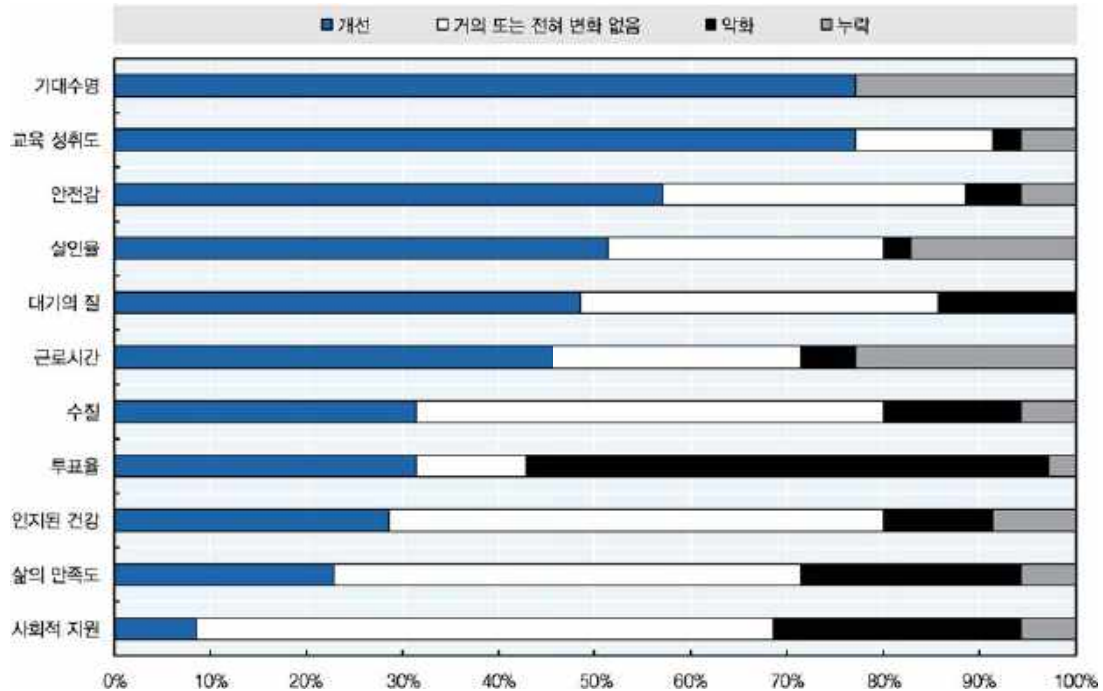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679>

웰빙의 모든 중심 지표 중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은 가용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국가에서 2015년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보다 지금이 더 높은 유일한 결과이다. 교육 성취도 역시 모든 국가의 3/4에서 증가했다. 중요한 중단으로 인해 10년 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분석은 가장 최근 3년만 고려한다. 전체 OECD 국가의 약 절반에서 안전

그림 1.16. 2005년 대비 선택된 삶의 질 지표의 변화
OECD 국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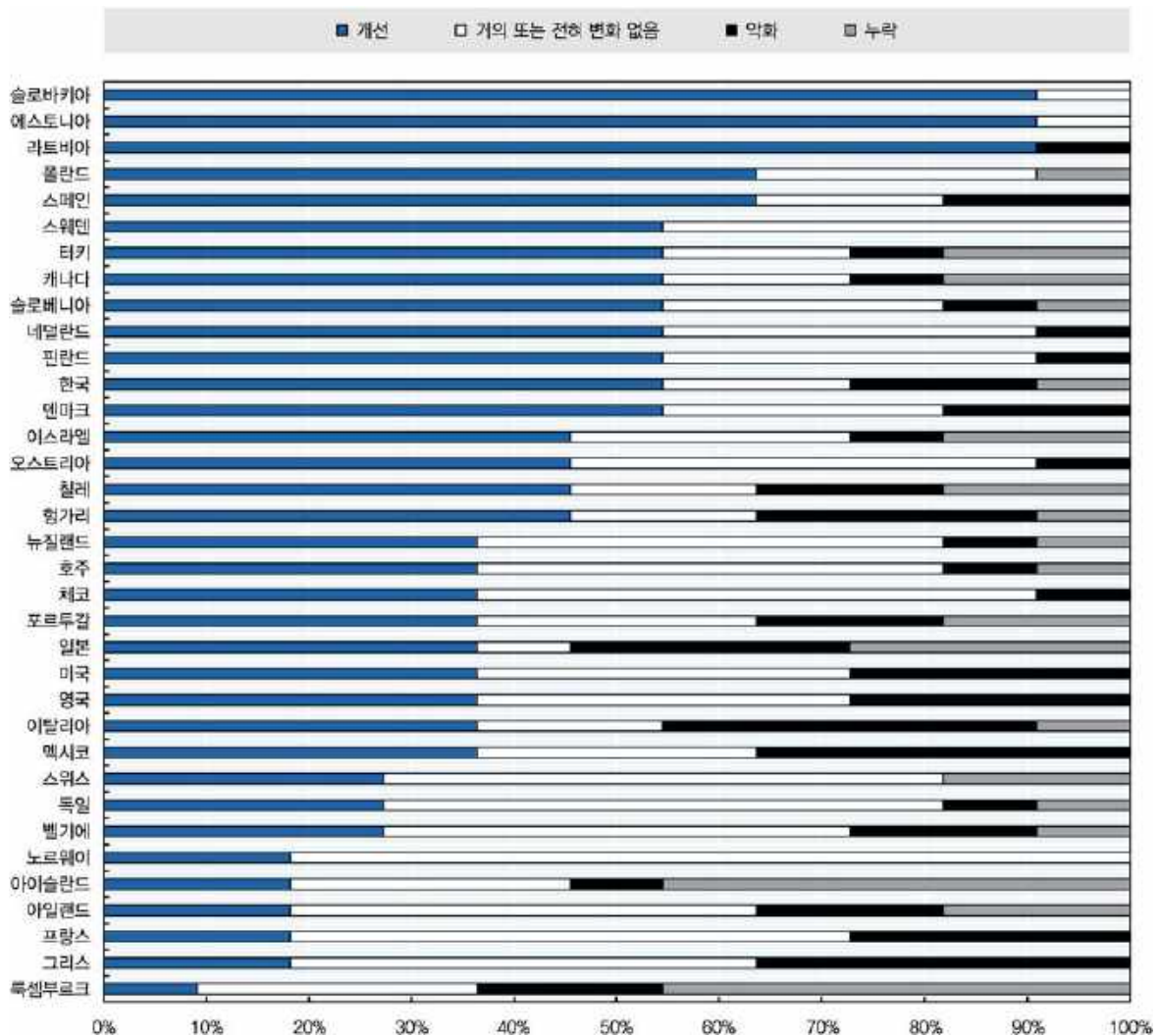
주: 9년 미만의 시계열을 가진 국가는 이 분석에서 제외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계열이 중단되어 가장 최근 3년만 고려한 교육 성취도는 예외로 한다. 2005~2015년(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임계점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기대수명: +/-0.5년, 교육 성취도: +/-0.5%, 근로시간: +/-0.6%, 살인율: 10만 명당 +/-0.3, 야간 안전감: +/-3.0, 투표율: +/-1.0%, 삶의 만족도: 95% 신뢰 구간에 따라 0-10 척도에서 약 0.2 또는 0.3 포인트의 변화와 대략 동일, 수질: +/-3.0%, 인지된 건강: +/-3.5%, 사회적 지원: +/- 3.0%.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부록 5a를 참조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698>

감과 살인율이 개선되었고, 2005년 이후 대기의 질과 근로시간 측면에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투표율은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낮아졌고,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은 OECD 국가의 약 1/4에서 하락했다. 소수의 국가(약 5개국)는 대기의 질과 수질이 악화되었다. 국가별로 볼 때(그림 1.17)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폴란드는 가장 많은 수의 삶의 질 지표에서 향상되었다.

모든 현재 웰빙 지표에서 종합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는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거둔 반면 다른 영역보다 한 영역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룬 국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8).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는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모두에서 많은 개선을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체코의 경우 물질적 조건의 개선이 삶의 질 개선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많다. 그 반대 상황인 국가도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칠레,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개선의 2/3 이상이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삶의 질 지표에서 일어났다. 시간에 따른 이러한 변화 패턴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지표에 대한 각 국가의 시작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그림 1.17. 2005년 대비 선택된 삶의 질 결과의 국가별 변화
지표의 비율(총 11개 지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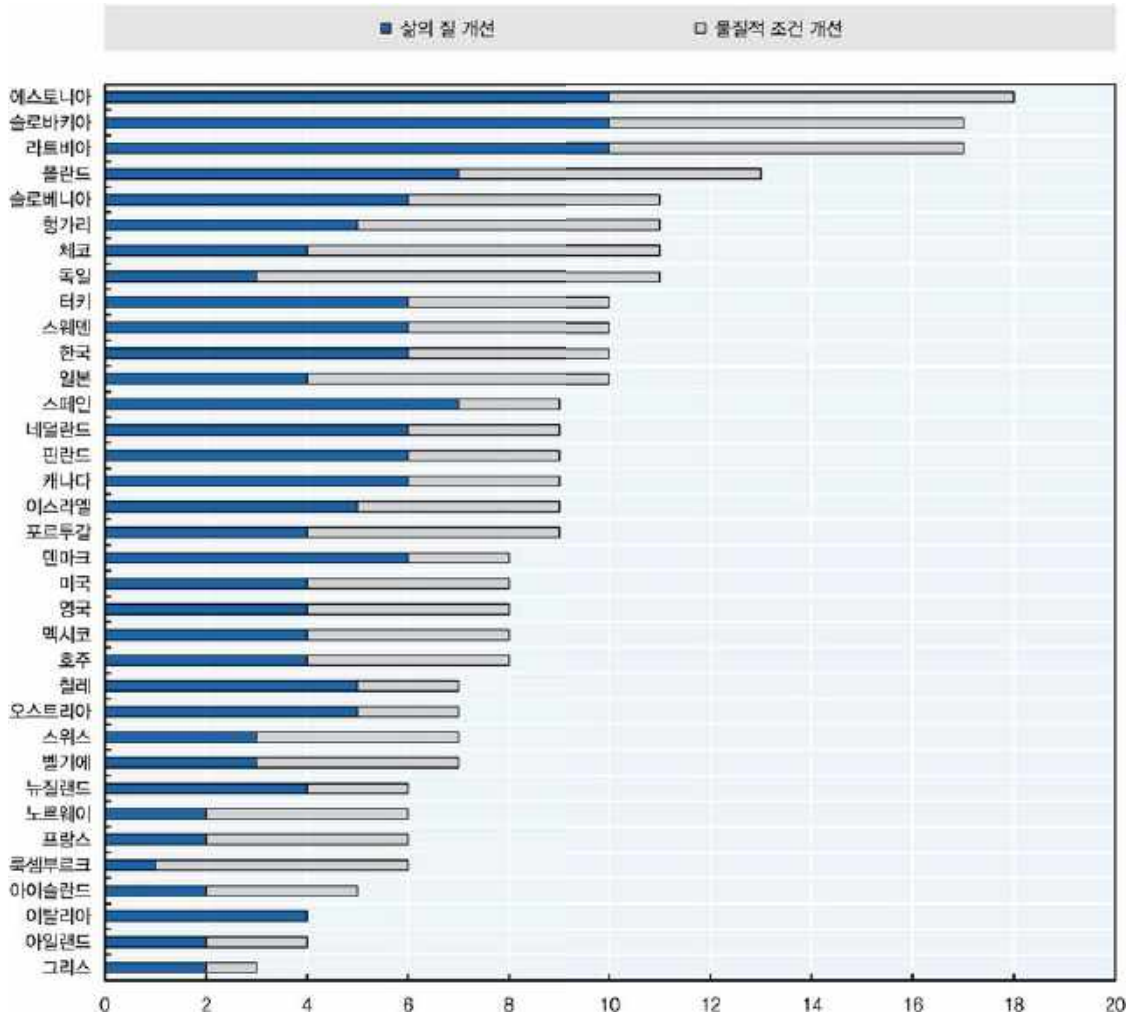


주: 9년 미만의 시계열을 가진 국가에 대해 변화는 “누락”으로 표시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계열이 중단되어 가장 최근 3년만 고려한 교육 성취도는 예외로 한다. 소수의 지표(특히, 장시간 근무 빈도, 살인율)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OECD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해당 국가에서 관찰된 총 개선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717>

반영한다. 왜냐하면 제한된 수의 지표(예: 기본 위생시설 이용)에서 최고 성과를 낸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18. 2005년 대비 국가별 현재 웰빙 개선
2005년 이후 순 개선된 지표의 수



주: 이 그림은 2005년 이후 개선된 지표의 총 수를 보여준다. 누락된 데이터는 고려되지 않는다. 물질적 조건의 지표가 2개 이상 누락된 국가는 칠레(7개 지표 누락), 이스라엘과 한국(5개), 터키(4개), 캐나다, 뉴질랜드 및 스위스(3개)이다. 삶의 질 지표가 2개 이상 누락된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5개 지표 누락), 일본(3개)이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736>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2017년 점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현재 웰빙의 측정과 더불어 향후 세대를 위해 앞으로도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자원 자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려해야 한다. ‘How’s Life? 2015’는 이러한 자산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자연, 인적, 경제, 사회 자본의 측면에서 설명), 다양한 관련 흐름(예: 투자, 고갈, 방출), 이러한 자산이 시간에 걸쳐 진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소개했다(표 1.5).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대시보드로 제공하며, 제5장의 각 국가 현황의 3페이지에 나와 있다. 대시보드는 해당 지표가 OECD 국가의 상위, 중간, 하위 1/3에 속하는지 여부와 2005년 이후 각 지표의

표 1.5. 제1장에서 고려한 미래 웰빙 지표를 위한 자원

자본 유형	자본 “자산” 관련 지표	흐름 관련 지표(자본 자산에 대한 투자와 고갈)	위험 요소 관련 지표
자연 자본	PM _{2.5} 대기오염 노출* 산림 면적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위험 받는 포유류 위험 받는 조류 위험 받는 식물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담수 취수	
인적 자본	청년의 교육 성취도(25~34세) 15세의 인지 능력* 성인 역량* 출생 시 기대여명*	교육적 기대	장기 실업률* 흡연 유병률 비만 유병률
경제 자본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 가구순자산* 정부의 금융순자산	총 고정 자본 형성 R&D 투자	총경제의 금융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 가계 부채
사회 자본	타인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투표율*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주: *는 현재의 웰빙과 미래 웰빙을 형성하는 자원에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웰빙 지표에도 포함된 지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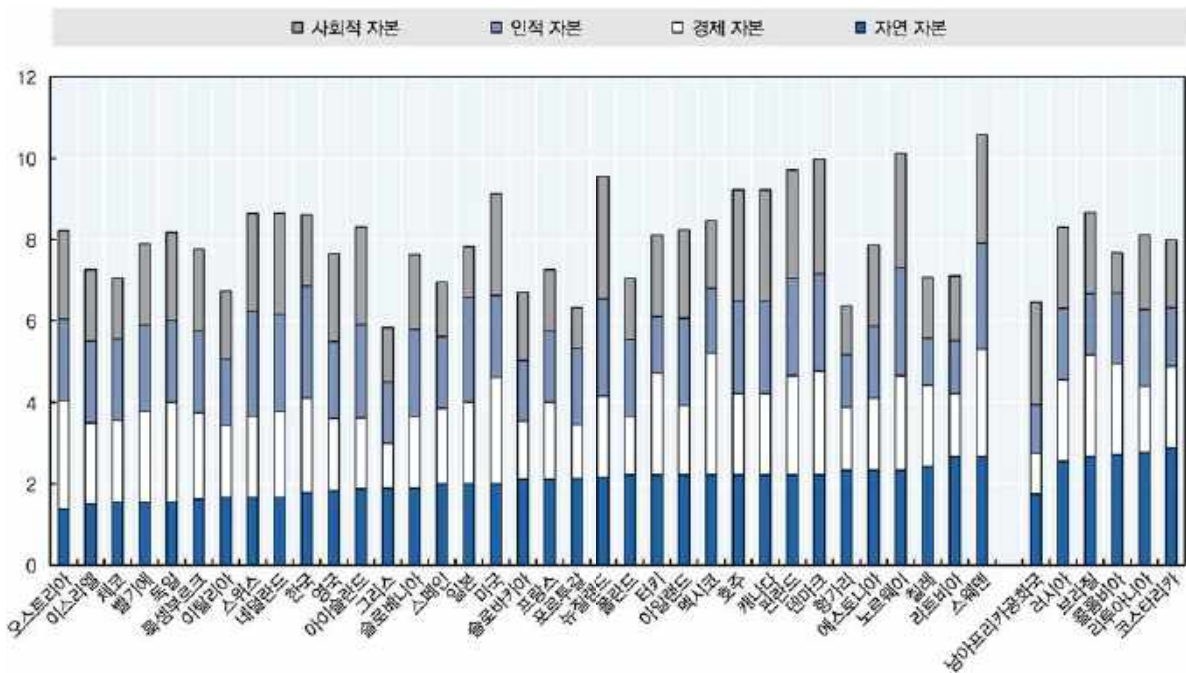
수준이 개선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별 수준 요약은 제공한다.

이러한 지표의 상당수는 현재 웰빙의 측정과 시간에 따른 지속 가능성 모두에 공통된다. 여러 경우에, “지금 여기” 웰빙에 관련된 동일한 결과가 미래 웰빙을 위한 가치(및/또는 위험 요소)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지표에 공통된 척도는 PM_{2.5} 대기오염 노출, 15세의 인지 능력, 출생 시 기대여명, 장기 실업률, 가구순자산, 투표율이다. 또한,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는 총 생산가능인구의 교육 성취도를 고려하며 청년(25~34세)의 고등 교육 성취도는 미래로 이월될 인적 자본 자산과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1.19는 4가지 유형의 각 자본에서 국가별 상대적 강점과 약점의 수를 요약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는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모든 지표에서 강점의 수가 가장 높으며, 4가지 자본에서 꽤 균형 잡힌 범위를 보인다. 대조적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탈리아는 상대적 강점이 가장 적으며, 여러 유형의 자원 간에 약간의 불균형이 있다(예: 포르투갈과 헝가리는 자연 자본에서 적당히 잘 수행하지만 사회 자본과 관련하여 약점이 많다). 여러 OECD 파트너 국가의 상대적 성과 또한 특히 자연 자원과 관련하여 상당히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강점과 약점은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모니터링 하는 한 측면에 불과하다. 모든 OECD 국가의 성과가 저조할 경우, “그나마 나머지보다 나은 국가”는 거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OECD 국가가 해당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그림 1.19.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대해 국가별 상대적 성과



주: 자연 자원에 대한 상대적 성과에 따라 각국을 평가한다. 상대적 성과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국가의 위치를 “평가”했고(1=OECD 국가의 하위 1/3, 2=OECD 국가의 중간 1/3, 3=OECD 국가의 상위 1/3) 각 자원에 대해 단순 평균 점수를 계산했다(각 지표는 동일하게 가중됨). 따라서 최소 점수는 4이며, 최대 점수는 12이다. 각 차원 내의 지표는 동일하게 가중되고, 누락된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755>

거들 경우 최악의 성과를 내는 것이 반드시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나머지 OECD 국가에 대해 한 국가의 상대적 위치를 강조하기보다 목표 수준과 전환점에 초점을 맞춰서 자원 자산에 대한 보다 미묘한 견해를 요구한다. 또한 단지 초기 수준보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원 자산, 흐름, 위험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초점을 맞추는 동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10년 간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변화와 위험 요소

자연, 인적, 경제, 사회 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는 현재 웰빙보다 더욱 제한적이지만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이전에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다(박스 1.4).

박스 1.4.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변화 평가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경우, 변화 데이터는 경제 자원의 전체 9개 지표에 대해 제공되지만 자연 자원의 9개 중 4개 지표, 인적 자원의 8개 중 5개 지표, 사회 자원의 6개 중 2개 지표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그러나 현재 웰빙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국가 범위나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OECD 평균에 포함된 국가의 수는 감소하며 그 수치는 각 그림의 범례에 괄호로 표시된다(예: OECD 33). OECD 평균은 OECD 평균 국가 대신 OECD 평균 국민의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구 가중치이며, 예외는 그림 주석에 보고되어 있다. 누락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박스 1.4.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변화 평가 (계속)

OECD 파트너 국가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변화는 아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5장의 국가별 현황은 전체 35개 OECD 국가와 6개 파트너 국가의 상세한 변화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2005~2015/2016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주 수집되지 않는 지표(예: 가구순자산, 비만율, 흡연율) 또는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포착하는 지표(예: 투표율)의 경우, OECD 평균은 계산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년간으로 계산된다.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서 제공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의 경우, 표본 크기를 늘리고 (일반적으로 국가당 연간 1,000명으로 제한) 데이터의 단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3년 평균이 사용된다.

현재 웰빙에 대한 중심 지표와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공통된 지표의 경우(즉, PM_{2.5} 대기 오염 노출, 15세의 인지 능력, 성인 역량, 출생 시 기대여명, 장기 실업률, 가구순자산, 투표율) 2005년 이후 변화에 대한 정보는 다음 분석에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각 섹션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약에 포함된다.

국가 전반에 걸친 결과를 설명하는 요약 그림(그림 1.21, 1.23, 1.28, 1.30, 1.A.3 ~ 1.A.4)에서 2005~2015년(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한다. 카테고리 “개선”,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악화”는 그림 주석에 설명된 임계점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제5장의 부록 5.A에서 설명한다.

OECD 평균과 개별 국가의 시계열에 대한 전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상세히 나와 있다 (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자연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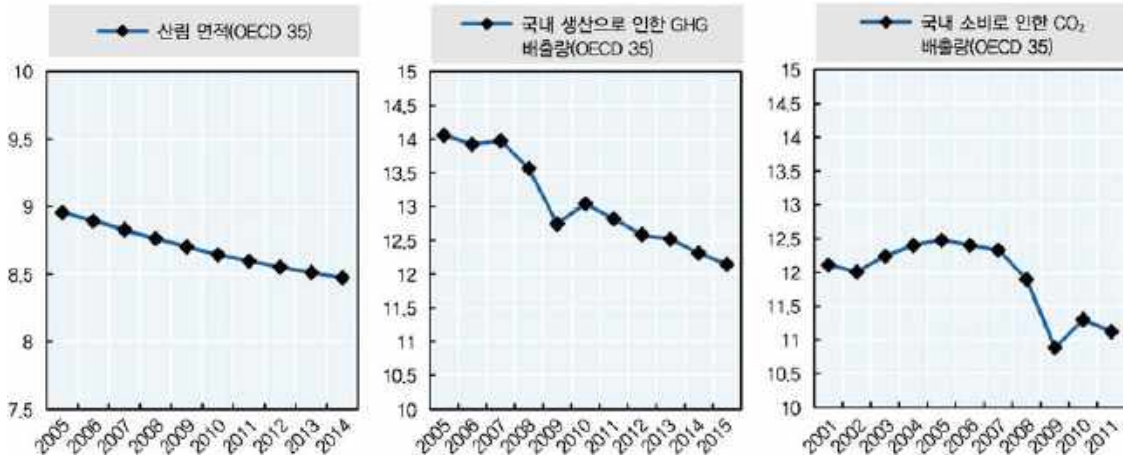
1,000명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OECD의 총 산림 면적은 2005년 이후 약 5% 하락했다(그림 1.20). 이는 OECD 국가의 약 1/5에서 하락했기 때문이며, 대부분은 거의 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21). 국내 생산으로 인한 OECD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2015년 사이에 14% 떨어졌지만, OECD 5개국에서는 증가했다. 국내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보다 실험적인 측정(국제 무역의 효과를 고려함)은 2001과 2011년(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사이에 약 8% 감소했고 8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초미세먼지(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노출 OECD 평균(장기적 노출 위험을 통해 미래 웰빙뿐 아니라 오늘날 호흡하는 공기 질을 통해 현재 웰빙에도 영향을 미침)은 2011년까지 개선되었지만 이후 2005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위의 그림 1.14). 국가별(그림 1.21과 부록 1.A의 그림 1.A.1) 대기오염은 전체 OECD 국가의 약 절반에서 개선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거나 악화되었다.

인적 자본

현재 웰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몇 가지 지표는 또한 성인 역량, 15세의 인지 능력, 출생 시 기대여명, 장기 실업률 등 인적 자본 지표의 핵심 부분을 형성한다.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고유한 지표 중 25~34세 성인의 교육 성취도 10년 간 변화는 2013년에 대부분의

그림 1.20. 2005년 이후 선택된 자연 자본 지표의 OECD 평균

산림 면적(천명당 km²)(좌측), 온실가스 배출량(1인당 CO₂당량 톤)(중간), CO₂ 배출량(1인당 톤)(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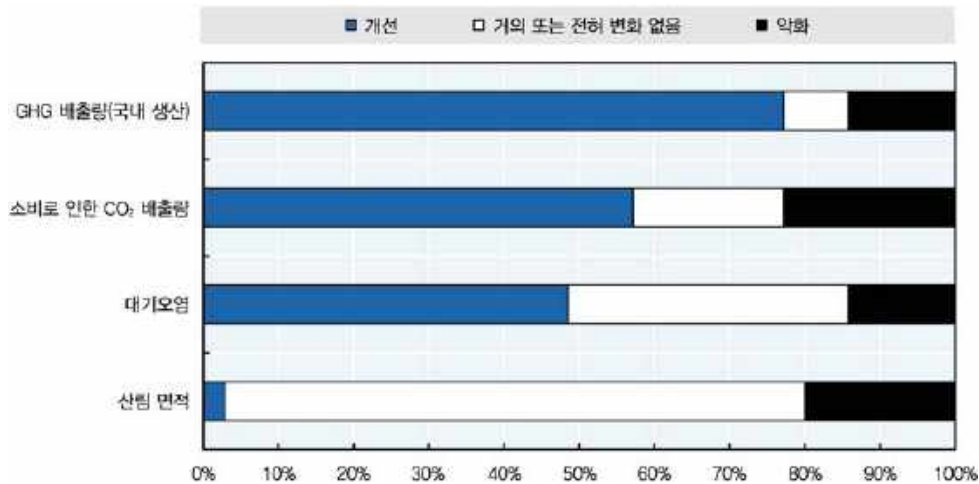


주: 자세한 그림 주석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참조한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출처: 산림 면적: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토지 자원”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USE.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출처별 온실가스 배출량”, <http://dx.doi.org/10.1787/data-00594-en>. 국내 소비로 인한 CO₂ 배출량: OECD구조 분석(STAN) 데이터베이스의 “국제 무역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774>

그림 1.21. 2005년경 대비 선택된 자연 자본 지표의 변화
OECD 국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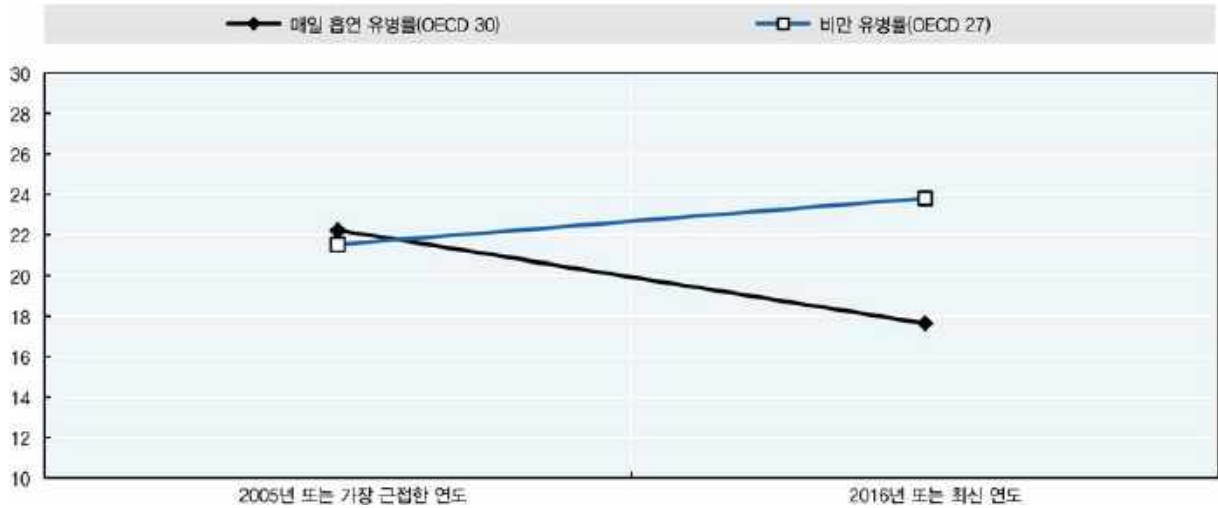
주: 2005~2015년(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임계점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국내 생산으로 인한 GHG 배출량: 1인당 +/-0.5톤, 소비로 인한 CO₂ 배출량: 1인당 +/-0.5톤, PM_{2.5} 대기오염 노출: 1m³당 +/-1.0μg, 산림 면적: 천명당 +/-0.5km².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부록 5a를 참조하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보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참조한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793>

OECD 국가에서 데이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3~2016년에 최소한 고등 교육을 받은 청년의 비율은 79.4%에서 80.7%로 증가했다. 교육적 기대에 관한 정보는 2015년에만 제공된다.

흡연과 비만은 미래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적 자본 위험 요소이다. 매일 흡연한다고 보고한 OECD 인구의 비율은 2005년 22.2%에서 2016년 17.7%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1.22). 이와 동시에, 비만은 영향을 받는 OECD 인구 비율이 상승하면서 21.5%에서 23.8%로 증가했다.

그림 1.22. 2005년 이후 OECD 평균 흡연 및 비만을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주: 흡연율의 경우,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는 불충분한 시계열 데이터로 인해 제외되었다. 비만율의 경우,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칠레,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LV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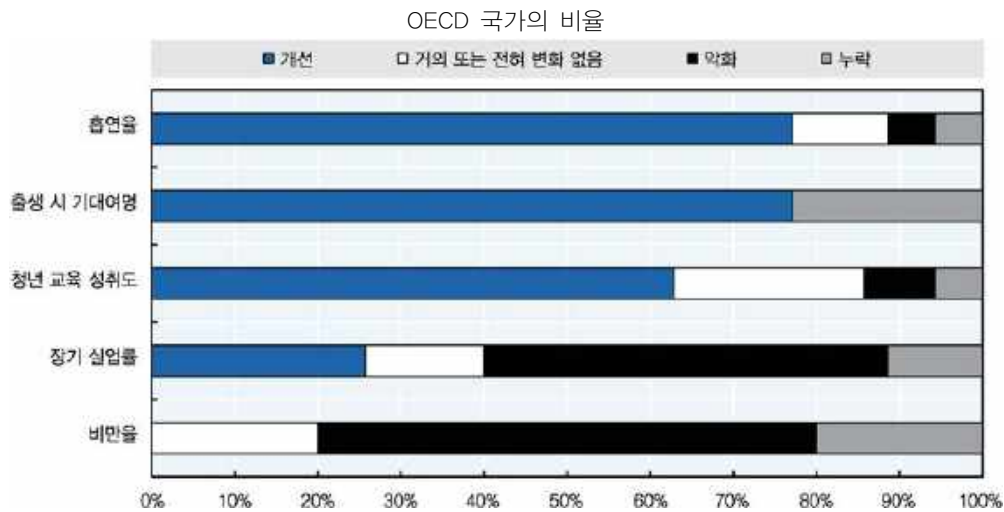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812>

인적 자본 지표를 살펴보면 개선을 경험한 국가의 수는 흡연율 및 출생 시 기대여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으며, 2005년 이후 OECD 국가의 최소 4/5에서 개선되었다. 대조적으로 전체 OECD 국가의 약 절반에서 장기 실업률이 악화되고, 비만은 60% 증가했다(그림 1.23과 부록 1.A의 그림 1.A.2).

경제 자본

2005년 이후 경제 자본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소수의 (대부분 유럽) OECD 국가에서만 본 보고서에 고려된 전체 지표에 대해 이용 가능하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은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생산된 고정 자산의 규모, 지적 재산 자산의 가치, R&D에 투자된 GDP 비율이 증가했다(그림 1.24와 1.25). 그러나 생산된 고정 자산은 2008~2009년에 하락했고,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극적인 침체를 겪었던 총 고정 자산 형성(모든 OECD 국가에서 정보를 제공한

그림 1.23. 2005년경 대비 선택된 인적 자본 지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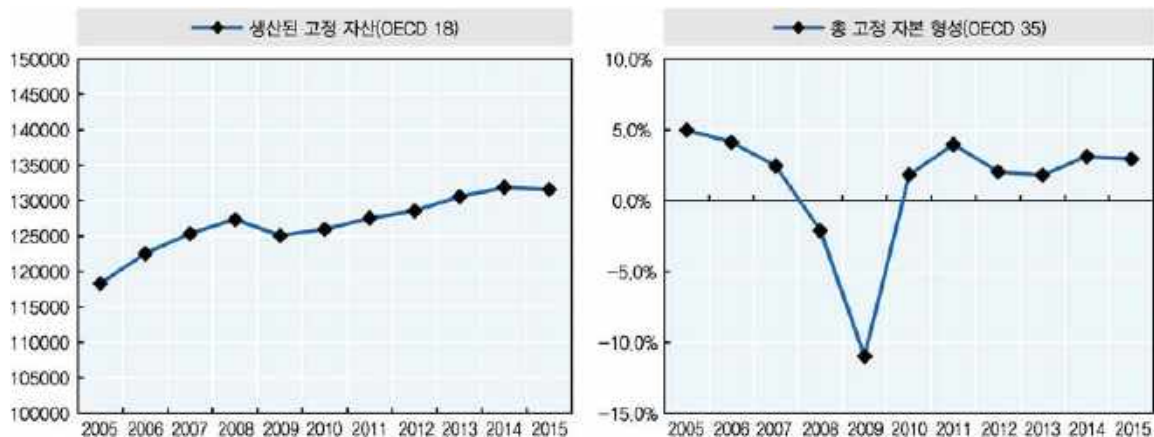


주: 9년 미만의 시계열을 가진 국가는 이 분석에서 제외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계열이 중단되어 가장 최근 3년만 고려한 교육 성취도는 예외로 한다. 2005~2015년(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임계점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출생 시 기대여명: +/-0.5년, 청년 교육 성취도: +/-0.5% 포인트, 장기 실업률: +/-0.2% 포인트, 비만: +/-1.0% 포인트, 흡연: +/-1.0%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부록 5a를 참조하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보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참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831>

그림 1.24. 2005년 이후 OECD 평균 생산된 고정 자산과 총 고정 자본 형성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좌측) 및 전년 대비 성장률(우측)



주: 생산된 고정 자산의 경우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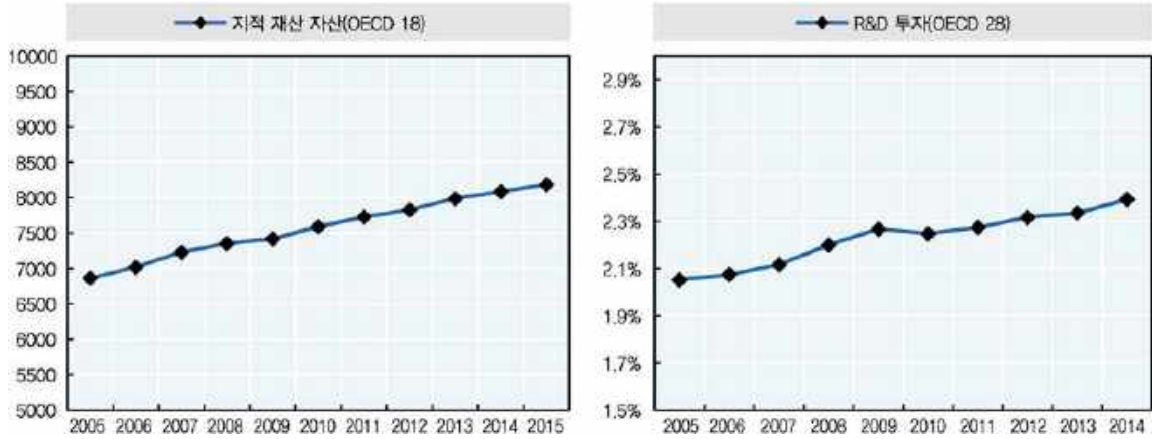
출처: 생산된 고정 자산: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의 “9B. 비금융자산을 위한 대차대조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총고정자본 형성: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850>

이 그룹의 유일한 지표)의 급격한 하락에서 보듯이 그 이후 상대적으로 약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5년에도 여전히 2005년보다 2% 포인트 더 낮게 유지되었다.

나머지 국가에 비해 국가별 순 해외 자산 위치 역시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그림 1.25. 2005년 이후 OECD 평균 지적 재산 자산과 R&D 투자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좌측) 및 GDP의 비율(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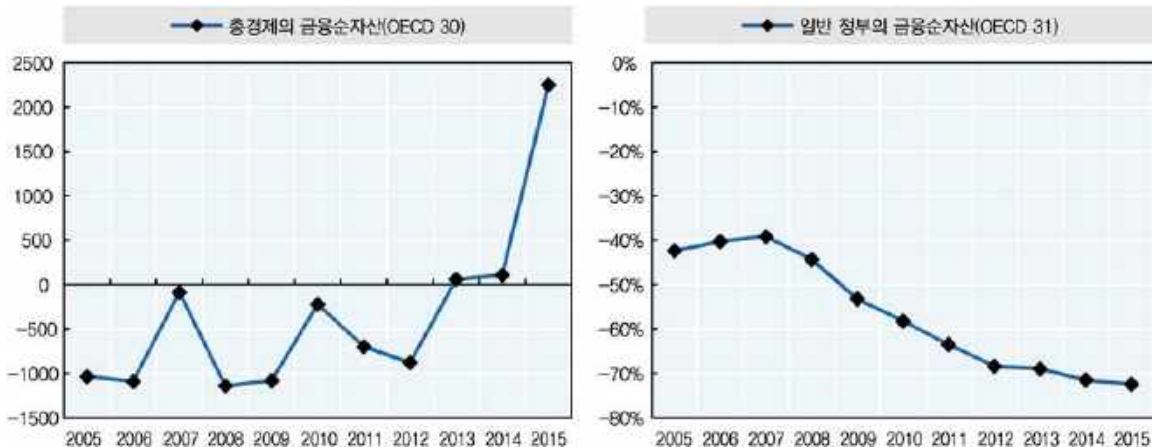


주: 지적 재산의 경우,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R&D 투자의 경우 OECD 평균은 GDP의 비율로 가중되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지적 재산 자산: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R&D 투자: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의 “8A. 활동 ISIC rev4에 의한 자본 형성”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8A과 러시아 연방 통계청.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869>

그림 1.26. 2005년 이후 OECD 평균 총경제의 금융순자산과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
현재 PPP일 때 1인당 달러(좌측) 및 GDP의 비율(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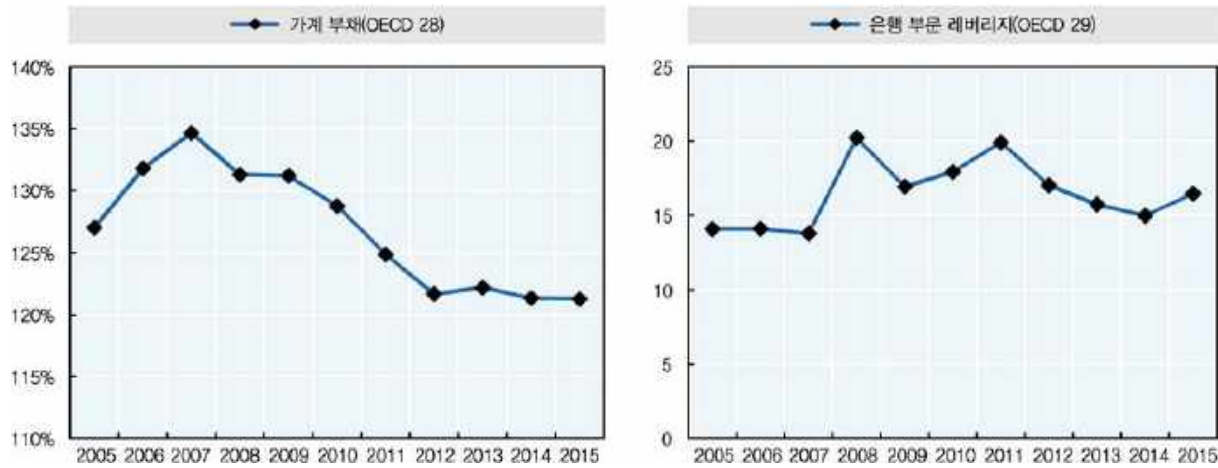
주: 총경제의 금융순자산의 경우,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의 경우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총경제의 금융순자산: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 OECD 재정 대시보드 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888>

1인당 기준으로 측정된 총 OECD 경제의 평균 금융순자산은 미국의 최근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2013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그림 1.26). 대조적으로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일반 정부 부문의 금융순자산은 조세 수입과 재정 적자에 대한 경기 침체의 영향과 부실한 은행 부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으로 인해 2005년 GDP의 약 -42%에서 2015년 -72%로 하락했다.

그림 1.27. 2005년 이후 OECD 평균 가계 부채와 은행 부문 레버리지
순가처분소득 비율 기준(좌측), 자기 자본 대 선택된 자산의 비율(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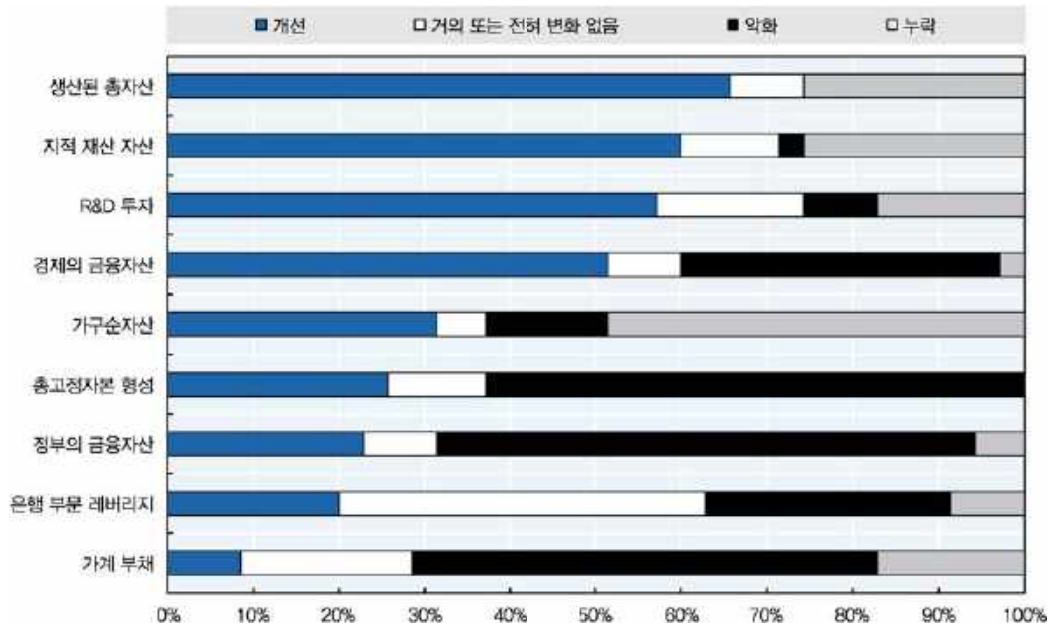


주: OECD 평균 가계 부채는 가구 순가처분소득에 의해 가중되며,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OECD 평균 은행 부문 레버리지는 인구 가중치이며, 체코,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907>

그림 1.28. 2005년경 대비 경제 자본 지표의 변화
OECD 국가의 비율



주: 2005~2015년(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임계점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생산된 총자산: 1인당 +/-4,500달러, 지적 재산 자산: 1인당 +/-200달러, R&D 투자: GDP의 +/-0.2%, 총경제의 금융순자산: 1인당 +/-1,000달러, 가구순자산: +/-9,000달러, 총고정자본 형성: +/-1.0% 포인트, 정부의 금융순자산: GDP의 +/-3.0%, 은행 부문 레버리지: 은행의 자기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 +/-3.0 변화, 가계 부채: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10%.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부록 5a를 참조하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보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참조한다.

(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926>

장기간에 걸친 부채 상승 역시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가구 가치분 소득의 비율로서 OECD 평균 가계 부채는 2005~2007년에 증가했다가 2012년까지 하락한 이후 안정되었다(그림 1.27). 해당 기간 은행 부문의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졌고, 2008년과 2011년을 정점으로 현재는 2005년보다 17% 가량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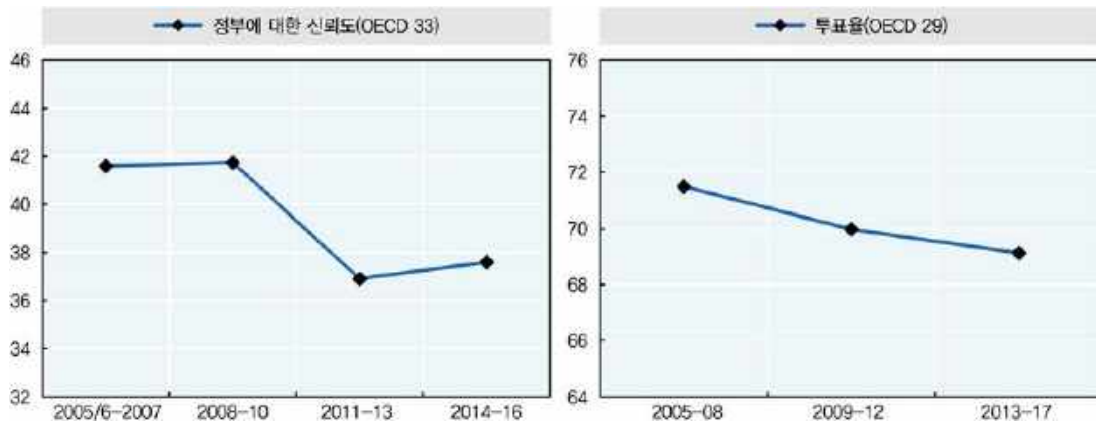
그림 1.28은 다양한 경제 자본 지표에서 OECD 국가의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가용 데이터가 있는 모든 국가는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생산된 고정 자산이 증가했지만 OECD 국가의 60%에서 총고정자본 형성의 연간 성장률이 하락했다.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은 지적 재산 자산이 증가했으며, 비슷한 숫자의 국가에서 R&D에 사용되는 GDP 비율이 증가했다. 정부의 금융순자산은 OECD 국가의 약 2/3에서 하락했고, 미국과 독일의 가계 부채가 감소하여 OECD 평균은 개선되었지만 OECD 국가의 2/3에서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부록 1.A의 그림 1.A.3은 국가별 분석을 제공한다.

사회 자본

본 보고서에서 고려한 6가지 사회 자본 지표 중 2가지(정부에 대한 신뢰도, 투표율)에 대해서만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평가할 수 있었다. 이 두 지표 모두 OECD 평균은 2005년 이후 하락했다(그림 1.29).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OECD 국가의 약 1/3에서 투표율이 증가했고 1/4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그림 1.30). 타인에 대한 신뢰도 변화(아마도 사회 자본의 가장 좋은 지표)는 본 보고서에 사용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데이터에 따르면 엇갈린 결과가 확인되는데, 1981~1994년의 지배적인 수준에 비해 2005~2014년 동안 OECD 국가의 약 절반에서 감소했다(Halpern, 2015).

그림 1.29. 2005년 이후 OECD 평균 투표율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 “신뢰한다”라고 답한 인구의 비율(좌축) 및 유권자 비율 기준 투표율(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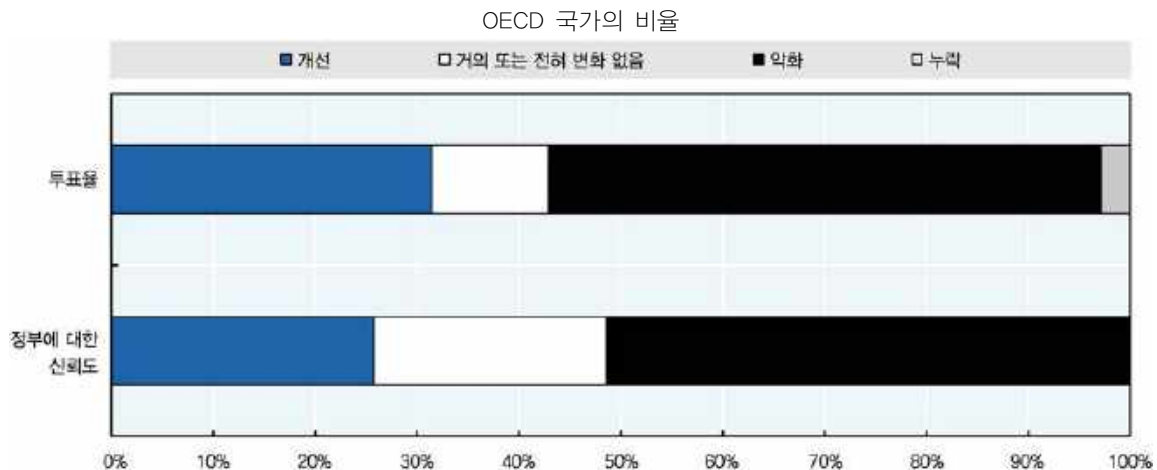


주: OECD 평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인구 가중치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투표율의 경우 OECD 평균은 4년 기간에 대해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를 제외해야 했다. 칠레 역시 2012년 의무 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시계열이 중단되어 제외되었다.

출처: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투표율: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 협회(IDEA)(2017), www.idea.int, 코스타리카 최고 선거 재판소 등록부, 스위스의 연방통계청(FSO).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945>

그림 1.30. 2005년경 대비 선택된 사회 자본 지표의 변화



주: 2005~2015년(또는 가장 근접한 연도) 사이의 단순한 차이로 변화를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임계점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정의된다. 투표율: +/-1.0% 포인트, 정부에 대한 신뢰도: +/-3.0%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부록 5a를 참조하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보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참조한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964>

향후 통계적 의제

이번 장에서는 가구자산, 직무 긴장,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 보유 여부, 대기오염 노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비롯해 OECD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웰빙 통계를 보여준다. OECD 활동은 웰빙 측정에 관한 통계적 의제를 계속 지원하며(박스 1.5) 많은 통계청은 데이터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예를 들어 OECD, 2015a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와 파트너 국가에 대해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데이터 격차가 아직 남아 있다.

- 첫째, OECD 국가 범위는 여러 중심 지표에 대해 불완전하다. 현재 복지에 대한 주요 격차로는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가장 최근 연도에 OECD 14개국 누락), 가구순자산(8개국 누락), 성인 역량과 정부 내 발언권(7개국 누락), 삶의 만족도(5개국 누락) 등이 있다.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경우 생산된 고정 자산과 지적 재산 자산(9개국 누락), 타인 및 경찰에 대한 신뢰도(8개국 누락), 자원봉사(7개국 누락), 가계 부채(5개국 누락), 위협 받는 중(3~5개국 누락)과 관련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다.
- 둘째, 몇몇 지표는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거나(예: 타인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위협 받는 중) 자주 수집되지 않는다(예: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 성인 역량, 정부 내 발언권, 자원봉사). 다른 경우에 방법론적 중단은 상당 수의 국가에 대한 시계열을 방해한다(예: 교육 성취도, 교육적 기대, 장기 실업률, 기대수명).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05년 이후 변화는 본 판에 제시된 현재 웰빙의 25개 중심 지표 중 21개에 대해 평가될 수 있지만 미래 웰빙 지표의 32개 자원 중 20개에 대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대한 국가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OECD 전체 추세와 상대적 성과에 대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제한한다.

- 셋째, ‘How’s Life?’(OECD, 2011)를 처음 출간한 이후, 비공식 출처에서 가져온 여러 지표가 국제적으로 조화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대체 자료(placeholder)”로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적 지원, 수질 만족도, 안전감, 삶의 만족도가 포함된다. 통계청의 새로운 데이터 덕분에 기존의 삶의 만족도 대체 자료를 대체할 수 있었다(Exton, Siegerink, Smith 참조, 출간 예정). 그러나 비공식 출처는 여전히 웰빙의 여러 차원을 위한 중요한 정보 출처이다.
- 넷째, 다수의 차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증거 측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자연, 인적, 경제, 특히 사회 자본은 개념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와 초국가적 영향의 문제(박스 1.2 참조)는 추가적인 개념적 및 통계적 활동을 요구한다. 사회 자본의 측정에 필요한 몇 가지 진전 사항(신뢰도와 거버넌스 등)은 이번 판의 제4장에서 상세히 논의하며, 최근 OECD 활동(박스 1.5)에서도 다룬다. 현재 웰빙에서 *사회적 관계*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OECD 국가에서 천장 효과(ceiling effect)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네/아니요” 질문에 기반한 하나의 중심 지표만 있을 뿐이다. *개인적 안전*에서는 데이터가 더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대체 자료 측정이 중심 지표에서 삭제되었다. 살인 이외의 범죄 발생률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미래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환경의 질의 경우, 녹지 공간의 이용 및 객관적 수질 측정에 관해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주요 누락 사항인 건강 상태 차원에 대한 정신 건강의 적절한 척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다섯째, 웰빙의 불평등은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웰빙 성과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How’s Life?’ 측정 접근법의 중심이며(박스 1.1 참조) UN 의제 2030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목표에도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분포의 상위 및 하위 간 격차 크기, 그룹 간 결과의 차이(성별, 나이, 교육)가 포함된다. 이주민의 웰빙에 관한 제3장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상당한 소수 그룹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향후 통계적 의제를 상세히 논의한다.

박스 1.5. 웰빙 관련 통계 및 정책 의제에 대한 OECD의 기여

OECD가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를 시작한지 6년이 되었다. ‘How’s Life?’ 연재물의 일부로서 그리고 상호적인 *더 나은 삶 지수*(www.oecdbetterlifeindex.org), 지역별 웰빙 데이터 익스플로어(www.oecdregionalwellbeing.org), 아동 웰빙 포털(www.oecd.org/social/child-well-being), 성별 데이터 포털(www.oecd.org/statistics/datalab/gender-data-portal.htm)과 같은 다양한 웹 형식으로 웰빙 통계와 분석 결과가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여러 연구는 이스라엘(OECD, 2016a), 멕시코(OECD, 2015b), 덴마크(OECD, 2016b), 슬로베니아(국가 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등 특정 국가의 웰빙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했다. OECD의 경제 설문조사(www.oecd.org/economy/surveys), 더 나은 정책 시리즈(www.oecd.org/about/publishing/betterpoliciesseries.htm), 다차원 국가별 리뷰(www.oecd.org/development/mdcr/) 역시 현재 제시된 분석의 웰빙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활용한다. OECD의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중 2가지인 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 www.oecd.org/pisa)와 성인역량조사(또는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 www.oecd.org/skills/piaac)는

박스 1.5. 웰빙 관련 통계 및 정책 의제에 대한 OECD의 기여(계속)

교육과 역량을 넘어 웰빙의 다양한 차원을 평가하기 위해 가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다. 2015년 PISA는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관점에서 학생의 웰빙에 초점을 맞췄다(OECD, 2017c).

다양한 OECD 방법론 프로젝트가 웰빙 측정에 대한 통계적 의제에 기여했다. 여기에는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OECD, 2013b), *가구자산에 대한 미시 통계 가이드라인*(OECD, 2013c), *가구소득, 소비, 자산 분배에 대한 OECD 통계 프레임워크*(OECD, 2013d), *신뢰도 측정 가이드라인*(OECD, 2017d), *근로 환경의 질 측정 가이드라인*(OECD, 2017e)과 같은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 일자리 질 데이터베이스(아래의 데이터베이스 참고문헌 참조) 등 최근에 몇몇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거나 강화되었다. 향후 프로젝트에는 웰빙에 비즈니스가 미치는 영향 측정, 디지털화와 웰빙, 다양한 인종 그룹의 웰빙 경험 포착, 웰빙 측정을 위한 시간 사용 데이터의 잠재력 발휘에 대한 개념적 작업이 포함된다.

169개의 세부 목표와 (여전히 개발 중인) 232개의 지표로 뒷받침되는 17가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모든 국가의 통계 시스템에 만만찮은 측정 과제를 제기한다. SDG와 OECD 웰빙 프레임워크가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그림 1.2) 통계적 의제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OECD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에 관한 UN 범부처 전문가 그룹(UN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icators)에 참여하고 있으며(UN 통계국, 2017) 여러 측면에서 UN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다(OECD, 2016c). 여기에는 직접 지표를 제공하고(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한 데이터 등) 다른 기관과 협업하며(교육 관련 지표에 대해 UNESCO와 협업 등) UN 프리아 그룹(Praia Group)(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Cape Verde, 2017)의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통계와 같은 주요 영역의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통계를 보다 잘 활용하고 작성하도록 촉진하는 단체인 PARIS21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통계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

1.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www.oecdbetterlifeindex.org)는 상호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OECD 웰빙 통계를 탐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주요 특징은 OECD 프레임워크에서 다루는 11가지 차원의 중요성을 평가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체 웰빙의 맞춤형 지수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맞춤형 지수를 기반으로 전체 성과의 측면에서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 본 간행물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부록에는 OECD 평균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범례의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다(예: OECD 33). 이 섹션에 보고된 결과는 OECD 평균 국가 대신 OECD 평균 *거주자*의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을 나타낸다. 이러한 절차는 평균을 계산할 때 인구가 많은 국가에 비례적으로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구가 적은 국가에 비례적으로 더 적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상대적 강점은 OECD 국가의 상위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상대적 약점은 하위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계층은 최악의 결과(1)부터 최고의 결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겨서 결정되며, 그런 다음 표본 내 OECD 국가의 총 수로 해당 순위를 나눈다. 결과 값(0~1)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되고, 1/3보다 크고 2/3 미만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에 배정되며, 2/3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4. OECD의 상위, 중간 또는 하위 1/3에 국가를 배정하는 방법은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 적용된 것과 동일하다. 즉 최악의 결과(1)부터 최고의 결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기고, 이 순위를 표본 내 OECD 국가의 총 수로 나눈다. 그런 다음 결과 값(0~1)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되고, 1/3보다 크고 2/3 미만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에 배정되며, 2/3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5. 1995년과 2005년 사이의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누적 성장률은 18.7%였지만,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이는 2005~2015년 분석보다 약간 더 적은 수의 OECD 국가를 고려한다(28개국 대신 25개국). 2005~2015년 사이에 25개국에 대한 해당 누적 성장률은 8.5%이다. 1995년과 2005년 사이의 임금의 누적 성장률은 14%였다. 이는 2005~2016년 성장률과 동일한 34개 OECD 국가 표본을 기반으로 한다.
6. 이 계산은 최소한 2개의 관련 데이터 포인트를 가진 26개 OECD 국가를 기반으로 하며 2005~2010년 2.1%에서 2011~2015년 1.3%로 감소한 수치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인구가 중치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7.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소했지만 멕시코의 살인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OECD 평균이 증가했다.

참고문헌

- Alkire, S. and M.B. Sarwar (2009), *Multidimensional Measures of Poverty and Well-being*,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Oxford.
- Anand, P., M. Durand and J. Heckman (2011), “Editorial: The Measurement of Progress – som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Vol. 174, pp. 851-855.
- Exton, C., Siegerink, V., and Smith, C. (forthcoming),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in national statistics: taking stock of recent OECD activities*, OECD Publishing, Paris.
- FSO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 A Brief Guide 2015: 17 key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Neuchâtel <https://www.bfs.admin.ch/bfsstatic/dam/assets/349919/master> (accessed 28 September 2017).
- Halpern, D. (12 November 2015) “Social tru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that most people have never heard of – and it’s moving”, Behavioural Insights Team blog, <http://www.behaviouralinsights.co.uk/uncategorized/social-trust-is-one-of-the-most-important-measures-that-most-people-have-never-heard-of-and-its-moving/>
- 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Cape Verde (2017), Praia Group on Governance Statistics (website), <http://www.ine.cv/praiagroup/> (accessed 29 September, 2017).
- OECD (2017a),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OECD Publishing, Paris, <http://www.oecd.org/std/measuring-distance-to-the-sdgs-targets.htm>
- OECD (2017b),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 OECD (2017c),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3856-en>
- OECD (2017d),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 OECD (2017e),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he 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8240-en>

- OECD (2016a), *Measuring and Assessing Well-being in Israe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6034-en>
- OECD (2016b), *Well-being in Danish Ci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5240-en>
- OECD (2016c), “Better policies for 2030: An OECD Action Pla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ECD Week 2016, <https://www.oecd.org/dac/Better%20Policies%20for%202030.pdf>
- OECD (2015a),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 OECD (2015b), *Measuring Well-being in Mexican Stat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6072-en>
- OECD (2013a),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92-en>
- OECD (2013b),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3c),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 OECD (2013d),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30-en>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North-Holland Publishing, Amsterdam.
- Statistics New Zealand (2011). *Key findings on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2010*. Statistics New Zealand, Wellington, 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snapshots-of-nz/Measuring-NZ-progress-sustainable-dev-%20approach/key-findings-2010.aspx (accessed 28 September 2017).
- Stiglitz, J.E., A. Sen and J.-P.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ttps://www.insee.fr/en/information/2662494>
- UNECE (2014),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Recommendations on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www.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2013/CES_SD_web.pdf
- United Nations (2009),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the OECD and the Statistical Office for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New York and Geneva.
- UNU-IHDP and UNEP (2012) *Inclusive Wealth Report 2012. Measur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 Statistics Division (2017),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website),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accessed 10 September 2017).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2), *Future We Want - Outcome Document* (webpag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menu=1298> (accessed 24 September 2017).

참고 데이터베이스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2017), www.idea.int

OECD Average annual wages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USE

OECD Exposure to air pollution database,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OECD Financial Dashboard database,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OECD Job Quality database,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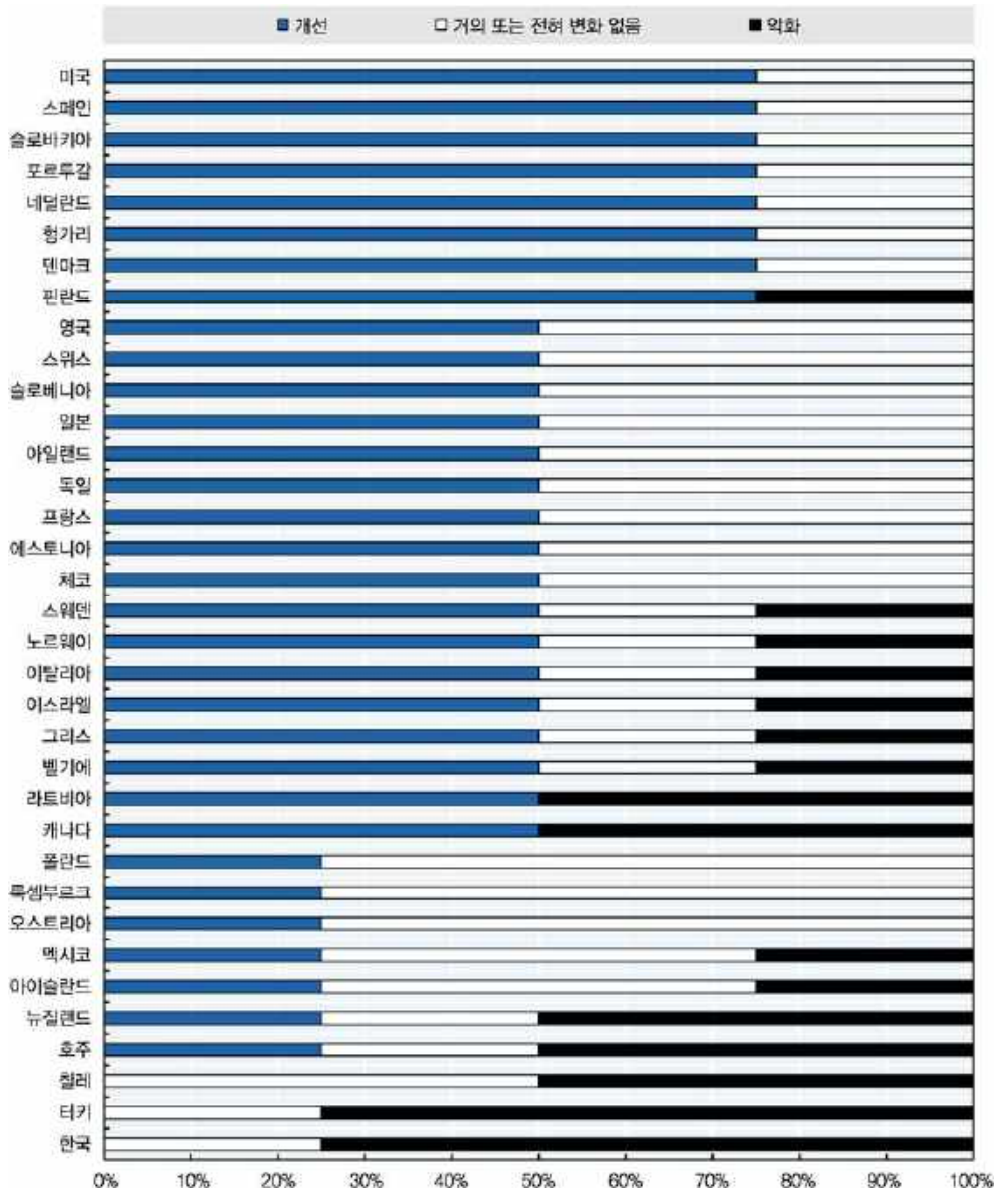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na-data-en>

OECD Structural Analysis (STAN) database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5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부록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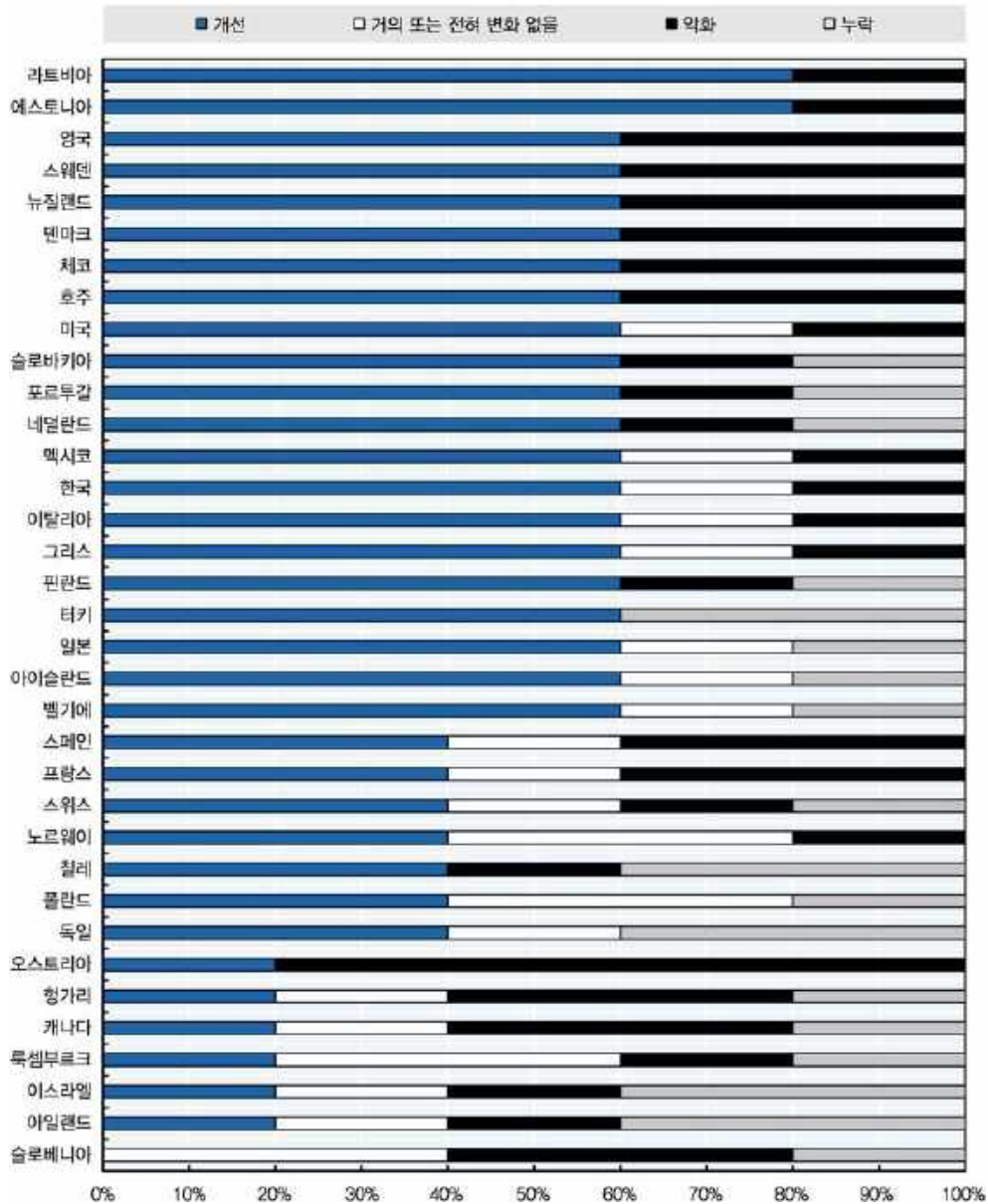
그림 1.A.1. 2005년 대비 선택된 자연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지표의 비율(총 4개 지표 중)



주: 개선되었거나 거의 또는 전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5983>

그림 1.A.2. 2005년 대비 선택된 인적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지표의 비율(총 5개 지표 중)



주: 9년 미만의 시계열을 가진 국가는 이 분석에서 제외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계열이 중단되어 가장 최근 3년만 고려한 교육 성취도는 예외로 한다. 개선되었거나 거의 또는 전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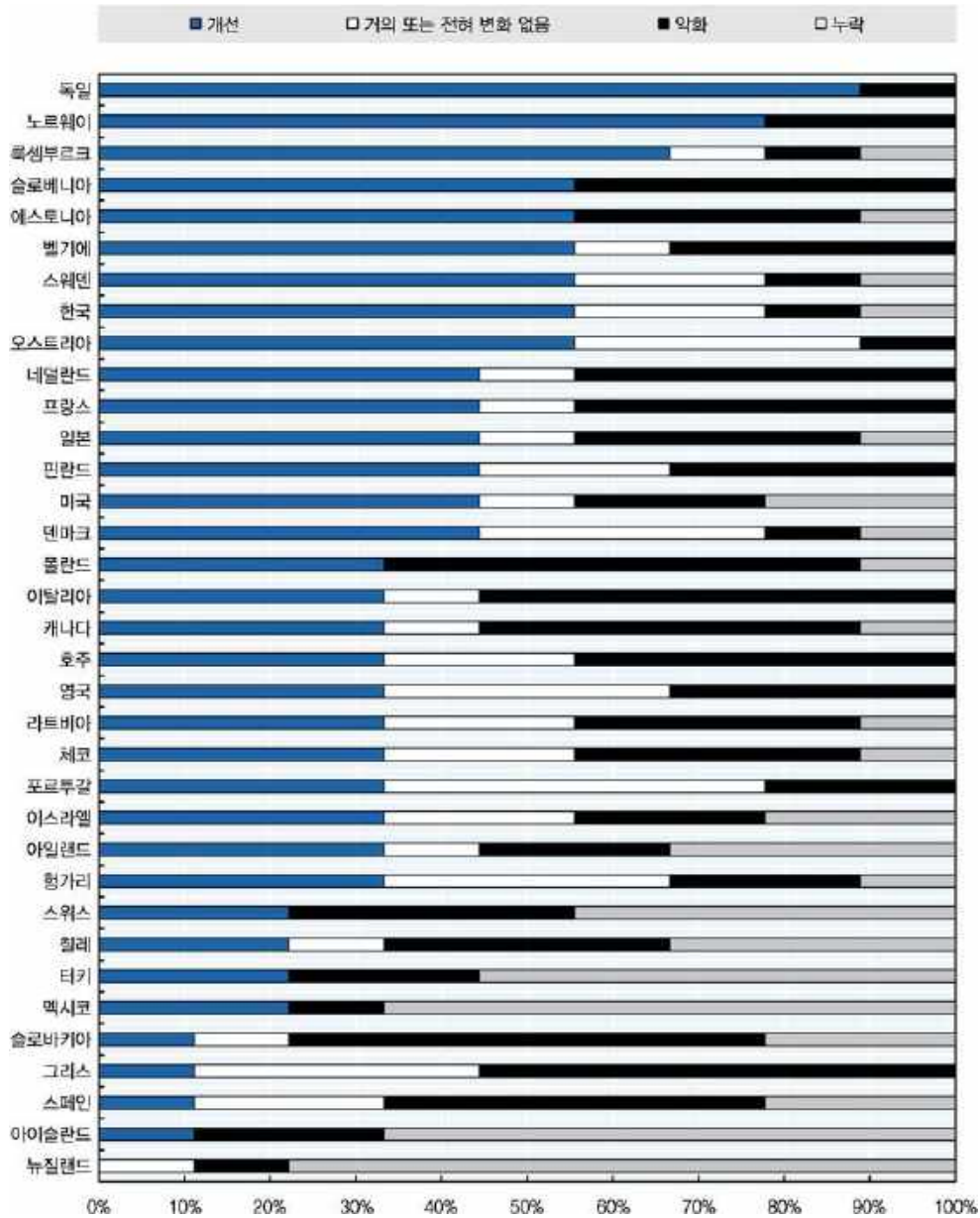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002>

그림 1.A.3. 2005년 대비 선택된 경제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지표의 비율(총 9개 지표 중)



주: 9년 미만의 시계열을 가진 국가는 이 분석에서 제외되며, 단 모든 국가에서 두 시점의 데이터만 제공한 가구순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선되었거나 거의 또는 전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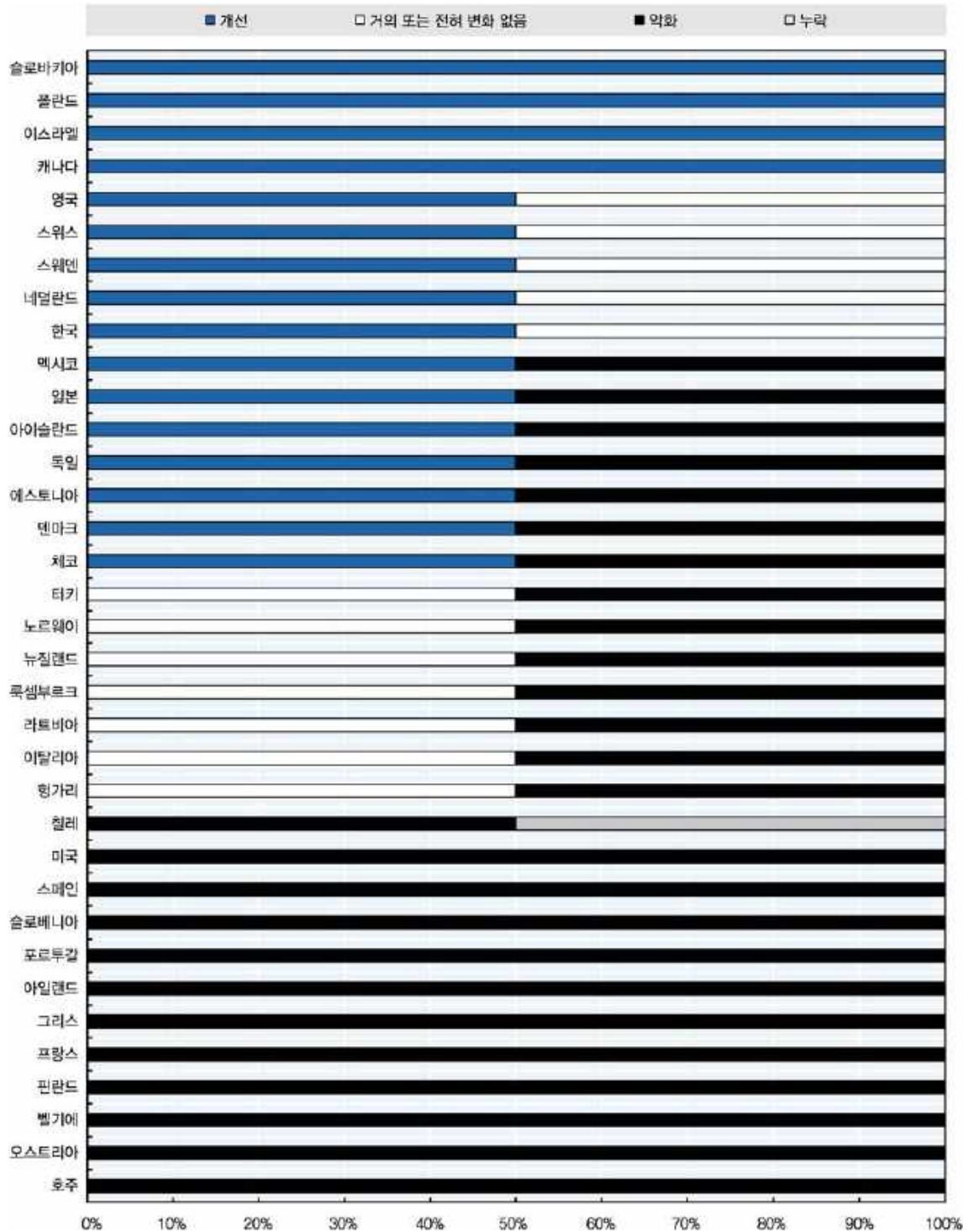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021>

그림 1.A.4. 2005년 대비 선택된 사회 자본 지표의 국가별 변화
지표의 비율(총 2개 지표 중)



주: 개선되었거나 거의 또는 전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의 국가별 현황에서 찾을 수 있고, 전체 시계열 정보는 본 버전과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과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나와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040>

제 2 장

웰빙의 불평등 측정

한 사회에서 성과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웰빙 측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최근 불평등에 관한 많은 논쟁에서는 소득과 자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불평등은 개인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프레임워크와 지표를 제공하여 다양한 웰빙 영역에 걸쳐 불평등을 평가하고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에 관한 성과를 모두 다룬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누가 무엇을 차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측정에 대한 여러 접근법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웰빙의 불평등이 모든 OECD 국가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사회는 다른 곳보다 더 평등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국가는 없다. 웰빙 성과의 불평등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단계도 고찰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론: 웰빙의 불평등이 왜 중요한가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 정부, 시민 사회, 기업, 시민의 마음 속에 크게 자리잡았다. 최근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장기적 영향, 중위 임금의 정체,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불평등이 중요한 정치적 안건이 되는 데 모두 일조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현저히 증가했다(OECD 2016b, 2015b).¹ 2015년 9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 정부는 상호 연결된 다양한 목표를 통해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 정책 조치를 결합해야 한다(박스 2.1, UN 총회, 2015).

불평등의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든 원인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Milanovic, 2010). 일부 불평등은 열심히 일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더 나은 능력과 경험을 얻기 위해 투자한 사람에 대한 보상의 결과이다(Salverda, Nolan 및 Smeeding, 2009). 또 다른 불평등은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빈곤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 개선된 기술, 더 높은 생활수준, 더 나은 정책의 혜택이 다른 곳으로 확산 되기 전에 일부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먼저 도달하기 때문이다(Deaton, 2013). 소득과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결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불평등은 불공평한 기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상위 계층에 혜택이 주어지면 함께 번영을 누리기 보다 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정치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편익이 생긴다(Stiglitz, 2012).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정책 조치는 각기 다른 요인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든 심열된 사회는 안정성과 성공 측면에서 위험을 수반한다.

불평등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가장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좋은 학교와 건강 시설 등)에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적고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장벽에 부딪힌다. 다른 종류의 불평등이 중복되고 상호 강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계층을 오르기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장애물을 만들 수 있다. 불평등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자존감과 열망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청년층에서) 체념, 정신 건강 문제, 반사회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Sheehy-Skeffington, 2017). 그러나 불평등 증가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생활수준과 기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중산층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OECD, 출간 예정).

박스 2.1. 불평등과 2030 의제

2015년 9월 25일, UN 총회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의 일환으로 빈곤 퇴치, 기후 변화 방지, 불의에 맞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채택했다. 특정 목표 중 하나(SDG 10)는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감소”에 관한 것이다. 이 목표는 하위 40%에 대해 평균 이상의 소득 증가를 촉진하는 것(세부 목표 1)부터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성을 돕는 것(세부 목표 2)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세부 목표를 포함한다.

SDG 10 외에도 다른 SDG는 2030년까지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성을 촉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1(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목표 2(기아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 목표 3(건강한 삶 보장, 모든 연령대의 모두를 위한 웰빙 증진)
- 목표 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 목표 5(양성 평등 달성, 모든 여성의 권한 강화)
- 목표 6(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가용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 목표 7(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 목표 8(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목표 11(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 목표 16(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보다 일반적으로 2030 의제의 불평등 해결 약속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서약에 포함되어 있다.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의해 정의된 모든 집단을 위해 세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SDG는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웰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교차 문제로 불평등을 이해하는 정도를 강조한다.

소득 분포의 하위 또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가장 가시적인 영향 외에도, 불평등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출간 예정). 예를 들어, 불평등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의 구매력을 제한하고 빈곤층과 중산층 가정이 자녀의 능력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OECD, 2015b). 높은 불평등은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첫째, 집단 간의 “사회적 장벽”을 만들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제한한다. 둘째,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불공평한 이점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공공재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어진다. 망가진 신뢰는 편협함, 차별,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Stiglitz, 2012). 마지막으로, 불평등은 오늘날의 사회를 위한 관심사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이동성을 위축시키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OECD, 2011a). 부모의 배경이 미래의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재분배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지만 포퓰리즘을 유발할 수도 있다(OECD, 출간 예정).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포함시키기 위해 불평등 측정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구소득 분포 측면에서만 불평등을 분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특히 측정 기준과 좋은 비교 증거가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이 웰빙의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방식으로 삶의 질을 형성할 수 있지만, 좋은 삶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대수명 또는 대기오염 노출 등의 결과에 대한 불평등 측정을 확대하면 여러 이점과 단점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광범위하고 상호 연관된 정책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국제 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박스 2.1), 시간 경과에 따른 웰빙 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다. 1판 이후 *'How's Life?'*는 웰빙 불평등의 중요성을 입증했고,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의 불공평한 분포를 강조했다(건강 상태, 교육, 일자리 등). 이번 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웰빙의 불평등이 얼마나 큰가? 2)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웰빙 불평등을 경험할 위험이 있는 그룹이 있는가? 이번 장에서는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질문을 살펴보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와 새로운 분석 접근법을 제공한다.

포괄적 성장을 위한 OECD 프레임워크(OECD, 2014a)의 개발에 반영되고 OECD가 회원국의 성장 성과(확장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프레임워크, OECD, 2017a)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에 최근 불평등이 포함된 것처럼 이번 장은 사람들의 웰빙, 포괄성, 평등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OECD 활동의 일부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모든 유형의 공공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 “GDP를 넘어서” 그리고 “평균을 넘어서”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OECD 국가의 정부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섹션은 웰빙의 불평등을 정의하고 측정할 때 관련된 주요 개념적, 방법론적 과제를 설명한다. 다룰 주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만을 다룰 것이다. 이 장에서 제시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선택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런 다음 OECD 국가의 다양한 불평등 유형에 관한 증거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에 대한 통계적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론 섹션에 제시한다.

웰빙의 불평등 측정

불평등 측정은 한 사회에서 성과가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수치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불평등의 개요 측정마다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수직적**” 불평등 측정은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걸쳐 성과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룬다. 예를 들어, 분포의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사이의 격차 크기를 살펴본다. 대조적으로 “**수평적**” 불평등 측정은 특정한 특성(남성과 여성,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교육 수준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으로 규정된 인구 집단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결합**” 측정은 웰빙의 특정 수준 또는 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밀집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 등)의 비율을 보고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 측정은 불평등의 동적 측면, 즉 사회계층의 최하위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접근법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또는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려고 한다(McKay, 2002; Bourguignon, 출간 예정).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한다(박스 2.2).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여러 접근법을 조합해야 한다.

박스 2.2. 불평등 개념화

불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결과가 고려되는지(즉 무엇이 불평등), 어떤 그룹을 다루는지(즉 누구의 불평등), 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즉 정적 또는 동적 측정), 결핍과 불평등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나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관한 관점은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의 불평등인가?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가장 명백한 문제는 삶의 어떤 차원을 고려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불평등은 가구소득의 분포 측면에서만 분석되었다. 그런데 건강 상태, 자산, 교육과 역량 등 소득 외에 웰빙 성과의 분포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최근 들어 새로운 방향의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Murtin 외(2017), OECD, 2012).

누구의 불평등인가?

본질적으로 불평등 측정은 “누가 무엇을 차지하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수직적 불평등 측정은 한 사회에서 개인 간의 분산 상태를 살펴보는 반면, 수평적 불평등 측정은 민족, 종교 집단 또는 지역, 나이, 성별 등으로 나뉜 집단 등 일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한다(Stewart, 2009). 두 관점 모두 특정 상황에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득 수준이 빈곤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수직적 불평등 측정이 더 적절하다. 한편 수평적 불평등은 특정 집단(예: 이주민, 청년 또는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을 강조할 수 있다.¹ 수평적 불평등은 또한 기회의 불평등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이 성별인 경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는 노동시장에서 기회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볼 수 있지만 각 성별 집단 내의 소득 분포는 성과의 불평등으로 해석될 것이다(Bourguignon, 출간 예정).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분석 단위로 개인 또는 가구를 선택할지 여부와 관련 있다. ‘How’s Life?’ 프레임워크에서 사람에 대한 초점은 개인 수준의 측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성과와 경험을 공유한다. 이는 경제적 자원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동일한 가구나 가족 구성원이 이러한 공유 자원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자원을 한데 모아서 동등하게 공유한다는 기존 가정에 의해 무시되었던 가구 내 불평등을 고려해야 한다(Chiappori 및 Meghir(2015), Kanbur 외, 출간 예정)

마지막으로, 불평등은 다른 지리적 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다. 불평등은 국가 내,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즉 살고 있는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세계 시민” 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Milanovic, 2016, 2012). 이번 장에서 이러한 “전 세계 불평등”은 평가하지 않지만, 세계화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평가할 때와 같이 다양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공간적 불균형은 ‘How’s Life in Your Region?’(OECD, 2014b)과

박스 2.2. 불평등 개념화(계속)

'Regions at a Glance' (OECD 2016c)뿐 아니라 'How's Life?'(OECD, 2015a)의 2015년 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불평등 평가 기간

불평등은 특히 특정 웰빙 차원에 대해 지속되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연구할 가치가 있다. 지속적인 불평등은 특정 기간에 대해 한 사회 내의 지속성 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장단점의 지속성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전체 사회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약하지만 “교란(churning)”을 간과할 수 있다. 즉 총 불평등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개인은 분포의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나머지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상향 또는 하향 이동성이 더 낮은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불평등에 대한 장기적 관점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낡은 경계는 관련성을 잃지만 새로운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연구 대부분은 특정 해의 다양한 삶의 성취 분포에 대한 “간략한 정보(snapshot)”를 사용하여 불평등을 평가하는 반면, 횡단면 분석은 개인의 수명주기에 대한 이동성이나 세대에 걸친 이동성 등 불평등의 동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종단적 조사로 보완되어야 한다(Atkinson(1997), Blanden, Gregg 및 Macmillan(2013), OECD, 출간 예정).

불평등과 결핍

결핍은 불평등과 관련되지만 별개의 개념이다(Atkinson(1987), Haughton 및 Khandker(2009)). 불평등은 특정 성과의 전체 분포와 관련이 있지만 결핍은 최하위, 즉 결핍 경계 아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McKay, 2002). 다른 측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결핍이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측면은 밀접하게 얽혀 있고, 보완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결핍과 불평등은 동반 상승하거나 하락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분포의 상위와 중위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낮은 결핍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불평등이 높을 수 있다.

결핍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생활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경우, 해당 국가와 시점에 전형적인 생활수준(중위 소득의 50% 등)과의 비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핍의 두 가지 개념(절대적, 상대적)은 매우 다르며 별개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절대 빈곤은 일반적으로 생계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에 관한 것이며, 상대적 결핍은 국가의 일반적인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건에 있다는 것이다(Atkinson 및 Bourguignon, 2000). 상대 임계점은 국가별로 다르고, 절대 임계점은 특정 국가를 나타내거나 세계은행의 “극빈” 측정(Ferreira 외, 2015)이나 Eurostat의 “물질적 결핍” 측정(Guio, Gordon 및 Marlier, 2012)의 경우처럼 국가 간에 공통적일 수 있다.

성과 또는 기회?

결과의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과 이러한 노력이 행해지는 특정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 기회의 불평등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지만(예: 인종, 성별, 출생지 또는 가족 배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와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을 나타낸다(Roemer, 1998) 어떤 부분의 불평등이 가족 배경과 같은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아는 것은 양질의 교육과

박스 2.2. 불평등 개념화(계속)

건강 관리 서비스, 정치적 대표성 또는 고용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개인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측면에서 성과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 Bourguignon(출간 예정)가 설명하듯이 실제로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을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 첫째, 불평등의 상대 평가에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하는 행운처럼 노력과 상황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을 뛰어넘는 성과의 불평등을 형성하는 요소가 있다(Frank, 2016).
- 둘째, 노력이나 환경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과 상황의 차이가 흐릿한 경우가 있다(예: 자녀가 과외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그들의 선택이나 취향 뿐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과 자원에 따라 다르다). 이는 개인의 성과를 형성할 때 주어진 상황(예: 성별)의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즉시 관찰할 수 없는 측면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상쇄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성과와 기회 사이의 관계는 역동적이고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세대 맥락에서 성인 간 성과의 불평등(예: 부모의 교육 수준의 불평등)은 자녀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는 거주 지역, 교육, 시간 할당, 물질적 유산 등에 대한 선택을 통해 자녀에게 사회적, 인적, 재정적 자원을 주기 때문에 자손들이 경험할 기회(와 성과)를 형성한다(OECD, 출간 예정).²

이러한 개념 및 측정 문제로 인해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결과의 경우 국가 간 비교와 시간 경과에 따른 비교는 쉽게 이해되고 데이터에 기반하지만, 기회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1. 이러한 두 가지 다른 특성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 불평등 측정에 대한 등급의 경우(예: 평균 로그 편차) 사회의 총 수직적 불평등은 집단 간(즉 수평적 불평등) 및 집단 내 구성요소로 분해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성과가 집단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분산되어 수평적 불평등이 매우 낮고 (또는 존재하지 않음) 수직적 불평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2. 아동의 관점에서 기회의 불평등과 성과의 불평등을 살펴볼 때, “수용 가능” 및 “수용 불가능” 불평등의 개념은 흡족하지 않다. 성인에 대한 성과 불평등의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성인의 노력이나 개인적 선택에 기인한 것)은 이러한 성과를 통제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측정 및 데이터 문제

박스 2.2에 제시된 개념적 고려사항 외에도 불평등을 평가할 때 선택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표 선택. 수직적 불평등**(즉 전체 인구에 걸쳐 성과의 분포와 관련된 불평등)은 분포의 다른 백분위수를 비교하거나(예: 분포의 상위 및 하위 5분위수 또는 백분위수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성과 사이의 비율) 분포의 전체 분산을 요약하는 척도(예: 편차 또는 지니 계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각 요약 척도는 분포의 다른 측면을 포착하고 방법론적 장·단점이 있으며 일부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² 또한 소득 불평등을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연속 변수)는 일반적으로 서수 카테고리에 대해 정의되는 교육, 건강 상태, 주관적

웰빙과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생의 교육 성취도가 중학교 중퇴 학생보다 더 높다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얼마나 더 높은지 정량화할 수 없다. 연구자들은 중간값 기반 척도에 의존하거나(Allison 및 Foster, 2004) 5분위수와 10분위수 비율을 채택하여(Kalmijn 및 Veenhoven, 2005) 서수 문제에 접근한다.

- **기준 집단 선택.** 수평적 불평등을 측정할 때(즉 인구의 특정 집단 간의 차이) 비교를 위해 기준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예: 여성에 대한 성과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과와 비교된다). 그러나 “기준”으로 어떤 집단을 선택하느냐는 설명할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민족 집단의 경우 예를 들어 지배적인 집단은 “일반적인” 경험을 대표하는 데 사용되고, 소수 집단은 그와 비교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선택은 간단하지 않으며(예: 연령 집단) 분석의 목적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 **집계 수준.** ‘How’s Life?’ 프레임워크에서 현재 웰빙의 11가지 차원에 걸쳐 불평등을 조사하는 것은 전체 또는 하위 차원 집합을 통합하는 종합 지수의 개발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종합 지수가 간략한 상황 설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집계 및 가중치에 대해 다수의 선택을 해야 하므로 개념적으로 구성하기 어렵다.³ 또한 특정 정책 조치를 식별하려면 이 지수를 구성요소로 분해해야 한다.

이 장의 후반부에 제시된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웰빙 불평등 분석의 폭과 깊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의 부족과 다양한 척도를 세분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 가구 설문조사는 웰빙 불평등 분석을 위한 주요 데이터 자료원이다. 그러나 웰빙의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는 설문조사는 개인 수준에서 여러 결과를 추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는 다양한 웰빙 차원 간의 상관관계나 개인 수준의 이익과 불이익의 축적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가구 설문조사는 물질적 조건부터 건강 상태,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한 설문조사는 개인과 가구의 현황을 보여주는 풍부한 정보원이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가구 설문조사는 경제적 자원 분포의 최상부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불평등 측정에 편향을 가져온다(박스 2.3).
- 시간 경과에 따른 불평등 변화 분석은 이용 가능한 비교 데이터의 대부분이 몇 년으로 제한되는 주택,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개인적 안전,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과 같은 많은 웰빙 차원에서 제한적이다.
- 집단 전체에 걸쳐 웰빙을 비교하려면 대규모 인구 표본이나 특수 하위 표본이 필요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의 표본(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저소득 노인, 이주민 등)은 이러한 목적으로는 너무 작다.
- 대부분의 경우에 설문조사 데이터는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의 일부 척도(예: 교육, 직업 또는 드물게는 소득)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러한 특성이 설문조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거나 이들 집단이 표본에서 과소 대표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표식”에 대한 정보(예: 인종, 장애, 성적 지향)가 희박하다.

박스 2.3. 소득 분포의 상위 측정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한 이후 상위 소득은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경제 연구는 상위 소득의 장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문헌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관심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Atkinson, Piketty 및 Saez, 2011). 이러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상위 소득이 다른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Burkhauser 외(2012), Förster, Llana-Nozal 및 Nafilyan, 2014).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불평등의 측정과 훨씬 더 높은 집중으로 인해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소득 불평등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가구소득과 지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설문 조사는 보고된 상위 소득의 대표성과 정확도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다. 여기에는 표본추출(부유층의 과소 대표), 데이터 수집(단위 무응답, 항목 무응답, 항목 과소 보고, 기타 측정 오류), 데이터 준비(답 코딩 트리밍(top coding trimming) 또는 중도절단(censoring), 하위 표본 제공, Atkinson, Piketty 및 Saez, 2011) 관련 문제가 포함된다. 그러한 설문조사는 상위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열악하거나 누락되더라도 중위 소득과 빈곤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을 추정하는 경우 상위 소득에 대한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파일의 데이터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유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 첫째, 많은 국가는 탈세 및 조세 회피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소득의 과소 신고를 초래한다. 둘째, 부가급부(fringe benefits)나 귀속지대(imputed rent)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세금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에서 제외된다(예: 자본소득의 증가분이 면세이거나 원천세 대상인 경우, 이는 상위 소득 비율의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세금 환급 데이터는 상위 소득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상위 소득이 전체 분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최근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접근법은 소득세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득 분포의 윗부분을 추정하는 다음, 이를 가구 설문조사의 불평등 척도와 결합하여 “완전한” 소득 분포의 추정치를 얻는 것이다(Jenkins, 2017). 그러나 가구 설문조사 데이터와 세금 기록을 결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데이터 소스가 다른 소득 정의를 사용하고(가치분 vs. 과세 대상) 분석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가구 vs. 세금 단위, 개인일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국가 간에, 시간 경과에 따라 그러한 추정치를 비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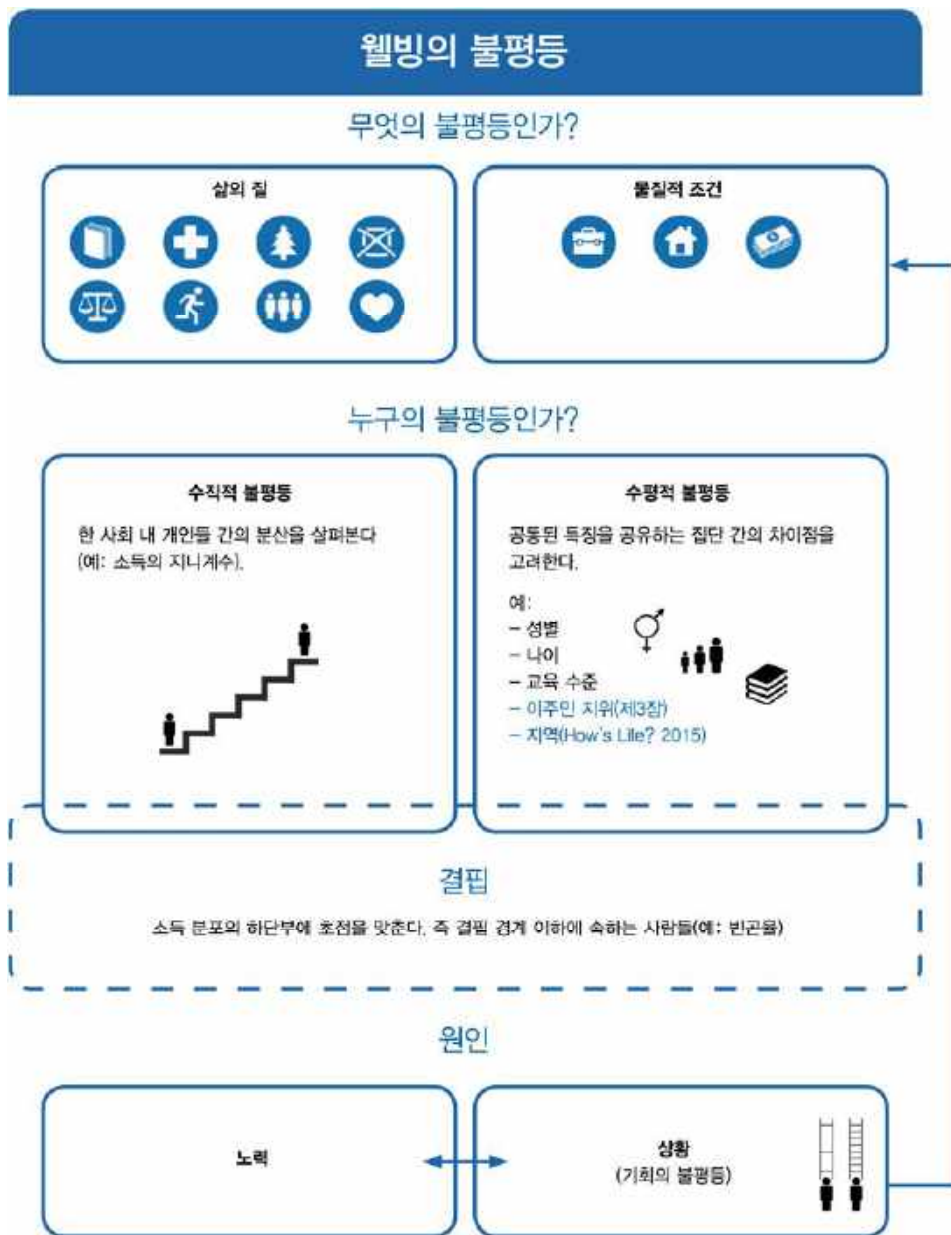
Ruiz 및 Woloszko(2016)는 상위 소득의 회계 처리가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소득 불평등 수준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2011년에 상위 소득에 대해 보정된 지니계수는 보정 전보다 평균적으로 6% 포인트 더 높았고, OECD 국가 평균의 경우 0.31에서 0.37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중위 소득 간 비율은 10에서 15로 상승했다.

- 누적된 불이익을 연결하는 인과관계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삶의 여러 단계를 통해 동일한 사람을 추적하는 장기간의 종단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설문조사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제공한다(예: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웰빙 불평등 측정을 위해 제안된 프레임워크

그림 2.1은 웰빙 성과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 사용한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에서 불평등 측정을 살펴봄으로써 “누가 무엇을 차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범위는 다르지만 ‘How’s Life?’ 프레임워크에 사용된 현재 웰빙의 11가지 차원을 이번 장에서 다룬다(박스 2.4 참조). “수직적 불평등”(위에서 아래로 인구 계층에서 성과의 분포와 관련)과 “수평적 불평등”(특정 인구 집단 간 격차의 크기와 관련)을 고려한다. 웰빙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특별 관심 대상이므로, 특히 분포의 하단부에 초점을 맞춘 결핍 측정도 이 프레임워크에서 고려된다.

그림 2.1. 웰빙 성과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박스 2.4. 웰빙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선택

가능한 경우 'How's Life? 2017'의 다른 장(제1장, 제5장)에서 사용된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는 이번 장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몇 가지 예에서, 중심 지표는 웰빙 성과의 분산을 강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추가 지표(예: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도 사용된다. 모든 지표에 항상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된 척도는 전반적인 분산의 측면("수직적" 불평등)과 각 차원에서 집단 간 차이("수평적 불평등")를 포착한다. 이는 **수직적 불평등**을 평가하는 것이 수평적 불평등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수평적 불평등이 수직적 불평등보다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예: 기대 수명의 차이는 여성과 남성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

다음 분석은 출신에 관계없이 웰빙 성과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준다. 나이, 성별, 교육 성취도는 이번 장에 사용된 **수평적 불평등**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을 제공한다. 다른 많은 인구 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 역시 웰빙 성과를 형성한다(예: 장애, 민족, 거주지). 그중 일부는 이 보고서의 다른 장(이주민 배경에 따른 웰빙 불평등 평가는 제3장 참조)이나 이전 판(웰빙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개요는 OECD, 2015a의 제5장 참조)에서 다룬다. 다른 특성(예: 장애, 민족, 성적 지향)의 경우, 비교 증거는 안타깝게도 제한적이다. 또한 표본 크기로 인해 여러 가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예: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으로서의 영향).

기회의 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에 의해(PISA 기준으로) 15세 학생의 역량 차이를 다루는 지표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다룬다.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증거는 데이터가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해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장에 제시된 것 외에도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른 기회의 불평등 척도가 존재한다(OECD, 출간 예정).

선택된 웰빙 성과에 대해 개인의 생애주기 동안 **불평등 지속**에 관한 증거는 국가의 하위 집합에 포함된다. 비교 가능한 장기간 종단적 조사나 코호트 연구가 없는 경우, 분석은 횡단면 조사의 회고적 정보에 의존한다. 유사한 특성(예: 높은 교육 또는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가능성("선택 결혼") 범위에 대한 몇 가지 증거도 제공된다. 이는 가구 간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 불평등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율 척도가 사용된다(하위 20%의 평균 결과 대비 상위 20%가 달성한 평균 결과 등). 이는 전체적인 형태 대신 분포의 특정 부분에 필연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만 기수 척도(예: 소득)와 서수 척도(예: 정치 효능감)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율 척도는 또한 비교적 쉽게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다. 높고 성과자와 낮은 성과자 사이에 사회계층의 단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5분위수 간 비율(일반적으로 S80/S20)은 극단적인 값에 덜 취약하고 더 넓은 분포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분위수 간 비율(예: P90/P10)보다 선호된다. 예외적으로 P90/P10 10분위수 간 비율은 총 소득의 분산(데이터 가용성 제약으로 인해)과 학생 및 성인 역량의 분산(PISA와 PIAAC 조사에 사용된 보정 및 조정 절차로 인해)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 수명의 불평등에 대해 사용하는 일반 척도는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이다. 마지막으로 순자산의 수직적 불평등은 가구의 상위 10%의 자산 비율로만 요약된다. 이는 분포의 하단부가 종종 음의 값이나 매우 적은 비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S80/S20 자산 비율은 일반적으로 매우 크고 때때로 음의 값을 갖는다). 표 2.1은 웰빙 차원에 따른 지표의 목록과 프레임워크를 채우는 불평등의 유형을 보여준다.

박스 2.4. 웰빙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 선택(계속)

표 2.1. 웰빙의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과 지표

웰빙 차원	지표		
	수직적 불평등	수평적 불평등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결핍
소득과 자산	가구 가처분소득 S80/S20 비율 상위 10%의 가구순자산 비율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격차 평균 가구 순소득 격차	상대적 소득 빈곤 자산 기반 빈곤
일자리와 임금	총소득 P90/P10 비율	평균 시간당 소득 격차 고용률 격차 실업률 격차 저임금을 받을 위험 격차	저임금 위험 실업률
주거 상태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택에 지출하는 사람의 비율 과밀집 주거 가구의 비율
건강 상태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자기보고 건강 상태 격차 교육 수준, 남성, 여성별로 25세의 기대여명(년) 격차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S80/S20 비율 개인 생활과 여가에 쓰는 시간 S80/S20 비율	개인 생활과 여가에 쓰는 평균 시간 격차 장시간 근로 빈도 격차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교육과 역량	PISA 점수 P90/P10 비율 PIAAC 점수 P90/P10 비율	고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25~64세 성인의 비율 격차 모든 영역에서 평균 PISA 점수 격차 부모의 교육 수준별로 모든 영역에서 평균 PISA 점수 격차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 격차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25~64세 성인의 비율 과학, 읽기, 수학(PISA)에서 2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15세 학생의 비율 문해력과 수리력(PIAAC)에서 1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인의 비율
사회적 관계	사회 활동에 소비한 시간 S80/S20 비율(참가자들 사이에서만)	사회 활동에 소비한 평균 시간 격차 네트워크 지원 품질 격차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정치 효능감 S80/S20 비율	정치 효능감 격차 자기보고 투표율 격차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국가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환경의 질		지역의 수질 만족도 격차	PM _{2.5} 의 15µg/m ³ 이상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 지역의 수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개인적 안전		10만 명당 폭행에 의한 사망자 격차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격차	10만 명당 폭행에 의한 사망자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S80/S20 비율	평균 삶의 만족도 격차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부정적인 균형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

그림 2.1의 아래 부분은 불평등의 원인, 즉 노력의 차이,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의 차이(즉 기회의 불평등), 이러한 요소의 상호작용(각 요소를 연결하는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을 나타낸다(박스 2.2).⁴ 박스 2.4는 프레임워크를 채우는 42가지 고유 지표의 선택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스, 국가 범위, 유효 연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2.A의 표 2.A.1에 나와 있다.

웰빙 성과의 불평등에 대한 증거

그림 2.2~2.10(아래)은 다양한 웰빙 차원에서 OECD 국가별 불평등 성과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그리고 부록(표 2.A.1)에 제시된 지표의 대시보드에 포함된 정보를 요약한다. 이러한 증거를 살펴볼 때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한계를 유념해야 한다.

-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이상의 지표에서 정보가 누락되어 몇몇 국가의 경우 데이터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가구자산,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여가와 개인 생활에 쓰는 시간, 사회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제한된 국가 범위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는 4가지 웰빙 성과다. 결과적으로 상대적 성과 분석은 표 2.A.1 및 박스 2.4에 열거된 지표의 하위 집합, 즉 가용 데이터가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다루고 있다.⁵ 따라서 그림 2.2~2.10의 분석은 다양한 지표에 의존하며, 이는 그림 주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둘째, 분석은 상대적 성과를 기록한 차원과 지표에 관계없이 국가 간 웰빙 불평등에 대해 수준 높은 설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역인지 상세한 설명 없이 노르웨이가 특정 분야에서 낮은 불평등을 기록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보완하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 부록 2.A는 국가별, 지표별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성과의 증거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분석은 가장 평등한 국가와 가장 불평등한 국가 사이에 사다리의 단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강조할 수 없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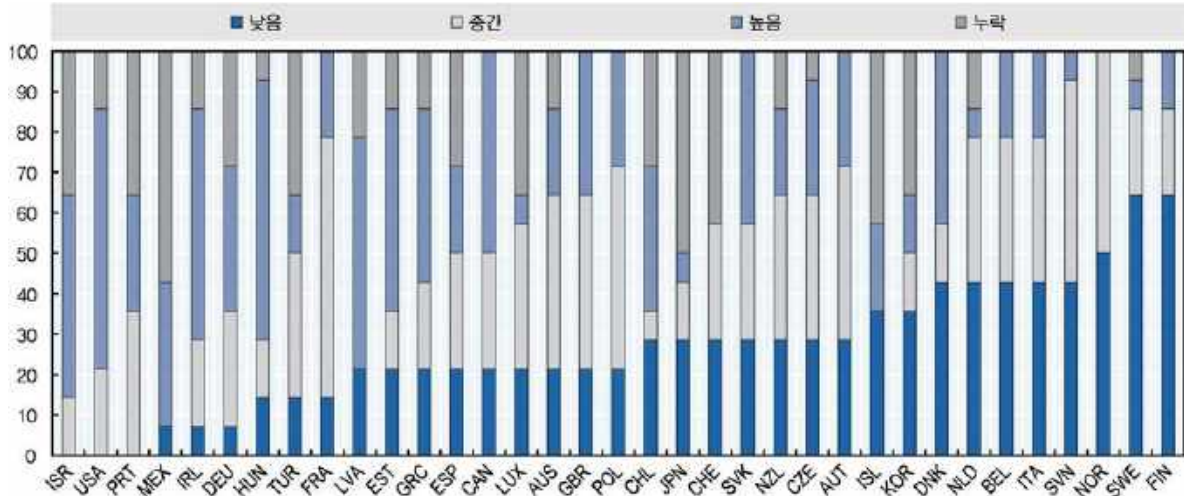
아래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분석에서 얻은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일부 국가가 여러 웰빙 성과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평등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불평등 지표를 고려하면 모든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직적 불평등

상위에서 하위까지 전체 인구에 걸친 성과 분포(수직적 불평등)는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표 2.1에서 보듯이, 각 웰빙 차원의 불평등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각 차원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차원 내 불평등 지표는 합계가 1이 되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3가지 다른 지표를 통해 한 가지 차원을 측정할 경우, 각 지표는 1/3의 동등한 가중치를 갖게 된다. 그림 2.2는 각 국가가 낮은 불평등이나 높은 불평등 또는 “중간”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데이터를 제공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 중 64%에서 낮은 불평등을 보이며(즉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순자산, 총소득, 학생 역량, 정치 효능감, 삶의 만족도), 가중치가

그림 2.2. 웰빙의 수직적 불평등

불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 중간인 국가, 높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각 차원 내 지표에는 합계가 1이 되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한다. 각 국가에 대해 “낮은 불평등”은 불평등 수준이 OECD 국가의 하위 1/3에 속하는 웰빙 성과의 수를 나타낸다. “높은 불평등”은 OECD 국가의 상위 1/3의 불평등 수준을 나타낸다. 가용 데이터가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특히 7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이 가중치가 적용된 9개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 가계 균등화 가처분소득 S80/S20 비율과 상위 10%의 자산 비율, “일자리와 임금”의 경우 총소득의 P90/P10 비율, “건강 상태”의 경우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근로시간의 S80/S20 비율, “교육과 역량”의 경우 PISA 점수와 PIAAC 점수의 P90/P10 비율,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의 경우 정치 효능감 S80/S20 비율, “주관적 웰빙”의 경우 삶의 만족도 S80/S20 비율.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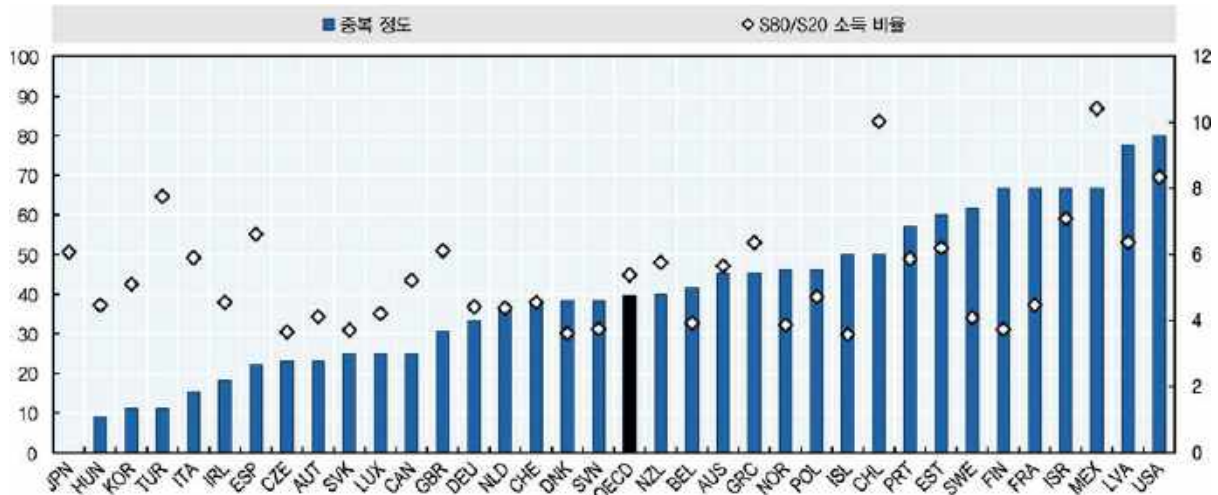
적용된 지표의 21%에서 중간 성과를 거두고(즉 근로시간과 성인 역량) 나머지 15%에서 불평등 수준이 높았다(즉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 있는 이스라엘은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50%에서 높은 불평등, 14%에서 중간 성과, 36%에서 누락된 정보를 기록했다.

당연히 북유럽 국가는 수직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 가장 평등한 OECD 국가에 속한다. 이 패턴은 소득 불평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입증되었지만, 그림 2.2는 다른 비경제적 차원에서 수직적 불평등을 고려할 때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득과 다른 차원의 불평등 간의 관련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느슨하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OECD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다양한 차원을 고려할 때 수직적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즉 수평 축의 오른쪽).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미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는 소득 불평등이 높고 수직적 불평등이 높은 웰빙 성과가 많은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차원에서 평균 성과를 보였다. 이 증거를 검토할 때, 그림 2.2가 달성된 평균 웰빙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별 상대적 불평등 수준을 설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평균 웰빙 수준이 낮으면서도 불평등 수준이 낮은 성과를 많이 보일 수도 있다(제1장의 분석 참조).

그림 2.3은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과 다른 웰빙 영역의 수직적 불평등 수준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득 외의 불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를 제공한다.

그림 2.3. 국가별 소득 불평등과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 사이의 중복

국가별 소득의 수직적 불평등 수준과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 수준이 동일한 1/3에 속하는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소득 불평등과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 사이의 중복 정도를 오름차순으로 국가별로 평가한다. 각 차원 내의 지표에는 합계가 1이 되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각 국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OECD 국가의 동일한 1/3에 모두 속하는 경우 소득 불평등의 성과와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의 성과는 중복된다.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특히 다음 지표를 고려했다. S80/S20 소득 비율, P90/P10 총소득 비율,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S80/S20 근로시간 비율, P90/P10 PISA 점수 비율, P90/P10 PIAAC 점수 비율, 정치 효능감의 S80/S20 비율, 삶의 만족도의 S80/S20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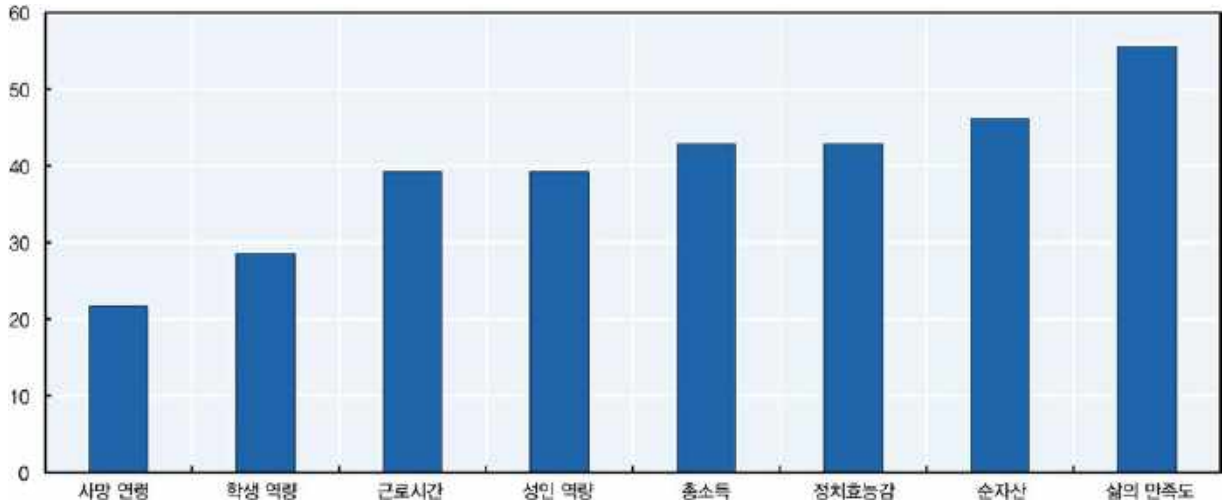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078>

구체적으로 말하면, 막대는 해당 국가에서 S80/S20 소득 비율과 동일한 성과 카테고리(낮음, 중간, 높음)에 속하는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미국은 소득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고, 높은 수직적 불평등의 비율(80%)이 크다. 한편, 핀란드는 소득 불평등이 낮고 수직적 불평등 지표가 상당 부분 겹쳐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소득과 웰빙 불평등 사이의 중복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난다. 헝가리와 일본에서 수직적 웰빙 불평등의 10% 미만이 S80/S20 소득 비율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멕시코와 칠레에서 두 OECD 국가는 소득 불평등이 높고, 수직적 불평등의 다른 지표 사이의 중복 범위가 크다. 그러나 터키, 스페인, 일본 등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국가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오른쪽 수직 축).⁶ 그림 2.3의 분석이 개별 수준에서 성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않지만(즉 소득이 낮은 동일인이 나쁜 건강 상태인지 여부, 이 섹션의 뒷부분에서 설명) 국가 수준에서 높은 소득 불평등이 높은 수직적 웰빙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별 불평등 성과의 유사점을 국가 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평가할 때(그림 2.4) 소득 불평등과 중복되는 정도는 삶의 만족도, 순자산, 총소득, 정치 효능감에서 가장 크다(모든 국가의 40~60%는 각 지표 쌍에 대해 동일한 1/3 성과 국가로 평가된다). 중복은 또한 근로시간과 성인 역량의 경우에 꽤 강하다(3개국 중 1개 이상). 학생 역량과 사망 연령의 수직적 불평등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는 좀더 제한적이다.

그림 2.4. 지표별 소득 불평등과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 사이의 중복
 소득 불평등의 성과와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의 성과가 중복되는 국가의 비율, 최신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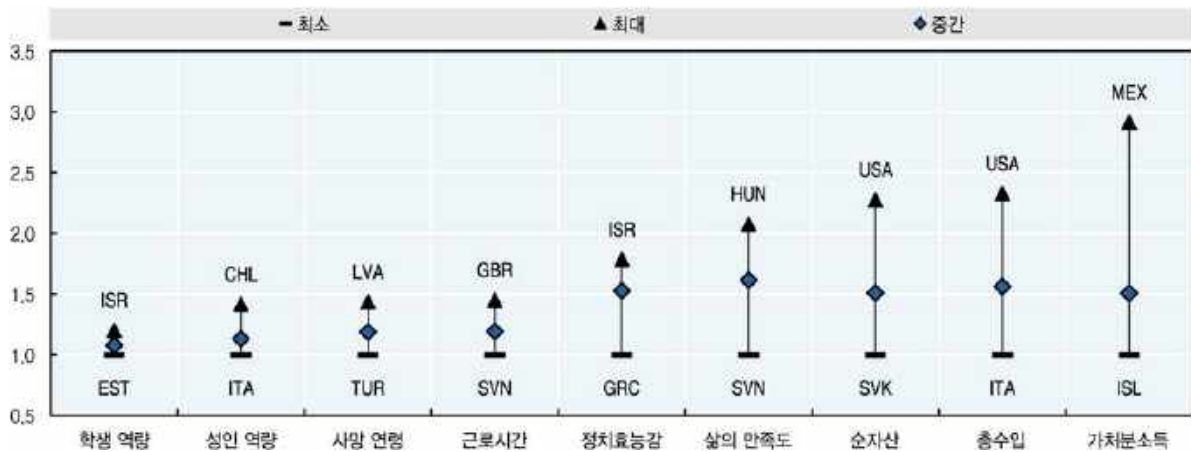


주: 각 국가에 대해 동일한 1/3에 모두 속하는 경우 소득 불평등의 성과와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의 성과는 중복된다(예: 첫 번째 막대를 살펴보면, 정보가 있는 국가의 27%에서 소득 불평등과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는 동일한 높은/중간/낮은 1/3 성과에 속한다).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097>

그림 2.5. 웰빙 성과에 따른 국가별 수직적 불평등 분포



주: 해당 웰빙 성과에서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최대) 국가의 성과는 동일한 결과에서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최소) 국가의 성과의 배수로 표현된다. “중간”은 평균 국가의 불평등 성과를 나타낸다.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116>

그런데 비교 성과에 따른 수직적 불평등 평가는 수직적 불평등 수준의 많은 다양성을 가진다. 그림 2.5는 상위 및 하위 OECD 국가 사이의 격차를 보여준다. 국가 간 성과 격차는 가구 가처분소득(멕시코의 불평등은 아이슬란드보다 거의 3배에 이른다), 총소득, 가구순자산, 삶의 만족도 경우에 가장 크다. 대조적으로 근로시간, 사망 연령, 성인 및 학생 역량에서 격차가 가장 작다(성인 및 학생 역량의 경우 이스라엘의 불평등은 에스토니아에 비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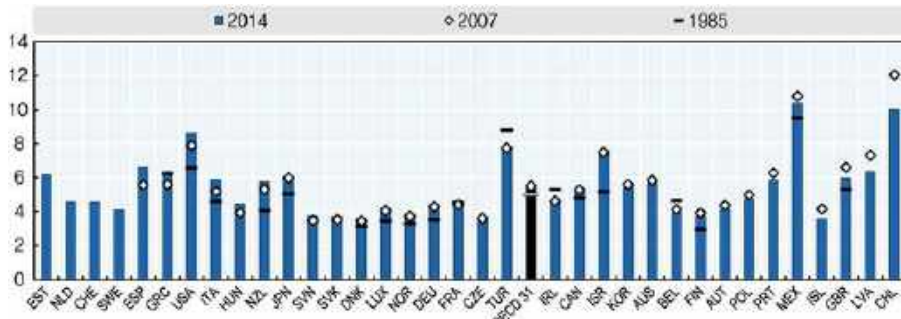
미만 더 높다).

수직적 불평등의 *시간 경과 따른 변화*는 웰빙 성과의 하위 집합 즉,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 순자산, 총소득, 학생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한 수직적 불평등의 척도는 그림 2.2와 같이 모든 영역에 걸쳐 평균 PISA 점수의 P90/P10 비율 대신 과학 성과의 P90/P10 비율을 통해 평가된 인지 능력의 수직적 불평등을 제외하고 그림 2.2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⁷ 그림 2.6에서 여러 패턴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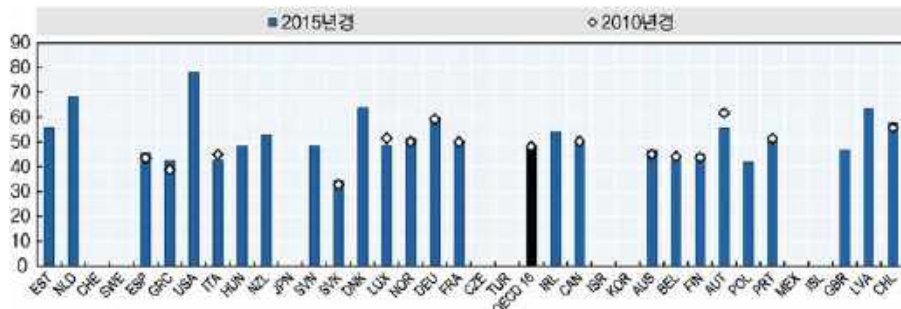
- 금융위기 시작 이후, 소득 불평등은 1980년대 중반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일관된 시계열을 갖는 OECD 31개 국가에서 가처분소득에 대한 평균 S80/S20 비율은 2007~2013년에 5.51에서 5.54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5.49로 하락했다(그림 2.6, 패널 A).⁸ 그러나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소득 불평등은 미국뿐 아니라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칠레, 라트비아, 영국 등 2007년에 가장 높은 불평등을 기록한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감소했다.
- 2010~2015년에 상위 10%가 소유한 자산의 비율은 데이터가 있는 16개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약간 증가했다(48.2%에서 48.7%로 증가, 그림 2.6, 패널 B).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에서 상위 10%가 소유한 자산의 비율은 2% 포인트 하락했지만 이 비율은 스페인과 칠레에서 동일한 양 만큼 증가했고 그리스에서 3%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38.8%에서 42.4%).⁹
- OECD 수준에서 총소득의 불평등(P90/P10 비율로 측정)은 2007~2016년에 3.56에서 3.39로 5% 하락했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정보를 제공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림 2.6, 패널 C). 칠레, 라트비아, 한국 등 초기에 가장 높은 불평등을 기록했던 국가들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반면, 2007년 총소득 분산이 가장 작은 국가였던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증가세(+14%)를 보였다.
- 2006년 이후 OECD 지역에서 학생의 인지 능력의 불평등이 증가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각각 +12%, +14%) 아일랜드, 칠레, 멕시코에서는 6% 이상 하락했다(그림 2.6 패널 D).¹⁰

지난 10년 동안 OECD 수준에서 가구소득, 자산, 총소득, 학생 역량 면에서 수직적 불평등의 변화를 비교할 때 공통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는 정보를 제공한 모든 차원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그 반대에 해당한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해당 기간 모든 지표에 걸쳐 수직적 불평등이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서, 2007년에 가장 불평등한 국가들 중 일부(멕시코, 칠레, 포르투갈)는 데이터를 제공한 차원 대부분에서 수직적 불평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성과는 저조하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해당 기간 수직적 불평등은 분석한 지표의 대부분에서 증가했다.

그림 2.6. 선택된 웰빙 성과에 대한 수직적 불평등의 변화
패널 A: 가구 가처분소득의 S80/S20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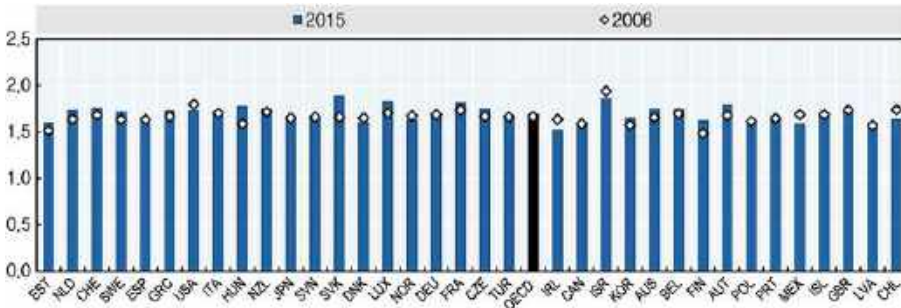
패널 B: 상위 10%의 자산 비율



패널 C: 총소득의 P90/P10



패널 D: 과학 성과의 P90/P10



주: 각 패널에서 OECD 값은 차트에 표시된 가장 최근 2개 연도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의 단순 평균이다. 각 패널에서 2007-2014년에 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한다. 패널 A: 1985년의 OECD 값은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터키, 영국, 미국의 단순 평균이다. 패널 C: 1985년의 OECD 값은 호주,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단순 평균이다. 국가 연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StatLink를 참조한다.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135>

수평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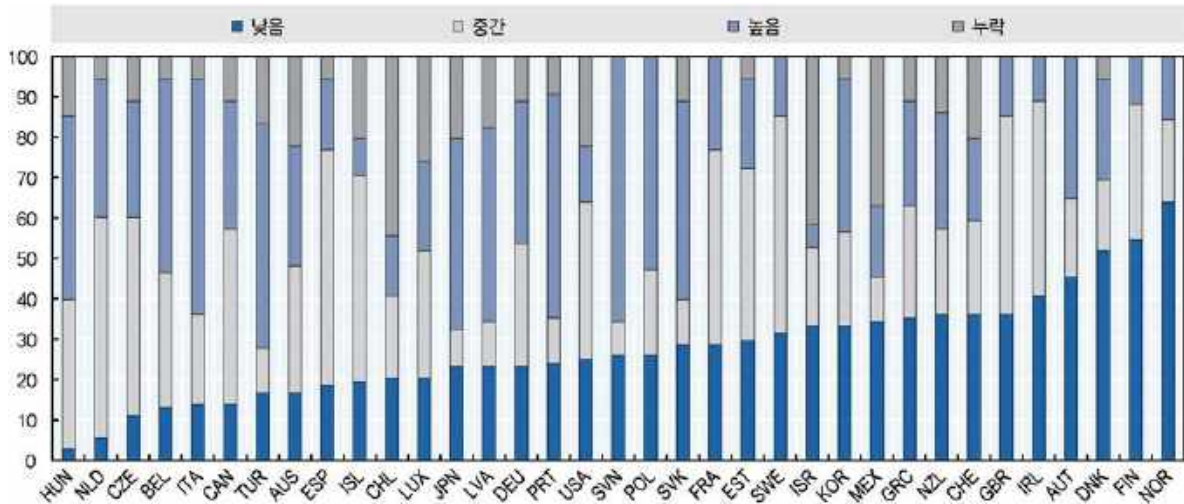
이 섹션에서는 낮은 수준의 웰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 대한 OECD 국가의 성과를 설명하며, 성과가 높은 그룹과 성과가 낮은 그룹의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달성한 평균 웰빙 성과의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간의 상대적 차이에 집중한다. “불리한 그룹”은 여성, 청년층과 노년층, 초등 또는 중등 교육만 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그룹의 웰빙 성과는 남성, 중년층, 고학력층 사람들과 각각 비교된다.

성별에 따른 수평적 불평등

그림 2.7은 각 국가별로 성별 불평등이 “높음”, “낮음”, “중간” 성과를 나타내는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을 보여준다. 국가별 순위는 한 사회에서 평균 웰빙 성과의 남녀 간 격차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양성 격차가 작거나 가중치가 적용된 18개 지표 중 64%에서 여성에 유리한 격차가 있고 16%에서 높은 격차, 나머지 20%에서 중간 성과를 보였다. 한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는 가중치가 적용된 18개 지표 대부분

그림 2.7. 성별에 따른 수평적 불평등

불평등이 낮고 중간이며 높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성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각 차원 내 지표에는 합계가 1이 되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한다. 각 국가에 대해 이는 OECD 국가의 하위 1/3에 속하는 수평적 불평등을 나타낸다. “높은 불평등”은 OECD 국가의 상위 1/3에 속하는 수평적 불평등을 나타낸다. 가용 데이터가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특히, 가중치가 적용된 18개 지표로 9가지 차원을 다루며, 이는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성과를 평가한다. “일자리와 임금”의 경우 시간당 임금, 고용률과 실업률, 저임금 빈도, “건강 상태”의 경우 양호하거나 매우 좋은 건강의 빈도,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여가와 개인 활동에 쓰는 시간과 장시간 근로 빈도, “교육과 역량”의 경우 고등 교육과 대학 교육 성취도의 빈도와 PISA와 PIAAC 점수, “사회적 관계”의 경우 지원 네트워크의 질과 사회 활동에 소비한 시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의 경우 정치 효능감과 자기보고 투표율, “환경의 질”의 경우 수질 만족도, “개인적 안전”의 경우 안전감과 살인율, “주관적 웰빙”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해당 지표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과가 높을수록(낮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국가의 성과가 더 강하다(더 약하다).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154>

에서 높은 양성 격차를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스웨덴은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31%에서 낮은 양성 격차를 기록하고 54%에서 중간 성과, 15%에서 높은 격차를 기록했다. 양성 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이처럼 다소 저조한 성과는 국가 내 불평등에 대한 분석의 초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다른 OECD 국가 대비 스웨덴 여성의 평균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 남성과 스웨덴 여성의 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사실, 스웨덴 여성은 웰빙 차원 대부분에서 다른 OECD 국가의 여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부 차원의 경우 스웨덴은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양성 격차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스웨덴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영국보다 높지만(77% 대 70%) 자기보고 건강의 양성 격차는 스웨덴이 크고(6%) 영국에서는 거의 0에 가깝다.

연령별 수평적 불평등

그림 2.8은 국가별로 연령별 불평등이 “낮음”, “높음”, “중간” 성과를 나타내는 차원의 수를 보여준다. 코호트 효과(예: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의 삶 경험과 관련된 것)와 달리 나이 자체에 관련된 차이는 구별하지 않는다(예: 노화 과정으로 인한 차이 또는 삶의 과정 변화). 또한 삶의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산 수준,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등 서로 다른 삶의 환경을 갖는다. 따라서 나이 관련 차이는 항상 나이 그 자체로 인해 유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다른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시정 정책을 요구하는 단점을 항상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낮은 실업률, 제대로 기능하는 모기지 시장, 관대한 공공 보조 대출은 청년들이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 빈곤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2.8의 패널 A에 표시된 국가 순위는 청년층과 중년층 사이의 평균 웰빙 성과 차이를 나타낸다. 에스토니아는 가중치가 적용된 17개 지표 중 72%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기록했고 18%에서 중간 성과, 5%에서 높은 불평등을 보였다(그리고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5%에서 정보 누락).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라트비아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대조적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영국은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10% 미만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

고령자의 상대적 성과를 고려할 때(그림 2.8, 패널 B) 많은 국가의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25%에서만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낮았고, 노르웨이는 62%에서 불평등이 낮았다(패널 A에서는 각각 72%와 8%). 이는 국가 간 웰빙 성과에서 나이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패널 A에서 패널 B로 이동할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인 국가(예: 에스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의 웰빙 성과는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인 국가(예: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서는 나이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2.8의 두 패널에서 위치를 유지하는 국가(예: 터키와 네덜란드)의 경우, 3개 연령대에서 결과가 고르게 분포하거나 U 형태(또는 역 U형태) 나이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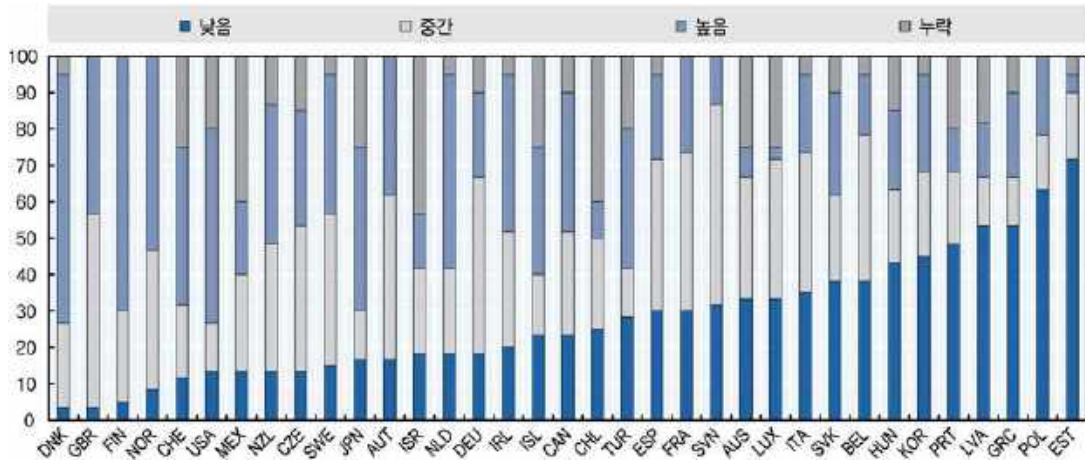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수평적 불평등

교육의 혜택은 일자리와 임금 측면에서 표현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고 시민 참여 가능성도 높으며(제4장 참조)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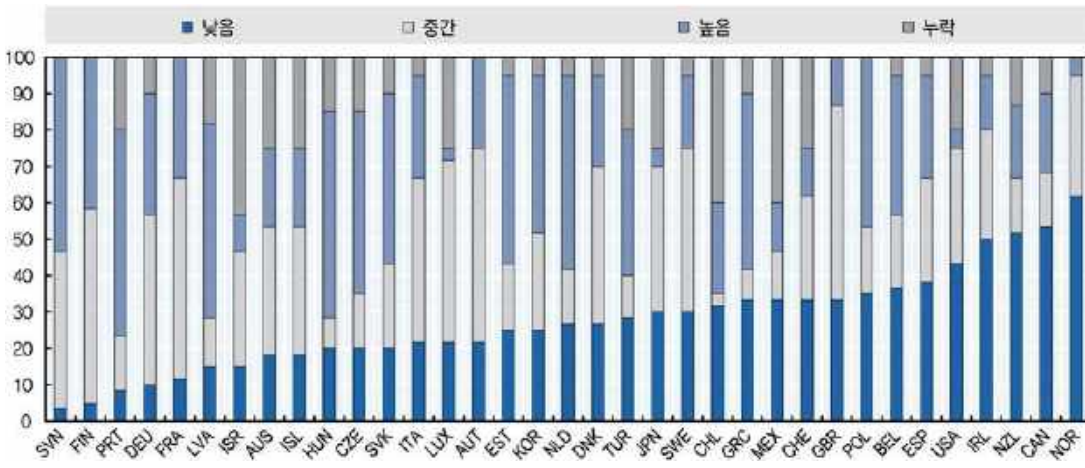
그림 2.8. 연령별 수평적 불평등

불평등이 낮은 국가, 높은 국가, 중간인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 최신 연도

패널 A: 대학 교육을 받은 개인 대비 초등 교육을 받은 개인의 평균 성과



패널 B: 대학 교육을 받은 개인 대비 중등 교육을 받은 개인의 평균 성과



주: 각 차원 내 지표에는 합계가 1이 되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한다. 이는 OECD 국가의 하위 1/3에 속하는 수평적 불평등을 나타낸다. “높은 불평등”은 OECD 국가의 상위 1/3에 속하는 수평적 불평등을 나타낸다. 가용 데이터가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특히, 가중치가 적용된 17개 지표로 10가지 차원을 다루며, 이는 중년층 대비 청년층의 평균 성과(패널 A)와 중년층 대비 노년층의 평균 성과(패널 B)를 평가한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 가구 가치분소득과 순자산, “일자리와 임금”의 경우 시간당 임금, 고용률, 실업률, “건강 상태”의 경우 양호하고 매우 좋은 건강의 빈도,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장시간 근로 빈도, 여가와 개인 활동에 쓰는 시간, “교육과 역량”의 경우 고등 교육과 대학 교육 성취도의 빈도, PIAAC 점수, “사회적 관계”의 경우 지원 네트워크의 질과 사회 활동에 소비한 시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의 경우 자기 보고 투표율과 정치 효능감, “환경의 질”의 경우 수질 만족도, “개인적 안전”의 경우 안전감, “주관적 웰빙”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해당 지표에 대해 후자 대비 전자 그룹의 결과가 높을수록 (낮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국가의 성과가 더 강하다(더 약하다). 동등한 가중치는 각 차원의 지표에 기인한다. 각 지표에 대해 고려된 정확한 연령대의 상세한 설명은 표 2.A.4와 표 2.A.5를 참조한다.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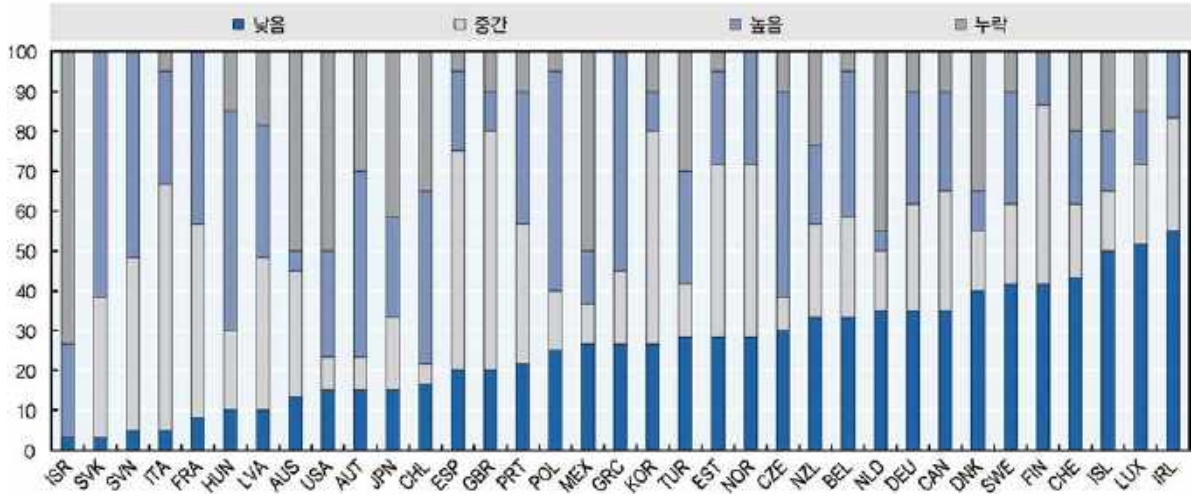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173>

받고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웰빙의 다른 불평등 형태와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격차의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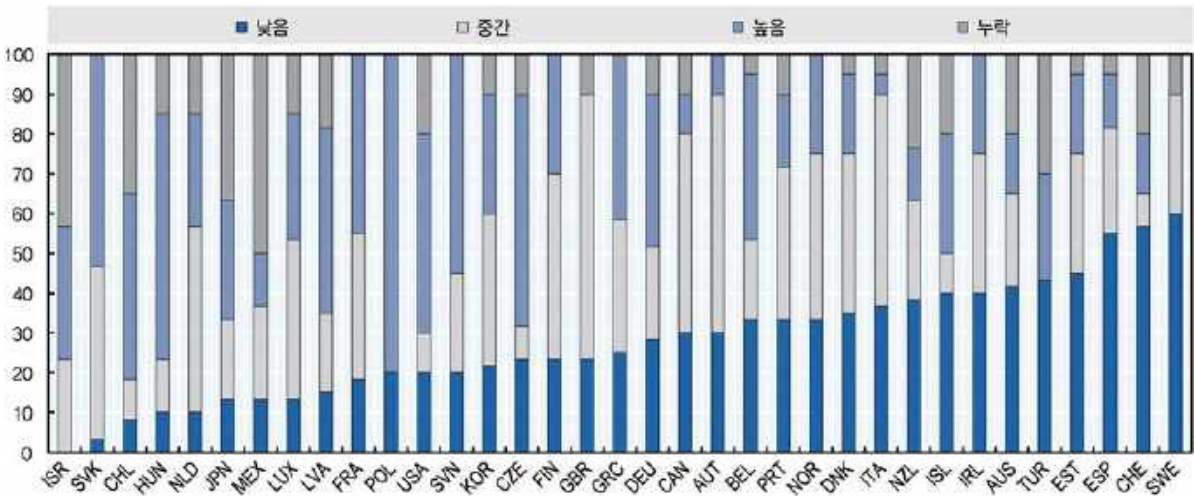
그림 2.9. 교육 수준별 수평적 불평등

불평등이 낮은 국가, 중간인 국가, 높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패널 A: 대학 교육을 받은 개인 대비 초등 교육을 받은 개인의 평균 성과



패널 B: 대학 교육을 받은 개인 대비 중등 교육을 받은 개인의 평균 성과



주: 각 차원 내 지표에는 합계가 1이 되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불평등이 낮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수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한다. 이는 정보가 있는 OECD 국가의 하위 1/3에 속하는 불평등 수준을 나타낸다. “높은 불평등”은 정보가 있는 OECD 국가의 상위 1/3에 속하는 불평등 수준을 나타낸다. 가용 데이터가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특히, 가중치가 적용된 14개 지표로 10가지 차원을 다루며, 이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대비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성과(패널 A)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대비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성과(패널 B)를 평가한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에 순 자산, “일자리와 임금”의 경우 시간당 임금, 고용률, 실업률, “건강 상태”의 경우 양호하고 매우 좋은 건강의 빈도,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장시간 근로 빈도, “교육과 역량”의 경우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PISA 점수, PIAAC 점수, “사회적 관계”의 경우 지원 네트워크의 질,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의 경우 자기 보고 투표율과 정치 효능감, “환경의 질”의 경우 수질 만족도, “개인적 안전”의 경우 안전감, “주관적 웰빙”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해당 지표에서 후자 대비 전자 그룹의 결과가 높을수록(낮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국가의 성과가 더 강하다(더 약하다).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192>

그림 2.9의 패널 A에 표시된 국가 순위는 각 국가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대비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성과를 나타낸다. 가중치가 적용된 14개 지표 중에서 아일랜드는 55%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낮았고 28%에서 중간 성과를 보였으며 17%에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은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 중 40%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기록했다. 사다리의 바닥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은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10% 미만에서 최고 성과 그룹에 속했다.

마찬가지로 그림 2.9의 패널 B에 표시된 국가 순위는 각 국가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대비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성과를 나타낸다. 스웨덴은 가중치가 적용된 14개 지표 중 60%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낮고 스위스와 스페인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2.9의 상위 패널에서 최고 성과 국가 중 룩셈부르크는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13%에서만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기록하여 현재 뒤처져 있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멕시코는 패널 A(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상대적 성과 비교)에 비해 패널 B(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상대적 성과 비교)의 더 적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보였다. 반면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은 그 반대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웰빙의 교육 변화도가 후자 국가 그룹에서 더 급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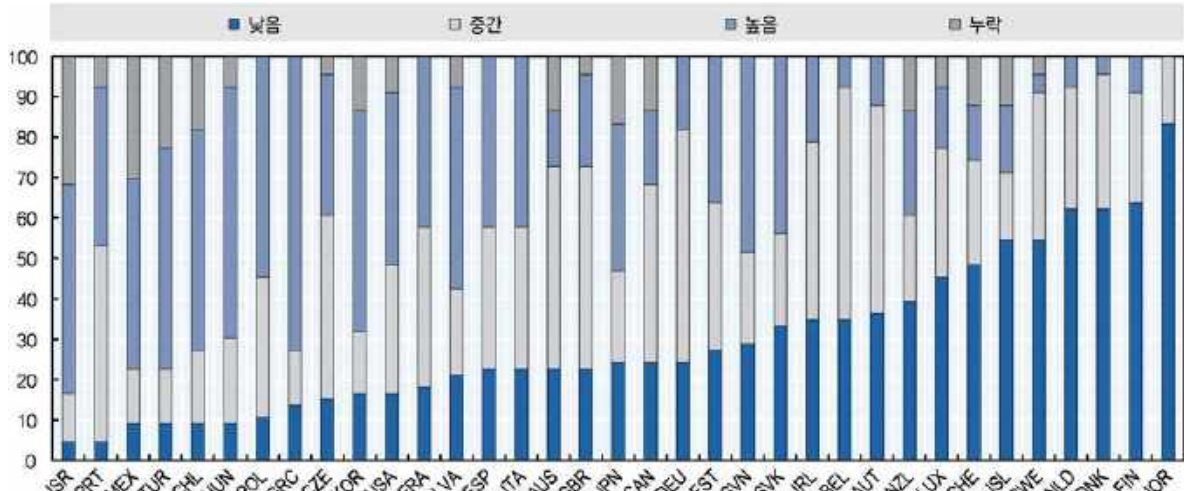
결핍

개인 수준에서든 가구 수준에서든 결핍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기존의 측정은 보통 소득이나 소비 지출에 초점을 맞췄고, 결핍 기준은 생물학적 고려사항(예: 최소 식비와 식품 외 기본 요구에 대한 비용) 또는 해당 시점에 사회에서 우세한 사회적 표준에 근거한다. 그런데 결핍은 충분한 소득이 없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최근에 다양한 웰빙 성과를 고려하는 새로운 결핍 지표가 개발되었다(UNECE, 출간 예정의 제5장 참조). 관점을 확대하면 정보를 제공한 일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6명 중 1명이 자유 시간이 없고(OECD, 2013) 2명 중 1명 이상이 일시적인 소득 부족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유동 금융자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스 2.5).¹¹

수직적 및 수평적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OECD 지역의 국가별 결핍 성과는 매우 다르다. 그림 2.10은 각 국가가 낮은 결핍 수준, 높은 결핍 수준, “중간” 성과를 기록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수직적 불평등과 결핍에 대한 국가별 성과는 잘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차원의 경우 북유럽 국가는 수직적 불평등과 결핍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포르투갈, 이스라엘, 멕시코는 그 반대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다소 낮은 수준의 수직적 불평등은(그림 2.2) 일반적으로 중간 또는 빈약한 결핍 성과를 수반한다(그림 2.10).

그림 2.10. 웰빙의 결핍

결핍이 낮은 국가, 중간인 국가, 높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각 차원 내 지표에는 합계가 1이 되는 동등한 가중치가 부여된다. 결핍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가중치가 적용된 지표의 비율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한다. 이는 OECD 국가의 하위 1/3에 속하는 결핍 수준을 나타낸다. “높은 결핍”은 OECD 국가의 상위 1/3에 속하는 결핍 수준을 나타낸다. 가용 데이터가 OECD 국가의 최소 2/3를 포함하는 지표만 고려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가중치가 적용된 20개 지표를 통해 11가지 차원을 평가한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 상대적 소득 빈곤과 자산 기반 빈곤, “일자리와 임금”의 경우 실업률, 저임금 위험, “주거 상태”의 경우 주택 비용 부담과 과밀집 주거, “건강 상태”의 경우 보통, 나쁜 또는 매우 나쁜 건강의 빈도,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장시간 근로 빈도, “교육과 역량”의 경우 고등 교육 이하의 25~64세 성인의 비율, 과학, 읽기, 수학에서 레벨 2 이하의 점수를 받은 15세 학생의 비율, PIAAC 테스트에서 문해력과 수리력에서 레벨 1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인의 비율, “사회적 관계”의 경우 지원 네트워크의 부족,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의 경우 가장 최근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과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환경의 질”의 경우 PM_{2.5}의 15 μ g/m³ 이상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과 수질 불만족도, “개인적 안전”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살인율, “주관적 웰빙”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사람의 비율과 부정적인 균형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을 평가한다.

출처: 부록 2.A의 표 2.A.1에 설명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211>

박스 2.5. OECD 국가의 자산 기반 빈곤에 관한 증거

소득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자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선택을 지탱할 수 있게 한다. OECD 자료는 미시적 수준에서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의 가장 낮은 5분위수 가구의 절반 이하가 순자산의 가장 낮은 5분위수에 속하며, 그중 거의 1/4은 자산의 세 번째 5분위수 이상에 속한다(Murtin 및 Mira d’Ercole, 2015).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패턴이다. 소득 흐름에 대한 정보는 저소득 기간 동안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의 능력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의 공동 분석은 가계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향상시키며 가구의 현재 생활 수준과 소득 충격에 대한 취약성 사이의 일치성을 탐구하게 한다.

새로운 OECD 데이터를 활용하면 가계가 특히 3개월 소득의 손실로 정의된 부정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불평등 연구에 특히 흥미로운 세 집단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적지 않은 사람, 즉 소득이 소득 빈곤선 이하지만 3개월 소득 충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며, 두 번째는 소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산과 소득 모두 적은 사람, 마지막으로 현재 소득 빈곤선 위에 있지만

박스 2.5. OECD 국가의 자산 기반 빈곤에 관한 증거(계속)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 즉 3개월 소득 손실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림 2.11은 가용 데이터가 있는 25개 OECD 국가에서 소득 빈곤층의 약 75%가 자산 빈곤층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3명 중 1명 이상은 소득 빈곤에 취약하다. 즉 현재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갖지만 3개월 소득 손실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 금융 자원이 없다.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라트비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뉴질랜드가 가장 높다(2명 중 1명 이상이 3개월 금융 완충장치가 없다).

그림 2.11. 소득 및 자산 기반 빈곤

국가별로 소득 빈곤, 자산 빈곤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비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국가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의 비율을 오픈치순으로 평가한다. 소득 정의는 가능한 소득 빈곤 보고에 사용된 정의(즉, 가구 가처분소득)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산 통계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에서 가구 가처분 소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의 선택은 가처분소득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총소득의 개념에 의존하는 것이다(즉 임금과 급여, 자영업 소득, 재산 소득, 경상 이전, 세금 납부 전 기록된 모든 것의 총합). 소득 빈곤율은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의 가처분소득을 나타내며, 나머지 국가의 가계 총소득을 나타낸다. 자산은 유동 금융자산으로 정의된다(즉 현금,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비법인 기업의 순 부채). 소득 빈곤층은 각 국가의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균등화 소득을 가진 사람이다. 소득과 자산 빈곤층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균등화 소득과 소득 빈곤선의 25% 미만(3개월 완충장치)의 균등화 유동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현재 소득 빈곤층은 아니지만 소득 빈곤선의 25% 미만의 균등화 유동 금융자산을 갖는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와 소득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에 표시된 소득 빈곤율은 이번 장의 다른 곳에서 보고된 것과 다르다.

출처: OECD 자산 분포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230>

웰빙 성과와 차원 간의 상관관계

다양한 웰빙 성과에서 쌍방식 상관관계

웰빙 불평등 측정에 대한 차원별 접근법은 개인들 내에서 웰빙의 다양한 차원 간의 상호 작용을 무시한다. 한 사람이 모든 웰빙 차원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승자독식” 사회가 각 차원에서 동일한 정도의 불평등을 갖는 사회보다 확실히 더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는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개인은 일부 차원에서 높은 순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높은 순위에 있다.¹²

결과의 결합 분포를 평가하는 것은 몇 가지 까다로운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데이터세트는 각 차원의 분포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포함할 뿐 아니라 차원 간의 성취도가 개인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예: 건강이 나쁘거나 교육 성취도가 낮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건강이 나쁘고 교육 성취도가 낮다고 보고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즉 이상적으로 모든 정보는 동일한 국가의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미시적 수준의 단일 데이터세트에서 나와야 하고, 그러한 데이터세트는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OECD 국가를 포함해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 이상적인 데이터세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섹션은 광범위하게 비교 가능한 정보가 있는 일부 웰빙 차원과 국가로 제한된다.

상관관계는 불평등 분석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해당 결과의 분포에서 분산은 다양한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과의 분포는 3가지 요소, 즉 1) 가구소득에서 다양한 소득 구성요소의 비율(예: 근로소득, 자본소득), 2) 각 구성요소의 단변량 분포(예: 소득의 분포), 3) 각 소득 구성요소의 분포 간 개인 수준의 상관관계에 달려 있다. 첫 번째 2가지 요소는 광범위하게 조사되었지만, 지난 40년 동안 일부 OECD 국가에서 경험한 높은 소득 불평등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더 높은 상관관계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메커니즘(연관성의 패턴)은 관심을 덜 받았다(OECD, 2011a). 즉 동일한 사람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분포의 상위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Aaberge 외(2013), Milanovic(2016), Piketty(2014)).¹³ 그림 2.12는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지난 40년 동안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순위 상관관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¹⁴

그림 2.12. 선택된 OECD 국가에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 상관관계
 균등화 근로소득과 균등화 자본소득 간 스피어만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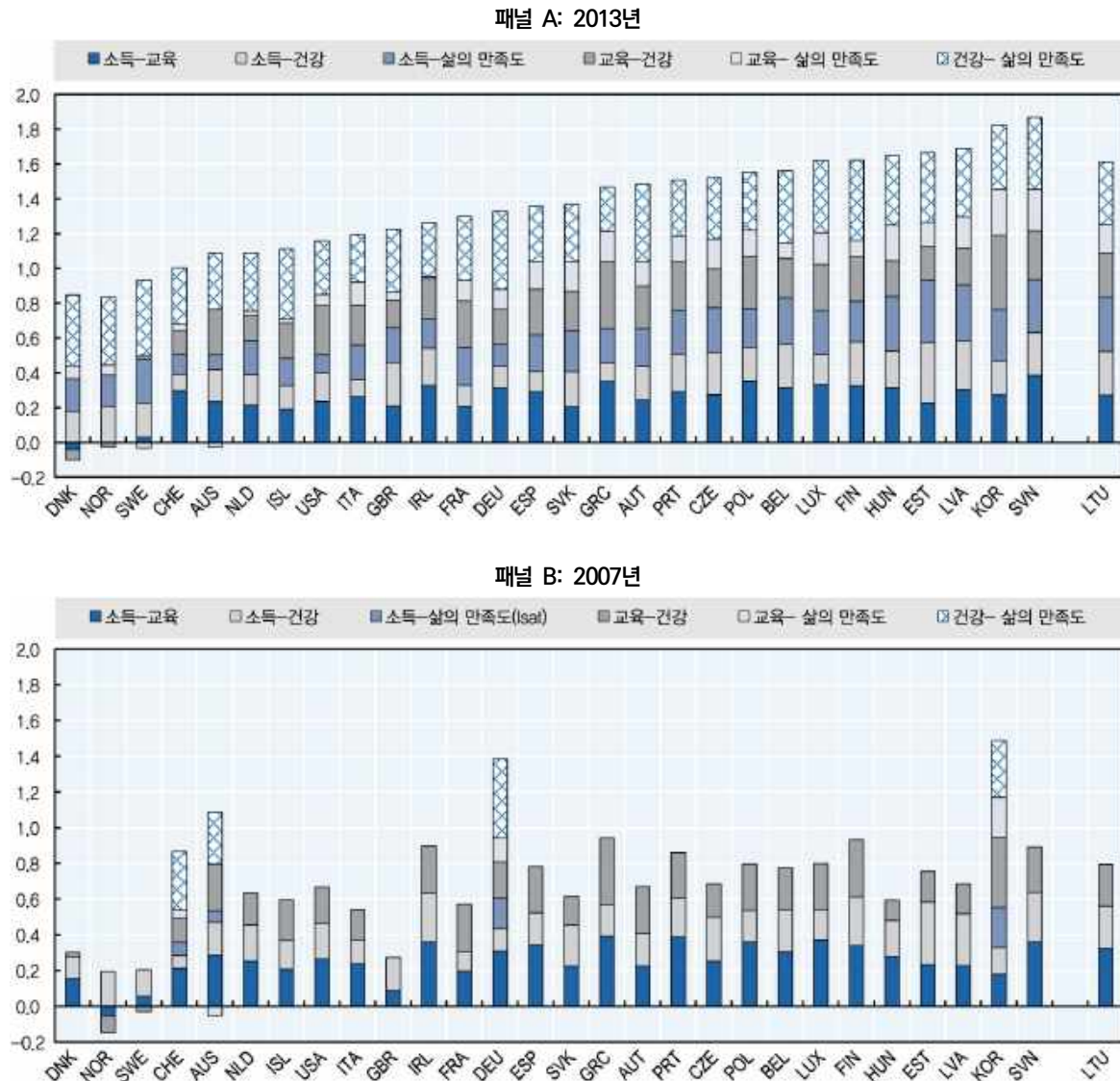


주: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은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http://oe.cd/idd>)의 조사 범위에 따라 계산된다.

출처: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개인 수준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www.lisdatacenter.org/our-data/lis-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249>

그림 2.13. 선택된 OECD 국가에서 다양한 웰빙 차원의 상관관계



주: 패널 B의 순위는 패널 A의 순위와 일치한다. 가독성을 위해 누적된 기등으로 상관관계가 표시되지만 이는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명표에서 “Isat”는 삶의 만족도, “edu”는 교육에 소비한 기간을 나타낸다. “소득”은 균등화 가구 가치분소득, “건강”은 자기보고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 균등화 가구 가치분소득에 관한 데이터는 패널 A에서 2012년, 패널 B에서 2005년에 해당한다.

출처: Eurostat(2017),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과 CNEF(Cross-national Equivalent File)(데이터베이스), <https://cnef.ehe.osu.ed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268>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웰빙 성과의 결합 분포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림 2.13은 4가지 웰빙 성과((균등화) 가구 가치분소득, 자기보고 건강 상태, 교육에 소비한 기간, 삶의 만족도)에 대해 정보가 있는 28개 OECD 국가에서 개인 수준의 쌍방향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관계는 2013년(패널 A)과 2007년(패널 B)을 나타내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표본은 모든 4개 변수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는 24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된다. 삶의 만족도 데이터는 독일과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 대해 2013년에만 제공되었다.¹⁵

국가 간 차이가 상당하지만 OECD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0.25이며, *가구소득과 교육에 소비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⁶ 이 두 웰빙 성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까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가장 높은 소득 5분위수의 개인은 하위 5분위수의 개인과 동일한 평균 교육 기간을 소비한다. 프랑스나 슬로바키아처럼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갖는 국가에서 상위 소득 5분위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득 분포의 하위 끝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육에 평균적으로 2~3년 더 소비한다. 슬로베니아나 그리스처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국가에서 그 차이는 최대 5~6년까지 벌어진다(그림 2.13, 패널 A).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영국과 라트비아에서는 가구소득과 교육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게 증가했다. 두 경우 모두 주변 분포(별도로 고려한 두 변수의 분포)가 더 불평등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두 차원 사이의 더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결합 분포의 불평등이 증가했다. 대조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가구소득과 교육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거의 10%포인트 하락했다. 가구소득과 교육의 주변 분포가 사실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포르투갈에서 결합 분포의 불평등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호주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가구소득과 교육 사이의 상관관계는 약 5%포인트 하락했다. 주변 분포의 불평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 가구소득의 결합 분포는 분명히 감소했다(패널 B).

또한 그림 2.13의 추정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가구소득과 자기보고 건강 상태* 사이의 강력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2.13, 패널 A). 이중 한 곳은 이탈리아로, OECD 국가 중 상관관계가 가장 낮고(0.10) 모든 소득 5분위수에서 매우 좋은 건강 상태를 보고할 확률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영국과 에스토니아에서 가구소득은 자기보고 건강과 훨씬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위 소득 5분위수의 사람들은 하위 소득 5분위수의 사람들보다 건강이 매우 좋다고 평가할 확률이 각각 2~3배 이상 높다. 영국과 덴마크에서 가구소득과 자기보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승했다. 이 두 국가에서는 별도로 고려한 두 변수의 분포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과 자기보고 건강 상태의 결합 분포가 더 불평등해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패널 B).

2013년에 자기보고 건강 상태는 분석 대상인 국가의 1/3, 즉 한국,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호주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았다(그림 2.13, 패널 A).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보고한 사람은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보고한 사람보다 교육에 4년 더 소비했다. 한국과 그리스에서 건강이 매우 좋다고 보고한 사람은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한 사람보다 교육에 평균 6~7년 더 소비했다. 스위스의 경우 이 차이가 약 2년에 불과하며, 건강과 교육 간 상관관계(0.14)가 한국이나 그리스의 거의 1/3 수준이다(각각 0.42과 0.38).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영국과 미국의 쌍방향 상관관계의 증가는 안정적이거나 더 불평등한 주변 분포를 동반했으며, 이는 두 속성의 결합 분포의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핀란드에서 교육과 자기보고 건강 간의 상관관계는 감소

했으며, 주변 분포는 안정적이었다. 이는 두 결과의 결합 분포에서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13, 패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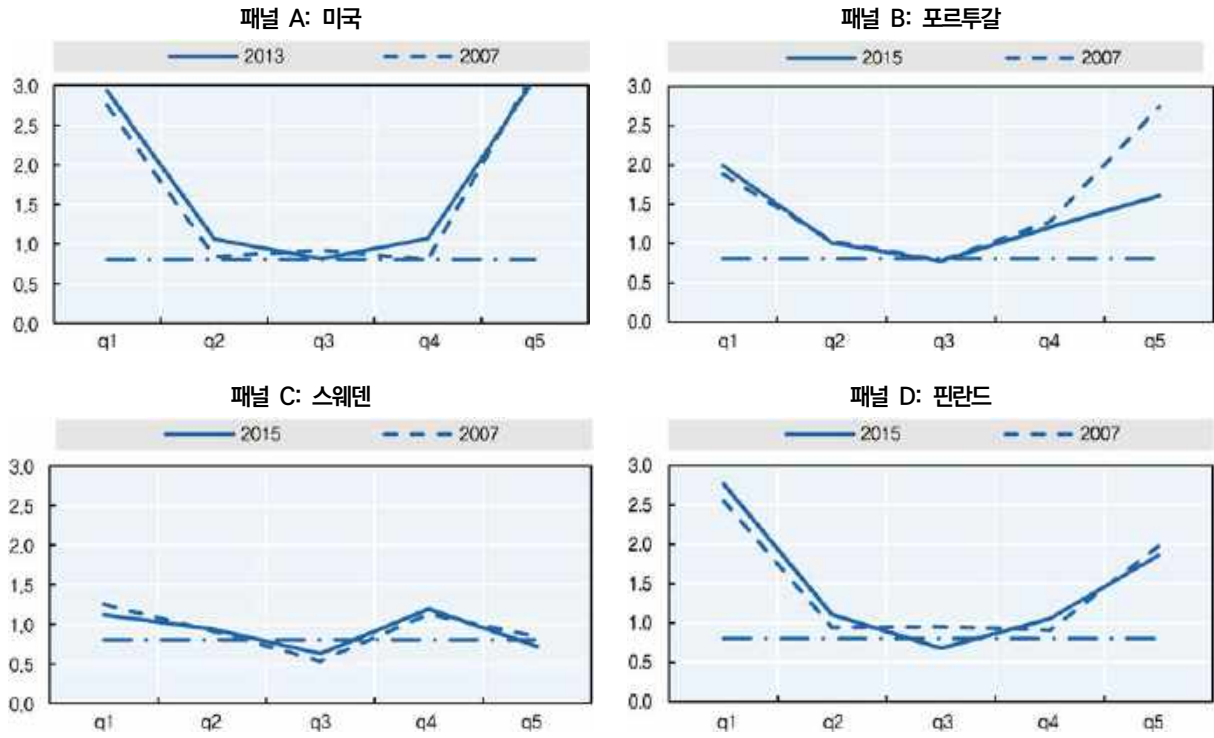
모든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와 가구소득* 간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이며 확실하고, 호주의 0.08에서 에스토니아의 0.35까지 다양하다(그림 2.13, 패널 A). 평균적으로 해당 국가들에서 상위 소득 5분위수의 사람들은 하위 5분위수의 사람들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즉 0-10 척도에서 8 이상). 삶의 만족도와 자기보고 건강 상태 간 상관관계는 양의 관계이며 그리스의 0.25와 핀란드의 0.46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최소 8)를 보고한 사람들은 3 이하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 사람보다 건강이 매우 좋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4배 높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와 교육에 소비한 기간의 상관관계는 호주와 스웨덴의 미미한 수준부터 한국의 양의 관계(0.26)까지 다양하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평균 3년 더 교육에 소비한다.

웰빙 성과의 결합 분포

그림 2.13에 표시된 대로 2차원 접근법에서 다차원 방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림 2.14는 3가지 웰빙 차원(가구소득, 자기보고 건강 상태, 교육에 소비한 기간)의 결합 분포를 고려하여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¹⁷ 이러한 3가지 웰빙 성과의 상관관계의 강도는 3가지 결과의 각 분포에서 동일한 5분위수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각 패널의 0.8에 있는 선은 개인이 소득, 건강, 교육의 결합 분포를 따라 동등하게 분포한 경우를 나타낸다.¹⁸ 이 수준 위(아래)의 국가 선은 개인이 결합 분포의 일부 부분에서 과도(과소) 대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4는 미국에서 분포의 중간보다 3가지 웰빙 성과에 대한 결합 분포의 상위와 하위에서 더 많은 밀착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의 상위(하위) 5분위수에 속하는 6명 중 1명 이상이 건강 상태 및 교육의 상위(하위) 5분위수에도 있다(그림 2.14, 패널 A에서 보듯이 전체 개인의 3.1%). 2007년에 포르투갈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5년에 그 비율은 상위 5분위수에 대해 13명 중 1명으로 떨어졌지만 하위 5분위수에 대해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패널 B). 이는 그림 2.13에서 포르투갈에 대해 관찰된 가구소득과 교육 간 상관관계의 상당한 감소가 소득 분포의 상위 끝과 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이나 교육의 성과가 소득 사다리의 위치와 거의 무관한 스웨덴에서는 결합 분포를 따라 개인들이 훨씬 균일하게 퍼져 있다(패널 C). 핀란드의 경우가 특히 흥미롭다(패널 D). 그림 2.14에서 강조한 소득, 건강, 교육의 결합 분포의 하단 끝에서 밀착도는 그림 2.13에 보고된 높은 수준의 쌍방향 상관관계와 일치하는 반면 이는 그림 2.2에 나타난 매우 낮은 수직적 불평등과 대조적이다. 후자 패턴은 대부분의 웰빙 차원에 대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사이의 차이가 핀란드에서 낮지만(단변량 분석에 의해 시사된 바와 같이) 해당 차원에서 고(저)성과자는 다른 차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웰빙 성과의 불평등의 단변량 분석을 넘어 개인 수준에서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 2.14. 선택된 OECD 국가에서 소득, 건강, 교육 분포의 동일한 5분위수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
%, 25세 이상의 개인, 2007년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각 패널의 0.8에 위치한 선은 개인이 소득, 건강, 교육의 결합 분포를 따라 균등하게 분포된 경우를 나타낸다. 국가 선은 3가지 결과 분포에서 동일한 5분위수에 속하는 개인의 비율을 나타낸다. 수평 축은 3가지 결과 분포에 대해 정의된 동일한 5분위수의 3개항을 보여준다. 예: 3개항의 요소 “q1”은 각 3가지 결과 분포의 첫 번째 5분위수이다. 각 패널에서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 데이터는 조사 기준 연도의 이전 해를 나타낸다.

출처: Eurostat(2017),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과 CNEF(Cross-national Equivalent File)
 (데이터베이스), <https://cnef.ehe.osu.ed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287>

불평등과 가족 형성

“선택 결혼(assortative mating)”이라는 용어는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계와 가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 “비슷한 사람끼리 파트너가 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왔다. 이것은 최소한 3가지 이유로 불평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OECD, 2011a, 2015b).

- 첫째, 비슷한 웰빙 수준의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기존의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가 대부분 다른 저소득자와 결혼하고 고소득자가 대부분 다른 고소득자와 결혼한다면 이는 그들이 형성한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의 크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 둘째, 선택 결혼은 가구 자원을 형성하므로 해당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의 세대 간 전달에 기여할 것이다(Becker 및 Tomes(1979), Black 및 Devereux(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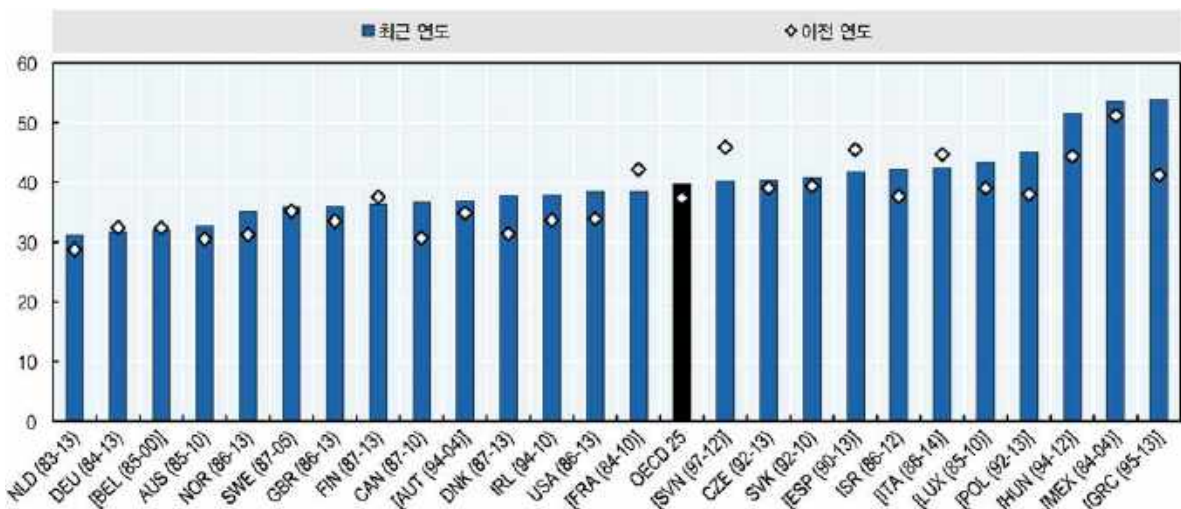
- 셋째, 선택 결혼 패턴은 생산과 배분에 대한 가정 내 의사결정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 (Becker(1973), Zhang 및 Liu(2003)).¹⁹

선택 결혼을 조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부 내의 개인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림 2.15는 소득 10분위수의 사람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10분위수의 소득을 갖는 성인과 결혼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맞벌이 부부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선택 결혼이 모든 OECD 국가에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5명의 소득자 중 2명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소득 10분위수에 속하는 일하는 파트너와 함께 산다. 시간에 따라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덴마크, 캐나다,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에서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소득 10분위수에 속하는 일하는 파트너와 함께 사는 소득자의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15%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이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 벨기에, 독일,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선택 결혼이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실제로 하락했다.

교육에 따른 선택 결혼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졌다(Blossfeld 및 Timm, 2003). 그림 2.16은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 대비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교육 수준의 사람과 결혼할 확률을 보여준다.²⁰ 그림 2.16에 포함된 모든 국가에서 초등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초등 교육을 받은 파트너와 살 가능성이 더 높다. 2013년에 측정된 선택 결혼은 독일에서 가장 낮았다. 초등 교육을 받은 파트너와 사는 확률은 중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이 5배 높았다. 한편 미국이 가장 높았으며, 오즈비(odds ratio)가 30에 가깝다(그림 2.16). 수입에 기초한 선택 결혼처럼 초등

그림 2.15. 개인 수입에 기반한 선택 결혼

동일하거나 인접한 소득 10분위수에 속하는 파트너가 있는 소득 10분위수의 근로자의 비율, 맞벌이 부부 가구, 1980년대 중반과 2010년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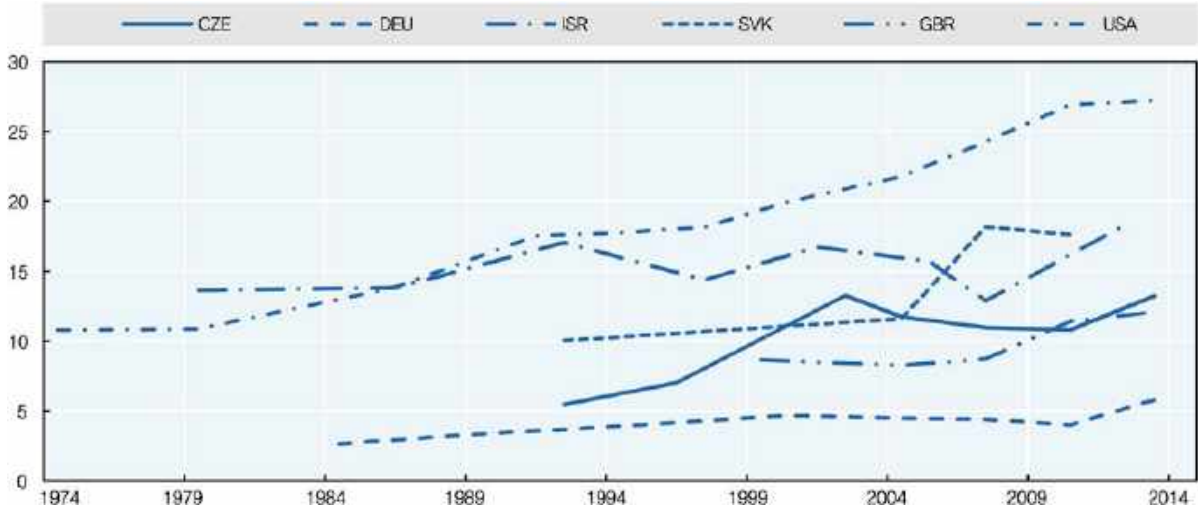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25-64세의 근로자가 결혼하고 함께 사는 부부 가정을 나타낸다. 괄호 안에 있는 국가의 경우 소득은 순소득이고 다른 국가의 경우 총소득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www.lisdatacenter.org/our-data/lis-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306>

그림 2.16. 선택된 OECD 국가에서 교육에 따른 선택 결혼의 추세
 동일한 교육 수준의 파트너와 함께 사는 초등 교육 수준의 사람에 대한 오즈비



주: 데이터는 25-64세의 두 파트너가 결혼하고 함께 사는 부부 가정을 나타낸다. 오즈비는 준거집단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상대적 가능성을 반영한다. 오즈비 1은 준거집단에 대해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이하 값의 계수는 준거집단에 비해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가리키며 1보다 큰 계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출처: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www.lisdatacenter.org/our-data/lis-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325>

학교 수준의 사람에 대한 선택 결혼은 지난 40년 동안 증가했으며 오즈비가 2배 이상인 미국에서 특히 그러했다.

세대 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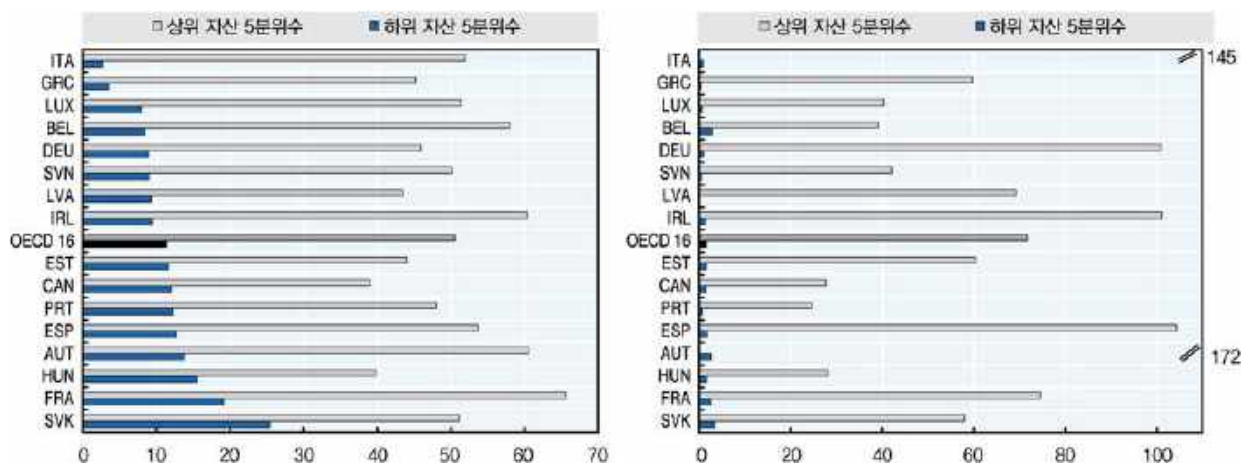
기회의 불평등은 출생 시 체중이나 가족 배경에 따른 학생의 테스트 점수 등 직접 성과 기반 지표 또는 세대에 걸친 이익지속성(earnings persistence) 측정 등 세대 간 이동성의 간접 측정을 통해 특징지을 수 있다(Bourguignon, forthcoming, Causa 및 Johansson, 2011). 세대 간 이동성, 즉 가족 배경(부모 소득이나 교육 측면)이 성인 연령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도는 낮은 세대 간 이동성이 성인으로서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족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회 (불)평등의 한 측면이다.²¹ 한 개인의 웰빙 성과가 부모의 상황에 얼마나 좌우되는지, 즉 “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낮은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적절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상적인 데이터세트는 2가지 주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부모의 소득과 동일한 연령의 자녀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포함할 것이다. 둘째,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하므로 추정된 세대 간 이동성의 국가 간 차이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 간의 데이터 해석 차이에서 파생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세트는 없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패널 연구(예: 독일 사회경제 패널(German Socio-Economic Panel, SOEP)과 미국 소득 변동에 관한 패널 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에는 부모의 소득과 여러 연령대의 자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 있지만 사용된 질문과 개념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세대 간 불평등의 국제 비교는 주로 소득과 교육 결과에 대해 부모 배경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위해 적합한 자료 출처는 OECD 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제공하며, 이는 많은 국가의 개인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기준을 충족한다. PIAAC 조사는 부모의 교육과 소득에 대해 응답자가 대답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부모 교육 또는 소득 변화도”를 추정하기 위해 실제 부모 결과에 대한 대용물로 사용될 수 있다. PIAAC 조사에 기반한 증거는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자녀의 교육과 소득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는 부자 관계의 수입 이동성이 특히 낮았지만, 북유럽 국가, 호주, 캐나다의 경우는 높았다(OECD, 출간 예정).

소득과 교육의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훨씬 많지만 부모에서 자녀로 부가 대물림되고 그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새로운 OECD 데이터는 상속(및 생존자 간의 전달)이 사람들의 부의 원천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정보가 있는 16개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3가구당 약 1가구가 평생 동안 증여나 유산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라트비아에서는 4가구당 단 1가구만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보고한 반면 스페인에서는 이 비율이 거의 2배 이상이다. 국가별 차이는 자산 분포에 따른 패턴을 고려할 때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2.17). 고려한 모든 국가에서 자산 5분위수에 걸쳐 유산을 받을 기회에 양의 변화도가 있지만 이 변화도는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특히 강하다(그림 2.17 패널 A).²² 국가의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의 비율로 표현된 여러 자산 5분위수의 가구에서 받은 상속의 평균(실현) 가치를 고려할 때 더욱 가파른 변화도가 확인된다(그림 2.17, 패널 B). 정보가 있는


그림 2.17. 순자산 5분위수에 따른 상속과 증여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보고한 하위 순자산 5분위수에 속하는 가구의 비율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했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OECD 자산 분포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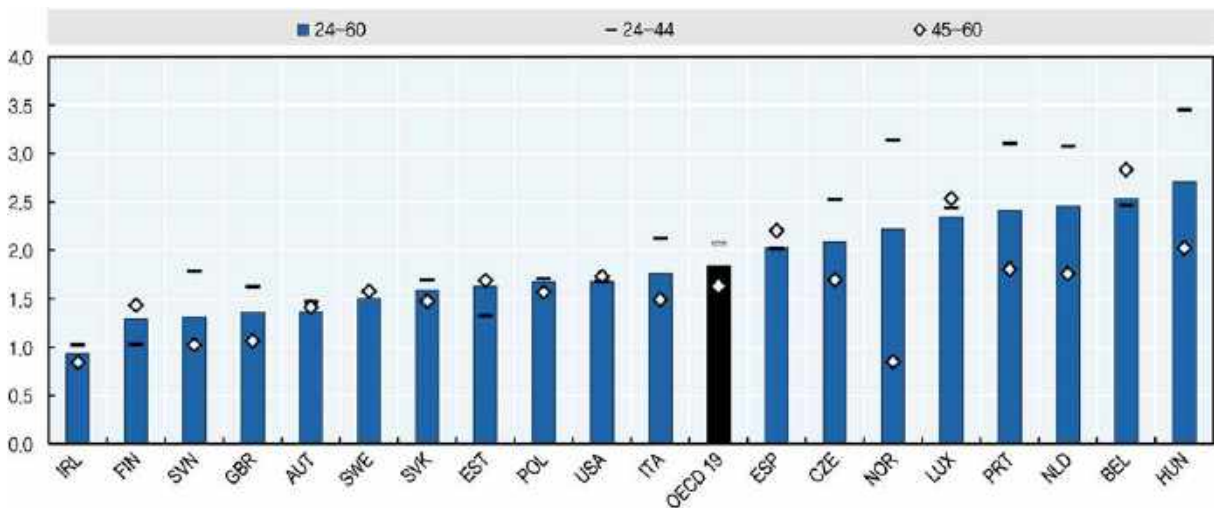
OECD 국가에서 상위 순자산 5분위수의 가구에서 받은 상속과 증여의 실현 가치는 평균적으로 모든 가구에서 평균 순자산의 72%에 해당하지만 하위 순자산 5분위수의 가구의 경우 총 인구의 평균 순자산의 1.5% 미만을 나타낸다.²³

부모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자녀에게 자원을 물려준다.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가정은 불우한 가정에서는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할만한 여유가 없는 방식으로 자녀를 후원한다. 예를 들어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녀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가족 투자 이론”(Becker 및 Tomes, 1979, 1986)은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인생 전망 사이의 연관성이 자녀의 사회인지적 발달에 투자하는 자원(예: 돈, 주택, 학교 교육, 영양, 건강 관리, 시간)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질(예: 유전적 요인, 취향, 가치)이 합쳐진 결과라고 시사한다(Bradbury 외(2015), OECD, 2012, 2016a, Putman(2015), Thomson 및 McLanahan(2012)).

생애주기 동안 불평등과 결핍

어린 시절의 불리한 생활 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이익이 계속 축적될 수 있는 생애주기의 궤적을 따라가게 할 수 있다. 출생부터 퇴직과 그 이후 삶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불평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추적하려면 장기간 진행되는 패널 연구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국제 비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림 2.18. 성인이 되기 전에 불리한 경제 여건에 의한 소득 빈곤율
어릴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여 성인 때 상대적 소득 빈곤을 경험하는 오즈비, 2011



주: 어릴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여 성인 때(24-60세) 상대적 소득 빈곤을 경험하는 오즈비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국가를 평가한다(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이 국가 중간값의 절반 미만일 때 상대적 빈곤으로 간주한다. 오즈비는 준거집단 대비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상대적 가능성을 반영한다. 오즈비 1은 준거집단 대비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 이하 값은 준거집단 대비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가리키며 1 보다 큰 계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Eurostat(2017),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과 미시간대학교(2017), 소득 변동에 관한 패널 연구(공공 사용 데이터세트): 2011년 웨이브, <http://simba.isr.umich.edu/default.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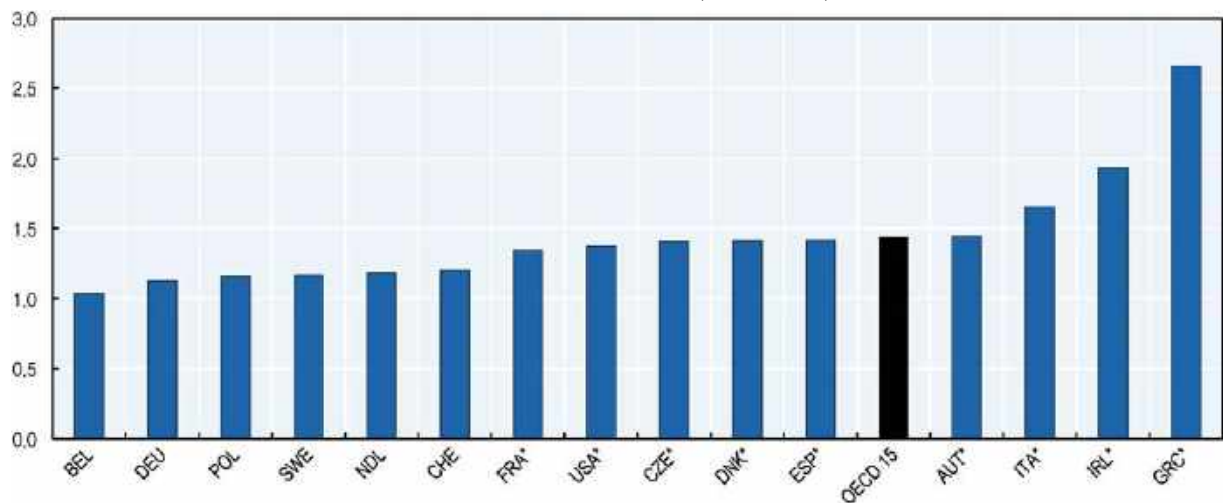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363>

대안으로서, 회고적 정보를 이용한 횡단면 조사는 삶의 기회를 형성할 때 출신의 영향력에 대해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가난한 경우가 많다.²⁴ 그림 2.18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성인 시기의 빈곤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이는 각각 미국의 소득 변동에 관한 패널 연구(PSID)와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의 일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²⁵ 불우한 어린 시절의 환경이 다양한 코호트의 성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그림은 두 연령 그룹을 구분한다. 즉 조사 당시에 25~44세의 성인과 45~60세의 성인으로 나눈다.²⁶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정보가 있는 모든 OECD 국가에서 불리한 경제 여건에서 성장하면 나중에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²⁷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에서 청소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경우 성인 때 소득 빈곤층이 될 확률이 1.3배 더 높다. 스펙트럼의 다른 끝에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에서는 삶 초기의 불리한 경제적 환경은 나중에 빈곤할 확률을 2.5배 이상 증가시킨다(그림 2.18).²⁸

또한 어릴 때의 빈곤한 삶이 성장년 시기 동안 여러 건강상 불리한 결과의 예측변수라는 증거가 있다(Pakpahan, Hoffmann 및 Kröger, 2017). 불리한 아동기 상황이 노년층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PSID의 종단적 요소와 유럽의 건강, 노화, 퇴직에 관한 조사의 회고적

그림 2.19. 11세에 과밀집 주거 환경을 경험한 것에 따른 50세 이상 사람들의 나쁜 건강 상태를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한 오즈비, 50세 이상, 2009년



주: 과밀집 주거는 한 방에 1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 가구에 사는 것으로 정의된다. 나쁜 건강 상태는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때 1의 값을 취하는 더미 변수이다. 오즈비는 준거집단 대비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상대적 가능성을 반영한다. 오즈비 1은 준거집단 대비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1 이하의 값을 갖는 계수는 준거집단 대비 특정 집단에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것을 가리키며 1 보다 큰 계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이다. *는 95% 신뢰 구간 분석을 기준으로 오즈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과 코호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더미 변수가 포함되었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SHARE(2017), 유럽의 건강, 노화, 퇴직에 관한 조사, 웨이브 3 - SHARELIFE, 6.0.0 버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dx.doi.org/10.6103/SHARE.w3.600과 미시간 대학교(2017), 소득 변동에 관한 패널 연구(공공 사용 데이터세트), 미시간 대학 사회조사연구소 조사연구센터, <http://simba.isr.umich.edu/default.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382>

모듈(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삶의 이력에 중점을 두고 아동기 환경(예: 주택과 건강)에 대한 여러 질문을 포함한다. 유럽 조사에는 응답자가 아동기에 경험한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한 특정 질문이 부족하지만,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와 주거지의 방 수에 대한 정보가 대응물을 제공한다. 그림 2.19는 11세에 과밀집 가구에 살면서 건강이 나쁠 확률을 보여준다.²⁹ 평균적으로, 11세에 과밀집 가구에 살았던 50세 이상의 개인은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국가는 1보다 큰 비율을 보이며, 정도는 다르지만 아동기에 불리한 여건을 경험한 개인에 대한 불공평한 건강 결과를 나타낸다. 미국, 체코, 덴마크, 스페인에서 아동기의 과밀집 주거로 인해 중년에 건강 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확률이 40% 증가하고, 11세에 과밀집 가구에 살았던 50세 이상의 개인이 어렸을 때 비좁은 주거 환경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확률이 2배 높은 그리스와 아일랜드에서 확률이 가장 높다.³⁰

웰빙의 불평등에 대한 향후 통계적 의제

이번 장에 제시된 불평등 분석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몇 년 전에 가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이용 가능한 많은 통계의 최근 특성 반영)에 대해 가용 정보의 양의 제약을 넘어서 UN 2030 의제에서 요구한 대로 웰빙의 불평등에 관한 더 나은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용 가능한 미시적 데이터의 폭과 비교가능성 개선:** 현재 다양한 웰빙 정보는 가구 설문 조사를 통해 제공된다. 그러나 주제별로 발전한 정도가 다르며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소득, 일자리와 임금, 자기보고 건강, 교육과 역량, 삶의 만족도에 관한 광범위하게 비교 가능한 질문은 대부분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웰빙 차원도 국가 조사(예: 주거의 질, 개인적 안전)에서 다루지만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에 관한 질문은 가구 설문조사에 거의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분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각 영역에 대한 핵심 지표를 통해 종합적인 웰빙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데이터 출처를 통합한다.** 특정 주제(또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측정이 필요한 여러 성과에 걸쳐 종합적인 통계의 필요성을 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측면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와 매우 광범위한 수준에서 여러 삶의 차원의 성과를 다루는 데이터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는 현재 EU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Fleischer, Smith, Viac(2016)에 의해(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된 모델이다. 또한 2030 SDG 의제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무엇 이든 모든 가구 설문조사는 인구통계 분류의 핵심 집합(예: 소수 집단 지위 또는 장애)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며, 모든 가구 설문조사에 대해 대규모 표본 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경제적 웰빙의 가구 내 불평등 측정 개선** 소득과 자산 등 물질적 조건의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는 현재 가구 수준에서 수집된다. 가계 수준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자원의 가구 내 차이를 평가할 때 특히, 성별 역할을 분석할 때 문제가 된다. 빈곤과 불평등의 실제 범위를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모이고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떻게 공유되는지 제대로 평가하려면 조사 질문은 누가 자산을 소유하는지 또는 누가 돈을 버는지, 이중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누가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지, 경제적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 응답자를 조사해야 한다. 인터뷰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성인 구성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하며, 실제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인터뷰해야 한다.
- **중단 데이터, 횡단면 조사의 회고적 질문, 행정 데이터를 통한 불평등의 동적 측정 항목 개발** 세대 간 또는 동적 환경의 불평등뿐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제한적인 분석 범위는 출생 이후 사람들을 추적하는 연구를 비롯해 중단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요한 (그리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옵션은 횡단면 조사에서 부모의 상황(그리고 삶의 이전 단계에서 응답자의 웰빙 성과)에 대한 회고적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편, 인지적으로 까다롭고 기억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질문은 연구 및 정책 설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행정 기록 데이터는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단독으로 사용되던 조사 데이터와 연계되든) 활용도가 낮은 자료이다.

주

1. 예를 들어 1980년대에 OECD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10%의 평균 소득은 가장 가난한 10%의 7배 이상이었다. 현재는 약 10배 이상 더 높다. 자산 분포의 불평등은 훨씬 더 두드러진다. 10%의 가장 부유한 OECD 가구는 총자산의 약 50%를 차지하며 40%의 가장 빈곤한 가구는 약 3%를 소유한다(OECD, 2016b 및 2015b).
2. 예를 들어, 지니계수(소득 불평등의 일반 척도)는 사회의 연속적이고 비음수 변수(non-negative variable)의 전체 분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척도는 분포의 중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Lambert, 2001) 불평등 변화가 일어나는 위치를 알려주지 못한다(예: 높은 지니계수는 압착된 중산층을 반영하는가? 또는 분포의 하단 끝의 감소를 반영하는가?). 대조적으로 5분위수 또는 10분위수 비율은 분포의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값을 고려하지만 전체 분포에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알려주지 못한다. 서로 다른 척도는 동일한 분포에 대해 불평등 정도(및 시간에 따른 변화 방식)에 대한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불평등 수준과 추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나 이상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다른 접근법(예: 퍼지 집합, 확률지배이론(stochastic dominance))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우수한 후보자가 없다.
4. 삶의 다른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이 소득과 교육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은 각 웰빙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동적 환경에서, 해당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한 결과는 이후 세대의 사람에 대한 불평등한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기회의 불평등에서 결과의 불평등까지 그림 2.1의 화살표로 표현). 현재 세대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건강 관리, 멘토링, 과외 활동, 자금 조달,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불평등의 세대 간 전달은

자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 세대 안에서 그러한 연결 고리는 빈곤의 올라미처럼(예: 한동안의 실업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해) 개인의 미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어떤 시점에 불리한 임의의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5. 이 분석에서 각 웰빙 지표의 불평등 수준에 따라 최고부터 최악까지 국가를 평가했다. 그런 다음 국가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1/3은 최악의 결과(1)부터 최고의 결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그 순위를 표본의 총 국가 수로 나누었다. 결과 값 (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3/2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각 불평등 지표에 관한 성과가 데이터를 제공한 모든 OECD 국가의 상위 1/3 내에 속하는 경우 “불평등이 낮다”고 간주된다. 성과가 데이터를 제공한 모든 국가의 중간 1/3에 속한 경우 “중간 불평등”이며, 데이터를 제공한 모든 국가의 하위 1/3에 속한 경우 “불평등”이 높은 것이다.
6. 국가의 소득 불평등과 다른 웰빙 성과의 수직적 불평등 사이의 중복 수준은 정보가 제공된 지표의 하위 집합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림 2.3에 표시된 비교 증거는 정보가 누락된 지표의 수에 민감하다. 즉 누락된 값이 많은 국가는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중복을 보일 수 있으며, 자료가 있는 일부 지표에서 국가의 성과가 소득 불평등의 다른 1/3이나 동일한 1/3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7. PISA 점수가 구성되는 방식 때문에 학생의 성과의 불평등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는 한 분야의 역량을 고려하여 좀더 의미 있게 평가된다.
8.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 제공한 2015년 데이터는 2014년에 관찰된 평균 S80/S20 비율의 감소가 2015년에도 계속된다고 시사한다. 평균 S80/S20 비율의 시간 프로파일은 지니계수에 대한 것을 반영하며,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다른 OECD 보고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지표이다. OECD(2016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와 실업 또는 기타 급여와 같은 현금 이전을 통한 재분배는 경제 위기 동안 기록된 시장 소득 불공평의 더 큰 증가를 둔화시켰다.
9. 오스트리아에서 기록된 큰 감소(61.7% → 55.6%)는 기본적인 자산 분포의 실제 변화보다 조사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더 관련이 있다(Fessler, Lindner 및 Schürz, 2016).
10. 이러한 결과는 교육의 형평성 변화에 대한 최근 OECD 분석과 대략 일치하며(OECD, 2017b), 이는 여기서 고려한 학생 역량의 분산의 변화와 달리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설명되는 성과 차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11.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이 국가의 모든 개인이 그러한 활동에 소비하는 중간 시간의 60% 미만인 경우 자유 시간이 없다고 규정한다(OECD, 2013).
12. 예를 들어, 세 사람(열로 표시)에서 두 속성(예: 행으로 표시된 소득과 교육)의 분포를 살펴 보면 차원별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2개의 결합 분포를 구분하지 못한다.

$$D_1 = \begin{pmatrix} 1 & 2 & 3 \\ 6 & 3 & 1 \end{pmatrix} \quad \text{and} \quad D_2 = \begin{pmatrix} 1 & 2 & 3 \\ 1 & 3 & 6 \end{pmatrix}$$

실제로, 각 행(차원)을 독립적으로 살펴보면 D1과 D2의 종합 불평등은 동일하다. 그런데 두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면 직관적으로 D1보다 D2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이 두 차원에서 모두 더 잘하는 반면에 첫 번째 사람은 두 차원에서 모두 최악이기 때문이다(두 번째 사람의 절대 및 상대적 위치는 변경되지 않음). 이 예는 차원별 분포가 동일하더라도 개인 수준의 성과 분포 차이가 매우 다른 사회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3. 기존의 모델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자본소득만 받는) 임대인 사이에 확실한 구분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모델에서 자본가들은 자본소득 분포의 상위에 위치하고 임금 분포의 하위에 위치하는 반면에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분포의 상위에 있고 자본소득 분포의 하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개인 수준의 상관관계는 음의 관계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모델은 적어도 분포의 상위 끝에서 높은 자본소득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높은 임금을 받는 모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14. 스피어만(순위) 상관계수는 피어슨 계수와 달리 주변 분포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 간 분석에 더 적합하다.
15. 4가지 웰빙 지표가 다른 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16. 이상적으로는 주변 분포의 변화와 결합 분포의 변화를 분리하려면 순위 상관계수를 사용해야 한다(그림 2.12처럼). 그러나 분석에서 고려한 대부분의 변수는 불연속적이고 좁은 척도로 정의되기 때문에 순위 상관관계를 쉽게 계산할 수 없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얻은 정보는 분석된 차원의 주변 분포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완된다.
17. 분석은 3가지 결과의 결합 분포로 제한된다. 웰빙 속성을 확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실제로 매우 큰 표본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 평가에서 분석 범위를 확장하려면 대상 국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에서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웰빙 차원을 다루는 여러 데이터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8. 소득, 건강, 교육의 결합 분포를 특징짓는 5분위수의 125개 3개항이 있다. 이는 개인이 결합 분포에서 균등하게 분포한 경우, 그러한 3개항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이 0.8%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표준 오차 또는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부부 의존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가구 내의 파트너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경우, 이는 해당 통계의 표본 변동성을 높이고 표본의 독립적인 변동 양을 줄일 수 있다(Biewen, 2002).
20. 오즈비는 모집단에서 특정한 특성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이 해당 모집단에서 또 다른 특성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과 얼마나 연관성이 강한지 보여주는 도구이다. 오즈비는 해당 모집단의 교육 성취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1. 기회의 평등은 세대 간 이동성과 동등하지 않지만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Corak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수치가 세대에 걸쳐 불평등이 전달되는 정도를 요약할 경우, 때때로 지니 계수와 같은 하나의 수치가 한 시점의 불평등 정도를 요약하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소득에서] 세대 간 탄력성은 사용하기에 적절한 통계이다”(Corak, 2013: p. 83).
22. 이 결과는 부유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3. 상속과 증여의 가치 추정은 여러 OECD 국가의 자산 조사에 포함된 과거에 상속과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와 실제 또는 과거 가치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한다. 후자의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받은 상속과 증여의 과거 가치는 주식과 주택 가격 지수를 사용하여 조사 기준 연도와 상속을 받은 연도 사이의 자산가격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화된다(즉 현재 가치로 환산).
24.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이익과 결핍에 노출된 기간, 길이, 나이가 결정적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이가 어릴수록, 불리한 조건에서 오래 살수록, 이러한 조건이 극단적일수록 강하다(Chetty, Hendren 및 Katz(2016), Ratcliffe 및 McKernan(2010)). McKnight(2015)은 또한 영국에서 가난한 가정 출신의 영재 아동이 좀더 유리한 가족 배경을 가진 유사한(또는 덜한) 재능을 가진 아동보다 성인 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준다.
25. 미국과 일부 유럽 OECD 국가에 대해 그림 2.18에 표시된 데이터는 PSID와 EU-SILC 조사 사이의 질문 문구와 응답 척도 차이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비교할 수 있다. PSID에서는 응답자에게 “성장기에 부모가 가난했는가? 부유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질문했다. 25~60세 성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던 2011년 EU-SILC 세대 간 불이익 전달에

- 대한 특수 모듈에서는 응답자에게 약 14세 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4세 때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응답 카테고리는 매우 나쁨/나쁨/보통 나쁨/보통 좋음/좋음/매우 좋음”이었다).
26. 아동기에 경험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회고적 질문과 관련이 있는 회상 오류 가능성 때문에 결과를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
 27. 경제적 어려움은 유럽 국가의 경우 응답자가 자신의 가족이 “매우 나쁜” 또는 “나쁜” 경제적 상황을 겪었다고 답할 때 1의 값을 갖고, 미국의 경우 응답자가 자라는 동안 부모가 가난했다고 답할 때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분류된다.
 28. 많은 국가에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불리한 경제 여건을 경험한 성인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은 두 코호트 간에 유사하다. 그런데 포르투갈, 네덜란드, 헝가리에서 14세의 경제적 어려움은 나이가 더 많은 코호트보다 24-44세에 대한 성인 빈곤의 강력한 예측변수다. 노르웨이에서 청소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24-44세 성인은 소득 빈곤층이 될 확률이 약 2배이지만 45-60세 성인의 14세 때 경제적 상황은 성인 소득 빈곤의 중요한 예측변수가 아니다.
 29. 많은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의 과밀집 주거 환경이 이후 성인으로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사례에서 Marsh 외(1999)는 어린 시절의 열악한 주거 상태(과밀집 주거 포함)가 성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위생시설을 공유하거나 부족했던 것보다 어린 시절의 과밀집 주거가 성인의 자기평가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였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30. 미국의 데이터는 미국 PSID의 종단적 요소에서 가져온 반면, 그림에 표시된 일부 유럽 OECD 국가의 경우 잘못 기억하기 쉬운 회고적 질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 Aaberge, R. et al. (2013), *From classes to copulas: Wages, capital, and top incomes*, Mimeo, Statistics Norway.
- Atkinson, A.B., T. Piketty and E. Saez (2011),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 Vol. 1, pp. 371.
- Allison, R.A. and J. Foster (2004), “Measuring health inequality using qualitative data”, *Journal of Health Economics*, Vol. 23, pp. 505-524.
- Atkinson, A.B. (1987), “On the measurement of poverty”,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pp. 749-764.
- Atkinson, A.B. (1997), “Bringing income distribution in from the cold”, *Economic Journal*, Vol. 107, pp. 297-321.
- Atkinson, A.B. and F. Bourguignon (2000), “Pauvreté et inclusion dans une perspective mondiale”, *Revue d'économie du développement*, No 12, pp. 1332.
- Becker, G.S. (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4, pp. 813-846.
- Becker, G.S. and N. Tomes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 Vol. 3, Part 2, pp. S1-S39.
- Becker, G.S. and N. Tomes (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6, pp. 1153-1189.
- Biewen, M. (2002), “Bootstrap inference for inequality, mobility and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etrics*, Vol. 108, No. 2, pp. 317-342.
- Black, S.E. and P.J. Devereux (2011), “Recent developments in intergenerational mobility”, *Handbook of Labor Economics*, Elsevier.

- Blanden, J., P. Gregg and L. Macmillan (2013),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in income and social class: The effect of within-group inequalit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Statistics in Society)*, Vol. 176, No. 2, pp. 541563.
- Blossfeld, H.P. and A. Timm (2003), *Who marries whom? Educational systems as marriage markets in modern societies*, Springer.
- Bourguignon, F. (forthcoming), *title to be confirmed*, contribution to the High 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ttps://www.oecd.org/statistics/measuring-economic-social-progress/>(accessed on 31 August 2017).
- Bradbury, B. et al. (2015), *Too many children left behind: The US achievement gap in comparativ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 Burkhauser, R.V. et al. (2012), “Recent trends in top income shares in the United States: Reconciling estimates from March CPS and IRS tax return 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4, No.2, pp. 37188.
- Causa, O. and Å. Johansson (2011),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 2010/1, http://dx.doi.org/10.1787/eco_studies-2010-5km33scz5rjj.
- Chiappori, P.-A. and C. Meghir (2015), “Intrahousehold inequality”, in A.B Atkinson and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 2, pp. 13691418.
- Chetty, R., N. Hendren and L. Katz (2016),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s on children: New evidence from the moving to opportunity projec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6, No. 4, pp. 855902.
-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7, No. 3, 79102.
- Deaton, A.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Ferreira, F. et al. (2015), “A global count of the extreme poor in 2012: Data issues, methodology and initial resul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WPS 7432,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C.
- Fessler, P., P. Lindner and M. Schürz (2016),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des Eurosystems 2014: Erste Ergebnisse für Österreich (zweite Welle)*, June, Oesterreichische Nationalbank, https://www.hfcs.at/dam/jcr:f1c6641e-f691-426b-a690-1da5cbf0203d/HFCS%20Erste%20Ergebnisse%20Juni_16-screen.pdf (accessed on 4 August 2017).
- Fleischer, L., C. Smith and C. Viac (2016), “A review of General Social Survey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6/0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bb54d16f-en>.
- Förster, M., A. Llana-Nozal and V. Nafilyan (2014), “Trends in top incomes and their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z43jhlz87f-en>.
- Frank, R.H. (2016), *Success and Luck: Good Fortune and the Myth of Merit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uio, A.-C., D. Gordon and E. Marlier (2012), “Measuring Material Deprivation in the EU: Indicators for the whole population and child-specific indicators”, *Eurostat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 Houghton, J. and S.R. Khandker (2009), *Handbook on Poverty and Inequality*,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 Jenkins, S.P. (2017), “Pareto models, top incomes, and recent trends in UK income inequality”, *Economica*, Vol. 84, pp. 261289.

- Kalmijn, W. and R. Veenhoven (2005), “Measuring Inequality of Happiness in Nations: In search for proper statistic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6, No. 4, pp. 357-396.
- Kanbur, R., et al. (forthcoming), *title to be confirmed*, contribution to the High 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ttps://www.oecd.org/statistics/measuring-economic-social-progress/>, (accessed on 31 August 2017).
- Lambert, P.J. (2001), *T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3rd edition)*,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Marsh, A. et al. (1999), *Home sweet home?*, The Policy Press, Bristol.
- McKay, A. (2002), “Defining and measuring inequality”, *Inequality Briefing*, No 1,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 McKnight, A. (2015), “Downward mobility, opportunity hoarding and the ‘glass floor’”,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CASE) Report*,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 Milanovic, B. (2016),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 Milanovic, B. (2012), “Global inequality recalculated and updated: The effect of new PPP estimates on global inequality and 2005 estimates”,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Vol. 10, No. 1, pp. 118.
- Milanovic, B. (2010), *The Haves and the Have-Nots: A brief and idiosyncratic history of global inequality*, Basic books, New York.
- Murtin, F., et al. (2017), “Inequalities in longevity by education in OECD countries: Insights from new OECD estimat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7/0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6b64d9cf-en>
- Murtin, F. and M. Mira d’Ercole (2015), “Household wealth inequality across OECD countries: New OECD evidence”, *OECD Statistics Brief*, No. 21, June.
- OECD (forthcoming), *All Different, All Equal: Levelling the Playing Fields and Addressing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 OECD (forthcoming), *Under Pressure — A Better Deal for the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7a), *Economic Policy Reforms 2017: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rowth-2017-en>.
- OECD (2017b), “Where did equity in education improve over the past decade?”, *PISA in Focus*, No. 6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33602e45-en>
- OECD (2016a), *Enhancing Child Well-being to Promote Inclusive Growth*, Note by the Secretary General at the Meeting of the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1-2 June, retrieved from: [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ELSA/ELSA\(2016\)7/REV1&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ELSA/ELSA(2016)7/REV1&doclanguage=en), (accessed on 4 August 2017).
- OECD (2016b), “Income inequality remains high in the face of weak recovery”, *Income Inequality Update*, November,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6c), *OECD Regions at a Glance 20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6-en.
- OECD (2015a),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 OECD (2015b),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OECD (2014a),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8512-en>.
- OECD (2014b),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7416-en>.
- OECD (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92-en>.
- OECD (2012), *Let's Read Them a Story! The Parent Factor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76232-en>.
- OECD (2011a),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 OECD (2011b),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Pakpahan, E., R. Hoffmann and H. Kröger (2017), "The long arm of childhood circumstances on health in old age: evidence from SHARELIF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Vol. 31, pp. 110.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utnam, R.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Simon and Schuster, New York.
- Ratcliffe, C. and S.M. McKernan (2010), *Childhood poverty persistence: Facts and consequences*,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 Roemer, J.E.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Ruiz, N. and N. Woloszko (2016), "What do household surveys suggest about the top 1% incomes and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6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rs556f36zt-en>.
- Salverda, W., B. Nolan and T.M. Smeeding (2009),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Sheehy-Skeffington, J. (2017), "Decision-making up against the wall: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behavioural dimension of low socioeconomic status", in S. Oishi & A. Uskul (Eds),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Human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Stewart, F. (2009), "Horizontal inequality: two types of trap",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Vol. 10, No. 3, pp. 315-340.
- Stiglitz, J.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W Norton & Company, New York.
- Thomson, E. and S.S. McLanahan (2012), "Reflections on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Economic resources vs. parental socialization'", *Social Forces*, Vol. 91, No. 1, pp. 4553.
- UNECE (forthcoming), *Guide on Poverty Measurement*,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UN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1 October 2015, A/RES/70/1, www.refworld.org/docid/57b6e3e44.html
- Zhang, J. and P.W. Liu (2003), "Testing Becker's prediction on assortative mating on spouses' wag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8, No.1, pp. 99110.

참고 데이터베이스

-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database), <http://www.cses.org/> (last accessed on 24 July 2017).
- Crossnational Equivalent File (database), <https://cnef.ehe.osu.edu/> (accessed on 24 July 2017).
- Eurostat (201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database),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 (accessed on 24 July 2017).
- Gallup Analytics, www.gallup.com/products/170987/gallup-analytics.aspx (accessed on 24 July 2017).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ccessed on 24 July 2017).
-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Voter Turnout Database (2017), <http://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accessed on 24 July 2017).
-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www.lisdatacenter.org/our-data/lis-database/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oe.cd/ahd>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I_C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Pisa Database, www.oecd.org/pisa/data/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Regional Well-being Statistics (database), http://stat.oecd.org/OECDStat_Metadata/ShowMetadata.ashx?DataSet=RWB (accessed on 30 August 2017).
- OECD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database), www.oecd.org/skills/piaac/publicdataandanalysis/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Time Use Database, www.oecd.org/gender/data/OECD_1564_TUSupdatePortal.xls (accessed on 24 July 2017).
-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accessed on 24 July 2017).
- SHARE (2017),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Wave 3 - SHARELIFE, Release 6.0.0 (database), dx.doi.org/10.6103/SHARE.w3.600 (accessed on 24 July 2017).
- University of Michigan (2017),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ublic use dataset): 2011 wave,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http://simba.isr.umich.edu/default.aspx> (accessed on 24 July 2017).

부록 2.A.

보충 통계

표 2.A.1. 제2장에 사용된 불평등과 결핍의 지표

웰빙 영역	측면	지표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출처	불평등 유형			결핍
					수직 적	수평적		
						성별	연령	
소득과 자산	소득	가구 가처분소득 S80/S20 비율	2015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	X (35)	X(35)	X(35)	
		평균 가구 가처분소득 격차	2015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				
		상대적 소득 빈곤	2015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				
	자산	상위 10%의 가구 순자산 비율	2015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	X (26)	X(26) X(25)	X(25)	
		평균 가구 순자산의 격차	2015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				
		자산 기반 빈곤	2015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				
일자리와 임금	임금	총수입 P90/P10 비율(정규직 직원)	2016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X (35)	X(32) X(32) X(32)	X(35)	
		평균 시간당 임금 격차	2013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저임금 위험	2016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2016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X(35) X(35) X(34)	X(35) X(35) X(34)	X(35)	
		실업률	2016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2016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주거 환경	주거 비용 과밀집 주거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택에 지출하는 사람의 비율	2014	OECD 주택 구매력 데이터베이스			X(32)	
		과밀집 주거 환경의 가구 비율	2014	OECD 주택 구매력 데이터베이스				
건강 상태	사망 연령	사망 연령의 표준 편차	2013	Murtin 등(2017)에 기반한 OECD 계 산	X (23)	X(28) X(28) X(28)	X(28)	
		자기보고 건강 상태	2015	OECD 보건 통계				
	기대수명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	2015	OECD 보건 통계		X(22)		
		교육 수준, 남성, 여성에 따른 25세의 기대여명(년) 격차	2014	Murtin 등(2017)에 기반한 OECD 계 산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근로시간 S80/S20 비율	2014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X (28)	X(29) X(29) X(29)	X(29)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	2014	OECD 노동력 통계 데이터베이스				
	휴식시간	S80/S20 개인 생활과 여가에 쓰는 시간 비율	2014	OECD 시간 사용 데이터베이스	X (14)	X(27) X(26)		
		개인 생활과 여가에 쓰는 평균 시간 격차	2014	OECD 시간 사용 데이터베이스				

표 2.A.1. 제2장에 사용된 불평등과 결핍의 지표(계속)

웰빙 영역	측면	지표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출처	불평등 유형			결핍	
					수직적	수평적			
					성별	연령	교육		
교육과 역량	교육 성취도	고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25~64세 성인의 비율 격차	2015	OECD 한눈에 보는 교육		X(34)	X(34)		X(34)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25~64세 성인의 비율	2015	OECD 한눈에 보는 교육					
	학생 역량	PISA 점수 P90/P10 비율	2015	OECD PISA 데이터베이스	X (35)				X(35)
		모든 영역에서 평균 PISA 점수 격차	2015	OECD PISA 데이터베이스		X(35)	X(35)		
	성인 역량	PIAAC 점수 P90/P10 비율	과학, 읽기, 수학(PISA)에서 2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15세 학생의 비율	2015	OECD PISA 데이터베이스				X(35)
			PIAAC 점수 P90/P10 비율	2016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X (28)			X(28)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 격차			2016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X(28)	X(28)	X(28)	
		문해력과 수리력(PIAAC)에서 1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인의 비율	2016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X(28)	
사회적 관계	소셜 네트워크	사회 활동에 소비한 시간 S80/S20 비율(참가자들 사이에서만)	2014	OECD 시간 이용 데이터베이스	X (14)				
		사회 활동에 소비한 평균 시간 격차	2014	OECD 시간 이용 데이터베이스		X(27)	X(25)		
	지원 네트워크의 품질	지원 네트워크의 품질 격차	2006-2017	갤럽 분석		X(35)	X(35)	X(35)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6-2017	갤럽 분석				X(35)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시민 참여	자기보고 투표율 격차	2016	선거제도비교연구(CSES)		X(25)	X(25)	X(25)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2017	IDEA 투표율 데이터베이스				X(35)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 S80/S20 비율	2016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X (28)				
		정치 효능감 격차	2016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X(28)	X(28)	X(28)	
		정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016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X(28)	
환경의 질	대기오염	PM _{2.5} 의 15µg/m ³ 이상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	2013	OECD 지역 웰빙 데이터베이스				X(35)	
		지역 수질 만족도 격차	2006-2017	갤럽 분석		X(35)	X(35)	X(35)	
	수질	지역의 수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6-2017	갤럽 분석				X(35)	
개인적 안전	살인율	10만 명당 폭행에 의한 사망자	2015	OECD 보건 통계		X(35)		X(35)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감 격차	2006-2017	갤럽 분석		X(35)	X(35)	X(35)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6-2017	갤럽 분석				X(35)	

표 2.A.1. 제2장에 사용된 불평등과 결핍의 지표(계속)

웰빙 영역	측면	지표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출처	불평등 유형			결핍
					수직 적	수평적	성별 연령 교육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정서 균형	삶의 만족도 S80/S20 비율	2016	EU-SILC 및 NSO 계산	X (27)	X(27) X(27) X(26)		X(35)
		평균 삶의 만족도 격차	2016	EU-SILC 및 NSO 계산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6-2016	갤럽 세계 설문조사				
		부정적인 정서 균형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6-2016	갤럽 세계 설문조사				

주: 각 불평등 지표에 대해 괄호 안의 숫자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는 OECD 국가의 수를 나타낸다. **가구 가처분소득** 데이터는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영국, 미국의 경우 2015년, 일본의 경우 2012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4년을 나타낸다. **가구 순자산** 데이터는 호주, 칠레, 덴마크,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경우 2015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2014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의 경우 2013년,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스페인의 경우 2011년을 나타낸다. **총수입** 데이터는 체코, 한국, 영국, 미국의 경우 2016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경우 2015년, 스웨덴의 경우 2013년, 이스라엘의 경우 2011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4년을 나타낸다. **시간당 수입** 데이터는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의 경우 2012년, 칠레, 폴란드의 경우 2011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0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3년을 나타낸다. **저임금 위험** 데이터는 체코, 한국, 영국, 미국의 경우 2016년,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슬로바키아의 경우 2015년,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2012년, 이스라엘의 경우 2011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0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4년을 나타낸다. **주거 비용과 과밀집 주거** 데이터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6년, 칠레의 경우 2013년, 캐나다의 경우 2011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4년을 나타낸다. **자기보고 건강** 데이터는 터키의 경우 2014년, 일본의 경우 2013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5년을 나타낸다. **근로시간** 데이터에는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주마다 매우 다른 직원이 포함된다. 데이터는 독일의 경우 2013년을 나타낸다. **개인 생활과 여가에 쓰는 시간**(즉 “휴식시간”)과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2016년, 영국의 경우 2014-2015년, 일본의 경우 2011년, 캐나다의 경우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 2009-2010년, 한국, 멕시코의 경우 2009년,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9년, 호주, 터키의 경우 2006년, 네덜란드의 경우 2005-2006년, 벨기에, 아일랜드의 경우 2005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라트비아의 경우 2003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00-2001년, 헝가리의 경우 1999-2000년, 포르투갈의 경우 1999년을 나타낸다. **교육 성취도** 데이터는 프랑스의 경우 2014년, 칠레의 경우 2013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5년을 나타낸다. **투표율(결핍)** 데이터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 2017년, 호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의 경우 2016년, 벨기에, 헝가리, 일본, 라트비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14년,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의 경우 2013년, 멕시코의 경우 2012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5년을 나타낸다. **자기보고 투표율(수평적 불평등)** 데이터는 슬로바키아의 경우 2016년, 핀란드, 포르투갈, 터키, 영국의 경우 2015년, 뉴질랜드, 터키의 경우 2014년, 프랑스, 그리스, 한국, 멕시코, 미국의 경우 2012년,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의 경우 2011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3년을 나타낸다. **교육 수준별 기대수명** 데이터는 덴마크,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3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미국의 경우 2012년, 호주, 캐나다, 영국의 경우 2011년, 핀란드, 멕시코의 경우 2010년, 뉴질랜드의 경우 2006년, 칠레의 경우 2004년을 나타낸다. **살인율** 데이터는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15년,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2013년, 캐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의 경우 2012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4년을 나타낸다. **PM_{2.5} 노출** 데이터는 3년 연속 평균이다. 2014년 추정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 추정치는 2012년, 2013년, 2015년에서 내삽한 값이다. **지역 수질 만족도,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지원 네트워크의 품질**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연도에 걸쳐 수집된다. **삶의 만족도(결핍)와 부정적 정서 균형**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용 가능한 모든 연도에 걸쳐 수집된다. **삶의 만족도(수직적 및 수평적 불평등)**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의 경우 2016년,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의 경우 2015년, 캐나다의 경우 2014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3년을 나타낸다.

표 2.A.2. 웰빙의 수직적 불평등,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웰빙 차원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삶의 만족도
지표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 순자산	총 임금	사망 연령	근로시간	여가 및 개인 생활에 쓰는 시간	학생 역량	성인 역량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	정치 효능감	삶의 만족도
불평등 척도	S80/S20	상위 10%의 자산 비율	P90/P10	표준 편차	S80/S20	S80/S20	모든 영역에서 평균 PISA 점수의 P90/P10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의 P90/P10	S80/S20	S80/S20	S80/S20
국가											
호주	5.66	46.47	3.29	12.54	1.72	..	1.70	1.62	..	4.04	..
오스트리아	4.12	55.59	3.33	12.28	1.36	1.92	1.71	1.54	13.90	4.40	2.02
벨기에	3.93	42.50	2.33	12.79	4.00	..	1.71	1.58	..	4.06	1.62
캐나다	5.23	50.31	3.71	12.15	1.53	2.13	1.58	1.66	18.84	3.78	2.29
칠레	10.03	57.71	4.32	12.23	1.68	2.04	..	3.09	..
체코	3.65	..	3.54	12.97	1.32	..	1.68	1.49	..	4.17	2.35
덴마크	3.62	63.98	2.56	13.89	1.37	1.81	1.57	1.65	12.57	3.16	2.36
에스토니아	6.20	55.71	3.78	..	1.27	..	1.54	1.71	..	4.32	2.24
핀란드	3.73	45.23	2.56	14.36	1.35	1.79	1.58	1.62	15.91	2.98	1.66
프랑스	4.47	50.62	2.81	13.53	1.50	1.73	1.77	1.62	9.87	3.62	1.99
독일	4.42	59.72	3.41	..	1.54	..	1.66	1.57	..	4.31	..
그리스	6.35	42.42	3.27	..	1.69	..	1.73	1.62	..	2.46	2.61
헝가리	4.47	48.48	3.72	14.15	1.21	..	3.72	1.73	..	4.31	2.61
아이슬란드	3.58	..	2.94	..	1.66	..	1.69	1.33
아일랜드	4.56	53.79	3.99	..	1.60	1.81	1.55	1.84	5.50	4.25	2.17
이스라엘	7.08	..	4.91	12.62	1.86	1.64	..	4.40	..
이탈리아	5.91	42.77	2.17	11.10	1.41	1.84	1.67	1.44	11.54	4.25	2.07
일본	6.07	..	2.94	1.58	1.52	..	4.09	..
한국	5.11	..	4.50	1.65	1.53	..	3.17	1.82
라트비아	6.36	63.38	4.00	15.83	1.25	..	1.56	2.30
룩셈부르크	4.22	48.67	3.15	..	1.34	..	1.75	2.14
멕시코	10.43	..	3.88	13.94	..	1.94	1.60	..	11.96
네덜란드	4.38	68.35	3.02	..	1.24	1.94	1.68	1.61	5.65	2.97	1.64
뉴질랜드	5.77	52.49	2.95	14.42	1.70	1.62	..	3.37	1.90
노르웨이	3.87	51.48	2.55	13.00	1.44	1.83	1.63	1.58	9.17	3.36	1.71
폴란드	4.72	41.82	4.03	14.31	1.41	..	1.59	1.49	..	3.71	1.93
포르투갈	5.88	52.13	3.89	..	11.45	..	1.65	2.55
슬로바키아	3.71	34.33	3.56	12.82	1.28	..	1.78	1.68	..	4.18	2.48
슬로베니아	3.74	48.62	3.33	12.74	1.20	..	1.62	1.69	..	3.78	1.26
스페인	6.61	45.66	3.12	..	1.42	1.24	1.60	1.57	11.18	..	2.33
스웨덴	4.09	..	2.28	13.26	1.31	..	1.70	1.60	..	3.33	1.67
스위스	4.56	..	2.72	..	1.40	..	1.68	1.86
터키	7.75	..	3.53	11.02	..	1.82	1.65	1.81	8.22	4.01	..
영국	6.11	46.59	3.42	11.19	1.74	1.85	1.67	1.57	16.50	4.23	1.98
미국	8.34	78.19	5.04	13.60	1.51	2.13	1.69	1.71	11.43	3.68	..
OECD 평균	5.39	51.82	3.39	13.08	1.52	1.84	1.66	1.63	11.59	3.77	2.03
브라질	12.50	1.86
콜롬비아	5.21	1.70
코스타리카	14.70	..	5.17	1.57
리투아니아	7.40	..	3.78	..	1.23	..	1.66	1.49	..	2.29	2.83
러시아	1.57	1.49	..	3.2	..
남아프리카공화국	37.60	1.89	9.78

주: 영국에 대한 자산 데이터는 영국 본국에 국한된다. 성인 역량에 관한 데이터는 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낸다. 최악의 성과(1)부터 최고의 성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해당 순위를 표본에 포함된 총 OECD 국가의 수로 나눈다. 결과 값(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3/2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값은 한 국가의 상대적 성과가 속하는 계층에 따라 음영 처리된다. 계층이 높을수록 음영이 어두워진다. OECD 값은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가이다. “..”은 “데이터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코딩된다.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높아진다. 데이터 출처와 최신 연도는 표 2.A.1을 참조한다.

표 2.A.3. 성별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남성의 성과에 대한 여성의 비

웰빙 차원	일자리와 임금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삶의 만족도	
	시간당 임금	재임	고용	실업		재해보고 건강	근로시간	여가와 개인 생활에 쓰는 시간	교육 성취도	형성 역량	성인 역량	지원 네트워크 품질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	투표율	정치 효능감	수질	실용	안전감	살의 만족도		
불평등 척도	평균 시간당 임금	전체 정규직 차원의 총 평균 임금의 2/3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차원의 비율이	고용률	실업률(D)	건강 상태가 양호하게 매우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D)	일일 평균 시간	고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25-64세 성인의 비율	모든 영역에서 평균 PISA 점수의 P00/P10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의 P00/P10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일일 평균 시간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표형으로 인한 사망 수(수)	범죄에 노출될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0-10 척도의 평균 값			
국가																					
호주	0.87	0.70	0.86	0.98	..	3.03	0.99	0.97	0.98	0.97	1.01	1.06	1.01	1.01	0.97	1.86	0.64	..			
오스트리아	0.82	0.42	0.89	1.17	0.95	1.66	0.98	0.91	1.02	0.97	1.01	1.02	0.99	1.01	1.00	1.25	0.84	1.01			
벨기에	0.93	0.64	0.89	1.07	0.92	2.08	0.98	1.03	1.01	0.96	1.00	1.11	..	0.91	0.97	1.63	0.73	0.99			
캐나다	0.86	1.06	0.92	1.23	..	2.87	0.98	1.03	0.99	0.97	1.00	1.13	1.00	1.04	0.96	2.86	0.77	1.00			
칠레	0.79	0.47	0.71	0.88	0.99	1.02	0.94	1.01	1.07	0.99	7.18	0.80	..			
체코	0.81	0.64	0.80	0.73	0.94	2.81	..	0.96	0.99	0.98	1.02	..	0.97	0.84	0.98	1.67	0.71	1.00			
덴마크	0.93	0.58	0.92	0.88	0.96	2.38	1.01	1.03	0.99	0.98	1.00	1.17	..	1.12	0.98	1.00	0.79	1.00			
에스토니아	0.78	0.44	0.91	1.19	0.93	1.43	0.93	1.05	0.99	0.99	1.01	1.11	..	0.95	0.98	5.10	0.77	1.01			
핀란드	0.87	0.51	0.97	1.05	0.99	2.58	0.97	1.07	0.95	0.99	1.03	1.20	0.96	1.06	0.99	1.80	0.76	1.03			
프랑스	0.89	0.54	0.91	1.05	0.93	1.50	0.97	0.97	0.99	0.98	1.01	1.07	1.02	1.08	1.00	2.00	0.73	0.99			
독일	0.82	0.55	0.90	1.20	0.96	2.23	0.99	0.96	1.00	0.96	1.00	1.09	0.92	0.88	0.98	1.00	0.77	..			
그리스	0.89	0.76	0.72	0.70	0.93	1.88	..	1.05	0.97	1.00	1.02	..	1.01	1.00	0.97	4.00	0.72	1.01			
헝가리	0.89	0.81	0.82	1.01	0.89	2.04	0.95	0.96	0.99	..	1.02	0.74	0.98	1.67	0.69	0.98			
아이슬란드	0.86	0.65	0.95	0.97	0.91	1.86	..	1.01	0.97	..	1.01	..	0.98	..	1.00	3.00	0.81	1.00			
아일랜드	0.91	0.67	0.84	1.40	0.98	1.98	0.97	1.07	1.01	0.97	1.02	0.98	1.00	1.07	0.98	5.00	0.72	1.00			
이스라엘	..	0.59	0.89	0.95	1.02	0.99	0.98	1.03	..	1.01	0.97	1.00	3.86	0.83	..			
이탈리아	0.90	0.57	0.72	0.86	0.91	1.58	0.91	1.07	1.01	0.98	1.01	0.78	..	0.98	0.96	2.75	0.68	0.99			
일본	0.62	0.33	0.79	1.12	0.89	..	1.03	..	1.01	0.97	1.07	1.51	0.97	0.82	0.96	1.50	0.73	..			
한국	0.63	0.41	0.74	1.04	0.75	..	0.96	0.93	0.96	0.97	1.05	1.14	0.98	1.12	1.00	1.20	0.73	1.02			
라트비아	..	0.79	0.95	1.29	0.82	1.40	0.97	1.09	0.96	..	1.03	1.03	0.95	3.22	0.71	1.00			
룩셈부르크	0.87	0.42	0.85	0.91	0.95	1.34	..	0.98	1.00	..	0.99	0.99	0.86	0.78	1.00			
멕시코	1.02	0.62	0.57	0.98	0.97	0.96	1.00	..	1.03	1.04	1.00	..	1.01	7.98	0.89	..			
네덜란드	0.87	0.62	0.88	0.86	0.91	1.43	1.03	0.98	0.99	0.96	0.99	1.11	..	1.01	0.98	1.60	0.73	1.00			
뉴질랜드	..	0.77	0.87	0.88	..	2.69	1.01	0.97	0.99	0.98	1.02	1.29	1.10	1.06	0.95	1.36	0.61	1.03			
노르웨이	0.83	0.79	0.95	1.37	0.95	3.14	1.02	1.01	0.97	0.97	1.00	1.29	1.02	1.08	0.99	2.00	0.82	1.01			
폴란드	0.97	0.85	0.82	0.99	0.89	2.45	0.96	1.00	0.99	1.01	1.02	1.00	0.96	1.04	0.94	3.25	0.78	0.99			
포르투갈	0.91	0.63	0.91	1.01	0.81	1.99	0.90	1.17	1.00	..	0.97	0.68	0.94	..	1.00	1.00	0.71	0.99			
슬로바키아	0.85	0.74	0.81	0.82	0.89	2.85	..	0.97	0.98	1.00	1.01	..	1.02	0.91	0.99	1.67	0.69	0.99			
슬로베니아	0.98	0.72	0.88	0.87	0.90	2.34	0.94	0.97	0.97	1.00	0.99	0.95	0.95	0.99	0.97	0.71	0.80	1.01			
스페인	0.89	0.54	0.84	0.85	0.92	2.27	0.98	1.08	1.00	0.97	0.99	1.18	..	1.00	0.99	2.00	0.83	1.00			
스웨덴	0.87	0.68	0.96	1.13	0.94	1.75	1.00	1.03	0.97	0.97	1.01	1.09	1.00	1.16	0.99	3.00	0.70	1.01			
스위스	0.82	0.40	0.90	0.98	0.94	2.36	..	0.97	1.00	..	1.02	..	0.90	..	0.98	0.67	0.82	1.01			
터키	1.06	1.03	0.44	0.70	0.87	..	0.97	0.79	0.98	0.92	0.99	1.15	1.00	0.92	0.97	4.67	0.76	..			
영국	0.86	0.58	0.88	1.06	1.00	1.79	0.98	0.98	0.99	0.97	1.01	1.24	0.96	1.04	0.99	4.00	0.78	1.01			
미국	0.85	0.72	0.85	1.04	..	1.91	0.99	1.02	1.00	0.97	1.03	1.13	1.03	1.15	0.96	3.67	0.75	..			
OECD 평균	0.87	0.64	0.84	1.01	0.92	2.12	0.98	1.00	0.99	0.97	1.01	1.08	0.99	1.01	0.98	2.63	0.75	1.00			
브라질	0.71	0.68	1.14	1.00	..	0.99	..	1.02	..	0.95	11.49	0.70	..			
콜롬비아	..	1.08	0.70	0.58	1.06	1.00	..	1.00	0.97	11.44	0.87	..			
코스타리카	..	0.56	0.61	0.66	1.04	1.02	..	1.01	0.97	7.89	0.78	..			
리투아니아	..	0.75	0.98	1.38	0.78	1.47	..	1.07	0.97	1.00	1.01	1.05	..	0.92	0.98	2.57	0.77	0.98			
러시아	0.87	1.08	1.02	0.99	1.01	1.00	0.88	0.89	3.82	0.68	1.01			
남아프리카공화국	0.75	0.85	0.95	0.97	1.00	0.81	1.07	..	0.96	6.67	0.72	..			

주: 성인 역량에 관한 데이터는 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낸다. 최악의 성과(1)부터 최고의 성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해당 순위를 표본에 포함된 총 OECD 국가의 수로 나눈다. 결과 값(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3/2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값은 한 국가의 상대적 성과가 속하는 계층에 따라 음영 처리된다. 계층이 높을수록 음영이 어두워진다. OECD 값은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가이다. “D”는 “결핍 지표”를 나타내고 “..”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코딩된다.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상대적 성과가 좋아진다. 데이터 출처와 최신 연도는 표 2.A.1을 참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719>

표 2.A.4. 연령대별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청년층 vs. 중년층,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중년층 성과에 대한 청년층의 비

웰빙 차원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건강 상태	삶과 일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삶의 만족도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 순자산	시간당 임금	고용	실업		자기보고 건강	근로시간	여가와 개인 생활에 쓰는 시간	교육 성취도	성인 역량	자원 네트워크 품질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	투표율				정치 효능감
불평등 척도	평균 균등화 가처분소득	평균 순자산	평균 시간당 임금	고용률	실업률(D)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D)	일일 평균 시간	고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25~64세 성인의 비율	성인 역량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일일 평균 시간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밤에 혼자 길을 갈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0-10 척도의 평균 값
준거집단	0~25세	0~34세	15~29세	15~24세	15~24세	15~24세	15~24세	15~24세	25~34세	16~24세	15~29세	15~24세	18~29세	16~24세	15~29세	15~29세	15~29세	
상대	26~50세	35~54세	30~49세	25~54세	25~54세	25~44세	25~54세	25~64세	35~54세	25~44세	30~49세	25~64세	30~49세	25~44세	30~49세	30~49세	30~49세	
국가																		
호주	0.91	0.32	0.71	0.73	0.36	..	2.29	1.11	1.11	0.98	1.03	..	0.95	0.87	1.05	0.99	..	
오스트리아	0.90	0.20	0.63	0.61	0.48	1.11	3.23	1.06	1.05	1.00	1.03	1.37	0.88	1.13	0.99	0.93	1.05	
벨기에	0.92	0.49	0.74	0.29	0.35	1.09	0.94	1.07	1.06	0.98	1.05	1.37	..	1.14	1.05	1.00	1.03	
캐나다	0.94	0.30	0.65	0.68	0.45	..	1.42	1.11	1.02	0.98	1.04	1.68	0.92	0.94	1.02	0.96	1.00	
칠레	0.81	0.43	0.69	0.39	0.39	1.34	1.03	1.14	0.90	1.00	1.05	..	
체코	0.91	..	0.82	0.33	0.34	0.91	1.28	..	0.98	0.99	1.05	..	0.91	0.98	0.98	0.98	1.07	
덴마크	0.91	0.22	0.64	0.71	0.46	1.09	0.79	1.08	1.01	0.96	1.02	1.30	..	0.95	0.99	0.93	1.01	
에스토니아	0.91	0.36	0.89	0.47	0.46	1.13	1.44	1.11	0.97	1.01	1.08	2.19	..	1.19	1.07	1.00	1.07	
핀란드	0.90	0.25	0.69	0.54	0.39	1.04	1.89	1.11	1.00	0.97	1.03	1.50	0.76	0.83	0.97	0.97	1.01	
프랑스	0.94	0.29	0.71	0.35	0.36	1.11	2.49	1.11	1.09	1.00	1.02	1.82	0.89	1.20	1.04	0.92	1.06	
독일	0.89	0.21	0.63	0.55	0.55	1.13	1.77	1.09	1.01	0.99	1.03	1.52	0.89	1.12	1.00	0.97	..	
그리스	0.92	0.47	0.66	0.20	0.48	1.05	1.11	..	1.16	1.00	1.11	..	0.88	0.86	1.07	1.02	1.07	
헝가리	0.89	0.53	0.78	0.34	0.35	1.12	1.38	1.10	1.02	..	1.08	1.47	0.99	1.02	1.08	
아이슬란드	0.98	..	0.66	0.86	0.38	0.98	0.82	..	0.97	..	1.02	..	0.92	..	1.00	1.02	1.02	
아일랜드	0.89	..	0.65	0.44	0.42	1.06	1.23	1.09	1.12	0.99	1.01	1.81	0.87	0.94	1.06	0.98	1.02	
이스라엘	0.88	0.56	0.49	1.07	0.98	1.05	..	0.92	0.91	1.09	0.99	..	
이탈리아	0.92	0.39	0.69	0.24	0.29	1.09	0.91	1.12	1.24	1.00	1.03	1.90	..	1.26	1.09	1.00	1.01	
일본	0.91	..	0.86	0.51	0.61	1.25	..	1.06	..	0.96	1.05	1.25	0.71	0.85	0.92	0.97	..	
한국	0.77	0.46	0.65	0.36	0.32	1.49	..	0.97	1.07	1.03	1.18	1.03	0.81	1.27	1.08	1.02	1.03	
라트비아	0.88	0.66	..	0.41	0.57	1.22	2.77	1.07	0.96	..	1.09	1.75	1.04	1.11	1.09	
룩셈부르크	0.92	0.39	0.65	0.31	0.53	1.09	4.92	..	1.16	..	1.05	1.09	0.98	1.04	
멕시코	0.83	..	0.81	0.57	0.44	1.11	1.35	..	1.05	1.17	0.92	..	0.99	0.99	..	
네덜란드	0.92	0.10	0.63	0.73	0.43	1.03	1.26	1.10	1.10	0.99	1.01	1.16	..	0.93	0.98	1.04	1.01	
뉴질랜드	0.85	0.33	..	0.65	0.29	..	2.40	1.12	1.07	0.96	1.02	1.55	0.56	0.74	1.02	0.99	1.00	
노르웨이	0.93	0.24	0.65	0.59	0.40	1.02	1.32	1.10	0.97	0.95	1.03	1.21	0.90	0.90	1.02	0.96	1.03	

표 2.A.4. 연령대별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청년층 vs. 중년층,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계속)
 중년층 성과에 대한 청년층의 비

웰빙 차원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건강 상태	삶과 일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삶의 만족도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 순자산	시간당 임금	고용	실업		자기보고 건강	근로시간	여가와 개인 생활에 쓰는 시간	교육 성취도	성인 역량	자원 네트워크 품질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	투표율				정치 효능감
불평등 척도	평균 균등화 가처분소득	평균 순자산	평균 시간당 임금	고용률	실업률(D)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D)	일일 평균 시간	고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25~64세 성인의 비율	성인 역량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일일 평균 시간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밤에 혼자 길을 갈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0-10 척도의 평균 값
준거집단	0~25세	0~34세	15~29세	15~24세	15~24세	15~24세	15~24세	15~24세	25~34세	16~24세	15~29세	15~24세	18~29세	16~24세	15~29세	15~29세	15~29세	
상대	26~50세	35~54세	30~49세	25~54세	25~54세	25~44세	25~54세	25~64세	35~54세	25~44세	30~49세	25~64세	30~49세	25~44세	30~49세	30~49세	30~49세	
국가																		
폴란드	0.91	0.51	0.76	0.35	0.31	1.12	1.16	1.12	1.02	1.02	1.05	1.81	0.95	1.03	0.98	1.04	1.07	
포르투갈	0.92	0.53	0.73	0.30	0.36	1.17	2.32	..	1.47	..	1.10	..	0.78	..	1.03	0.98	1.13	
슬로바키아	0.89	0.63	0.87	0.32	0.39	1.09	3.68	..	1.00	0.99	1.04	..	0.82	1.18	1.00	1.01	1.08	
슬로베니아	0.98	0.37	0.76	0.34	0.51	1.11	1.82	1.12	1.07	1.02	1.05	1.66	0.98	1.60	1.04	0.95	1.05	
스페인	0.92	0.49	0.67	0.29	0.41	1.07	1.01	1.10	1.09	1.00	1.03	1.92	..	0.95	1.09	0.99	1.05	
스웨덴	0.94	..	0.66	0.52	0.29	1.03	1.01	1.10	0.97	0.97	1.06	1.41	0.99	0.94	1.01	1.00	1.00	
스위스	0.90	..	0.53	0.72	0.55	1.02	3.05	..	1.04	..	1.02	..	0.74	..	1.01	0.96	1.01	
터키	0.80	..	0.65	0.57	0.50	1.17	..	1.06	1.69	1.04	1.11	0.89	0.84	1.09	0.99	0.95	..	
영국	0.85	0.31	0.68	0.65	0.28	1.08	2.12	1.11	1.07	0.97	1.01	1.32	0.81	0.84	1.00	0.98	1.02	
미국	0.84	0.18	0.62	0.63	0.40	..	2.05	1.08	1.02	0.98	1.05	1.24	0.77	0.92	1.06	0.93	..	
OECD 평균	0.90	0.38	0.70	0.49	0.42	1.10	1.86	1.09	1.10	0.99	1.05	1.49	0.86	1.02	1.02	0.99	1.04	
브라질	0.77	0.58	0.32	1.37	..	1.06	..	0.99	..	0.97	0.96	..	
콜롬비아	0.56	0.42	1.44	..	1.08	1.00	0.97	..	
코스타리카	0.78	0.46	0.30	1.37	..	1.06	1.00	1.08	..	
리투아니아	0.88	0.37	0.51	1.18	3.14	..	0.98	1.03	1.07	0.84	1.10	1.06	1.13	
러시아	0.88	0.37	0.29	0.99	1.00	1.08	0.97	1.10	1.14	1.18	
남아프리카공화국	0.69	0.21	0.45	1.02	1.22	..	1.02	0.92	0.69	..	1.01	0.97	..	

주: 영국에 대한 자산 데이터는 영국 본국에 국한된다. 성인 역량에 관한 데이터는 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낸다. 최악의 성과(1)부터 최고의 성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해당 순위를 표본에 포함된 총 OECD 국가의 수로 나눈다. 결과 값(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3/2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값은 한 국가의 상대적 성과가 속하는 계층에 따라 음영 처리된다. 계층이 높을수록 음영이 어두워진다. OECD 값은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균이다. “D”는 “결핍 지표”를 나타내고 “..”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코딩된다. 비율이 높을수록 청년층의 상대적 성과가 좋아진다. 데이터 출처와 최신 연도는 표 2.A.1을 참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738>

표 2.A.5. 연령대별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노년층 vs. 중년층,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중년층 성과에 대한 노년층의 비

웰빙 차원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건강 상태		삶과 일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삶의 만족도	
	지표	가구 가처분소득	가구 순자산	시간당 임금	고용	실업	자기보고 건강	근로시간	여가와 개인 생활에 쓰는 시간	교육 성취도	성인 역량	지원 네트워크 품질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	투표율	정치 효능감	수질	안전감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불평등 척도	평균 균등화 가처분소득	평균 순자산	평균 시간당 임금	고용률	실업률(D)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D)	일일 평균 시간	고등 또는 대학 교육을 받은 25 ~ 64세 성인의 비율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일일 평균 시간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0-10 척도의 평균 값			
중년층 집단 상대	51세 이상 26~50세	가장 55세 이상 35~54세	50세 이상 30~49세	55~64세 25~54세	55~64세 25~54세	45~64세 25~44세	55~64세 25~54세	65세 이상 25~64세	55~64세 35~54세	45~64세 25~44세	50세 이상 30~49세	65세 이상 25~64세	50세 이상 30~49세	45~64세 25~44세	50세 이상 30~49세	50세 이상 30~49세	50세 이상 30~49세			
국가	0.86	1.45	0.98	0.73	1.06	--	1.10	1.24	0.84	0.94	0.89	--	1.04	1.08	1.02	0.87	--			
오스트리아	1.01	0.93	1.14	0.61	1.10	0.78	0.87	1.25	0.90	0.84	0.87	0.99	1.01	0.94	1.01	0.88	0.98			
벨기에	0.92	1.40	1.11	0.29	1.36	0.83	1.11	1.18	0.73	0.92	0.86	--	0.89	1.05	0.73	0.93				
캐나다	1.00	1.29	1.00	0.68	0.94	--	0.90	1.30	0.92	0.94	1.00	1.14	1.10	1.02	1.00	0.91	1.01			
체코	0.93	1.63	1.12	0.39	1.66	--	--	--	0.70	0.86	0.93	--	--	0.85	1.06	0.85	1.01			
덴마크	0.95	--	0.94	0.33	1.05	0.67	--	1.25	--	0.92	0.94	0.96	--	1.18	0.85	1.00	0.83			
프랑스	0.96	2.24	1.04	0.71	1.32	0.80	0.73	1.11	0.87	0.93	0.98	0.92	--	1.02	1.00	0.90	1.05			
독일	0.75	0.62	0.83	0.47	0.92	0.56	1.37	1.22	1.00	0.94	0.98	0.97	--	0.83	1.05	0.84	0.90			
핀란드	0.96	1.15	0.99	0.54	0.96	0.81	1.23	1.21	0.89	0.90	0.95	1.00	1.06	0.95	1.01	0.85	0.97			
프랑스	1.13	1.29	1.08	0.35	1.26	0.79	1.01	1.21	0.81	0.91	0.97	0.91	1.02	0.97	1.03	0.84	0.96			
독일	0.97	1.17	1.02	0.55	0.93	0.73	1.05	1.17	0.99	0.94	0.96	0.91	1.15	0.95	1.03	0.84	--			
그리스	1.01	1.06	0.20	1.40	0.83	0.90	--	0.72	0.98	0.90	--	--	0.83	1.04	1.08	0.87	0.92			
헝가리	0.87	0.85	1.00	0.34	1.04	0.54	1.05	1.17	0.92	--	1.00	0.90	--	--	1.05	0.82	0.90			
아이슬란드	1.05	--	0.99	0.86	0.97	0.87	1.03	--	0.87	--	0.98	--	0.99	--	1.00	0.87	0.99			
아일랜드	0.92	--	1.01	0.44	1.15	0.88	0.83	1.23	0.76	0.93	1.00	1.00	1.03	0.96	1.05	0.93	1.04			
이스라엘	1.12	--	--	0.56	1.19	--	--	--	0.92	0.90	0.98	--	1.09	0.92	1.04	0.99	--			
이탈리아	1.08	1.22	1.16	0.24	2.02	0.78	0.79	1.14	0.79	0.93	0.95	0.94	--	0.95	1.06	0.88	0.97			
일본	0.96	--	1.00	0.51	1.10	0.76	--	1.26	--	0.93	0.99	0.88	1.09	0.98	1.09	1.12	--			
한국	0.74	1.19	0.92	0.36	1.23	0.85	--	1.22	0.62	0.89	0.78	1.30	1.01	0.73	1.01	1.15	1.00			
라트비아	0.75	0.76	--	0.41	1.03	0.49	1.34	1.20	1.00	--	0.91	1.14	--	--	1.03	0.83	0.93			
룩셈부르크	1.05	1.60	1.18	0.31	1.25	0.76	1.06	--	0.91	--	1.01	--	--	--	1.04	0.88	0.98			
멕시코	1.05	--	0.98	0.57	1.53	--	--	1.30	0.74	--	1.03	1.08	1.00	--	1.02	0.96	--			
네덜란드	0.97	1.95	1.10	0.73	0.70	0.85	0.81	1.19	0.83	0.92	0.93	1.09	--	0.88	1.02	0.87	0.99			
노르웨이	1.05	1.56	--	0.65	1.24	--	--	0.96	1.23	0.87	0.96	0.99	1.03	0.99	1.06	0.99	1.03			
폴란드	1.07	1.72	1.05	0.59	2.48	0.89	1.20	1.20	0.97	0.94	0.96	1.00	1.08	0.94	1.02	0.95	1.03			
포르투갈	0.92	0.76	0.95	0.35	1.21	0.55	1.05	1.21	0.92	0.93	0.96	1.11	1.19	0.73	1.04	0.93	0.93			
슬로바키아	0.99	1.23	1.09	0.30	0.90	0.50	1.29	--	0.54	--	0.93	--	1.08	--	1.00	0.76	0.89			
슬로베니아	0.95	0.88	0.95	0.32	1.12	0.63	1.16	--	0.92	0.96	0.97	--	1.20	0.80	1.02	0.85	0.93			
스페인	1.09	1.59	1.08	0.34	1.12	0.68	0.96	1.22	0.87	0.90	0.93	0.93	1.07	0.83	1.04	0.88	0.90			
스웨덴	0.99	--	1.07	0.52	1.09	0.93	1.14	1.24	0.88	0.94	0.97	0.97	1.02	0.87	1.01	0.88	1.03			
스위스	0.96	--	1.06	0.72	1.03	0.88	1.01	--	0.96	--	0.97	--	1.43	--	1.01	0.88	1.04			
터키	0.93	--	1.00	0.57	1.35	0.63	--	1.14	0.71	0.92	0.93	1.20	0.98	0.97	1.11	1.10	--			
영국	0.89	1.52	0.94	0.65	1.16	0.82	1.06	1.18	0.90	0.95	1.00	1.08	1.11	1.10	1.03	0.89	1.02			
미국	1.02	2.04	1.05	0.63	1.17	--	0.94	1.21	1.01	0.96	1.01	1.08	1.19	1.14	1.04	0.91	--			
OECD 평균	0.96	1.30	1.03	0.49	1.21	0.75	1.04	1.21	0.85	0.93	0.96	1.02	1.08	0.93	1.03	0.90	0.97			
브라질	1.15	--	--	0.70	2.03	--	--	--	0.66	--	0.97	--	0.99	--	1.09	0.89	--			
콜롬비아	--	--	--	0.80	1.39	--	--	--	0.65	--	0.98	--	--	--	1.05	0.98	--			
코스타리카	1.00	--	--	0.71	1.53	--	--	--	0.94	--	0.97	--	--	1.03	0.81	--				
리투아니아	0.77	--	--	0.78	0.96	0.43	0.89	--	1.01	0.94	0.96	--	--	1.10	1.06	0.75	0.92			
러시아	0.87	--	--	0.56	1.30	--	--	--	0.96	1.00	0.97	--	--	0.94	1.04	0.85	0.92			
남아프리카공화국	1.13	--	--	0.69	2.67	--	--	1.23	0.66	--	0.99	1.37	1.07	--	0.97	0.93	--			

주: 영국에 대한 자산 데이터는 영국 본국에 국한된다. 성인 역량에 관한 데이터는 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낸다. 최악의 성과(1)부터 최고의 성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해당 순위를 표본에 포함된 총 OECD 국가의 수로 나눈다. 결과 값(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2/3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값은 한 국가의 상대적 성과가 속하는 계층에 따라 음영 처리된다. 계층이 높을수록 음영이 어두워진다. OECD 값은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균이다. "D"는 "결핍 지표"를 나타내고 "."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코딩된다. 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의 상대적 성과가 좋아진다. 데이터 출처와 최신 연도는 표 2.A.1을 참조한다.

표 2.A.6. 교육에 따른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초등교육 vs. 고등교육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고등교육 성과에 대한 초등교육 비

웰빙 차원 지표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건강 상태		입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삶의 만족도
	가구 순자산	시간당 임금	고용	실업	기대수명	자기보고 건강	근로시간	학생 역량	성인 역량	지원 네트워크 품질	투표율	정치 효능감	환경의 질 수질	안전감	삶의 만족도				
불평등 척도	평균 순자산	평균 총임금	고용률	실업률(D)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사이에 25세의 기대여명 차이(년)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 사이에 25세의 기대여명 차이(년)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D)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평균 PISA 점수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발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0-10 척도의 평균 값			
국가																			
헝가리	0.67	0.65	0.70	0.45	-3.69	-6.64	..	1.31	0.83	0.82	..	0.97	0.44			
오스트리아	0.25	0.48	0.62	0.34	-3.05	-6.43	0.60	3.22	0.75	0.81	..	1.01	0.51	0.73			
벨기에	0.51	0.69	0.55	0.28	-6.81	-9.86	0.67	2.75	0.77	0.79	0.97	..	0.58	0.74	0.75	0.93			
캐나다	0.43	0.54	0.68	0.45	-2.73	-4.09	..	0.59	0.88	0.79	0.99	0.92	0.62	1.48	0.84	0.99			
칠레	0.33	0.28	0.73	0.95	-7.62	-10.94	0.80	0.69	0.81	..	0.61	0.65	0.97	..			
체코	..	0.52	0.49	0.11	-4.79	-13.05	0.55	4.30	0.81	0.83	0.89	0.59	0.69	1.44	0.75	0.82			
덴마크	0.42	0.68	0.70	0.56	-5.15	-6.84	0.81	0.66	0.81	0.83	0.71	0.99			
에스토니아	0.32	0.63	0.67	0.30	0.58	1.34	0.87	0.87	0.96	..	0.71	0.96	1.12	0.92			
핀란드	0.54	0.68	0.65	0.53	-4.76	-7.58	0.65	1.85	0.78	0.84	0.93	0.86	0.50	1.05	0.89	0.95			
프랑스	0.48	0.72	0.65	0.41	-2.65	-6.76	0.68	1.04	0.78	0.76	0.87	0.94	0.74	0.88	0.74	0.90			
독일	0.14	0.52	0.67	0.20	0.76	1.75	0.77	0.81	0.92	0.99	0.62	1.70	0.82	..			
그리스	0.71	0.50	0.71	0.72	0.61	0.69	0.83	0.84	0.83	0.74	0.82	1.03	0.82	0.88			
헝가리	0.19	0.44	0.58	0.14	-5.75	-13.94	0.55	1.12	0.66	..	0.91	0.81	0.96	0.79			
아이슬란드	..	0.67	0.85	0.70	0.78	0.94	0.72	..	0.99	0.92	..	1.00	0.99	0.96			
아일랜드	1.06	0.58	0.59	0.32	0.79	1.18	0.82	0.80	0.96	1.00	0.46	1.42	0.98	0.97			
이스라엘	0.56	0.56	-3.84	-5.61	0.78	0.79	..	0.74	0.53			
이탈리아	0.36	0.61	0.64	0.48	-2.00	-3.80	0.62	0.89	0.82	0.83	0.93	..	0.47	0.99	0.87	0.90			
일본	..	0.58	0.56	0.84	0.96	0.76	0.58	0.71	0.85	..			
한국	0.44	0.49	0.85	1.17	0.62	..	0.82	0.82	0.70	1.00	0.79	1.12	0.95	0.90			
라트비아	0.16	..	0.66	0.23	-8.28	-11.55	0.66	1.43	0.81	..	0.86	1.01	1.07	0.86			
룩셈부르크	0.42	0.46	0.73	0.55	0.74	4.59	0.85	..	0.97	1.13	0.85	0.90			
멕시코	..	0.45	0.80	1.38	-2.66	-4.80	0.88	..	0.90	0.96	..	0.94	1.04	..			
네덜란드	..	0.61	0.68	0.40	0.74	1.97	0.85	0.81	0.51	0.98			
뉴질랜드	0.55	..	0.79	0.44	-4.42	-4.62	..	1.01	0.80	0.82	0.99	0.96	0.60	1.34	0.85	..			
노르웨이	0.44	0.67	0.68	0.33	-4.81	-6.83	0.81	0.96	0.78	0.83	0.95	0.78	0.56	0.94	0.94	0.97			
폴란드	0.56	0.46	0.47	0.23	-6.19	-12.63	0.50	0.61	..	0.82	0.92	0.82	0.56	0.73	0.99	0.89			
포르투갈	0.49	0.48	0.77	0.63	0.46	1.17	0.88	..	0.86	0.92	..	0.91	0.82	0.93			
슬로바키아	0.30	0.62	0.43	0.16	0.57	1.18	0.60	0.81	0.92	0.52	0.47	0.78	0.86	0.87			
슬로베니아	0.47	0.49	0.58	0.42	-4.65	-8.27	0.58	1.53	0.83	0.79	0.90	0.84	0.64	0.52	0.94	0.81			
스페인	0.47	0.60	0.66	0.43	0.69	0.72	0.87	0.80	0.96	..	0.65	0.82	0.93	0.92			
스웨덴	..	0.81	0.74	0.30	-4.98	-5.86	0.80	1.64	0.76	0.80	0.99	1.00	0.64	0.50	0.75	1.00			
스위스	..	0.47	0.77	0.33	0.80	2.31	0.84	..	0.99	0.69	..	1.72	0.81	0.95			
터키	..	0.36	0.67	0.93	-3.95	-4.15	0.63	..	0.94	0.80	0.78	1.03	0.87	0.81	1.05	..			
영국	..	0.57	0.68	0.39	-3.99	-4.35	0.70	1.41	0.85	0.80	0.96	0.98	0.54	1.30	0.90	0.91			
미국	0.16	0.43	0.67	0.29	-3.92	-7.32	..	2.35	0.88	0.74	..	0.69	0.57			
OECD 평균	0.44	0.56	0.67	0.47	-4.58	-7.54	0.66	1.60	0.81	0.81	0.92	0.87	0.61	1.02	0.90	0.91			
브라질	0.80	0.79	0.87	..	0.94	0.94	0.95	..			
콜롬비아	0.79	1.30	0.90	..	0.87	0.90	1.25	..			
코스타리카	0.77	0.91	..	0.90	0.74	0.89	..			
리투아니아	0.60	0.14	0.46	0.58	0.85	0.89	0.89	..	0.72	0.71	1.05	0.86			
러시아	0.80	0.25	0.92	0.96	0.95	..	0.74	0.73	1.16	0.77			
남아프리카공화국	0.63	0.35	0.90	1.11	..	2.21	0.67	..			

주: 영국에 대한 자산 데이터는 영국 본국에 국한된다. 성인 역량에 관한 데이터는 벨기에의 플라르드,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낸다. 최악의 성과(1)부터 최고의 성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해당 순위를 표본에 포함된 총 OECD 국가의 수로 나눈다. 결과 값(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2/3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값은 한 국가의 상대적 성과가 속하는 계층에 따라 음영 처리된다. 계층이 높을수록 음영이 어두워진다. OECD 값은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균이다. “D”는 “결핍 지표”를 나타내고 “..”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코딩된다. 값이 높을수록 초등교육을 받은 개인의 상대적 성과가 좋아진다. 데이터 출처와 최신 연도는 표 2.A.1을 참조한다.

표 2.A.7. 교육에 따른 웰빙의 수평적 불평등, 중등교육 vs. 고등교육,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고등교육 성과에 대한 중등교육 비

웰빙 차원	소득과 자산		입자리와 임금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삶의 만족도
	가구 순자산	시간당 임금	고용	실업	기대수명	자기보고 건강	근로시간	학생 역량	성인 역량	지원 네트워크 품질	투표율	정치 효능감	수질	안전감	삶의 만족도	
불평등 척도	평균 순자산	평균 시간당 임금	고용률	실업률(D)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사이에 25세의 기대여명 차이(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 사이에 25세의 기대여명 차이(년)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좋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D)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평균 PISA 점수	두 영역에서 평균 PIAAC 점수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한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0-10 척도의 평균 값
국가																
호주	0.67	0.77	0.94	0.76	-1.45	-3.34	..	1.24	0.91	0.93	0.99	1.03	0.77	1.38	0.86	..
오스트리아	0.35	0.73	0.89	0.73	-1.34	-3.80	0.88	1.59	0.94	0.91	0.98	0.99	0.72	1.07	0.92	0.97
벨기에	0.68	0.76	0.85	0.55	-3.68	-6.13	0.91	1.56	0.91	0.89	0.98	..	0.68	0.87	0.91	0.97
캐나다	0.59	0.71	0.90	0.69	-1.64	-2.90	..	0.96	0.94	0.92	0.99	0.94	0.76	1.35	0.93	0.99
칠레	0.41	0.39	0.85	0.88	-2.69	-6.87	0.92	0.87	0.95	..	0.81	0.92	0.93	..
체코	..	0.69	0.93	0.50	-4.11	-5.46	0.77	1.79	0.92	0.89	0.96	0.78	0.72	1.17	0.86	0.88
덴마크	0.56	0.81	0.93	1.01	-1.79	-2.96	0.88	0.99	0.93	0.92	1.00	..	0.82	0.95	0.93	0.99
에스토니아	0.68	0.70	0.90	0.61	0.80	1.53	0.96	0.93	0.98	..	0.79	1.20	1.01	0.92
핀란드	0.50	0.71	0.88	0.78	-1.88	-4.05	0.86	0.99	0.92	0.91	0.98	0.83	0.72	1.20	0.99	0.97
프랑스	0.57	0.75	0.87	0.66	-0.43	-3.12	0.88	1.58	0.91	0.87	0.97	0.96	0.63	0.92	0.89	0.95
독일	0.41	0.67	0.91	0.54	0.86	1.55	0.94	0.90	0.98	0.83	0.68	1.11	0.92	..
그리스	0.79	0.66	0.82	0.75	0.95	0.89	0.92	0.92	0.96	0.95	0.93	1.06	0.90	0.97
헝가리	0.42	0.62	0.89	0.38	-0.70	-5.55	0.81	1.17	0.92	..	0.96	0.94	1.08	0.89
아이슬란드	..	0.79	0.96	0.89	0.89	0.99	0.94	..	0.99	0.97	..	0.82	1.00	0.96
아일랜드	0.86	0.63	0.84	0.52	0.95	1.13	0.93	0.91	0.99	0.95	0.70	1.02	0.91	0.98
이스라엘	0.85	0.67	-0.93	-2.30	0.89	0.89	0.97	0.89	0.69	0.87	0.93	..
이탈리아	0.56	0.74	0.89	0.76	-0.60	-1.50	0.95	1.20	0.97	0.94	0.98	..	0.70	0.99	1.00	0.97
일본	..	0.78	0.79	..	0.91	0.92	1.00	0.92	0.65	0.94	0.85	..
한국	0.61	0.67	0.94	0.97	0.84	..	0.92	0.93	0.93	1.06	0.83	1.06	0.89	0.98
라트비아	0.33	..	0.84	0.42	-3.16	-6.65	0.72	1.22	0.94	..	0.92	0.98	1.04	0.90
룩셈부르크	0.63	0.67	0.85	0.84	0.89	2.03	0.91	..	0.99	0.92	0.90	0.96
멕시코	..	0.54	0.88	1.06	-0.20	-3.86	0.96	..	0.95	0.98	..	1.02	0.98	..
네덜란드	..	0.73	0.89	0.54	0.90	0.94	0.94	0.92	0.98	..	0.67	1.04	0.91	0.98
뉴질랜드	0.79	..	0.93	0.57	-1.21	-1.19	..	1.07	0.94	0.93	1.01	0.93	0.76	1.22	0.93	..
노르웨이	0.72	0.88	0.90	0.76	-1.51	-3.14	0.88	0.88	0.94	0.91	0.98	0.71	0.71	0.83	0.99	1.00
폴란드	0.85	0.62	0.77	0.49	-3.87	-7.81	0.74	0.76	0.90	0.87	0.95	0.76	0.63	0.89	1.00	0.93
포르투갈	0.55	0.60	0.94	0.72	0.95	1.88	0.93	..	0.97	0.86	..	0.97	0.97	1.05
슬로바키아	0.59	0.79	0.90	0.56	0.79	1.00	0.93	0.92	0.96	0.82	0.62	0.98	0.97	0.89
슬로베니아	0.81	0.60	0.83	0.61	-2.25	-4.03	0.82	1.18	0.93	0.89	0.95	0.92	0.71	0.64	1.02	0.91
스페인	0.61	0.70	0.86	0.64	0.95	1.09	0.94	0.93	1.01	..	0.80	0.93	1.02	1.00
스웨덴	..	0.86	0.95	0.86	-2.39	-2.74	0.93	1.15	0.93	0.91	1.00	0.98	0.77	1.26	0.97	0.98
스위스	..	0.67	0.93	0.87	0.93	1.75	0.93	..	1.00	0.71	..	1.50	0.92	0.99
터키	..	0.55	0.81	0.92	-1.38	-2.22	0.95	..	0.96	0.94	0.92	0.97	1.04	0.93	0.99	..
영국	..	0.67	0.94	0.73	-1.10	-1.55	0.90	1.26	0.96	0.92	0.99	0.95	0.71	1.04	0.93	0.98
미국	0.27	0.60	0.85	0.45	-1.64	-4.21	..	1.65	0.93	0.86	0.95	0.79	0.76	1.35	0.89	..
OECD 평균	0.59	0.69	0.89	0.70	-1.82	-3.88	0.87	1.28	0.93	0.91	0.97	0.91	0.74	1.04	0.95	0.96
브라질	0.90	0.61	0.93	..	1.00	0.97	0.87	..
콜롬비아	0.92	0.95	0.93	..	0.96	0.94	1.10	..
코스타리카	0.88	0.75	0.94	..	0.97	0.83	0.99	..
리투아니아	0.79	0.28	0.60	0.93	0.91	0.89	0.92	..	0.89	1.02	1.07	0.87
러시아	0.88	0.50	0.92	0.96	0.96	..	0.79	0.91	1.06	0.88
남아프리카공화국	0.76	0.44	0.96	0.96	0.99	..	1.65	0.77	..

주: 영국에 대한 자산 데이터는 영국 본국에 국한된다. 성인 역량에 관한 데이터는 벨기에의 플라르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낸다. 최악의 성과(1)부터 최고의 성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해당 순위를 표본에 포함된 총 OECD 국가의 수로 나눈다. 결과 값(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2/3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값은 한 국가의 상대적 성과가 속하는 계층에 따라 음영 처리된다. 계층이 높을수록 음영이 어두워진다. OECD 값은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균이다. “D”는 “결핍 지표”를 나타내고 “..”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코딩된다. 값이 높을수록 중등교육을 받은 개인의 상대적 성과가 좋아진다. 데이터 출처와 최신 연도는 표 2.A.1을 참조한다.

표 2.A.8. 웰빙의 결핍,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웰빙 차원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 상태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상대적 소득 빈곤	자산 기반 빈곤	저임금 빈도	실업	주거 비용 부담	과밀	자기보고 건강	근로시간	교육 성취도	학생 역량	성인 역량	자원 네트워크의 품질	투표율	정치 효능감	대기오염	수질	안전감	실인율	부정적 정서 균형	삶의 만족도
불평등 척도	국민 평균 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	소득 빈곤선의 25% 미만의 유동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의 비율	전체 정규직 직원의 총 평균 임금의 2/3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비율	실업률	모기와 임대료에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의 비율	과밀 주거지에 사는 가구의 비율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25~64세 성인의 비율	과학, 읽기, 수학에서 2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15세 학생의 비율, PISA 점수	문해력과 수리력에서 1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인의 비율, PIAAC 점수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지난 총선에서 투표율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15µg/m³ 이상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	지역의 수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10만 명당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어제 긍정적 감정보다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	삶의 만족도가 4 미만인 사람의 비율(0-10 척도)
국가																				
호주	12.80	46.70	15.72	5.88	9.99	11.45	20.98	11.11	11.12	6.00	8.99	45.39	0.00	8.00	31.00	1.00	10.74	3.63
오스트리아	9.00	25.05	15.86	6.11	6.38	12.69	30.20	6.48	15.35	13.50	10.46	7.00	25.09	58.22	52.66	8.00	20.00	0.40	8.87	3.02
벨기에	9.10	36.14	3.40	7.89	9.92	1.84	25.40	6.43	25.32	12.67	10.06	7.00	10.63	50.16	48.56	16.00	29.00	1.00	13.54	2.16
캐나다	12.60	47.00	22.18	7.10	10.21	9.49	9.60	5.94	13.61	8.00	31.72	43.57	0.39	8.00	18.00	1.40	11.67	2.19
칠레	16.10	74.84	11.92	6.80	23.43	9.25	38.59	23.26	48.23	16.00	50.65	21.07	51.89	31.00	50.00	4.50	17.11	5.08
체코	5.90	..	20.29	4.03	11.55	15.20	38.80	4.69	6.84	13.66	7.74	7.00	40.52	62.54	90.27	10.00	23.00	0.80	12.45	5.36
덴마크	5.50	37.10	8.24	6.34	18.01	7.43	28.40	4.17	19.63	7.47	10.84	5.00	14.11	30.94	1.18	6.00	16.00	0.70	10.04	2.37
에스토니아	15.50	45.47	22.10	6.94	8.25	9.67	48.60	5.23	9.05	4.74	9.09	6.00	35.77	53.18	0.00	17.00	23.00	3.10	12.98	13.28
핀란드	6.30	41.65	7.77	8.95	8.40	9.26	30.20	3.31	12.85	6.27	8.05	5.00	33.15	30.77	0.00	5.00	16.00	1.40	7.73	3.00
프랑스	8.20	40.48	9.09	9.84	12.43	6.32	32.20	5.36	22.68	14.78	18.13	12.00	25.44	67.38	23.45	21.00	30.00	0.60	11.40	7.63
독일	9.50	42.44	18.37	4.20	5.12	6.15	35.50	14.63	13.21	9.82	13.34	9.00	28.47	43.47	34.92	7.00	26.00	0.40	10.46	3.25
그리스	14.80	66.99	17.87	23.70	25.60	18.66	25.60	9.24	29.78	20.69	19.52	20.00	36.06	15.77	69.96	30.00	38.00	1.00	17.47	16.45
헝가리	10.10	42.98	19.78	5.15	10.18	29.60	43.70	2.37	16.78	18.52	..	10.00	38.16	..	99.96	22.00	40.00	1.20	17.74	16.46
아이슬란드	6.50	..	15.72	3.12	19.47	6.02	23.70	15.77	25.30	13.18	..	2.00	20.82	..	0.00	2.00	9.00	0.90	8.44	1.55
아일랜드	9.20	58.24	24.00	8.75	11.11	2.47	17.70	4.70	20.18	6.76	14.87	4.00	34.91	58.21	0.00	14.00	24.00	0.60	11.36	4.07
이스라엘	19.50	..	22.15	4.89	14.46	20.18	21.69	11.00	27.66	55.8	99.43	30.00	30.00	1.70	15.78	3.68
이탈리아	13.70	38.68	7.63	11.89	11.41	18.58	34.40	2.98	40.11	12.24	21.34	8.00	24.81	70.26	64.40	28.00	41.00	0.80	18.98	7.62
일본	16.10	..	13.46	3.27	15.95	1.60	64.60	5.59	3.93	10.00	47.34	49.87	61.40	9.00	24.00	0.30	7.48	7.58
한국	13.80	..	23.50	3.84	3.48	5.75	67.50	..	14.20	7.67	11.19	19.00	41.97	38.57	99.81	16.00	32.00	1.10	18.66	13.51
라트비아	16.20	82.61	26.04	9.90	5.49	31.10	53.80	3.96	12.22	10.45	..	8.00	41.20	..	0.00	15.00	27.00	6.60	17.11	9.04
룩셈부르크	8.10	40.45	12.16	6.31	17.26	6.25	29.60	5.77	25.39	16.99	..	6.00	8.85	..	0.06	17.00	21.00	0.60	8.45	2.80
멕시코	16.70	..	17.25	4.04	7.72	33.27	64.48	33.78	..	11.00	36.86	..	34.72	33.00	51.00	17.90	12.92	11.37
네덜란드	7.90	33.00	14.50	6.06	9.30	3.61	23.80	2.48	23.60	10.90	9.29	7.00	18.07	38.89	54.62	6.00	17.00	0.80	8.78	2.97
뉴질랜드	10.90	62.70	13.86	5.35	..	4.20	..	18.30	25.28	10.59	10.13	6.00	23.05	36.83	0.00	11.00	32.00	1.30	7.86	1.29
노르웨이	8.10	26.86	7.12	4.89	10.64	5.44	21.70	4.68	17.63	8.95	9.97	4.00	21.77	34.34	0.00	2.00	12.00	0.60	8.17	2.48
폴란드	10.40	63.67	22.60	6.24	8.04	35.36	42.20	8.16	9.22	8.27	14.87	8.00	49.08	48.55	95.24	17.00	23.00	0.80	15.74	9.62
포르투갈	13.50	45.90	20.33	11.50	11.77	5.52	53.60	8.07	54.88	10.74	..	9.00	44.16	..	2.49	11.00	20.00	1.00	23.98	23.61
슬로바키아	8.70	67.93	19.00	9.70	5.21	28.06	34.10	2.94	8.71	20.11	8.93	5.00	40.18	67.11	100.00	13.00	31.00	0.80	14.97	10.59

표 2.A.8. 웰빙의 결핍,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계속)

웰빙 차원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거 상태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상대적 소득 빈곤	자산 기반 빈곤	저임금 빈도	실업	주거 부담 부담	과밀	자기보고 건강	근로시간	교육 성취도	학생 역량	성인 역량	지원 네트워크의 품질	투표율	정치 효능감	대기오염	수질	안전감	실인율	부정적 정서 균형	삶의 만족도
불평등 척도	국민 평균 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	소득 빈곤선의 25% 미만의 유동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의 비율	전체 정규직 직원의 총 평균 임금의 2/3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비율	실업률	모기와 임대료에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하는 사람의 비율	과밀 주거지에 사는 가구의 비율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25~64세 성인의 비율	과학, 읽기, 수학에서 2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15세 학생의 비율, PISA 점수	문해력과 수리력에서 1급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인의 비율, PIAAC 점수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지난 총선에서 투표율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15µg/m³ 이상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	지역의 수질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10만 명당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어제 긍정적 감정보다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보고한 사람의 비율	삶의 만족도가 4 미만의 사람의 비율(0-10 척도)
국가																				
슬로베니아	9.40	55.95	19.23	8.10	5.91	11.70	35.20	3.66	13.21	8.20	19.51	7.00	48.27	74.92	75.74	11.00	13.00	0.60	17.72	14.79
스페인	15.30	55.48	14.59	19.75	17.41	2.95	27.60	4.79	42.57	10.33	22.47	10.00	30.16	61.08	18.39	29.00	18.00	0.60	13.55	5.52
스웨덴	9.00	..	2.66	7.11	9.06	12.59	20.30	4.26	18.02	11.37	10.44	9.00	14.19	31.66	0.10	4.00	21.00	1.00	8.45	3.10
스위스	9.90	..	10.15	5.09	6.26	5.28	20.70	9.94	11.84	10.06	..	7.00	51.60	..	16.31	5.00	15.00	0.50	8.47	3.27
터키	17.30	..	0.78	11.11	33.60	..	63.01	31.19	39.00	12.00	14.82	51.41	91.02	31.00	35.00	1.70	32.86	18.59
영국	10.90	..	19.28	4.98	12.18	5.45	30.20	12.83	20.93	10.06	14.35	5.00	31.07	48.11	0.75	18.00	24.00	0.20	11.56	5.92
미국	16.80	54.45	24.91	4.93	15.81	3.78	..	14.17	10.46	13.56	16.15	10.00	31.71	36.46	8.21	16.00	23.00	4.90	14.03	5.78
OECD 평균	11.52	49.31	15.53	7.54	11.34	11.45	34.75	7.25	22.83	12.96	15.30	8.46	30.89	47.3	37.03	15.06	25.80	1.79	13.36	7.22
브라질	20.00	9.84	52.64	44.05	..	9.00	21.10	..	30.63	29.00	63.00	27.60
콜롬비아	25.27	9.53	49.59	38.21	..	12.00	52.10	..	0.11	27.00	52.00	30.20
코스타리카	21.50	..	15.24	9.70	60.63	33.05	..	10.00	31.62	..	0.00	15.00	51.00	8.50
리투아니아	15.70	..	21.28	8.10	4.74	20.59	42.60	3.70	8.64	15.33	11.30	6.00	49.36	12.29	26.77	21.00	37.00	4.10	20.70	13.72
러시아	14.60	5.57	5.32	7.70	8.49	9.00	34.73	28.81	54.00	41.00	40.00	11.30
남아프리카공화국	26.60	26.72	57.63	12.00	26.52	..	69.43	33.00	62.00	10.00

주: 성인 역량에 관한 데이터는 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낸다. 최악의 성과(1)부터 최고의 성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해당 순위를 표본에 포함된 총 OECD 국가의 수로 나눈다. 결과 값(0~1)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1/3보다 크고 2/3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 2/3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가 달성한 순위이다. 값은 한 국가의 상대적 성과가 속하는 계층에 따라 음영 처리된다. 계층이 높을수록 음영이 어두워진다. OECD 값은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단순 평가이다. “..”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코딩된다. 값이 높을수록 결핍이 커진다. 데이터 출처와 최신 연도는 표 2.A.1을 참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814>

제 3 장

이주민의 웰빙: 더 나은 삶으로의 이주?

이주민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이주민의 웰빙과 성공적인 통합을 보장하는 열쇠이다. 이번 장에서는 과거 OECD 활동을 기반으로 이주민의 웰빙의 의미와 측정을 탐구한다. 평균적으로 이주민은 비이주민에 비해 더 심한 빈곤과 더 낮은 수준의 소득과 자산, 더 열악한 환경과 주거 여건에 대한 노출을 경험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도 더 힘들다. 직업에 비해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근로 빈곤을 경험하며 비정규 시간에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민은 OECD 국가에서의 삶에 덜 만족하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고국에 남겨진 동료들보다는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 제3장에서는 건강, 사회적 관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데이터도 다룬다. 그러나 증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주민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며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론: 이주민의 웰빙과 이것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점차 인구 이동으로 규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에 살고 있는 1억 2,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외국 태생이며, 총 OECD 인구의 13%를 차지한다(OECD, 2017a).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외국 태생의 인구 비율은 총 인구의 10% 이상이며,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의 경우 20~30%에 이르고 룩셈부르크는 46%로 추정된다(OECD, 2017a). OECD 국민의 8명 중 1명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웰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삶이 어떠한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이 좋은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 많은 OECD 국가의 공적 담론에서 이주에 반대하는 견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이주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제 이동(international mobility)에 대한 반발을 고려할 때 연구와 정책 자문은 이주가 이주 대상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예: OECD 2016a). 그러나 이주민 자체의 웰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을 전환시키고 이주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 사회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OECD 정부의 핵심 과제는 통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주민의 경험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삶의 여건을 완벽히 파악하는 것은 이주민을 통합하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의 핵심 요소이다. 이주 정책의 측정과 분석은 다양한 이주민 성과를 제시하는 정기 및 1회성 간행물을 포함한 OECD 활동의 주된 부분이다.²

이번 장에서는 과거 OECD 활동을 기반으로 이주민의 웰빙의 의미와 측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주민의 웰빙에 관련된 주요 결과를 제시하는 동시에 가용 데이터의 한계와 격차를 알아볼 것이다.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은 이주민의 웰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측정 문제와 가용 데이터에 대해 설명한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이주민의 웰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 통계적 의제에 대한 몇 가지 결론과 권고사항으로 끝을 맺는다.

이주민의 웰빙 이해

이주민이 되려면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 된다. ‘이주민’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고정관념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이주민 프로파일은 없다. 이주민에는 유학생, 모든 기술 수준의 근로자, 동반 가족 구성원, 퇴직자뿐 아니라 전쟁, 고문, 노예제도, 환경 재난과 같은 최악의 경험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이 포함된다.

박스 3.1.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유에 대한 통합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 결정은 복잡하며 이주 대상국의 삶에 대한 인식(“유인” 요소)뿐 아니라 출생 국가의 상황에 대한 지식(“추진”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Lee, 1966). 이러한 결정은 미시적(개인), 중간적(지역사회), 거시적(국가) 수준의 환경에 따라 이루어진다(Faist, 2000). 대부분의 분석 접근법은 사람들의 경제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Sjaastad, 1962, Borjas, 1987). 그러나 다른 사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회 개선 소망, 이미 이주한 가족이나 지역 구성원에 합류하려는 욕구 또는 자신의 생활방식 선호도에 더 부합하는 생활 편의시설(깨끗한 공기나 쾌적한 기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등 더 높은 생애 임금 추구를 넘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Bodvarsson 및 Van den Berg(2013), 캐나다통계청(2007)). 생애주기 요소 역시 중요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일수록 고임금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퇴직을 앞둔 사람은 좋은 기후와 건강관리를 더 선호할 수 있다(Polachek 및 Horvath, 1977). 또한 이주는 개인적 결정이라기보다 가족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을 희생시켜 일부 가족 구성원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다(Mincer(1978), 가족 이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ECD 2017a 참조). 죽음이나 심각한 피해가 두려워서 고국을 떠나도록 강요받는 피난민의 경우처럼 이주가 항상 선택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박스 3.2 참조).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지만(박스 3.1 참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는 자국에서 겪은 고통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인도주의적 이주).³

사람들이 이주하는 이유는 웰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종단적 이주 조사의 증거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주 이유가 “기회”, “생활방식”, “가족” 또는 “학업”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랐으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Bryant 및 Merwood, 2008). 사람들이 이주하기로 결정한(또는 강요된) 상황 역시 미래 삶에 대한 기대와 이주 과정 자체에서 야기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주민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친구, 가족,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등 이주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문제와 어려움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이주민의 웰빙을 분석할 때 교육, 기술,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경제적 자원 등 이주민이 가져온 자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민의 웰빙은 이주 대상국에서 겪게 되는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주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맥이 좋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할 수 있지만 이주 대상국에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주는 여러 차원에서 이주민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은 일자리, 적절한 주택, 깨끗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환경, 효과적인 거버넌스, 양질의 교육과 건강 관리 등 상황적 요소는 모두 이주민의 웰빙에 중요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 외에도 이주 대상국에서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지원 요인이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편협함이나 편견이 우세한 경우 이주민은 차별, 홀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민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주민의 특성은 (이주민의 출생 국가에) 남아 있는 사람은 물론 (이주 대상국의) 자국민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정부가 이주

대상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주민의 교육과 역량, 나이, 건강 상태, 기타 요인을 토대로 특정 유형의 이주민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여 이주민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주를 결정한 사람들 역시 자국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차별되는 특정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관찰 가능한 속성(교육 성취도 등), 태도나 비인지적 능력(인내 또는 낙천주의 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새로운 국가에서 보낸 기간은 웰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주 경험은 바뀔 수 있다. 삶을 재설정하고, 비이주 동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웰빙의 다른 차원을 발전시키거나 제한한다. 일반적인 가정은 이주 대상국에 이주민이 오래 거주할수록 삶이 좀더 편해진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통합되고 (필요한 경우) 이주 대상국의 언어에 숙달되며 새로운 국가의 작업 방식에 더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이주한 사람에 비해 OECD 국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이 약간 더 높은 고용률을 보였고,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임시직이나 저숙련 일자리에 고용될 가능성이 낮고, 최저 소득 10분위수에 속하거나 과밀집 주거 환경에서 살 확률이 낮다(OECD/EU, 2015). 그러나 이주민의 물질적 조건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개선될 수 있지만 건강 상태, 소속감, 인권 또는 차별 경험과 같은 삶의 다른 측면의 개선은 더욱 복잡할 수 있다(예: Neuman, 2014, Stillman 외, 2012).

이주민의 웰빙 측정

측정 과제

원칙적으로 이주민의 웰빙 측정은 ‘How’s Life?’ 프레임워크의 전체 차원을 포함하고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이주 이유, 출신 국가, 다른 관련 배경에 대한 변수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라 성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가용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웰빙 성과에 대한 가장 좋은 최신 정보 출처인 가구 설문조사⁴는 이주민의 웰빙 측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이주민 표본이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경우에 합산 결과 외에 이주민의 웰빙 성과를 분석할 수 없고, 출신 국가, 거주 기간, 이주 이유 등 이주민에 특정한 주요 배경 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주민 그룹별로 웰빙 성과가 다른 경향을 고려할 때, 인구 평균에 대한 결과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주민 표본의 구성은 성별, 나이, 출신 국가, 교육 수준, 기타 중요한 변수 측면에서 실제 이주민 인구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이주민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대표 표본 설계와 데이터 수집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주민 인구의 정확하고 유익한 기록을 제공하는 샘플링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다(10년마다의 인구조사에 기준한 것 등).

둘째, 이주민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무응답 비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 집을 자주 옮기거나 자신의 민감한 상황(법적 지위 등)이나 이전의 차별 또는 배제 경험으로 인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길 꺼릴 수 있는 이민자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Font 및 Méndez, 2013) 일부 이주민은 설문지에 사용된 언어를 잘 모르거나 유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4%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가졌으며, 이러한 학생들이 모국어로 보고한 언어는 240개였다(Erens, 2013).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취약한 이주민 대부분이 공식 데이터에 전혀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들에 관한 등록 절차가 일반 사람과 다르거나(난민, 망명 신청자, 이러한 그룹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은 박스 3.2 참조) 기록이 제대로 공식화되지 않거나(단기 또는 “순환” 반복 이주민 등) 존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비정규 또는 인신매매 등)(UNECE, 2012).⁵ 또한

박스 3.2. 강제 이주: 복잡한 측정 문제

2016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거의 6,800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으며, 그중 1,700만 명은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얻었고 추가 300만 명은 망명 신청자로 분류되었다(UN HCR, 2017). 인도주의적 이유는 2015~2016년에 OECD 국가(특히 유럽)로 이주하는 중요한 동력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망명 신청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OECD, 2017a). 강제 이주는 다른 형태의 이주와 다르다. 높은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며 인도주의적 이주민은 이주 대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다른 유형의 이주민보다 웰빙 성과가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Brücker 외 2017). 그러나 가구 설문조사에서 이주 이유가 배경 변수로서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주민 하위 그룹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강제 이주를 겪은 사람들이 웰빙 성과와 요구사항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특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2018년에 호주 통계청에서 실시한 5년 종단적 연구인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구축(Building a New Life in Australia)은 웨이브(Wave) 1에서 1,500명 이상의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인터뷰 했다. 그리고 4,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3년 종단적 연구인 IABBAMFSOEP 난민 조사는 2016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번역과 해석 문제(예를 들어, 독일 설문 조사의 첫 번째 웨이브에서 응답자의 90%가 독일에 오기 전에는 독일어를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Brücker 외, 2017). 표본 수집의 어려움(그러한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및 데이터 수집은 일반적으로 정부 당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망명 신청자와 인도주의적 이주민만 포함할 수 있다) 등 다수의 특정 장벽과 싸워야 한다.

그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 취약한 이주민 그룹의 경험과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설문조사의 첫 번째 웨이브에 따르면 응답자의 1/4이 조난 사고에서 살아 남았고, 2/5가 육체적 폭행의 희생자였으며, 1/5이 강도를 당했고, 절반 이상이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1/4 이상이 협박을 받았고 여성 난민의 15%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호주 설문조사는 또한 끔찍한 사건의 광범위한 경험을 강조했으며, 중간 수준부터 높은 수준에 이르는 심리적 고통의 빈도가 일반 국민보다 설문조사 참여자 사이에서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설문조사 전 4주 동안 남성 응답자의 35%와 여성 응답자의 45%가 중간 또는 높은 심리적 고통의 위험을 겪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 남성 7%, 여성 14% 수준이었다)(Jenkinson 외,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새로운 국가에 잘 정착했다고 답했으며, 그들 중 84%가 전반적인 경험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들은 새로운 삶에서 도움이 되는 주요 요인으로 안전감과 자녀의 행복감을 언급했다(Jenkinson 외, 2016).

이주민은 자국민보다 가구 설문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표본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비표준 거주지(예: 이동식 주택, 리셉션 센터, 전용 레지던스)에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이주민 성과에 관한 가용 데이터의 대부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이주민의 웰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는 횡단면 조사에서 나오며, 이는 이주 대상국에 도착한 후 일정 시점에 이주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주 전, 이주 기간, 이주 이후 다양한 시점에 동일한 사람에 대한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한 사람과 뒤에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한 둘 이상의 국가에서 결과를 측정하는 “양방향” 설문조사의 예가 몇 가지 있으며,⁶ 이는 이러한 역학에 근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방법론적 어려움을 수반한다(Beauchemin 및 González-Ferrer, 2011).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최근 이주민 성과에 대한 종단적 조사를 실시했다.⁷ 이러한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해 동안 동일한 사람을 추적하여 최근 도착한 이주민의 정착 경험과 이주 대상국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이주 이후 사람들의 웰빙 변화에 대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이주민 표본 구성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코호트 변화 때문에 이주민 성과의 종합적인 추세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개인을 넘어서 살펴보는 것 역시 어렵다.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동일한 출신 국가의 이주민이 일정하게 유입(또는 일정하게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주 정책의 변화, 다양한 경제적, 지리적, 환경적 충격과 추세의 영향은 과거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이주민 인구의 초기 배경 특성이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주민의 평균 웰빙 성과가 이주 대상국에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진 삶을 살고 있는 기존 이주민과 다른 이유 때문에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각 기반 데이터(소득과 주택 만족도 또는 개인적 안전의 지각 등)를 사용하면 자국민에 비해 이주민이 가진 기대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각 기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삶 동안의 경험과 문화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주제에 접근하고 판단하는 기준 틀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 기반 지표에 대한 이주민 대 자국민의 해석 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은 단순히 자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동일한 객관적 상황을 자국민보다 좀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지만(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 그 감정이 옳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람이 만족하는지 여부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이주민의 웰빙 차원과 지표 선택

이번 장에서는 ‘How’s Life?’ 프레임워크 차원을 기반으로 이주민의 웰빙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물질적 조건(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임금, 주택)과 삶의 질(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역량, 건강 상태, 주관적 웰빙,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개인적 안전, 환경의 질, 사회적 관계)을

다룬다. 표 3.1에 열거된 지표의 선택은 과거 ‘How’s Life?’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기준의 영향을 받았다. 즉 지표는 유효성이 입증되고, 요약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를 주시하고, 정책 개입에 민감하며,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수용되며, 국가에 걸쳐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고, 최대 국가 범위를 보장하며, 반복적 도구를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표 선택은 또한 이주민의 웰빙 측정에 특정한 요소로 인해 제약을 받았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가용성이 특히 문제이며, 주요 웰빙 지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고, 건강 상태와 같은 일부 주요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표를 제한한다.

이주민 웰빙의 국제적 비교 역시 이주민 인구의 규모와 특성이 국가 간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박스 3.3). 이는 이주민의 웰빙 성과의 국가별 비교가 이주민 인구의 구성 차이와 이주 정책의 과거 영향의 차이를 모두 인식하여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 이주민의 웰빙 차원 및 지표

차원	지표
소득과 자산	가구소득 빈곤율 금융자산
일자리와 임금	고용 실업 필요 이상의 자격 업무 관련 건강 위험 근로 빈곤
일과 삶의 균형	비정규 근로시간
교육과 역량	교육 성취도 문해력 인지 능력
건강 상태	인지된 건강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주거	기준 미달 및 과밀집 주거
환경의 질	열악한 환경 조건에의 노출
개인적 안전	인지된 안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정치 체계에 대한 신뢰도 정부 내 발언권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적, 부정적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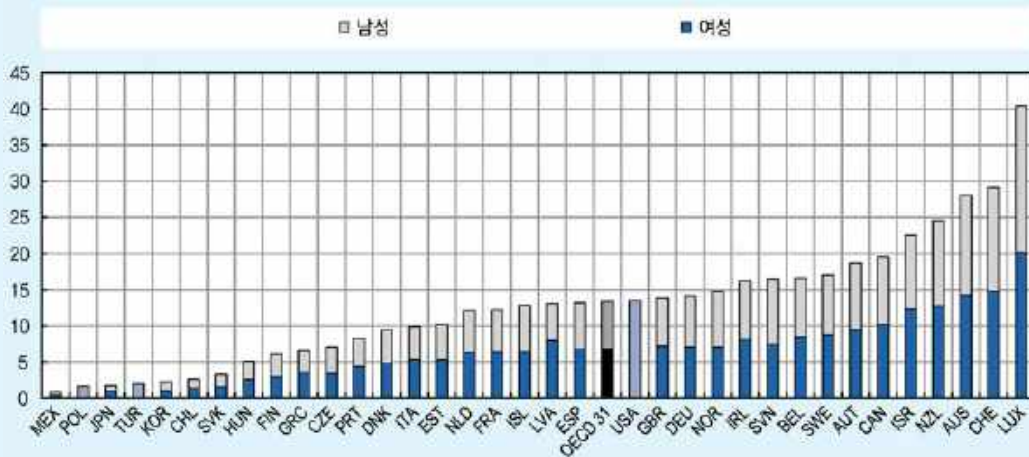
박스 3.3. OECD 국가에서 이주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 차이

총 인구의 비율로서 이주민의 규모는 2015년 멕시코의 1% 미만부터 룩셈부르크의 46%까지 OECD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OECD, 2017a). OECD 국가의 대부분에서 여성 이주민이 남성 이주민보다 약간 많으며, 여성은 OECD 국가에서 전체 이주민 인구의 51%를 차지한다(그림 3.1).

박스 3.3. OECD 국가에서 이주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 차이(계속)

그림 3.1. 성별 이주민의 비율

총 인구의 비율, 2015년 또는 최근 연도



주: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칠레와 그리스는 2014년 데이터이고, 캐나다, 체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위스는 2011년 데이터, 룩셈부르크는 2010년 데이터이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국가의 경우 성별에 따른 데이터가 없다. 이주민 인구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는 외국 태생이 아닌 외국인을 의미한다.

출처: 국제 이주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OECD, 2017c), <http://www.oecd.org/els/mig/oecd-migration-databases.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401>

국가별 이주민 인구는 나이(그림 3.2), 교육 성취도, 체류 기간, 이주민 인구의 규모 변화율과 같은 다른 특성에 따라 다르다(OECD 국가에서 교육 수준이 낮거나 높은 이민자의 비율, 체류 기간, 이주민 유입에 대한 추가 정보는 부록 3.A 참조).

그림 3.2. 이주 상태별 0~14세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이주민 및 자국민의 비율, 2012년



주: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이주민 인구에 대한 일본 데이터는 외국 태생이 아닌 외국인을 나타낸다. 0~14세 이주민 인구의 비율에 따라 국가를 평가했다.

출처: OECD/EU (2015), OECD 국가의 이주민에 관한 OECD 데이터베이스(DIOC) 20102011, <http://www.oecd.org/els/mig/oecd-migration-databases.htm>. 터키의 경우 EU 노동력 조사(EU-LFS) 2012-2013, <http://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european-union-labour-force-surve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420>

박스 3.3. OECD 국가에서 이주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 차이(계속)

과거 OECD 활동은 이주의 현재와 과거 패턴에 따라 국가 그룹을 확인했다(OECD, 2012, OECD 및 EU, 2015).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국가 건설의 한 요소로서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민의 교육 수준이 높고 잘 통합된 경향이 있다. 다른 국가(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는 최근 상당한 인도주의적 이주를 경험했다. 또 다른 국가(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미국)는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이주민 인구를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교육 수준이 낮은 이주민이 오래 머무르고 있다. 일부(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는 최근에 매우 소수의 이주민 인구가 유입된 경향이 있다. 일부(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는 최근 교육 수준이 낮은 이주민이 많아진 비교적 새로운 이주 대상국이다. 다른 곳(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몰타)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이주민이 향하는 새로운 국가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인구가 주로 국경 변화 및/또는 국가 소수민족의 이동에 의해 형성된 국가가 있다(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러한 그룹화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주를 특징짓는 주요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요약 설명은 전체적인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이주민 인구는 출신 국가, 인구통계 구조, 정착 패턴, 다른 결과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이주민 인구 구성에 대한 정보는 이주민 웰빙의 국가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이주민 배경과 이주 대상국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이 관측된 차이를 촉진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각 상황에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¹

¹. 예를 들어, 이주민의 출신 국가는 교육 성취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이주 대상국에서 이주민 배경을 가진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Picot 및 Hou(2013), Kanas 및 Tubergen(2009)). 그러나 증거는 여러 다른 이주 대상국에서 동일한 출신 국가의 이주민 자녀가 매우 다른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도 시사한다(PISA, 2015).

이주민의 정의

이 장에서 이주민은 출생 국가와 거주 국가가 다른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는 이주 인구를 정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⁸ 일관되고 객관적인 분류이며, 국제 이주에 관한 OECD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이다. “이주민”과 “외국 태생”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자국민”이라는 용어는 거주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즉 비이주민).

1세대 이주민뿐 아니라 새로운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2세대 이주민으로 정의)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정칙(OECD, 2012, OECD/EU, 2015)과 같은 이주민 통합에 중점을 둔 일부 OECD 활동이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처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활동에서 채택된 접근법이다. 거주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2세대 이주민은 자국민 부모를 둔 자녀와 비교할 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며, 이는 교육 결과가 낮고(OECD, 2016b) 실업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로서(Liebig 및 Widmaier, 2009) 생애주기 내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는 조사 대상이 이주민의 통합이 아니라 웰빙이기 때문에(비록 두 개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1세대 이주민에만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주요 배경 변수를 통제하는 등 자국민과 이주민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이주민과 자국민 모두 나이, 성별, 교육 성취도와 같은 요소가 웰빙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특성들이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다를 경우, 웰빙 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장의 초점이 이민자의 웰빙 성과(설명 방법에 관계없이 관심의 대상인)에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데이터는 조정 없이 그대로 제시된다. 적절한 경우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의 특정 차이에 대해 본문에서 언급한다.

데이터 출처

이번 장의 데이터는 여러 출처에서 비롯되며, 가장 폭넓은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가진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다(박스 3.4). 유럽 국가의 경우, 데이터 출처로 유로 시스템 가구 재정 및 소비 조사, EU 노동력 조사(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LFS), 유로파운드 유럽 근로 조건 조사(Eurofound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 소득 및 생활 여건에 관한 EU 통계(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urvey, EU-SILC),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유럽의 건강, 노화, 퇴직에 관한 조사(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등이 있다. EU 및 기타 국가의 경우, OECD 성인역량조사(국제성인역량평가, PIAAC의 일부), 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 갤럽 세계 설문조사, 일부 비유럽 국가 노동력 및 가구 설문조사가 포함된다.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주민에 대한 표본 크기가 일반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이주민과 자국민의 차이를 제시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박스 3.4. 이번 장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이주민의 웰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된 데이터 출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부 OECD 국가는 특별 조사를 개발했지만(프랑스의 *Trajectoires et Origines*, 스페인의 국가 이주민 조사,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이주민에 대한 종단적 조사)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으며 웰빙 성과에 대한 질문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국가 인구조사의 포괄적인 성격 때문에 여러 이주민 성과(1세대와 2세대 이주민에 대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조정된 일부 인구조사 데이터는 미네소타대학교의 IPUMS(Integrated Public-Use Microdata Series)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인구조사 데이터가 여러 배경 특성(보고된 민족성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이주민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웰빙 성과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주민의 웰빙 성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최상의 데이터 출처는 출생 국가에 대한 배경 질문을 포함하는 국제 사회 조사이며, 외국 태생 인구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이주민을 표본에 많이 포함하지 않고 이주민의 대표 표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출처의 질을 평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주민 표본의 대표성 평가는 4가지 국제 사회 조사인 소득 및 생활 여건에 관한 EU 통계(EU-SILC), 유럽 사회 조사(ESS),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 대해 수행되었다. 평가는 4가지 데이터 출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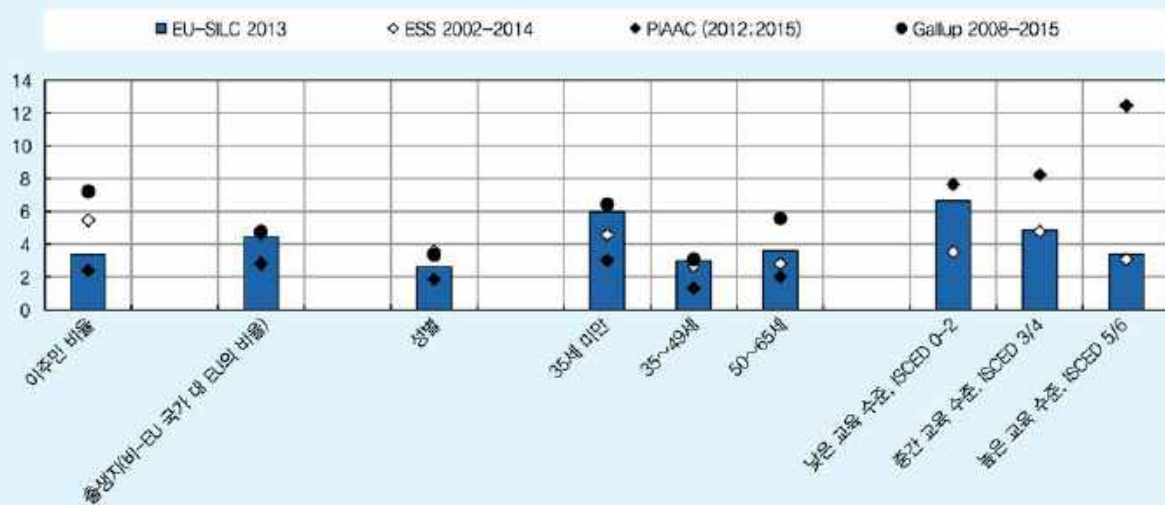
박스 3.4. 이번 장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계속)

모두 있는 10개 국가로 제한되었다(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출처 대부분의 경우 이주민의 작은 표본 크기가 중요한 제약이다. 이 제약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SS, PIAAC,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경우, 충분한 관찰 결과를 얻고자 여러 해 동안 다수의 웨이브를 모았다. 이 데이터 통합 후, 국가당 이주민에 대한 평균 관찰 결과는 ESS의 경우 900(2002~2014년 웨이브 결합), PIAAC의 경우 750(2012년과 2015년 웨이브 결합),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경우 500이었다. EU-SILC는 가장 많은 수의 이주민을 보유하며, 관련 웰빙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연도인 2013년에 국가당 평균 관찰 결과는 1,200이었다.

공식 출처에서 설명한 대로 선택된 조사의 이주민 표본을 각국의 실제 이주민과 비교했다. 이러한 값에는 출생지(EU 대 비EU 국가), 성별, 나이,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 인구/조사 표본의 이주민 비율과 인구/조사 표본의 구성이 포함되었다. 그림 3.3은 유럽의 10개국에 대해 조사 표본과 기준 값 사이의 평균 % 포인트 차이를 보여 준다(그림 주석 참조). 점수가 낮을수록 이주민의 대표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 선택된 데이터 출처에서 이주민의 대표성

조사 표본과 기준 모집단 값의 평균 차이, % 포인트



주: 그림은 Eurostat에서 보고한 이주민과 여러 기준(인구의 이주민 비율, 출생지에 따른 이주민의 분포(즉 비EU 국가의 이주민 대비 EU 국가의 이주민 비율), 성별, 나이, 교육 성취도)에 따라 이 그림에 포함된 4가지 조사의 표본 인구 사이의 평균 차이(% 포인트로 측정)를 보여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이다. 이주민의 비율, 출생지 사이에 이주민의 분포, 성별, 나이 그룹에 대한 기준 값은 Eurostat(표 [migr_pop3ctb])에서 인용했다. 교육 성취도 분포의 경우 기준은 OECD/EU(2015)이다.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서 교육 성취도에 대한 질문은 다른 조사와 다르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대한 평가를 저해한다.

출처: EUSILC(2013년), 유럽 사회 조사(2002-2014년), PIAAC(2012년, 2015년), 갤럽 세계 설문조사(2008-2015년)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439>

이 품질 테스트의 결과는 4가지 조사에서 꽤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이주민 대표성 수준이 종합 결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 이러한 출처를 기반으로 보다 상세한 분류(성별 또는 나이 등)를 사용할 수 없다. 다양한 데이터 출처 중에서 EUSILC와 갤럽 세계 설문조사는 웰빙에 관한 가장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며, 두 조사는 이번 장에 제시된 여러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관련 지표에

박스 3.4. 이번 장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계속)

대해 EUSILC가 갤럽 세계 설문조사(국제적 범위)보다 이주민에 대한 관찰 결과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국가에 대해 EUSILC 데이터를 표시하고 일부 비유럽 국가에 대해 갤럽 데이터를 제시한다. 갤럽 데이터 사용시 국가 추정치는 갤럽 표본에서 관찰된 이주민의 총 비율과 기준 값의 차이가 기준 값 자체의 50% 미만일 때(기준 값이 8인 경우 갤럽 값은 이 값의 +/-4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민 중 여성 또는 15~64세 인구의 비율에 대한 차이가 10% 미만일 때(기준 값이 50인 경우, 갤럽 값은 이 값의 +/-5 이내에 있어야 한다)만 제시된다. 그림 3.3이 전체 OECD에 대한 이 분석 결과를 보여주지만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개별 국가에 대해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How’s Life?’는 모든 OECD와 파트너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가능한 최대의 국제 범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번 장에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첫째, 여러 지표에 대해 유럽 국가에 대한 데이터(EU-SILC 또는 기타 출처의)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추정치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이주민 관찰 결과가 150 이상인 국가의 데이터만 제시한다. 이는 국제 범위가 넓은 출처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가 이번 장에 포함될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등 이주민 수가 적은 국가의 데이터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 웰빙에 대한 증거

이 섹션은 상기 표 3.1에 제시된 차원에 따라 이주민의 웰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주민의 경험, 데이터 가용성, 해당 차원의 결과가 이미 다른 OECD 간행물에서 다른 범위와의 관련성에 따라 일부 차원은 다른 항목보다 더 상세히 조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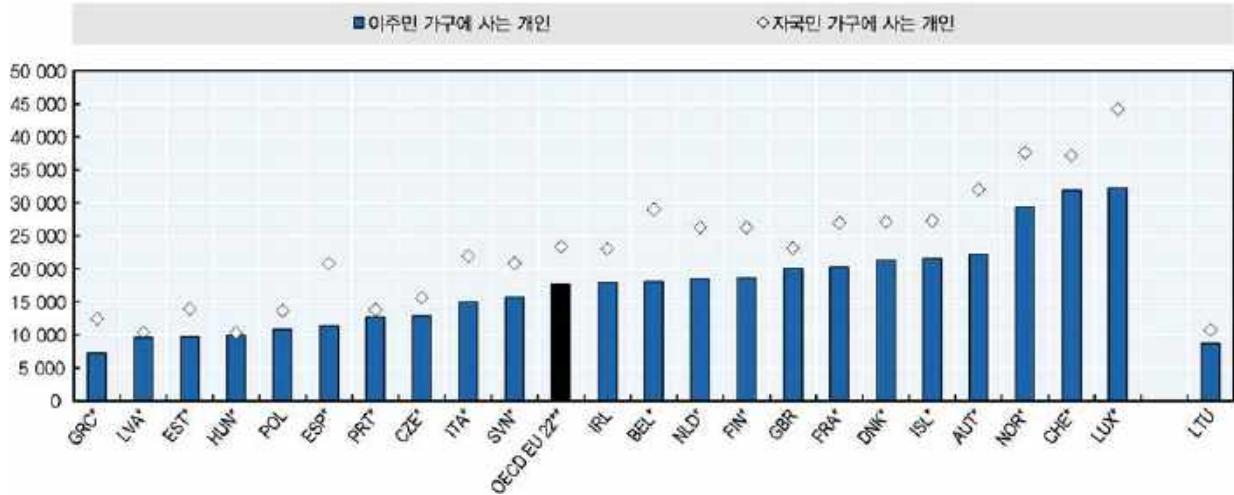
소득과 자산

소득과 자산 형태의 경제적 자원은 이주민의 웰빙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한편, 한 개인의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중요한 이주 동기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주 과정 그 자체가 교통편, 정착 비용뿐 아니라 이동으로 인한 소득 중단을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주민은 또한 이주 대상국에서 자신이나 직계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대신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소득 일부를 송금할 수도 있다. 그러한 송금액이 항상 가구소득 조사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가구소득의 송금 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총액 수준에서 송금 흐름은 상당하다. 2016년 고소득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총 4,290억달러였고(세계은행, 2017) 같은 해에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30개 OECD 회원국이 공적개발원조(ODA)에 소비한 총 금액의 3배에 달한다(OECD, 2017d).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민의 **가구 중위 소득**은 자국민에 비해 더 낮으며, 데이터가 있는 22개 유럽 국가에서 이주민 가구의 중위 소득은 자국민 가구의 중위 소득보다 평균적으로 약 25% 낮다(2014년 자국민 가구 23,353달러 대비 17,609달러, 그림 3.4). 라트비아, 헝가리, 포르투갈만 이주민과 자국민의 중위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

유럽 국가의 이주민은 소득 결핍의 위험이 훨씬 높다. 2012년 29개 OECD 국가에서 이주민 가구에 사는 사람의 28%가 **상대적 소득 빈곤**(즉, 국가 중위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EU

그림 3.4. 가구 이주 상태별 균등화 가처분 중위 소득
현재 PPP에서 1인당 달러, 2014년



주: 가구의 연간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가구 크기의 제곱근으로 조정된 각 가구의 소득으로 계산한 다음 동일한 가구의 각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소득은 구매력평가(PPP) 비율의 달러(USD)로 표현된다. 노동, 자본, 경상 이전의 수입을 포함하며, 근로자가 지불하는 소득세, 사회 부담금을 공제한다. 중위 소득은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절반은 중간값보다 덜 받고 나머지 절반은 더 받는다. 가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대원이 모두 이주민인 경우 이주민 가구로 간주된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는 신뢰 구간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출처: 소득 및 생활 여건에 관한 EU 통계(EUSILC) 2014년,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458>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소득)을 경험했다. 반면 자국민 가구의 경우는 16%에 불과했다(OECD/EU, 2015).⁹ 이 같은 빈곤 발생률의 차이는 특히 아이슬란드, 체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그리스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주민 가구가 상대적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자국민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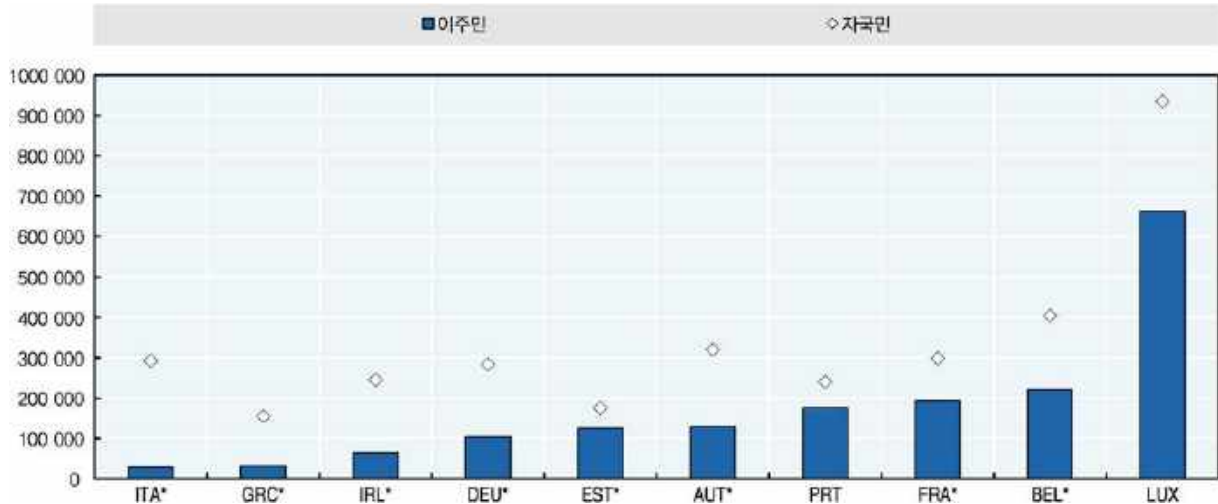
자산 데이터는 소득 데이터보다 훨씬 제한적이지만 데이터가 있는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자국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이주민의 2배이다(그림 3.5).

일자리와 임금

많은 이주민의 경우, 고용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는 주요 동기이다. 이주는 더욱 폭넓은 취업 기회를 열어주고 출생 국가보다 인적 자본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지만,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 이주민은 노동시장이나 직장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과 경험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실업은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Dolan 외, 2008) 실업 경험은 특히 이주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희망하면서 집을 떠났고 목숨을 잃었다.

2016년 31개 OECD 국가에서 이주민과 자국민의 **고용률**은 두 그룹 모두 67% 수준으로 대체로 비슷했다(OECD, 2017c).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이주민은 자국민에 비해 고용될 가능성이 낮지만 이 차이는 나라별로 크게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주민이 자국민보다

그림 3.5. 가구 이주 상태별 가구당 평균 순자산
2014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2014년 USD PPP의 값



주: 가구순자산은 유로시스템 가구 재정 및 소비 조사(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에서 측정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를 나타낸다. 가구는 가장과 그 배우자/파트너가 모두 이주민인 경우 이주민 가구로 정의된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데이터는 2013년에 해당한다.

출처: 가구 재정 및 소비 네트워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Network) 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www.ecb.europa.eu/pub/economic-research/research-networks/html/researcher_hfcn.en.htm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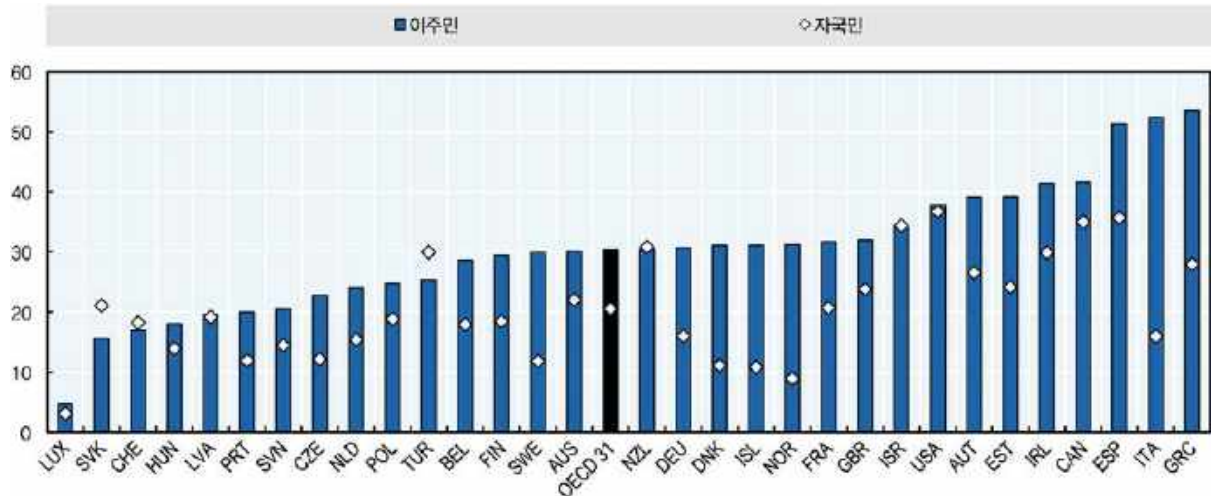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이주민의 고용률은 자국민에 비해 최소 10% 포인트 낮지만 이스라엘, 헝가리, 룩셈부르크에서는 자국민에 비해 최소 7% 포인트 더 높다. 최신 데이터를 제공한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실업률** 역시 자국민보다 이주민이 더 높았다(이주민 평균 8.3%, 자국민 6.5%, OECD, 2017a).

이주민과 자국민 모두 최신 데이터가 있는 전체 31개 OECD 국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고용에서의 성별 격차는 이주민에서 더 두드러진다. 외국 태생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게 비해 15% 포인트 더 낮으며, 자국민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평균 10% 포인트이다(OECD, 2017c).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이주민에게는 고용 격차가 더 크다. 학사학위가 있으면 이주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자국민과 동일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2015년 OECD 국가 평균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이주민(예: 학사 이상)의 고용률은 고등 교육을 받은 자국민에 비해 9% 포인트 낮았다(이주민 76%, 자국민 85%, OECD, 2017c). 그러나 교육 수준이 낮은 이주민(예: 초등학교 이하)은 교육 수준이 낮은 자국민과 비슷한 고용률을 보인다(30개 OECD 국가 평균 이주민 56%, 자국민 55%, OECD, 2017c).

이주민이 자격을 인정 받을 때 직면하는 장벽을 고려해 보면(불분명한 신청 절차, 불충분한 언어 능력, 고용 자격에 대한 제약 등) 많은 이주민이 일자리에 비해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¹⁰ **필요 이상의 자격** 저숙련직 또는 중간 숙련직에 종사하는 고학력자의 비율로 정의)은 소득, 직무 만족도,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켜서 사람들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ynard 외, 2006). 또한 다른 이주민보다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Chen 외, 2010). 그림 3.6에 포함된 31개국 가운데 23개 국가에서 이주민은 자국민보다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 가능성이 높다. OECD에서 학사학위를 가진 이주민의 거의 1/3이 일자리에 비해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는 1/5 수준이다.

그림 3.6. 이주민 신분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15~64세 중 필요 이상의 자격 비율
저속련직 또는 중간 숙련직에 고용된 고학력자의 비율,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과도한 자격 비율은 모든 직원 중에서 저속련직 또는 중간 숙련직에 고용된 고학력자의 비율로 계산된다. 저속련직과 중간 숙련직의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에서 작성한 국제 표준 직업 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를 사용하며, 직업을 3가지 주요 기술 수준으로 분류한다. 고숙련직은 고위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 준전문가(ISCO 13), 저속련직은 아주 쉽고 간단한 직업(ISCO 9), 중간 숙련직은 그 이외의 모든 직업(ISCO 48)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을 포함시킨다. 캐나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독일, 뉴질랜드, 호주, 터키는 2012~2013년 데이터이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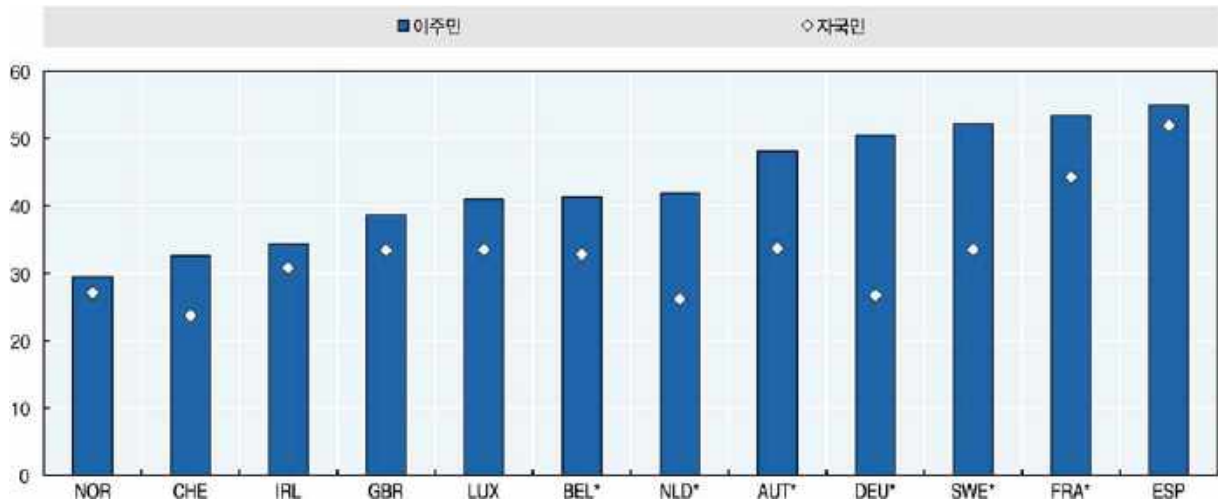
출처: OECD/EU(2015). EU 노동력 조사(EU-LFS) 2012~2013 및 2015. 미국: 상시 인구 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2012~2013. 호주 교육 및 취업 조사(Australian Survey of Education and Work, ASEW) 2013. 캐나다 및 뉴질랜드: 노동력 조사 2012~2013. 이스라엘: 노동력 조사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496>

이주민은 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며 높은 **근로 빈곤**을 경험한다(OECD/EU, 2015). 2012년 유럽에서 EU 빈곤선 이하의 고용 및 생계를 유지하는 외국 태생의 비율은 자국민에 비해 평균 2배였다(각각 17%와 8%, OECD/EU, 2015).

이주민은 또한 위험하거나 해로운 근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이는 낮은 건강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13). 그림 3.7은 유럽의 근로 조건 조사(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EWCS)의 데이터에 근거한 **신체 건강 위험** 지수 결과를 보여준다. 지수가 높을수록 직장에서 신체적 건강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7에 포함된 전체 유럽 국가에서 이주민은 자국민보다 더 위험한 고용 조건에 직면해 있다.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전체 이주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신체 건강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위험을 내포하는 직업에 고용되어 있다.

그림 3.7. 이주상태별 근로자의 신체 건강 위험 노출
신체 건강 위험에 노출된 직업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 2015년



주: 신체 건강 위험은 근로자가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 고온에 노출, 저온에 노출, 진동에 노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자세로 근무,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이동, 화학 제품 취급 또는 접촉, 증기 흡입, 연기, 분진 또는 먼지 흡입과 같은 문제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질문은 네/아니요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근로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목에 “네”라고 응답하면 신체 건강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표본에 최소 100명 이상의 외국 태생 근로자가 포함된 국가만 표시된다.

출처: 유로파운드 유럽 근로 조건 조사(Eurofound European Survey on Working) 웨이브 6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eurofound.europa.eu/survey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515>

일과 삶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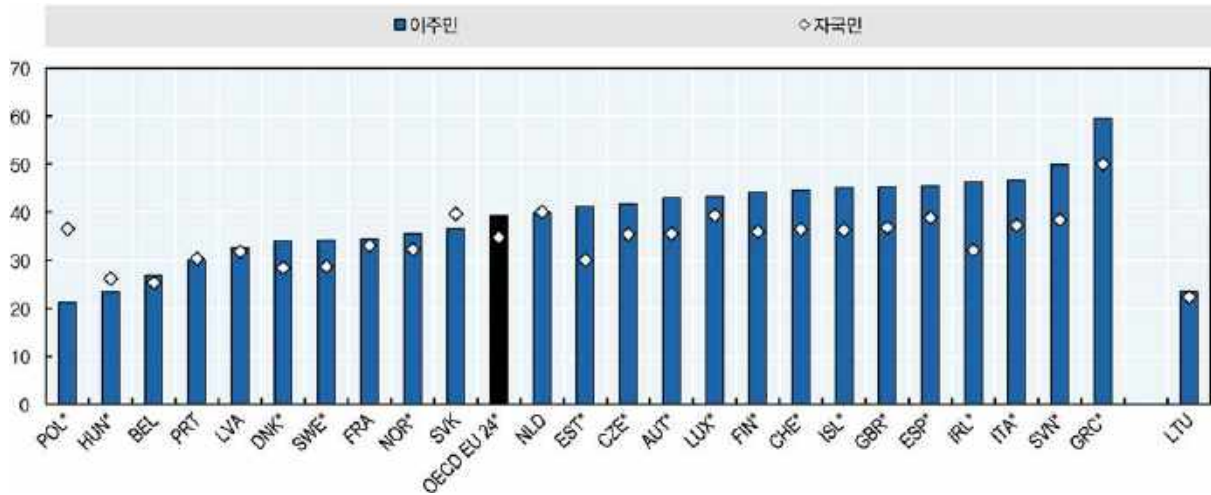
OECD 노동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장시간 일하는 이주민의 패턴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비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데이터는 유럽 국가의 이주민이 자국민에 비해 교대 근무나 저녁 또는 주말에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그림 3.8), 16개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나타난다. 이는 이주민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대 근무, 야간 근무는 특히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고, 수면과 식습관을 저해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osta, 1996).

교육과 역량

교육과 역량은 이주민의 웰빙에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이주민의 경우, 교육 대비 노동시장 이득은 자국민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 한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이 다른 국가로 직접 이전되거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 이주민이 이주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 필수적인 특정 기술과 지식(이주 대상국 언어의 유창함 등)이 부족하여 다른 웰빙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일부 OECD 국가에서 이주민에게 거주 및 취업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발 정책으로 인해 이주민의 **교육 성취도**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캐나다, 아일랜드

그림 3.8. 이주상태별 비정규 시간에 일하는 직원
직원의 비율, 2015년



주: 직원은 저녁/야간 또는 토요일/일요일에 교대 근무 또는 정상 근무하는 경우 비정규 근무 시간을 갖는다고 간주된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2015 EU-LFS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fr/web/microdata/european-union-labour-force-survey>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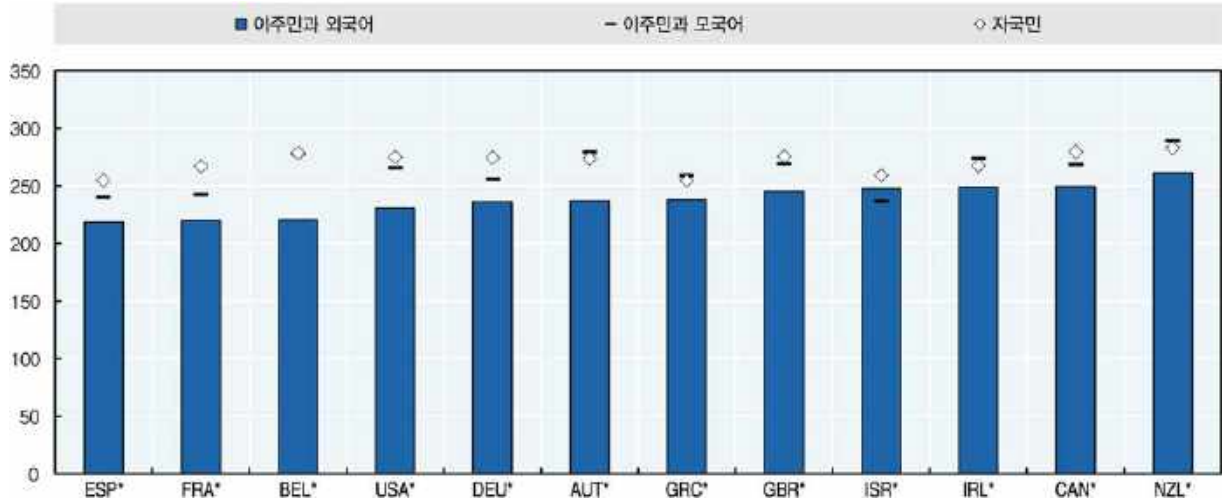
랜드,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전체 근로 연령 이주민의 약 절반이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이들 국가의 자국민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남유럽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이주민이 자국민보다 교육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OECD에서 OECD 국가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34%가 교육 수준이 높고(학사학위 보유) 자국민은 29%에 불과하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중등 교육 이하) 사람의 비율은 이주민과 자국민이 각각 29%와 28%로 비슷했다(OECD/EU, 2015).

언어와 **문해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러 다른 영역(문해력, 수리력,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에서 성인의 능숙도를 측정하는 OECD 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는 외국 태생 사람의 모국어 또는 제2언어가 평가 언어와 동일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보다 문해력 점수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3.9). 대조적으로 이주 대상국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즉 모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은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 오스트리아, 그리스, 잉글랜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처럼 때때로 자국민 모국어 사용자와 비슷한 성과(또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이주 대상국에 부모를 따라 도착한 이주민 자녀의 경우, 이주 과정에서 교육과 역량 습득이 중단될 수 있다. 이주 자녀가 어릴수록 이주 전에 교육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주 대상국의 환경에 더 의존하게 된다(특히 교육 시스템의 품질과 포괄성).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핵심 영역(수학, 읽기, 과학)에서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을 측정한다.

2015년 PISA에서 1세대 학생의 평균 점수는 자국민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49점 낮았다

그림 3.9. 이주상태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별 문해력 점수 차이
성인, 2012-2015년



주: 외국어는 어릴 때 배운 모국어 또는 제2 언어가 평가 언어와 다른지 여부를 나타낸다. *는 90% 수준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과 자국민의 점수 차이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과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 사이의 점수 차이 역시 모든 국가에서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의 점수 차이는 캐나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에서 90% 수준에서 상당히 다르다.

출처: 성인역량조사(PIAAC) (2012, 2015), <http://www.oecd.org/skills/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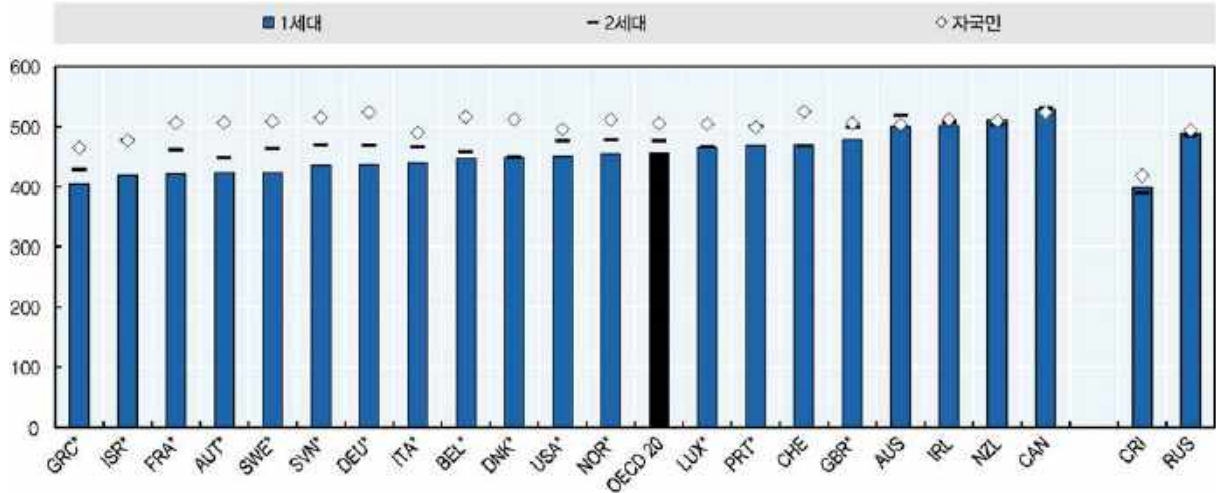
(그림 3.10). 그러나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주민과 자국민의 격차가 80점을 초과한다.¹¹ 그러나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이주민 배경을 가진 학생이 자국민과 비슷한 성과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이주민 배경을 가진 학생의 39%가 과학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 것에 반해 자국민 학생의 경우는 19%였다(OECD, 2016b).

건강 상태

이주민은 이주 대상국에 도착할 때 비교적 건강하지만(Neuman(2014)의 “건강한 이주민 효과”라는 현상) 이 장점은 이주 대상국에서 보낸 시간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¹² 이주민은 또한 위험한 근로 환경, 기존 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높은 사용자 부담,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또는 인식 부족, 이주 과정 자체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 건강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 등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해 특정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박스 3.5 참조).

평균적으로 24개 OECD 유럽 국가에서 이주민은 자국민보다 **건강이 양호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약간 낮다(그림 3.11). 그러나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이주민의 연령 구성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보고 건강은 일반적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모두 나이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민의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라트비아, 폴란드, 에스토니아에서는 자국민이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고할 가능성이 이주민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그림 3.10. 이주상태별 과학, 읽기, 수학에서 학생의 성과
평균 합산 PISA 점수, 15세 학생,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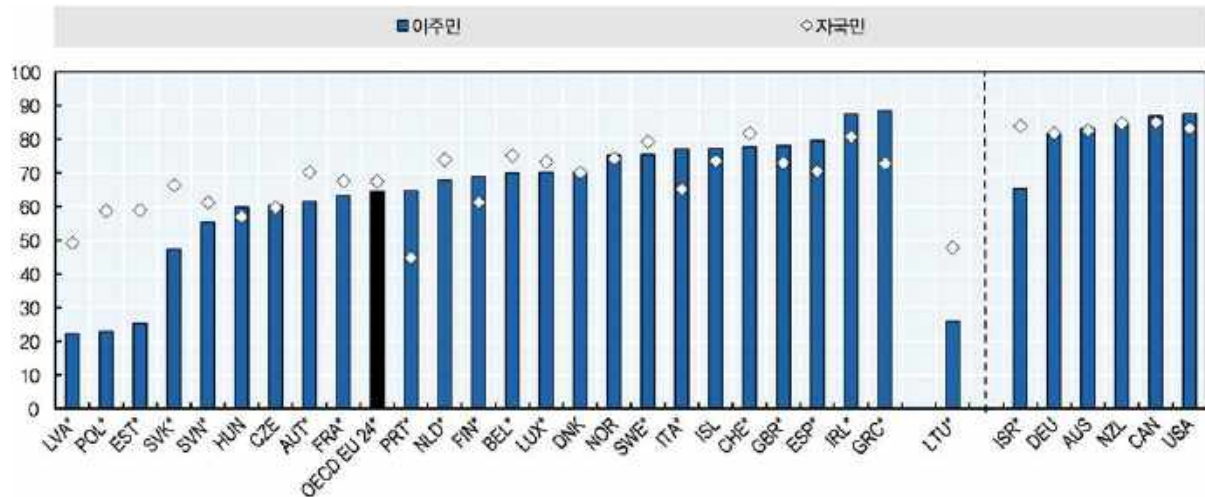


주: 이 지표는 과학, 읽기, 수학에서 단순 평균 점수를 측정한다. *는 90% 수준에서 1세대와 본토 태생 이주민 학생에 대한 합산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다른 과목과 다른 그룹 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Statlink의 주석을 참조한다. 본토 학생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PISA 테스트를 본 국가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또는 둘 다)가 태어난 학생이다. 1세대 이주민 학생은 부모 모두 외국 태생인 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다. 2세대 이주민 학생은 PISA 테스트를 본 국가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모두 외국 태생인 학생이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PISA(2015)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pis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572>

그림 3.11. 이주상태별 개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
양호한 건강을 보고하거나(좌측) 건강에 만족한다고 보고한(우측) 사람의 비율, 2013년경



주: 차트의 좌측에 표시된 OECD 유럽 국가의 데이터는 EU-SILC에서 인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차트의 우측에 표시된 독일과 일부 비유럽 OECD 국가의 데이터는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서 인용한 것이며, “건강 상태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함”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조사 질문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EU-SILC와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2013 EUSILC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및 갤럽 세계 설문조사(2008-2012), <http://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591>

이주민 인구가 젊은 국가에서는 이주민이 자국민보다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림의 우측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외 일부 국가에서 건강에 만족한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준다.¹³

건강 결정요인, 건강 상태, 이주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존재하는 증거는 이주민과 특히 망명 신청자와 같은 가장 취약한 그룹의 이주민이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박스 3.5).

박스 3.5. 이주민의 건강 결과에 관한 주요 쟁점과 결과 요약

건강 정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주민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며, 이주민의 건강 데이터가 있는 경우, 종합 결과는 나이, 성별, 출신 국가 및 목적지,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 형태(이주민 웰빙의 다른 많은 지표도 될 수 있음) 측면에서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중요한 성과 차이를 가린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주요 측면에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주목할 만한 건강 상태 차이가 관찰될 수 있다. 이주민은 당뇨병, 비만, 특정 전염병, 모자 건강 문제, 직업 건강 위험, 부상, 정신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Rechel 외, 2011). 이러한 차이는 이주민의 출신 국가의 위험 요인 및 질병 패턴, 이주 대상국의 열악한 생활 환경,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 다양한 원인 및 이주 과정과 관련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어느 정도 설명된다.

의료 장벽. 이주민(특히 밀입국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은 의료 서비스 자격에 법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다른 장벽은 수익자 부담금, 언어, 권리, 자격, 전반적인 건강 시스템에 대한 지식 부족, 후진적인 건강 지식, 행정적 장애물, 사회적 배제, 직간접적 차별 등이 있다. EU SILC 2013 마이크로 데이터에 대한 OECD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가 있는 24개 유럽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이주민은 자국민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미충족 수요에 직면할 가능성이 약간 높으며, 특히 폴란드, 라트비아, 스웨덴, 에스토니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동일한 데이터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가진 이주민의 45%가 재정적 여유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국민의 경우 35%이다.

정신 건강. 스트레스는 정신 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이주민은 난민 캠프 수용 및 재양적 경험과 같은 이주 전 스트레스 요인과 가족과의 이별, 실업, 빈곤, 향수병, 문화 적응 스트레스, 죄책감, 고립, 주변성, 차별과 같은 이주 후 스트레스를 비롯해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Fenta 외(2004), Prilleltensky(2008)). 새로운 국가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가족과 커뮤니티 내의 강력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스트레스 대처 능력,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 자발적인 이주 선택 자각, 미래에 대한 희망, 강한 종교적 신념, 다른 문화에 대한 높은 관용 등이 있다(Bhugra 외(2011), Hovey(2000), Hovey 및 King(1997)).

출처: Rechel 외, 2011, 2013, Robert 및 Gilkinso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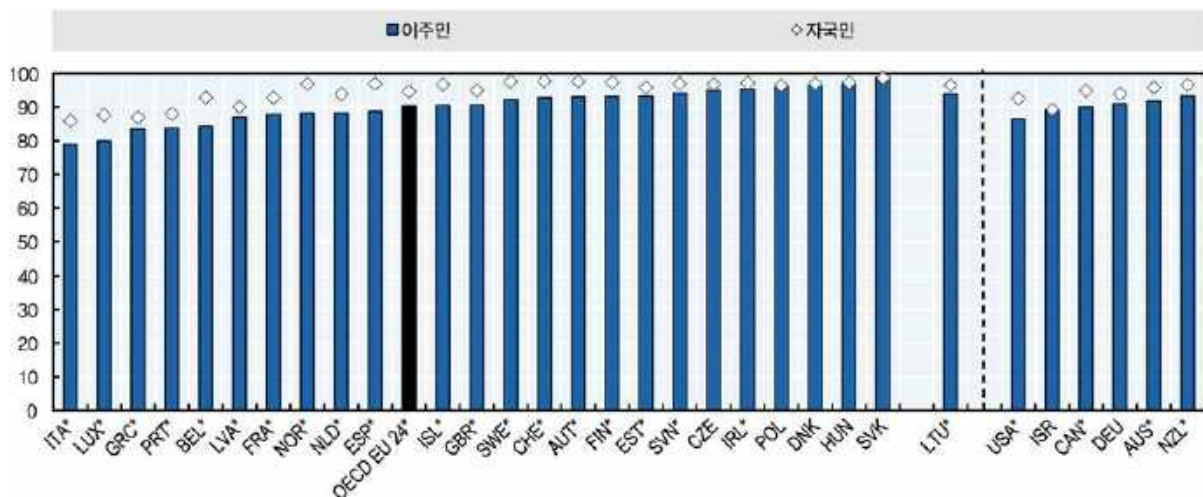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

출생 국가에서의 안정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이주민의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는 친구, 가족, 지인과의 관계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는 것이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주는 가족을 동반하거나 더

일찍 이주한 사람과 재결합할 수도 있다. 2015년 가족 이주는 OECD 국가의 신규 이주민 중 가장 큰 카테고리였으며, 전체 이주의 거의 40%를 차지한다(OECD, 2017a).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주 과정 자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수천 킬로미터 이동하게 하며 며칠 내에 숙소, 고용, 이주 국가에서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Fitzgerald, 2014).

사회적 지원은 이주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측면이며, 잠재적 고립과 스트레스가 많은 이주 과정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이주민이 새로운 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주민은 자국민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그림 3.12).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 수준은 두 그룹에서 모두 높다. 데이터가 있는 24개 유럽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이주민의 90%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며, 자국민은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이주상태별 사회적 지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16세 이상의 비율, 2013년경



주: 차트의 좌측에 표시된 OECD 유럽 국가의 데이터는 EU-SILC에서 인용한 것이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의 우측에 표시된 독일과 일부 비 EU OECD 국가의 데이터는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서 인용한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조사 질문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EU-SILC와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2013 EU-SILC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및 갤럽 세계 설문조사(2008-2015)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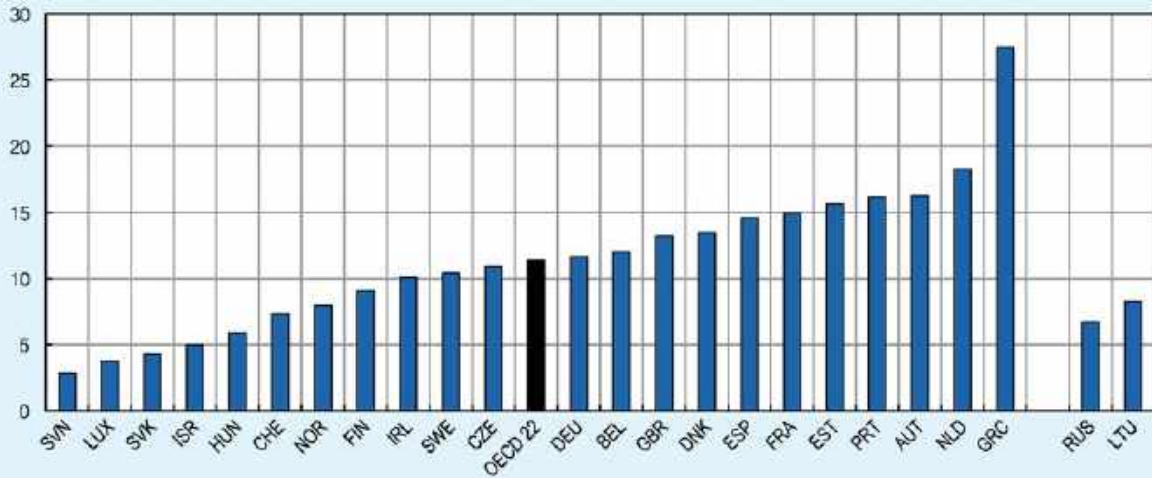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610>

개인 수준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직접 측정하지 않지만 관용과 차별적 태도와 같은 사회적 특성은 이주민이 이주 대상국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며, 이주민 그룹 밖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형성한다(박스 3.6). ‘How’s Life?’ 프레임워크에서 관용은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으로 고려될 수 있는 협력적 규범이며, 이는 미래 웰빙의 중요한 집단 자원이다(OECD 2015, 제3장 참조).

박스 3.6. 유럽 국가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용과 차별

이주민의 웰빙과 통합은 이주 대상국의 이주민에 대한 우세한 태도와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민 또는 일부 이주민이 속할 수 있는 특정 민족과 인종 집단에 대한 편협과 차별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이주민이 고용, 주택 또는 기타 서비스에 접근하려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이주민의 차별과 배제 경험은 심리적 고통, 스트레스, 심각한 정신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다(Williams 외(1997), Williams 및 Harris-Reid(1999), Liebkind(1996), Rumbaut(1995)). 차별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지만(자세한 내용은 OECD, 2012 참조) 관용과 포용은 인지된 차별에 대한 주관적 보고와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측정될 수 있다. 22개 유럽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이주민 10명 중 1명 이상은 인종, 민족,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그림 3.13). 그리스에서 이 비율은 4명 중 1명 이상인 반면 이스라엘,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폴란드에서는 20명 중 약 1명 정도로 매우 낮다.

그림 3.13. 선택된 유럽 국가에서 차별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주민
15세 이상 이주민의 비율, 2004~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차트는 1) “이 국가에서 차별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주민과 2) “어떤 근거로 차별을 받는가? 인종/민족/국적”이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주민의 비율을 보여준다.

출처: 유럽 사회 조사(2004-2014)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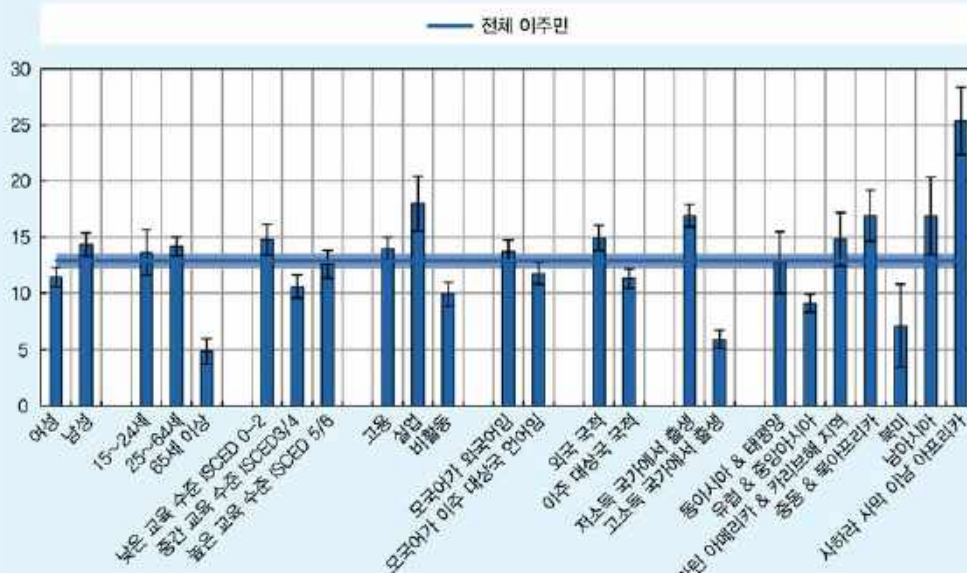
다양한 이주민 특성에 따라 인지된 차별은 크게 다르다(그림 3.14). 유럽 국가에서는 저소득 국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이 차별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차별 경험을 높이는 다른 요소에는 남성, 실업 상태, 이주 대상국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주에 대한 자국민의 어떤 태도가 우세한지 알면, 이주 대상국의 지역사회가 이주민을 기꺼이 받아들일 가능성의 정도와 이주민이 자국민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쉽거나 또는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15는 세금, 의료, 기타 서비스에 관하여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 오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가져가는 것보다 가져오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의 응답에 대해 11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보여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주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스웨덴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했다. 데이터가 있는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2002-2014년에 약간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은 2015년에 시작된 유럽 이주민 위기보다 앞선다.

박스 3.6. 유럽 국가에서 이주민에 대한 관용과 차별(계속)

그림 3.14. 선택된 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특성에 따라 스스로 차별 받는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주민 15세 이상의 이주민 비율, 성별, 나이, 교육, 고용 상태, 국적, 소득 수준, 출생 지역에 따라 분류, 2004~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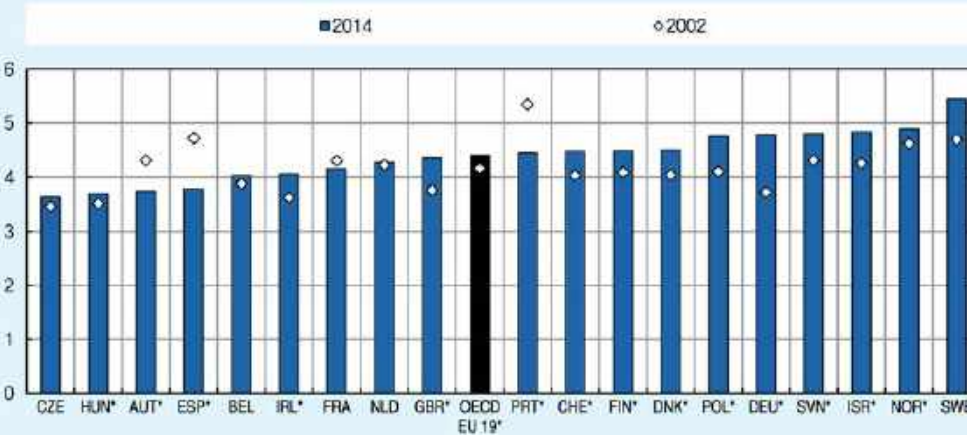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영국의 데이터를 종합했다. 데이터는 인종, 민족, 국적에 따라 차별을 경험한 그룹에 속한다고 말한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오차 막대와 회색 띠는 90% 신뢰 구간을 나타낸다.

출처: 유럽 사회 조사(2004-2014)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648>

그림 3.15. EU 국가의 대부분의 자국민은 이주민이 가져오는 것보다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고 믿음 (일반적으로 더 많이 가져감) ~ 10(일반적으로 더 많이 가져옴) 척도의 평균 값, 2002년 및 2014년



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을 하고 세금을 낸다. 또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 오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가져가는 것보다 가져오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가?” OECD 평균은 19개 유럽 국가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는 90% 수준에서 2014년과 2002년 사이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출처: 유럽 사회 조사 웨이브 1과 7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667>

주택

적합한 주택을 찾는 것은 새로운 국가를 고향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이다. 안식처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양질의 주택은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되는 피난처를 제공하며 개인 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애착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Bonnefoy, 2007).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이주민 가구에 사는 사람의 41%가 **기준 미달 또는 과밀집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자국민 가구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27%이다(그림 3.16).

환경의 질

이주민은 평균적으로 자국민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낮고 환경의 질이 열악한 동네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22개 유럽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은 **환경 조건**이 나쁜 지역(소음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자국민은 5명 중 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그림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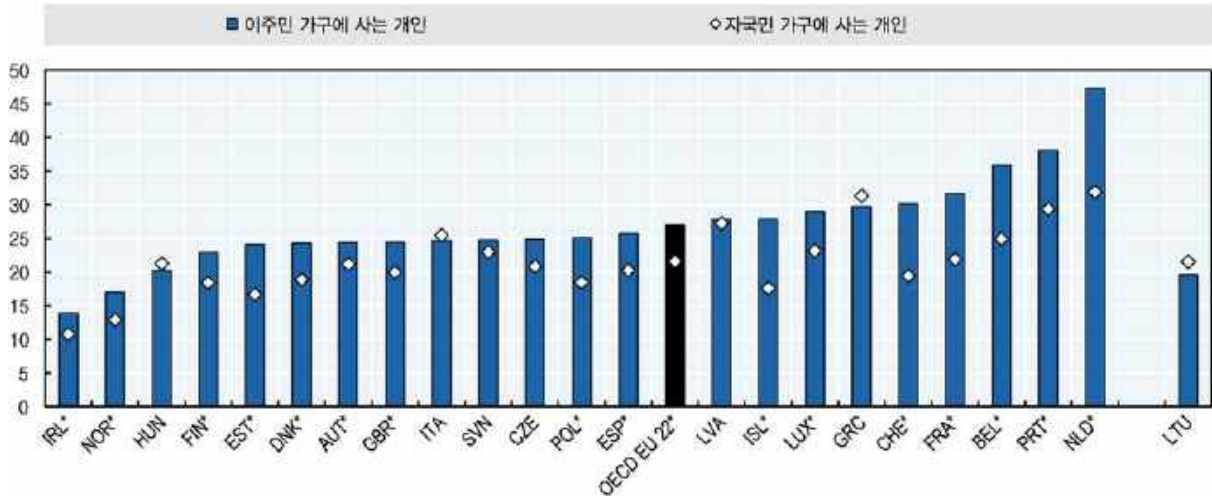
그림 3.16. 가구 이주 상태별 기준 미달 및/또는 과밀집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
총 인구의 비율, 2014년



주: 주택이 너무 어둡고, 전용 욕실(욕조 또는 샤워실과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 기준 미달 주거라고 설명한다. 한 가구를 위한 1개의 거실, 거주지를 책임지는 부부를 위한 1개의 방(또는 두 사람이 커플이 아닌 경우 2개의 방), 다른 성인(18세 이상) 2명당 1개의 방, 어린이 2명당 1개의 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방의 수가 작은 경우 과밀집 주거로 간주된다. 가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대원이 모두 이주민인 경우 이주민 가구로 간주된다. *는 90%에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2014,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686>

그림 3.17. 가구 이주 상태별 나쁜 환경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
자기보고 환경 조건이 나쁜 집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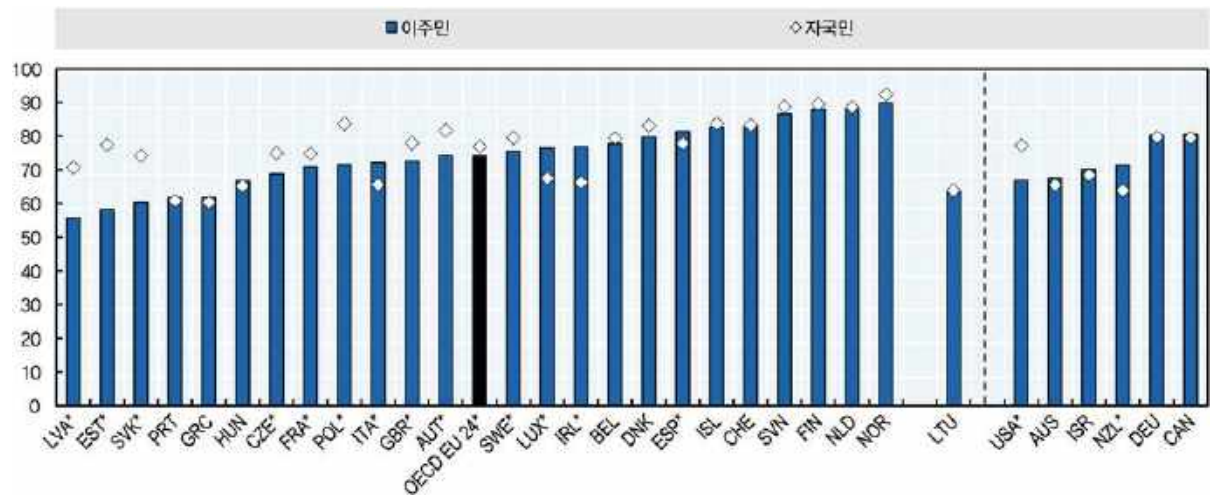


주: 환경 조건은 가구가 다음과 같은 문제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1) 이웃이나 외부로부터 너무 많은 소음(교통, 비즈니스, 공장 등) 또는 2) 지역의 오염, 오물 또는 기타 환경 문제(즉 연기, 먼지, 불쾌한 냄새 또는 오염된 물). 가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대원이 모두 이주민인 경우 이주민 가구로 간주된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2014 EU-SILC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705>

그림 3.18. 이주상태별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
밤에 혼자 동네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 16세 이상의 비율, 2013년경



주: EU-SILC(그림의 좌측)의 데이터는 “어두워진 후 지역에서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안전함” 또는 “꽤 안전함”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준다. 독일 및 비유럽 국가의 데이터(우측)는 “도시나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질문 문구의 차이 때문에 EU-SILC와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2013 EU-SILC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및 갤럽 세계 설문조사(2008-2015)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724>

개인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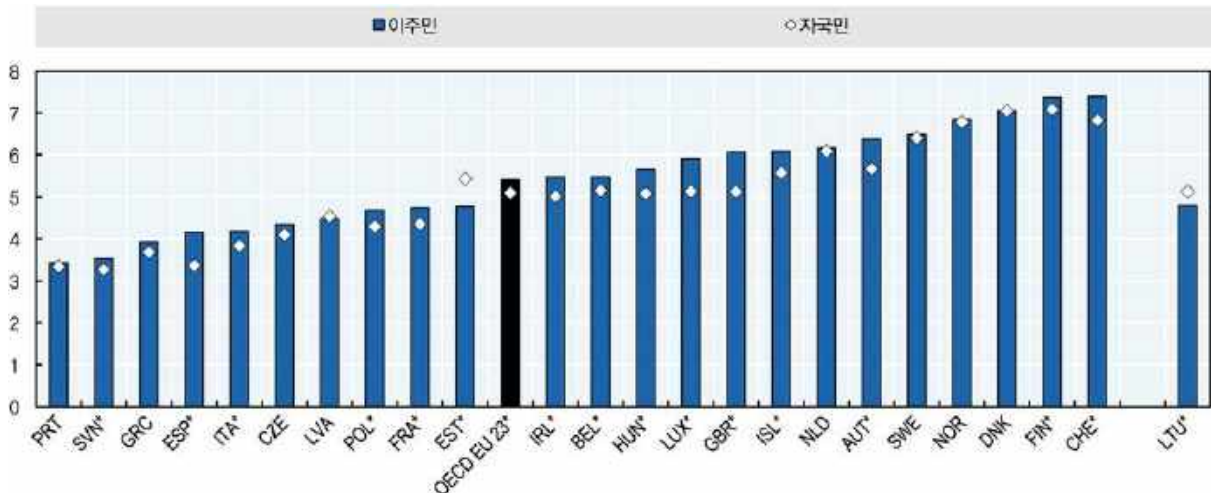
24개 유럽 국가에서 이주민은 자국민에 비해 자신의 지역에서 **매우 안전하거나 꽤 안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약간 낮다(그림 3.18). 그 차이는 동유럽 국가(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할 가능성이 최소 12% 포인트 더 높다.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주민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들은 합법적 신분(예: 시민권, 거주 허가 유형)과 정부 관료 조직 및 절차를 찾는 능력에 따라 특정 형태의 시민 참여(예: 투표) 또는 특정 공공 서비스(예: 의료)에서 종종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23개 유럽 OECD 국가에서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자국민보다 **정치 시스템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3.19). 출신 국가의 상황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비롯해 다양한 요인이 이주민의 신뢰감을 약간 높일 수 있다.¹⁴

이주민은 거주 국가에서 시민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때 많은 법적, 사회적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과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20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없다**”는 진술에 동의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준다. 데이터가 있는 21개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외국 태생은 자국민에 비해 정부에 발언권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그 패턴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이탈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스에서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정부 결정에 발언권이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 낮다.

그림 3.19. 이주상태별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0~10 척도의 평균 값,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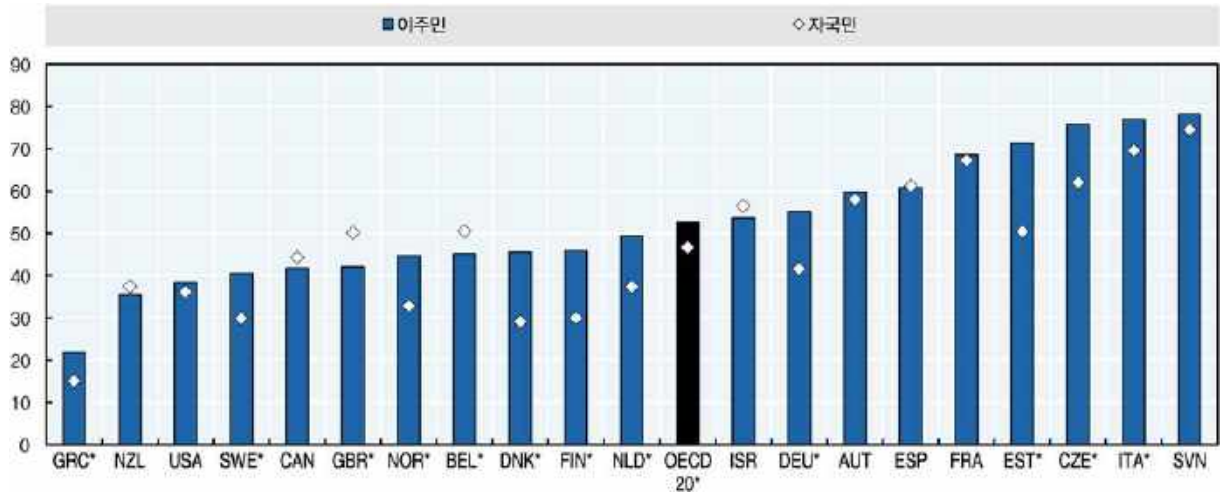


주: EU-SILC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개인적으로 정치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0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응답한다. 여기서 0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은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출처: 2013 EU-SILC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743>

그림 3.20. 이주상태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없다는 생각하는 성인의 비율, 2012~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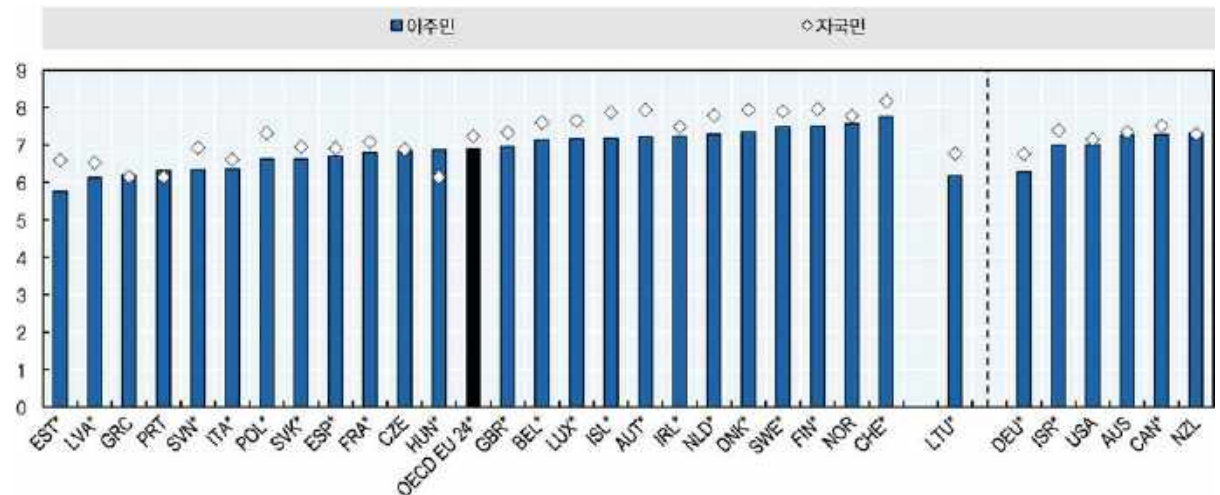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없다”는 진술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영국의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로 제한되며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 지역에 국한된다. 그리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베니아의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2~2016년이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은 2008~2013년이다. 성인은 16~65세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성인역량조사(PIAAC) (2012, 2015)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fr/competences/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762>

그림 3.21. 이주상태별 삶의 만족도
16세 이상의 인구, 0~10 척도의 평균 값, 2013년경



주: EU-SILC(차트의 좌측)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0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 10은 ‘완전히 만족함’이다.” 갤럽 세계 설문조사(우측)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바닥의 0부터 꼭대기의 10까지 번호가 매겨진 계단이 있는 사다리를 상상해보라. 사다리의 꼭대기는 최고의 삶을 나타내고, 사다리의 바닥은 최악의 삶을 나타낸다. 계단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며, 낮을수록 만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개인적으로 사다리의 어떤 계단에 있다고 느끼는가? 당신이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계단은 무엇인가?” 질문 문구의 이 같은 차이 때문에 EU-SILC와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2013 EU-SILC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및 갤럽 세계 설문조사(20082015)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781>

주관적 웰빙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이주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방식은 이주 과정 자체의 용이함이나 어려움, 이주 대상국의 현실과 이주 전 기대가 일치하는 정도, 시간 경과에 따른 이주민의 환경과 열망의 진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다.¹⁵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는 자국민보다 낮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덴마크,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유럽 외에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두 인구 사이의 삶의 만족도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21).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은 복잡하며, 국가별로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 수준 차이는 교육 수준,

박스 3.7. “대응되는” 체류자와 이주민의 삶의 만족도 비교

이주민의 삶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자국민보다 낮지만 흥미로운 질문은 출신 국가에 남겨진 사람과 이주민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림 3.22는 소득 수준, 출생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응되는 체류자(성별, 나이, 교육, 출신 국가, 종교적 소속, 인터뷰 연도가 동일한 출신 국가의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한 전체 OECD 국가의 이주민 표본에 대한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저소득 국가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출신의 이주민이 해당 지역의 체류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고소득 국가와 북미, 유럽,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주민은 고국에 남아 있는 동료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의 출생 국가와 거주 국가의 소득 수준 차이가 비이주민에 비해 이주한 이후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IOM, 2013, Hendriks, 2015).

그림 3.22. 출생 국가와 지역의 소득 수준별 이주민과 대응하는 체류자의 삶의 만족도

0~10 척도의 평균 값, 2006~2015년



주: 대응하는 체류자는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 matching)에 의해 선택되었다. 대응하는 체류자는 성별, 나이, 교육, 출신 국가, 종교적 소속, 인터뷰 연도가 동일한 출신 국가의 사람들을 나타낸다. 결과는 OECD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서 2006-2015년에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는 90% 신뢰 구간에서 이주민과 대응하는 체류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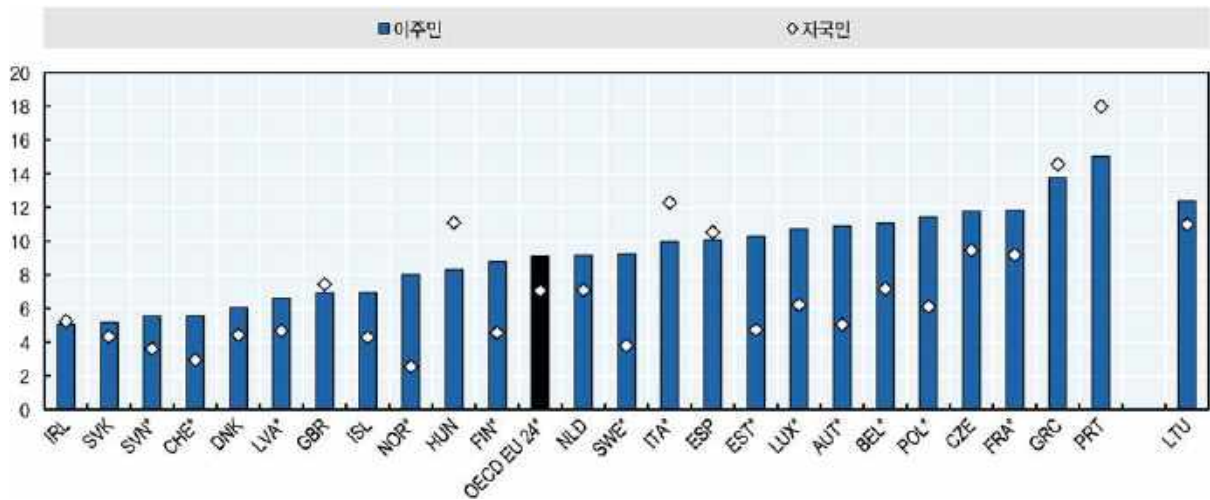
출처: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800>

출신 국가, 고용 상태, 이주 이유, 거주 국가의 상황 측면에서 이주민의 구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갤럽 세계 설문조사의 증거는 출신 국가의 소득 수준이 이주민이 고국에 있는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가리킨다(박스 3.7).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또는 영향) 측정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 및 통합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주민에게 특히 중요하다(박스 3.4 참조). 데이터가 있는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이주민은 일반적으로 과거 4주 동안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에 낙담하거나 우울한 것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24개국 평균 이주민 9%, 자국민 7%, 그림 3.23).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보고한 이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체코)는 이러한 감정을 보고한 자국민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의 격차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에서 매우 크며, 자국민에 비해 낙담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는 이주민이 약 2배 많다.

그림 3.23. 이주상태별 낙담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16세 이상 인구의 비율, 2013년



주: 데이터는 “지난 4주 동안 낙담하거나 우울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는 90% 신뢰 구간 분석을 기반으로 이주민과 자국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출처: 2013 EU-SILC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819>

이주민의 웰빙 측정에 대한 향후 통계적 의제

이주는 국제 의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주민을 통합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 시키며 역량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려면 이주민의 웰빙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규칙적인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세부 목표 10.7) 경제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목표 8)와 관련하여 이주 근로자(다른 그룹도

포함)의 요구를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UN 2030 의제의 중심에 있는 목표이다. 이주 신분은 목표 17에 따라 SDG 지표를 분리하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UN, 2015).

이주민 신분에 따른 웰빙 성과의 측정은 공식 통계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고, 한 국가 내의 이주민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이주 대상국에 도착한 후 이주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의 웰빙과 관련한 다양한 결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다른 그룹(또는 다른 이주민 그룹 사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 일은 추가적인 이슈를 제기한다. 행정 데이터 출처는 이주민 흐름과 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웰빙 성과와 동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폭과 깊이를 제공할 수 없다. 가구 설문조사는 다양한 차원에서 웰빙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지만 아래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주민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향후 통계적 의제에 대한 주요 우선순위를 강조할 수 있다.

- 이주민을 위한 웰빙 성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성과를 형성하는 데 있어 여러 요인과 특성의 역할을 이해할 때 가장 심각한 장애물 중 하나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주민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사실이다. 이주민은 OECD 국가의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지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 적합한 표본 설계는 이주민 그룹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표본 크기를 늘리는 것과 같이 기존 설문조사의 방법론을 채택하면 이주민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teinbuka, 2009). 무응답 비율을 줄이도록 설문조사 설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U 노동력 조사(EU-LFS)와 유럽의 소득 및 생활 여건 조사(EU-SILC)는 최근 이주민 성과에 대한 특별 모듈을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경험은 다른 조사와 국가에서 이주민 성과의 측정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주민 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세분화된 데이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하위 그룹을 식별할 수 있는 추가 설문조사 질문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구 설문조사(예: 나이, 성별, 교육 성취도)에 포함되는 중요한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변수 외에도 일부 이주민에 특정된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출생 국가, 체류 기간, 이주 이유가 포함된다. 그러한 변수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험(예를 들어, 2017년부터 독일 노동력 조사는 이주 이유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은 다른 국가에 유용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 기존 설문조사의 방법론을 수정하기 너무 어렵고 자원이 허락하는 경우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 조건 및 외국인 시민의 통합(Social Conditions and Integration of Foreign Citizens, SCIF) 조사를 통해 이탈리아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주민 성과 조사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가장 취약한 이주민, 특히 표준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데이터 수집에 포함시키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웰빙 결핍의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특정 이주민 그룹을 대상으로 진전을 보였다. 호주의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구축(Australia's Building a New Life) 설문조사가 이에 해당되며, 최근 도착한 인도주의적 이주민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밀입국 및 불법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난민, 망명 신청자, 단기 및 순환 이주민 등 공식 출처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주민을 식별하기 위해 더욱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슈틀랜드 워킹 그룹 태스크포스(Suitland Working Group Taskforce)는 그러한 이주민을 확인하려는 작업을 시작했지만(UNECE, 2012) 해당 그룹의 웰빙 성과 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은 통계청의 현재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

- 시간 경과에 따라 개별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웰빙 성과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종단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가능한 경우, 전국적으로 이주민 성과에 대한 종단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별 조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장기적 데이터 작업의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등 현재 많은 국가가 종단적 이주민 조사를 경험하고 있다.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은 통계청이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러한 조사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주민 웰빙의 여러 주요 영역에서 조화롭고 상세한 공식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 고용과 교육에 대한 데이터(그리고 보다 적게는 소득과 자산)를 사용하여 꽤 다양한 이주민 성과를 분석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공식 출처의 데이터는 이주민의 건강 상태, 개인적 안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사회적 관계 또는 주관적 웰빙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차원의 경우 이것은 일반적인 측정의 부족을 반영하지만(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웰빙 등) 건강이나 개인적 안전과 같은 다른 경우에는 출처 데이터에서 이주민을 식별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조화되지 않은 변수의 결과이다. 이러한 영역에서 조화롭고 상세한 공식 데이터의 가용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

1.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이주에 관련된 사람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봄과 가을 사이에 20% 포인트 증가하여 이주가 테러, 경제 상황, 실업, 범죄보다 2015년 가을에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우려사항이 되었다(EC, 2015).
2. 이주에 관한 OECD 활동 개요는 <http://www.oecd.org/migration-insights/>을 참조한다. 특히, 정착: 이주민 통합의 지표(Settling In: Indicators of Migrant Integration)(OECD, 2012, OECD/EU, 2015)라는 간행물은 노동시장, 일자리 질, 교육, 소득, 주택, 건강, 시민 참여, 사회 응집성 등 'How's Life?'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 결과를 조사했다. 이러한 차원은 이주민 통합의 "사라고자 지표(Zaragoza indicators)"라는 유럽 프레임워크와 일치한다(EC, 2013).
3. 과거 OECD 활동에서는 6가지 카테고리의 영구 이주를 정의했다. 1) 근로자, 2) 근로자의 동반 가족, 3) 가족 재통합 및 형성, 4) 인도주의, 5) 자유 이동(예: EU의 자유 이동 지역 내에서) 6) 퇴직자,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 조상 기반 이주자,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이주 등 "기타"(Fron 외, 2008). 2015년에 OECD 국가의 새로운 이주민이 가장 많이 포함된 카테고리는 가족 재통합으로 전체 이주민의 32%를 차지했으며, 자유 이동이 32.6%였다. 나머지 1/3은 근로자(11.2%), 인도주의 이주민(12.8%), 근로자의 동반 가족(6.6%), 기타(5.2%, OECD, 2017a)로 나뉘었다. 또한 계절 근로자, 회사 내부 이동, 워킹 홀리데이 참여자, 유학생 등 여러 유형의 일시적 이주가 있다(OECD, 2016a).
4. 출신, 이주 이유, 주요 인구통계 변수 측면에서 이주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구 조사 또는 행정 기록은 소득, 노동시장 지위, 교육 외에 웰빙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호주, 캐나다 등 일부 OECD 국가는 인구조사나 다른 조사와 행정 데이터를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세트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 호주 인구조사 및 이주민 통합 데이터세트(Australian Census and Migrants Integrated Dataset, ACMID), 호주 개인 소득세 및 이주민 통합 데이터세트(Personal Income Tax and Migrants Integrated Dataset, PITMID), 캐나다 종단적 이주 데이터베이스(캐나다 국세청의 세금 기록과 캐나다 이민국 행정 파일의 입국 정보 결합)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주민 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 좁은 범위의 결과만 포함한다.

5. 밀입국 또는 미승인 이주민의 규모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표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총 인구의 3.4%(피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2016), EU의 외국 태생 인구의 7~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CLANDESTINO, 2009).
6. 이러한 조사의 예로는 미국과 멕시코의 이주민과 체류자를 인터뷰 했던 멕시코 이주 프로젝트를 위한 1987년 조사(Massey 외, 1987), 아프리카의 8개 국가를 포함한 1993년 REMUAO 설문조사, 1994~1999년에 아프리카의 5개국과 유럽의 3개 이주 대상국을 포함한 국제 이주의 추진 요인과 유인 요인 조사(EC, 2000)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의 이주에 초점을 맞춘 2008년에 시작한 MAFE 연구 프로젝트(www.mafeproject.com) 등이 있다.
7. 그 예로는 1994년에 시작하여 2000~2004년에 재 실시된 호주 이주민에 대한 종단적 조사(LSIA), 2013년에 시작되어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초점을 맞춘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구축(BNLA), 2001년에 시작된 캐나다 이주민에 대한 종단적 조사, 2003년에 시작된 미국 신규 이주민 조사, 2004년에 시작된 종단적 이주 조사: 뉴질랜드(LisNZ), 2010년에 시작한 프랑스의 첫 도착 시 통합에 대한 종단적 조사(ELIPA) 등이 있다.
8.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이주민 인구를 세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주민은 1) 출생 국가와 거주 국가가 다른 사람, 2) 국적이 거주 국가와 다른 사람, 또는 3) 거주 국가가 1년 이상 변경되어 목적지 국가가 거주 국가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각 접근법은 강점과 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을 외국 태생 인구로 정의하는 것은 일관되고 객관적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고려되는 사람을 이주민으로 분류한다(해외에 주둔 중인 군인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 이주민을 내국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거주 국가를 변경하고 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제외한다. 사람들은 법적 신분보다 문화적 소속을 근거로 자신의 국적을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정의(UN의 영구 이주 정의)는 한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에 대한 사람들의 의도가 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9. 2015년 ‘정착’은 OECD의 가구소득 정의 대신 Eurostat의 빈곤에 대한 정의인 국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사용했다.
10. 역량 불일치는 국가 간의 학위와 경력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이다. 이주 대상국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주 대상국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주민의 역량과 자격은 고용주에 잘 전달되지 않으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1. 수학, 읽기, 과학 평가를 합산하여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국가와 가장 높은 OECD 국가 사이의 차이는 2015년에 125점이었다(이번 판의 제1장과 제5장을 뒷받침하는 온라인 데이터 부록 참조, 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12. 이 패턴의 동인은 불분명하다. 이주민과 자국민 간 차이는 성별 및 거주 국가뿐 아니라 건강 차원에서 다를 수 있다. 또한 출신 국가로 돌아간 아픈 이주민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 분석은 하향 편향될 수 있다(Neuman, 2014).
13. 독일에서는 EU-SILC 마이크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EU-SILC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주민 신분에 따라 계산할 수 없었다.
14. 출생 국가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들은 이주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Nikolova 및 Graham, 2015). 특히 정치적 망명자는 정부가 가하는 폭력과 억압을 피해서 책임 있는 정부가 지지하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에 도착했을 수 있다.

15. 매우 복잡한 이주민의 주관적 웰빙을 자세히 탐구할 수 있는 조사는 거의 없지만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이주민에 대한 종단적 조사는 이주 이후의 삶에 대한 이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묻는 질문을 했다. 많은 문제(예: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이주 이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캐나다 통계청, 2007).

참고문헌

- Beauchemin, C. and A. González-Ferrer (2011), “Sampling international migrants with origin-based snowballing method: New evidence on biases and limitations”, *Demographic Research*, Vol. 2, pp. 103-134.
- Bhugra, D. et al. (2011), “WPA guidance o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care in migrants”, *World Psychiatry*, Vol. 10, No. 1, pp. 2-10.
- Bodvarsson, Ö.B. and H. Van den Berg (2013),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Theory and Policy*, Springer Verlag, New York.
- Bonnefoy X. (2007), “Inadequate housing and health: An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and Pollution*, Vol. 30, Nos. 3/4, pp. 411-429, <http://dx.doi.org/10.1504/IJEP.2007.014819>.
- Borjas, G. (1987), “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migran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pp. 531-553.
- Brücker et al. (2017), “Forced migration, arrival in Germany, and first steps toward integration”, *Brief Analyses of the Migration, Integration and Asylum Research Centre of the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No. 5/2016,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EN/Publikationen/Kurzanalysen/kurzanalyse5_iab-bamf-soep-befragung-gefuechtete.pdf?__blob=publicationFile.
- Bryant, J. and P. Merwood (2008), “Reasons for migrating and settlement outcomes: Evidence from the longitudinal immigration survey New Zealand”, *Labour, Employment and Work in New Zealand 2008*, Victoria University, New Zealand, <https://ojs.victoria.ac.nz/LEW/issue/view/169>.
- Chen, M., C. Lin and G. Lien (2011), “Modelling job stress as a mediating role in predicting turnover intention”,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Vol. 31, No. 8, pp. 1327-1345, <http://dx.doi.org/10.1080/02642060903437543>
- CLANDESTINO (2009), “Size of irregular migration”, *CLANDESTINO Policy Briefs*, http://irregular-migration.net/typo3_upload/groups/31/4.Background_Information/4.2.Policy_Briefs_EN/ComparativePolicyBrief_SizeOfIrregularMigration_Clandestino_Nov09_2.pdf.
- Costa, G. (1996), “The impact of shift and night work on health”, *Applied Ergonomics*, Vol. 27, No. 1, pp. 9-16.
- Dolan, P., T. Peasgood and M. White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9, No. 1, pp. 94-122.
- EC (European Commission, 2015),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Standard Eurobarometer Report*, No. 84, Autumn,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index.cfm/Survey/getSurveyDetail/instruments/STANDARD/surveyKy/2098>
- EC (European Commission, 2013), *Using EU Indicators of Migrant Integration: Final Report for Directorate-General for Home Affairs*, <https://ec.europa.eu/migrant-integration/index.cfm?action=media.download&uuid=FC375682-95DF-1B86-CF670D84CA41C2D6>.

- EC (European Communities, 2000), “Push and Pull Factor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comparative Report”, <https://www.nidi.nl/shared/content/output/2000/eurostat-2000-theme1-pushpull.pdf>
- Erens, B. (2013), “Designing high-quality surveys of ethnic minority groups in the United Kingdom” in Font, J. and M. Méndez (eds.), *Surveying Ethnic Minorities and Migrant Populations: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Research Strategies*,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sterdam.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Clarendon Press, Oxford.
- Fenta, H., I. Hyman and S. Noh (2004),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Vol. 192, No. 5, pp. 363-372.
- Fitzgerald, D. (2014), “The sociology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C. Brettell and J.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Routledge.
- Font, J. and M. Méndez (2013), “Introduction: The methodological challenges of surveying populations of migrant origin”, in J. Font and M. Méndez (Eds.), *Surveying Ethnic Minorities and Migrant Populations: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Research Strategies*,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sterdam.
- Fron, P. et al. (2008), “Standardised statistics on migrant inflows: Results, sources and methods”, unpublished OECD Paper, www.oecd.org/els/mig/41281008.pdf.
- Hendriks, M. (2015), “The happiness of international migrants: A review of research findings”, *Migration Studies*, Vol. 3, No. 3, pp. 343-369, <https://academic.oup.com/migration/article/3/3/343/2413187/The-happiness-of-international-migrants-A-review>.
- Hovey, J.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Mexican 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 6, No. 2, pp. 134-151.
- Hovey, J. and C. King (1997), “Suicidality among acculturating Mexican American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researc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7, No. 1, pp. 92-103.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3), *World Migration Report 2013: Migrants’ well-being and Development*, IOM, Geneva, <https://www.iom.int/wmr2013>
- Jenkinson, R., M. Silbert, J. De Maio and B. Edwards (2016), “Settlement experiences of recently arrived humanitarian migrants”, *Building a New Life in Australia Fact Sheet 2016*,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https://aifs.gov.au/publications/settlement-experiences-recently-arrived-humanitarian-migrants>
- Lee, E.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Vol. 3, No. 1, pp. 47-57.
- Kanas, A. and F. Tubergen (2009),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http://dx.doi.org/10.1353/sof.0.0269>
- Liebig, T. and S. Widmaier (2009), “Children of immigrants in the labour markets of EU and OECD countries: An overview”,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97, www.oecd.org/berlin/43880918.pdf.
- Liebkind, K. (1996), “Acculturation and stress: Vietnamese refugees in Fin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7, pp. 161-180.
- Massey, D. et al. (1987), *Return to Aztlán: The Soc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Western Mexic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Maynard, D., T. Joseph and A. Maynard (2006), “Underemployment, job attitudes, and turnover inten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ur*, Vol. 27, pp. 509-536, <http://dx.doi.org/10.1002/job.389>
- Mincer, J. (1978), “Family migration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No.5, pp.749-73.
- Neuman, S. (2014), “Are immigrants healthier than native residents?”, *IZA World of Labour*,

- <https://wol.iza.org/uploads/articles/108/pdfs/are-immigrants-healthier-than-native-residents.pdf?v=1>
- Nikolova M. and C. Graham (2015), “Well-being and emigration intentions: New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Working Paper, Unpublished, http://conference.iza.org/conference_files/transatlantic_2015/nikolova_m9715.pdf.
- OECD (2017a),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1999124x>
- OECD (2017b), Foreign-born population (indicator), <http://dx.doi.org/10.1787/5a368e1b-en> (Accessed on 22 February 2017)
- OECD (2017c),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database), doi: <http://dx.doi.org/10.1787/data-00342-en>, (Accessed on 17 July 2017)
- OECD (2017d), Net ODA (indicator). <http://dx.doi.org/10.1787/33346549-en> (Accessed on 06 July 2017)
- OECD (2016a),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migr_outlook-2016-en
- OECD (2016b), PISA 2015 Results (Volume 1):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6490-en>
- OECD/EU (2015), Indicators of Migrant Integration 2015: Settling I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4024-en>
- OECD (2015), Immigrant Students at School: Easing the Journey Towards Integr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49509-en>
- OECD (2013),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92-en>
- OECD (2012), Settling In: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1534-en>
- Picot, G. and F. Hou (2013), “Why immigrant background matters for university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Switzerland and Canad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7, No. 3, pp. 612-642.
- Polachek, S. and F. Horvath (1977), “A life cycle approach to migration: Analysis of the perspicacious peregrinator”, in *Research in Labor Economics* (Eds. Ehrenberg and Ronald), JAI Press, Greenwich, Connecticut.
- Pew Research Center (2016), “Overall number of U.S. unauthorized immigrants holds steady since 2009”, Press Release, 20 September 2016, <http://www.pewhispanic.org/2016/09/20/overall-number-of-u-s-unauthorized-immigrants-holds-steady-since-2009/>
- Prilleltensky, I. (2008), “Migrant Well-being is a Multilevel, Dynamic, Value Dependent Phenomen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42, pp. 359-364.
- Rechel, B., Mladovsky, P. Devillé, W. Rijks, B. Petrova-Benedict, R. and M. McKee (2011), “Migration and health in the European Union: An introduction” in Rechel et al. (Eds), *Migration and Health in the European Union*, Open University Press, England.
- Rechel, B., P. Mladovsky, D. Ingleby, J.P. Mackenbach and M. McKee (2013), “Migration and health in an increasingly diverse Europe”, *The Lancet*, Vol. 381, p. 1235-1245.
- Robert, A-M. and T. Gilkinson (2012), “Mental health and well-being of recent migrants in Canada: Evidence from the Longitudinal Survey of Migrants to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Research and Evaluation Papers*,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research/mental-health.asp>
- Rumbaut, R. (1995),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8, pp. 795-820.

- Sjaastad, L.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No.2, pp. 80-93.
- Statistics Canada (2007), "Immigrants' perspectives on their first four years in Canada", *Canadian Social Trends, Special Edition 2007*, <http://www5.statcan.gc.ca/olc-cel/olc.action?objId=11-008-X20070009627&objType=47&lang=en&limit=0>
- Šteinbuka, I. (2009), "How to improve social surveys to provide better statistics on migrants", DGINS Conference Paper,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1001617/4339944/Improving-survey-data-I-Steinbuka.pdf/e90f6527-af4d-4585-8f3d-d7dde093b148>
- Stillman, S. et al. (2012), "Miserable migrants? Natural experiment evidenc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obj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6871, <http://ftp.iza.org/dp6871.pdf>.
- UN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2), "Measuring hard-to-count migrant populations: Importance, definitions, and categories",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Group of Experts on Migration Statistics, Working Paper 9*, https://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ge.10/2012/WP_9_UNECE.pdf
-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2017),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6", <http://www.unhcr.org/en-ie/5943e8a34.pdf>
- Williams, D. and M. Harris-Reid (1999), "Race and mental health: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Ethnicity and Health*, Vol. 5, pp. 243-268.
- Williams, D. et al. (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 pp. 335-351.
- World Bank (2017), "Migration and remittances: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special topic: Global compact on migr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s*, No. 27 (April 2017), <http://pubdocs.worldbank.org/en/992371492706371662/MigrationandDevelopmentBrief27.pdf>.

이주민 현황에 대한 전문 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 Australian Census and Migrants Integrated Dataset (ACMID):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3417.0.55.001Main+FeaturesI2011>
- Australian Personal Income Tax and Migrants Integrated Dataset (PITMID):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1351.0.55.060>
- Building a New Life in Australia (BNLA):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mes-services/building-a-new-life-in-australia-bnla-the-longitudinal-study-of-humanitarian-migrants>
- Canadian Longitudinal Immigration Database: <http://www23.statcan.gc.ca/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5057>
- IAB-BAMF-SOEP Refugee Survey: https://www.diw.de/de/diw_02.c.244287.de/ueber_uns/menschen_am_diw_berlin/mitarbeiter/innen.html?id=diw_01.c.538695.en
- IPUMS Integrated Public-Use Microdata Series: <https://www.ipums.org/>
- Longitudinal Immigration Survey: New Zealand (LisNZ): 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population/Migration/lisnz.aspx
- Longitudinal Survey of the Integration of First-Time Arrivals (ELIPA), France: <http://www.immigration.>

interieur.gouv.fr/Info-ressources/Donnees-statistiques/Etudes-et-publications/Enquete-Longitudinale-sur-l-Integration-des-Primo-Arrivants-ELIPA/Enquete-Longitudinale-sur-l-Integration-des-Primo-Arrivants-ELIPA/ELIPA-Longitudinal-Survey-of-the-Integration-of-First-time-Arrivals

Longitudinal Survey of Migrants to Canada: <http://www23.statcan.gc.ca/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4422>

Longitudinal Survey of Migrants to Australia (LSIA):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3414.0main+features22011%20\(Edition%202\)](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3414.0main+features22011%20(Edition%202))

National Immigrant Survey of Spain (Encuesta Nacional de Inmigrantes): http://www.ine.es/en/daco/daco42/inmigrantes/inmigra_cues_en.htm

Social Condition and Integration of Foreign Citizens Survey, Italy: <https://www.istat.it/en/archive/19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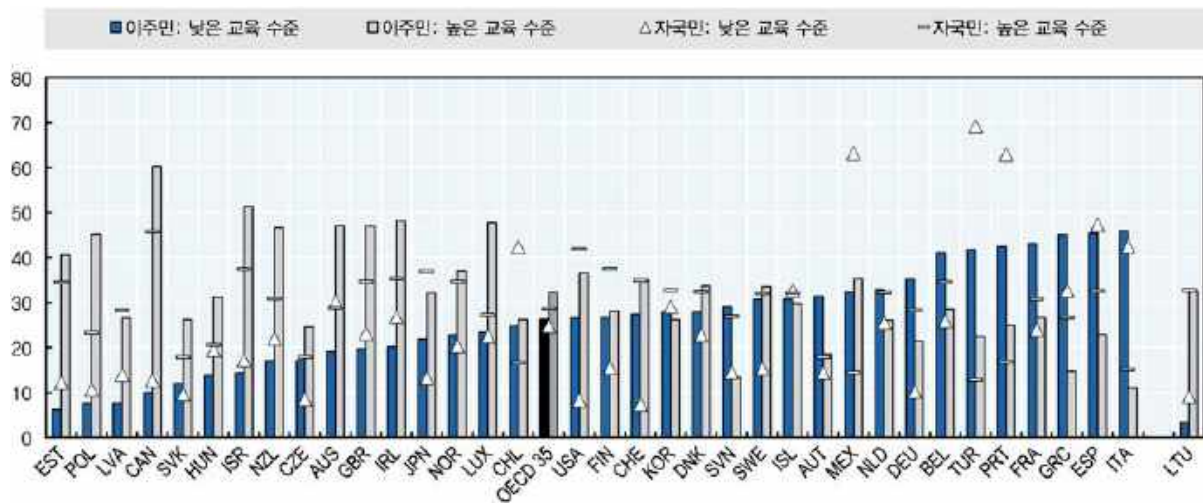
Trajectoires et Origines, France (National Diversity Survey, French only): <https://www.ined.fr/en/publications/grandes-enquetes/trajectoires-et-origines/>

United States New Migrant Survey: <http://nis.princeton.edu/>

부록 3.A.

이주민의 웰빙 측정에 관한 추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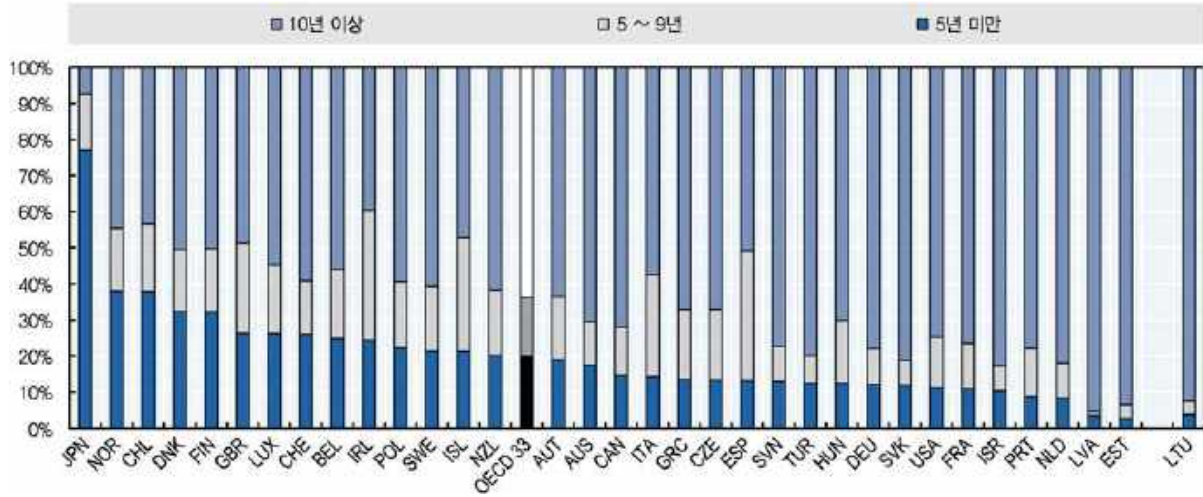
그림 3.A.1. 15~64세 자국민과 외국 출생의 교육 수준
교육 수준이 낮거나 높은 외국 출생 및 자국민의 비율, 2012-2013년



주: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낮은 교육 수준은 0-2 ISCED(대략 초등 교육 이하에 해당)에 해당하는 교육 성취도 수준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며 높은 교육 수준은 5-6 ISCED(대략 대학 교육 이상에 해당)에 해당한다. 이주민 인구에 대한 일본 데이터는 외국 태생이 아닌 외국인을 나타낸다. 교육 성취도가 낮은 이주민 인구의 비율에 따라 국가를 평가했다.
출처: OECD/EU(2015), EU 노동력 조사(EU-LFS)(2012-2013). 미국: 현재 인구 조사(CPS)(2013). 호주 교육 및 취업 조사(ASEW) 2013. 캐나다 및 뉴질랜드: 노동력 조사(2012-2013). 이스라엘: 노동력 조사(2011). 칠레: Encuesta de Caracterización Socioeconómica Nacional(CASEN)(2011). 멕시코: Encuesta Nacional de Ocupación y Empleo(ENOE)(2012). 일본 인구조사 2010. 한국: 외국인 노동력 조사(2012-2013) 및 한국인의 경제 활동 인구 조사(EAPS)(2012-20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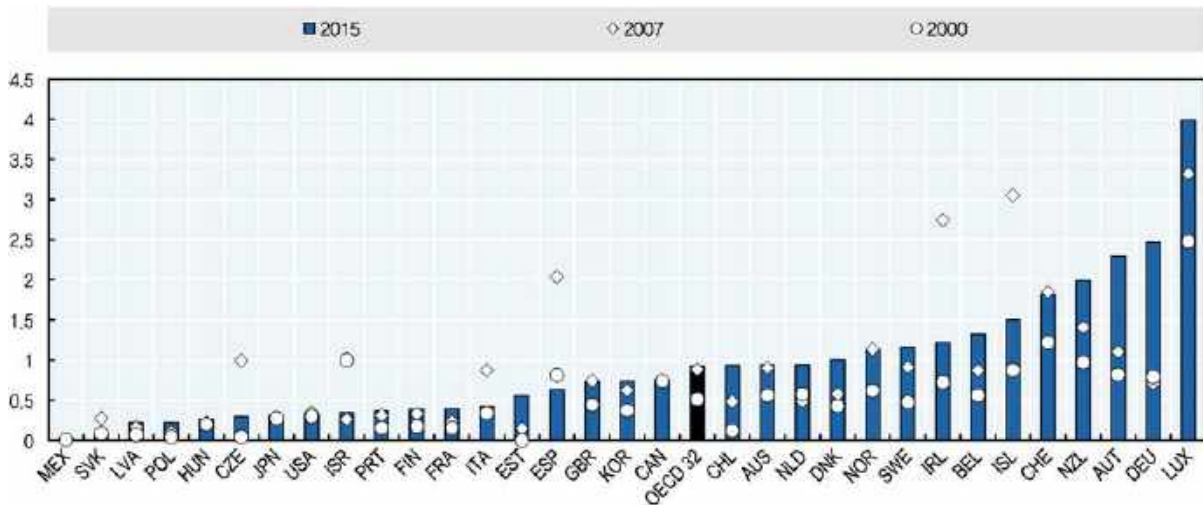
그림 3.A.2. 체류 기간별 15~64세 이주민의 분포
이주민 비율, 2012~2013년



주: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이주민 인구에 대한 일본 데이터는 외국 태생이 아닌 외국인을 나타낸다.
출처: OECD/EU(2015), EU 노동력 조사(EU-LFS) 2012-2013, 미국 커뮤니티 조사(ACS) 2012. 이스라엘 노동력 조사 2011.
기타 비유럽 국가의 경우 OECD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OECD 데이터베이스(DIOC) 2010-2011
<http://www.oecd.org/els/mig/oecdmigrationdatabases.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857>

그림 3.A.3. 연간 이주민 유입
총 인구의 비율



주: OECD 평균은 단순 국가 평균이다.
출처: 이주민에 대한 OECD 데이터베이스, <http://www.oecd.org/els/mig/oecdmigrationdatabases.htm> 및 UN 데이터베이스, 세계 인구 전망 <https://esa.un.org/unpd/wpp/Download/Standard/Popul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876>

제 4 장

거버넌스와 웰빙

웰빙을 측정하는 주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번 장에서는 현재 웰빙의 11가지 측면에서 OECD 국가의 성과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자본 자산(capital stocks)”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가구자산부터 여가 시간까지, 대기오염부터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까지 다양한 통계를 제공한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격변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의 웰빙 변화에 특히 중점을 둔다.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인 2005년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 제공된 개요는 현재 웰빙 성과의 불평등을 살펴보는 제2장과 각 OECD 국가와 OECD 파트너 6개국의 현황을 제공하는 제5장으로 보완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론: 거버넌스가 웰빙에 중요한 이유

공공기관의 활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실업, 장애 또는 퇴직의 경우에 대해 지원하고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지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4년 OECD 정부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연평균 GDP의 약 40%를 지출했다. 이러한 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기능하는 방식, 제공하는 성과, 그리고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얼마나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사람들의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일반 대중은 투표를 하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치 토론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러한 공공기관의 질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경험*하고 공공기관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How’s Life?’ 프레임워크에서 다루는 폭넓은 웰빙 성과의 형성에 있어 거버넌스가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정당한 가치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정치적 목소리와 대의권 및 대리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가치 판단적이며, 학문분야와 저자마다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다르다. 이번 장에서는 국가 차원(국제 및 지역 기관 제외)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기업 및 기타 민간기관 제외)에 초점을 맞춘 좁은 정의의 거버넌스를 채택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기능하는 방식과 일반 대중이 가치 있게 여기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결과가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¹ 이 과정에서 제4장은 정부기관이 기능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정치적 목소리와 대리권에 중요하며 사람들의 전반적인 웰빙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한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2009)의 견해를 따른다.²

최근 통계학자들은 거버넌스 측정 과제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통계청(예: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³)은 경제, 사회, 환경 영역과 더불어 거버넌스를 공식 통계자료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 통계 커뮤니티는 특히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17개 SDG 가운데 “평화, 정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 기관”을 가리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의 포용성에 따라 점차 이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⁴ 이러한 활동은 2016년 거버넌스 통계에 관한 UN 시티 그룹(City Group)(프라이아 그룹(Praia Group))의 창설에 반영되며, 주요 성과로는 2020년까지 거버넌스 통계 자료집 준비가 포함될 것이다. 다른 OECD 활동(예: González 외, 2017)과 함께 제4장은 프라이아 그룹의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16에 포함된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정확한 정량적 지표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 SDG 지표에 관한 UN 범부처전문가그룹(IAEG)은 2030

의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모니터링에 대한 169개의 세부 목표와 232개의 지표를 작성하고 합의했다. 여기에는 목표 16의 거버넌스 개념과 관련된 23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1/3이 계층 III(Tier III), 즉 확립된 방법론과 표준이 없고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없는 지표로 분류된다. 이번 장에 제시된 많은 지표는 목표 16에 정의된 세부 목표를 간략하게 다루며, 가장 두드러진 측정 문제를 포함한 측정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17년 가을에 발표된 *OECD 신뢰도 측정 지침(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2017a)은 이 분야에서 양질의 통계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료이다. 이 지침은 기존 신뢰도 측정의 통계적 품질에 대해 알려진 것을 철저히 검토하며 국가 통계청(NSO)이 설문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소수의 프로토타입 질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목표 16에 관련된 공식 통계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역에서 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는 SDG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사람, 거버넌스에 대한 견해, 공공기관이 사람들의 웰빙을 형성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공공기관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신원 기록을 얻는 것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 혜택을 누리고 공립학교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투표하거나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살 수 있고 자신들의 요구에 잘 대응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공공기관이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권력이 있고 인맥이 좋은 일부 사람들의 요구에만 대응한다고 인식되면, 기관의 정당성이 손상되고 신뢰를 잃게 되며 사람들의 웰빙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결국 현재의 삶이 악화될 뿐 아니라 미래에 공동체가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 의식이 낮아진다. 거버넌스가 실패하고 사람들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전체 사회가 몰락한다.

거버넌스는 2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공공기관은 평화, 사회 질서, 인권에 필수적인 기본 권리와 원칙을 보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정당성을 확보한다(Nussbaum, 2011). 제대로 운영되는 기관은 주로 공공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국가에서 민주적 과정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Helliwell 외(2014), Kim 및 Kim(2012), Ott(2010), Spence(2011), Dorn 외(2007)).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섹션은 거버넌스의 정의와 측정에 관련된 주요 개념 및 방법론적 과제를 설명하고, 이어서 이 분야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 정보원과 이번 장에 제시된 경험적 분석에 사용된 지표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선택된 각 거버넌스 측면에 대하여 OECD 국가의 평균 성과, 사람들의 경험 불평등,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결론 섹션에서는 통계청에서 생산한 다른 유형의 데이터 품질과 일치하는 거버넌스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통계 커뮤니티가 미래에 다뤄야 하는 주요 격차를 확인한다.

거버넌스의 정의와 측정

여러 주체와 기관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사용해왔다. 현재 사용하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점점 보편화되었고, “좋은 거버넌스”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암묵적인 규범적 판단을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는 경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Rothstein 및 Tannenberg, 2014)과 새롭고 덜 계층적이며 더 참여적인 공공 관리 모델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⁶ 모호하고 광범위한 거버넌스 개념이 종종 논란이 되었지만(Plattner, 2013, Offe, 2009) 연구자와 조직들은 정치체제, 민주주의, 법치, 인권, 자유, 차별의 부재, 행정 절차의 투명성, 시민과 시민사회 조직의 참여, 규제, 정책 및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정치학자들은 또한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 결정의 “공정성”(실질적인 정책 내용과 무관한 요구사항(Rothstein 및 Teorell, 2008))과 “효과”(시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성과(Rotberg, 2014, Boardman, 2014))라는 좁은 개념부터 “국가 역량”(거시 경제 정책, 인구조사 데이터 생성 등 특정 분야에서 결과를 전달할 때), “관료주의적 자율성”(예: 정치적 방향에 대한 대응과 세심한 정치적 관리 회피 사이의 균형), 행정 절차의 질(예: 지원보다는 장점에 기반한 직원 선발(Holt 및 Manning, 2014)), “국가 형성”(조세 수준과 관료주의의 전문화), 법치(행정부에 대한 제약 측면), 책임성(유권자나 헌법 기관이 요구할 때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 결정에 답을 해야 하는 의무(Fukuyama, 2014))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치학자들은 좋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많은 구체적인 요소를 제안했다.⁷ 다양한 국제조직들도 자체적으로 거버넌스 정의를 제안했는데,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González 외, 2017). 거버넌스의 정의와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거버넌스와 같은 복잡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분석할 개념의 경계 내에 무엇이 속하는지 설명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González 외(2017)가 설명한 거버넌스를 해체하는 한 가지 방법은 3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1) 각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정치 및 철학적 이상을 반영하는 “원칙”, 2) 공공 행정을 통해 자원이 산출물(예: 재화와 서비스)로 변형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3) 모든 수준(정치와 행정)에서 공공기관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포착하는 “산출물”이다. 이러한 3개의 광범위한 영역에는 “산출물” 영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또는 “프로세스” 영역의 공공 무결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조건과 같은 더욱 구체적인 측면이 포함된다.⁸

거버넌스의 다른 영역들은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경험적으로 측정도 가능해야 한다. 표 4.1은 이번 장에서 상세히 검토된 거버넌스 측면을 보여준다. 어떠한 선택에서든 마찬가지로 주제 범위를 줄이는 것은 관련성이 있고 측정 가능한 여러 항목을 생략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프로세스의 범위(예산 관행 또는 공공 조달 절차 등)는 제한적이다. 이는 이번 장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 및 참여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일상적 운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OECD 주요 보고서인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OECD, 2017c)에는 정부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지표가 들어 있다.

표 4.1. 거버넌스 통계에서 선택된 영역과 차원

영역	질문	설명	선택된 측면
원칙	공공기관이 기능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참여 및 심의), 법 앞의 평등 촉진, 책임성과 같은 공동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정부 조치를 구성한다.	정치적 참여(투표 및 기타 형태의 정치 참여) 민주주의의 질(선거의 공정성과 자유, 정보의 가용성, 직접 참여) 공공 영역에 대한 대표성과 접근성(입법부 구성)
과정	공공기관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가?	번영을 이끌어내고 경제적/사회적 삶의 적절한 통제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리고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일관되고(사람과 시점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 정확하며(최신의 정확한 정보 사용) 수정 가능하고(검토, 항소 또는 보상의 기회 제공) 공정하며(공무원이 개인의 이익 및/또는 이념적 편향을 피함) 대표성을 띠고(모든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함) 윤리적(기본적인 도덕적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는 결정)이어야 한다.	예산 편성 관행 및 절차 인적 자원 관리 관행 공공 조달 열린 정부 관행 중앙 정부에서의 계획 및 조정 디지털 정부 규정 개발에 이해관계자 참여 공공기관의 부패 부재
산출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정당성을 보존하며, 정치적 대리권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만족도 정치 효능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원칙, 성과, 웰빙 사이의 관계가 보다 직관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조사되었지만, 일부 저자는 프로세스, 특히 *절차적 유용성*이 사람들의 웰빙을 강화하는 데 있어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Frey 외(2004)는 이 절차적 유용성을 자율성(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관련성(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필요성), 역량(환경을 통제하고 스스로 유능하고 능률적이라고 경험하는 성향)에 대한 요구를 다루는 제도화된 프로세스에서 생활하고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웰빙으로 정의한다. 결국, 절차적 유용성에 대해 조사된 측면 중 하나는 절차적 공정성이며,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절차)은 공공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것(산출물)만큼 중요하다.⁹ 서비스를 제공할 때 높은 기준을 따르고 모범사례를 준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공 행정의 책임에 속한다. Pearce(2007)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제공 시 절차적 공정성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만족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평가할 때 표현된 신뢰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지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실시한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인상에 관한 2016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에게 법적 절차의 결과와 “*법원과 재판소가 배경, 성별, 민족성 또는 신앙과 무관하게 양 당사자를 항상 공평하게 대한다*”고 느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¹⁰

거버넌스 측정을 위한 지표 및 데이터 출처 선택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른 접근법에 기반한 지표를 생성하기 위한 비옥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표의 일반적인 출처는 행정 기록, 전문가가 제공한 거버넌스의 특정 측면에 대한 정성적 평가, 가구 설문조사이다. 각 출처는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측정하기 어려운 거버넌스의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지만, 전문가 선정과 다양한 측정 이니셔티브의 후원자/자금 제공자의 관심과 타당성, 방법론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Broome 및 Quirk, 2015).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된 한 가지 방법론은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한 종합지수에 의존하는 것이다.¹¹ 종합적인 거버넌스 측정법을 개발하려면 사용할 원래 데이터(예: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의 평가), 자문을 구할 전문가의 유형과 수(학자, 공무원 등), 다양한 척도와 차원에 대한 가중치, 누락된 데이터 처리, 최종 지수에 적용될 품질 확인 등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OECD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는 OECD(2017c)에 기술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협소한 측면(규칙 제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등)에 대한 종합 지표에 오래 의존해왔다.

몇몇 비공식 가구 설문조사(예: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는 거버넌스의 특정 측면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거버넌스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은 없지만 국가 간에 일관된 질문에 의존하고 거버넌스와 사람들의 웰빙 간 연계성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2가지 장점이 있다. 가구 설문조사에 기반한 거버넌스 통계에 대해 관심이 증가한 것은 1회성 또는 특수 기능으로 상세히 거버넌스의 특정 차원을 분석하는 최근 비교 조사에 의해 입증된다. 예를 들어, 유럽사회조사에는 2012년 6번째 웨이브의 일환으로 유럽 민주주의 이해 및 평가(Europeans' Understandings and Evaluations of Democracy)에 대한 특별 모듈이 포함되었다. EU 지역 개발 위원회(EU Commission for Regional Development)도 부패와 서비스 질을 조사하는 유럽의 정부 질 조사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2010년에 첫 번째 웨이브가 실시되었다.¹²

이 장에 제시된 지표는 웰빙의 중요성에 관한 이론적 및/또는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선택되었다. 다양한 거버넌스 측면을 밝히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광범위한 출처를 활용한다. 이번 장은 여러 OECD 국가의 비교 증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회 조사, 1회성 조사와 같은 가구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가져왔으며, 전문가 평가에 기반한 데이터(즉 이해관계자 참여 및 사적 이해의 공개), 행정 데이터(즉 투표율)로 보완된다. 표 4.2는 이 장에 사용된 정보 출처를 설명하고 지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유형, 표본 크기, 대상 인구, 데이터 수집 빈도 등 각 출처의 주요 특성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IDEA)의 투표율, 갤럽세계여론조사의 신뢰도에 관한 데이터 등 일부 경우에 거버넌스 통계 수집은 표준화되었으며 체계적으로 정립된 주기를 따른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고 특별 연구 목적을 위해 데이터(예: 유럽 민주주의 이해 및 평가에 대한 유럽사회조사 특별 모듈, 유럽 거버넌스 질 조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분쟁 해결 모듈)가 수집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한 공식적인 비교 통계를 수집하려는 중요한 활동으로는 아프리카의 통계 조화 전략(Strategic for the Harmonization of Statistics in Africa, SHaSA)¹³이 있으며, 10개 이상의 아프리카 NSO에서 시행한 평화, 안전, 거버넌스 측정에 관한 조사 모듈을 설계했다(Razafindrakoto 및 Roubaud, 2015).

표 4.2. 이번 장에서 검토한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통계 출처

측면	출처	데이터 유형	표본 크기 (설문조사의 경우)	대표 인구	OECD 국가 범위	빈도	최신 연도
투표 및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	IDEA 데이터세트	행정 기록	..	투표 연령 인구	35	국가 선거일 기준	2015년 또는 최근 선거
	선거 선호도 비교 연구(CSEP)	선거 후 설문조사	500~3,000	투표 연령 인구	22	각국의 선거 주기 기준	선거 연도에 따라 2011~2016년
민주주의의 질	유럽사회조사(ESS)/ 특별 모듈	가구 설문조사	800(인구 200만 미만의 국가) ~1,500	15세 이상 인구	23	연 2회(특별 모듈은 1회성)	2012년
대표성 및 공공 영역에 대한 접근성(입법부 구성)	비교 후보자 조사(CCS)	총선 후보자 설문조사	명시되지 않음, 자기 응답 기반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보자	11	각국의 선거 주기 기준	2014년 또는 최근 선거
규제 개발 시 이해관계자 참여	유럽 삶의 질 조사(EQLS)	가구 설문조사	1,000~2,000	국가에 상주하는 인구	24	4년마다	2012년
	OECD 규제 지표 조사	전문가 평가	전문가 1명(코디네이터)	..	35	현재 형태로 한 번	2014년
공공기관의 부패 부재	갤럽세계여론조사	가구 설문조사	1,000	15세 이상 인구	32	2006년 이후 연간	2016년
	유럽 거버넌스 질 지수 조사	가구 설문조사	800~8,500	18세 이상 인구	19	2010년과 2013년	2013년
서비스 만족도	갤럽세계여론조사	가구 설문조사	1,000	15세 이상 인구	35	2006년 이후 연간	2016년
	유럽 거버넌스 질 지수 조사	가구 설문조사	8,00~8,500	18세 이상 인구	19	2010년과 2013년	2013년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분쟁 해결 조사 모듈	가구 설문조사	1,000	각 국가의 3대 도시에서 18세 이상 인구	13	연간(특수 모듈 한 번만)	2016년
정치 효능감	OECD 성인역량조사	가구 설문조사	5,000	16~65세 인구	28	1회(각 데이터 수집에 여러 국가 포함)	2008~2013년 및 2012~2016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갤럽세계여론조사	가구 설문조사	1,000	15세 이상 인구	35	2006년 이후 연간	2006년과 2016년
	유럽사회조사	가구 설문조사	1500~800	15세 이상 인구	19	연 2회(핵심 및 특별 순환 모듈)	2002년과 201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 통계는 제한적이다. 경우에 따라 출처가 다르면 특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가별 성과에 대한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확립된 방법론의 부재와 가장 의미 있는 지표를 식별하기 위한 추가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와 웰빙에 대한 증거

OECD 국가가 거버넌스의 일부 측면과 관련하여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비교 증거는 표 4.2의 상세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 섹션에 제시된다. 제시된 증거는 광범위한 3개 영역의 “원칙”(투표율, 정치 참여, 민주주의의 평가), “과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부패), “산출물”(공공 서비스 만족도, 정치 효능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표 4.1에 포함된 차원과 관련이 있다.

원칙

투표율

고대 아테네의 경험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는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민주주의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를 실제로 측정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쉬웠다.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개념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밀도가 부족하며 역사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했다고 인정했다(Bauman 및 Bordoni, 2014). 그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사회 조직의 “가장 덜 나쁜” 형태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⁴ 결국 좋은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Rodrik, 2007). 또한 사람들이 각자 선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정치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완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Nussbaum의 인간 발달 모델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정책에 선택권을 갖는 것은 기본 권리와 자격이 뒷받침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Nussbaum, 2010).

Dahl(1971)은 참여와 논쟁의 주기에서 선거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소 표준을 확인했다. 민주주의의 이 같은 최소주의(minimalist) 버전은 정기적인 선거를 수반한다.¹⁵ 모든 OECD 국가에서 투표권은 시민 대부분으로 확대되며 보편적이다.¹⁶ 그러나 시민의 투표권 행사 여부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 투표가 의무인 국가(예: 호주, 벨기에)에서 투표 연령 인구 비율로 나타낸 투표율은 90% 이상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결정하고 직접 참여 메커니즘이 강한 국가(예: 스위스)에서는 총선 참여율이 50% 미만이다.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민주주의 문제의 징후 중 하나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다(Bauman 및 Bordoni, 2014).¹⁷ 그림 4.1은 1960년대 이후 6개 주요 OECD 국가의 의원 선거 투표율을 투표 연령 인구의 비율로 보여준다. 이 데이터는 대통령 및 의원 선거의 투표율 정보를 가장 포괄적으로 수집한 IDEA 데이터에서 가져온 것이다. 행정 기록에서 나온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화된 하향 추세를 강조하며, 다양한 다른 연구에서도 문서화되었다(예: Delwit(2012), IDEA(2016)). 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표에 의존하는 시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민주주의의 충족되지 않은 기대(Rothstein 및 Tannenber, 2014)와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Grönlund 및 Stäelä, 2007)의 조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투표율은 특성이 다른 사람들 간에 크게 다르다. 그림 4.2는 전체 OECD 국가에서 두 시점에 (2006~2011년과 2011~2016년에 각각 치러진 선거에 해당) 서로 다른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인구집단의 자기보고 투표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응답자에게 최근 투표 참여 여부를 질문한 설문조사에서 가져왔고, 주요 선거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 응답자의 자기보고를 토대로 선거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선거제도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에 의해 수집된다.

가장 최근 기간에 OECD 국가에서 약 80%의 투표 연령 인구가 2011~2016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2006~2011년의 전체 투표율과 유사하다.¹⁸ 투표율은

그림 4.1.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총선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
투표 연령 인구의 비율로 기록된 투표율



주: 데이터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의원 선거를 나타내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나타낸다. 투표율은 선거 당국에 기록된 투표 수와 투표 연령 인구 사이의 비율로 표현된다. 동일한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선거가 있으면 데이터는 해당 10년 내에 일어난 모든 선거의 평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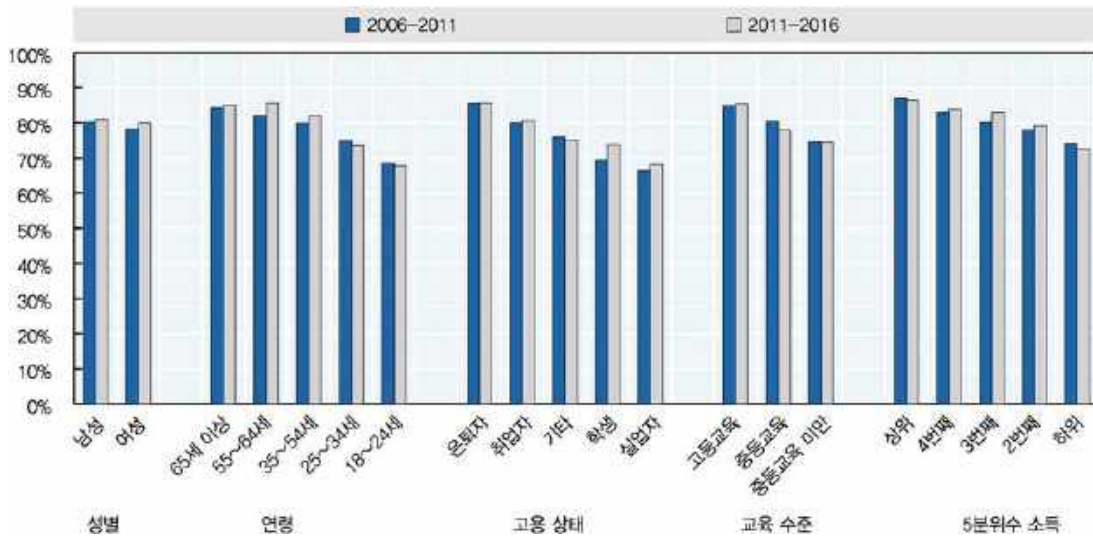
출처: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 협회(IDEA)(2017)의 투표율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895>

연령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즉 65세 이상의 투표율이 18~24세 청년의 투표율보다 약 17% 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그림 4.2의 2006년과 2011년 데이터의 비교는 남성과 여성 간 투표율 차이가 평균적으로 격차가 사라질 만큼 크게 줄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선거 참여에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자, 학생, 기타 집단보다 투표율이 높다(각각 13, 6, 7% 포인트).¹⁹ 놀랍게도 소득 분포의 상위 5분위수의 투표율이 소득 하위 5분위수보다 14% 포인트 더 높다. 이러한 차이는 가장 최근에 평균적으로 1% 포인트 증가했으며 미국(34% 포인트), 영국(32% 포인트), 포르투갈(29% 포인트)에서 25% 포인트를 초과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과 중등교육 미만의 사람 사이의 투표율 격차는 평균적으로 11% 포인트이며,²⁰ 슬로바키아(38% 포인트), 체코(34% 포인트), 미국(27% 포인트)에서 25% 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전체적으로 2006~2011년과 2011~2016년 사이에 학생(4.4% 포인트)과 55~64세 성인(3.6% 포인트)에서 투표율이 증가했으며, 교육 수준이 낮고 가장 빈곤한 계층에서는 감소했다.²¹

그림 4.2. 교육 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투표할 가능성이 낮음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인구 비율로 나타낸 OECD 평균 자기보고 투표율



주: 데이터는 2006~2011년 동안 값의 내림차순으로 분류되었다. OECD 평균은 25개국 데이터에 기반한 단순 평균이며,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칠레,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은 제외되었다. 총선에 대한 데이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하원의원 선거인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를 나타낸다. 미국, 멕시코, 프랑스의 데이터는 대통령 선거를 나타낸다. 호주의 데이터는 상원/하원선거의 평균이다.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일본의 데이터는 상원선거에 해당한다.

출처: 선거 선호도 비교 연구(CSES) 모듈 2, 3, 4, <http://www.cses.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914>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

투표 외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의 일부로서 공동체/시민 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구분할 수 있다(Uslander 및 Brown, 2003). 전자는 자원봉사와 시간 기부를 포함하는 활동을 나타내고(Barnes 및 Kaase, 1979) 후자(이 섹션의 초점)는 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²² 개인 웰빙에 대해 이러한 유형의 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기본 자유와 권리 중 하나로 정치적 목소리를 인정한 Sen(1999)에 의해 강조되었다. 정치적 결정에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또한 행복감(Frey 및 Stutzer, 2006)과 삶의 목적(Veenhoven(1988), Inglehart(1990), Flavin 및 Keane(2011))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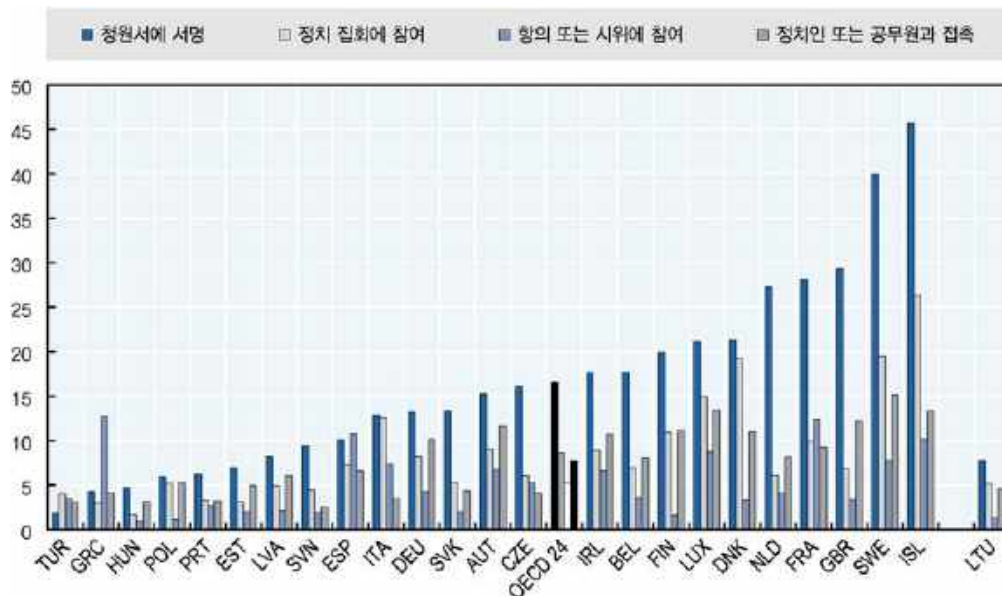
Ekman 및 Amna(2009)가 채택한 유형론은 두 가지 광범위한 형태에 따라 정치 참여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Boarini와 Díaz(2015)에 의해 사용된다. 정치적 결정과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취하는 *뚜렷한 형태*의 정치 참여와 고의적이고 명시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여전히 관찰 가능한 형태의 참여로 이어지는 *잠재적 형태*가 있다. 이 광범위한 카테고리 내에서 유형론은 참여의 개별적 형태와 집단적 형태를 구분한다. 뚜렷한 참여의 경우 공식적 참여와 항의 행동, 잠재적 참여의 경우 개입과 참여를 구분한다.

관심이 가는 한 가지 쟁점은 투표율에 대해 그림 4.2에 표시된 것과 유사한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가 감소했는지 여부이다. Van Biezen, Mair 및 Poguntke(2012)는 유럽 국가에서 당원이 감소했다고 기술한다. 유럽사회조사의 6번째 웨이브 데이터를 사용하여 Boarini 및 Díaz(2015)는 이 감소가 모든 형태의 정치 참여에 각기 다른 수준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세대 교체의 과정으로 설명된다고 보여주었다.²³ 그러나 저자들은 나이가 어린 출생 코호트에서 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형태 또는 뚜렷하지 않은 형태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IDEA(2016)는 2010년대 초에 “점거 운동(occupy movements)”의 물결과 정치 참여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증가한 것처럼 투표율 감소와 함께 다른 형태의 시민 행동주의가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가구 설문조사는 뚜렷한 형태의 정치 참여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이 주제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질문 중 하나가 포함된 설문조사인 유럽의 삶의 질 조사(EQLS)에 따르면,²⁴ 그림 4.3은 정치 참여의 특정 척도, 즉 최근에 4가지 유형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 모든 형태 가운데 유럽 국가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치 참여 유형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인구의 약 17%가 그러한 참여 활동을 보고했고,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1/3 이상부터 헝가리, 그리스, 터키의 5% 미만까지 참여율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민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형태의 정치 참여는 덜 일반적이다. 표시된 국가의 국민 중 단 5%만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고했으며,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


그림 4.3. 지난 12개월 동안 뚜렷한 형태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사람
유럽 국가, %, 2012년



주: 청원서에 서명한 인구 비율의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평가한다. OECD 평균은 24개국의 데이터에 기반한 단순 평균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유럽 삶의 질 조사(EQLS)의 웨이브 3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www.eurofound.europa.eu/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933>

란드, 프랑스의 경우 좀더 비율이 높았고(10% 이상) 헝가리, 슬로베니아, 핀란드의 경우 2% 미만으로 훨씬 낮았다. 응답자의 8% 미만이 (공공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일상적인 접촉 외에)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영국은 12% 이상이었고 이탈리아, 터키, 헝가리, 슬로베니아는 4% 미만이었다. 노동조합, 정당 또는 정치 그룹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에서 약 2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주주의 평가

19세기 토크빌(Tocqueville) 이후로 민주주의 개념은 평등과 권리 및 의무의 광범위한 향유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 선거의 의미는 유대 자율권, 대체 정보원의 존재, 표현의 자유와 같은 추가 조건(Dahl, 1971, Norris, 2012)뿐 아니라 분배적 정의라는 더 폭넓은 개념(Held, 2006)에 따라 달라진다. 양질의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많은 조건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포함되었다.²⁵

민주주의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Geissel, Kneuer 및 Lauth,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 측정은 전문가 기반 평가를 위한 비옥한 토대를 제공했다(박스 4.1). 예를 들어, 두 가지 민주주의 지수(폴리티2와 Vanhamen의 민주주의 지수)가 ‘How Was Life?’(Van Zanden 외, 2014)에 사용되어 세계 각 지역의 민주화 과정의 속도를 평가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적 이해에 의존하지만 두 지표는 모두 세계가 19~20세기 동안 더욱 민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가와 전세계 지역에서 진행 속도와 시기는 각기 다르다.

민주주의 측정에 대한 연구는 ‘국제정치학리뷰(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Geissel, Kneuer 및 Lauth, 2016)의 최근 특별판에 요약된 몇 가지 논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에 포함되는 차원의 수(최소주의 또는 *얇은(thin)* 접근법 vs. 광범위하거나 *두꺼운(thick)* 접근법)과 차원 간의 상호 관계이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측정에 “산출물” 차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일부 접근법은 민주주의의 질이 규칙, 절차뿐만 아니라 생산된 산출물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며, 셋째는 점차 민주적 과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소인 디지털 미디어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효율성, 법치와 같은 민주주의의 일부 측면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는 일부 저자들과 정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다른 저자들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럽의 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민주주의 측정은 주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련 질문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럽사회조사(ESS)의 6번째 웨이브에 “유럽 민주주의 이해 및 평가”에 대한 특별 모듈이 포함되었다. 이 모듈은 각국의 민주주의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러한 구성요소에서 각국의 성과 평가에 대한 비교 증거를 제공한다.²⁶ 이 조사는 3가지 이론 유형, 즉 자유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분했던 Ferrin 및 Kriesi(2016)가 제안한 민주주의 분류에 의존한다(박스 4.2).

박스 4.1. 정치체제의 복합 지표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측정은 오랜 전통이 있으며 공개 토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측정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사용되었다(Lauth, 2004). 첫 번째는 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실제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주요 복합 지표는 다음과 같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지수(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Rights Indices)는 195개 국가와 15개 영토에 대한 수치 등급(설명 문구로 뒷받침)이다. 1972년부터 작성된 이 지표는 현지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전문가에게 자문하며 뉴스 기사, NGO, 정부, 기타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분석가의 평가에 의존한다.

폴리티 IV(Polity IV)는 콜로라도주립대학이 이끄는 프로젝트의 네 번째 단계로,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양 극단에서 정치체제를 분류한다. 1800~2015년 동안 167개의 독립 국가를 다루며, 과거의 논문과 다른 자료의 주관적 해석에 기반한 전문가 코딩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한다. 폴리티 체계는 행정상 채용, 행정 권한에 대한 제약, 정치적 경쟁의 주요 특성을 기록한 6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가장 널리 사용된 지수는 민주주의와 독재 지수에 대한 점수를 단일 정권 지표로 결합한 폴리티 점수이다.

켈로그 연구소(인디애나대학)와 예테보리대학(스웨덴)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Democracy, V-Dem)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지표의 포괄적인 데이터를 개발했다. Coppedge 외(2011)가 제안한 카테고리를 토대로 가장 종합적인 수준에서 V-Dem은 가장 중요한 유형의 민주주의를 고려하는 이론을 측정하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종합 지수를 산출한다. 1) 선거, 2) 자유주의, 3) 다수결주의, 4) 합의, 5) 참여, 6) 심의, 7) 평등주의. 이 프로젝트는 상세한 설문지에 답을 하고 여러 변수를 코딩한 국가 전문가에 의존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잠재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민주주의 바로미터(Democracy Barometer)는 취리히대학과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센터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30개국의 민주주의 질을 평가하는 이 지수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규범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이러한 민주적 기능을 보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9가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개인의 자유 존재(신체적 무결성과 자유로운 삶의 수행에 대한 권리), 2) 법치(법 앞에 평등과 법률 제도의 질), 3) 공공권의 존재(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4) 선거 경쟁(선거 결과의 취약성과 불확실성, 선거 경쟁자가 지켜야 하는 경합성 또는 규정), 5) 상호 통제(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사법심사제, 연방주의 및/또는 지방 재정 자치권 수준), 6) 정부 역량(정부 자원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조건), 7) 투명성(정치적 대표의 비밀 없음, 투명한 정치 과정을 위한 규정), 8) 정치 참여, 9) 대표(대표권을 맡긴 사람과 대표자 간의 실질적 표현 또는 조화, 소수자의 설명적 표현 또는 표현). 이 지수는 다양한 유형의 문서와 정보를 토대로 프로젝트 팀에서 생성하거나 계산한 기존 데이터(전문가 데이터와 가구 설문조사)의 105개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박스 4.2. 유럽사회조사의 민주주의 질 측정

사람들의 민주주의 이해와 평가에 대한 ESS 회전 모듈에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선택이 수반되었다. Ferrín과 Kriesi(2016)가 제안하고 Gómez 및 Palacios(2016)가 개발한 유형학에 따라 이러한 요소는 3가지 광범위한 카테고리 분류되며, 각각은 설문조사에 포함된 특정 질문에 해당된다. 이러한 각 요소에 대해 2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요소가 각국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질문이다.

ESS에서 연구한 3가지 민주주의 카테고리는 민주주의 개념과 이론적으로 관련된 서로 다른 특징과 일치한다.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적** 요소에는 선거 요소(대응성, 수직적 책임성, 포괄성의 요소를 포함하는 선거 과정의 특성)와 자유민주적 요소(시민 자유, 기능하는 공공권의 존재)가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사회 정의** 요소는 법 앞에 평등뿐 아니라 부여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에 기인하며,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 및 경제적 권리에 분배적 정의 개념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모델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3가지 유형의 민주주의는 여러 설문조사 질문을 통해 평가된다. **자유민주주의**는 1) 야당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는지 여부, 2)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지 여부, 3) 유권자가 자유롭게 정치 토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정부가 다른 (유럽) 국가의 견해를 고려하는지 여부, 5) 정당이 차별화된 제안을 제공하는지 여부, 6) 여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처벌을 받는지 여부, 7) 정부가 유권자에게 의사결정을 설명하는지 여부, 8)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는지 여부, 9) 소수 그룹의 권리가 보호되는지 여부, 10) 언론이 정부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11) 법원이 모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평가된다. **사회 정의**는 정부가 1) 모든 시민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는지 여부, 2)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이 국민투표에서 투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평가된다.

유럽 각국의 민주제도가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다양한 사회경제 그룹에 대해 표 4.3에 나와 있다.²⁷ 굵게 표시된 그룹은 비교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0부터 10까지의 척도(0: 가장 낮음, 10: 가장 높음)로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는 다음 질문에 따라 유럽 국가 사람들에게 의해 다르게 평가된다. “각각의 다음 설명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다/언론은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한다/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시민은 국민투표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쟁점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23개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7.6)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은 정부에 관해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6.1)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개념의 구성요소이다. 반대로 응답자들은 각국의 민주주의가 사회 정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정도, 즉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4.2)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5.1)하는 정도에 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고했다.²⁸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수준 역시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직접 참여 메커니즘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민주주의 기능에 더 만족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부유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정부를 판단하기 위해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가 더 만족한다. 청년층(18~25세)은 고령 집단(55~64세)에 비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조치가 더 만족한다. 실업자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모든 요소에 대해 근로자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일관되게 보고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유럽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그림 4.4). 이러한 변수 간 관계의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표 4.3.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유럽인의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만족도, 2012년

척도(0~10)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소득 차이 감소		직접 참여 가능성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평균	(SE)
OECD 22개국 (유럽만 해당)	7.6	(0.01)	6.1	(0.01)	4.2	(0.01)	5.1	(0.02)
성별								
남성	7.8	(0.02)	6.2	(0.02)	4.4	(0.02)	5.1	(0.02)
여성	7.4**	(0.02)	6.0**	(0.02)	4.1**	(0.02)	5.1	(0.02)
연령								
55~64세	7.7	(0.03)	6.1	(0.03)	4.1	(0.04)	5.2	(0.04)
18~24세	7.5**	(0.04)	6.0**	(0.04)	4.6**	(0.04)	5.2	(0.05)
25~34세	7.4**	(0.04)	5.9**	(0.03)	4.2	(0.04)	4.9**	(0.04)
35~54세	7.6**	(0.02)	6.1	(0.02)	4.1	(0.02)	5.0**	(0.03)
교육 수준								
고등교육	8.1	(0.02)	6.1	(0.02)	4.5	(0.03)	4.9	(0.03)
중등교육	7.4**	(0.02)	6.1*	(0.02)	4.1**	(0.02)	5.2**	(0.02)
중등교육 미만	7.3**	(0.02)	6.1	(0.02)	4.2**	(0.03)	5.3**	(0.03)
고용 상태								
근로자	7.7	(0.02)	6.1	(0.02)	4.2	(0.02)	5.0	(0.02)
실업자	6.8**	(0.06)	5.9**	(0.05)	3.7	(0.06)	4.8**	(0.06)
퇴직자	7.6**	(0.03)	6.2**	(0.03)	4.2	(0.03)	5.2**	(0.03)
학생	7.7	(0.04)	6.1	(0.04)	4.8	(0.04)	5.4**	(0.05)
기타	7.5**	(0.04)	6.2**	(0.04)	4.2	(0.04)	5.3**	(0.05)
소득								
상위 5분위수	8.1	(0.03)	6.2	(0.03)	4.5	(0.04)	5.0	(0.02)
하위 5분위수	7.2**	(0.03)	6.1**	(0.03)	4.1**	(0.04)	4.8**	(0.06)
2번째 5분위수	7.4**	(0.03)	6.2	(0.03)	4.2**	(0.03)	5.2**	(0.03)
3번째 5분위수	7.7**	(0.03)	6.2	(0.03)	4.4**	(0.03)	5.4**	(0.05)
4번째 5분위수	8.0**	(0.03)	6.3	(0.03)	4.4**	(0.03)	5.3**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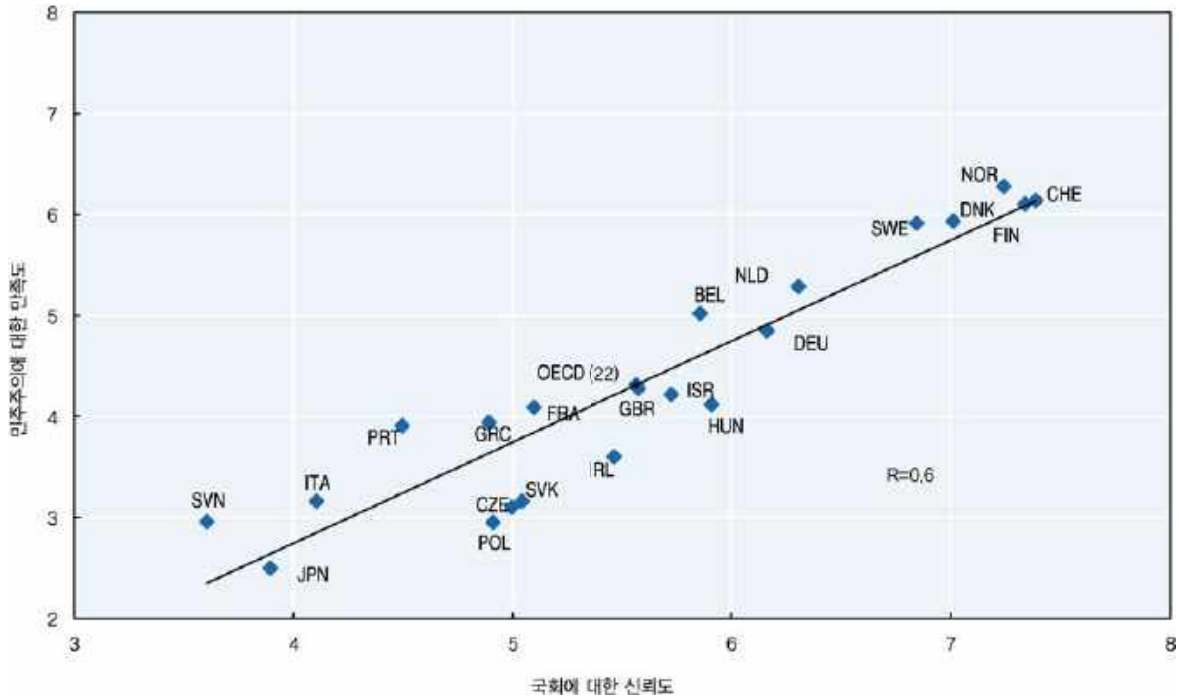
주: 굵게 표시된 카테고리는 비교를 위한 준거집단으로 간주된다. *는 9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OECD 평균은 그림 4.4에 표시된 22개 OECD 유럽 국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순 평균이다.

출처: 유럽사회조사(ESS)의 6번째 웨이브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에 대한 시민의 평가 관련 특별 회전 모듈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download.html?file=ESS6e02_3&y=20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833>

그림 4.4. 유럽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 2012년



주: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또는 데이터 세트 간의 상관관계의 강도를 테스트한다. 이 방법에서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이고 변수 간 예상 상관관계가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두 항목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이는 두 변수 사이에 강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 그림의 경우 피어슨 상관계수는 0.6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표본에는 22개 유럽 국가가 고려된다. OECD 평균은 표시된 22개국에 기반한 단순 평균이다.

출처: 유럽사회조사(ESS)의 6번째 웨이브 민주주의 여러 요소에 대한 시민의 평가 관련 특별 회전 모듈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download.html?file=ESS6e02_3&y=20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952>

이 양의 상관관계는 중요하다. Ferrin(2016)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적 요소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측정할 수 있다. 결국 국회는 민주주의 체제의 토대가 되는 제도이므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와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정치체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국회는 법률 제도, 경찰, 기타 기관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기관 중 하나이다.²⁹ 이러한 패턴은 신뢰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가구 설문조사(예: 갤럽 세계여론조사)를 통해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ESS에서 참여자들은 “0부터 10까지의 점수로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 국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 평균 4.3(모든 기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을 준다.

입법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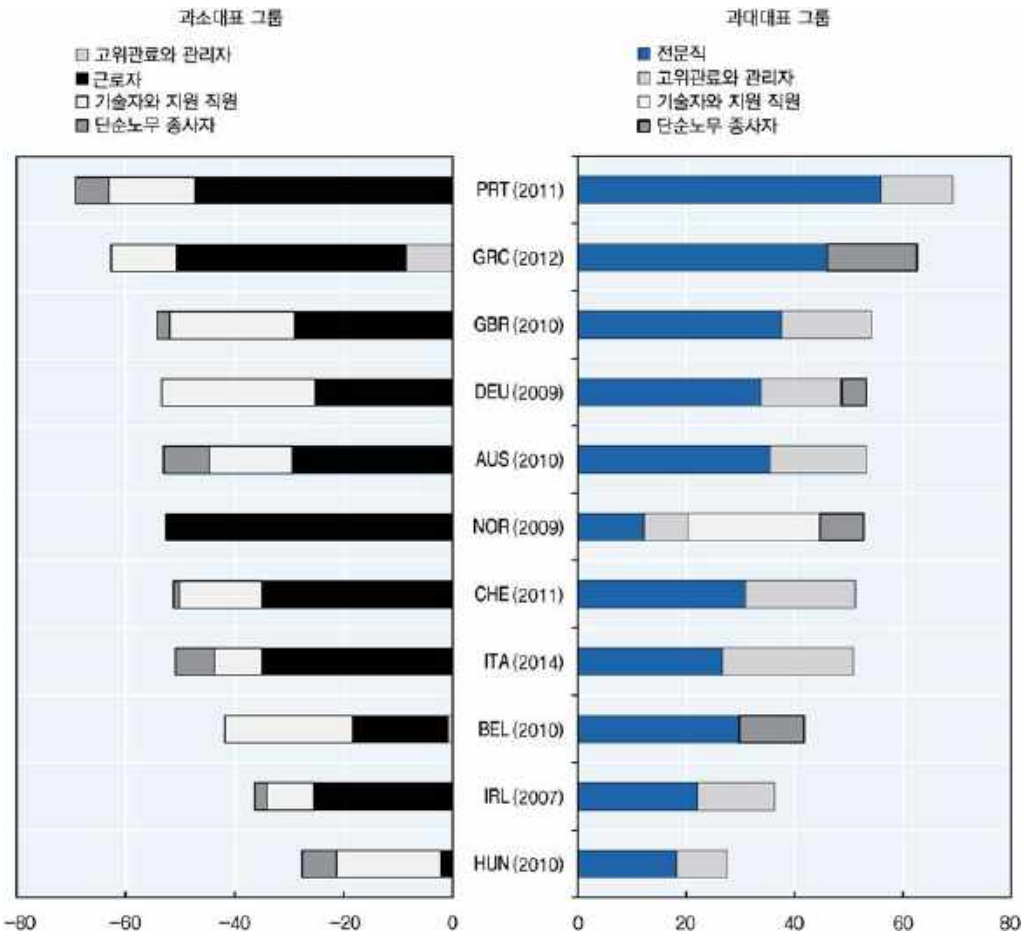
여러 저자들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불평등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Deaton(2013), Stiglitz(2015)).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하나의 잠재적 전달 메커니즘은 입법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투표 연령 인구의 불평등한 대표성이다.

최근에는 정책 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차이가 정책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연구에 따라 국회에서 여성³⁰(및 소수자)의 대표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³¹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특성 측면에서 유권자와 선출된 입법자 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교육과 같은 다른 사회경제적 표지보다 직업이 정치적 태도의 더 강력한 동인이며(Barnes, 2013), 입법자 구성의 불균형(사무직 직원과 전문가의 이점, 육체 노동자의 단점)은 정치체계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³²

그림 4.5는 국회 선출직 후보자와 일반 대중 사이의 여러 직업 카테고리가 과소대표되거나 과대대표되는 것을 보여준다. 데이터는 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인구통계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비교 후보자 조사(Comparative Candidate Survey, CCS)에서 가져왔다. 정보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전문직은 일반 대중의 직업 프로필과 비교했을 때 선출된 후보자들 사이에서 과대대표된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서 국회의원인 전문직의 비율과 일반 대중의 전문직 비율의 차이는 56%포인트이다. 고위관료와 관리자도 이탈리아(24%포인트), 스위스(20%포인트), 영국(17%포인트), 독일(15%포인트), 아일랜드(14%포인트)에서 국회의원 중에 대체로 과대대표된다. 반대로 그림 4.5에 표시된 모든 국가에서 육체 노동자는 국회 후보자 중에서 주로 과소대표되며, 노르웨이의 경우 이 과소대표 크기는 53%포인트에 이른다. 기술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역시 항상 과소대표된다(노르웨이만 제외). 또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회의 직업적 구성 불균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었다는 증거도 있다(Carnes 및 Lupu, 2015).

입법 구성에서 큰 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존재는 잘 확립되어 있지만 이러한 불균형이 의회가 내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다. 초기 연구는 정책입안자들이 그들의 직업과 무관하게 공직에 있을 때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시사했다(Putnam, 1976). 그러나 최근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의사결정자들 사이에 행동의 조직적 차이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경제 입법에 대한 기명 투표의 차이, 미국 하원의원들 간 빈곤층 또는 중산층보다 고소득층 선호도에 대한 높은 민감도(Gilens(2005), Carnes(2012))³³, 아르헨티나 의회 구성원 사이의 투표 전 활동(예: 법안 후원)(Carnes 및 Lupu, 2015)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은 현실과 동떨어져 주로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 엘리트의 인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France Stratégie, 2016).

그림 4.5. 국회의원과 일반 대중 간 직업적 배경의 차이
% 포인트



주: 데이터가 모든 후보자를 나타내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를 제외하고, 데이터는 선출된 후보자만을 나타낸다. 직업은 ISCO 08 분류에 근거한다. “근로자”는 서비스 종사자, 상점 및 시장 판매 종사자(ISCO 5), 숙련된 농업 및 어업 종사자(ISCO 6), 기능 관련 종사자(ISCO 7), 플랜트와 기계 작업자 및 조립자(ISCO 8)를 포함한다. “기술자와 지원 직원”은 기술자(ISCO 3)와 준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ISCO 4)를 포함한다. “고위관료와 관리자”는 최고 경영자, 고위관료 및 의원, 행정 및 상업 관리자, 생산 및 전문 서비스 관리자,接客, 소매 및 기타 서비스 관리자(ISCO 1)를 포함한다. “전문직”은 과학 및 엔지니어링 전문가, 의료 전문가, 교육 전문가, 비즈니스 및 행정 전문가, 정보 및 통신 기술 전문가, 법적, 사회적, 문화적 전문가(ISCO 2)를 포함한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청소원, 도우미,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광업, 건설, 제조, 운송 종사자, 식품 준비 조수, 거리 및 관련 판매 및 서비스 근로자, 청소 근로자, 기타 단순노무 근로자(ISCO 9)를 포함한다.

출처: 비교 후보자 조사(CCS)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forscenter.ch/fr/service-de-donnees-et-d-information-sur-la-recherche/service-donnees/projets-speciaux-ccs-pow-pisa-tree-vox-voxit/comparative-candidate-survey-c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971>

프로세스

기본법 제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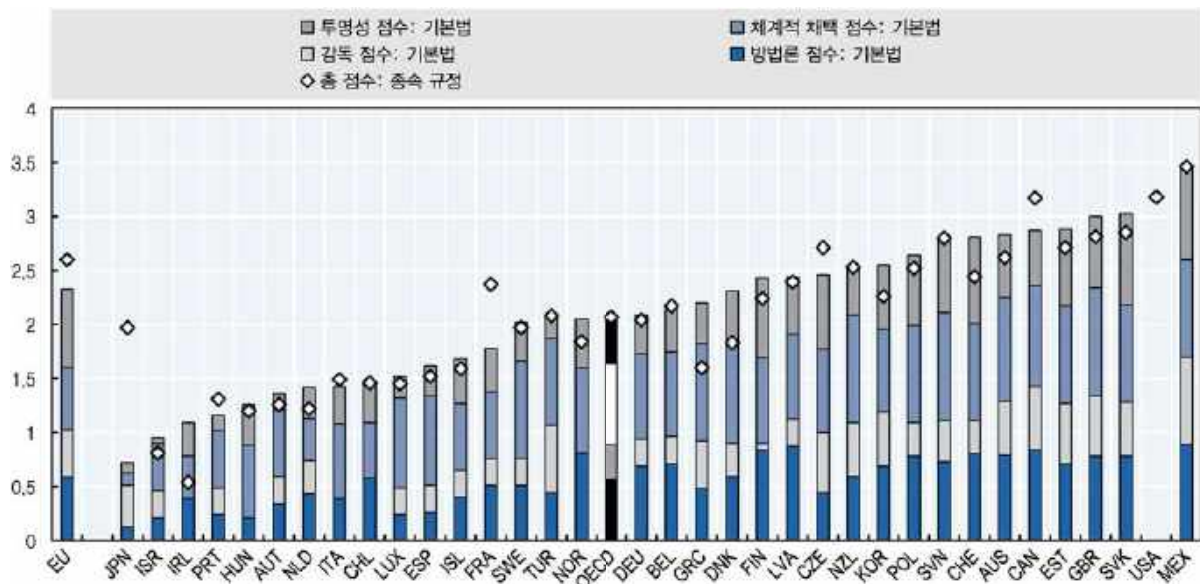
정부는 협의, 협력, 공동 심의를 통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결정에서 시민에게 더 큰 역할을 주고, 특정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의 시각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시민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 2015c). 이해관계자 참여는 참여 민주주의의 형태를 구현하는 중요한 채널이기도 하다(OECD, 2015c).

규제 개발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에 관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가구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생성되었다. OECD는 공무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법³⁴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종합 지표를 개발했다.³⁵ 이 종합 지표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 참여의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국가를 평가한다. 1) 감독과 품질 관리, 즉 이해관계자 참여 관행의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 2) 참여 프로세스가 가능한 최대의 이해관계자까지 확대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투명성, 3) 체계적 채택, 즉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과 규제 제정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위, 4) 방법론, 즉 각 이해관계자 참여에 사용되는 지침 문서, 방법, 도구의 존재. 그림 4.6은 OECD 이해관계자 참여 복합 지표의 값을 보여준다. 0(각 카테고리에 대해 가장 낮은 값)부터 1(각 카테고리에 대해 가장 높은 값)까지의 척도로 4가지 카테고리 로 세분화되며, 전체 종합 지표의 최대값은 4가 된다.

이 지표를 세분화하면 OECD 국가에서 우세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다양한 관행을 밝힐 수 있다.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종합 지표의 “체계적 채택” 요소의 평균 점수(0.74)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OECD 국가에서 협의가 일반적인 관행임을 시사한다(오스트리아, 칠레,

그림 4.6. 규제 개발 시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OECD 종합 지표, 2014년



주: 이 지표는 행정부에서 발의한 기본법 제정 프로세스에만 적용된다. 수직 축은 종합 지표의 4가지 별도 카테고리에서 총 집계 점수를 나타낸다. 각 카테고리의 최대 점수는 1이며, 종합 지표의 최대 집계 점수는 4이다. 이 그림은 모든 기본법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되는 미국의 기본법을 제외한다. 높은 비율의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멕시코와 한국을 제외하고(각각 91%, 84%)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법 대부분은 행정부에서 발의한다. OECD 평균은 단순 평균이며, 중속 규정의 총 점수(미국의 데이터 포함)를 제외하고 미국이 제외되었다.

출처: OECD(2014) 규제 지표 조사 결과,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6990>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제외(이해관계자 참여 관행이 비공식적이며 협의는 특정 규제 분야에서만 필요함)). 종합 지표의 “감독과 품질 관리” 요소의 점수(0.32)가 가장 낮으며, 협의의 포괄성과 품질을 확인하거나 정부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독립된 전담 기구가 있는 나라(예: 멕시코, 슬로베니아)가 별로 없다.

공공기관의 부패

일반적으로 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위탁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부패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소한” 부패(예: 공공 서비스 이용이나 속도 위반 등의 사소한 위반을 봐달라는 의미로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부터 공공 입찰에서 이기거나 공익을 희생하여 특정 당사자가 이익을 얻도록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대규모로 일어나는 부패까지 다양하다. Byrne(2012)은 4가지 유형의 부패를 구분한다. 1) 체계적 부패(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의 통합되고 필수적인 측면으로서의 부패), 2) 산발적 부패(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부패), 3) 사소한 부패(서비스 제공과 같은 정치 구현 단계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부패), 4) 정치적 또는 거대한 부패(정치체계의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부패)

Rothstein 및 Tannenber(2014)에 따르면 부패는 좋은 거버넌스의 적이며, 여러 방식으로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 자원의 전환(예: 특히 사소하고 산발적이거나 조직적인 부패의 경우 뇌물을 받을 때 개인 소득을 포기한다. 공공 자원이 시민에게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공무원이 도용한다. 그로 인해 시민이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전혀 향유하지 못하거나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부터 국가 사회 자본 침식, 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 훼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OECD, 2013a). 단기적으로 부패는 “정부의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환경, 사회, 건강 문제를 악화시킨다(세계은행(2017), Holmberg, Rothstein 및 Nasiritousi(2009), Djankov 외(2009), Gupta, Davoodi 및 Alonso-Terme(2002), Mauro(1995)).

부패를 측정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부패에 관한 설문조사 질문의 답이 사회적 선망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응답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답변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다. 그러한 편향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응답자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부패 행동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응답자가 특정 부패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할 경우, 이는 과대 보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부패 인식과 해석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회마다 부패 행동에 대한 다른 수준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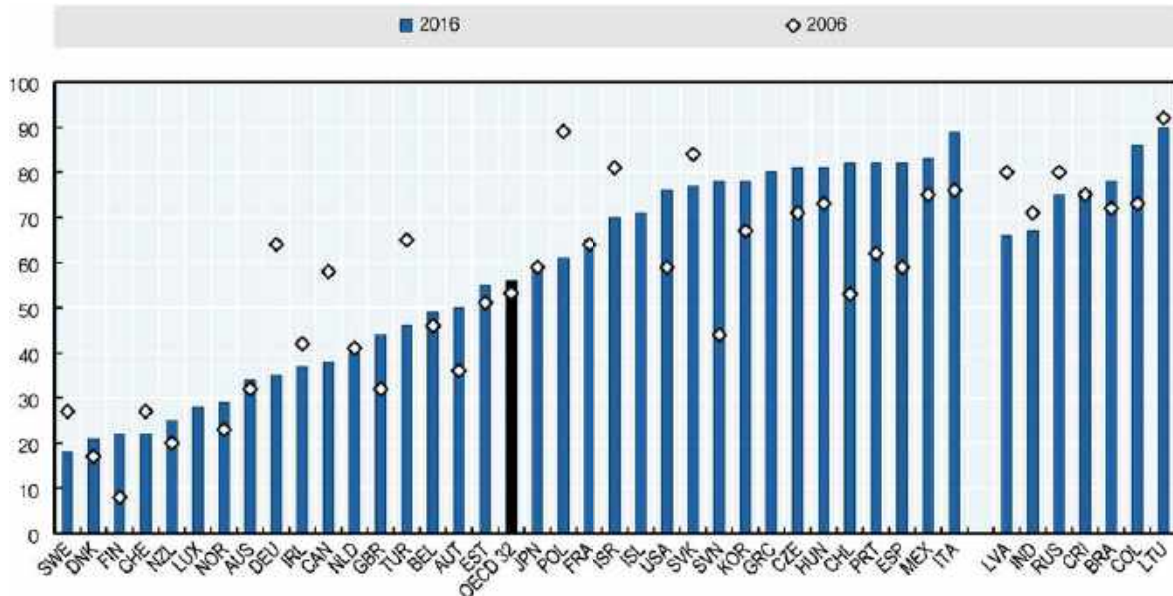
가구 설문조사³⁶를 통한 부패 측정은 두 가지 유형의 질문에 의존한다. 부패 인식에 관한 질문과 부패 경험에 관한 질문이다. Erlingsson 및 Kristinsson(2016)에 따르면 부패 인식은 정보 가용성(예: 널리 퍼진 스캔들) 또는 어느 정도 거대한 부패와 정치 부패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고려사항(예: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감)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패 경험에 관한 질문은 본질적으로 사소하거나 산발적인 부패와 관련이 있다.

부패에 관한 비슷한 질문은 OECD 국가를 다루는 4가지 비공식 가구 설문조사³⁷인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 GWP), 유럽 거버넌스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Governance survey, EQoG)³⁸에 포함된다. 부패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도 측정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다양한 출처를 결합하고 168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이다.³⁹

그림 4.7은 갤럽세계여론조사에서 나온 2006년과 2016년 사람들의 부패 인식의 척도를 보여준다. 2016년 OECD 국가의 응답자 중 56%가 정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응답 비율은 스웨덴 18%부터 이탈리아 89%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6년 이후, 정부 부패에 대한 OECD 평균 인식은 3%포인트 증가했으며, 칠레(29%포인트), 스페인(23), 포르투갈(20)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독일(29%포인트 하락), 폴란드(28), 캐나다(20)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갤럽세계여론조사에서 물어본 질문(“정부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등의 질문들은 여러 유형의 부패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며,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므로 반부패 전략 설계에 사용하는 데 제한적이다(González 및 Boehm, 2011). 또한 이 지표가 부패의 실제 존재 또는 단순히 사람들의 인식을 포착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이는 정치적 선호도나 문화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패 경험에 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응답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최근 공무원에게

그림 4.7.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백분율, 2006년 및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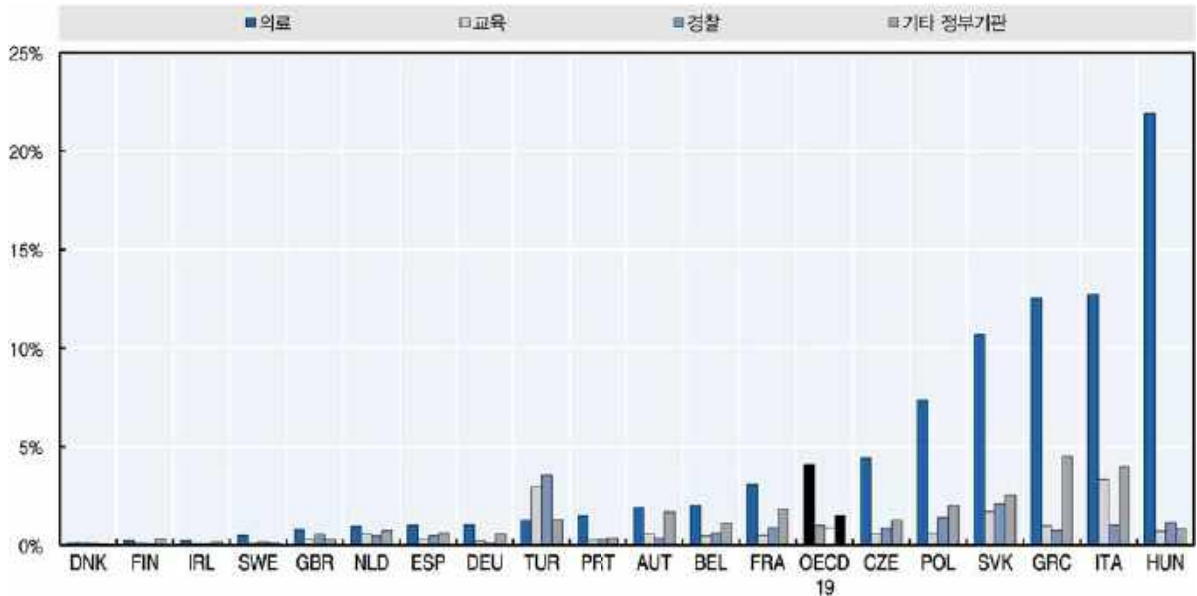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두 기간에 대해 데이터가 있는 32개국을 기반으로 한 단순 평균이며,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009>

뇌물을 준 적이 있는지 묻는다. 예를 들어, 유럽 거버넌스 질 조사(QoG)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4가지 유형의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 경찰, 기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난 12개월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뇌물을 준 적이 있는가?” 이 자료를 토대로, 그림 4.8은 유럽 국가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난 해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부패 인식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다). 부패 경험 빈도는 의료 부문에서 더 높다. 평균적으로 유럽 응답자의 4%가 뇌물을 주었다고 보고했으며, 헝가리의 경우 20% 이상이었고 덴마크는 0.1%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8. 부문별로 유럽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3년



주: OECD 평균은 표시된 19개국의 데이터에 기반한 단순 평균이다.

출처: EU 정부 질 지수(QoC) 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qog.pol.gu.se/data/datadownloads/qog-eqi-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028>

두 설문조사의 부패 측정 사이의 뚜렷한 대조는 서로 다른 현상이나 광범위한 현상의 제한된 부분을 포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U 정부 질 조사(EU Quality of Government Survey)는 주로 산발적이거나 사소한 부패를 포착하지만 정치적 또는 거대한 부패의 측면을 놓치고 있다. 여전히 부패로 간주되는 범위는 상당히 크게 남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부패는 뇌물, 강탈, 횡령(즉 공무원에 의한 착복이나 다른 자산 전환)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공직상의 정실주의(favouritism) 또는 정보 공개 실패와 같은 부패한 행동은 더 미묘하기 때문에 특징짓고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⁴⁰

결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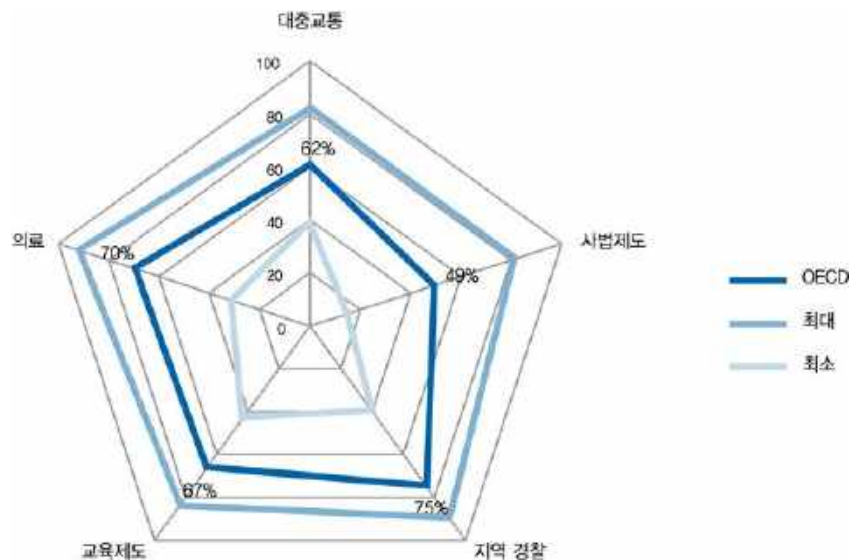
교육, 의료, 교통, 사법과 같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 이용은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이다 (OECD, 2015d). 공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사회적 집단과 장소에서 저렴한 비용, 지리적 근접성,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

하면 더 많은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마이크로 성과 가설(micro-performance hypothesis)”로 문헌에 언급된 전달 메커니즘이다 (Van de Walle 및 Bouckaert(2003), Yang 및 Holzer, 2006).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해당 서비스의 특정 기능보다는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하며(이는 OECD “대시민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 평가에는 보다 세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OECD, 2017c).⁴¹

갤럽세계여론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사법제도와 경찰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신뢰도와 의료, 교육, 대중교통에 대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⁴² 그림 4.9는 이 5가지 유형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 모든 OECD 국가에서 기록된 평균, 최대, 최소 값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2/3 이상이 이에 만족한다고 보고하는데, 사법제도에 대한 만족도 수준(49%)은 상당히 낮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며, 최고의 성과를 보인 국가의 만족도는 최하의 성과를 보인 국가보다 2~4배 높다.

갤럽세계여론조사의 질문은 각 서비스의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다. 유럽 거버넌스 질 조사(European Quality

그림 4.9. 주요 공공 서비스에 만족한 인구의 비율, 2016년



주: 사법제도에 대한 데이터는 “이 나라에서 다음 각 항목을 신뢰하는가? 사법제도와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지역 경찰에 대한 데이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지역 경찰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교육제도에 대한 데이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교육제도가 학교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의료에 대한 데이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사용성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대중교통에 대한 데이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모든 OECD 국가의 데이터에 기반한 단순 평균이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047>

of Governance Survey)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다.⁴³ 예를 들어, “본인 지역의 공교육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문하기 전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중 지난 12개월 동안 지역의 공립학교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고용된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표 4.4는 최근 의료, 교육 또는 경찰을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균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의료와 교육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고한다(교육의 경우 6%, 의료의 경우 3% 더 높음). 한편 경찰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⁴⁴

최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경험을 비교 측정하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가 착수되었다. 의료의 경우, 환자 경험은 환자 자신에게 중요한 결과이며, 환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건강의 주요 생산자이고 긍정적인 경험은 더 나은 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도 중요하다. 환자의 견해를 고려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절감 조치를 도입하는 정부에도 특히 중요하다.

표 4.4. 직접 경험여부별 공공 서비스 만족도, EU 국가의 평균값, 2013년

	교육				의료				경찰			
	직접 경험 평균	직접 경험 없음 평균	직접 경험 없음 (SE)	직접 경험 없음 (SE)	직접 경험 평균	직접 경험 없음 평균	직접 경험 없음 (SE)	직접 경험 없음 (SE)	직접 경험 평균	직접 경험 없음 평균	직접 경험 없음 (SE)	직접 경험 없음 (SE)
오스트리아	6.64	6.20	(0.04)	(0.04)**	6.97	6.59	(0.04)	(0.06)**	6.74	6.48	(0.06)	(0.04)**
벨기에	7.42	7.01	(0.06)	(0.05)**	7.73	7.44	(0.05)	(0.07)**	6.71	6.95	(0.11)	(0.05)**
체코	6.61	5.83	(0.05)	(0.05)**	6.47	5.97	(0.04)	(0.09)**	6.07	5.93	(0.08)	(0.04)
덴마크	6.83	6.38	(0.06)	(0.04)**	7.25	6.92	(0.04)	(0.08)**	6.89	6.76	(0.09)	(0.04)
핀란드	7.74	7.50	(0.06)	(0.05)**	7.03	6.77	(0.06)	(0.17)	7.19	7.15	(0.10)	(0.06)
프랑스	6.82	6.28	(0.03)	(0.02)**	6.95	6.82	(0.02)	(0.04)**	5.98	6.30	(0.06)	(0.02)**
독일	6.52	6.11	(0.04)	(0.03)**	6.59	6.26	(0.03)	(0.04)**	6.72	6.54	(0.06)	(0.03)**
그리스	6.09	5.65	(0.10)	(0.06)**	4.75	4.51	(0.08)	(0.08)**	6.21	5.78	(0.12)	(0.06)**
헝가리	6.42	6.20	(0.06)	(0.09)**	5.94	5.73	(0.07)	(0.12)	5.59	6.41	(0.16)	(0.06)**
아일랜드	7.51	7.07	(0.12)	(0.09)**	6.69	5.96	(0.10)	(0.18)**	6.31	6.51	(0.21)	(0.10)
이탈리아	6.47	6.22	(0.04)	(0.03)**	6.20	5.79	(0.03)	(0.06)**	6.70	6.65	(0.06)	(0.03)
네덜란드	7.13	6.70	(0.05)	(0.04)**	7.49	7.24	(0.02)	(0.05)**	6.56	6.69	(0.07)	(0.03)*
폴란드	6.48	6.16	(0.04)	(0.03)**	5.04	4.77	(0.03)	(0.08)**	5.64	5.97	(0.06)	(0.03)**
포르투갈	6.68	6.15	(0.06)	(0.05)**	6.07	5.37	(0.06)	(0.11)**	6.03	5.98	(0.12)	(0.05)
슬로바키아	6.07	5.78	(0.07)	(0.06)**	5.34	5.21	(0.06)	(0.13)	5.47	5.95	(0.13)	(0.06)**
스페인	6.11	6.07	(0.05)	(0.04)	6.36	6.12	(0.03)	(0.09)**	5.77	6.32	(0.07)	(0.04)**
스웨덴	6.42	5.93	(0.08)	(0.05)**	6.77	6.27	(0.05)	(0.11)**	6.70	6.38	(0.11)	(0.05)**
터키	5.42	5.66	(0.08)	(0.05)**	6.24	5.89	(0.05)	(0.10)**	5.76	6.35	(0.10)	(0.06)**
영국	7.15	6.61	(0.04)	(0.03)**	7.09	6.79	(0.03)	(0.06)**	6.56	6.57	(0.07)	(0.03)**
OECD 19	6.58	6.22	(0.01)	(0.01)**	6.40	6.21	(0.01)	(0.02)**	6.26	6.38	(0.02)	(0.01)

주: **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는 90%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룹별 차이는 T 테스트를 토대로 평가된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가 있는 19개국의 단순 평균이다.

출처: EU 거버넌스 질(QoG) 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qog.pol.gu.se/data/datadownloads/qog-eqi-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852>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는 환자의 경험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노력을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Fujisawa 및 Klazinga, 2017), OECD는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보고서에서 환자 관련 경험(면담 시 환자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의사 등의 PREM)의 비교 가능한 지표를 주기적으로 보고한다(OECD 2015b). 환자 관련 결과 지표(PROM)는 국가별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에서 특정 수술(예: 고관절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PROMS 데이터는 병원 벤치마킹에 사용된다.⁴⁵ 동일한 측정 접근법은 다른 유형의 공공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 부문에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의료 부문보다 훨씬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사법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이 분야의 미충족 요구의 발생빈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스 4.3).

박스 4.3. 사람들의 시민 정의 접근성 측정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의를 관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이지만 이는 비교 통계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사법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행정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형사 사법제도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유럽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일부 가구 설문조사에는 과거에 사법제도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지만 그로부터 생성된 증거는 국가 간에 비교할 수 없다. 정반대로 (대부분 비공식적) “법적 요구 설문조사”라는 중요한 전통이 있으며, 이는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문제”(즉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심각한 문제, 이를 해결하려면 일반적으로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함)의 빈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여부, 해결된 방식, 소송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5년간 30여 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40개 이상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이러한 조사는 평가할 문제의 범위, 분석 단위, 참조 기간, 응답 척도, 질문 문구 등 다양한 특징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증거는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문제의 높은 빈도,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이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가난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그러하다는 점 등 여러 공통된 패턴을 강조한다. 프라이아 그룹의 활동을 위한 데이터로서 OECD와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공동으로 조직하고 여러 NSO의 대표를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은 현재 사법 접근권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http://www.oecd.org/fr/gov/access-to-justice.htm>).

법적 요구의 발생 빈도에 관한 몇 가지 비교 가능한 정보는 2016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에서 제공한다. 각국의 주요 도시 지역의 약 1,000명의 응답자 표본을 기반으로 61개국에서 실시된 이 특별 설문조사는 인터뷰 1년 전에 가구 구성원에 의한 다양한 민사 및 형사 문제의 경험(예: 가정폭력, 소비자 보호, 직장 및 가정 문제, 주택, 개인 신원, 재산 등), 분쟁 해결 방법(예: 법원이나 개인적 해결을 통해), 분쟁 해결 메커니즘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 13개 OECD 국가와 4개 신흥 경제국에 대한 자료는 그림 4.10에 나와 있다. 전년도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은 터키의 약 12%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한국, 인도, 중국의 30% 이상까지 다양했다. 법적 문제는 비즈니스 및 고용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으며, 행정적 문제가 그 뒤를 이었고, 형사 범죄와 관련한 문제는 드물었다.

박스 4.3. 사람들의 시민 정의 접근성 측정(계속)

그림 4.10. 유형별 분쟁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

선택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지난 12개월동안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유형



출처: 세계 사법정의의 프로젝트(WJP) 분쟁해결 조사모듈 2016의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worldjusticeproject.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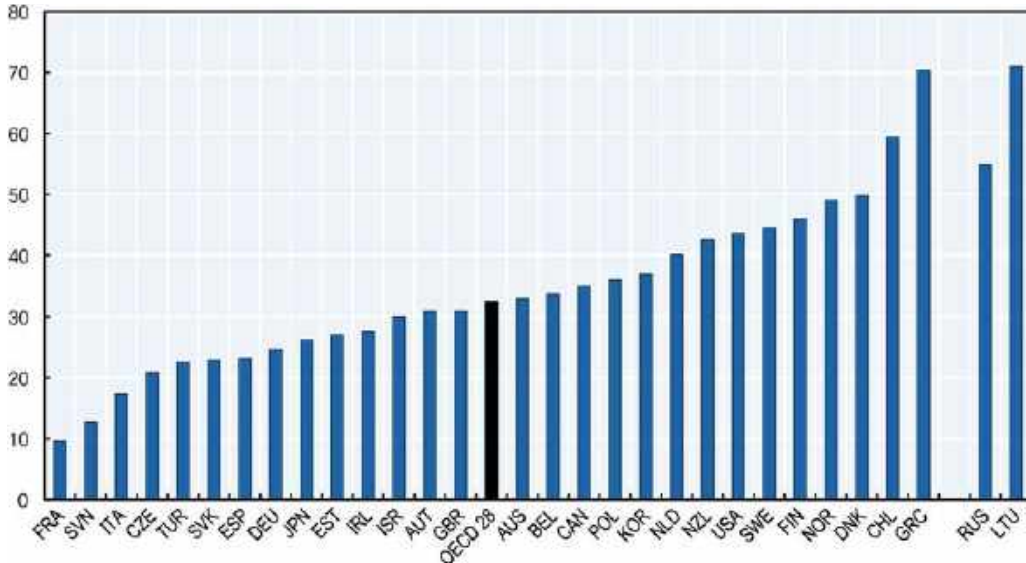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는 개인적인 느낌)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Acock 외, 1985). 정치 효능감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개념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대한 주요 척도로서 정치적 신뢰와 공동으로 논의되었다(Craig 외, 1990). 정치 효능감은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 제도에 의해 구축되고 파괴될 수 있으며(즉 대중 선호도에 부응하지 않는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결정), 그럼으로써 개인의 기대와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Miller 및 Listhaug, 1990). 정치 효능감 수준은 정치 참여(Finkel, 1987),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Flavin 및 Keane, 2011), 공공기관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Mcevoy, 2016)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치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종종 내부 효능감(정치에 참여할 개인적 역량을 갖고 있다는 느낌(Hoskins 및 Janmaat, 2016))과 외부 효능감(시민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대응에 대한 믿음(Borgonovi 및 Pokropek, 2017))을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개념만 평가한다.

OECD 성인역량조사⁴⁶(PIAAC)는 소위 NOSAY 질문에 기반하여 외부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며, 이는 미국에서 최초의 선거 연구에 처음 사용되었다(Lane, 1959).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가?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 이를 5점 리커트 척도(Likert-type scale)(1: “강하게

동의한다” ~ 5: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로 답변한다. 그림 4.11과 같이 OECD 국가에서 평균 1/3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며, 이 비율은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프랑스의 20% 미만부터 칠레, 그리스, 리투아니아의 60% 이상까지 다양하다.

그림 4.11.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느끼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2012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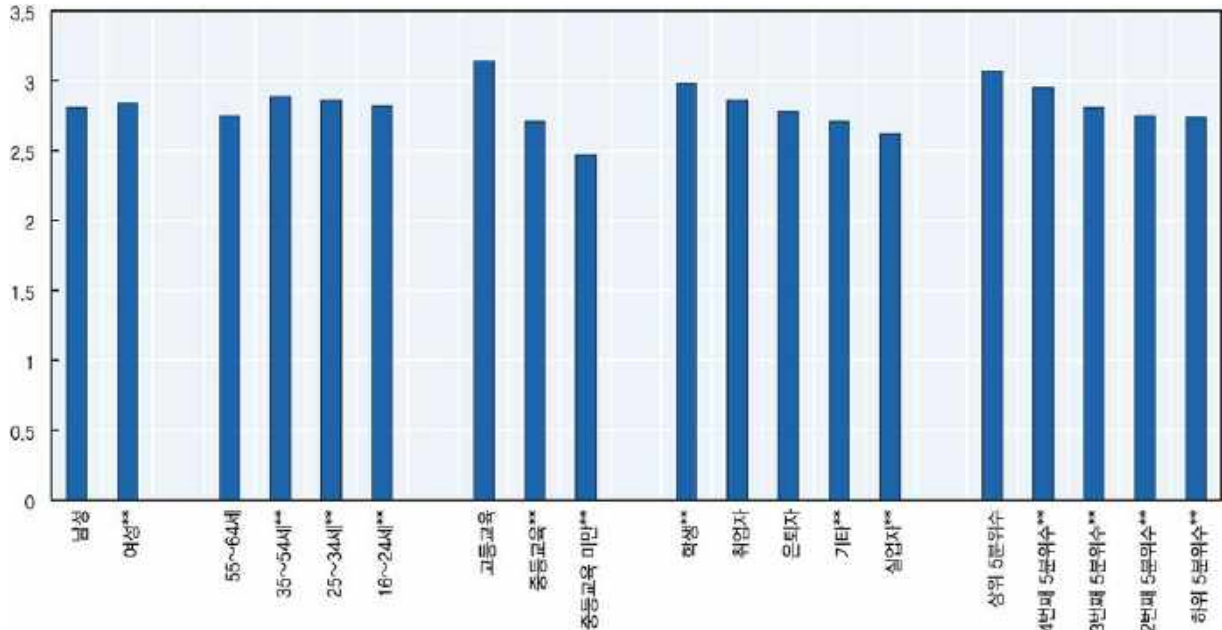


주: 이 그림은 “나와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의 비율을 보여준다.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데이터는 2011~2012년에 해당되고, 프랑스의 데이터는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데이터는 2014~2015년에 해당한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를 나타내고, 영국의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북 아일랜드를 가리킨다. 러시아의 데이터에는 모스크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 평균은 데이터가 있는 28개국의 단순 평균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된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085>

사람들의 정부 결정을 형성하는 인지된 능력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4.12는 PIAAC에 포함된 28개 OECD 국가에서 다양한 그룹의 자기보고 정치 효능감을 보여준다. Borgonovi와 Pokropek(2017)가 사용한 접근법을 토대로, 측정은 1~5 범위의 지수로 전환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같은 정치 효능감 측정은 소득(상위 5분위수의 사람은 하위 5분위수의 사람보다 0.3점 더 높은 평균 값을 보고한다)과 교육(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등교육 미만의 사람보다 0.7점 더 높은 평균 수준을 보고한다)에 따라 단조롭게 증가하며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 고용 상태를 살펴보면, 학생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고하며, 취업자가 보고한 것보다 상당히 높다. 한편, 실업자와 비은퇴 비활동 인구는 훨씬 낮은 점수를 보고한다. 부모 교육 역시 정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으로 국가별로 최소한 한 명이 고등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정치 효능감을 보고한다(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Borgonovi 및 Pokropek, 2017).

그림 4.12. 개인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정부 내 발언권
1-5 척도 기반 OECD 평균 점수(인지된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주: 그룹별 차이는 다음 준거집단과 관련하여 측정된다. 남성, 55~64세 성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취업자, 상위 소득 5분 위수의 사람. 차이는 T 테스트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라벨에 **가 있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 및 준거집단 간 차이가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가 있는 28개국의 단순 평균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104>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신뢰도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와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다(OECD, 2017b). 신뢰도는 거래부터 금융 시장, 복지 시스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간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신뢰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상대방과 재협상하거나 재확인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는 정치 시스템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구축되는 기반 중 하나이며,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다.⁴⁷ 최근 주요 정책적 관심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다(OECD, 2013a, OECD, 2017b). 신뢰도가 낮으면 정부가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OECD, 2013a)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chäfer, 2013). 낮은 정치 참여와 더불어 낮은 신뢰는 시민과 기관 사이의 약한 사회적 접촉의 증상이며 불안, 이탈, 급진화의 원인이다(France Stratégi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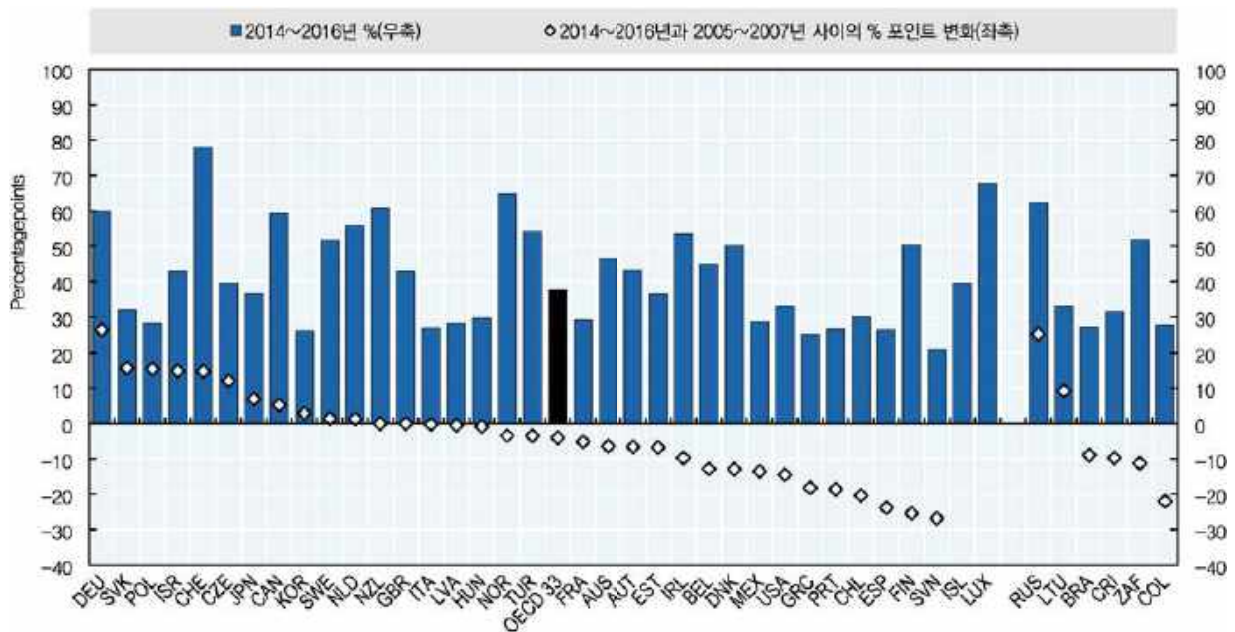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조직에서 수집되었으며,⁴⁸ 일부 경우에 통계청(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수집한 공식 통계의 일부로 수집되고, 연구소(예: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된 다양한 “바로미터”)에 의해 보다 일반적으로 또는 민간 기관(예: 미국의 퓨 연구 센터)에 의해 수집되었다. 최근에는 갤럽세계 여론조사(GWP), 유럽사회조사(ESS), 유럽 삶의 질 조사(EQLS) 등 더욱 광범위한 비공식

출처가 신뢰도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했다.⁴⁹ 2013년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 SILC)는 유럽 국가에 대한 최초의 공식 추정치를 제공했다. 이번 장에서는 GWP(그림 4.13 참조)와 ESS(그림 4.4 참조)의 데이터만 제시하지만, OECD는 신뢰도에 대한 기존의 모든 데이터 출처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만들고 하나의 정보로 통합한다(OECD, 2017b)⁵⁰

그림 4.13(GWP에 기반, 2006년 이후 대부분 연도에서 모든 OECD 국가를 포함하는 출처)은 “정부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2005~2007년 이후 변화뿐 아니라 2014~2016년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준다. 2014~2016년에 OECD 국가의 사람들 중 단 38%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보고했으며, 2005~2007년 이후 4 %포인트 하락했다.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페인, 칠레,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는 15 %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독일,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서는 1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에서 이 척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확실히 정부 신뢰 감소와 일치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시계열(예: 연방 정부의 신뢰도에 대한 데이터는 1958년 이후 미국에서 수집됨)은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장기적 현상임을 보여주며, 시민과 정부 간 사회적 접촉의 침식을 시사하고(그림 4.14), 이는 Putnam(2005)이 설명한 미국 시민에 의한 시민 이탈 과정과 일치하는 추세이다.

여러 데이터 출처의 가용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 관련 설문조사 질문에서 정확히 포착된 것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기관에 대한 신뢰도 변화는 경제 상황 및 전망, 정치체계의 장기적 변화, 현 정부의 단기적 승인, 자연 재해나 주요 부패 사건과 같은 사건들,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 방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⁵¹ 이러한 맥락에서

그림 4.13. 2014~2016년 정부에 대한 평균 신뢰도, 2005~2007년 이후의 변화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123>

그림 4.14.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장기 추세, 미국



주: 1985년 이전에는 데이터가 매년 수집되지 않았다. x축은 데이터가 있는 연도를 나타낸다.

출처: PEW 연구 센터(2016) 공공 신뢰도의 과거 추세에 기반한 OECD 계산, www.people-press.org/2015/11/23/1-trust-in-government-1958-20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142>

신뢰도 측정 개선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OECD는 *신뢰도 측정 지침*을 최근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지침*은 이 목적에 적합한 측정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도에 대한 고품질 비교 증거를 생성할 수 있는 시작점을 제공한다(박스 4.4). 기관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은 개인의 웰빙을 보장하고 가능하게 하는 그들의 역할에 현대 국가의 토대를 통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방향에서 필요한 한 가지 단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고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고품질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박스 4.4. OECD 신뢰도 측정 지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다양한 OECD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보 기반을 개선했다. 고품질 데이터는 신뢰도 상태를 평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2013년 *OECD 주관적 웰빙 측정 지침*(OECD 2013b) 이후 모델링 되어 2017년 가을 OECD는 신뢰도 데이터의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신뢰도 측정 지침*(OECD 2017a)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두 가지 유형의 신뢰도, 즉 타인에 대한 신뢰도(또는 대인관계 신뢰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다룬다.

EUSILC 하의 유럽 국가뿐 아니라 특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여러 통계청은 이미 가구 설문조사에 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EUSILC를 제외하고 질문 문구와 응답 척도 면에서 국가별로 사용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신뢰도 질문은 일반적으로 자주 실시하지 않는 특별 모듈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대표성이 떨어지는 작은 표본을 이용하는 비공식적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한다.

박스 4.4. OECD 신뢰도 측정 지침(계속)

OECD 신뢰도 측정 지침은 통계청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도 데이터의 수집, 출판, 분석에 관한 국제 권고안을 제공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다. 이 지침은 또한 모니터링 및 정책 결정에 신뢰도 측정이 중요한 이유와 기존 측정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신뢰도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알려진 내용을 규명하는 것 외에도, 지침은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최상의 접근법을 설명하고 보고, 해석, 분석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또한 국가 및 국제 기관이 가구 설문조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에 관한 다수의 프로토타입 설문조사 모듈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핵심 지표가 권장된다.

“다음 질문은 [국가]의 여러 기관을 신뢰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관을 접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더라도,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각 기관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0부터 10까지의 척도로 말씀해주시십시오. 0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은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다음을 읽으십시오.

[특정 국가의] 국회?

[특정 국가의] 경찰?

[특정 국가의] 공무원?”

이러한 질문은 제도적 신뢰(정치체제와 사법제도 및 법 집행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주된 기본 차원 중 두 가지를 포착한다. 공무원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가 비정치적인 공무원을 보다 일반적으로 정치체제와 다르게 보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신뢰도 측정 지침 외에도 OECD는 행동 과학(behavioural science)과 실험 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가져온 혁신적인 기법에 기반한 지표로 자기보고 신뢰도 데이터를 보완하는 추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Trustlab은 다른 파트너와 공동으로 OECD에서 개발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치 선호도와 응답자의 경험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함께 설문조사와 실험 게임을 조합하여 타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다. Trustlab은 지금까지 프랑스, 한국, 미국, 독일, 슬로베니아의 전국 대표 표본에 대해 운영되었으며,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향후 통계적 의제

통계청과 기타 공식 통계 생산자가 직면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측정 의제는 엄청나다. 즉 ‘How’s Life?’의 연속적인 이슈에서 분석된 대부분의 다른 웰빙 차원과 비교할 때, 현재 사용 가능한 거버넌스에 대한 대부분의 비교 증거는 소규모 비공식 가구 설문조사나 “확실한” 정량적 데이터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평가”에 기반한 국제기구, 연구팀, 시민사회 단체에서 실시한 측정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된다. 서로 다른 거버넌스 차원에 대한 양질의 통계에 대한 강력한 정책 요구에 대응하고 SDG 목표 16의 계층 III 지표를 개발하려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첫째, 거버넌스 통계의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거버넌스의 보편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다양한 기관과 연구원이 효율, 중립성, 책임성, 민주적 자질, 무차별, 정부 능력 등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용어를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용어를 다른 주체가 사용할 때도 다른 의미로 사용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주체가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통계의 개념적 범위에 합의하고, 주요 영역과 측면을 확인하며, 거버넌스 통계의 소관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구분하는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통계 커뮤니티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설립된 거버넌스 통계에 관한 UN 시티 그룹(프라이아 그룹)은 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둘째, 한 국가 내의 공공기관으로 제한될 때라도 거버넌스의 광범위한 개념은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며, 이는 “측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성숙 단계에 있다. 이번 장은 공식적인 출처가 아니더라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이미 제공되는 제한된 측면을 기반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공공기관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장에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거버넌스 측면은 이전 섹션에서 논의한 “측정 가능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다. 예를 들어, SDG의 목표 16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선택된 계층 III 지표는 이러한 측정 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과 가장 거리가 멀다. 양질의 거버넌스 통계를 개발하는 장기적 의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측정 우선순위에 대한 일부 합의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관들 사이의 분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셋째, 이번 장에서 검토한 측면에도 측정 과제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부패 인식과 직접적인 경험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는 “사소한 부패”를 넘어 측정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은 일반적인 조사 데이터(대표 표본 포함)와 특정 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보고한 경험과 결과의 경우처럼)를 결합하여 여러 공공 서비스에 걸쳐 일관되게 측정되어야 하는 다양한 요소(예: 적당한 가격, 적시성, 근접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다른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와 비교할 때, 사람들의 사법 접근성과 경험에 대한 더 나은 통계를 개발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 사람들의 정치적 목소리(및 그 목소리에 대한 기관의 대응성)는 시민 참여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뿐 아니라 개인적 웰빙에 대한 중요한 동인이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치 효능감 측정은 일반적으로 가구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를 측정하거나 정치 참여 및 정치적 대표성의 불평등을 평가할 때도 비슷한 측정 과제가 존재한다.
- 넷째, OECD는 이번 장에 제시된 일부 거버넌스 지표의 통계적 정확도를 분석했다(González, Fleischer, Mira d’Ercole, 2017).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존 지표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정확히 포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이 더 필요하다. *OECD 신뢰도 측정 지침*은 일부 거버넌스 차원의 통계적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의제 유형의 포괄적인 예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공식 설문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정치적 목소리에 관한 비교 가능한 질문을 식별하려면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간에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제 기구는 방법론적 지원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계청은 주요 측정 문제를 식별하고 관련 가설을 검증하고 양질의 통계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기반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OECD 신뢰도 측정 지침*에 포함된 *(지침에서 권장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의 기본 지표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3가지 질문은 공식 설문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거버넌스 통계 분야의 비교 분석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주

1. 기관이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초기에 공식화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76)였다. 그는 군주의 3가지 기능, 즉 “다른 독립 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간) 정확한 법 집행을 확립하는 것”, “위대한 사회에 유리하지만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건립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성격의 공공기관과 공공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구분했다.
2. ‘How’s Life?’의 웰빙 프레임워크는 현재 웰빙의 차원인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포함하며, 이는 투표율과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지표를 통해 (2015년에) 측정되었다. 한편 기관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4가지 유형의 자원 중 하나인 “사회 자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번 ‘How’s Life?’는 투표율과 함께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의 주요 지표로서 이 장에서 제시한 “정치 효능감”(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을 사용한다.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는 타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측정과 함께 사회 자본의 제도적 구성요소의 척도로 유지된다.
3. 뉴질랜드 일반사회조사(New Zealand General Social Survey)는 신뢰도, 투표, 정치적 참여에 관한 모듈을 포함한다. 멕시코 거버넌스의 품질 및 영향 조사(Mexican National Survey of Quality and Governmental Impact, ENCIG)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경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전자 수단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호주 통계청이 발간한 호주의 발전도 측정(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참여에 관한 통계로 구성된 거버넌스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간행물은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국민의 권리 및 책임과 같은 다른 거버넌스 하위 차원의 경우 데이터 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4. 목표 16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모두에게 사법 접근성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을 지는 제도 구축”에 전념한다(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eace-justice/). 목표 16은 1) 부패와 뇌물 감소, 2) 효과적이고 책임을 지는 투명한 제도 개발, 3) 즉각 반응하고 포괄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되는 의사결정 보장, 4)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관에 개발도상국의 참여 강화, 5)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제공, 6)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인 자유 보호, 7) 폭력을 막고 테러와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기관 강화, 8) 비차별적 법과 정책 장려 및 강화에 관한 세부 목표를 포함한다. 거버넌스의 측면은 목표 17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시행 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를 포함하며, 이들은 다른 목표와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17>).
5.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어원은 보트를 조종한다는 라틴어이다.
6. 무엇보다도 새로운 공공 관리 접근법(Gruening, 2001)은 수직적 조직이 아닌 수평적 조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유 부여의 중요성, 중앙집중화가 아닌 분권화, 권위에 기반한 규칙이 아닌 민주적 참여, 비밀 유지 대신 개방성과 투명성, 엮관제 대신 정치와 행정의 분리, 관료적 관리가 아닌 전략적 계획 및 유연한 관리 방식, 적법성이 아닌 타당성을 강조한다.
7. 여기에는 Smouts(1998)가 제안한 “(정당한) 프로세스, 조정, 수집 주체, 영구적 상호작용”과 Diamond 및 Morlino(2004)가 제안한 “자유, 법치, (정부에서 시민으로의) 수직적 책임, (정부 기관들 간의) 수평적 책임, 대응성, 평등, 참여, 경쟁”과 같은 민주주의적 자질이 포함된다.

8. 이 3가지 영역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그 경계가 흐릿할 수 있다(예: 원칙은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수자 보호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우의 공정성과 차별의 부재로 이어져야 하는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대우와 그들이 받는 서비스 품질은 공공기관의 평가와 기관이 개인 권리를 보장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선택한 삶을 살아갈 요소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9. 법 이론은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위한 비옥한 토대였다. 프로세스의 중심성에 관한 이론은 Hart 및 Sack의 중대한 저서인 “법적 프로세스”(The Legal Process, 1994)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견해의 상황에서 (예: 정부) 의사결정의 내용은 미리 계획될 수 없지만 의사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양질의 절차는 정보에 입각한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절차는 각 기관의 의무와 역할을 정의하여 서로 연결된 제도 시스템의 일부가 함께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제도화된 프로세스는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 견해를 들어야 하는 사람, 결정되어야 할 의사결정의 결과와 정당성, 준수해야 할 조치의 공식적 필요조건을 명시하여 재량에 대한 안전장치와 실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Eskridge 및 Frickey, 1993).
10. 마찬가지로,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분쟁 해결 모듈은 응답자에게 법원의 프로세스가 공정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Pleasence 및 Balmer(출간 예정)에 따르면, 국가 법률 필요성에 대한 최소 50건의 대규모 조사(법률 문제에 대한 대중의 경험과 응답을 탐구한 조사)가 1990년 중반부터 30개국 이상에서 실시되었다.
11.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는 거버넌스의 6가지 차원, 즉 발언 및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의 부재, 정부 효율성, 규제 품질, 법치, 부패 및 투명성에 대한 종합 지수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국가 간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지수는 가구 설문조사부터 전문가 조사에 이르기까지 31개의 다양한 데이터 출처 및/또는 비정부 조직, 상업적 통계 제공자, 공공 부문 조직에서 제공한 데이터에서 확보한 수백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한다.
12. 이 조사의 두 번째 컬렉션은 EU ANTICOR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에 발표되었다. 2017년 말에 공개될 유럽 삶의 질 조사(EQLS)의 다음 웨이브는 공공 서비스의 이용과 품질에 중점을 둘 것이다.
13. 아프리카의 통계조화전략(Stratgy for the Harmonization of Statistics in Africa, SHaSA)은 아프리카 통계조정위원회(African Statistical Co-ordination Committee, ASSC) 산하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AUC), 아프리카 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를 통합한다. 조화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일함으로써, SHaSA의 목표는 양질의 통계 생산을 지원하고 조정하며, 대륙 통계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결정에 통계 사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14.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실제로 민주주의는 때때로 시도되었던 다른 모든 형태를 제외하고 최악의 정부 형태”라고 말했다.
15. Schumpeter(1950)는 또한 선거를 통해 확고해지는 선거 경쟁이 정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를 제공했다.
16.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외국인 거주자(및 일부 국가에서 감옥과 정신 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는 총선에서 투표권이 없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석방 또는 보호 관찰 중인 사람이나 과거에 중죄를 범한 사람(예: 일부 미국 주)에게도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투표율 측정은 등록된 인구와 비교해 투표 연령 인구의 비율로 표현할 때(그림 4.1) 크게 다를 수 있다. 이전 ‘How’s Life?’에는 두 가지 투표율 지표가 모두 포함되었지만 OECD 더 나은 삶 지수에는 등록 인구에 대한 비율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궁극적인 등록 책임은 선거 관리 당국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등록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므로 유권자의 상당 비율이 등록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Mahler, Jesuit 및 Paradowski, 2016).

17. 선거 투표율 측정 시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는 가장 적절한 분모가 투표 연령 인구인지 아니면 유권자로 등록된 인구인지이다. 투표율에 대한 OECD 국가 순위는 유권자 등록, 선거 등록 유지 방법, 비거주자 투표에 관한 규칙,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는 거주자의 수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표는 최근 전체 OECD 지역에서 투표율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OECD 2015a 참조).
18. 선거 후 조사에 보고된 투표율은 선거 데이터의 행정 기록에 기반한 것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다.
19. CSES 분류에서 “기타” 카테고리는 주부, 영구 장애가 있는 사람,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람으로 구성된다.
20.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비교할 때 약간 더 큰 증가(5% 포인트)가 나타난다.
21. Maher, Jesuit, Paradowski(2016)는 사회적 이동을 통해 작동되는 소득 재분배의 크기에 대한 소득 5분위수별로 구분된 투표율의 영향을 조사한다. 그들은 다른 변수를 통제할 때, 투표율의 소득 기울기가 이동 재분배와 음의 관계가 있으며, 소득 분포의 하위에 있는 사람의 낮은 투표 참여는 더 적은 공적 이전 소득(public transfers)을 받는 이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린다.
22. 자원봉사와 웰빙에 관한 장은 ‘How’s Life?’ 2015년 판에 포함되었다(OECD, 2015a).
23. 분명한 정치 참여의 공식적 및 국회 밖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 Boarini 및 Diaz(2015)는 ESS에 명시된 다음 항목에 의존한다. 1) 투표, 2) 정당 또는 노조 가입, 3) 정치인 또는 공무원과 접촉, 4) 정당, 조직 또는 협회를 위해 일함, 5) 캠페인 배지나 스티커로 표시, 6) 지난 12개월 동안 청원서에 서명함, 7) 합법적인 시위에 참여함, 8) 특정 제품 불매 운동
24.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공무원과의 접촉에 대해 질문할 때, EQLS는 이것이 공공 서비스의 일상적인 이용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접촉이 아닌 다른 접촉을 나타낸다고 명시한다. 다른 조사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질문을 표현한다(예: 갤럽세계여론조사는 지난 달에 공무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응답자에게 묻는다).
25.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서명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는 1) 비밀 투표 또는 동등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동등한 참정권을 토대로 보편적이고 정기적이며 진정한 선거의 실시, 2)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 언론을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으며 전달할 권리를 비롯해 의견과 표현의 자유, 3)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자국 정부에 직접 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26.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는 또한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의 “이상(ideal)”에 대해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의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응답자에게 요청한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나타난 폭넓은 패턴은 유럽 시민이 민주주의 여러 요소들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중요성은 평균 8.9, “언론 신뢰도”는 8.1, “불평등 감소”는 8.1,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직접 메커니즘(국민 투표)은 8.2였다. 모든 경우에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에 부여된 평균 중요도는 그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 수준보다 높으며, 이는 기대와 실제 성과 사이에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에 기인한 중요도의 국가 간 차이는 자국 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보다 더 작았다.
27. 표 4.3에 표시된 민주주의 요소는 이론적 모형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기반한 요인 분석을 통해 선택되었다. 요인을 강하게 나타내는 요인 적재값이 가장 높은 질문만 유지되었다.
28. 스위스에서는 응답자들이 이 구성요소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고한다. 그러한 결과는 사회, 경제, 정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스위스 시스템과 일치한다.
29.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정치인, 사법제도, 국회의원, 경찰, 유럽 의회, 유럽연합과 같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질문한다.

30. IPU(Inter-Parliamentary Union)의 최신 증거에 따르면, 2017년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의 28.8%가 여성이었으며, 이는 2015년(27.8%)보다 1%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1995년 UN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확립된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 설정된 30% 목표보다 약간 낮지만 전체 패리티(parity)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31. 예를 들어, 무작위 정책 실험에서 Chattopadhyay 및 Duflo(2004)는 마을 우두머리의 1/3이 여성에게 배정된 인도 토후국에서 여성 리더가 있는 마을은 여성의 요구와 직접 관련된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32. 광범위한 일반화로서 Matthews(1985)는 “거의 모든 곳의 입법자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고위 직급을 차지하며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33. Carnes(2012)는 “이익 지향적인 전문직에서 경력을 쌓은 뒤 정치에 입문한 대표자들은 다른 의원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투표했다. 노동 계급의 대표자들은 좀더 진보적으로 투표했다. 그리고 서비스 기반 전문직(비영리 목적) 및 변호사 출신으로 장기간 정치에 종사한 대표자들은 그 사이에 위치한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분석을 요약한다. Carnes의 다변량 분석은 입법자의 이전 직업에 기반한 경제 정책에 대한 투표 행동의 차이가 상당히지만 대표자의 교육, 소득, 자산을 볼 때는 크지 않다고 보여준다.
34. 종속 규정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참여 지표가 존재한다. 기본법은 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는 규정이지만 종속 규정은 정부 수반, 개별 장관 또는 내각(의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승인할 수 있다.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는 두 지표(기본법과 종속 규정)의 평균을 고려한다. 이 지표는 2017/18년에 업데이트되고 규제 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에 공개된다.
35. 공무원이 제공한 평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OECD는 여러 검증 메커니즘을 통합시킨다. 설문조사와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ECD 규제 정책 전망 2015를 참조한다.
36. 기업 수준에서의 부패 측정은 이번 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 간 비교 조사(예: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조사)는 기업의 관리자에게 묻는 부패 관련 질문을 포함한다. 이러한 질문 대부분은 기업 자체에 의한 부패의 실제 경험이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뇌물이나 다른 유형의 부패 행위에 대해 묻는 “그들과 같은” 원형 기업에 관한 것이다 (Andvig, 200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업은 관세, 세금, 면허, 규제,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때때로 공무원에게 선물이나 비공식적 지불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이 이러한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비공식적 지불이나 선물은 평균적으로 연간 매출 총액이나 예상 연간 총액의 몇 퍼센트나 되는가?”
37. OECD(예: 멕시코)와 비회원국(예: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NSO는 국가 수준에서 공무원과 시민의 상호작용에 따른 부패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특별 조사 모듈을 개발했다. 프랑스 통계청, 경제연구소(INSEE)와 같은 다른 NSO는 조만간 부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8. 인구 기반 및 비즈니스 기반 표본 조사를 통해 부패 측정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국제 프로세스는 UN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와 UNODC-INEGI 정부, 범죄, 희생, 정의에 관한 통계 정보의 우수성 센터(CoE)의 지지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 매뉴얼의 목표는 국가 수준에서 뇌물 관행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표본 조사 개발을 지원하는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매뉴얼은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 16.5.1(“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과 한 번 이상 접촉한 적이 있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한 사람의 비율”)과 16.5.2(“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과 한 번 이상 접촉한 적이 있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한 사람의 비율”)를 위한 지표 생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한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기구, NSO, 연구원, 감사 및 컨설팅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

- 졌다. 매뉴얼은 2017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39. 점수를 받으려면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가 최소 3개가 있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출처는 데이터가 1)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안정적인 방법론에 기반할 때, 2) 공공 부문의 부패를 다룰 때, 3) 세부적일 때(즉 사용된 척도로 충분한 구분이 가능함) 4) 국가간 비교 가능할 때, 5) 여러 해 동안 사용 가능할 때 지수 구성을 위한 수용 가능한 품질로 간주된다.
 40. 또한, 다른 관련 현상은 정당과 선거 운동의 로비와 자금 조달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득권 집단이다. 이는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은 설문조사 측정으로도 누락된다. 최근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OECD 국가에서 최근 로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정치 자금 조달에 대해 이러한 현상의 적절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OECD, 2015d). 정부 자문 그룹의 불균형한 대표성,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 “회전문 인사”뿐 아니라 이러한 측면의 측정은 측정 도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한다.
 41. OECD “대시민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비용과 사용자의 자기보고 만족도의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요 서비스(예: 의료, 교육, 사법)의 품질을 평가하려면 “접근성”(저렴한 비용, 지리적 근접성, 정보 가용성과 같은 여러 차원을 기반으로), “대응성”(시민 중심의 접근법의 존재, 특별한 요구와 서비스의 일치, 서비스 제공의 적시성을 기반으로), “신뢰성”(서비스와 결과의 효과적인 제공,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 결과와 안전)이 필요하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1년 판에 처음 소개된 이후 이 프레임워크는 각 정책 영역과 차원에 대한 새로운 지표로 채워지고 있다.
 42. 갤럽세계여론조사는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대중교통 시스템/교육 시스템 또는 학교/의료 가용성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사법제도와 경찰의 경우 갤럽세계여론조사는 “이 국가에서 다음을 신뢰하는가? 사법 제도나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다.
 43.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한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질문 외에도 대우 및 정보에 대한 만족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예: 의료 및 교육의 경우), 서비스 이용 지연에 대한 만족도 등 공공 서비스의 특정 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품질 속성이 측정된 설문조사의 한 가지 예는 멕시코 거버넌스의 품질 및 영향 조사(ENCIG)이다.
 44. 교육의 경우,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의료의 경우,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경찰의 경우, 만족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2개 국가 중 4개 국가에서 경찰과의 직접 경험은 평균 만족도를 더 낮추었다.
 45. 2017년 1월 17일 회의에서 OECD 국가의 보건 장관은 OECD 국가에서 환자의 경험과 결과를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통계 도구를 개발하는 일을 OECD 고용노동사회복지부(ELS)에 위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자보고지표조사(Patient-Reported Indicators Survey, PaRIS)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시스템 성과에 대한 환자 중심의 시각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46. 정치 효능감은 OECD 성인역량조사(PIAAC)의 데이터를 통해 측정된다. PIAAC의 첫 번째 웨이브는 20개의 OECD 국가, 3개의 OECD 하위 국가(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러시아를 포함하며, 두 번째 웨이브는 리투아니아(OECD 가입국), 추가 6개의 OECD 국가를 포함했다.
 47. 정부와 정치체계에 대한 신뢰도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공식화한 것은 기원 전 500년경 중국에 살았던 공자이다. “정부에는 무기, 식량, 신뢰가 꼭 필요하다. 통치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무기를 가장 먼저 포기하고 그 다음은 식량이다. 신뢰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 신뢰가 없다면 버틸 수 없다.”

48. 수년 동안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신뢰도 데이터의 주요 출처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였으며, 1981년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49. 각 조사마다 지리적 범위와 빈도가 서로 다르다. 갤럽세계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의 경우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집되는 반면 WVS, ESS, EQLS 등 다른 조사의 경우 국가 범위가 훨씬 제한적이다. ESS의 데이터 수집은 2년 간격이고, EQLS는 3년 간격이며, WVS는 대략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EU SILC의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는 2013년의 특수 모듈에서만 수집되었다.
50. “여러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UN 2030 의제의 세부 목표 16.6(“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을 지는 제도 개발”) 모니터링을 위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지표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통계 커뮤니티는 점점 더 신뢰도 지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https://unstats.un.org/unsd/statcom/48th-session/documents/2017-2-IAEG-SDGs-E.pdf>).
51. Trustlab의 예비 증거(설문조사 질문과 실험적 게임을 결합하여 타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OECD에서 개발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는 좋은 거버넌스가 기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한다. 특히,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공공기관의 개방성 및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공기관이 시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 Acock, A., H.D. Clarke and M.C. Stewart (1985), “A new model for old measure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7, No. 4, pp. 1062-1084.
- Andvig, J. (2005), “A house of straw sticks or bricks? Some notes on corruption empirics”, NUPI Working Paper, No. 678.
- Barnes, L. (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working time and redistribution”, in Wren A.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ervice Tran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82-305.
- Barnes, S.H. and M. Kaase (eds.)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and London: Sage Publications.
- Bauman, Z. and C. Bordoni (2014), *State of Crisis*, Polity Press, Cambridge.
- Boardman, C. (2014), “Assessing governance: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policy outcomes in national mission a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Vol. 27, No. 3, pp. 519-526.
- Boarini, R. and M. Diaz (2015), “Cast a ballot or protest in the street – Did our grandparents do more of both? An age-period-cohort analysis in political participation”,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5/0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s636gn50jb-en>.
- Borgonovi, F. and A. Pokropek (2017), “Mind the gap: The mediating role of literacy and education in explaining disparities i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n 22 countries”, *Intelligence* (2017), <http://dx.doi.org/10.1016/j.intell.2017.03.006>.
- Broome, A. and J. Quirk (2015), “Governing the world at a distance: The practice of global benchmarking”,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1, No. 5, pp. 819-841, <https://doi.org/10.1017/S0260210515000340>
- Byrne, E. (2012), *Political Corruption in Ireland: 1922-2012, A Crooked Harp*,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Carnes, N. (2012), “Does the numerical underrepresentation of the working class in Congress matter?”,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37, pp. 534.
- Carnes, N. and N. Lupu (2015), “Rethinking the comparative perspective on class and representation: Evidence from Lat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pp. 118.

- Chattopadhyay, R. and E. Duflo (2004), “Women as policy makers: Evidence from a randomized policy experiment in India”, *Econometrica*, Vol. 72, No. 5, pp. 14091443.
- Coppedge, M. et al. (2011),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democracy: A new approach”,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9, pp. 247267.
- Craig, S. et al.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Vol. 12, pp. 289314.
- Dahl, R.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Deaton, A.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Delwit, P. (2012), “The end of voters in Europe? Electoral turnout in Europe since WWII”, *Ope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1, pp. 4452.
- Diamond, L. and L. Morlino (2004), “The quality of democracy: An overview”, *Journal of Democracy*, Vol. 15, No. 4, pp. 2030.
- Djankov, S. et al. (2009), “Disclosure by politician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2, pp. 179209.
- Dorn, D., J. Fischer, G. Kirchgassner and A. SousaPoz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2, pp. 505526.
- Ekman, J. and E. Amna (200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Towards a New Typology*, Youth and Society, Orebro University.
- Erlingsson, G. and G. Kristinsson (2016), “Making sense of corruption perceptions: Who to ask (and about what?)”, Working paper series 2016:13,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QoG), University of Gothenburg, Gothenburg.
- Eskridge, W. and P. Frickey (1993), “Making of the Legal Process”, *Harvard Legal Review* 107, pp. 20372055, Cambridge, Massachusetts.
- Ferrín, M. (2016), “An empirical assessment of satisfaction with democracy”, *How Europeans View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rrín, M. and H. Kriesi (2016), “Introduction: Democracy – the European verdict”, *How Europeans View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nkel, S.E. (1987),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support: Evidence from a West German panel”, *Journal of Politics*, Vol. 49, No. 2, pp. 441464.
- Flavin, P. and M.J. Keane (2011), “Life satisfac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3, No. 1, pp. 6376.
- France Stratégie (2016), *Lignes de Faille. Une Société à Réunifier*, Paris, www.strategie.gouv.fr/sites/strategie.gouv.fr/files/atoms/files/dp_-_lignes_de_faille_0.pdf, (accessed on 17 March 2017).
- Frey, A. and B. Stutzer (2006),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rocedural utility: An empirical stud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No. 45, pp. 391418.
- Frey A. and B. Stutzer (2004), “Introducing procedural utility: Not only what but also how matter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JITE)* Vol. 160, pp. 377401
- Fujisawa, R. and N. Klazinga (2017), “Measuring patient experiences (PREMs): Progress made by the OECD and its member countries 20062015”, *OECD Health Working Papers*, Paris.
- Fukuyama, F. (2014),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 Geissel, B., M. Kneuer and H.J. Lauth (2016), “Measur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troduc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7, No. 5, pp. 571579.

- Gilens, M. (2005), "Inequality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69, No. 5, Special Issue 2005, pp. 778796.
- Gómez, B. and I. Palacios (2016), "Citizens evaluations of democracy, A microscope with quality seal", *How Europeans View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 González, A. and F. Boehm (2011), "Medir la corrupción: De la generación de conciencia a los peligros de la mala interpretación" (Measuring corruption: From awareness generation to the dangers of misinterpretation), *Revista Opera*, No. 11, pp. 259275.
- González, S., L. Fleischer and M. Mira d'Ercole (2017), "Governance statistics in OECD countries and beyond: What exists, and what would be required to assess their quality?",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7/0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c0d45b5e-en>.
- Grönlund, K. and M. Stäelä (2007), "Political trust, satisfaction and voter turnout",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No. 5, pp. 400422.
- Gruening, G. (2001), "Origin and theoretical basis of new public management",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Vol. 4, pp. 125.
- Gupta, S., H. Davoodi and R. AlonsoTerme (2002), "Does corruption affect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s of Governance*, Vol. 3, No. 1, pp. 2345.
- Hart, H and A. Sacks (1994), "The legal process: Basic problems in the making and application of law", Foundation Press, Eagan, Minnesota.
- Held, D. (2006), *Models of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 Helliwell, J. et al. (2014), "Good governance and national wellbeing: What are the linkag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2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xv9f651hvj-en>.
- Holmberg, S., B. Rothstein and N. Nasiritousi (2009), "Quality of government: What you ge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2, pp. 135161, www1.ethz.ch/ib/teaching/pwgrundlagen/Quality_government.pdf(accessed on 20 February 2017).
- Holt, J. and N. Manning (2014), "Fukuyama is right about measuring state quality: Now what?", *Governance Review*, Vol. 27, No. 4, pp. 717728, October, Washington D.C.
- Hoskins, B. and J.G. Janmaat (2016), "Educational trajectories and inequalities of political engagement among adolescents in England", *Social Science Research*, Vol. 56, pp. 7389, <http://dx.doi.org/10.1016/j.ssresearch.2015.11.005>, (accessed on 20 February 2017).
-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2016), *Voter Turnout Trends around the World*, IDEA Publishing, Stockholm.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Kim, S. and D. Kim (2012), "Does government make people happy? Exploring new research directions for government's roles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3, No. 5, pp. 875899.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902-011-9296-0>
- Lane, R. (1959), *Political Life: Why and How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Free Press, New York.
- Lauth, H. (2004), *Demokratie und Demokratiemessung: Eine Konzeptionelle Grundlegung für den Interkulturellen Vergleich (Democracy and Democracy Measurement: A Conceptual Basis for Intercultural comparison)*, Wiesbaden, Germany,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Mahler, V., D. Jesuit and P. Paradowski (2016), "Electoral turnout and state redistribution: A cross-national study of 14 developed countries", *Luxembourg Income Study (LIS)*, No. 633, Luxembourg.

- Matthews, D. (1985), “Legislative recruitment and legislative careers”, *Handbook of Legislative Research*, Harvard University Press.
-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pp. 681-712.
- Mcevoy, C. (2016), “The role of political efficacy on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54, No. 5, pp. 1159-1174.
- Miller, A. and O. Listhaug (1990), “Political partie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 comparison of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0, No. 3, pp. 357-386.
- Norris, P. (2012), *Making Democratic Governance Work – The Impact of Regimes on Prosperity, Welfare and Pe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Nussbaum, M. (2011), *Creating Capabilities –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Nussbaum, M. (2010),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Humani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OECD (2017a),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 OECD (2017b),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7-en
- OECD (2015a),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 OECD (2015b),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5-en
- OECD (2015c),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8770-en>
- OECD (2015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 OECD (2013a),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3-en
- OECD (2013b),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ffe, C. (2009), “Governance: An ‘empty signifier’?”, *Constellations*, Vol. 16, No. 4, Blackwell Publishing.
- Ott, J.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1, No. 3, pp. 353-368,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902-009-9144-7>.
- Pearce, N. (2007), “Fair rules, rethinking fairness”, *Public Policy Research*, March-May 2007, The Author Journal Compilation.
- Plattner, M.F. (2013), “Reflections on ‘Governance’”, *Journal of Democracy*, Vol. 24, No. 4, pp. 1728,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leasence, P. and N.J. Balmer (forthcoming), “Legal confidence and attitudes to law: Developing standardised measures of legal capability” *Legal Education Foundation*, London.

- Putnam, R. (2005),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New York.
- Putnam, R. (1976),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Razafindrakoto, M. and F. Roubaud (2015), “Les modules Gouvernance Paix et Sécurité dans un cadre harmonisé au niveau de l’Afrique (GPS SHaSA) : Développement d’une méthodologie d’enquête statistique innovante” [The Governance, Peace and Security modules in a harmonised framework at the African level (GPS SHaSA):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Survey Methodology], *Revue Méthodologique Statéco*, no. 109, pp.122158, INSEE.
- Rodrik, D. (2007), *One Economics, Many Recipes: Globaliza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Rotberg, I.R. (2014), “Good governance means performance and result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Vol. 27, No. 3, pp. 511-518, July.
- Rothstein, B. and M. Tannenber (2014),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development policy”, A Report to the Swedish Government’s Expert Group for Aid Studies,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University of Gothenburg, Gothenburg, http://qog.pol.gu.se/digitalAssets/1549/1549815_the-quality-of-government-and-development-policy.pdf, (accessed 20 February 2017).
- Rothstein, B. and J. Teorell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Vol. 21, pp. 165-190.
- Schäfer A. (2013), “Affluence ine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S.I. Keil and O.W. Gabriel (eds.), *Society and Democracy in Europe*, Routledge, London, pp. 139-161.
- Schumpeter, J.A.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and Brothers, New York.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Forgotten Books.
- Smuts, M.-C. (1998), “The proper use of gover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0, No. 155, March.
- Spence, M.A. (2011), *The Next Convergence: The Future of Economic Growth in a Multispeed World*,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 Stiglitz, J.E. (2015), “The origins of inequality, and policies to contain it”, *National Tax Journal*, Vol. 68, No. 2, pp. 425-448.
- Stiglitz, J.E., A. Sen and J.P.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ttps://www.insee.fr/en/information/2662494>.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5),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 Technical Methodology Note*, Berlin, www.transparency.it/wp-content/uploads/2016/01/Technical-Methodology-Note-Corruption-Perceptions-Index-2015.pdf (accessed 20 February 2017).
- Uslaner, E. and M. Brown (2003), “Inequality, Trust and Civic Engagement”,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31, No 10, pp 1-28
- Van Biezen, I., P. Mair and T. Poguntke (2012), “Going, going, . . . gone? The decline of party membership in contemporary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1, pp. 24-56.
- Van de Walle, S. and G. Bouckaert (2003), “Public service performance and trust in government: The problem of caus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26, No. 8-9, pp. 891-913.
- Van Zanden, J. et al. (eds.) (2014),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4262-en>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0, No. 4, pp. 333-354.
- World Bank (2017), *World Development Report 2017: Governance and the Law*, World Bank Publishing, Washington D.C.
- Yang, K. and Holzer, M. (2006), “The Performance–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66, pp. 114-126.

참고 데이터베이스

- Comparative Candidate Survey, <http://www.comparativecandidates.org/> (last accessed on 15 May 2017).
-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 <http://www.cses.org/> (last accessed on 30 June 2017).
-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2012), Round 3, <https://www.eurofound.europa.eu/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2012> (last accessed on 31 March 2017).
- European Quality of Governance Survey, <https://nicholascharron.wordpress.com/european-quality-of-government-index-eqi/> (last accessed on 31 March 2017).
- European Social Survey (2012), Round 6 special rotating module on citizens’ valuations of different elements of democracy, www.europeansocialsurvey.org/data/themes.html?t=udemocracy (last accessed on 31 March 2017).
- Gallup Analytics, www.gallup.com/products/170987/gallup-analytics.aspx (last accessed on 28 April 2017).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www.idea.int (last accessed on 31 March 2017).
- OECD (2016),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database), www.oecd.org/skills/piaac/publicdataandanalysis/ (last accessed on 28 April 2017).
- OECD (2014),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last accessed on 31 March 2017).
- PEW Research Centre, Historic trends of public trust, www.people-press.org/2015/11/23/1-trust-in-government-1958-2015/ (last accessed on 30 May 2017).
- World Justice Project (2016), Dispute resolution survey module,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wjp-rule-law-index/wjp-rule-law-index-2016> (last accessed on 30 May 2017).

제 5 장

국가별 현황

웰빙을 측정하는 OECD 접근법은 사회, 경제, 환경 발전의 매우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비교 가능 지표를 포함한다. 이 프레임워크의 주요 장점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여러 결과에 걸쳐 개별 국가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페이지의 국가별 현황에서 이번 장은 OECD 국가와 6개 파트너 국가의 평균 성과를 제시한다. 각 현황은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에 대한 국가별 상대적 성과를 요약하며,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간략히 설명하여 보완한다.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은 설명 지표의 대시보드를 통해 조사되며, 이는 자연, 경제, 인적, 사회 자본과 관련된 척도의 비교 수준과 10년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개요를 통해 국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각 개별 국가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라 새로 등장한 주요 패턴을 강조할 수 있다. 이 국가별 현황에는 웰빙의 불평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분야의 국가 성과에 대한 검토는 제2장을 참조한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별 현황에 대한 독자 가이드

현재 웰빙, 중심 지표

국가별 현황에서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은 ‘How’s Life?’의 이전 판을 통해 개발되었던 중심 지표의 표준 세트에 평가된다(아래 표 5.1). 이러한 지표들은 ‘How’s Life? 2011’에 소개되었던 여러 다른 품질 기준에 대해 평가되었다. 이 표준 세트는 새롭고 더 나은 데이터 출처가 제공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발전한다(박스 5.1 참조). 정의, 관측 값, 시계열, 출처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의 웰빙\(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웰빙의 불평등은 제2장에서 나와 있다.

표 5.1. 현재의 웰빙의 중심 지표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연도*	국가 범위 (OECD와 파트너) [‡]	출처
소득과 자산					
가구소득	가구 순가처분소득	현재 PPP일 때 달러, 1인당 평균(최신 연도에 대해), 2010년 PPP일 때 달러, 1인당 평균(시계열에 대해)	2005~2015년	OECD 30 + 3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
가구순자산	가구순자산	현재 PPP일 때 달러, 가구당 평균	2008~2015년 사이에 다양함	OECD 27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
일자리와 임금					
고용	고용률	고용된 15~64세, 15~64세 인구의 비율	2005~2016년	OECD 35 + 6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임금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소득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PPP일 때 US달러	2005~2016년	OECD 34 + 1	OECD 연평균 임금 데이터베이스
노동시장 불안정성	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실업과 관련한 평균 예상 금전적 손실, 이전 임금의 비율	2007~2015년	OECD 34	OECD 일자리 질 데이터베이스
직무 긴장	직무 긴장 빈도	직무 자원의 수를 초과하는 많은 직무 요구를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	2005년, 2010년, 2015년	OECD 35 + 3	OECD 일자리 질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작성된 임시(2017년 9월) 추정치
장기 실업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2005~2016년	OECD 34 + 5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주거					
1인당 방의 수	1인당 방의 수	1인당 평균 방의 수(욕실, 화장실, 주방, 식기실/다용도실, 차고 제외)	2005~2015년	OECD 35 + 4	EU SILC**와 기타 국가 통계청 출처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주택 구매력	주택에 대한 가구 지출	주택 임대료와 유지관리에 소비된 가구 총가처분소득의 비율	2005~2015년	OECD 33 + 5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
기본 위생시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	2005~2015년	OECD 32 + 5	EU SILC**와 기타 국가 통계청 출처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2005~2016년	OECD 31 + 6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휴식시간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	정규 직원의 일일 시간	~ 2010년만 해당	OECD 21 + 1	OECD 시간 사용 데이터베이스

표 5.1. 현재의 웰빙의 중심 지표(계속)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연도*	국가 범위 (OECD와 파트너) [‡]	출처
건강 상태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여명	신생아의 기대여명	2005~2015년	OECD 35 + 6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인지된 건강	인지된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2005~2015년	OECD 35 + 3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교육과 역량					
교육 성취도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고등교육 성취도	최소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의 비율	2005~2016년	OECD 34 + 6	OECD 한눈에 보는교육 데이터베이스
성인 역량	16~65세 성인의 역량	문해력 및 수리력 평균 능숙도	~ 2012년만 해당	OECD 28 + 2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15세 인지 능력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	읽기, 수학, 과학의 평균 점수	2015년만 해당	OECD 35 + 5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 SA)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5/6~2016년	OECD 35 + 6	갤럽세계여론조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율	투표율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	2005~2017년	OECD 35 + 6	IDEA
정부 발언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16~65세 사람의 비율	~ 2012년만 해당	OECD 28 + 2	성인역량조사(PIAAC)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환경의 질					
수질	수질 만족도	전체 인구 중 만족한 사람의 비율	2005/6~2016년	OECD 35 + 6	갤럽세계여론조사
대기의 질	초미세먼지(PM 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노출 인구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PM _{2.5} 농도, µg/m ³ , 3년 연속 평균	2005~2013년(3년 연속 평균)	OECD 35 + 6	OECD 대기오염 노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개인적 안전					
살인율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비율	2005~2014년	OECD 35 + 6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야간 안전감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06~2016년	OECD 35 + 6	갤럽세계여론조사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11점 척도의 평균값, 0(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10(완전히 만족함)까지의 응답	2013년, 2014년, 2015년(출처에 따라)	OECD 30	EU SILC**와 기타 국가 통계청 출처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 국가 범위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만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변화의 경우 OECD 평균은 불완전한 시계열과 데이터 중단으로 인해 훨씬 더 제한적인 국가를 고려한다.

* 고려된 가장 긴 시계열을 나타낸다. 모든 국가에서 전체 시계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유럽 조사(EU SILC)

† 시간 경과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평가의 경우 긴 시계열을 제공하기 때문에 갤럽세계여론조사 데이터가 사용된다.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척도가 사용되며, 측정 단위는 0~10 척도의 평균 점수이다.

박스 5.1. 현재 웰빙을 위한 중심 지표 세트 업데이트

표 5.1에는 최근 측정 진척 상황을 반영하여 ‘How’s Life?’의 2015년 판 이후 중심 지표 세트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OECD, 2015a).

소득과 자산 차원의 경우, 1인당 가구 금융순자산(*household net financial wealth*)(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은 가구당 가구순자산(*household net wealth*)(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으로 대체되었다. 개념적으로, 재정 자산은 주택 소유와 같은 가구의 중심인 주요 비금융 자산을 배제하기 때문에 순자산은 관심 있는 대상 구성에 더 가깝다. 최근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순자산 지표의 국가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박스 5.1. 현재 웰빙을 위한 중심 지표 세트 업데이트(계속)

일자리와 임금 차원에서 *실직하게 될 가능성(probability of becoming unemployed)* 지표는 OECD의 일자리 질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개발된 *노동시장 불안정성(labour market insecurity)* 지표로 대체되었다(Cazes, Hijzen 및 Saint-Martin, 2015, OECD 2017a). 이 지표는 각 OECD 국가에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가능성, 평균 실직 기간, 실직 시 받는 실업 수당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이 지표는 실직 상태와 관련된 평균 예상 금전 손실의 척도를 제공하며 이전 임금의 비율로 표시된다.

또한 일자리와 임금 맥락에서 새로 개발된 *직무 긴장(job strain)* 지표(OECD 일자리 질 데이터베이스)는 작업 환경의 질의 지표로서 중심 지표에 추가되었다. 이것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예: 업무 재량권, 교육 및 학습 기회, 승진 기회, 일자리의 내재적 보상)를 초과하는 많은 직무 요구(육체적 요구, 노동 강도, 근로시간의 유연성 부족, 인지도된 일자리 불안정성)를 겪고 있는 직원의 비율을 반영한다.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차원의 경우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어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 하는지 여부를 다룬다. 이는 OECD 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자료를 얻었고 제4장 “거버넌스와 웰빙”에 소개된다. 이전에 현재 웰빙의 지표로 사용되었던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지표는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섹션에서 사회 자본 지표로 유지되었다(표 5.5 참조).

환경의 질에서 대기 질 지표(*초미세먼지 PM_{2.5}에 의한 연간 실외 대기오염 노출*)는 *녹색 성장 지표(Green Growth Indicators)* 프로젝트(OECD, 2017b)의 중심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OECD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의 새로운 추정치를 사용한다. 이는 추정치의 변동성 때문에 3년 연속 평균으로 표시된다.

또한 개인적 안전 차원에서 이전 12개월 동안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갤럽세계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자기보고 희생(self-reported victimization)*에 대한 지표는 중심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갤럽세계여론조사에서 이 데이터가 더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에서 강점과 약점 평가

각 국가별 현황의 첫 번째 페이지는 평균 현재 웰빙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의 개요를 제시한다. OECD 국가의 경우, 원형 막대 차트(또는 “바퀴”)로 결과를 제시하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단위로 표현된 지표의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 최소-최대 척도 절차에 따라 값을 정규화했다. 이 정규화는 지표의 원래 값을 0(최악의 결과)과 100(최고의 결과)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는 여러 수치로 변환하는 표준 공식에 따라 이루어진다.¹ 차트에서 중앙 흰색 원은 최고 수준(0)을 나타내는 기준이며 내부 흰색 경계는 각 지표의 최대(100)를 설정한다.² 각 국가의 상대적 성과는 지표당 하나의 파란색 막대로 표시된다.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 모두 막대가 길수록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며, 막대가 짧을수록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호주의 경우 휴식 시간은 OECD 국가 중 거의 가장 낮은 수준에 있지만 가구순자산과 투표율은 거의 최고 수준이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의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웰빙 지표는 OECD 평균과 전체 파트너 국가의 평균에 대해 각국의 성과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표로 제시된다.

지난 10년간 평균 웰빙의 변화 평가

각 국가별 현황의 두 번째 페이지는 현재 웰빙에 대한 중심 지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평가를 제공한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일반적으로 2015년 또는 2016년)에 관측된 값의 단순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단 하나의 시점만 있는 지표 및/또는 짧은 시계열만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제외된다. 시계열 중단은 전체 10년 기간에 대해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중단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변화(예: 2005년과 2013년 사이)가 본문에 종종 설명되며, 해당 연도가 명확하게 표시된다. “즉각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화살표로 변화의 방향을 요약한다(개선 ↗, 악화 ↘, 변화 없음 ⇔). 이는 부록 5.A에 상세히 기술된 임계점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평가

각 국가별 현황의 세 번째(마지막) 페이지는 시간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는 아래 박스 5.2에 설명된 일부 업데이트 범위를 비롯해 ‘How’s Life? 2013’ (OECD, 2013)에 소개되고 ‘How’s Life? 2015’(OECD, 2015b)에 제시된 일련의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2005년 대비 수준과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대시보드 형식에서는 자연, 인적, 사회, 경제 자원(또는 “자본”)에 관한 설명 지표를 제시한다. 자원 “자산”(산림 면적 등)을 반영하는 지표 외에도 투자(연구개발 비용 등), 고갈(온실가스 배출 등), 위험 요소(흡연, 비만율 등)도 고려한다. 데이터는 1인당 기준으로 제시되며(아래 표 5.2~5.5 참조) 정의, 관측 값, 시계열, 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개의 *온라인 데이터 부록*(현재 웰빙과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7_how_life-2017-en).

국가별 현황의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대시보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 대시보드에 표시된 계층은 해당 국가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위 1/3, 중간 1/3 또는 하위 1/3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³ OECD 파트너 국가의 경우 “OECD와 동등한” 순위가 표시된다. 즉 OECD 국가의 상위, 중간, 하위 1/3에 대해 각 국가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1”은 파트너 국가가 전체 OECD 국가 중 상위 1/3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나타내며, “2”는 전체 OECD 국가 중 중간 1/3과 같은 성과를 표시하고, “3”은 전체 OECD 국가 중 하위 1/3과 동일한 성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원 수준을 특성화하는 것은 (절대적 성과가 보다는) 상대적 성과를 강조하고, (실질적인 현실 세계의 중요정보보다는) 순수 수학적 기준으로 실제로 매우 가까운 값을 다른 계층에 배정할 때 일부 왜곡을 유발하는 등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지표에 동등하게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대시보드의 변화 열은 2005년(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근접 연도) 값과 현재(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값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기간 사이의 변동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화살표로 변화의 방향을 요약한다(개선 ↗, 악화 ↘, 변화 없음 ⇔). 이는 부록 5.A에 상세히 명시된 임계점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된 연도는 대시보드에 나와 있다. 고려된 기간은 모든 국가가 완전한 시계열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로 다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사용 가능한 시계열이 매우 짧은 경우 변화 열에 “·”로 표시된다.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이에 따라 계층과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경우) 지표는 대시보드의 각 표 끝에 별도로 열거된다. 이는 주요 데이터 격차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 5.2. 자연 자본의 설명 지표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연도	국가 범위 (OECD + 파트너) ‡	출처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CO ₂ 당량 톤	2005~2015년	OECD 35 + 4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국내 최종 수요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톤	2001~2011년	OECD 35 + 6	OECD 구조 분석(STAN) 데이터베이스
PM _{2.5} 대기오염 노출	초미세먼지(PM 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에 인구 노출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PM _{2.5} 농도, µg/m ³ , 3년 이동 평균	2005~2013년(3년 이동 평균)	OECD 35 + 6	OECD 대기오염 노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산림 면적	산림 면적	인구 1,000명당 산림 면적(km ²)	2005~2014년	OECD 35 + 6	OECD 녹색 성장 지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1인당 1,000m ³	장기 연평균	OECD 35 + 5	OECD 녹색 성장 지표 데이터베이스
담수 취수	담수 취수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서의 총 취수, 1인당 m ³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OECD 34 + 5	OECD 녹색 성장 지표 데이터베이스
위험 받는 조류	위험 받는 조류	알려진 모든 종 중 위험 받는 종(%)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OECD 32 + 4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위험 받는 포유류	위험 받는 포유류	알려진 모든 종 중 위험 받는 종(%)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OECD 30 + 4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위험 받는 식물	위험 받는 식물	알려진 모든 종 중 위험 받는 종(%)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OECD 30 + 4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 국가 범위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만 나타낸다.

표 5.3. 인적 자본의 설명 지표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연도	국가 범위 (OECD + 파트너) ‡	출처
청년의 교육 성취도	고등교육 성취도, 25~34세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2005~2016년	OECD 34 + 6	OECD 한눈에 보는교육 데이터베이스
교육 기대년수	예상 교육 기간	5세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평균 교육 기간(39세 이전)	2015년만 해당	OECD 35 + 5	OECD 한눈에 보는교육 데이터베이스
15세의 인지 능력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	읽기, 수학, 과학의 평균 점수	2015년만 해당	OECD 35 + 5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인 역량	16~65세 성인의 역량	문해력 및 수리력 평균 능숙도	~ 2012년만 해당	OECD 28 + 2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장기 실업률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2005~2016년	OECD 34 + 5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여명	신생아의 기대여명	2005~2015년	OECD 35 + 6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흡연율	매일 흡연율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	2005~2016년	OECD 35 + 6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비만율	비만율	15세 이상의 비율	2005~2016년	OECD 35 + 6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 국가 범위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만 나타낸다.

표 5.4. 경제 자본의 설명 지표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연도	국가 범위 (OECD + 파트너) ‡	출처
생산된 고정 자산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	2005~2015년	OECD 26 + 2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
총 고정 자본 형성	총 고정 자본 형성	연간 성장률	2005~2016년	OECD 35 + 6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현재 PPP일 때 1인당 달러	2005~2016년	OECD 33 + 4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
지적 재산 자산	지적 재산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	2005~2015년	OECD 26 + 1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
R&D 투자	R&D 투자	GDP의 비율	2005~2015년	OECD 29 + 3	OECD 국민계정통계 데이터베이스
가계 부채	가계 부채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비율	2005~2015년	OECD 30 + 3	OECD 재정 대시보드 데이터베이스
가구순자산	가구순자산	현재 PPP일 때 가구당 달러	2014년(2012년 또는 2013년 또는 2015년)	OECD 27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
정부의 금융순자산	정부의 조정된 금융순자산	GDP의 비율	2005~2016년	OECD 33 + 4	OECD 재정 대시보드 데이터베이스
은행 부문 레버리지	은행 부문 레버리지	선택된 자산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2005~2015(2016)년	OECD 31 + 2	OECD 재정 대시보드 데이터베이스

‡ 국가 범위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만 나타낸다.

표 5.5. 사회 자본의 설명 지표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연도	국가 범위 (OECD + 파트너) ‡	출처
타인에 대한 신뢰도	대인 신뢰도	평균, 0(타인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음)까지의 척도	2013년만 해당	OECD 27 + 1	EU SILC + 뉴질랜드통계청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평균, 0(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10(완전히 신뢰함)까지의 척도	2013년만 해당	OECD 27 + 1	EU SILC + 뉴질랜드통계청에 기반하여 이 보고서를 위해 편집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인구의 비율	2005/6~2016년	OECD 35 + 6	갤럽세계여론조사
투표율	투표율	유권자로 등록된 인구의 투표율	2005~2017년	OECD 35 + 6	IDEA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기본법과 하위 규정의 제정 시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0~4 척도, 2014 OECD 규제 지표 조사에 대한 국가별 응답의 OECD 검토 결과에 기반	2014년만 해당	OECD 35 + 4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에 관한 OECD 데이터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공식 자원봉사에 참여	전년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를 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 2012년만	OECD 28 + 2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 국가 범위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만 나타낸다.

박스 5.2.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대한 지표 세트 업데이트

표 5.2~5.5에는 ‘How’s Life?’의 2015년 판 이후 미래 웰빙 지표를 위한 자원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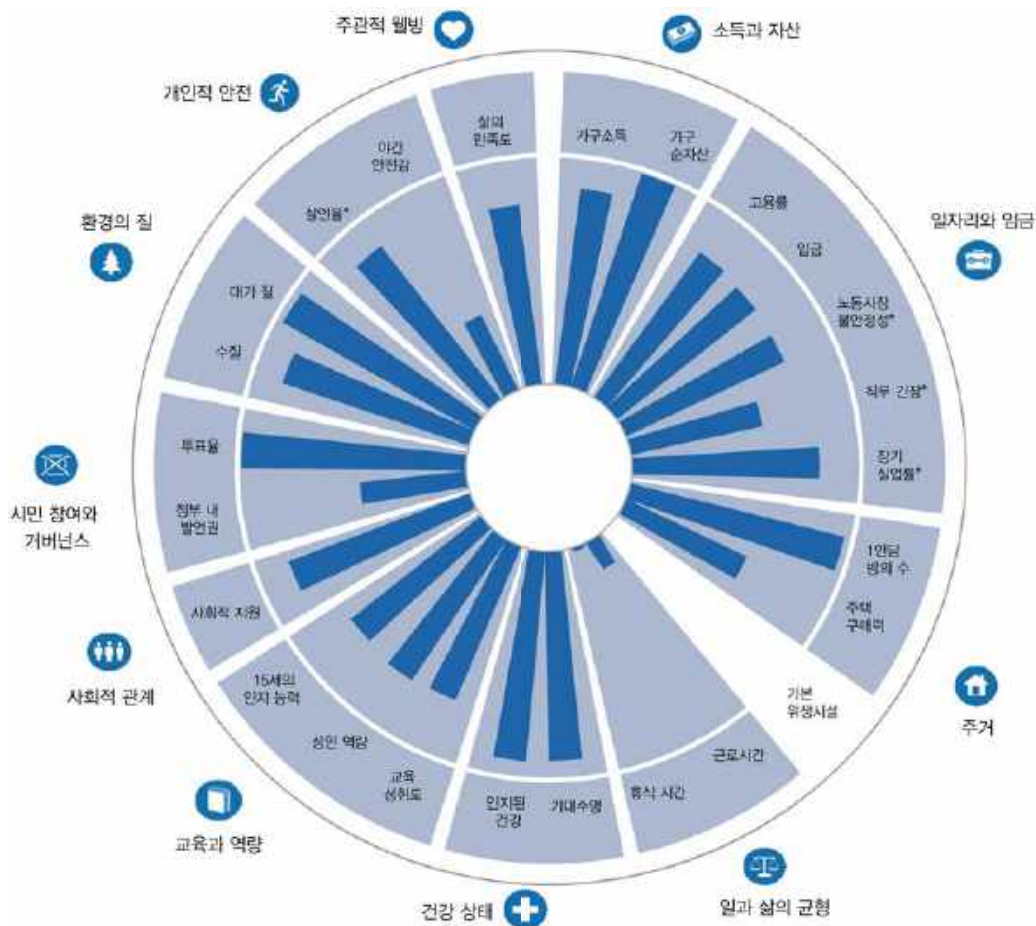
자연 자본에서 **국내 소비로 인한 CO₂ 배출량**(OECD 구조 지표 STAN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은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완하기 위해 대시보드에 추가되었다. 이 두 지표를 동시에 읽으면 국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국내 배출량(소비되는 장소와 무관)과 전체 소비 패턴과 관련된 배출량(수입 제품의 경우처럼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모두 줄이는 데 성공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자연 자본**에서 대기 질 지표인 **PM_{2.5} 대기오염 노출**은 **녹색성장지표(Green Growth Indicators) 프로젝트** (OECD, 2017b)의 중심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OECD 환경국의 새로운 추정치를 사용한다. 이는 추정치의 변동성으로 인해 3년 연속 평균으로 표시된다.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도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 **경제 자본** 지표에서 1인당 **가구 금융순자산**(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은 가구당 **가구순자산**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현재 웰빙의 중심 지표 변화와 일치한다.
- 사회 자본의 경우,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OECD 성인역량조사에서 제공)는 투자 요소로 추가되었다. 이는 ‘How’s Life? 2015’의 제5장 “주는 것의 가치: 자원봉사와 웰빙”에 보고된 바와 같이 자원봉사 측정에 대한 통계적 의제를 개발하는 활동을 반영한다(OECD, 2015c).


호주의 삶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호주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다른 웰빙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대기의 질**은 OECD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며,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과 **가구순자산**은 각각 2015년과 2014년에 OECD에서 가장 높았다. 호주는 일자리와 임금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는 OECD 평균 이하이다. 호주의 정규 직원은 다른 OECD 국가의 직원보다 30분 적은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을 보고했고 13% 이상이 2016년에 **주당 50시간 이상** 일을 했다. 개인적 안전 측면에서 살인율이 비교적 낮았지만 2014~2016년에 호주인의 단 64%만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 반면 OECD 평균은 69%였다. 많은 호주 국민이 **인지된 건강**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보고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림 5.1. 호주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호주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871>

지난 10년간 호주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지난 10년간 호주에서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상당히 증가했다. 2005~2008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금융위기 첫 해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다시 성장에 타격을 입은 2011년까지는 회복되었다. 그 이후 OECD 중 최고 수준으로 안정되었다. 가구순자산은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점증적으로 10% 증가했다.	↗ ↗
일자리와 임금	호주에서 임금은 2005년보다 현재 (실질적으로) 10% 더 높지만 2011~2012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 들어 약간 감소했다. 고용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다른 일자리 지표는 2008년 이후 모두 악화되었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3% 포인트 증가했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위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처럼 높게 유지되며, 장기 실업률은 2007년 이후 2배가 되었다.	↗ ↔ ↘ ↘ ↘
주거 환경	2008년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가처분소득의 비율)은 상승했고 10년 전보다 현재 1% 포인트 높다. 1인당 방의 수는 2.3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OECD 국가에서 4번째로 높다.	↘ ↔
일과 삶의 균형	호주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2.1% 포인트 하락했으며, OECD 평균인 0.9보다 크게 떨어졌다.	↘
건강 상태	호주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었지만 1,6년이라는 수치는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약간 떨어진다. 자기보고 건강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2007~2014년 성인의 85%는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호주의 성취율은 2.8%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시민 참여	의무 투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유권자 등록 인구 기준)은 2007년과 2016년 의회 선거 사이에 4% 포인트 하락했다.	↘
환경의 질	호주에서 초미세먼지(PM _{2.5})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은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약간 개선된 후 2009년부터 안정적이었다. 지역 수질 만족도는 2005년 이후 5.6% 포인트 개선되었다.	↔ ↗
개인적 안전	호주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6~2014년에 안정적으로 낮았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역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
주관적 웰빙	호주에서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고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호주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1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①	↗ 2007-2016
비만율	③	↘ 2007-2014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5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5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5
R&D 투자	③	↔ 2005-2015
가계 부채	③	↘ 2005-2015
가구순자산	①	↗ 2012-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6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①	↘ 2007-2016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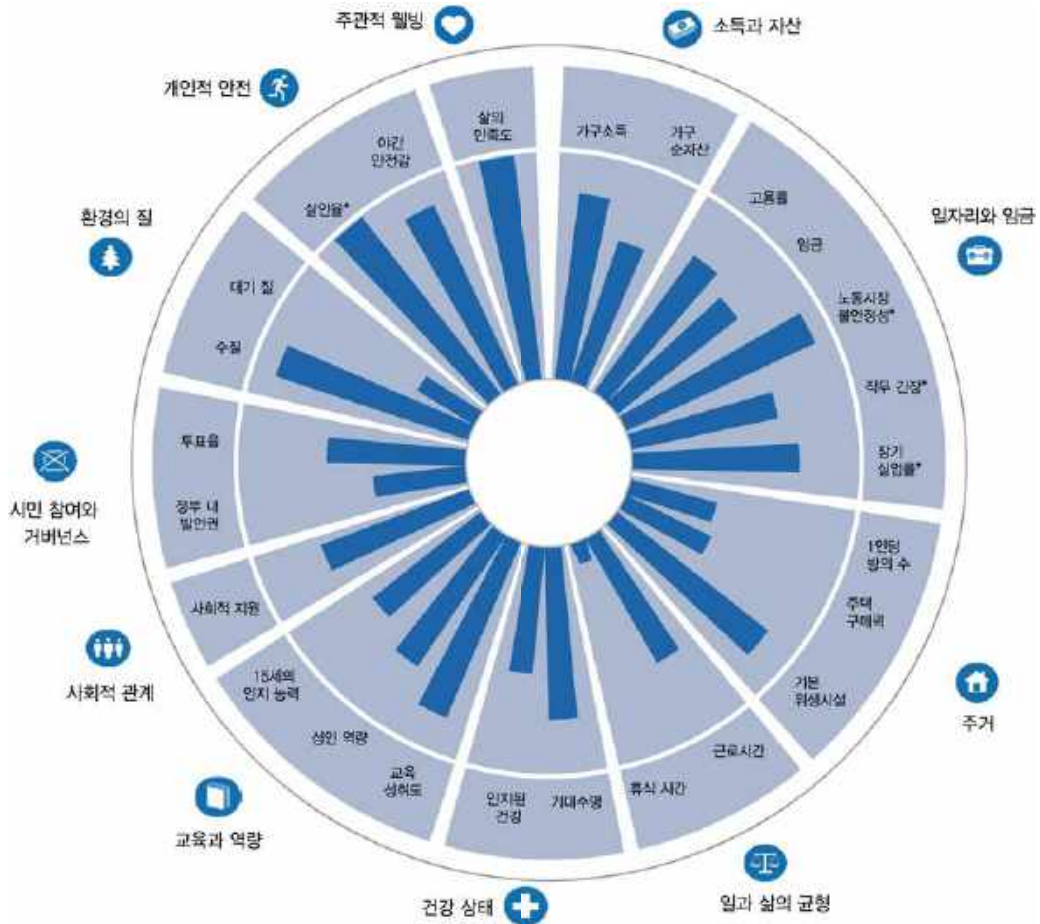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오스트리아의 삶은 어떠한가?

오스트리아는 많은 웰빙 차원에서 OECD 평균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몇몇 경우에서 이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 2015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OECD의 상위 계층이었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정규 직원은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의 직원보다 **짧은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을 보고했다. 평균적으로 오스트리아 사람의 93%가 2014~2016년에 **수질**에 만족했고, **대기의 질**(PM_{2.5} 대기오염으로 평가)은 OECD 국가의 하위 계층에 속했다. 건강 상태 측면에서 70%가 자신의 **건강**이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했는데, 이는 OECD 평균 69%에 근접한 수치이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81년으로 OECD 평균보다 1년 더 길다. 개인적 안전과 **삶의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으로,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척도에서 OECD 국가의 상위 1/3에 속한다.

그림 5.2. 오스트리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890>

지난 10년간 오스트리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오스트리아에서 가구 순가처분자산은 실질적으로 2005년과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후 점차 감소했지만 2012년에 약간 회복되었다. 가구순자산은 2010~2014년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
일자리와 임금	2005~2008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 고용률은 2009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으며 현재 2005년보다 4% 포인트 더 높다. 임금 역시 증가하여 200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융위기 동안 약간 감소했으며 2012년에 다시 증가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은 2005년 이후 모두 상승했으며, 전자는 최근 개선 징후를 보이고 후자는 2008년에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한 이후 절반 이상 증가했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2005~2010년 이후 약간 감소했고 OECD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주택 가격은 2005년 이후 증가하여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처분소득 비율은 1% 포인트 상승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단 1%로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지난 10년 동안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11%에서 2016년 6.8%로 크게 감소했다.	↘
건강 상태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1.9년 증가했다. 반면 인지된 건강 상태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
교육과 역량	최소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꾸준한 속도로 증가했으며 2005년보다 현재 7.6% 포인트 더 높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91%로 10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6년과 2013년 의원 선거 사이에 거의 4% 포인트 감소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OECD에서 가장 높았으며, 2005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5~2011년에 대기오염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징후를 보였으며, PM _{2.5} 노출 수준은 8%로 하락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상승하여 거의 이전의 최고치 수준(2005년)으로 돌아왔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2005~2007년 75%에서 2014~2016년 81%로 점차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오스트리아의 현재 삶의 만족도 수준은 10년 전과 매우 비슷하다. 2013년까지 0.4 점(0~10 척도) 누적 증가했지만 이 지표는 지난 3년 동안 2005년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오스트리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담수 취수에 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③	↘ 2006-2014
비만율	①	↘ 2006-2014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R&D 투자	①	↗ 2005-2015
가계 부채	②	↔ 2005-2015
가구순자산	①	↔ 2010-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5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②	↘ 2006-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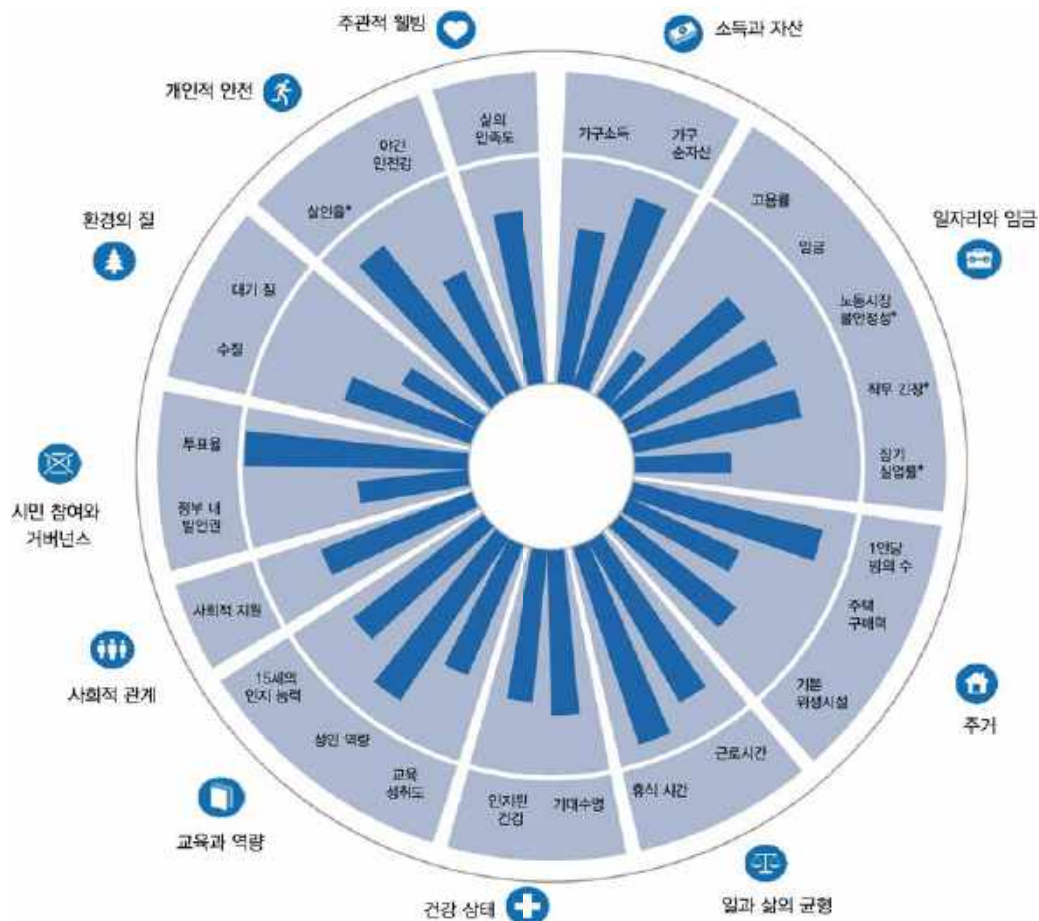
①	성적이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적이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적이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벨기에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벨기에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OECD 평균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가구 순가처분소득**과 **가구순자산**은 각각 2015년과 2014년에 OECD의 상위 1/3에 속했다. 직무 긴장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비교적 낮지만 2016년 **고용률**은 62%를 기록하여 OECD 평균보다 5% 포인트 더 낮았고 **장기 실업률**은 4%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정규 직원의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은 OECD 지역의 상위 계층에 속하며 2016년에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4%에 불과했고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벨기에의 **대기의 질**은 OECD 평균과 비슷하며 벨기에인의 84%가 2014~2016년에 수질에 만족한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OECD 평균(79%)보다 약간 높다. 벨기에의 개인적 안전, 사회적 지원,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다.

그림 5.3. 벨기에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벨기에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909>

지난 10년간 벨기에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 꾸준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 누적 증가와 일치한다. 그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단 2% 높은 수준이다. 가구순자산은 실질적으로 2010년보다 2014년에 7% 더 높았다.	↔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5년보다 1.2% 포인트 더 높고 2008년 최고치보다 약간 낮다. 지난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2% 증가했지만 평균 임금은 2015~2016년에 약간 하락했다. 2015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7년보다 더 높았지만 2009년 수준보다는 낮았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8%로 2005년 수준과 비슷하다(2010년 36%로 최고치 기록). 대조적으로 장기 실업률은 10년 동안 4.4%에서 4%로 개선되었다.	↗ ↗ ↘ ↔ ↗
주거 환경	벨기에에서 1인당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증가했고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처분 소득 비율은 2005년 19.7%에서 2015년 20.5%로 상승했다. 벨기에에는 기본 위생 시설이 없는 거주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2005년 이후 증가한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4.3%로 2005년에 보고된 수준과 매우 비슷했다.	↔
건강 상태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출생 시 기대여명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1~2015년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2014년까지 약간 증가했다가 2015년에 하락).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도 2005~2015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벨기에의 성취율은 1.5%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벨기에에서 지난 10년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약간 감소한 OECD 평균 추세(3.1% 포인트)와 대조적이다.	↔
시민 참여	2014년 연방 선거의 투표율은 2010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89%였지만 2007년의 91% 투표율보다는 여전히 다소 낮았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2.4% 포인트 감소한 OECD 평균 추세와 일치한다.	↘
환경의 질	최근 벨기에의 지역 수질 만족도는 10년 전 수준과 매우 유사하다. PM _{2.5} 대기 오염 노출은 2008~2009년에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7% 개선되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했지만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
주관적 웰빙	벨기에에서 2005년 이후 삶의 만족도가 약간 하락했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벨기에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3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①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11-2015
흡연율	②	↗ 2008-2014
비만율	①	↔ 2008-2014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4
R&D 투자	①	↗ 2005-2015
가계 부채	②	↘ 2005-2015
가구순자산	①	↗ 2010-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6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①	↘ 2007-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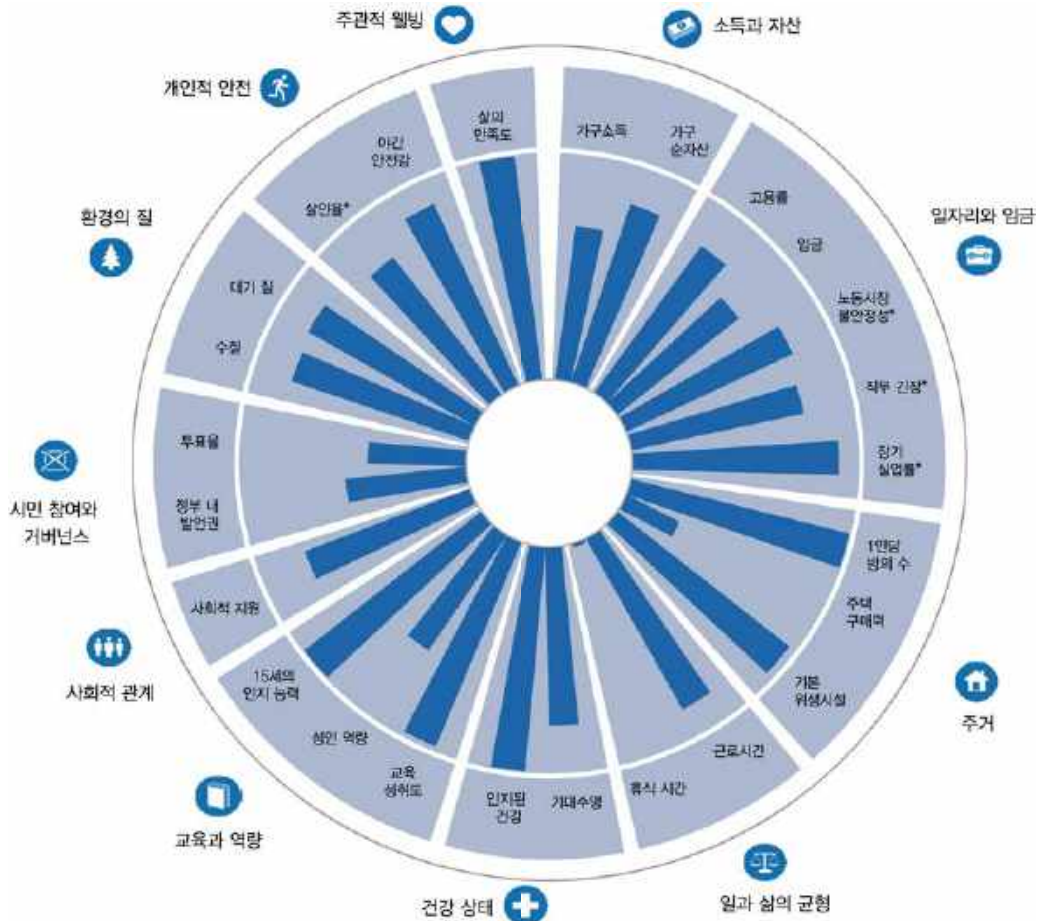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캐나다의 삶은 어떠한가?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아래에 제시된 대부분의 여러 웰빙 지표에서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 **가구순자산**에서 OECD 국가의 상위 계층에 속하며, **고용률**이 높고(2016년 73%), **장기 실업률**이 낮으며(2016년 0.8%),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4%** 미만으로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규 직원은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의 직원보다 적은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을 보고했다. 주거 환경은 일반적으로 좋지만 2016년 **주택 구매력**은 OECD 평균 이하였다. 캐나다인은 평균적으로 비교적 좋은 **대기의 질**과 **수질**을 누리고 있으며, **안전감**과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많은 캐나다 국민이 **인지된 건강**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보고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림 5.4. 캐나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캐나다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928>

지난 10년간 캐나다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점증적으로 20% 증가했으며 2013~2014년의 OECD 평균을 앞지른다.	↗
일자리와 임금	2016년 캐나다의 고용률은 2005년 수준에 매우 가깝고, 2009년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평균 임금은 크게 증가했으며 2005년에 비해 현재는 실질적으로 18% 더 높다.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캐나다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7년에 비해 2015년에 더 높았지만 2009년 정점을 찍은 후 약간 개선되었다. 장기 실업률은 낮게 시작했지만 2008~2016년에 2배가 되었고 2005년 수준을 웃돌고 있다.	↔ ↗ ↘ ↘
주거 환경	지난 10년간 캐나다에서 1인당 방의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OECD에서 가장 높다. 주택 구매력은 2005년 이후 약간 개선되었다.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2005년 4.7%에서 2016년 3.7%로 점차 감소했다.	↗
건강 상태	캐나다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7년 80.5년에서 2012년 81.5년으로 증가했다 (2005년과 2015년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2005년 이후 약 88%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OECD 평균 추세에 따라 최소한 고등교육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2005년 85%에서 2016년 91%로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캐나다에서 지난 10년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96%에서 93%로 약간 하락했다.	↘
시민 참여	캐나다에서 지난 10년간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거의 4% 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히 2011년과 2015년 사이의 연방 선거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이 61%에서 68%로 증가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캐나다인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87%에서 91%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05~2008년에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한 반면,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10년 동안 4% 포인트 증가했고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추세와 일치한다.	↗ ↗
주관적 웰빙	캐나다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캐나다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3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7-2012
흡연율	①	↗ 2005-2014
비만율	③	↘ 2005-2013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6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5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6
R&D 투자	③	↘ 2005-2015
가계 부채	③	↘ 2005-2016
가구순자산	①	.. 2012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6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②	↗ 2006-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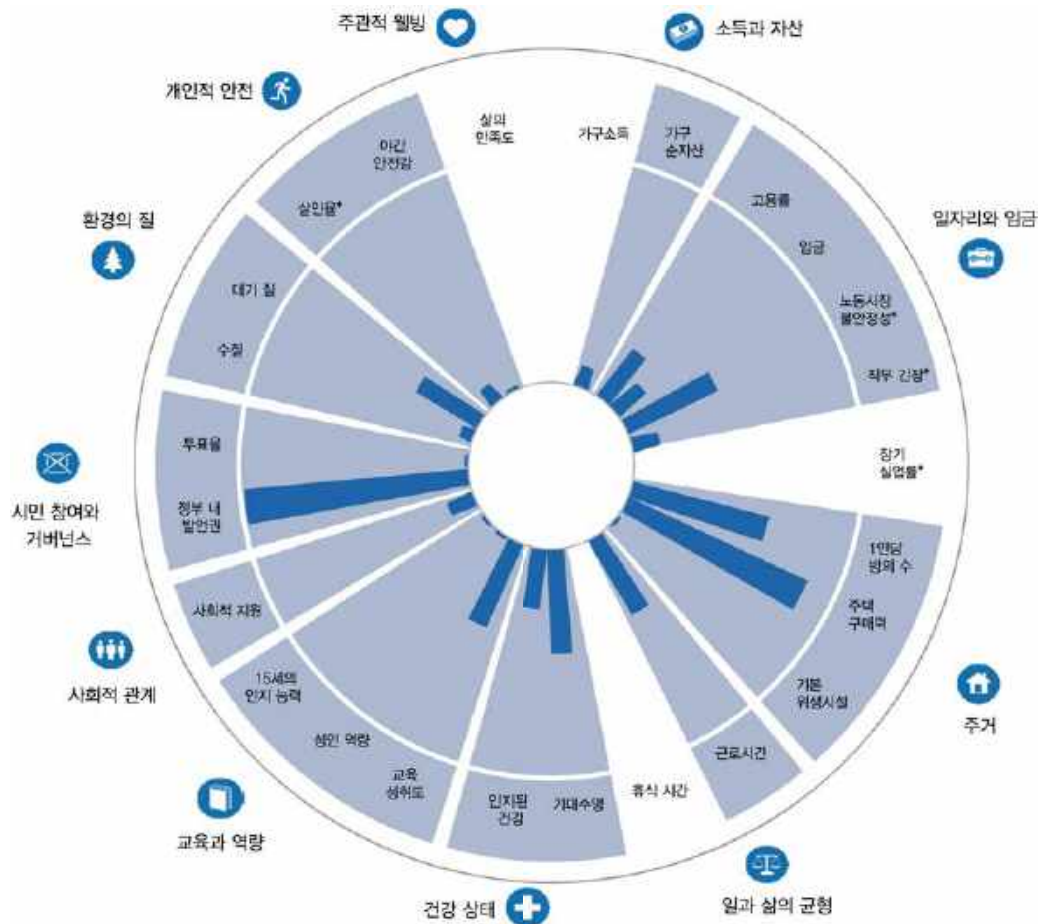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칠레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칠레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주택 구매력과 1인당 방의 수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2011년 9.4%).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은 단 69%로 OECD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고, 대기의 질은 OECD 평균 이하이다. 2012년 이후 투표 의무제가 폐지되면서 2013년 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유권자 등록 인구의 49.4%만이 투표를 했는데 이는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그러나 칠레인의 거의 60%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한다. 칠레는 개인적 안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인다. 살인율은 OECD에서 상위 계층에 속하며 칠레인의 51%만이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한다.

그림 5.5. 칠레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칠레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947>

지난 10년간 칠레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순자산은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41% 증가했다.	↗
일자리와 임금	임금은 꾸준히 향상되었고, 2016년은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25% 더 높았다. 고용률은 2010년에 3% 포인트 증가했지만 2011년부터 안정적이다.	↗ ↔
주거 환경	최근 칠레에서 주택 구매력이 다소 떨어졌으며, 주거비에 지출되는 가구소득 비율은 2013년 18.1%에서 2015년 18.5%로 증가했다(2005년에서 2012년 사이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없다).	↘
일과 삶의 균형	칠레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10년 17%에서 2016년 약 10%로 감소했다.	↘
건강 상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0.5년 이상 하락하긴 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10년 전과 비교해 1.5년 높게 유지된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2013~2015년에 7% 포인트 하락했다(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유일한 2년).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3~2015년에 칠레의 성취율은 3.5%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칠레에서 2005년 이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반면 OECD 평균은 3% 포인트 이상 줄었다.	↔
시민 참여	2005년과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은 안정적이었다. 2013년에 투표 의무제가 폐지된 후 투표율은 거의 40% 포인트나 하락했다.	↘
환경의 질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15% 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에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 수준과 비슷했으며 OECD 평균을 웃돌았다.	↘ ↔
개인적 안전	2005년에 비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1/5로 감소했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했다 (OECD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의 평균 수준은 지난 10년간 5.9(0~10 척도)에서 6.7로 증가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칠레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3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담수 취수와 위험 받는 식물에 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3-2015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성인 역량	③	.. 2014/2015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③	.. 2009
비만율	③	.. 2009
장기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③	↗ 2011-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6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 R&D 투자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③	.. 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4/2015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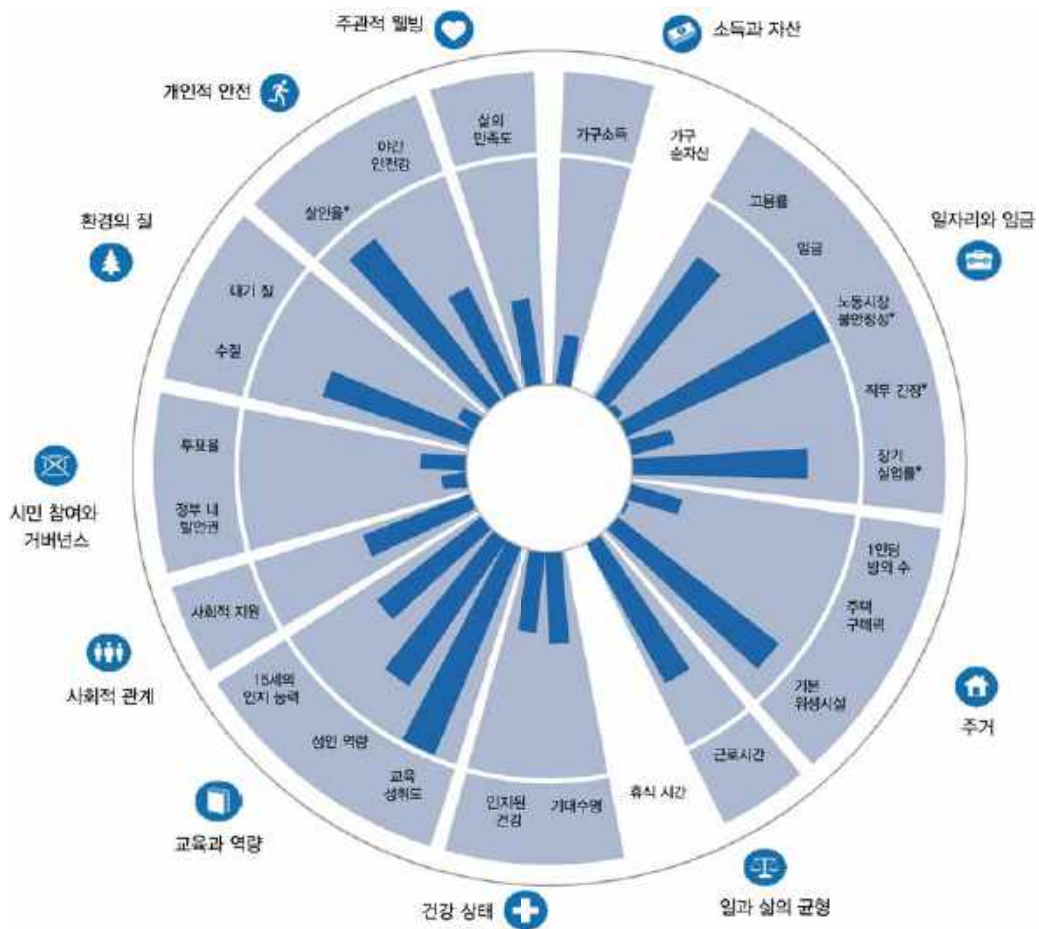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체코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체코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평균 임금**은 OECD의 하위 계층에 속하며,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OECD 평균 이하이다. 그러나 **고용률(72%)**은 OECD 평균(67%)을 웃돌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출생 시 **기대여명(79년)**은 OECD 평균보다 1년 적으며, 체코 성인의 단 61%만 자신의 **건강**이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한다**(OECD 평균 69%). **교육 성취도**는 OECD에서 가장 높다. 생산가능인구의 93%가 최소한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75%이다. 체코는 또한 개인적 안전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다.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동유럽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림 5.6. 체코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체코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966>

지난 10년간 체코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5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에 비해 12% 증가했는데, 이는 10년 동안 OECD의 평균 누적 증가보다 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하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
일자리와 임금	2016년 체코의 고용률은 72%로 2005년보다 7% 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과 2012년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임금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현재는 2005년보다 18% 더 높다. 그러나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1/3 이상 증가했다. 장기 실업률은 2010년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2005년 수준의 약 1/3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체코는 직무 긴장 측면에서 OECD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 중 하나이며, 2005년에 직무를 경험한 직원 중 약 57%였지만 2015년에는 46%까지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친다. 주택 구매력은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크게 악화되었지만 최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2005년 이후 1/3로 줄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하락했으며 10년 전보다 약 1/3 낮다.	↘
건강 상태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했지만 체코의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2.5년 증가했다. 2005년 이후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체코의 성취율은 93%로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
사회적 관계	체코에서 지난 10년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3.1% 포인트 감소한 OECD 평균 추세와 대조적이다.	↔
시민 참여	지난 10년 동안 투표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하락했다. 총선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6~2013년에 5% 포인트 감소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체코인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현재 9% 포인트 높아졌다. 2013년 대기오염은 2005년에 기록된 수준에 가깝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53%에서 68%로 크게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체코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체코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②	↗ 2005-2015
비만율	②	↘ 2005-2010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6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6
R&D 투자	②	↗ 2005-2016
가계 부채	①	↘ 2005-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4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③	↘ 2006-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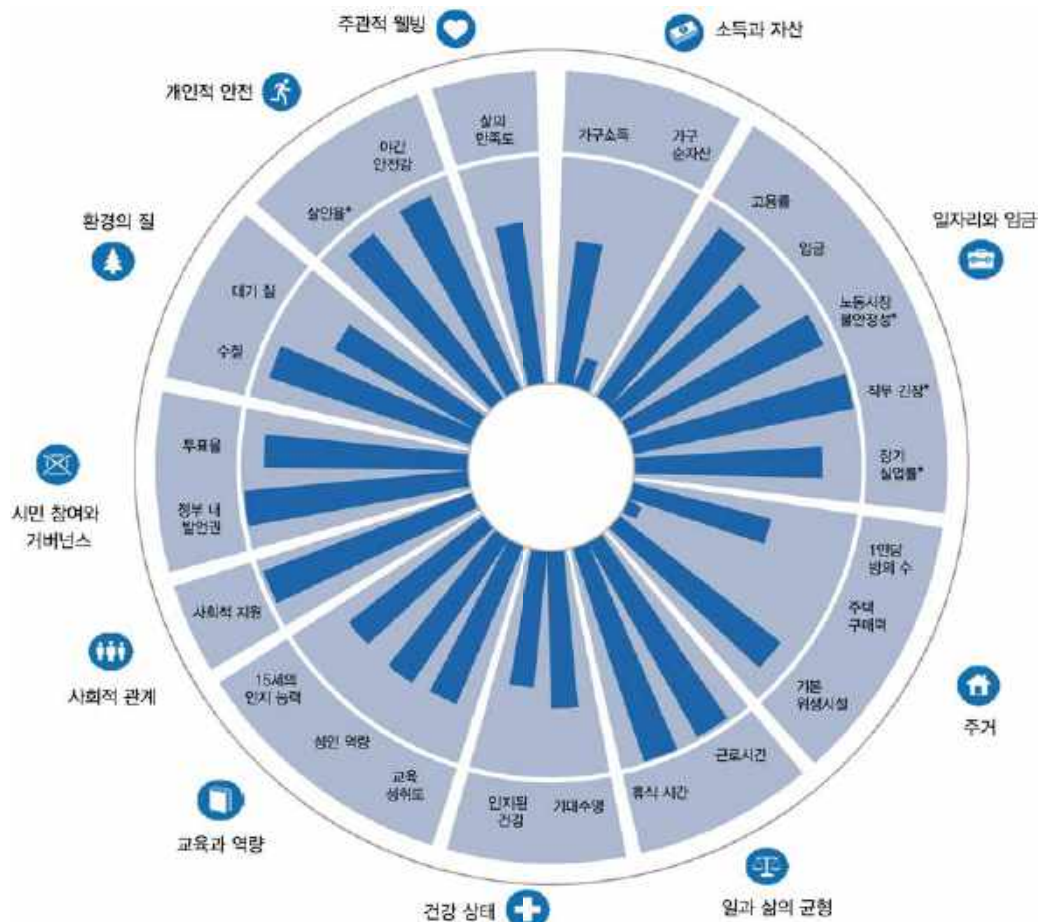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덴마크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덴마크는 일반적으로 여러 웰빙 차원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인다.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OECD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임금과 고용률**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상위 계층에 속한다. 또한 덴마크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직무 긴장**이 낮은 수준이며,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이 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율에 해당한다.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역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영역이다. 덴마크는 **투표율이 높고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사회적 지원** 역시 매우 높으며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95%이다(OECD 평균 89%). 그러나 **주택 구매력은** 약한 영역이다. 덴마크의 평균 가구는 주거 비용으로 가처분소득의 24%를 지출하며, 이는 OECD 평균인 21%를 웃돈다.

그림 5.7. 덴마크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덴마크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985>

지난 10년간 덴마크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에 비해 현재 실질적으로 11% 더 높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OECD 평균 누적 증가액보다 3% 포인트 높은 것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가 정체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시 정체되었다.	↗
일자리와 임금	덴마크의 고용률은 2005년에 비해 1% 포인트 낮다. 개선 기간 이후, 2008년에 급감했고 2014년에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누적 증가율은 13%로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은 악화되었다. 두 지표 모두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직무 긴장은 2005년 이후 꽤 안정적이며 2015년에 영향을 받은 직원은 약 21%였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2011~2015년 1.9로 꾸준히 높았지만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0%에서 0.5%로 상승했다. 주택 구매력 역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현재 주거 비용에 소비되는 소득 비율은 2005년보다 단 0.2% 포인트 더 높다.	↔ ↘ ↔
일과 삶의 균형	현재 매우 장시간 일하는 덴마크인의 비율(2%)은 2005년 수준(6%)의 절반 이하이다. 이는 지난 10년 중 초반 5년 동안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며, 2010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1년 OECD 평균을 넘어섰고 2005년 이후 2.5년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5% 포인트 하락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덴마크의 성취율은 1.2%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5년 의원 선거 때 85%에서 2015년 86%로 처음보다 약간 개선되었다.	↗
환경의 질	OECD 평균 추세와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지역 수질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었고 2013년 OECD 평균보다 1/3 낮았다.	↔ ↗
개인적 안전	덴마크의 살인율은 2005년에 비해 거의 1/3 떨어졌지만 안전감은 10년 전과 대체로 비슷하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7.9에서 7.5(0~10척도로 측정)로 점차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은 OECD 평균 변화율의 2배이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덴마크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4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①	↗ 2010-2015
비만율	①	↘ 2005-2014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R&D 투자	①	↗ 2005-2014
가계 부채	③	↘ 2005-2016
가구순자산	③	.. 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6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①	↗ 2005-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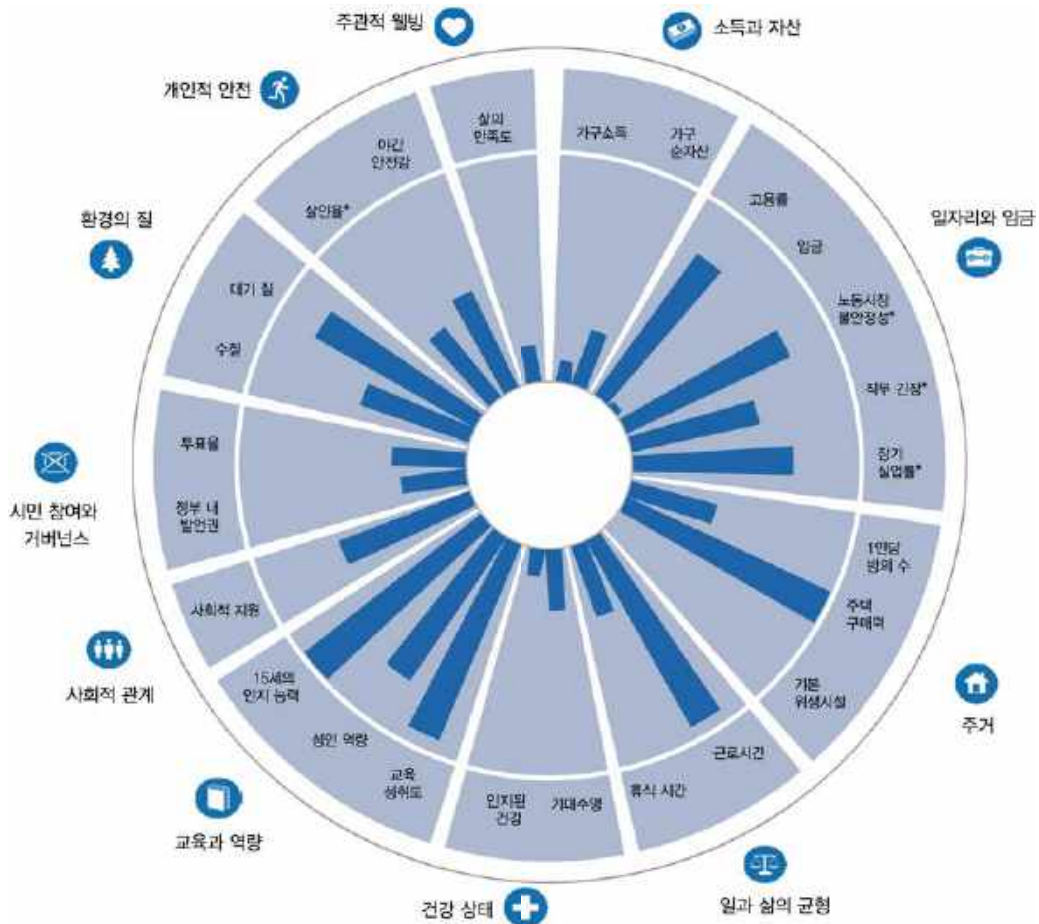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에스토니아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에스토니아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가구 순가처분소득에서는 OECD의 하위 계층에 속하지만, 고용률은 72%이며(OECD 평균 67%)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3%에 불과하다(OECD 평균의 1/4 미만). 주택 구매력은 상대적 강점이지만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집(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집으로 정의)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7%이며,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다. 에스토니아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78년으로 OECD 평균보다 낮고 인구의 절반 정도(51%)만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말한다. 에스토니아는 고등교육 성취도와 학생의 인지 능력 측면에서 OECD 중 성과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3년 삶의 만족도는 OECD에서 세 번째로 가장 낮은 국가였다.

그림 5.8. 에스토니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004>

지난 10년간 에스토니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지난 10년 동안 에스토니아는 OECD 중 가구 순가처분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2005년 이후 누적 증가율은 1/3 이상이다.	↗
일자리와 임금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와 임금이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2016년에 고용률은 정규 직원당 연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2008년 수준을 넘어섰다(2005년 64% → 72%).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9년에 급격히 악화되었고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장기 실업률은 2010년 정점을 찍었고 최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직무 긴장 빈도는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었다. 2015년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34%로, 2005년 40%에 비해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지난 10년 동안 1인당 방의 수는 35% 증가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주택 구매력도 지난 10년간 상당히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5% 포인트 낮아졌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2005년 5.1%에서 2016년 2.7%로 하락했다.	↗
건강 상태	에스토니아는 2005~2015년에 OECD 국가 중 출생 시 기대여명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로, 거의 5년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인지된 건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에스토니아에서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높지만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사회적 관계	에스토니아의 사회적 지원은 증가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85.4%에서 90.5%로 증가하여 OECD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 중 하나이다.	↗
시민 참여	OECD 평균 추세와 대조적으로 2007년 이후 투표율은 2.3% 포인트 증가했으며 2015년 의원 선거 때 64.2%를 기록했다.	↗
환경의 질	대기오염 수준은 2005년에 비해 2013년에 약간 낮아졌다. 에스토니아는 지역 수질 만족도가 지난 10년간 크게 개선된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 ↗
개인적 안전	2005년 이후 개인적 안전이 개선되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살인율은 2/3 하락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11%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2005년보다 더 높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에스토니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5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③	↗ 2006-2016
비만율	②	↘ 2006-2016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4
R&D 투자	③	↗ 2005-2014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③	.. 2013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5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②	↗ 2007-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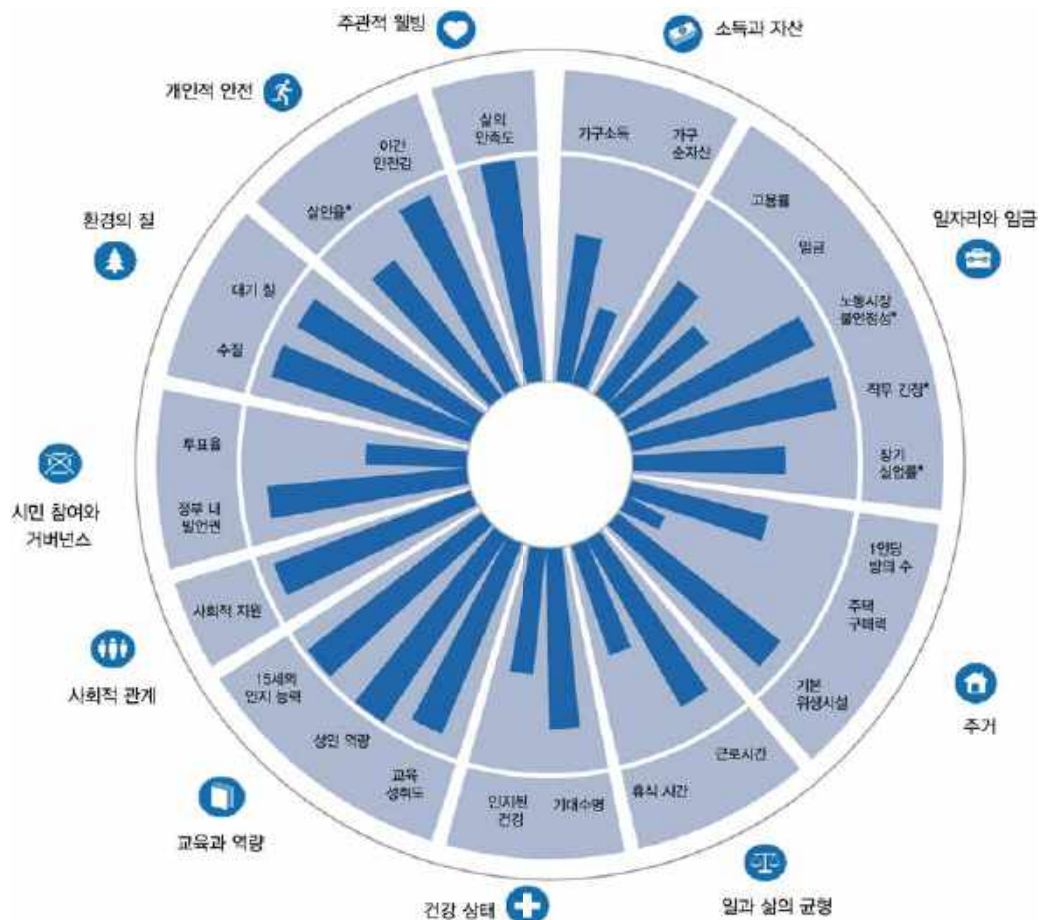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핀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핀란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여러 웰빙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가구 순가처분소득과 가구순자산 수준이 OECD 평균 이하이지만 직무 긴장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핀란드 직원의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의 약 1/3수준이지만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은 평균에 가깝다. 핀란드는 교육과 역량은 물론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핀란드 사람은 95%이다(OECD 평균 89%). 대기의 질과 수질 모두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이며, 2013년 삶의 만족도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주택 구매력은 OECD 평균 이하이며,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47%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OECD 평균 33%) 투표율은 중간 수준이다.

그림 5.9. 핀란드의 현재 웰빙의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핀란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023>

지난 10년간 핀란드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현재 10년 전보다 실질적으로 8% 더 높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핀란드 가구순자산은 2010년보다 2013년에 15% 더 높았다.	↗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11년 이후 점차 회복되었고 현재는 2005년 수준에 가까워졌지만 2008년의 최고치보다 2% 포인트 낮다. 평균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누적 증가율은 8%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약간 증가했다. 개선 기간 이후 장기 실업률은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했지만 그 이후 2005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5년 직무 긴장 빈도는 2005년에 보고된 수준과 비슷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10년간 안정적이었고 기본 위생시설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주택 구매력은 이 기간 동안 악화되었고, 주거 비용에 소비한 소득 비율은 2005년 20.9%에서 2015년 22.7%로 상승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매우 장시간 일하는 인구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약간 낮으며, 현재 3.9%로 OECD 평균보다 거의 9% 포인트 낮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2.5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인 1.7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자기보고 건강 상태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1.4%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6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사이에 5% 포인트 하락했으며 OECD 평균인 2.4%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
환경의 질	OECD 평균 추세와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지역 수질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었고 2013년에는 OECD 평균보다 55% 낮았다.	↔ ↗
개인적 안전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83%로 10년 전보다 4% 포인트 높다.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년 동안 1/4 감소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핀란드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06
위협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협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협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①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②	↗ 2005-2014
비만율	③	.. 2011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6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6
R&D 투자	①	↘ 2005-2016
가계 부채	②	↘ 2005-2016
가구순자산	③	↗ 2010-2013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6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②	↘ 2006-2012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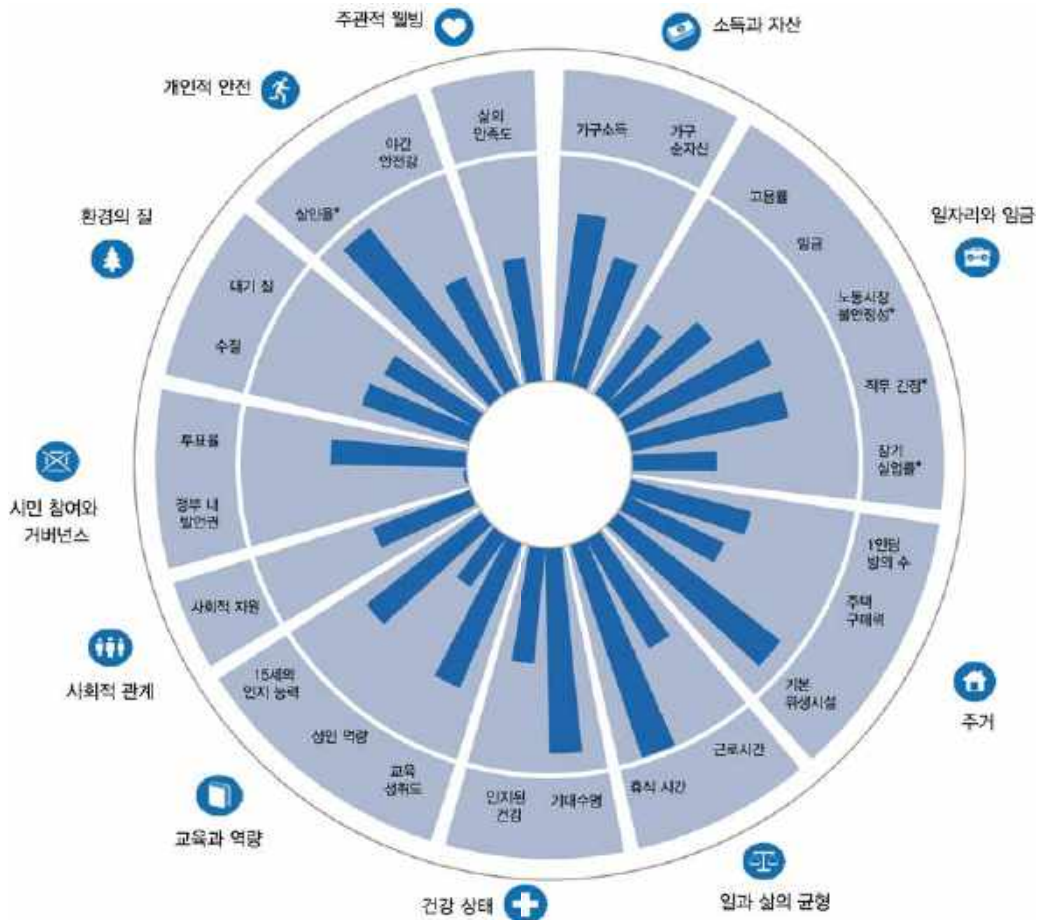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프랑스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프랑스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잇달린 성과를 보인다.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OECD 평균을 다소 웃돌지만, 일자리와 임금 차원에서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은 65%로, OECD 평균보다 2% 포인트 낮고 **장기 실업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8%로, 거의 13%인 OECD 평균보다 낮다. 정규 직원은 다른 OECD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을 보고했다. 2015년 출생 시 평균 **기대여명**은 82년이었고, OECD 상위 계층에 속하지만 **자기보고 건강**은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친다. 프랑스의 **투표율**은 2017년 약 75%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2012년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은 10%에 불과해 OECD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림 5.10. 프랑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프랑스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042>

지난 10년간 프랑스의 평균 웰빙 변화

차원	설명	변화
소득과 자산	현재 가구 순가처분소득 수준은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6% 더 높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증가 기간 이후,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약간 하락했지만 그 이후 다시 탄력을 받았다. 2009~2014년에 가구순자산은 점증적으로 19% 상승했다.	↗ ↗
일자리와 임금	2016년 고용률은 2005년 수준과 매우 비슷했다. 임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11% 더 높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은 최근 악화되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위기 이전 수준 이상이며, 장기 실업률은 10년 동안 1/4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직무 긴장 빈도는 2010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2005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2005년 이후 약간 개선되었지만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친다. 주택 구매력은 악화되었다.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20.2%에서 2015년 20.9%로 증가했다. 반면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했으며,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한참 낮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6~2011년에 증가한 후 현재는 2005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4~2015년에 0.4년 하락했지만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2년 증가했다. 인지된 건강 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2005~2016년에 고등교육 성취도는 11.3%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프랑스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하락한 9개 OECD 국가 중 하나이다(94% → 88%).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7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 사이에 9% 포인트 하락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연간 대기오염 노출은 2005~2013년에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OECD 평균과 비슷하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밤에 집으로 걸어갈 때 느끼는 안전감 역시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평균 6.8에서 6.4(0~10 척도로 측정)로 2005년 이후 점차 하락했으며, 이는 OECD 평균 감소율의 2배에 해당하는 감소 폭이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프랑스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3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③	.. 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③	↗ 2006-2014
비만율	①	↘ 2006-2014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6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6
R&D 투자	①	↗ 2005-2015
가계 부채	②	↘ 2005-2015
가구순자산	②	↗ 2009-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②	↘ 2007-2017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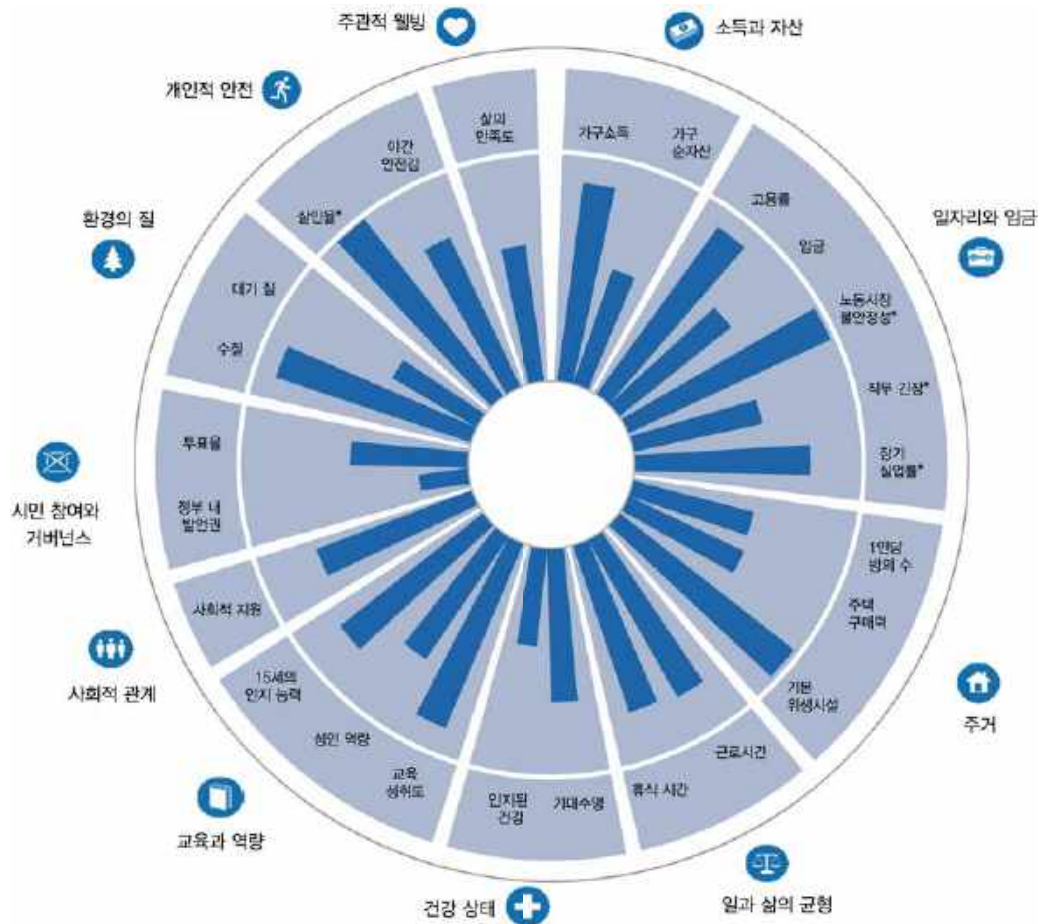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독일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독일은 대부분의 웰빙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OECD 평균 이상이지만 **가구순자산**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친다. 고용률은 75%로 OECD 평균인 67%보다 훨씬 높으며, **평균 임금과 장기 실업률**은 OECD 평균 수준에 가깝다. 독일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5년 **직무 긴장**을 겪은 독일 근로자가 1/3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38%)보다 낮다. 독일의 **기대수명**은 81년으로 OECD 평균에 가깝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성인의 비율(65%)은 OECD 평균(69%)에 못 미친다. 개인적 안전, 사회적 지원, 교육과 역량은 일반적으로 강점을 보이지만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에서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독일인은 1/4에 불과하다.

그림 5.11. 독일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독일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061>

지난 10년간 독일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계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5년보다 현재 9% 더 높다. 2014년 가구순자산은 2010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22% 더 높았다.	↗ ↗
일자리와 임금	2011년 이후 고용률은 2% 포인트 증가했고 장기 실업률은 약 1% 포인트 하락했으며, 2011년은 두 지표에 대해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이다. 성장세가 둔화된 후 2010년 평균 임금은 증가했고 현재는 10년 전보다 11% 더 높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개선되어 2009년 정점에 도달했으며 지금은 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005~2015년에 15% 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1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치이다.	↗ ↗ ↗ ↗ ↗
주거 환경	2005년 이후 1인당 방의 수는 약간 개선되었지만 아직 OECD 평균에 못미친다. 주택 구매력은 약간 개선되었으며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소득의 비중은 2005년 대비 약 1% 포인트 감소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2/3 감소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5%로, 2011년(비교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 수준보다 약간 낮다.	↗
건강 상태	2014~2015년에 0.5년 하락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1.5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2005년 이후 4% 포인트 증가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독일의 성취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사회적 관계	2005년 이후 사회적 지원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시민 참여	2013년 연방 선거의 투표율은 2009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2005년의 78% 밑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2.4% 포인트 하락한 OECD 평균 추세와 일치한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와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 모두 2005년 수준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밤에 혼자 집으로 걸어갈 때 느끼는 안전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이러한 경우는 OECD 국가의 약 1/3에 불과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평균 6.5에서 7(0~10 척도로 측정)로 2005년 이후 점차 증가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독일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3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11-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②	↗ 2005-2013
비만율	③	.. 2012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R&D 투자	①	↗ 2005-2014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②	↗ 2010-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②	↘ 2005-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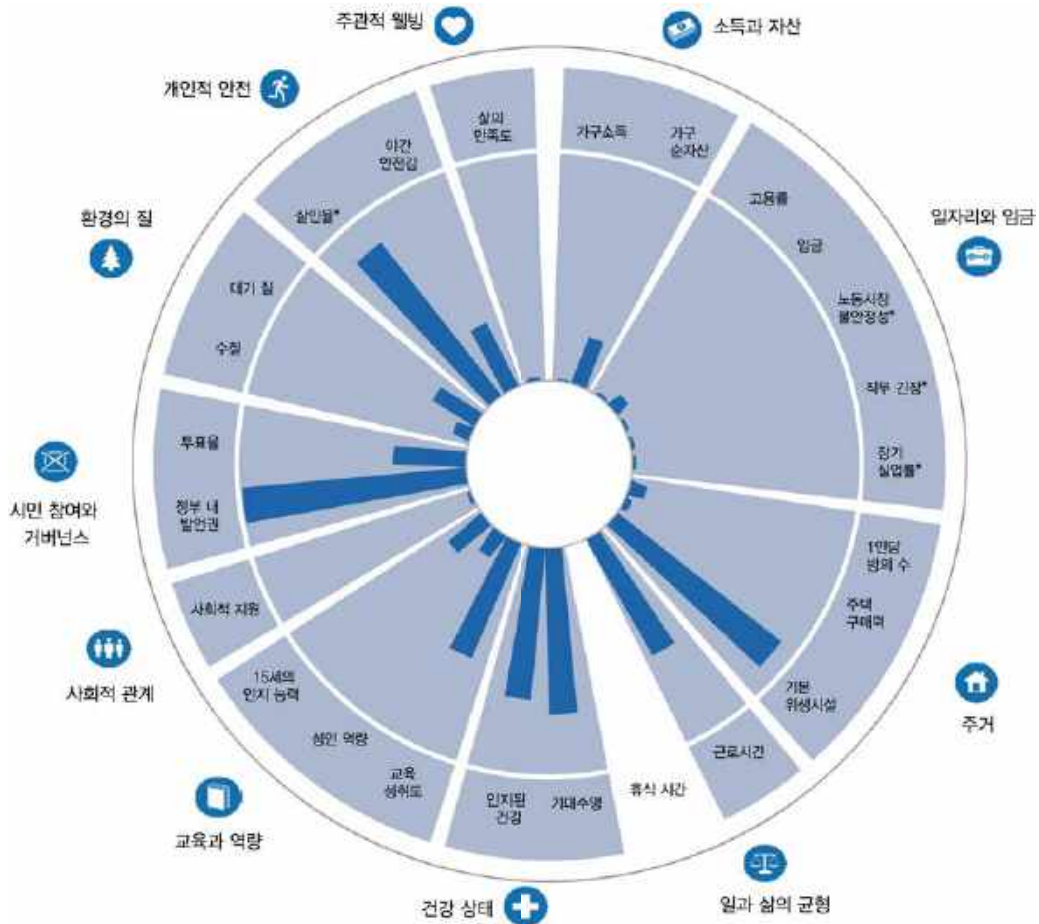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그리스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그리스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그리스의 물질적 조건은 일반적으로 OECD 평균 이하이다.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5년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을 약간 넘었고, **고용률**은 2016년 52%를 기록했다(OECD 평균 67%). 그리스는 OECD 국가 중 **노동시장 불안정성**, **직무 긴장**, **장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매우 장시간 일하는 그리스인의 비율(7%)**은 OECD 평균(13%) 이하이다. **주택 구매력과 1인당 방의 수** 모두 OECD 평균 이하이며, **기본 위생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높다. 건강 상태 결과 역시 평균을 상회한다. 2015년 **투표율(64%)**은 OECD 평균(69%) 이하였지만 2014/15년에 성인의 거의 71%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림 5.12. 그리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그리스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080>

지난 10년간 그리스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4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보다 27% 낮았으며, 이는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점증적으로 9% 증가한 후, 금융위기 첫 해에 급격히 하락했고 그 후 매년 감소했다. 그리스의 가구순자산은 2009~2014년에 22%의 누적 감소를 기록했다.	↘ ↘
일자리와 임금	2008~2013년에 고용률과 임금이 급격히 하락했고 최근에 완만하게 개선되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2년에 44%로 가장 높았고(동기간 OECD 평균 7%), 그 이후 27% 포인트 떨어졌지만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다. 장기 실업률은 2009년부터 급증했으며 2014년에 20%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는 2005년보다 거의 4배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직무 긴장을 겪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50%에서 2015년 거의 59%로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주거 비용(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9.7%에서 2015년 23.7%로 증가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 중 하나이다. 반면,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2/3 이상 하락했으며 현재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7%이며 10년 전보다 거의 1% 포인트 더 높다. 2005~2011년에 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했다.	↘
건강 상태	2007년, 2012년, 2015년에 정제되긴 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현재 10년 전보다 1년 이상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 증가량인 1.7년에 미치지 못한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2005년 이후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3.4%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그리스에서 현재 사회적 지원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4~2016년에 회복되기 전 2008~2010년과 2011~2013년 사이에 5% 포인트 하락했다.	↔
시민 참여	OECD 평균 추세와 동일하게 지난 10년간 그리스의 투표율은 하락했다. 2015년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64%였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해 11% 포인트 더 낮은 수준이지만 2012년보다 1% 포인트 이상 더 높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2005~2007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9년 최고치에서 최근 감소하긴 했지만 2005년 이후 10% 증가했다.	↔ ↘
개인적 안전	살인율과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2005년과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주관적 웰빙	지난 10년 동안 삶의 만족도는 1점(0~10 척도) 이상 감소했으며, 다른 OECD 국가보다 감소 폭이 크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그리스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4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성인 역량	③	.. 2014/2015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③	↗ 2009-2014
비만율	②	↔ 2006-2014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5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4
R&D 투자	③	↔ 2005-2015
가계 부채	②	↘ 2005-2015
가구순자산	③	↘ 2009-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②	↘ 2007-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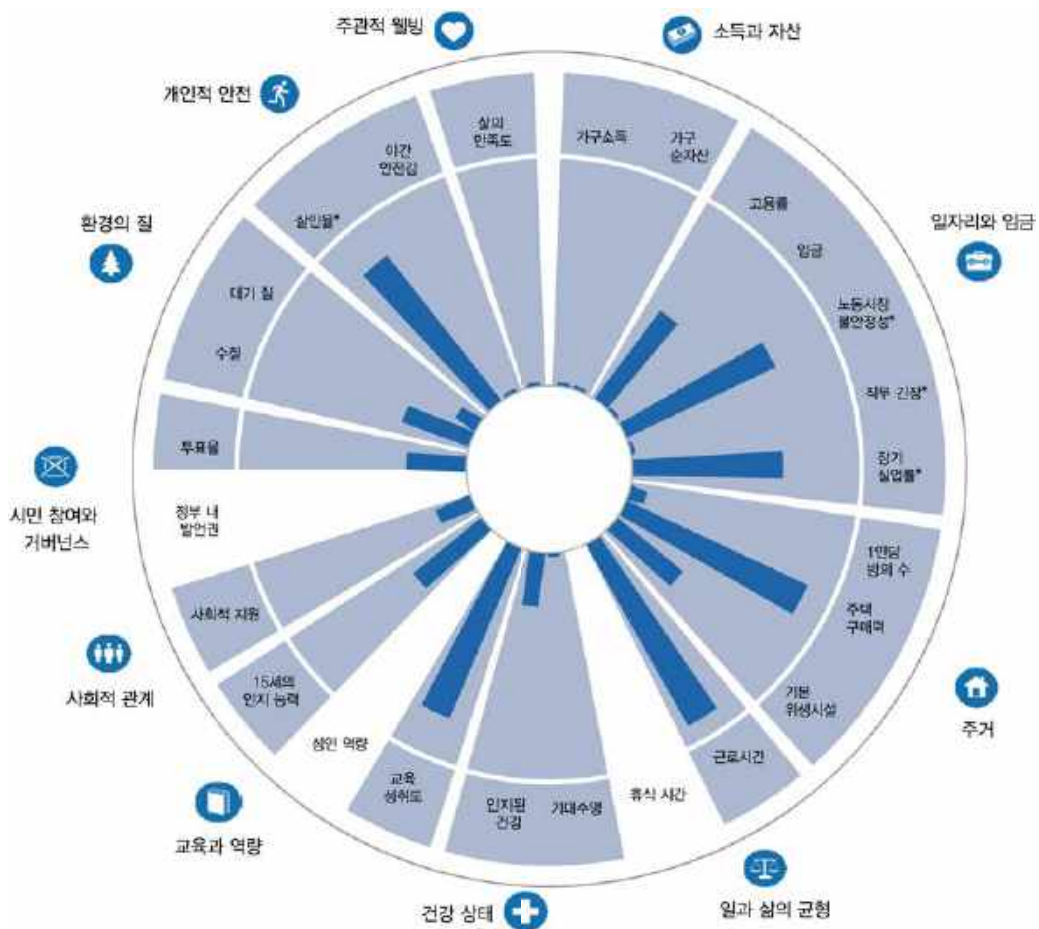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헝가리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헝가리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가구 순가처분소득** 수준이 가장 낮고 평균 임금 수준도 가장 낮다. 헝가리는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긴장을 겪고 있는 반면, **장기 실업률**, **노동시장 불안정성**, **고용률**은 모두 OECD 평균에 가깝다. 헝가리 직원의 약 3%만이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며**, OECD 평균은 13%이다. **주택 구매력** 역시 상대적으로 강하다. 헝가리 가구는 OECD 국가의 2/3 이상보다 더 적은 가처분소득의 비중을 주거 비용에 지출한다. 헝가리의 **교육 성취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며, 생산가능인구의 83%가 최소한 고등교육을 마쳤고 OECD 평균은 75%이다. 그러나 건강 상태와 **안전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이다.

그림 5.13. 헝가리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헝가리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099>

지난 10년간 헝가리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헝가리의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6~2010년에 감소했지만 현재는 2005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
일자리와 임금	2009~2010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고용률은 상승했으며 현재는 10년 전보다 거의 10% 포인트 더 높다. 임금은 2008~2014년에 하락했고 2015년 이후 약간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2005년 수준과 비슷하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2년에 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감소하긴 했지만 2007년보다 1% 포인트 더 높게 유지되고 있다. 장기 실업률은 위기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현재는 2005년 수준 이하이다(약 2%). 직무 긴장도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었으며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005년 57%에서 2015년 52%로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조금 개선되었고, 주택 구매력 역시 개선되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2005년 이후 2% 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 수준의 2배이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3%이며, 10년 전보다 약 2% 포인트 낮다. 2005~2012년에 비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그 후 2015년까지 다시 상승했다.	↗
건강 상태	2014~2015년에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2년(비교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 이후 전반적으로 0.5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비율은 10년간 45%에서 56%로 상승했다.	↗ ↗
교육과 역량	2005~2016년에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5년에 83.4%를 기록했으며 2005년보다 7%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지난 10년간 헝가리는 OECD에서 사회적 지원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93%에서 84%로 떨어졌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감소했다. 2014년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62%였으며, 2006년에 비해 6% 포인트, 2010년에 비해 3% 포인트 낮았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2005~2007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하이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10년간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OECD 평균보다 약 1/3 더 높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역시 감소했으며 현재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51%)이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약간 개선되었지만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헝가리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2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12-2015
흡연율	③	↔ 2009-2014
비만율	③	↘ 2009-2014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4
R&D 투자	②	↗ 2005-2015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③	.. 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5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③	↘ 2006-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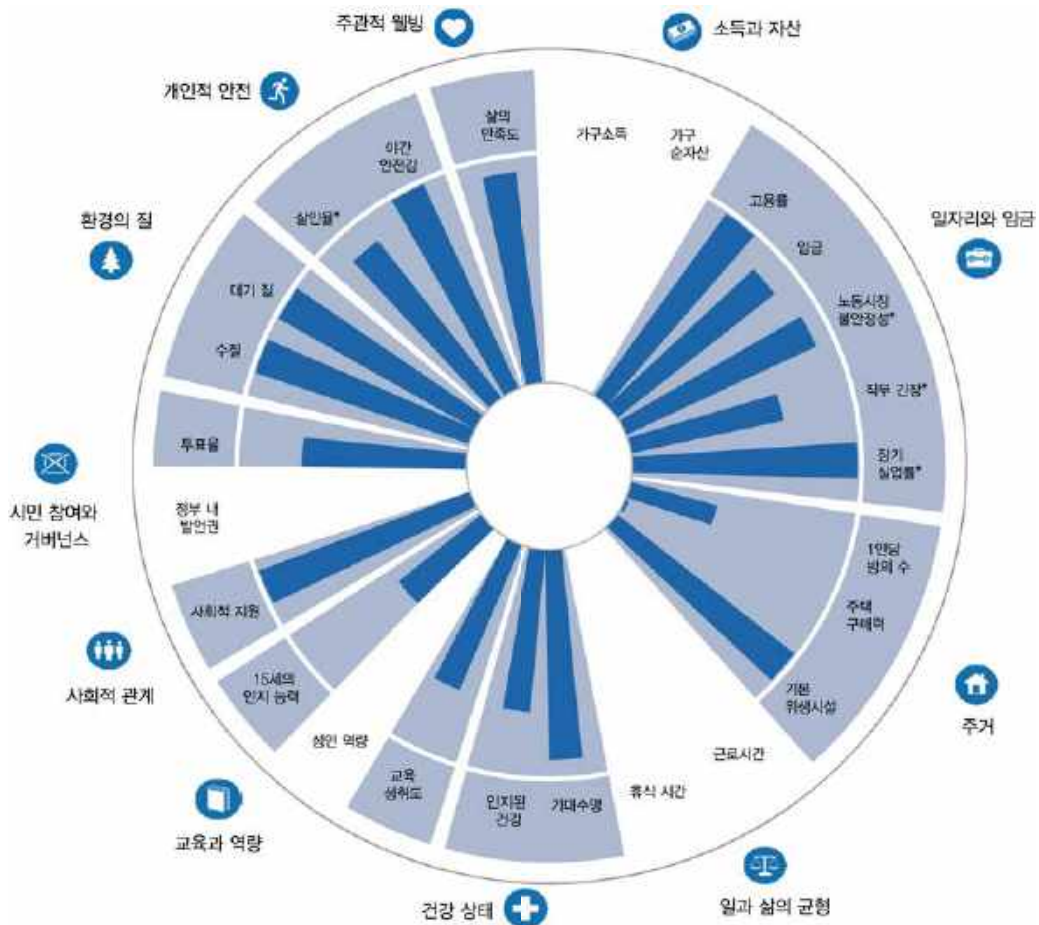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아이슬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아이슬란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여러 웰빙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2016년 15~64세의 아이슬란드 인구 중 86%가 **고용** 상태였는데, 이는 OECD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평균 임금**은 OECD의 상위 계층에 속한다. 아이슬란드는 환경의 질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 **대기의 질**(평균 PM_{2.5} 대기오염 노출로 측정)은 OECD에서 최고이며, 아이슬란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지역 **수질**에 만족한다.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인구는 98%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개인적 안전과 **삶의 만족도** 역시 상대적 강점 영역이다. 주거 환경에서 **기본 위생시설 이용률**은 높지만 주거 비용에 지출하는 가처분소득 비율은 24%로 OECD 평균인 21%에 비해 높고 아이슬란드의 **주택 구매력**은 비교적 약한 영역이다.

그림 5.14. 아이슬란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아이슬란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118>

지난 10년간 아이슬란드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8~2010년에 크게 하락한 이후 2014년에 실질적으로 2005년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8년 최고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
일자리와 임금	2016년 고용률은 2005년보다 2% 포인트 높았고, 2009년 급격히 하락한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임금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5% 증가했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1년에 최고치인 5.7%에 도달했고 위기 이전 수준인 1%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장기 실업률은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이후 200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주거 비용(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22.6%에서 2014년 24.4%로 상승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0.4%에서 0%로 하락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시계열 데이터 없음]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했지만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2년 증가했고 현재 OECD 평균보다 2년 이상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2005~2015년에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2016년에는 78%를 기록하여 2005년보다 거의 10% 포인트 높았다.	↗
사회적 관계	현재 사회적 지원 수준은 2008~2010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시민 참여	2016년 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79.2%였으며 2013년보다 현저히 낮았고 2007년의 투표율 8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투표율이 2.4% 포인트 감소한 OECD 평균 추세와 일치한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편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 동안 낮게 유지되었으며, 2013년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78%였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10%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아이슬란드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4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에 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①	↗ 2014-2016
비만율	②	.. 2015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4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①	↗ 2014-2016
비만율	②	.. 2015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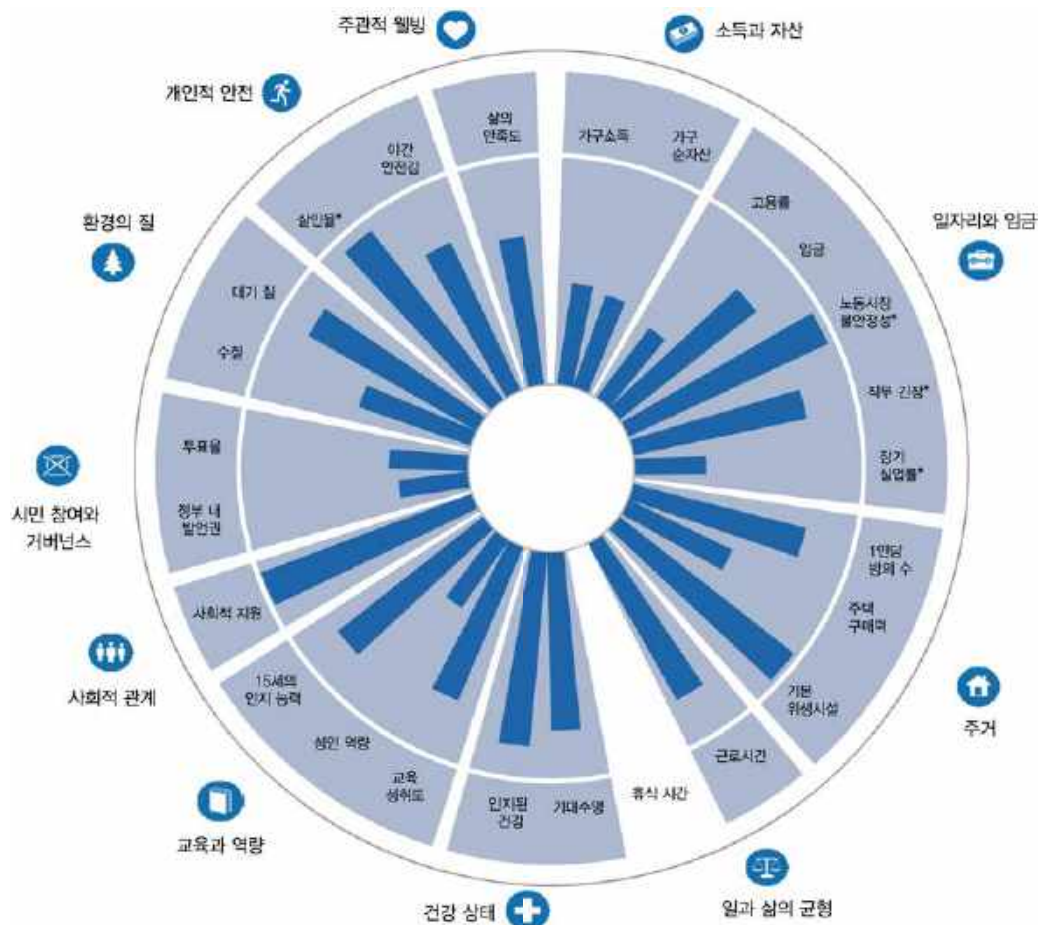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아일랜드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아일랜드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아일랜드의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5년에 OECD 평균 이하였지만 **평균 임금**은 약 52,000달러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OECD 평균 44,000달러). **장기 실업률**은 약 5%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직무 긴장**은 평균보다 나은 편이다. 주거 환경, 건강 상태, 환경의 질은 일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다. 아일랜드 성인의 80%는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OECD 평균(75%) 이상이다. 그러나 성인 문해력과 수리력은 OECD의 최하위 계층에 속한다. 인지된 사회적 지원은 비교적 강한 영역이다.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아일랜드 인구는 거의 96%이다(OECD 평균 89%).

그림 5.15. 아일랜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아일랜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137>

지난 10년간 아일랜드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현재 수준은 2005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4% 더 높다. 지속적으로 성장한 이후 가구소득은 2009~2013년에 하락했고 2014년에 회복되기 시작했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현재 2005년보다 2.8% 포인트 더 낮다. 2007~2012년에 크게 하락한 후 최근 완만하게 회복되었다. 반대로 임금은 상승했고 현재는 2009년 최고치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지만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15% 더 높다. 2007~2008년에 매우 강한 증가세를 보인 후,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5년 수준(2%)으로 회복되었다. 장기 실업률은 2012년에 9.2%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4.7%까지 하락했지만 2005년보다 여전히 3배 이상 높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010년에 35%로 정점을 찍고 2005년 수준에 근접한 27%까지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OECD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주택 구매력은 악화되었다.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율은 2005년 19.3%에서 2015년 20.8%로 상승했다. 아일랜드는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2005년 이후 증가한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09년 3.4%로 하락한 후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과 같은 수준인 4.7%로 다시 증가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2.5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1년 정도 더 높은 수준이다. 인지된 건강 상태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5년에 아일랜드의 성취율은 1%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시민 참여	2011년 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69.9%로 2007년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2016년에 65.1%로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투표율이 2.4% 포인트 하락한 OECD 평균 추세와 일치한다.	↘
환경의 질	OECD 평균과 마찬가지로 지역 수질 만족도는 지난 수년간 약간 떨어졌다. 반면 연간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2013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 ↔
개인적 안전	2005년 이후 개인적 안전이 개선된 분명한 징후가 있었다. 살인율은 40% 감소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5%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최근 삶의 만족도는 10년 전 보고한 수준과 비슷하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아일랜드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09
위협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협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협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5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③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②	.. 2016
비만율	②	↔ 2007-2015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R&D 투자	①	↗ 2005-2014
가계 부채	③	↗ 2005-2015
가구순자산	②	.. 2013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②	↘ 2007-2016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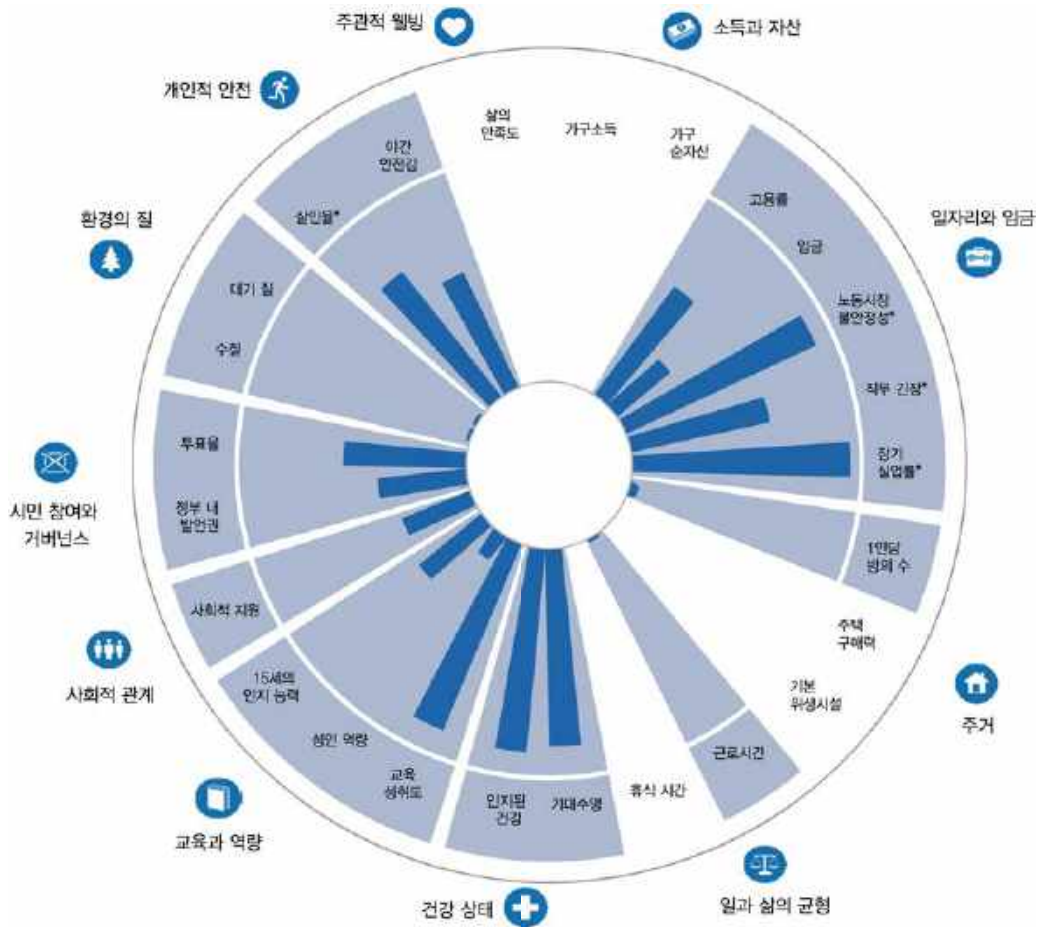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이스라엘의 평균 성과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양상을 보인다. **평균 임금**은 비교적 낮고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은 15%로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2016년 15~64세 성인의 69%가 **고용** 상태였는데, 이는 OECD 평균인 67%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편 **장기 실업률**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0.5%, OECD 평균 약 2%).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직무 긴장** 역시 OECD 평균보다 더 높다. 이스라엘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82년으로 OECD 평균보다 2년 더 높다. 양호한 수준의 **인지된 건강**을 보고한 이스라엘 인구는 높은 비율이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보고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와 완전히 비교할 수 없다. 환경의 질은 **대기오염과 수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다. **사회적 지원도**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림 5.16. 이스라엘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이스라엘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156>

지난 10년간 이스라엘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5년 이후 6.3% 포인트 상승했다. 실질 임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 크게 개선되면서 현재는 위기 이전 수준보다 10% 더 높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지난 10년간 점차 하락하여 현재는 2005년 수준의 절반을 훨씬 밑돈다. 장기 실업률은 2012년(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최근 연도) 수준에서 약간 감소했으며, 직무 긴장 역시 개선되었고 영향을 받은 직원의 비율은 2005년 39%에서 2015년 32%로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약 1.1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이 2012년 19%에서 2016년 15%로 하락하여 장시간 근무 빈도가 개선되었다(2012년 이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없음).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9년(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 이후 1년 정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역시 2005년 이후 7% 포인트 증가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이스라엘의 성취율은 1%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시민 참여	OECD 평균 추세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투표율은 2006년 이후 9% 포인트 증가했고 2015년 의원 선거 때는 72%에 달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이스라엘 인구의 비율은 현재 10년 전에 비해 9% 포인트 높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2005년보다 거의 1/3 더 높았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5년 10만 명당 3.3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은 10년 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OECD 평균인 69%와 비슷하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이스라엘에서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이스라엘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4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4
위험 받는 종에 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성인 역량	③	.. 2014/2015
장기 실업률	①	↗ 2012-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9-2015
흡연율	②	↔ 2006-2016
비만율	②	↘ 2006-2016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5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5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5
R&D 투자	②	↘ 2005-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5
가계 부채와 가구순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6-2016
투표율	②	↗ 2006-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4/2015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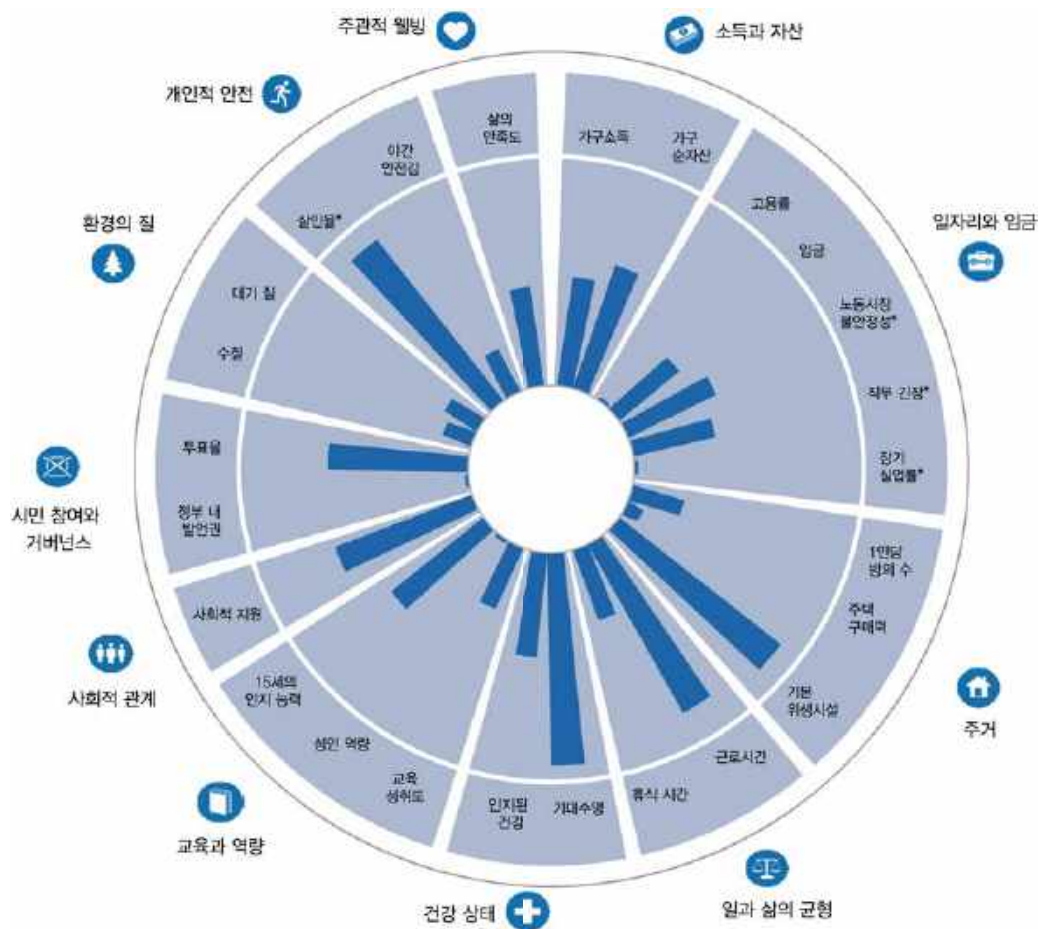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이탈리아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이탈리아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2016년 **고용률**은 약 57%로 OECD 중 가장 낮았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 1/3에 속했다. 그러나 **가구순자산**은 OECD 평균에 거의 가깝고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약 4%에 불과해 OECD 평균의 1/3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OECD에서 상위 1/3에 속하며,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이탈리아인은 66%로 OECD 평균보다 3% 포인트 낮았다. 교육과 역량, 환경의 질, **삶의 만족도**에서는 OECD 평균 이하였지만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개인적 안전 측면에서는 성과가 엇갈렸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 사람은 91%로 OECD 평균인 89%보다 약간 높았다.

그림 5.17. 이탈리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이탈리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175>

지난 10년간 이탈리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6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보다 10% 낮았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인 후, 금융위기 때 하락했고 2015년에 회복하기 시작했다. 가구순자산은 2010~2014년에 실질적으로 18% 감소했다.	↘ ↘
일자리와 임금	OECD 평균 추세와 달리 고용률과 실질 임금 모두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2년에 12.4%로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OECD 평균 수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장기 실업률은 2007년부터 악화되어 2014년에 7.8%로 최고치를 찍었으며 2005년보다 3% 포인트 높았다. 직무 긴장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영향을 받는 직원의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대로 주거 비용에 대한 가구 지출(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21%에서 2014년 24%로 상승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 중 하나이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 역시 0.2%에서 0.7%로 증가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1.5%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0.9% 포인트 하락보다 더 급격한 하락이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4~2015년에 0.5년 이상 감소했지만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1.7년 증가했고, OECD 평균 증가율과 비슷하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7.5% 포인트 상승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1% 포인트 미만으로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이 약간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OECD 평균 추세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은 지난 10년간 하락했다. 2013년 총선에서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75%였는데, 이는 2006년보다 8% 포인트, 2008년보다 5% 포인트 낮은 기록이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지난 수년간 약간 감소했다. 2005~2013년에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완만하게 증가하여(3%) OECD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현재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수준과 비슷하며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6.7에서 5.9(0~10 척도로 측정)로 점차 감소했다. 이 감소율은 OECD 평균 하락 폭의 4배에 해당한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이탈리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08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성인 역량	③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②	↗ 2005-2016
비만율	①	↔ 2005-2015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5
R&D 투자	③	↗ 2005-2013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②	↘ 2010-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5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①	↘ 2006-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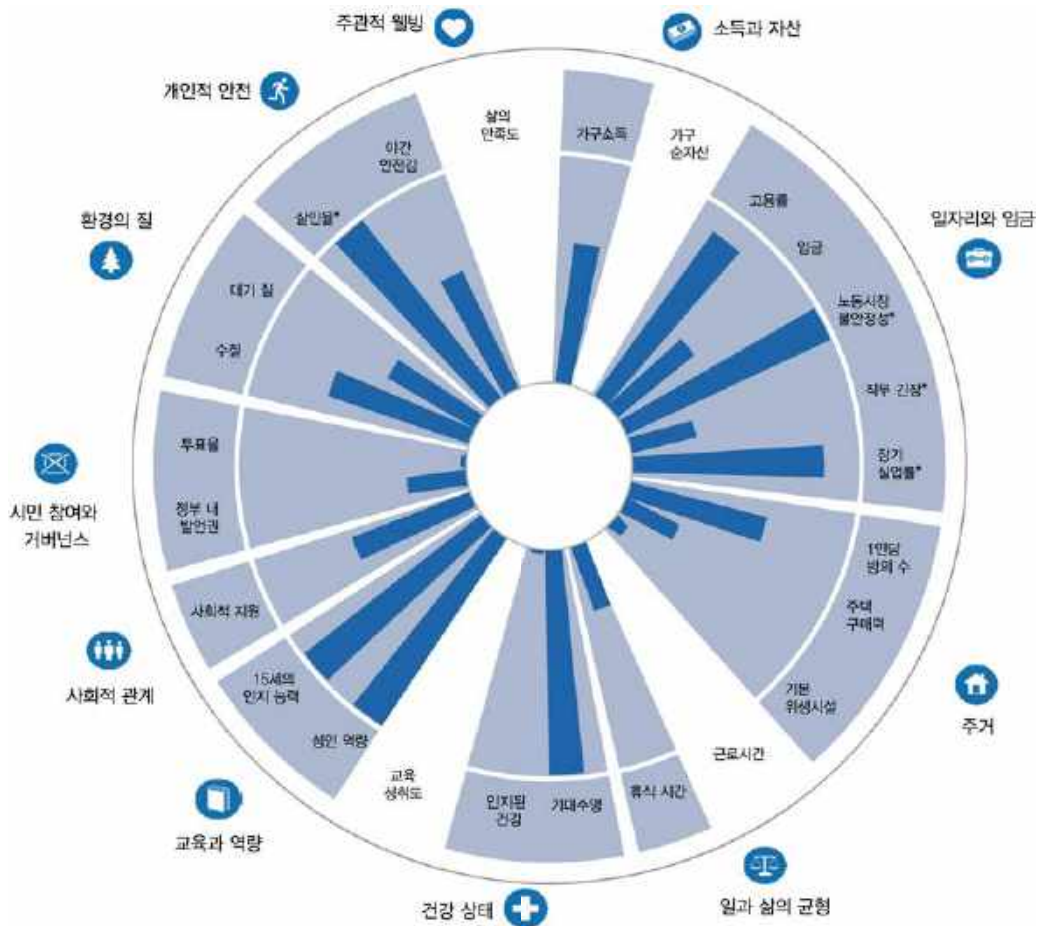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일본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일본은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고용률은 74%로 OECD 평균인 67%보다 훨씬 높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직무 긴장은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으며 평균 임금과 평균 가구 순가처분 소득은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84년으로 OECD에서 가장 높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일본인은 35%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그러나 일본인의 49%는 건강 상태가 “괜찮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율이다). 성인 역량과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은 OECD에서 가장 높다. 그와 대조적으로 투표율과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비율은 OECD의 하위 1/3에 속한다.

그림 5.18. 일본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194>

지난 10년간 일본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현재는 2005년보다 7% 높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2005년에 비해 5% 포인트 높다.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진전되지 않았으며 2016년 수준은 2005년과 비슷했다. 일본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지난 10년 동안 개선된 5개 OECD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장기 실업률은 2010년 최고치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2005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직무 긴장을 경험하는 직원 역시 2005년 이후 5% 포인트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2005년 이후 약간 상승했고 현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주택 가격은 상승했고 주거 비용에 소비한 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율은 0.8% 포인트 증가했다.	↗ ↘
일과 삶의 균형	[시계열 데이터 없음]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거의 2년 증가했으며,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증가율과 비슷하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93%에서 90%로 하락했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2005년과 2014년 총선 사이에 거의 15% 포인트 감소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일본인의 비율은 현재 10년 전에 비해 11% 포인트 더 높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개선되어 2005~2013년에 10% 포인트 감소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63%에서 71%로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6.4에서 5.9(0~10 척도로 측정)로 약간 하락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일본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2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교육 기대년수	③	.. 2014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①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②	↗ 2005-2015
비만율	①	↔ 2005-2015
청년의 교육 성취도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5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4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R&D 투자	①	↗ 2005-2015
가계 부채	②	↔ 2005-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가구순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③	↘ 2005-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1/2012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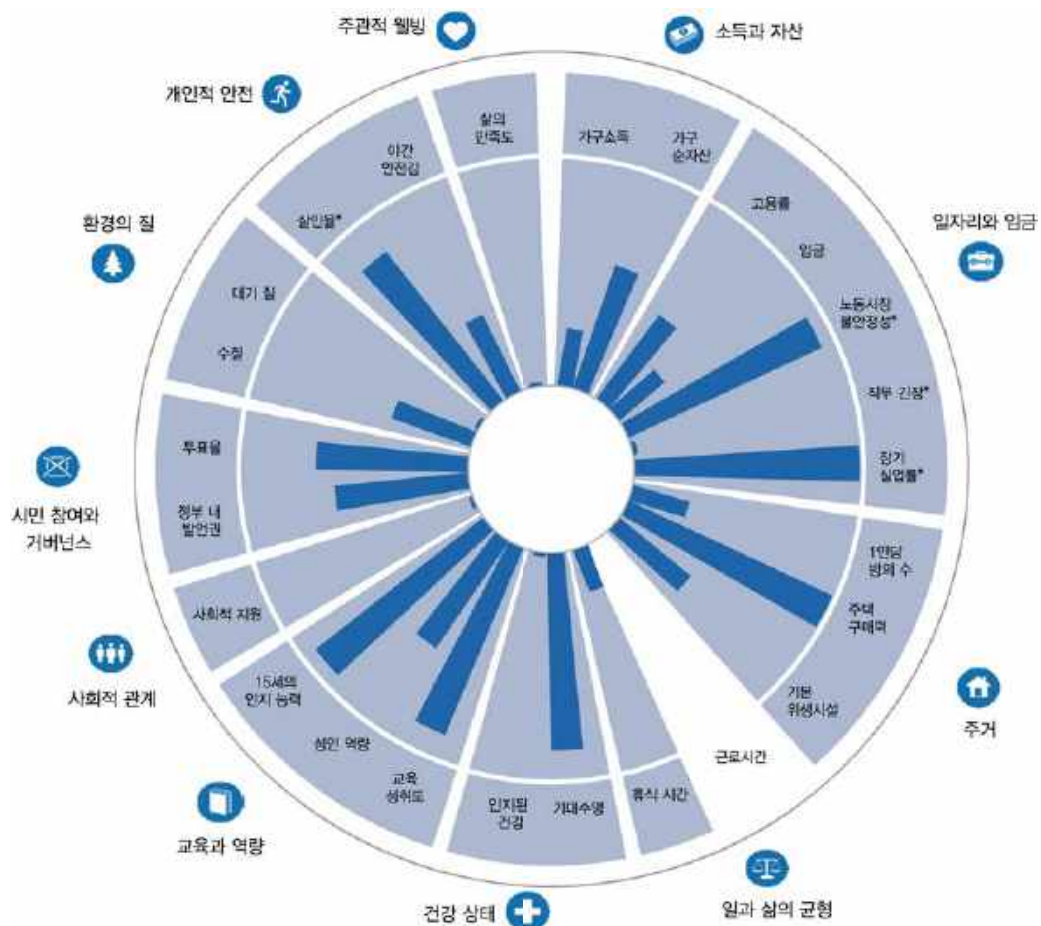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한국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소득과 자산은 OECD 평균 이하이지만 **장기 실업률**은 OECD에서 가장 낮고(2016년에는 거의 0)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긴장** 빈도는 OECD에서 가장 높고 **임금과 고용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다. 주거와 관련하여 1인당 평균 **방의 수**와 기본 위생시설 이용은 OECD 평균 이하지만, **주택 구매력**은 OECD에서 가장 높다. 출생 시 **기대 여명**은 82년으로 OECD 평균을 웃돌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한국인은 32%에 불과하다(한국인의 50%는 건강이 “괜찮다”고 보고하며,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율이다). 한국은 교육과 역량에서 상대적 강점을 가지지만 **사회적 지원**과 **환경의 질**(특히 **대기 질**)은 OECD에서 가장 나쁘다.

그림 5.19. 한국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한국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213>

지난 10년간 한국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으며, 현재는 2005년보다 (실질적으로) 23% 높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한 이후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2005년보다 2% 포인트 이상 높다.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평균 임금은 지난 10년간 점차 개선되어 2005년 이후 9%의 누적 증가율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 ↔
주거 환경	2005년 이후 주택 가격은 하락하여 주거 비용에 소비한 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2.1% 포인트 하락했다.	↘
일과 삶의 균형	[시계열 데이터 없음]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거의 4년 증가했으며 현재는 OECD 평균보다 2년 높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0년간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하락(11% 포인트)한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 ↘
교육과 역량	2005~2015년에 최소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비율은 11%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OECD 평균 추세와 달리, 한국의 투표율은 2007년과 2017년 대선 사이에 14% 포인트 증가하여 77%를 기록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2013년에 4% 증가했고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며 악화되고 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5년 대비 거의 40% 하락했다. 안전감은 10년 전보다 약간 나아졌으며, 현재 OECD 평균인 69%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하이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한국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3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05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①	↗ 2005-2015
비만율	①	↘ 2005-2015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5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8-2015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R&D 투자	①	↗ 2005-2015
가계 부채	③	↘ 2008-2015
가구순자산	②	.. 2013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8-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8-2016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6-2016
투표율	①	↗ 2007-2017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1/2012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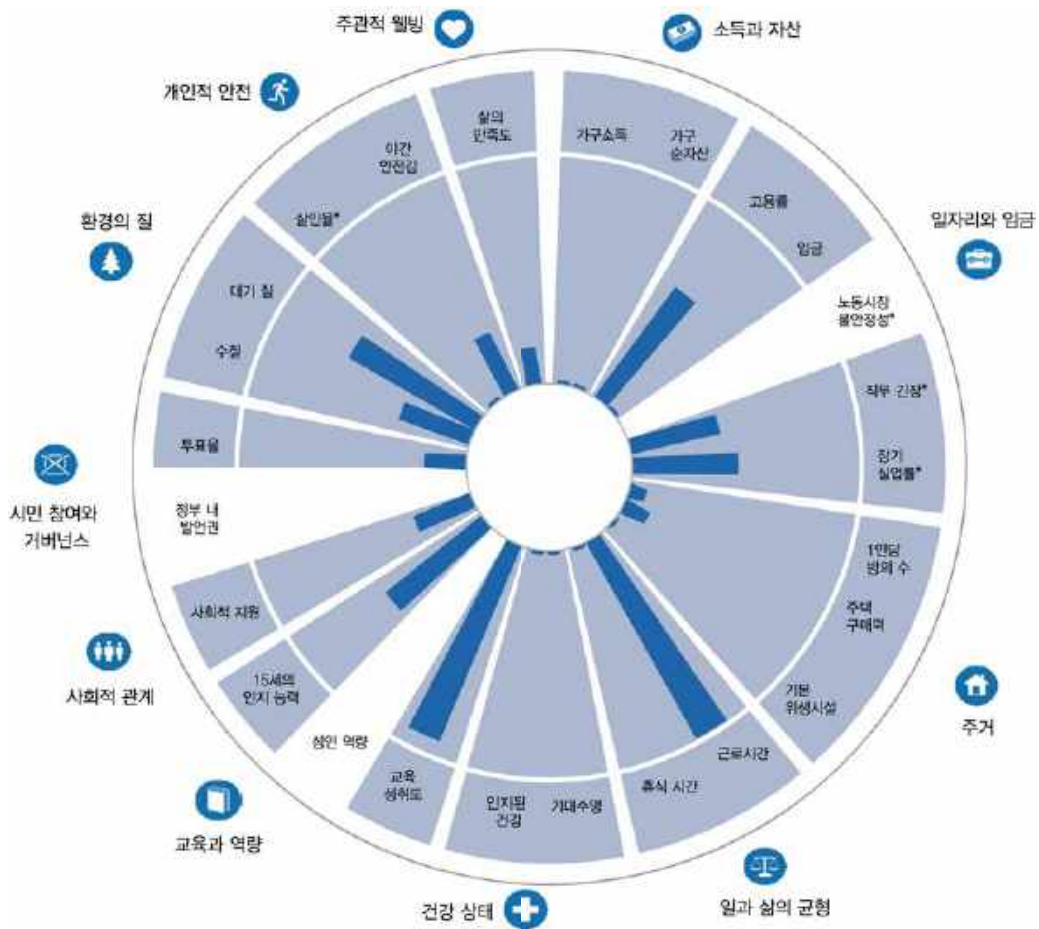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라트비아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라트비아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다. 15,000달러를 조금 넘는 평균 **가구 순가치분 소득**은 2015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장기 실업률**은 2016년 OECD 평균의 거의 2배였다. 그러나 **고용률**은 69%로 OECD 평균인 67%보다 높으며,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은 2%에 불과해 OECD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출생 시 **기대여명**은 75년으로 OECD에서 가장 낮고, OECD 평균보다 5년 적다.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비율은 89%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상위 계층에 속하고 15세의 **인지 능력**은 OECD 평균에 가깝다. 개인적 안전 측면에서 **살인율**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61%에 불과하다(OECD 평균 69%).

그림 5.20. 라트비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라트비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232>

지난 10년간 라트비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현재 2005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27% 높다. 이는 지난 10년간 OECD 평균 누적 증가율의 3배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금융위기 동안 하락했고, 최근 증가하긴 했지만 2008년의 높은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
일자리와 임금	금융위기는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후 영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고용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락한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고 현재는 69%로 2005년보다 7% 포인트 높다. 평균 임금은 10년 전에 비해 56% 높고, 장기 실업률은 금융위기 당시 8.8%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3.7%로 떨어졌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도 지난 10년 동안 2005년 43%에서 2015년 39%로 하락했다.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이하이다. 주거 비용 지출(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8.1%에서 2015년 23.2%로 상승하여 OECD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감소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지난 10년 동안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16년 2.1%로 크게 하락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이후 4년 늘어났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라트비아인의 비율 역시 35%에서 46%로 증가했지만 OECD 평균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 ↗
교육과 역량	최소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3.4%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82.5%에서 85.8%로 증가했다.	↗
시민 참여	2014년 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58.8%로, 2006년과 2010년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지난 10년간 투표율이 2.4% 포인트 하락한 OECD 평균 추세와 일치한다.	↘
환경의 질	현재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라트비아인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13% 포인트 높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 역시 2005년 이후 개선되었고 2013년에 11% 포인트 더 낮았다.	↗ ↗
개인적 안전	2005년 이후 개인적 안전이 개선되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었다. 살인율은 10만 명당 10.2명에서 6.6명으로 줄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14%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지난 10년 동안 삶의 만족도는 평균 4.7(0~10 척도)에서 5.9로 증가하여 다른 OECD 국가보다 증가 폭이 컸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라트비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③	↗ 2008-2014
비만율	③	↘ 2014-2016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②	↗ 2005-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4
R&D 투자	③	↔ 2005-2014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③	↘ 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5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③	↘ 2006-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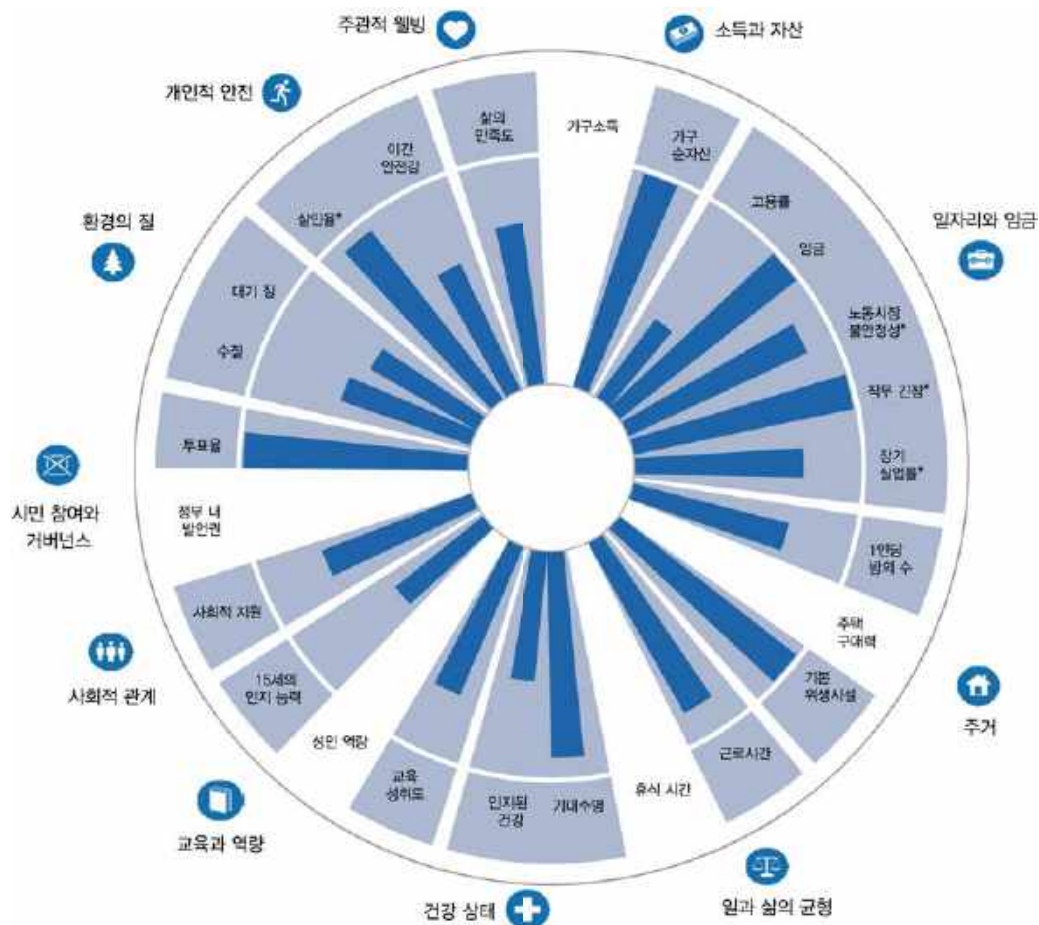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룩셈부르크의 삶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룩셈부르크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물질적인 생활 여건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다. **가구순자산과 평균 임금**은 OECD에서 가장 높다(각각, 2014년(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790,000달러, 2016년 62,600달러). 직무 긴장은 OECD에서 가장 낮으며,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은 4% 미만이다(OECD 평균 13%). 룩셈부르크는 주거 환경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투표율(91.2%)**은 OECD에서 가장 높지만, 이는 의무 투표 관행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인구는 92%이며, 이는 OECD 평균인 89%보다 높다. 개인적 안전의 경우 **살인율**은 2014년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았다(10만 명당 OECD 평균 3.6명 대비 0.6명). 룩셈부르크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 수준과 비슷하다.

그림 5.21. 룩셈부르크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251>

지난 10년간 룩셈부르크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4년 룩셈부르크의 가구순자산은 2010년보다 실질적으로 11% 더 높았다.	↗
일자리와 임금	2016년 고용률은 2005년보다 2% 포인트 높았지만 2014년 최고치보다 1%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2008년과 2011~2012년에 약간 감소했으나 실질	↗
	임금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현재는 2005년보다 10% 더 높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3년에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아직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장기 실업률은 2005년 1.2%에서 2015년 1.9%로 증가했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005~2010년에 5.5% 포인트 증가했지만 2015년에는 이전 수준(2005년)으로 돌아왔다.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개선되었으며 현재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높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2/3 하락했다.	↗
일과 삶의 균형	룩셈부르크는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증가한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며, 2016년에 3.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보다 2.5% 포인트 높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2년(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 이후 1년 미만으로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룩셈부르크의 성취율은 3.2% 포인트 하락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2009년과 2013년 총선 사이에 투표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투표율이 2.4% 포인트 감소한 OECD 평균 추세와 대조적이다.	↔
환경의 질	OECD 평균과 마찬가지로 지역 수질 만족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감소했다. 한편, 2013년 대기오염 수준은 2005년과 비슷했다.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최근 10만 명당 1.5명에서 0.6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76%에서 72%로 약간 하락했다.	↘
주관적 웰빙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룩셈부르크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에 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5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12-2015
흡연율	①	↗ 2009-2014
비만율	②	↔ 2009-2014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5
R&D 투자	③	↗ 2005-2015
가구순자산	①	↗ 2010-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가계 부채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8-2016
투표율	①	↔ 2009-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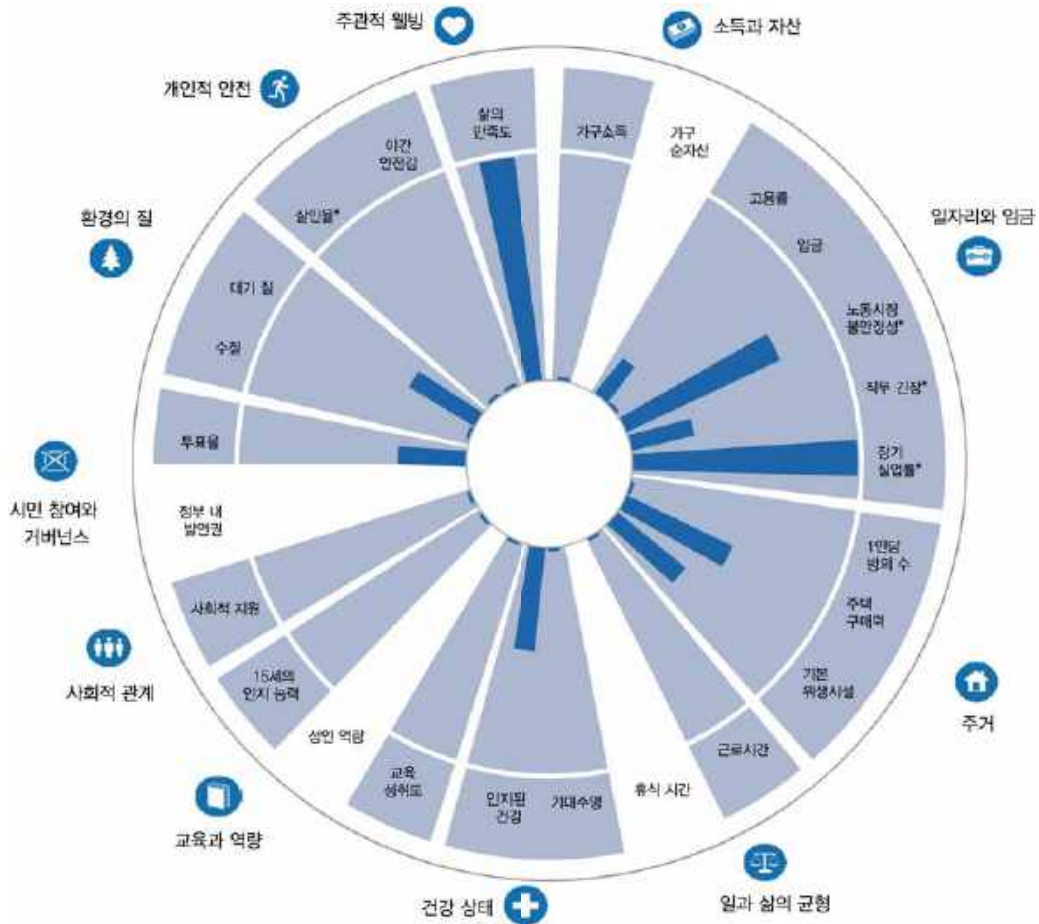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멕시코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멕시코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2016년 멕시코의 고용률은 61%로 OECD 평균(67%)보다 낮았지만 장기 실업률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0에 가까웠다. 주거 환경은 3가지 지표 모두에 대해 OECD 평균보다 낮고, 출생 시 평균 기대여명은 2015년 75년으로 OECD 평균보다 5년 적다. 멕시코는 OECD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14년 10만 명당 18명이 사망했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2014-2016년 OECD 평균 69% 대비 46%). 사회적 지원 역시 OECD에서 가장 낮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멕시코인은 80%에 불과하다(OECD 평균 89%). 멕시코는 또한 교육과 역량 측면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 계층에 속한다.

그림 5.22. 멕시코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멕시코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270>

지난 10년간 멕시코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2008년 성장한 이후 2009년에 급격히 감소했다. 그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여 OECD 평균인 8%에 비해 10년간 11%의 누적 증가율을 기록했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1% 포인트 증가했지만 실질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9년에 급격히 상승했고 그 이후 점차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났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장기 실업률은 안정적이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직무 긴장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 ↘ ↔ ↔
주거 환경	지난 10년간 주택 구매력은 개선되었으며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24%에서 2015년 20.7%로 하락했다.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멕시코는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이 거의 30%로,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74년에서 2015년 75년으로 지난 10년간 OECD 평균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다.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멕시코의 성취율은 1.5%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지난 10년간 멕시코의 사회적 지원은 하락했다. 2005~2007년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88%였지만 2014~2016년에 이 비율은 80%까지 떨어졌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2006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사이에 4.5% 포인트 증가했다.	↗
환경의 질	연평균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12년에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2005~2013년에 7% 하락했다. OECD 평균과 마찬가지로 지역 수질 만족도는 최근에 하락했고, 2005년(67%)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2/3 증가했으며, 이는 OECD에서 최대 증가 폭이다. 밤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46%로 떨어졌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1%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2013년까지 점차 개선되었으나 현재는 하락하여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멕시코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3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4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①	↗ 2006-2012
비만율	③	↘ 2005-2016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5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	↗ 2005-2009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 R&D 투자, 가계 부채, 가구순자산, 정부의 금융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③	↗ 2006-2012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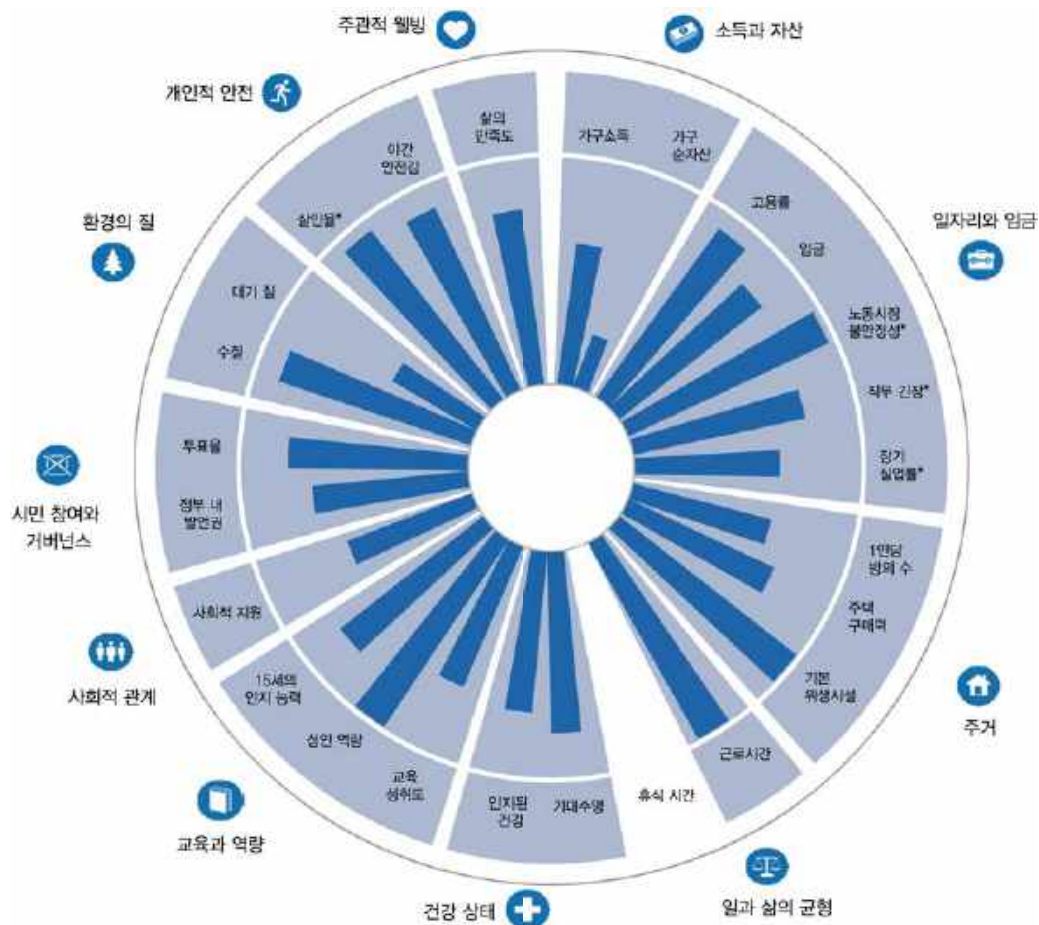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네덜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OECD의 중심 웰빙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가구순자산**은 2015년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이었지만 **평균 임금**(2016년 약 53,000달러)은 OECD 평균보다 거의 20% 높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직무 긴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1% 미만으로 OECD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2016년 **장기 실업률**은 OECD 평균인 2.3%보다 높은 3%를 기록했다. 네덜란드에서 주거 환경은 양호한 편이지만 **대기 질**(PM_{2.5} 대기오염 노출 측면에서 평가)은 OECD 평균에 가깝다.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비율은 77%이며(OECD 평균 75%), 네덜란드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적 안전 역시 우수하며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높다.

그림 5.23. 네덜란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네덜란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289>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 증가했으나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수준은 2005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8% 높다. 가구순자산은 2010~2015년에 (실질적으로*) 점증적으로 16% 하락했다.	↗ ↘
일자리와 임금	2016년 고용률은 2005년보다 3.3% 포인트 높았지만 2008년 최고치보다 1%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되었다. 2011년과 2014년에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실질 임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보다 현재 8% 더 높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0년 이후 증가했고 장기 실업률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에 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직무 긴장을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주택 가격은 약간 증가했고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9.1%에서 2015년 19.5%로 상승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0%로 유지되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
건강 상태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약 2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1.2%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지난 10년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94%에서 90%로 하락했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지난 10년간 증가했다. 2017년 총선에서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82%였다. 이는 2006년보다 2% 포인트 높고, 2010년보다 7%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었으며, 2013년은 2005년에 비해 10% 낮았다.	↔ ↗
개인적 안전	2005년에 비해 개인적 안전은 향상되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1명에서 0.6명으로 하락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73%에서 81%로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현재 삶의 만족도 수준은 10년 전에 보고한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	↔

* 2010년과 2015년의 가구순자산 데이터는 네덜란드의 다른 출처에서 인용하여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네덜란드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2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①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②	↗ 2005-2013
비만율	①	.. 2015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R&D 투자	②	↔ 2005-2015
가계 부채	③	↘ 2005-2016
가구순자산*	③	↘ 2010-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6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①	↗ 2006-2017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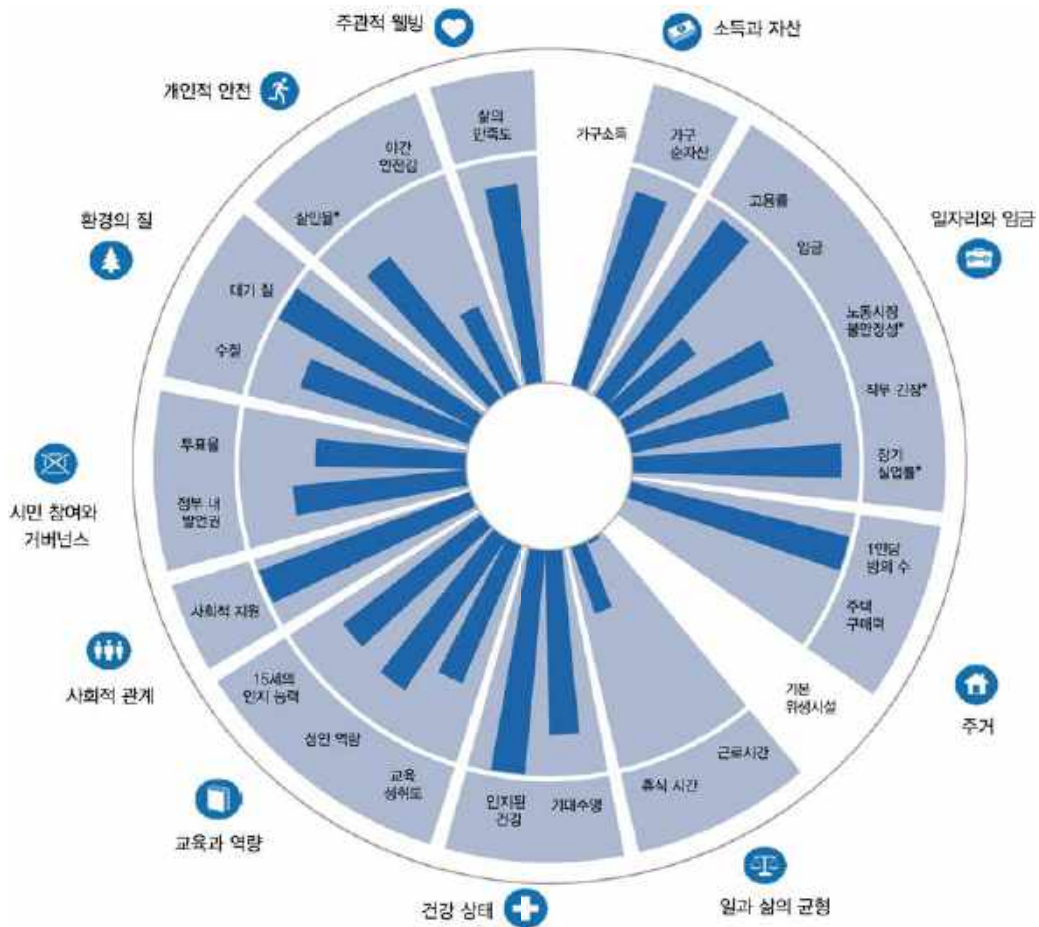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뉴질랜드의 삶은 어떠한가?

평균적으로 뉴질랜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여러 웰빙 지표와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장기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직무 긴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된 **사회적 지원** 역시 OECD에서 가장 높다. 뉴질랜드의 환경의 질은 높지만, 개인적 안전과 주거 환경 측면에서는 성과가 엇갈린다. **살인율**은 낮지만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65%에 불과하다(OECD 평균 69%).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OECD에서 가장 높지만 **주택 구매율**은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82년으로 OECD 평균보다 2년 더 길다. 많은 뉴질랜드인이 **인지된 건강**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하지만, 보고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림 5.24. 뉴질랜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뉴질랜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308>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08년에는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점차 회복되어 2015년에는 2005년 수준에 근접했다. 실질 임금은 10년 전보다 14% 높다. 지난 10년간 다른 일자리 지표는 악화되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5년에 비해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고 직무 긴장 빈도는 거의 7% 포인트 상승했다.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OECD 평균 이상이었다. 한편, 주택 구매력은 지난 10년 동안 약간 악화되었고 주거 비용에 지출한 소득의 비율은 2005년 25.8%에서 2014년 26.2%로 증가했다.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 포인트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인 0.7 감소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거의 2년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 증가율과 비슷하다. 자기보고 건강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2014~2016년에 2.5% 포인트 증가했다(2014년 이전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 없음).	↗
사회적 관계	지난 10년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5년과 2014년 총선 사이에 3.3% 포인트 하락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와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모두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대비 거의 1/4 하락했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61%에서 2014~2016년 65%로 점차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뉴질랜드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0
위험 받는 종에 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①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5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①	↗ 2006-2015
비만율	③	↘ 2007-2016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5
가구순자산	①	.. 2015
R&D 투자	③	↔ 2005-2015
생산된 고정 자산,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지적 재산 자산, 가계 부채, 정부의 금융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①	↘ 2005-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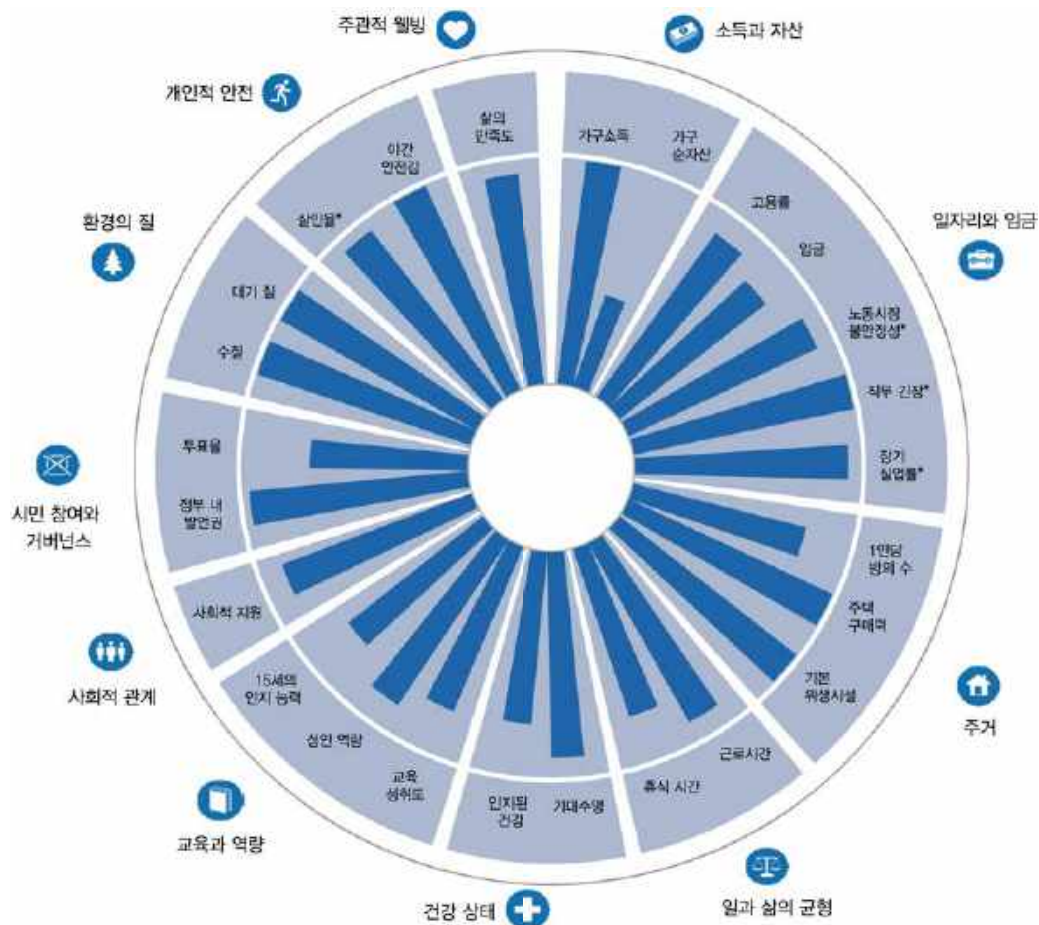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노르웨이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노르웨이는 여러 웰빙 지표와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직무 긴장과 장기 실업률은 OECD에서 가장 낮고, 평균 임금과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상위 1/3에 속한다. 2016년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약 3%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3%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고 정규 직원은 OECD 평균보다 더 긴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을 보고했다. 2015년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OECD에서 가장 높았지만 가구순자산은 OECD 평균 이하였다.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의 많은 차원은 양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살인율은 매우 낮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노르웨이인의 비율은 거의 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한편,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9%로 OECD 평균인 33%보다 훨씬 높다.

그림 5.25. 노르웨이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노르웨이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327>

지난 10년간 노르웨이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현재 2005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15% 더 높다. 2006년에 약간 하락한 이후 2007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2015년 가구순자산은 2012년 보다 실질적으로 16% 높았다.	↗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6년 이후 약간 감소했다.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지난 10년 동안 누적 증가율이 22%였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5년에 급격히 증가했다. 장기 실업률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005년 20%에서 2015년 15%로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2011~2015년에 2.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2005~2010년 이후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주거 비용에 지출된 가구 가처분소득의 평균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2년 증가했고 2015년 82.4년으로 OECD 평균 보다 2년 더 길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OECD 평균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2005년 77.2%에서 2016년 82.2%로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2005~2007년 이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2005년 의원 선거에서 77%에서 2013년 78%로 약간 증가했다.	↔
환경의 질	OECD 평균 추세와 일치하여 2005년 이후 지역 수질 만족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간 22% 개선되었다.	↔ ↗
개인적 안전	현재 안전감과 살인율은 10년 전 수준과 대체로 비슷하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노르웨이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07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①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6-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6
흡연율	①	↗ 2005-2016
비만율	①	↘ 2005-2015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12-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①	↗ 2012-2014
R&D 투자	②	↗ 2005-2014
가계 부채	③	↘ 2005-2016
가구순자산	②	↗ 2012-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6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①	↔ 2005-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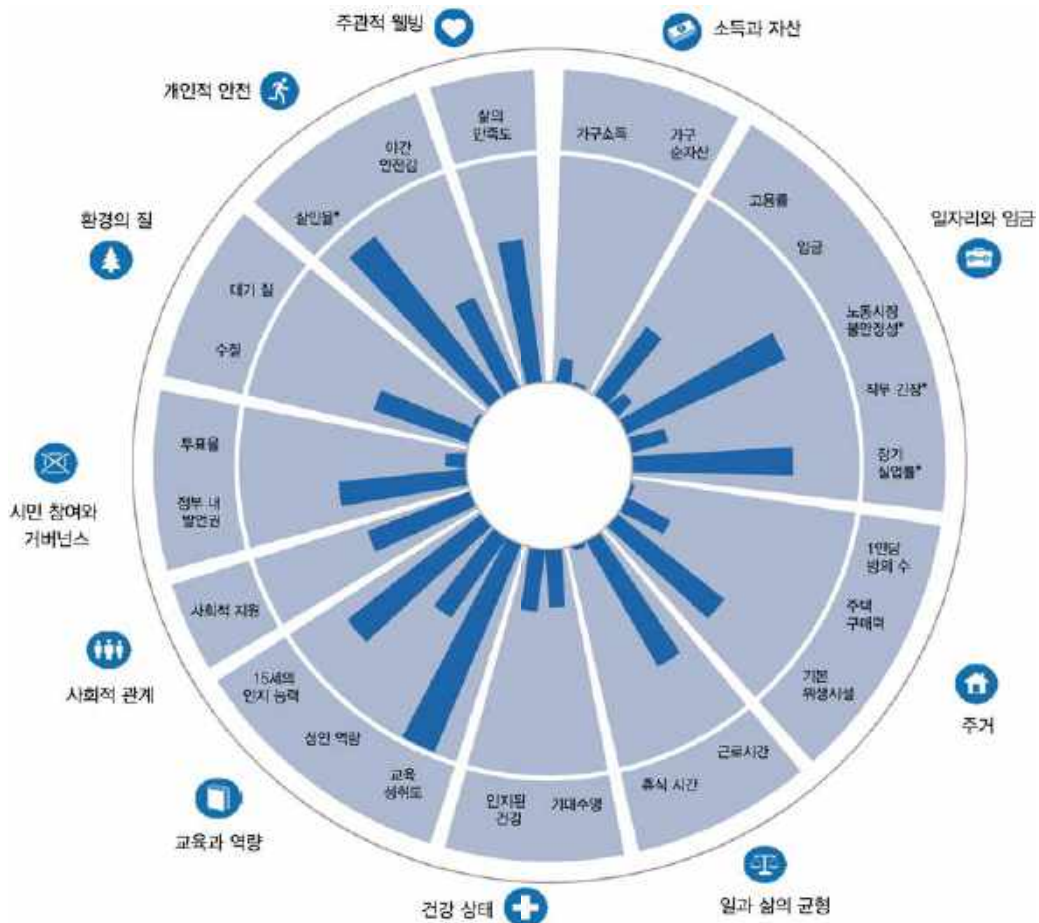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폴란드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폴란드의 평균 성과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잇달린 양상을 보인다. 물질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다.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5년에 약 19,000달러(OECD 평균의 60%)였고 임금은 낮다. 폴란드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직무 긴장** 빈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정규 직원은 OECD 평균보다 더 적은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을 보고했다. 그러나 2015년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은 7%에 불과했다(OECD 평균 13%). 2015년 폴란드의 **기대수명**은 78년으로 OECD에서 가장 낮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폴란드인은 58%에 불과했다(OECD 평균 69%). 그러나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비율은 91%(OECD 평균 75%)이고, 15세의 **인지 능력** 역시 OECD 평균 이상이다.

그림 5.26. 폴란드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폴란드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346>

지난 10년간 폴란드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점증적으로 35%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5년 이후 거의 12%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실질 임금은 꾸준히 개선되어 현재는 2005년에 비해 24% 더 높지만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증가했다. 장기 실업률은 10년 전보다 7% 포인트 낮지만 2015년 직무 긴장 빈도는 2005년 수준과 비슷하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2005년 이후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다. 2005~2008년 개선되긴 했지만 주택 구매력은 최근에 악화되었고,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 ↘ ↘ ↗
일과 삶의 균형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현재는 10년 전보다 1/3 더 낮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9년(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 이후 거의 2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도 2005년 이후 거의 4% 포인트 증가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폴란드의 성취율은 1% 포인트 미만으로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이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OECD 평균과 대조적으로 투표율은 2005년 이후 4.4% 포인트 증가하여 2015년 대통령 선거 당시 55.3%에 이르렀다.	↗
환경의 질	현재 지역 수질에 만족한 폴란드인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14% 포인트 더 높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보다 4% 더 낮지만 OECD 평균보다는 높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5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은 10년 전 수준과 비슷하지만 OECD 평균인 69%보다 약간 낮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폴란드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폴란드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06-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9-2015
흡연율	③	↗ 2009-2014
비만율	②	↔ 2008-2014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5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4
R&D 투자	③	↗ 2005-2014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③	.. 2013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5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③	↗ 2005-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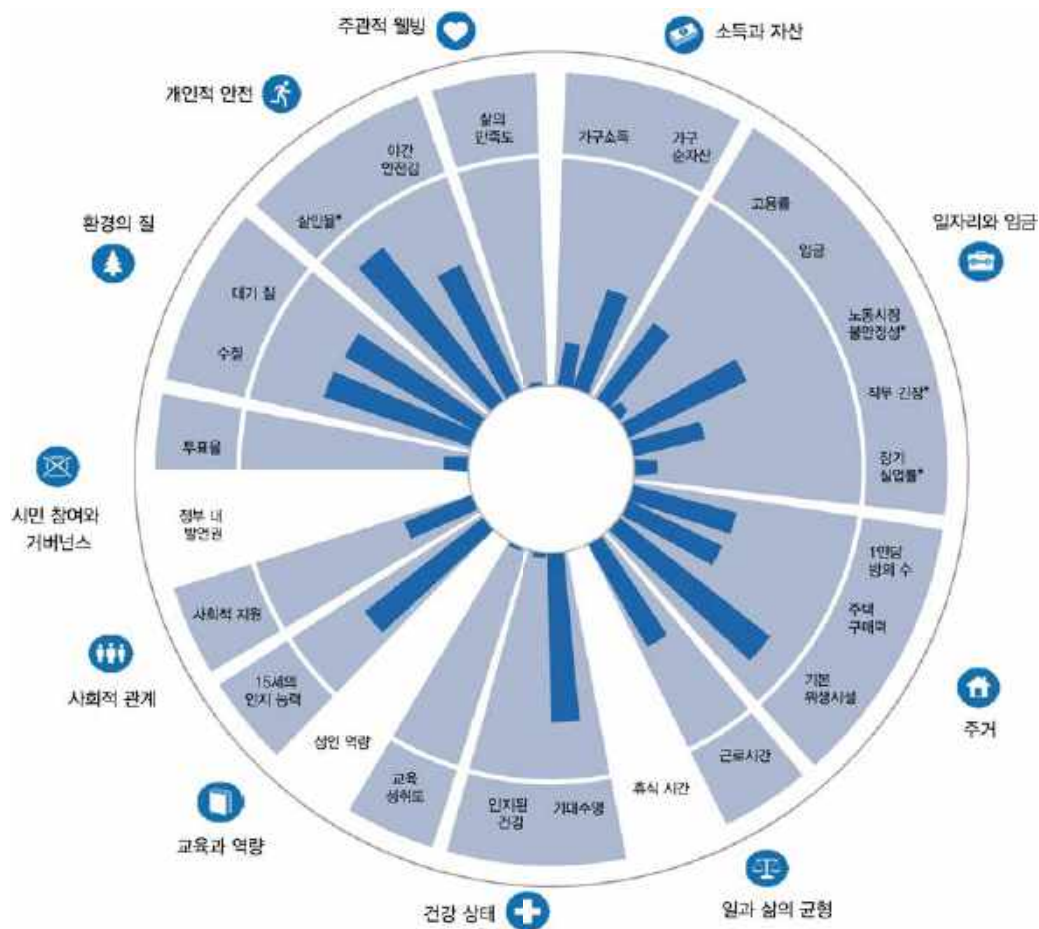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포르투갈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포르투갈은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가구 순가처분소득, 평균 임금, 장기 실업률, 사회적 지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OECD의 하위 1/3에 속한다. 주택 구매력과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OECD 평균 이하지만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OECD 평균 2.2%). 출생 시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년 더 길고, 환경의 질과 개인적 안전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인다. 해당 측면과 관련된 모든 가용 지표에서 OECD 평균 이상이다. 교육과 역량 측면의 성과는 엇갈린다.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단 47%만이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은 OECD 평균 이상이다.

그림 5.27. 포르투갈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포르투갈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365>

지난 10년간 포르투갈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6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 수준에 가까웠다. 가구소득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간 개선된 후 2011~2012년에 급격히 하락했고 2015년에 회복되기 시작했다. 2013년 가구순자산은 2010년보다 (실질적으로) 4% 더 높았다.	↔ ↗
일자리와 임금	OECD 평균과 대조적으로, 실질 임금은 2005~2015년에 하락했다. 그러나 고용률은 약간 증가했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하락했다. 2016년 장기 실업률은 6.1%로 2011년(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 수준과 동일하며, 2013년에 9.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005~2015년에 거의 8% 포인트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약간 낮다. 주택 구매력은 10년 동안 크게 약화되어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처분소득의 비율은 2005년 16%에서 2015년 21%로 증가했다. 한편,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2005년 이후 2/3 감소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11~2016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1년 이전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음).	↔
건강 상태	2015년에 정체되긴 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10년 전보다 3년 늘었고 OECD 평균보다 훨씬 개선되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다.	↗ ↔
교육과 역량	2005년 이후 고등교육 수준을 달성한 성인의 비율은 20.5%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증가 수준이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90%에서 87%로 하락했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하락했다. 2015년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56%였는데, 이는 2005년보다 8% 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기 질은 개선되었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13년에 2005년보다 18% 낮았다.	↔ ↗
개인적 안전	지난 10년 동안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8% 포인트 상승하여 전체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의 추세와 일치한다.	↔ ↗
주관적 웰빙	최근 삶의 만족도는 10년 전 보고된 수준과 유사하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포르투갈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07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에 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장기 실업률	③	↔ 2011-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①	↗ 2006-2014
비만율	②	↘ 2006-2014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4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4
R&D 투자	③	↗ 2005-2014
가계 부채	③	↔ 2005-2016
가구순자산	②	↗ 2010-2013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6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③	↘ 2005-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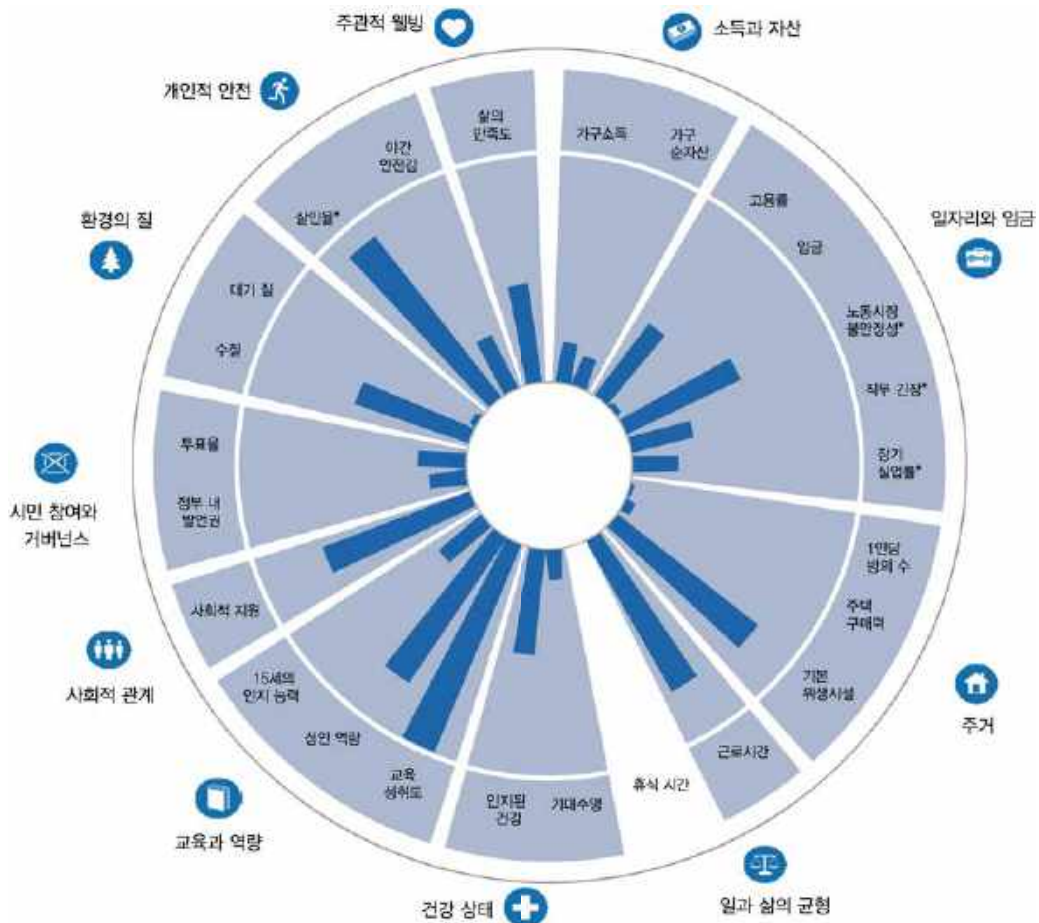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슬로바키아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슬로바키아의 평균 성과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매우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물질적 조건, 환경의 질,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는 모두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다.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5년 OECD 평균의 약 2/3 수준이었고 **장기 실업률**은 2016년에 5.5%로 OECD 평균의 거의 3배였다. 출생 시 **기대여명**(2015년 77년)은 OECD에서 가장 낮고,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슬로바키아인은 66%로 OECD 평균인 69%보다 낮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OECD에서 **교육 성취도**가 두 번째로 높다.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92%가 최소한 고등교육을 마쳤고 **성인 역량** 역시 OECD 평균 이상이다. 개인적 안전에 관련해서는 **살인율**이 낮긴 하지만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60%에 불과하다(OECD 평균 69%).

그림 5.28. 슬로바키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384>

지난 10년간 슬로바키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지난 10년 동안 슬로바키아는 OECD에서 가구 순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 중 하나이며, 2005년 이후 누적 증가율이 31%였다. 가구순자산은 2010~2014년에 (실질적으로) 누적 감소율이 4%였다.	↗ ↘
일자리와 임금	2016년 고용률은 65%로 2005년보다 7% 포인트 더 높았다.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누적 증가율이 28%였다. 한편,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장기 실업률은 현재 2005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며, 직무 긴장을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은 10%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방의 수는 2005~2010년 이후 약간 상승했지만 OECD 평균보다 낮다. 주택 구매력 역시 지난 10년간 개선되었다. 주거 비용에 지출한 소득 비율은 2005년 26.1%에서 2015년 23.6%로 하락했다. 한편,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5%에 불과하며, 이는 2005년 보고된 6.3%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했지만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거의 3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슬로바키아인의 비율 역시 지난 10년 동안 52%에서 66%로 증가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1% 포인트 미만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OECD 평균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2006년 이후 5.2% 포인트 증가했으며 2016년 의원 선거에서 59.8%에 도달했다.	↗
환경의 질	최근 지역 수질 만족도는 지난 10년의 상반기 수준에 비해 개선되었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2005~2013년에 전체적으로 8% 개선되었다.	↗ ↗
개인적 안전	2005년 이후 개인적 안전이 개선되었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살인율은 절반으로 낮아졌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13%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평균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5.3(0~10 척도)에서 6.1로 증가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슬로바키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③	↘ 2009-2014
비만율	②	.. 2008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5
R&D 투자	③	↔ 2005-2014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③	↘ 2010-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6-2016
투표율	③	↗ 2006-2016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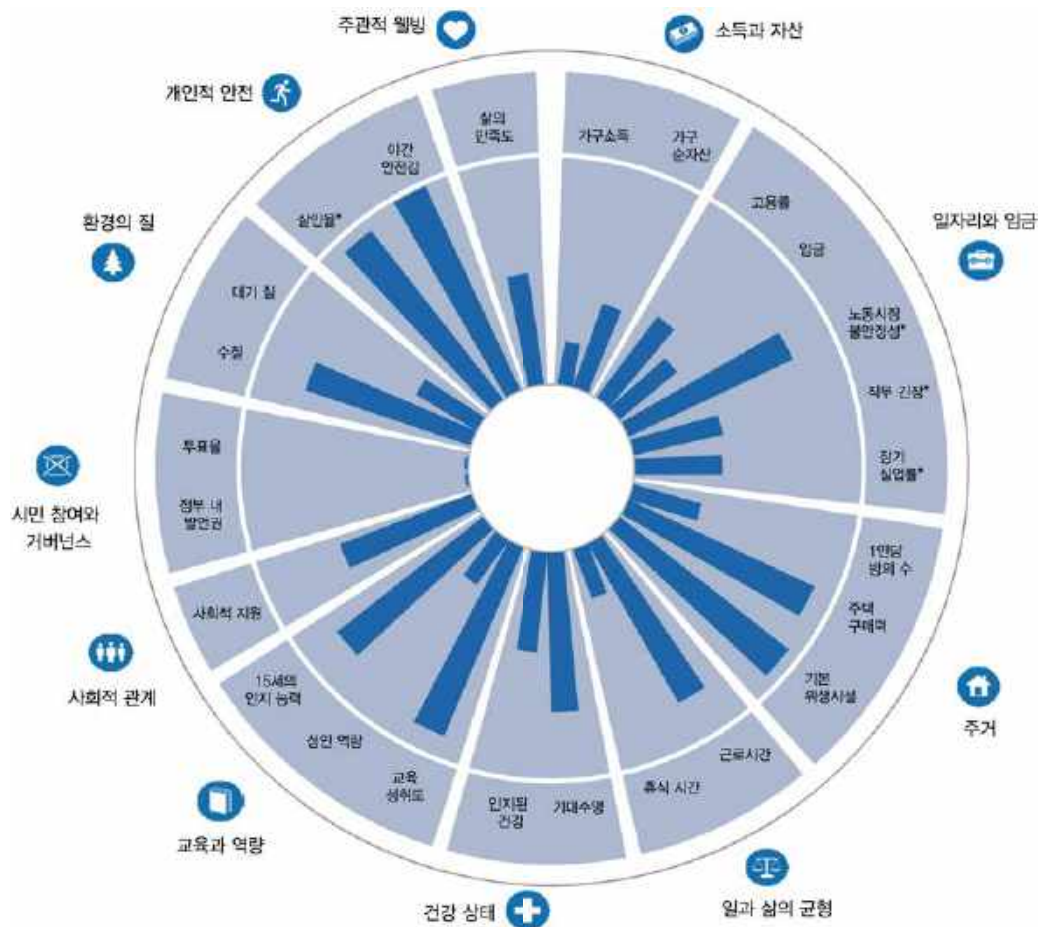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슬로베니아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슬로베니아의 평균 성과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양상을 보인다.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5년 OECD 평균의 약 2/3이었고, **장기 실업률**은 2016년 OECD 평균의 2배였다. 반면 **교육 성취도**는 높다. 슬로베니아의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87%가 최소한 고등교육을 마쳤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다. 학생의 **인지 능력** 역시 2015년 OECD 평균 이상이었지만 성인 역량은 평균 이하였다. **투표율**과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비율 측면에서 평가한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개인적 안전은 높다. **살인율**은 OECD에서 가장 낮으며, 슬로베니아 사람의 85%가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림 5.29. 슬로베니아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슬로베니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403>

지난 10년간 슬로베니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현재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에 있다.	↔
일자리와 임금	2013년 이후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2005년 수준에 가깝다. 반면, 실질 임금은 꾸준히 개선되어 누적 상승률이 15%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아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장기 실업률은 2005년 3.1%에서 2016년 4.3%로 악화되었고, 직무 긴장을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45%에서 2015년 39%로 감소했다.	↔ ↗ ↘ ↘ ↗
주거 환경	주택 구매력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었다. 주거 비용에 지출한 소득의 비율은 2005년 18.9%에서 2015년 18.3%로 하락했다. 기본 위생시설은 더욱 널리 보급 되어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다.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4% 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0.9% 포인트보다 더 급격한 하락세이다.	↘
건강 상태	2015년에 감소하긴 했지만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8년(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가장 빠른 연도) 이후 전반적으로 거의 2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슬로베니아인의 비율 역시 지난 10년 동안 54%에서 65%로 상승했지만 OECD 평균 이하이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슬로베니아의 성취율은 1.6%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2008년과 2014년 의원 선거 사이에 투표율은 11.4% 포인트 하락했다.	↘
환경의 질	지난 10년 동안 지역 수질 만족도는 개선되었지만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2005년 이후 개인적 안전이 개선되었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살인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5%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최근 삶의 만족도는 10년 전 보고된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슬로베니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5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성인 역량	③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8-2015
흡연율	②	↔ 2007-2014
비만율	②	↘ 2007-2014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5
R&D 투자	②	↗ 2005-2015
가계 부채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	②	.. 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6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③	↘ 2008-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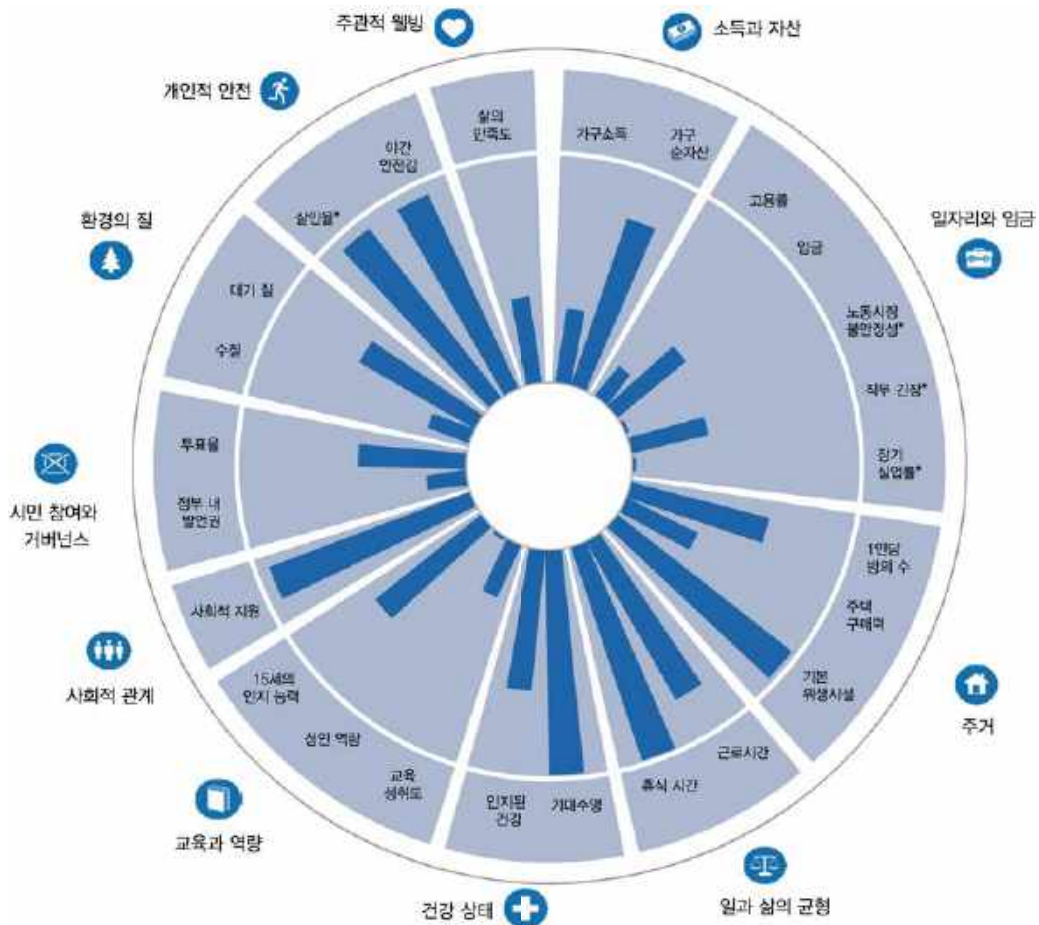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스페인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스페인의 평균 성과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양상을 보인다. 2015년 비교적 낮은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에도 불구하고 **가구순자산**은 2011년(최신 연도)에 OECD 평균 이상이었다. 스페인은 일자리와 임금 측면에서 특정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은 OECD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은 강점 영역이다. 정기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5%에 불과해 OECD 평균의 절반 미만이고, 정규 직원의 **휴식 시간**(여가와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은 OECD에서 가장 길다. 출생 시 **기대여명**(83년)은 OECD 평균보다 거의 3년 더 길며, **사회적 지원** 역시 비교적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58%만이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OECD 평균인 75%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성인 역량** 역시 평균 이하이다.

그림 5.30. 스페인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스페인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422>

지난 10년간 스페인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5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보다 6% 낮았으며, 지난 10년 동안 OECD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 중 하나이다. 가구순자산은 2008~2011년에 (실질적으로) 점증적으로 3% 감소했다.	↘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하락했고 2014년에는 완만하게 개선되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현재는 2005년 보다 7% 높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12년에 최고치에 도달했고, 그 이후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장기 실업률은 2007년 이후 증가했으며 2013년에 13%로 정점에 도달했다. 대조적으로, 직무 긴장 빈도는 2005년 49%에서 2015년 41%로 하락했다.	↘ ↘ ↘ ↘ ↘
주거 환경	주거 비용 지출(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5년 18.2%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OECD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 중 하나이다). 한편,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10년 이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4% 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0.9% 포인트보다 더 급격한 하락세이다.	↘
건강 상태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기대수명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거의 3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훨씬 개선되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2005년 이후 6%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스페인의 성취율은 1.7%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이 약간 감소한 것과 달리 2005~2007년 이후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
시민 참여	OECD 평균 추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스페인의 투표율은 하락했다.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70%였는데, 2008년보다 5% 포인트 낮았고 2015년보다 3% 포인트 낮았지만 2011년보다는 1% 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2005~2007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간 증가했지만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9% 하락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0년 동안 점차 하락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65%에서 83%로 개선되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평균 7.1에서 6.4(0~10 척도)로 지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OECD 평균 하락 폭의 3배이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스페인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적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4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4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③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③	↗ 2006-2014
비만율	①	↘ 2006-2014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R&D 투자	③	↗ 2005-2014
가계 부채	②	↔ 2005-2015
가구순자산	①	↘ 2008-2011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6
생산된 고정 자산과 지적 재산 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투표율	②	↘ 2008-2016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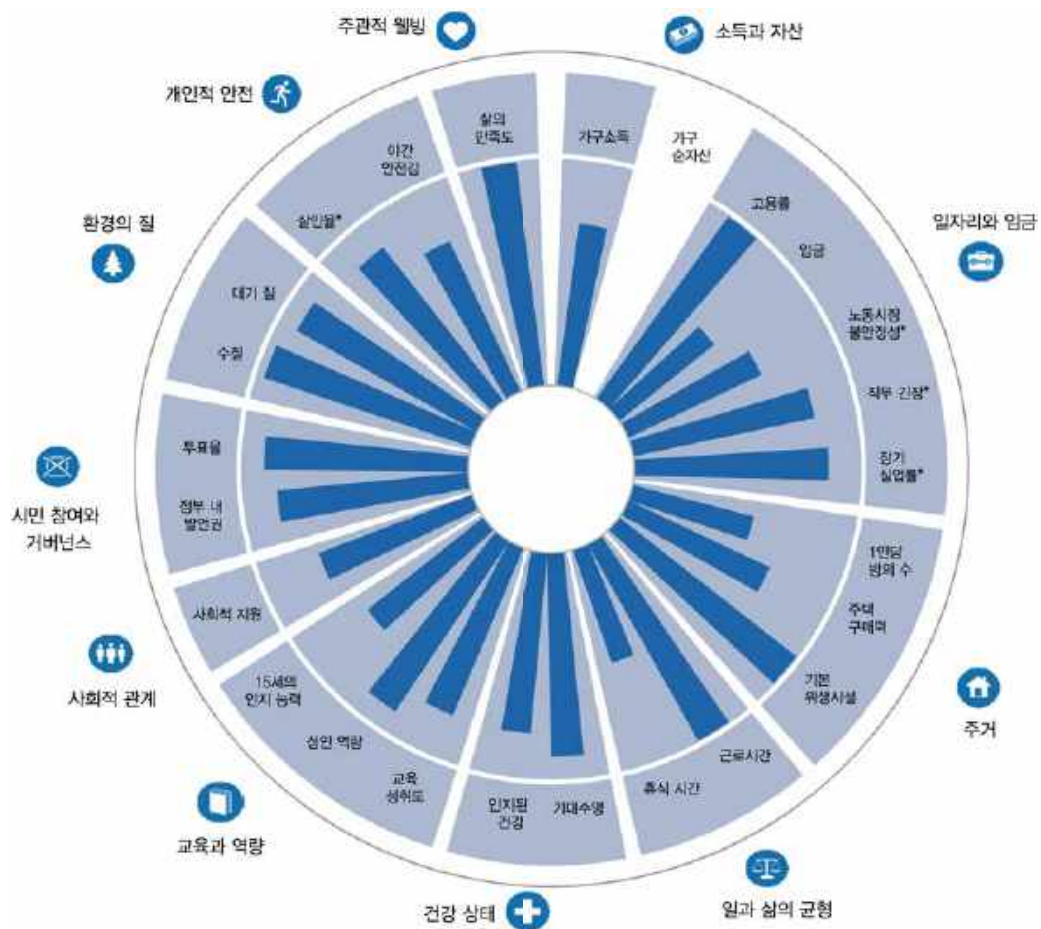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스웨덴의 삶은 어떠한가?

평균적으로 스웨덴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여러 웰빙 차원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2016년 **고용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은 1%에 불과한데, 이는 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가구 순가처분소득**과 **임금**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다. 교육과 역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83%가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았다(OECD 평균 75%). **성인 역량**과 학생의 **인지 능력** 역시 OECD 평균을 초과한다. **투표율**과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인의 비율로 평가한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는 OECD의 상위 1/3에 속한다. 스웨덴의 환경의 질과 건강 상태 역시 우수하며 **삶의 만족도**는 2013년에 OECD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5.31. 스웨덴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스웨덴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441>

지난 10년간 스웨덴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현재는 2005년보다 20% 높다.	↗
일자리와 임금	현재 스웨덴의 고용률은 2005년보다 2.2% 포인트 높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하락한 이후 이전의 최고치를 능가하여 최근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19%의 누적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장기 실업률은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0%에 가깝게 유지되었다. 2005년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주거 비용에 지출하는 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율은 2.2% 포인트 감소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1.1%로 2005년에 보고된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1.5년 증가했고 2015년에는 82.3년을 기록하여 OECD 평균보다 2년 더 길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4.1% 포인트 증가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1.2%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6년 총선의 82%에서 2014년 86%로 증가하여 10년 전보다 개선되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2011년에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2012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현재는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 ↗
개인적 안전	지난 10년 동안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5% 포인트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의 추세와 일치한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스웨덴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0
위험 받는 조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①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6
흡연율	①	↗ 2005-2015
비만율	①	↘ 2005-2015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R&D 투자	①	↗ 2005-2014
가계 부채	③	↘ 2005-2016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6
가구순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①	↗ 2006-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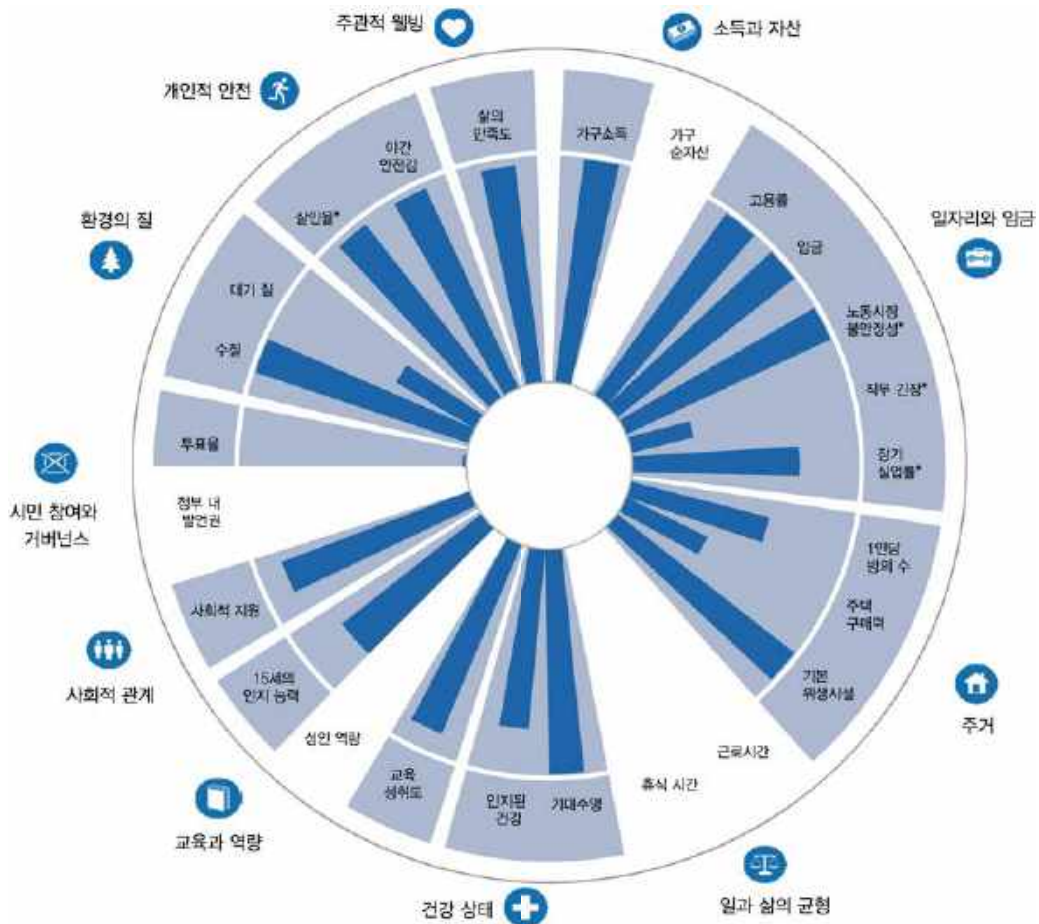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스위스의 삶은 어떠한가?

평균적으로 스위스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OECD의 중심 웰빙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 **임금**, **고용률**은 OECD에서 가장 높다. 출생 **시기대여명**은 2015년 83년으로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스위스 국민의 비율은 80%로 OECD 평균보다 11% 포인트 높았다. 주거 환경과 환경의 질 측면에서 스위스의 성과는 엇갈린다. 예를 들어, **기본 위생 시설 이용**은 양호하지만 **주택 구매력**은 낮았고(2015년),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96%였지만 **대기의 질**(공기 중 PM_{2.5}의 평균 농도로 측정)은 OECD 평균보다 악화되었다. 스위스의 의원 선거 **투표율**은 2015년에 49%에 불과해 OECD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스위스의 참여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5.32. 스위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스위스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460>

지난 10년간 스위스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현재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5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11% 더 높다. 2008년에 정체되긴 했지만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10년(2010년 이전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 없음)보다 2% 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 10년 동안 실질 임금은 꾸준히 개선되어 누적 증가율이 8%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불안정성도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보다 여전히 2배나 높다. 장기 실업률은 현재 1.9%로 2010년 수준보다 약간 높다. 마지막으로 직무 긴장 빈도는 2005년 27%에서 2015년 43%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보다 많이 증가했다.	↗ ↗ ↘ ↘ ↘
주거 환경	2005년 이후 1인당 방의 수는 1.8에서 1.9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주택 구매력 역시 개선되었다. 주거 비용에 지출한 소득의 비율은 2005년 22.2%에서 2013년 21.5%로 하락했다. 한편, 기본 위생시설 접근성 부족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0.1%).	↗ ↗ ↔
일과 삶의 균형	[시계열 데이터 없음]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했지만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1.5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2008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스위스의 성취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2007년과 2015년 의원 선거 사이에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2.4% 포인트 하락한 OECD 평균 추세와 다르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와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이후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의 추세와 일치한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스위스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2
위험 받는 조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①	.. 2015
장기 실업률	②	↘ 2010-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①	↗ 2005-2015
흡연율	②	↔ 2007-2012
비만율	①	↘ 2007-2012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본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5
가계 부채	③	↘ 2005-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5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 R&D 투자, 가구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본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①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③	↔ 2007-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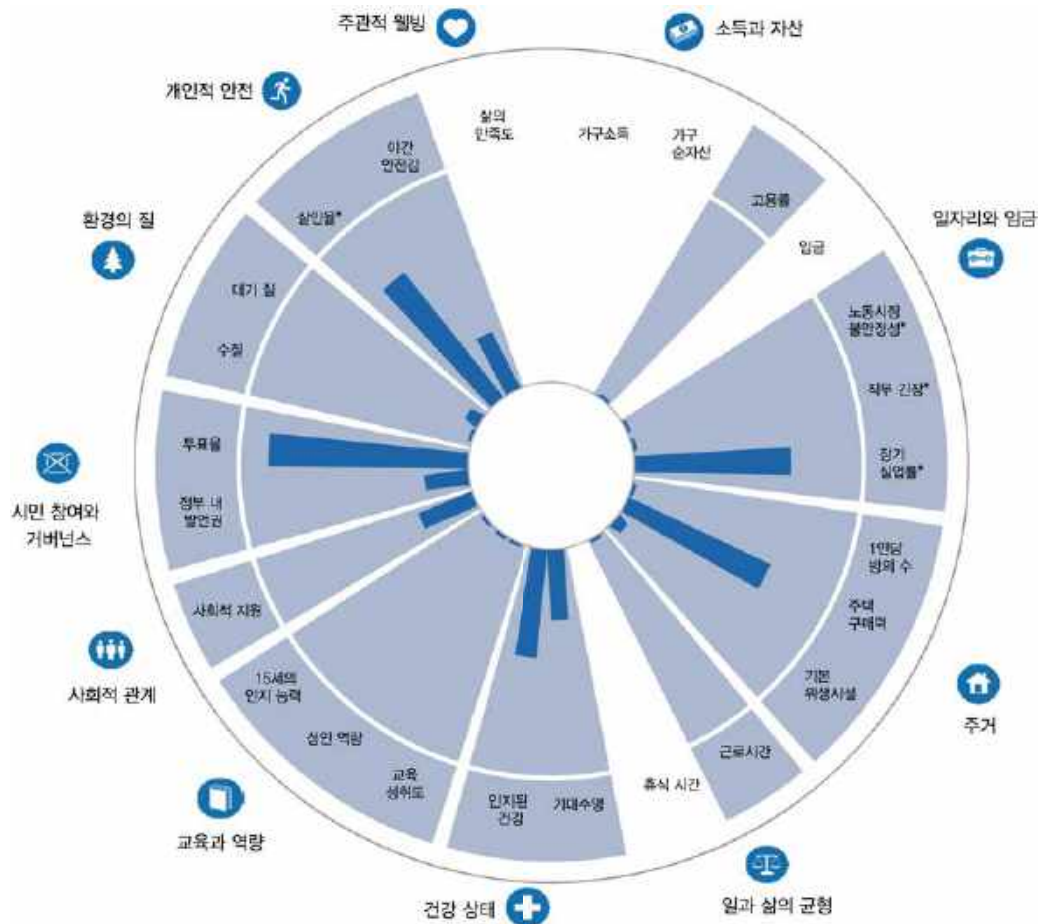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터키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터키는 여러 웰빙 차원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인다. 2016년 **고용률**은 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직무 긴장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34%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장기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 상태, 교육과 역량, 사회적 지원, 환경의 질 측면에서 터키는 OECD 평균 이하이다.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성과는 엇갈린 양상을 보인다. **투표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이는 의무 투표 관행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터키인은 24%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3%보다 낮다. 개인적 안전과 관련하여 **살인율**은 OECD 평균의 절반보다 낮지만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는 61%에 불과해 OECD 평균인 69%보다 낮다.

그림 5.33. 터키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터키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479>

지난 10년간 터키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OECD 평균이 1.2인데 비해 2005년 이후 6.2% 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009년 59.4%로 최고치에 도달했고 아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2016년 장기 실업률은 2.2%로 2005년의 절반 수준이다. 직무 긴장을 경험한 직원의 비율은 2010년 7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는 55%까지 하락했으며 2005년에 비해 8% 포인트 낮아졌다.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주택 구매력은 개선되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6배 이상 하락했지만 여전히 8.2%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 ↗ ↗
일과 삶의 균형	지난 10년 동안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6년 49.7%에서 2016년 33.8%로 크게 하락했다.	↗
건강 상태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기대수명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78년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06년부터 2015년 까지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역시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3%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지원 수준은 증가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은 80%에서 86%로 증가했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이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7년과 2015년 총선 사이에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환경의 질	현재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4% 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과 2013년 사이에 12% 증가했다.	↗ ↘
개인적 안전	지난 10년 동안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10% 포인트 상승하였고, 이는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의 추세와 일치한다.	↔ ↗
주관적 웰빙	터키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2005년 이후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되었다고 보고한 1/3의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터키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4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②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성인 역량	③	.. 2014/2015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13-2015
흡연율	③	↗ 2006-2014
비만율	②	.. 2011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5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10-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10-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②	↘ 2005-2015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 R&D 투자, 가계 부채, 가구순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③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①	↗ 2007-2015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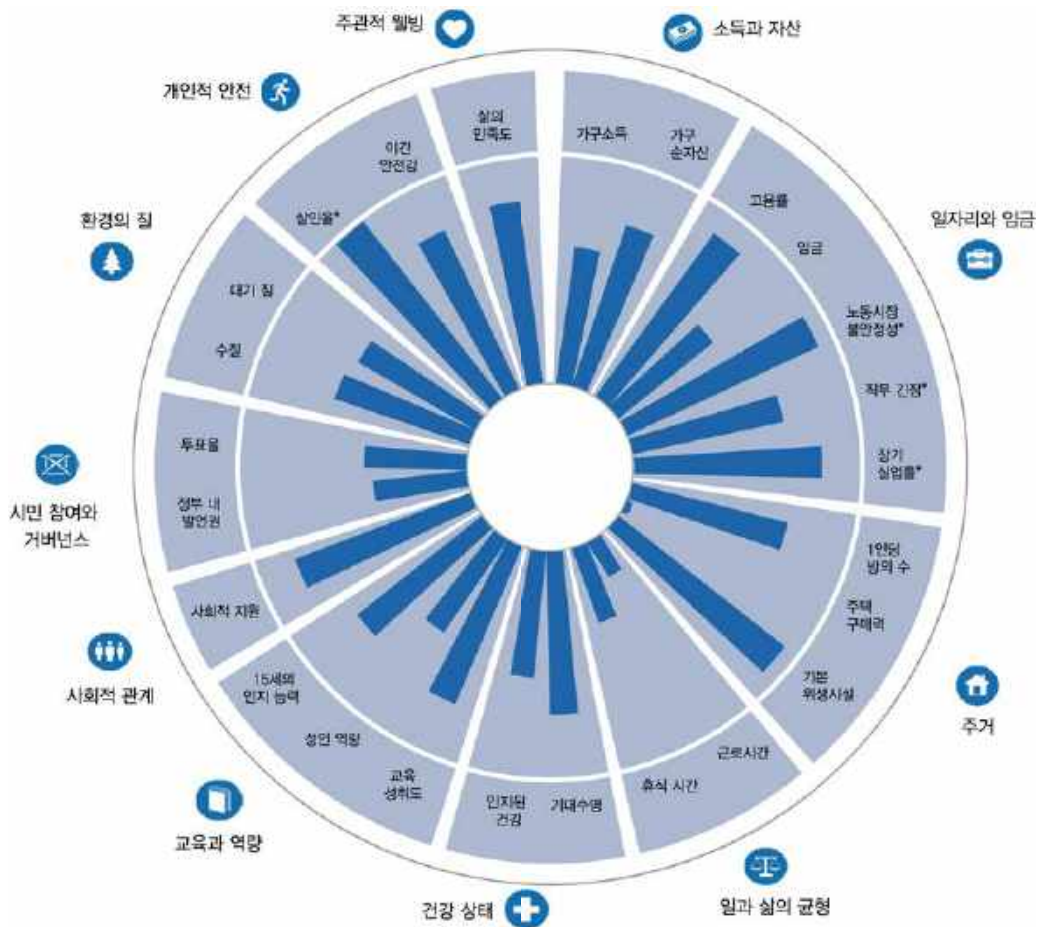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영국의 삶은 어떠한가?

평균적으로 영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다수의 웰빙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2016년 고용률은 74%를 기록하여 OECD 평균인 67%보다 훨씬 높은 반면, 장기 실업률은 1.3%로 OECD 평균인 2%보다 낮다. 그러나 가구 순가처분소득과 평균 임금은 OECD 평균 이하이다. 주택 구매율 역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영국의 평균 가구는 OECD 평균(거의 21%)보다 주거 비용에 지출하는 가처분소득의 비율(거의 24%)이 더 높다. 대조적으로, 개인적 안전은 상대적으로 높고, 살인율은 OECD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사회적 지원 역시 OECD 평균을 초과한다.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영국인은 93%로 OECD 평균인 89%보다 높다.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평균 이상이다.

그림 5.34. 영국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영국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498>

지난 10년간 영국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6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1~2014년에 감소했지만 2005년보다 7% 높았다. 가구순자산은 2011~2013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락한 후 최근 꾸준히 증가했으며, 현재는 2005년보다 2% 높다. 실질 임금은 2005년보다 약간 더 높다. 2010~2014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소폭 상승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금융위기 동안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6%에 도달했다. 이는 2005년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장기 실업률과 직무 긴장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다.	↗ ↗ ↗ ↘ ↘
주거 환경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거의 12.7%이며, 이는 2005년에 보고된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	↔
건강 상태	기대수명은 2014~2015년에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2005년 이후 1.8년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은 지난 10년 동안 인지된 건강 상태가 악화된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며,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거의 5% 포인트 하락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성취율은 1.6%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영국은 지난 10년간 사회적 지원이 하락한 OECD 국가 1/4에 속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97%에서 93%로 하락했다.	↘
시민 참여	투표율은 2005년과 2017년 총선 사이에 7.6% 포인트 상승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07년 이후 7% 포인트 하락했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OECD 평균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62%에서 77%로 개선되었다.	↔ ↗
주관적 웰빙	영국에서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영국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②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②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③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①	.. 2013
위험 받는 종에 대한 데이터 없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②	↗ 2014-2016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②	↗ 2005-2015
흡연율	②	↗ 2005-2014
비만율	③	↘ 2005-2015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②	↘ 2005-2015
R&D 투자	②	↗ 2005-2015
가계 부채	②	↔ 2005-2016
가구순자산	①	↔ 2011-2013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③	↗ 2005-2015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②	↗ 2005-2017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②	..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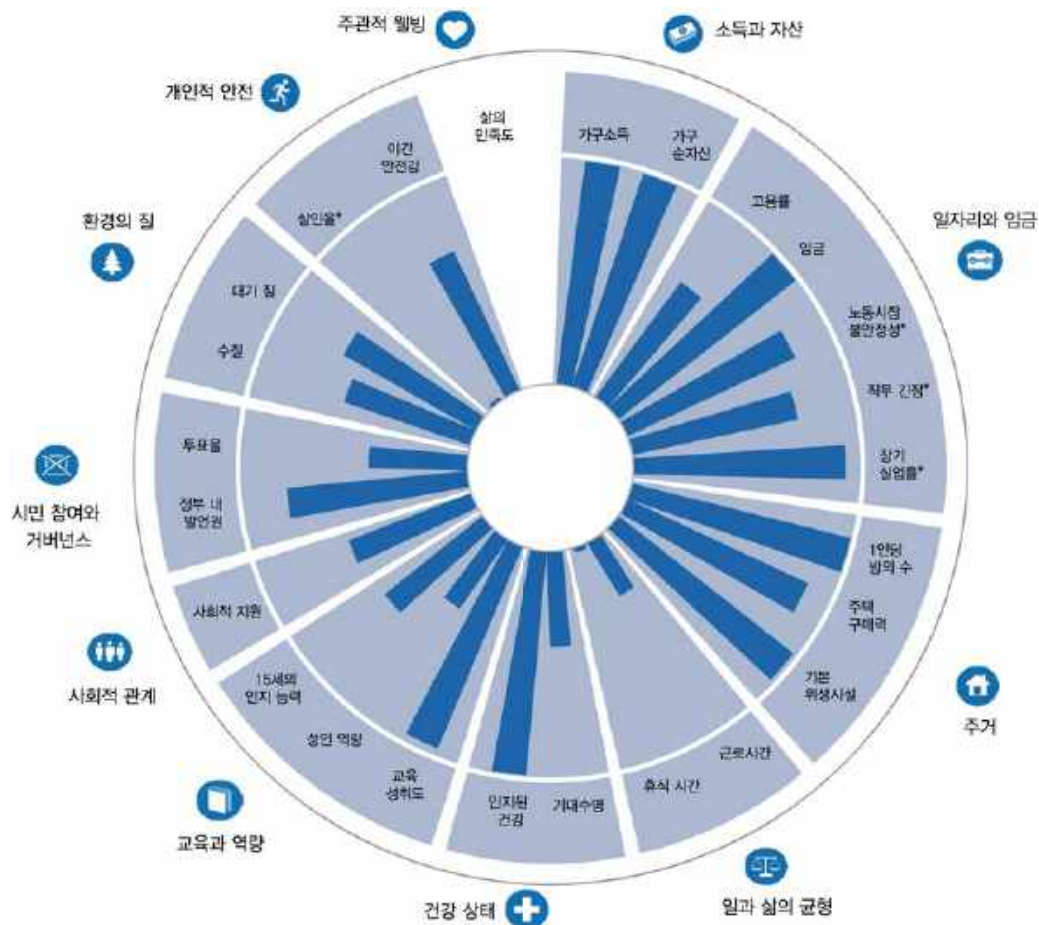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미국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미국은 물질적 생활 여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5년 OECD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 미국인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있으며 장기 실업률은 낮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은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다.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11% 이상이며, 정규 직원은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보다 짧은 휴식 시간을 보고한다. 기대수명은 79년으로 OECD의 하위 1/3에 속한다. 인지된 건강이 양호하다고 보고한 미국인의 비율은 높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보고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거의 90%가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성인과 15세의 역량은 모두 OECD 평균 이하이다. 또한 미국은 OECD에서 살인율이 세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그림 5.35. 미국의 현재 웰빙의 평균 수준: 상대적 강점과 약점



주: 이 차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웰빙에 대한 미국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살인율 등, “*”로 표시)에 대해 긴 막대는 항상 더 나은 결과(높은 웰빙)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막대는 항상 나쁜 결과(낮은 웰빙)를 나타낸다.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원에서 관련 부분이 흰색으로 음영 처리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517>

지난 10년간 미국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8~2009년과 2012~2013년에 두 차례 성장이 지체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점증적으로 11% 증가했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11년 이후 점차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2006년의 72%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불안정성 역시 금융위기 동안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장기 실업률과 직무 긴장은 10년 전에 보고된 수준과 비슷하다.	↘ ↘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2005~2010년 2.3에서 2011~2015년 2.4로 증가했으며, 기본 위생시설 이용은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주택 구매력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었다. 주거 비용에 지출된 소득의 비율은 2005년 19.5%에서 2015년 18.4%로 하락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11.4%로 2005년에 보고된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	↔
건강 상태	미국은 기대수명 측면에서 200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그 격차는 2005년 0.8년에서 2015년 1.3년으로 벌어졌다. 인지된 건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2005년 이후 미국은 OECD에서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이 높은 시작점을 반영하여 지난 10년간 누적 증가율은 3%에 불과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96%에서 90%로 하락했다.	↘
시민 참여	작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2012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2008년의 70.3%보다는 낮았다. 이는 2005년 이후 2.4% 감소한 OECD 평균 추세와 일치한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었고 2013년에 보고된 수준은 2005년 보다 14% 낮았다.	↔ ↗
개인적 안전	살인율은 지난 10년간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에서 가장 높은수준이다. 안전감은 10년 전과 대체로 비슷하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7.3에서 6.9(0~10 척도로 측정)로 점차 하락했다. 이는 OECD 평균 하락 폭의 2배이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미국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③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③	.. 2010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③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05-2016
교육 기대년수	②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③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흡연율	①	↗ 2005-2015
비만율	③	↘ 2006-2014

경제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①	↗ 2005-2015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5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05-2015
지적 재산 자산	①	↗ 2005-2015
가계 부채	②	↗ 2005-2015
가구순자산	①	.. 2010
정부의 금융순자산	③	↘ 2005-2016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6
R&D 투자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투표율	②	↘ 2008-2016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①	.. 2011/2012
타인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없음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 최근 연도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국가별 현황: OECD 파트너 국가

브라질의 삶은 어떠한가?












그림 5.36은 OECD 평균과 ‘How’s Life? 2017’에서 고려한 OECD 파트너 국가(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결과를 모두 참조하여 웰빙에 대한 브라질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브라질은 OECD와 파트너 국가와 비교하여 몇 가지 강점이 있다. 2016년에 정기적으로 **50 시간 이상 일한** 직원은 7%에 불과해 OECD 평균(13%)과 파트너 국가 평균(9%)보다 낮았다. **사회적 지원** 역시 높는데, 2014~2016년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브라질인은 90%로 OECD 평균에 매우 가까운 수준이다. 2014년에 브라질의 **투표율**은 거의 79%였으며, OECD 평균(거의 69%)과 파트너 국가 평균(70%)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기의 질**(연간 PM_{2.5} 대기오염 노출 측정)은 OECD 및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더 나은 수준이다.

또한, 브라질의 평균이 파트너 국가의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결과가 있다. 2016년 브라질의 **고용률**은 64.4%로 파트너 국가 평균(63.9%)보다 높지만 OECD 평균(67%)보다는 낮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는 브라질인의 비율(6.7%)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1%보다 높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1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거의 75년으로, 파트너 국가 평균(72년)보다 높지만 OECD 평균(80년)보다는 낮다. 브라질인의 거의 72%가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반면, 전체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66%에 불과하다.

브라질은 또한 OECD와 다른 파트너 국가에 비해 약한 영역이 몇 가지 있다. 성인의 고등교육 **성취도**(49%)와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은 OECD와 파트너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개인적 안전 역시 낮은 수준인데 **살인율**은 OECD와 파트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브라질인의 단 37%만이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감**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이는 OECD와 파트너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그림 5.36. 브라질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강점	OECD 평균 대비 강점	파트너 국가 대비 강점	약점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상임	OECD 평균 이상이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파트너 국가의 평균 이상이지만 OECD 평균 이하임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투표율  대기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기본 위생시설  기대수명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성취도  15세의 인지 능력  살인율  야간 안전감

주: OECD와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모두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참조). OECD 파트너 국가 범위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중심 웰빙 지표만 고려된다(즉 지표당 누락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536>

지난 10년간 브라질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15년에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 수준에 비해 4% 하락했다.	↘
주거 환경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일과 삶의 균형	지난 10년간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16%에서 2015년 7%로 크게 하락했으며, OECD 평균인 13%보다 낮아졌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거의 3년 증가했지만 OECD 평균보다 거의 6년이 더 짧다.	↗
교육과 역량	지난 10년간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2007년 37%에서 2015년 49%로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보다 1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이 약간 감소한 것과 달리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전체 OECD 국가의 절반 이상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은 지난 10년간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6년에 비해 2014년에 4% 포인트 더 낮았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78%에서 72%로 하락했다. 반면에 2013년 대기오염 수준은 2005년과 비슷했다.	↘ ↔
개인적 안전	살인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하락한 것과 달리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25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브라질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인적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2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07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흡연율	①	↗ 20062014
담수 취수	②	.. 2012	비만율	②	.. 2013
위험 받는 종에 대한 데이터 없음			성인 역량, 장기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사회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1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09	투표율	①	↘ 2006-2014
가계 부채	①	↘ 2010-2014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②	.. 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9-2014	타인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직 내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 R&D 투자, 가구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에 대한 데이터 없음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	변화 없음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	데이터 없음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콜롬비아의 삶은 어떠한가?

그림 5.37은 OECD 평균과 ‘How’s Life? 2017’에서 고려한 OECD 파트너 국가(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결과를 모두 참조하여 웰빙에 대한 콜롬비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콜롬비아는 OECD와 파트너 국가와 비교하여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주택 구매력이 양호하고 대기의 질(초미세먼지 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평균 노출로 측정)은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높다. 또한 고용률은 2016년 67.2%로 OECD 평균(67%)과 파트너 국가 평균(63.9%)보다 높았지만 장기 실업률(0.6% 미만)은 파트너 국가 중 가장 낮았고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콜롬비아인은 거의 89%이며, 이는 OECD 평균(89%) 및 파트너 국가 평균(90%)과 비슷하다.


몇 가지 결과에서 콜롬비아는 파트너 국가의 평균 이상이지만 OECD 평균보다 낮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74년으로 파트너 국가 평균(72년)보다 높지만 OECD 평균(80년)보다 낮다. 지역 수질 만족도 역시 높다. 콜롬비아인의 약 74%가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반면, 모든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66%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45%로 파트너 국가 평균(43%)보다 약간 높지만 OECD 평균(거의 69%)보다는 훨씬 낮다.

콜롬비아는 OECD와 다른 파트너 국가에 비해 일부 약한 영역이 있다. 2016년 정기적으로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8%로 OECD의 13%, 파트너 국가의 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성인의 고등교육 성취도(52%)와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은 OECD와 파트너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전체 OECD와 파트너 국가 중에서 투표율(2014년 44%)은 가장 낮고 살인율은 가장 높다.

그림 5.37. 콜롬비아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강점	OECD 평균 대비 강점	파트너 국가 대비 강점	약점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상임	OECD 평균 이상이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파트너 국가의 평균 이상이지만 OECD 평균 이하임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장기 실업률  주택 구매력  대기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수명  수질  야간 안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교육 성취도  15세의 인지 능력  투표율  살인율

주: OECD와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모두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참조). OECD 파트너 국가 범위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중심 웰빙 지표만 고려된다(즉 지표당 누락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555>

지난 10년간 콜롬비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5~2016년에 6%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장기 실업률도 2005년 3.3%에서 2016년 0.7%로 감소했다.	↗ ↘
주거 환경	주택 가격은 2005년 이후 하락하여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소득의 비율은 1.7% 포인트 감소했다.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OECD 평균보다 낮다.	↗ ↔
일과 삶의 균형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5년 37%에서 2016년 28%로 감소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어명은 2005년 이후 거의 2년 증가했지만 OECD 평균보다는 거의 6년이 더 짧다.	↗
교육과 역량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0.5%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은 OECD 평균이 약간 감소한 것과 달리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지난 10년간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6년 대통령 선거의 40.5%에서 2014년 43.6%로 개선되었다.	↗
환경의 질	최근 수년간 지역 수질 만족도는 약간 떨어졌다. 반면에 대기오염 수준은 2005~2013년에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최근 몇 년 동안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10만 명당 48명에서 2013년 30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주거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도 54%에서 45%로 감소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약간 개선되어 OECD 평균인 6.5(0~10척도로 측정)보다 약간 낮은 6.4를 나타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콜롬비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14-2016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산림 면적	①	↘ 20052014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담수 취수	③	.. 2012	장기 실업률	①	↗ 20052016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흡연율	①	↗ 20052015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비만율	②	↘ 2005-2014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에 대한 데이터 없음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본			사회 자본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②	↗ 20052015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투표율	③	↗ 20062014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15-2016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15	타인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직 내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자산, R&D 투자, 가계 부채, 가구순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코스타리카의 삶은 어떠한가?

그림 5.38은 OECD 평균과 ‘How’s Life? 2017’에서 고려한 OECD 파트너 국가(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결과를 모두 참조하여 웰빙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코스타리카는 OECD와 파트너 국가와 비교하여 몇 가지 강점이 있다. 2016년 장기 실업률은 1.6%로, OECD 평균(2%)과 파트너 국가 평균(4.5%)보다 낮았다.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약 85%로, OECD 평균(79%)보다 높고 파트너 국가 평균(66%)보다 훨씬 높다. 대기의 질(초미세먼지 PM_{2.5}에 의한 대기오염) 역시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높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인구는 약 89%로, 코스타리카의 사회적 지원은 OECD 평균(89%) 및 파트너 국가 평균(90%)과 비슷하다.

또한 코스타리카가 파트너 국가의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결과가 있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79.6년으로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하지만 파트너 국가(71년)보다 훨씬 높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인구의 비율(2.2%)은 낮은 편이다. 살인율은 OECD 평균보다 거의 2배 높지만 파트너 국가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코스타리카인의 비율은 44%로, 파트너 국가 평균인 43%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69%에 달하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OECD와 다른 파트너 국가에 비해 약한 영역이 몇 가지 있다. 2016년 고용률은 OECD 평균(67%)과 파트너 국가 평균(63.9%)보다 낮은 58.7%였으며,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거의 28%로 OECD와 파트너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 성인의 고등교육 성취도(40%)와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은 OECD와 파트너 국가에서 가장 낮다. 투표율(2014년 약 68%)은 OECD 평균인 69%와 파트너 국가 평균인 70%보다 약간 낮다. 주택 구매력 역시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더 낮다.

그림 5.38. 코스타리카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강점	OECD 평균 대비 강점	파트너 국가 대비 강점	약점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상임	OECD 평균 이상이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파트너 국가의 평균 이상이지만 OECD 평균 이하임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실업률  수질  대기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위생시설  기대수명  살인율  야간 안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주택 구매력  근로시간  교육 성취도  15세의 인지 능력  투표율

주: OECD와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모두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참조) OECD 파트너 국가 범위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중심 웰빙 지표만 고려된다(즉 지표당 누락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574>

지난 10년간 코스타리카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시계열 데이터 없음]	..
일자리와 임금	OECD 평균 추세와 달리 코스타리카에서 지난 10년간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장기 실업률도 2012년(가장 빠른 연도) 1.0%에서 2016년 1.6%로 악화되었다.	↘ ↘
주거 환경	2005년 이후 1인당 방의 수는 1.1에서 1.2로 완만하게 개선되었다. 주택 구매력도 최근에 약간 개선되어 주거 비용에 지출한 소득 비율은 2012년 20.1%에서 2014년 19.7%로 하락했다. 기본 위생시설은 보편화되었고 2011~2015년에 기본 위생시설 없이 사는 사람의 비율은 2005~2010년보다 1/3 이상 낮아졌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10년 이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10년 32.8%에서 2016년 27.6%로 크게 하락했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1.5년 증가했다.	↗
교육과 역량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15년 39%로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이 약간 감소한 것과 달리 200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지난 10년 동안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6년 대통령 선거의 65.2%에서 2014년 68.2%로 개선되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2005~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 이후 23% 증가했으며 2013년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 ↘
개인적 안전	폭행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이후 약간 상승했으며 현재 1% 포인트 더 높다.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보고하는 인구의 비율은 46%까지 하락하여 10년 전보다 4% 포인트 낮다.	↘ ↘
주관적 웰빙	코스타리카에서 삶의 만족도는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코스타리카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인적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2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05-2016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①	↘ 2005-2013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장기 실업률	②	↘ 2012-2016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담수 취수	②	.. 2014	흡연율	①	↗ 2005-2015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비만율	③	.. 2014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경제 자원			사회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①	↘ 2005-2015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R&D 투자	③	.. 2013	투표율	②	↗ 2006-2014
생산된 고정 자산,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지적 재산 자산, 가계 부채, 가구순자산, 정부의 금융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에 대한 데이터 없음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③	.. 2014
			타인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조직 내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리투아니아의 삶은 어떠한가?

그림 5.39는 OECD 평균과 ‘How’s Life? 2017’에서 고려한 OECD 파트너 국가(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결과를 모두 참조하여 웰빙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리투아니아는 OECD와 파트너 국가와 비교하여 몇 가지 강점이 있다. 고용률은 2016년 69%로, OECD 평균(67%)과 파트너 국가 평균(64%)보다 높았다. 교육 성취도 역시 매우 높아 25~64세 성인의 92% 이상이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았다.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1% 미만으로 OECD와 파트너 국가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기의 질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성과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는 낮다.

또한 리투아니아가 파트너 국가의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결과가 있다. 2016년 장기 실업률은 거의 2.7%로 OECD 평균인 2%보다 높았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4.5%)보다는 낮았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리투아니아인의 비율은 12.4%로 파트너 국가 평균(13.1%)보다 낮지만 OECD 평균(2.1%)보다 훨씬 높다. 출생 시 기대 여명은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3년 더 길지만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5년이나 짧다.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과 지역 수질 만족도는 OECD 파트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51%로, 파트너 국가의 평균인 43%보다 높지만 거의 69%에 이르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리투아니아의 살인율은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높다.

리투아니아는 또한 OECD와 다른 파트너 국가에 비해 약한 영역이 몇 가지 있다. 사회적 지원은 OECD와 파트너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투표율(2016년 거의 51%)은 OECD 평균(69%)과 파트너 국가 평균(70%)보다 낮다. 주택 구매력 역시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낮다.

그림 5.39. 리투아니아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강점	OECD 평균 대비 강점	파트너 국가 대비 강점	약점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상임	OECD 평균 이상이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파트너 국가의 평균 이상이지만 OECD 평균 이하임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근로시간  교육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실업률  기본 위생시설  기대수명  15세의 인지 능력  수질  살인율  야간 안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구매력  사회적 지원  투표율

주: OECD와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모두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참조) OECD 파트너 국가 범위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중심 웰빙 지표만 고려된다(즉 지표당 누락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593>

지난 10년간 리투아니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지난 10년간 점증적으로 32% 증가했지만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5년 이후 6.5% 포인트 상승했고, OECD 평균은 1.2% 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장기 실업률은 2.7%로 2005년 수준(4.4%)보다 약간 낮았지만 직무 긴장의 영향을 받는 직원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13% 포인트 개선되었다.	↗ ↗ ↗
주거 환경	주택 구매력은 2005~2012년에 악화되었고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2005년 이후 1/3 이하로 줄었다.	↘ ↗
일과 삶의 균형	현재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0.6%로 10년 전(1.4%)에 비해 약간 낮다. 이 비율은 2005~2013년에 현저히 감소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승했다.	↗
건강 상태	리투아니아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3년 이상 증가했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교육과 역량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고등교육 성취도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14~2016년에 리투아니아의 성취율은 1.3% 포인트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이 약간 감소한 것과 달리 2005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시민 참여	지난 10년간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8년 의원 선거의 48.6%에서 2016년 50.6%로 개선되었다.	↗
환경의 질	현재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리투아니아인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19% 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살인율은 10만 명당 9.4명에서 4.1명으로 떨어졌으며,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19%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리투아니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①	↔ 2005-2015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4-2016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교육 기대년수	①	.. 2015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15세의 인지 능력	③	.. 2015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②	.. 장기 연평균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담수 취수	①	.. 2015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흡연율	②	↗ 2005-2014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비만율	②	↔ 2005-2014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경제 자본			사회 자본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05-2014	타인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경찰에 대한 신뢰도	②	.. 2013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②	↗ 2005-2016
지적 재산 자산	③	↗ 2005-2014	투표율	③	↗ 2008-2016
R&D 투자	③	↗ 2005-2013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①	.. 2014
가계 부채	①	↘ 2005-2015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2
정부의 금융순자산	②	↘ 2005-2015			
은행 부문 레버리지	①	↔ 2005-2015			
가구순자산에 대한 데이터 없음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①	성적이 가장 높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	변화 없음
②	성적이 중간 수준인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	데이터 없음
③	성적이 가장 낮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러시아의 삶은 어떠한가?

그림 5.40은 OECD 평균과 ‘How’s Life? 2017’에서 고려한 OECD 파트너 국가(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결과를 모두 참조하여 웰빙에 대한 러시아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OECD와 파트너 국가와 비교하여 몇 가지 강점이 있다. 2016년 고용률은 70%로 OECD 파트너 국가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67%)보다 높았다. 성인의 고등교육 성취도(거의 95%)와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은 OECD 파트너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이상이다. 장기 실업률은 여러 파트너 국가에 비해 낮고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사회적 지원은 OECD 및 파트너 국가 평균과 비슷하다.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러시아인은 90%이다.

러시아는 한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의 이하이다. 즉 주택 구매력은 평균적으로 OECD보다 낮지만 OECD 파트너 국가 중에서는 나쁜 편이다.


또한 러시아가 파트너 국가의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영역이 있다. 살인율은 OECD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OECD 평균보다 높다. 거주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러시아인은 52%로, 파트너 국가 평균(43%) 이상이지만 OECD 평균(거의 69%)보다 낮다.

러시아는 또한 OECD와 다른 파트너 국가에 비해 약한 영역이 몇 가지 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보다 높다. 기대수명은 파트너 국가 평균에 가깝지만 OECD 평균보다는 9년이나 짧다. 투표율(2012년 65%)은 OECD 평균(69%)과 파트너 국가 평균(70%)보다 낮다. 마지막으로 대기의 질과 지역 수질 만족도는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에 못 미친다.

그림 5.40. 러시아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강점	OECD 평균 대비 강점	파트너 국가 대비 강점	약점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상임	OECD 평균 이상이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파트너 국가의 평균 이상이지만 OECD 평균 이하임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장기 실업률  근로시간  교육 성취도  15세의 인지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구매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인율  야간 안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위생시설  기대수명  투표율  수질  대기의 질

주: OECD와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모두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참조) OECD 파트너 국가 범위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중심 웰빙 지표만 고려된다(즉 지표당 누락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612>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11~2014년에 11%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OECD 평균이 1.2% 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2005년 이후 6% 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 장기 실업률은 1.6%로, 2005년의 2.8%에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직무 긴장은 지난 10년 동안 8% 포인트 이상 개선되었다.	↗ ↗ ↗
주거 환경	1인당 평균 방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기본 위생시설은 개선되었으며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18.8%에서 14.8%로 감소했다. 주택 가격은 2011년 이후 하락하여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 소득의 평균 비율은 1% 포인트 감소했다.	↔ ↗ ↗
일과 삶의 균형	2016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0.2% 미만으로 2005년에 보고된 수준과 매우 비슷하다.	↔
건강 상태	최근 데이터가 중단되어 출생 시 기대여명의 10년 변화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05~2013년에 기대수명은 5년 증가했다.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역시 2012~2016년에 6% 포인트 증가했다.	↗ ↗
교육과 역량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4%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의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은 86%에서 90%로 증가했다.	↗
시민 참여	2012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65%로, 2008년(70%) 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OECD 평균보다 강한 하락세를 보였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현재 24% 포인트 높다. 그러나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
개인적 안전	살인율은 2005년 10만 명당 25명에서 2011년(최신 연도) 11.3명으로 하락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25% 포인트 증가했다.	↗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5.1(0~10 척도)에서 6.0으로 증가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러시아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③	↘ 2005-2015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②	↔ 2005-2013
산림 면적	①	↔ 2005-2014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①	.. 장기 연평균
담수 취수	②	.. 2016
위험 받는 조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포유류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위험 받는 식물	①	.. 최신의 가용자료

인적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①	↗ 2010-2015
교육 기대년수	③	.. 2015
15세의 인지 능력	②	.. 2015
성인 역량	②	.. 2011/2012
장기 실업률	②	↗ 2005-2016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3
흡연율	③	↗ 2009-2013
비만율	②	.. 2016

경제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생산된 고정 자산	③	↗ 2012-2016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6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①	↗ 2011-2015
R&D 투자	③	↔ 2013-2016
가계 부채	①	↔ 2011-2015
정부의 금융순자산	①	↗ 2011-2015
지적 재산 자산, 가구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에 대한 데이터 없음		

사회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투표율	②	↘ 2008-2012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③	.. 2012
타인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데이터 없음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삶은 어떠한가?

그림 5.41은 OECD 평균과 ‘How’s Life? 2017’에서 고려한 OECD 파트너 국가(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결과를 모두 참조하여 웰빙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보여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OECD와 파트너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이 몇 가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택 구매력**은 OECD 파트너 국가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 높다. **투표율**은 2014년 거의 74%를 기록하여 OECD 평균보다 높고, 대부분의 파트너 국가보다도 높다.

사회적 지원의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은 88%로, OECD(89%)와 파트너 국가(90%)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파트너 국가의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결과가 있다. **살인율**은 파트너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또한 OECD와 다른 파트너 국가에 비해 약한 영역이 몇 가지 있다. **고용률**, 출생 시 기대여명, 지역 수질 만족도, **밤에 혼자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은 OECD와 파트너 국가 중 가장 낮다. **장기 실업률**은 OECD와 파트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37%로 OECD와 파트너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평균 **대기의 질**(초미세먼지 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로 측정)은 매우 열악하다.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은 43%이며, 이는 OECD와 파트너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림 5.4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재 웰빙 강점과 약점

강점	OECD 평균 대비 강점	파트너 국가 대비 강점	약점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상임	OECD 평균 이상이지만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파트너 국가의 평균 이상이지만 OECD 평균 이하임	OECD와 파트너 국가 평균 이하임
 주택 구매력  투표율		 살인율	 고용률  장기 실업률  기본 위생시설  근로시간  기대수명  교육 성취도  수질  대기의 질  야간 안전감

주: OECD와 파트너 국가의 평균은 모두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부록 참조) OECD 파트너 국가 범위가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중심 웰빙 지표만 고려된다(즉 지표당 누락된 국가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631>

지난 10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균 웰빙 변화

차 원	설 명	변화
소득과 자산	2014년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2008년(이 기간 이전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 없음)에 비해 거의 700달러가 더 높았다. OECD 국가의 경우 10년간 비교적 변화 정도가 작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누적 증가율이 약 9%에 달한다.	↔
일자리와 임금	고용률은 200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현재는 43% 수준이다. 장기 실업률은 0.4% 포인트 증가했지만 직무 긴장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었다.	↔ ↘ ↗
주거 환경	주택 가격은 2005년 이후 하락하여 주거 비용에 지출한 가구 가처분소득 비율은 1.9% 포인트 감소했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41.3%에서 38%로 하락했다.	↗ ↗
일과 삶의 균형	지난 10년 동안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2008년 거의 24%에서 2016년 19%로 크게 떨어졌다.	↗
건강 상태	출생 시 기대여명은 2005년 이후 거의 6년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
교육과 역량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3%로 증가했다.	↗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의 경우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이 84%에서 88%로 증가했다.	↗
시민 참여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은 2009~2014년 총선 사이에 4% 포인트 하락했다.	↘
환경의 질	지역 수질 만족도는 지난 10년간 약간 하락했다. 연간 PM _{2.5} 대기오염 노출은 2005년 이후 7% 증가했으며, 2013년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 ↘
개인적 안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살인율은 10년 동안 10만 명당 12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감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 ↔
주관적 웰빙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05년 이후 삶의 만족도는 평균 5.1에서 4.8(0~10 척도로 측정)로 약간 하락했다.	↘

주: 모든 차원의 각 지표에 대해 ↗는 개선, ↔는 거의 또는 전혀 변화 없음, ↘는 악화를 나타낸다. 이는 시작 연도(대부분의 경우 2005년)와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보통 2015년 또는 2016년)를 비교한 것이다. 세 번째 열에 표시된 화살표의 순서는 두 번째 열에서 언급한 지표의 순서와 일치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위험: 설명 지표

자연 자원			인적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①	↘ 2001-2011	청년의 교육 성취도	③	↗ 2008-2015
PM _{2.5} 대기오염 노출	③	↘ 2005-2013	장기 실업률	③	↘ 2005-2016
산림 면적	②	↔ 2005-2014	출생 시 기대여명	③	↗ 2005-2015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③	.. 장기 연평균	흡연율	②	↗ 2005-2015
온실가스 배출량, 담수 취수, 위협 받는 종에 대한 데이터 없음			비만율	③	↗ 2008-2014
			15세의 인지 능력, 교육 기대년수, 성인 역량에 대한 데이터 없음		

경제 자원			사회 자원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지표	동등한 OECD 계층	변화
총 고정 자본 형성	③	↘ 2005-2014	정부에 대한 신뢰도	①	↘ 2005-2016
생산된 고정 자산,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지적 재산 자산, R&D 투자, 가계 부채, 가구순자산, 정부의 금융순자산, 은행 부문 레버리지에 대한 데이터 없음			투표율	②	↘ 2009-2014
			타인에 대한 신뢰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조직 내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 없음		

↗	시간 경과에 따른 개선
↘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	변화 없음
..	데이터 없음

①	성과가 가장 높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②	성과가 중간 수준인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③	성과가 가장 낮은 OECD 계층에 해당, 최근 연도

주

1. 정규화는 지표의 원래 값을 0(최악의 결과)과 100(최고의 결과)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로 변환하는 표준 공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변환할 값} - \text{최소 값}}{\text{최대 값} - \text{최고 값}}$$
 지표가 웰빙의 부정적인 요소(예: 실업)를 측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된다.

$$1 - \left[\frac{\text{변환할 값} - \text{최소 값}}{\text{최고 값} - \text{최소 값}} \right]$$
2. 이 차트에 사용된 시각화에서 제공한 직관은 특정 지표 세트에 이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소-최대 척도 절차는 세트의 상단과 하단을 세 번째로 높은 값과 낮은 값으로 고정시킨다.
3. 이는 최악의 결과(1)부터 최고의 결과(35)까지 국가의 순위를 매겨서 결정되며, 그런 다음 표본 내 OECD 국가의 총 수로 해당 순위를 나눈다. 결과 값(0~1 범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0부터 1/3까지의 값을 갖는 국가는 하위 계층에 배정되고, 1/3보다 크고 2/3 미만의 값을 갖는 국가는 중간 계층에 배정되며, 2/3보다 크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국가는 상위 계층에 배정된다.
4. 하나의 십분위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분포의 중간을 고려한다. 75번째 백분위수에서 25번째 백분위수를 뺀 다음 결과 값을 50으로 나누고(1 백분위수 변화를 주기 위해) 10을 곱한다. 가구순자산, 임금, 장기 실업률, 투표율, 정부의 금융순자산,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지적 재산 자산의 경우 선택된 임계점은 십분위수 변화의 절반보다 낮다. 이 지표에 대한 OECD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십분위수의 절반 이하의 변화는 여전히 상당한 크기일 수 있다.

참고문헌

- Cazes, S., A. Hijzen and A. Saint-Martin (2015),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4,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5jrp02kpw1mr-en>
- Helliwell, J., R. Layard and J. Sachs (2017), World Happiness Report 2017,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http://worldhappiness.report/ed/2017/>
- OECD (2017a),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 OECD (2017b),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 OECD (2015a),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en
- OECD (2015b), “Resources for future well-being”, in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7-en
- OECD (2015c), “The value of giving: Volunteering and well-being”, in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5-9-en
- OECD (2013), “Measuring the sustainability of wellbeing over time”, in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ow_life-2013-10-en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참고 데이터베이스:

-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652-en>
-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dx.doi.org/10.1787/7d7b803c-en>
-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 OECD Job quality database,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 Eurostat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 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web application for European countries, (<https://www.h2.scb.se/tus/tus/>)
- Eurostat Time Use database,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546-en>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2017), www.idea.int
- OECD (2017), “Green growth indicators”,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665-en>
-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env-data-en>
- OECD Structural Analysis (STAN) database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5
- OECD Financial dashboard database,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부록 5.A.

국가별 현황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평가

각국의 현황을 작성할 때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는 2005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과 2015년(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사이의 단순 포인트 변화로 평가되었다. 현재 웰빙 및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과 관련된 지표의 하위 집합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상향 화살표 ↗는 2005년에 비해 개선된 것을 나타내고 하향 화살표 ↘는 2005년에 비해 악화된 상황을 가리키며 ↔는 2005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화살표의 방향은 아래 표 5.6과 5.7에 설명된 임계점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변화가 표시된 임계점보다 크거나 동일한 경우 그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화살표가 적용된다.

이러한 임계점은 절대 단위 값과 상대적인 비율 변화 측면에서 OECD 국가에서 관찰된 총 변화 크기(둘 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OECD 국가에서 값의 단변량 분포(모든 임계점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⁴ 최신 연도의 순위에서 적어도 십분위수 절반의 변화와 동일하다), 추정값의 오차 범위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표 5.6. 현재 웰빙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임계점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임계점	OECD 평균 변화
소득과 자산				
가구소득	가구 순가처분소득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시계열)	+/- 1,000	+2,146
가구순자산	가구순자산	현재 PPP일 때 가구당 달러	+/- 9,000	n/a
일자리와 임금				
고용	고용률	15~64세 인구의 고용된 비율	+/- 1.0	+ 1.2
임금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소득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PPP일 때 달러	+/- 1,000	+ 2,975
노동시장 정성	불안 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이전 임금의 비율로서 실업과 관련한 평균 예상 금전적 손실	+/- 0.3	+ 1.2
직무 긴장	직무 긴장	직무 자원의 수를 초과하는 많은 직무 요구를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	+/- 3.0	-4.0
장기 실업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 0.2	+ 0.3

표 5.6. 현재 웰빙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임계점(계속)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임계점	OECD 평균 변화
주거				
1인당 방의 수	1인당 방의 수	1인당 평균 방의 수(욕실, 화장실, 주방, 식기실/다용도실, 차고 제외)	+/- 0.1	+ 0.1
주택 구매력	주택에 대한 가구 지출	주택 임대료와 유지관리에 소비된 가구 총가처분소득의 비율	+/- 0.4	- 0.4
기본 위생시설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	+/- 0.4	- 0.8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 0.6	- 0.9
건강 상태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여명	신생아의 기대여명	+/- 0.5	+ 1.7
인지된 건강	인지된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 3.5	+ 0.6
교육과 역량				
교육 성취도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교육 성취도	최소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의 비율	+/- 1.0*	n/a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 3.0	-3.1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율	투표율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	+/- 1.0	- 2.4
환경의 질				
수질	수질 만족도	전체 인구 중 만족한 사람의 비율	+/- 3.0	+ 0.9
대기의 질	초미세먼지(PM 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인구 노출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PM _{2.5} 농도, µg/m ³ , 3년 연속 평균	+/- 1.0	- 0.8
개인적 안전				
살인율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비율	+/- 0.3	+ 0.2
야간 안전감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 3.0	+ 2.6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0(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함)까지 11점 척도의 평균값	95% 신뢰구간 기준‡	- 0.2

* 단기(5년 미만) 시계열에는 0.5의 임계점이 적용된다.

† 시간 경과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평가의 경우 긴 시계열을 제공하기 때문에 꺾임세계여론조사 데이터가 사용된다.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척도가 사용되며, 측정 단위는 0~10 척도의 평균 점수이다.

‡ 95% 신뢰구간은 3년 동안 계산된다(2005~2007년 및 2014~2016년) 이는 세계행복보고서 2007에서 제공한다(Helliwell, Layard 및 Sachs, 2017). 신뢰구간의 위 또는 아래의 최소 0.1 척도 포인트인 곳에서 변화를 고려했다.

표 5.7.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임계점

라벨	지표	측정 단위	임계점	OECD 평균 변화
자연 자본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CO ₂ 당량 톤	+/- 0.5	- 2.0
국내 소비로 인한 CO ₂ 배출량	국내 최종 수요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톤	+/- 0.5	-1.0
PM _{2.5} 대기오염 노출	초미세먼지(PM 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에 인구 노출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PM _{2.5} 농도, µg/m ³ , 3년 연속 평균	+/- 1.0	- 0.8
산림 면적	산림 면적	인구 1,000명당 산림 면적(km ²)	+/- 0.8	- 0.5
인적 자본				
청년의 교육 성취도	고등교육 성취도, 25~34세	최소 고등교육을 받은 25~34세의 비율	+/- 1.0*	..
장기 실업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 0.2	+ 0.3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여명	신생아의 기대여명	+/- 0.5	1.7
흡연 유병률	매일 흡연을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	+/- 1	- 4.5
비만율	비만율	비만인 15세 이상인구의 비율	+/- 1	+2.3
경제 자본				
생산된 고정 자산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달러	+/- 4,500	+ 13,250
총 고정 자본 형성	총 고정 자본 형성	연간 성장률	+/- 1	- 2.1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현재 PPP일 때 1인당 US달러	+/- 1,000	+ 3,285
지적 재산 자산	지적 재산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달러	+/- 200	+ 1,320
R&D 투자	R&D 투자	GDP의 비율	+/- 0.2	+ 0.3
가계 부채	가계 부채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비율	+/- 10	- 6.0
정부의 금융순자산	정부의 조정금융순자산	GDP의 비율	+/- 3	- 30.0
은행 부문 레버리지	은행 부문 레버리지	선택된 자산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 3	+ 1.2
사회 자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인구의 비율	+/- 3	- 4.0
투표율	투표율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	+/- 1.0	- 2.4

* 단기(5년 미만) 시계열에는 0.5의 임계점이 적용된다.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

독자를 위한 가이드

이 온라인 전용 부록은 'How's Life? 2017'에 소개된 현재 웰빙의 각 중심 지표에 대한 정의, 수준 (가능한 경우) 2005년 이후 시계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 제시된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지표들은 제1장의 분석을 위한 기초와 제5장의 국가별 현황을 제공한다.

이 부록에서 시계열의 중단으로 인해 이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비교 불가능한 데이터를 회색으로 강조 표시한다. 누락된 데이터는 “..”로 표시된다. 차트와 표에는 ISO3 코드가 사용되며, 전체 OECD 국가에 대해 OECD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평균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OECD 라벨 옆에 명시된다. 모든 지표는 2017년 7월 24-31일의 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 이 온라인 전용 부록의 한글 번역본은 'how's life 2017 한글판'의 pdf 파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ow's life 2017 한글판'의 pdf 파일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홈페이지(oecdkorea.org)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소득과 자산: 가구소득	350
정의	350
추가 참고자료:	351
소득과 자산: 가구순자산	352
정의	352
추가 참고자료:	353
일자리와 임금: 고용	354
정의	354
추가 참고자료:	355
일자리와 임금: 임금	356
정의	356
추가 참고자료:	358
일자리와 임금: 노동시장 불안정성	359
정의	359
추가 참고자료:	361
일자리와 임금: 직무 긴장	362
정의	362
추가 참고자료:	364
일자리와 임금: 장기 실업	365
정의	365
추가 참고자료:	366
주거: 1인당 방의 수	367
정의	367
추가 참고자료:	368
주거: 주택 구매력	370
정의	370
추가 참고자료:	371
주거: 기본 위생시설	372
정의	372
추가 참고자료:	373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375
정의	375
일과 삶의 균형: 휴식 시간	378
정의	378
건강 상태: 기대수명	380
정의	380
추가 참고자료:	381
건강 상태: 인지된 건강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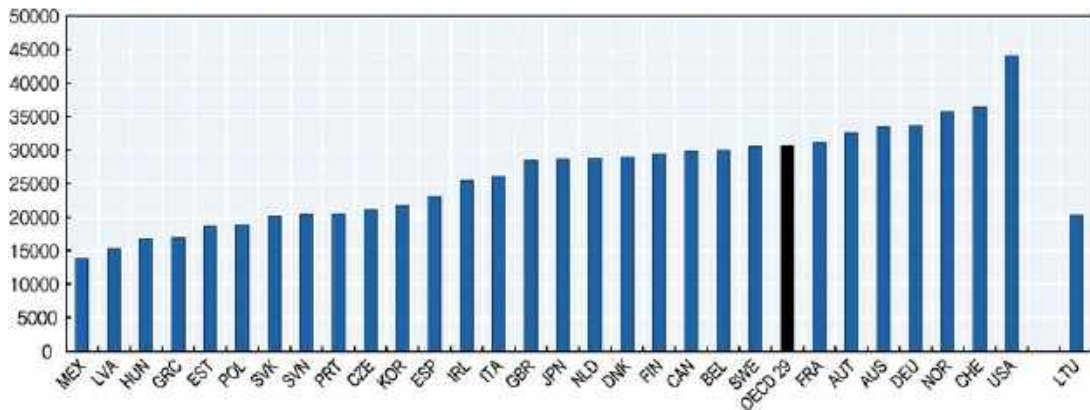
정의	382
추가 참고자료:	384
교육과 역량: 교육 성취도	385
정의	385
추가 참고자료:	386
교육과 역량: 15세의 인지 능력	387
정의	387
추가 참고자료:	388
교육과 역량: 성인 역량	389
정의	389
추가 참고자료:	390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391
정의	391
추가 참고자료:	392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정부 내 발언권	393
정의	393
추가 참고자료:	394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율	395
정의	395
환경의 질: 수질	398
정의	398
환경의 질: 대기의 질	400
정의	400
추가 참고자료:	402
개인적 안전: 살인	403
정의	403
추가 참고자료:	404
개인적 안전: 야간 안전감	406
정의	406
추가 참고자료:	407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408
현재 수준	408
정의	408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411
정의	411
추가 참고자료:	412

소득과 자산: 가구소득

정의

이 지표는 사람들의 총 소득(임금, 자영업 소득 및 자본 소득, 다른 부문에서 받은 현금 이전(cash transfer))과 가구가 정부에서 받은 사회적 이전 현물(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합한 다음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세금과 가구에서 지불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뺀 값이다. 여기에 사용된 지표는 OECD 국민계정에서 가져온 것이며, 가구에서 소비한 자본재의 감가상각도 고려한다. 가구 순가처분소득은 1인당 미 달러(USD)로 표시되며, 실제 개인 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하여 조정된다. 시계열은 2010년 PPP일 때 미 달러로 표현되며, 최신 연도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PPP일 때 미 달러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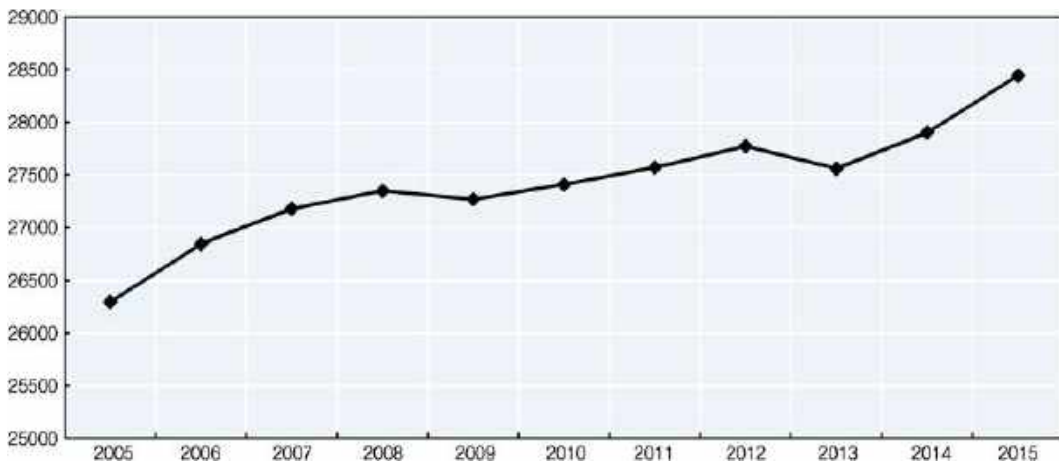
그림 A.1. 가구 순가처분소득
현재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2015년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161>

그림 A.2. 가구 순가처분소득, OECD 평균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OECD 28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180>

표 A.1. 가구 순가처분소득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2015년 현재 PPPs	
호주	AUS	25389	26198	27353	28561	28525	29390	29938	29604	30008	30110	30229	..	AUS	33417
오스트리아	AUT	28457	29136	29716	29946	29872	29519	29418	29646	29070	28895	28762	..	AUT	32544
벨기에	BEL	26292	26647	26968	27346	27626	27228	26869	26728	26577	26636	26696	..	BEL	29968
캐나다	CAN	24093	25112	25725	26426	26661	27260	27413	27686	28034	27985	28362	28952	CAN	29850
칠레	CHL	CHL	..
체코	CZE	16655	17313	17698	17872	18182	18158	17961	17734	17676	18142	18600	..	CZE	21103
덴마크	DNK	24077	24578	24428	24375	24900	25623	25742	25626	25813	26074	26540	26648	DNK	28950
에스토니아	EST	12217	13487	14956	15759	14558	14122	14599	15003	15134	16085	16795	..	EST	18665
핀란드	FIN	24246	24697	25329	25775	25918	26406	26548	26415	26377	26068	26237	..	FIN	29374
프랑스	FRA	26605	26962	27551	27494	27833	28095	28070	27842	27713	27839	28072	..	FRA	31137
독일	DEU	27941	28274	28451	28833	28908	29170	29475	29687	29774	30066	30564	..	DEU	33652
그리스	GRC	21284	22365	23012	23143	23228	20762	18597	16873	15699	15817	15445	..	GRC	17002
헝가리	HUN	15342	15636	15037	14833	14311	13971	14501	14128	14452	14963	15282	..	HUN	16821
아이슬란드	ISL	23088	24096	26514	26521	22792	20358	21118	21413	21740	22395	ISL	..
아일랜드	IRL	22937	23283	24030	24706	24599	24111	23182	23319	22755	23245	23967	..	IRL	25439
이스라엘	ISR	ISR	..
이탈리아	ITA	27234	27405	27570	27064	26409	25926	25681	24306	24019	24052	24245	24607	ITA	26063
일본	JPN	23787	23827	24093	23900	24246	24753	24899	25251	25338	25070	25368	..	JPN	28641
한국	KOR	16152	16690	17120	17283	17508	18053	18350	18605	19257	19878	KOR	21723
라트비아	LVA	11001	12500	13628	14310	12694	12121	11756	12175	12837	13186	14003	..	LVA	15269
룩셈부르크	LUX	LUX	..
멕시코	MEX	11391	11969	12100	12181	11186	11711	11949	12116	12387	12395	12694	..	MEX	13891
네덜란드	NLD	25090	26104	26481	26699	27009	26864	26950	26642	26240	26447	26606	26978	NLD	28783
뉴질랜드	NZL	20192	20800	21907	21388	21834	22146	22723	22841	23119	22919	NZL	..
노르웨이	NOR	28741	27181	28302	28800	29567	29867	30430	31153	31719	32114	33132	..	NOR	35739
폴란드	POL	12649	13264	13903	14508	15383	15584	15634	15780	16039	16500	17049	..	POL	18906
포르투갈	PRT	19279	19216	19413	19596	19918	20049	18960	18123	18093	17964	18391	18814	PRT	20519
슬로바키아	SVK	14014	14556	16037	16881	17080	17154	16826	16731	16791	17584	18294	..	SVK	20265
슬로베니아	SVN	17983	18456	19108	19627	19295	19155	19157	18367	18043	18281	18598	..	SVN	20505
스페인	ESP	21624	21730	21570	21737	22296	21564	21216	20041	19764	19928	20367	..	ESP	23129
스웨덴	SWE	24455	25174	25989	26360	26721	26853	27474	28030	28186	28566	28962	29355	SWE	30553
스위스	CHE	30342	31102	31924	31772	32203	32211	32535	33449	34098	34140	33631	..	CHE	36378
터키	TUR	TUR	..
영국	GBR	25099	25249	25632	25630	26161	26227	25598	25970	25792	25986	26668	26925	GBR	28408
미국	USA	36883	37847	38172	38458	38090	38186	38768	39661	38858	39838	40870	..	USA	44049
OECD	OECD 28	26297	26844	27176	27347	27266	27408	27568	27772	27559	27900	28443	..	OECD 29	30620
리투아니아	LTU	13838	15333	15754	17035	15465	15664	16161	16446	17260	17618	18237	..	LTU	20381
러시아 연방	RUS	16088	16842	17499	17797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7499	7458	7717	7961	8033	8158	8176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는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2015년 수치는 현재 값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2010년 PPP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650>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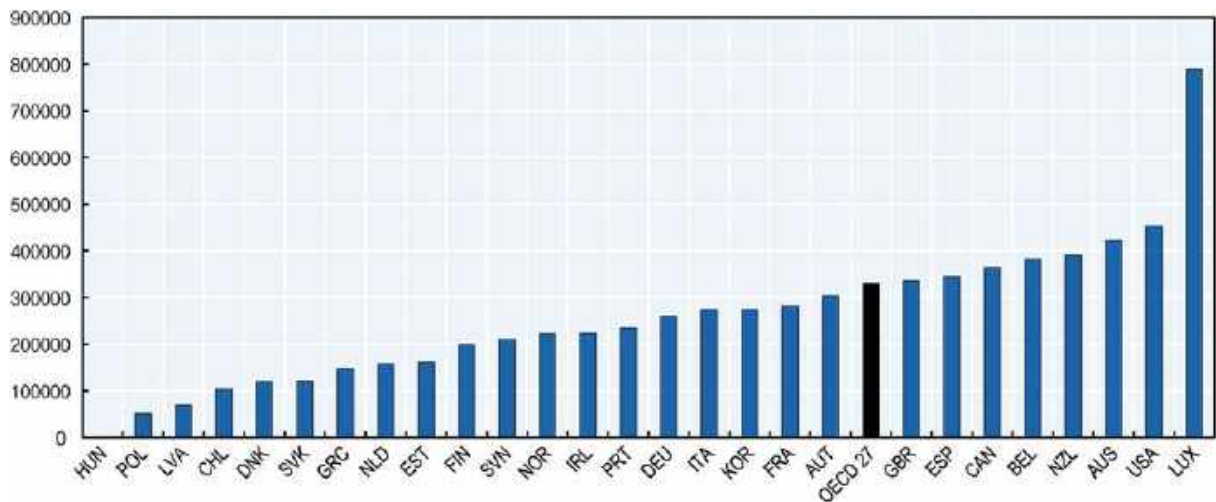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소득과 자산: 가구순자산

정의

이 지표는 마이크로 데이터로 측정된 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 및 금융 자산과 부채를 모두 나타낸다. 값은 현재 가격일 때 미 달러(USD)로 표현되며, 가구 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하여 조정된다. 자산의 개념은 *OECD 가구자산에 관한 마이크로 통계 지침*에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OECD, 2013). 데이터는 (개인 1명당 또는 성인 1명당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표시되며 가구 크기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며, 이는 통계청과 다른 공식 통계 생산자가 공급하는 데이터(가구 설문조사 또는 세금 및 행정 기록에 근거)와 유럽중앙은행(유로시스템 가계 금융 및 소비 조사에 참여한 11개국에 대해)의 공용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퇴직 제도의 특성에 따라 OECD 국가에서 그 규모와 분포가 현저하게 다른 연금 자산을 제외한다. 부유한 가구가 과다 표본추출 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호주의 '과다 표본추출 없음'부터 미국의 '많은 과다 표본추출'까지 다양함).

그림 A.3. 가구순자산
현재 PPP일 때 가구당 달러(USD), 2014년 또는 최신 연도



주: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의 경우 2013년,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스페인의 경우 2011년, 미국의 경우 2010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4년이다. 구매력평가(PPP)는 가구 소비에 대한 것이다. 영국의 데이터는 영국 본토(Great Britain)에 국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자산 분배(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199>

표 A.2. 가구순자산
현재 PPP일 때 가구당 달러(USD)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년 또는 최근 연도
호주	AUS	385344	..	422288	..	AUS 422288
오스트리아	AUT	304475	303811	..	AUT 303811
벨기에	BEL	358581	382124	..	BEL 382124
캐나다	CAN	363972	CAN 363972
칠레	CHL	73774	103995	..	CHL 103995
체코	CZE	CZE ..
덴마크	DNK	119750	DNK 119750
에스토니아	EST	162151	EST 162151
핀란드	FIN	172455	198761	FIN 198761
프랑스	FRA	..	235784	281429	..	FRA 281429
독일	DEU	214092	260158	..	DEU 260158
그리스	GRC	..	190875	147934	..	GRC 147934
헝가리	HUN	353	..	HUN 353
아이슬란드	ISL	ISL ..
아일랜드	IRL	223894	IRL 223894
이스라엘	ISR	ISR ..
이탈리아	ITA	335419	273820	..	ITA 273820
일본	JPN	JPN ..
한국	KOR	273867	KOR 273867
라트비아	LVA	70158	..	LVA 70158
룩셈부르크	LUX	708869	789260	..	LUX 789260
멕시코	MEX	MEX ..
네덜란드	NLD	188371	157772	NLD 157772
뉴질랜드	NZL	390455	NZL 390455
노르웨이	NOR	192206	223321	NOR 223321
폴란드	POL	51485	POL 51485
포르투갈	PRT	225563	234587	PRT 234587
슬로바키아	SVK	138853	120428	..	SVK 120428
슬로베니아	SVN	209366	..	SVN 209366
스페인	ESP	356900	345583	ESP 345583
스웨덴	SWE	SWE ..
스위스	CHE	CHE ..
터키	TUR	TUR ..
영국	GBR	338958	..	336493	GBR 336493
미국	USA	452900	USA 452900
OECD	OECD	OECD 27 331132

주: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의 경우 2013년,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스페인의 경우 2011년, 미국의 경우 2010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4년이다. 2010년과 2015년의 자산 데이터는 네덜란드의 여러 출처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구매력평가(PPP)는 가구 소비에 대한 것이다. 영국의 데이터는 영국 본토(Great Britain)에 국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자산 분배(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669>

추가 참고자료:

OECD(2013), *OECD 가구자산에 관한 마이크로 통계 지침*,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OECD(2015), “국가별 가구자산의 편중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함께 하기: 불평등 해소가 모두에게 유리한 이유*,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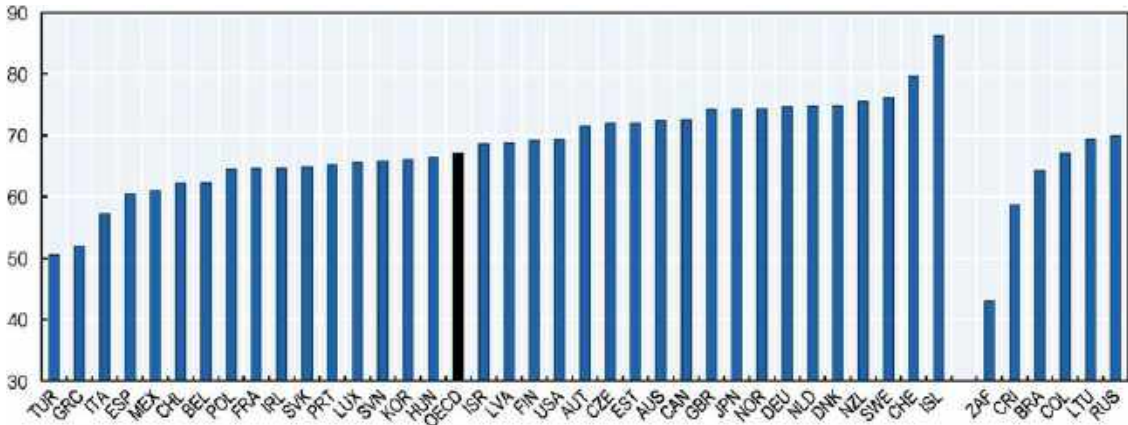
일자리와 임금: 고용

정의

이 지표는 이전 주에 최소 1 시간 동안 유급으로 일했다고 말한 생산가능인구(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5~64 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현재 직업에서 이미 일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임시 근무를 유지하면서 준거 기간 중에 (육아 휴직, 병가, 연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데이터는 OECD 연례노동력통계(Annual Labour Force Statistics, ALFS)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가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s, LFS)에서 얻은 것이며,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설정한 기준과 일치한다.

그림 A.4. 고용률

15~64세 인구 중 고용 인구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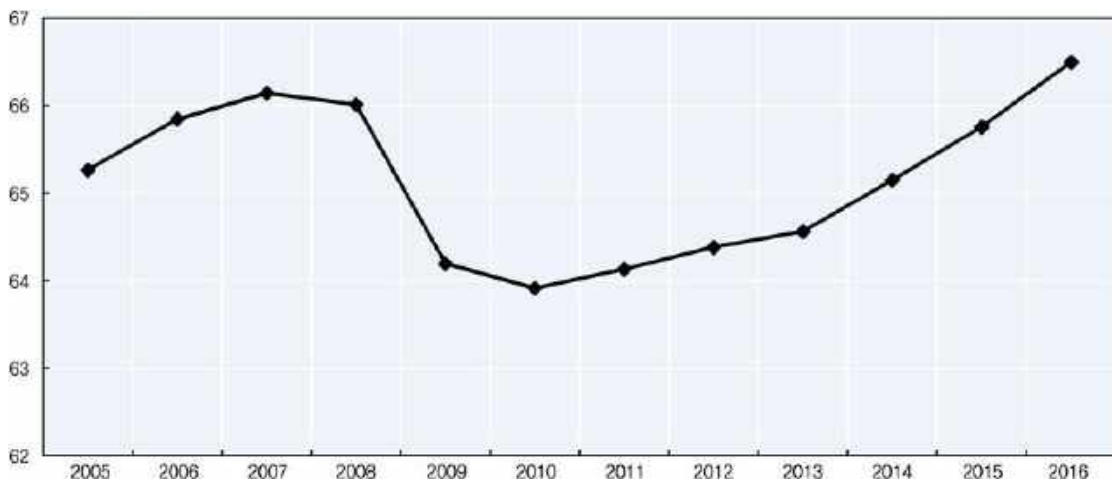
주: 브라질의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 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218>

그림 A.5. 고용률, OECD 평균

15~64세 인구 중 고용 인구 비율, OECD 29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는 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237>

표 A.3. 고용률
15~64세 인구 중 고용 인구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71.5	72.1	72.8	73.2	72.1	72.4	72.7	72.3	72.0	71.6	72.2	72.4	AUS 72.4
오스트리아	AUT	67.4	68.6	69.9	70.8	70.3	70.8	71.1	71.4	71.4	71.1	71.1	71.5	AUT 71.5
벨기에	BEL	61.1	61.0	62.0	62.4	61.6	62.0	61.9	61.8	61.8	61.9	61.8	62.3	BEL 62.3
캐나다	CAN	72.4	72.8	73.5	73.5	71.4	71.5	71.8	72.1	72.4	72.3	72.5	72.6	CAN 72.6
칠레	CHL	55.6	56.7	57.6	58.6	57.3	59.3	61.3	61.8	62.3	62.2	62.4	62.2	CHL 62.2
체코	CZE	64.8	65.3	66.1	66.6	65.4	65.0	65.7	66.5	67.7	69.0	70.2	72.0	CZE 72.0
덴마크	DNK	75.9	77.4	77.0	77.9	75.3	73.3	73.1	72.6	72.5	72.8	73.5	74.9	DNK 74.9
에스토니아	EST	64.4	68.2	69.6	70.0	63.7	61.2	65.3	67.2	68.5	69.6	71.8	72.0	EST 72.0
핀란드	FIN	68.5	69.6	70.5	71.3	68.4	68.3	69.2	69.5	68.5	68.9	68.7	69.2	FIN 69.2
프랑스	FRA	63.8	63.7	64.3	64.9	64.1	64.0	63.9	64.0	64.0	64.2	64.3	64.6	FRA 64.6
독일	DEU	65.5	67.2	69.0	70.2	70.4	71.2	72.7	73.0	73.5	73.8	74.0	74.7	DEU 74.7
그리스	GRC	59.6	60.6	60.9	61.4	60.8	59.1	55.1	50.8	48.8	49.4	50.8	52.0	GRC 52.0
헝가리	HUN	56.9	57.4	57.0	56.4	55.0	55.0	55.4	56.7	58.1	61.8	63.9	66.5	HUN 66.5
아이슬란드	ISL	84.4	85.3	85.7	84.2	78.9	78.9	79.0	80.2	81.8	82.2	84.2	86.3	ISL 86.3
아일랜드	IRL	67.5	68.5	69.2	67.9	62.2	60.0	59.2	58.8	60.2	61.3	63.1	64.7	IRL 64.7
이스라엘	ISR	62.3	63.2	64.5	65.5	64.3	65.2	65.8	66.5	67.1	67.9	68.3	68.6	ISR 68.6
이탈리아	ITA	57.5	58.3	58.6	58.6	57.4	56.8	56.8	56.6	55.5	55.7	56.3	57.2	ITA 57.2
일본	JPN	69.3	70.0	70.7	70.7	70.0	70.1	70.3	70.6	71.7	72.7	73.3	74.3	JPN 74.3
한국	KOR	63.7	63.8	63.9	63.8	62.9	63.3	63.9	64.2	64.4	65.3	65.7	66.1	KOR 66.1
라트비아	LVA	62.1	65.9	68.1	68.2	60.3	58.5	60.8	63.0	65.0	66.3	68.1	68.7	LVA 68.7
룩셈부르크	LUX	63.6	63.6	64.2	63.4	65.2	65.2	64.6	65.8	65.7	66.6	66.1	65.6	LUX 65.6
멕시코	MEX	60.1	61.0	61.0	60.7	59.8	59.7	60.0	60.9	60.8	60.4	60.7	61.0	MEX 61.0
네덜란드	NLD	71.5	72.5	74.4	75.9	75.6	74.7	74.9	75.1	74.3	73.9	74.1	74.8	NLD 74.8
뉴질랜드	NZL	74.2	74.8	75.1	74.6	72.8	72.2	72.5	72.0	72.8	74.2	74.3	75.6	NZL 75.6
노르웨이	NOR	75.2	75.5	76.9	78.1	76.5	75.4	75.3	75.8	75.5	75.3	74.9	74.4	NOR 74.4
폴란드	POL	53.0	54.5	57.0	59.2	59.3	58.9	59.3	59.7	60.0	61.7	62.9	64.5	POL 64.5
포르투갈	PRT	67.3	67.6	67.6	68.0	66.1	65.3	63.8	61.4	60.6	62.6	63.9	65.2	PRT 65.2
슬로바키아	SVK	57.7	59.4	60.7	62.3	60.2	58.8	59.3	59.7	59.9	61.0	62.7	64.9	SVK 64.9
슬로베니아	SVN	66.0	66.6	67.8	68.6	67.5	66.2	64.4	64.1	63.3	63.9	65.2	65.8	SVN 65.8
스페인	ESP	64.5	66.0	66.8	65.4	60.8	59.7	58.8	56.5	55.6	56.8	58.7	60.5	ESP 60.5
스웨덴	SWE	74.0	74.6	74.2	74.3	72.2	72.1	73.6	73.8	74.4	74.9	75.5	76.2	SWE 76.2
스위스	CHE	77.2	77.9	78.6	79.5	79.0	77.3	78.3	78.5	78.4	78.8	79.2	79.6	CHE 79.6
터키	TUR	44.4	44.6	44.6	44.9	44.3	46.3	48.4	48.9	49.5	49.5	50.2	50.6	TUR 50.6
영국	GBR	72.7	72.6	72.4	72.7	70.6	70.2	70.2	70.7	71.1	72.6	73.2	74.3	GBR 74.3
미국	USA	71.5	72.0	71.8	70.9	67.6	66.7	66.6	67.1	67.4	68.1	68.7	69.4	USA 69.4
OECD	OECD 29	65.3	65.8	66.1	66.0	64.2	63.9	64.1	64.4	64.6	65.1	65.8	66.5	OECD 67.1
브라질	BRA	67.0	67.4	67.4	68.3	67.7	..	66.9	67.2	66.7	67.5	64.4	..	BRA 64.4
콜롬비아	COL	61.4	..	60.2	60.5	62.4	63.7	65.1	66.3	66.5	67.1	67.6	67.2	COL 67.2
코스타리카	CRI	62.0	62.2	64.1	63.6	61.3	59.6	58.1	61.8	61.8	61.7	60.7	58.7	CRI 58.7
리투아니아	LTU	62.9	63.6	65.0	64.4	59.9	57.6	60.2	62.0	63.7	65.7	67.2	69.4	LTU 69.4
러시아 연방	RUS	66.3	66.8	68.5	68.6	66.9	67.3	68.0	69.0	68.8	69.3	69.3	70.0	RUS 70.0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43.4	44.9	44.4	45.9	43.9	41.8	41.9	42.2	42.7	42.8	43.7	43.0	ZAF 43.0

주: 설문조사의 재설계로 인해 칠레와 스위스(2010년), 독일과 포르투갈(2011)에서 시계열이 중단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2006년에 실업의 정의가 바뀌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는 2011년 일본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6년에 고용인에 육군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중단 전 셀은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칠레,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는 중단으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모든 OECD 국가를 고려한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688>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OECD 고용 전망 2017,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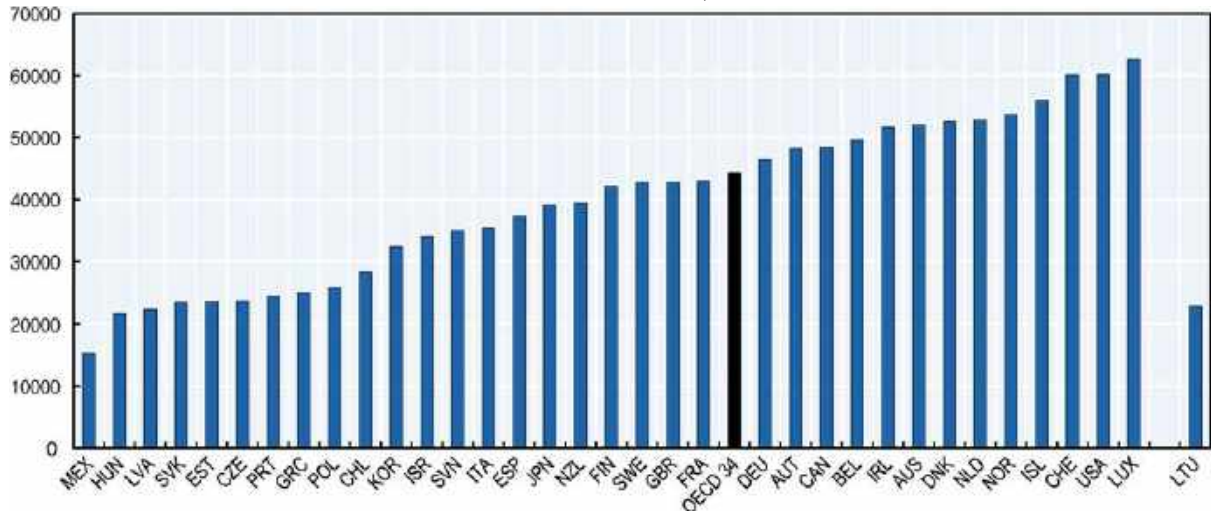
일자리와 임금: 임금

정의

이 지표는 경제의 모든 부문과 모든 유형의 피고용으로 일하는 직원의 연평균 수입을 나타내며, 전일, 1년에 상응하는 측면으로 표현된다. OECD 평균은 각 국가의 총 직원 수에 의해 가중된다. 임금에는 세금, 근로자의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기여금, 생명보험료, 조합비, 기타 직원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공제하기 전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직원의 총 보수가 포함된다. 이 지표는 정규 직원의 수로 나눈 국민계정의 총 임금 계산서로 계산된다. 정규 직원의 수는 국가별로 크게 다른 시간제 근로의 빈도를 수정하기 위해 모든 직원과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이 일한 시간의 비율과 직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곱하여 구한다. 이 지표는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 *OECD 임금 분배 데이터베이스*, *OECD 전일, 1년에 상응하는 중속 근로자당 연평균 수입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통합한다.

그림 A.6.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소득

현재 PPP일 때 달러(USD),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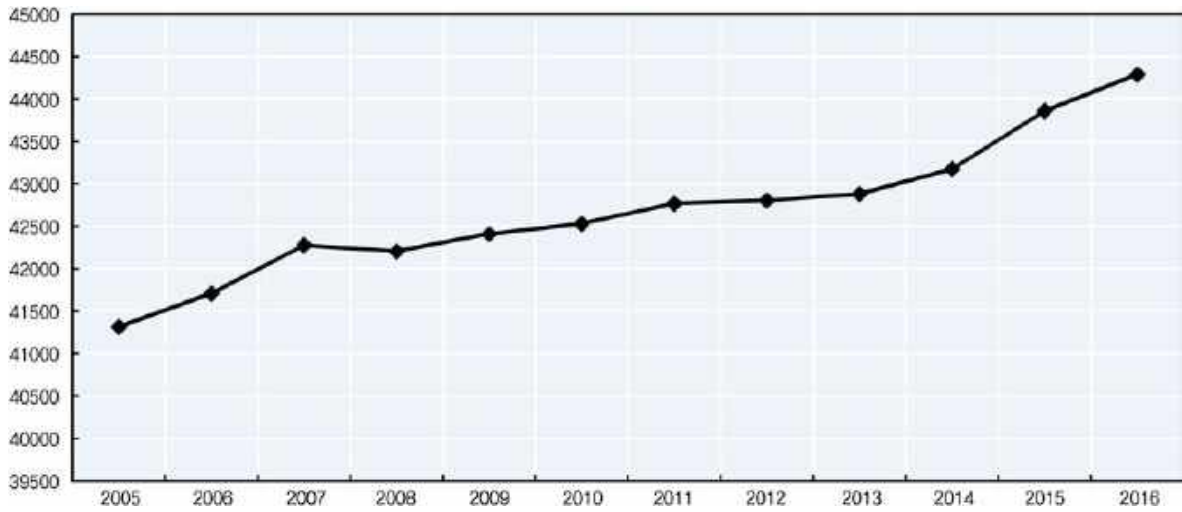


주: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의 경우 직원당 실제 보수(임금과 급여 외에 고용주의 사회 기여금 포함)가 고려된다. OECD 평균은 각 국가의 직원 수로 가중되며,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연평균 임금(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256>

그림 A.7.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소득, OECD 평균
2016년 PPP일 때의 달러(USD), OECD 34



주: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의 경우 직원당 실제 보수(임금과 급여 외에 고용주의 사회 기여금 포함)가 고려된다. OECD 평균은 각 국가의 직원 수로 가중되며,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연평균 임금(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275>

표 A.4. 정규 직원당 연평균 총소득
2016년 PPP일 때의 달러(USD)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47478	47949	49169	49584	49182	50675	52138	52698	52460	52649	51986	52063	AUS 52063
오스트리아	AUT	45767	46498	46714	47635	48144	48003	47608	47755	47872	48009	48252	48295	AUT 48295
벨기에	BEL	48431	48499	48414	48562	48974	48699	49104	49395	50014	50020	50098	49587	BEL 49587
캐나다	CAN	41105	42385	43350	44209	44677	44802	45483	46561	47385	47931	48213	48403	CAN 48403
칠레	CHL	22734	22323	22519	23164	24859	25959	26197	27064	27790	27964	27628	28434	CHL 28434
체코	CZE	20105	20939	21584	21535	21496	21996	22314	22266	22028	22495	23003	23722	CZE 23722
덴마크	DNK	46351	47133	47650	48352	49457	49980	49766	49649	50009	50951	51463	52580	DNK 52580
에스토니아	EST	16909	18142	20985	21200	20408	20231	19317	19822	19951	20789	22438	23621	EST 23621
핀란드	FIN	38886	39734	40344	40769	41068	41723	41792	41950	41376	41376	41952	42127	FIN 42127
프랑스	FRA	38743	39189	39266	39214	40423	41182	41127	41363	41703	41848	42455	42992	FRA 42992
독일	DEU	41895	41865	41877	42150	42280	42502	43054	43701	44161	44743	45810	46389	DEU 46389
그리스	GRC	30568	31023	31021	30460	31874	29829	27854	26539	24854	25085	24719	25124	GRC 25124
헝가리	HUN	21449	21900	21635	21915	21130	21175	21119	20423	20454	20388	20667	21711	HUN 21711
아이슬란드	ISL	53194	55615	57356	50753	43166	45052	47363	47252	48517	48415	51405	55984	ISL 55984
아일랜드	IRL	44992	45578	46666	47883	51749	51287	51156	50528	50185	49971	50866	51681	IRL 51681
이스라엘	ISR	30990	32032	32610	31814	31087	30773	30974	31469	31816	31713	32729	34023	ISR 34023
이탈리아	ITA	35372	35648	35640	35669	35868	36219	35710	34539	34616	34781	35117	35397	ITA 35397
일본	JPN	39307	39146	39055	39083	38574	39277	40243	39528	39409	38763	38660	39113	JPN 39113
한국	KOR	29785	30254	30886	30695	30630	31192	31668	31283	31745	31688	32062	32399	KOR 32399
라트비아	LVA	14336	15866	19521	20129	18158	17505	16878	17596	18439	19629	21113	22389	LVA 22389
룩셈부르크	LUX	56891	57637	59010	58897	60540	61247	60196	59829	60193	61175	62580	62636	LUX 62636
멕시코	MEX	15862	16073	16275	16088	15745	14830	15165	15080	15172	15230	15230	15311	MEX 15311
네덜란드	NLD	48927	48956	49474	49817	51772	52021	51815	51719	51896	51576	52719	52833	NLD 52833
뉴질랜드	NZL	34563	34851	36852	36428	36881	37198	37219	37999	37582	37856	38519	39397	NZL 39397
노르웨이	NOR	44020	45816	47688	48886	49409	49968	51799	53153	54150	54476	54629	53643	NOR 53643
폴란드	POL	20941	21069	21713	22907	22864	23502	23515	23255	23550	24032	24597	25921	POL 25921
포르투갈	PRT	25832	25269	25470	25361	26465	26425	25843	24673	25169	24717	24595	24529	PRT 24529
슬로바키아	SVK	18405	19017	20203	20424	21117	22036	21814	21566	21759	22153	22924	23508	SVK 23508
슬로베니아	SVN	30516	31642	32341	32719	33057	34047	34002	33040	32888	33439	34153	34965	SVN 34965
스페인	ESP	35051	34901	35310	36764	39248	38530	37980	36917	36952	36890	37259	37333	ESP 37333
스웨덴	SWE	36113	36924	38205	38643	38948	39231	39626	40526	40931	41461	42190	42816	SWE 42816
스위스	CHE	55726	55978	56839	57138	58219	58258	58548	59806	60592	60520	60242	60124	CHE 60124
터키	TUR	TUR ..
영국	GBR	41741	42775	43959	42836	43561	43447	42469	42330	42058	41878	42304	42835	GBR 42835
미국	USA	54432	55243	56439	56233	56610	57013	57176	57653	57369	58219	59691	60154	USA 60154
OECD	OECD 34	41315	41708	42276	42206	42410	42531	42770	42804	42883	43175	43858	44290	OECD 34 44290
리투아니아	LTU	17015	19489	20747	21083	18409	18490	18981	19322	20106	20988	22224	22949	LTU 22949

주: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의 경우 직원당 실제 보수(임금과 급여 외에 고용주의 사회 기여금 포함)가 고려된다. OECD 평균은 각 국가의 직원 수로 가중되며,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연평균 임금(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707>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OECD 고용 전망 2017,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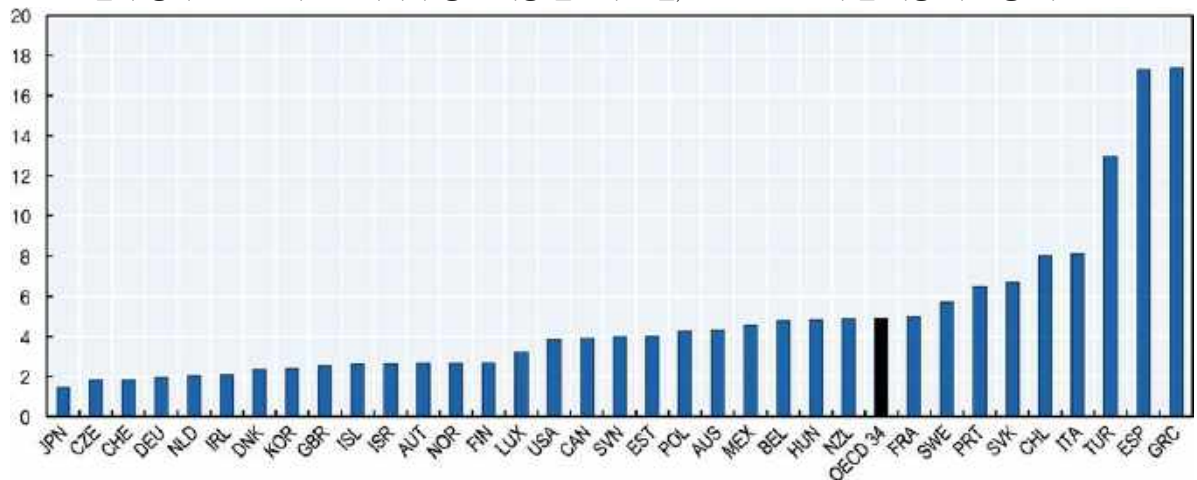
일자리와 임금: 노동시장 불안정성

정의

이 지표는 고용인이 실직 상태가 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로 정의되며, 이전 수입의 비율로 표현된다. 이 손실은 실직하게 될 위험, 예상 실업 기간, 실업 급여(보유 계약액(effective insurance))에서 제공한 이러한 손실에 대한 완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실업 기간에 대한 데이터는 고용인(1개월 미만 동안 실업 상태라고 보고한 사람은 이전 달에 고용된 것으로 가정)이 실업자가 될 월별 확률과 완료된 실업 기간의 평균 예상 기간(개월)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실업 보험은 실업 보험/수당의 보장과 실업 보험/수당 수령자가 받는 공공 이전의 대체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실업 보험과 실업 수당의 수령자에 대한 평균 대체율은 사회부조급여를 고려한다. 이 지표는 *OECD 실업 기간 데이터베이스*, *OECD 수당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OECD 세금 및 수당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통합한다.

그림 A.8. 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실직 상태로 인한 이전 소득대비 평균 예상 금전적 손실,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 연도



주: 칠레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1 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라트비아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일자리 질(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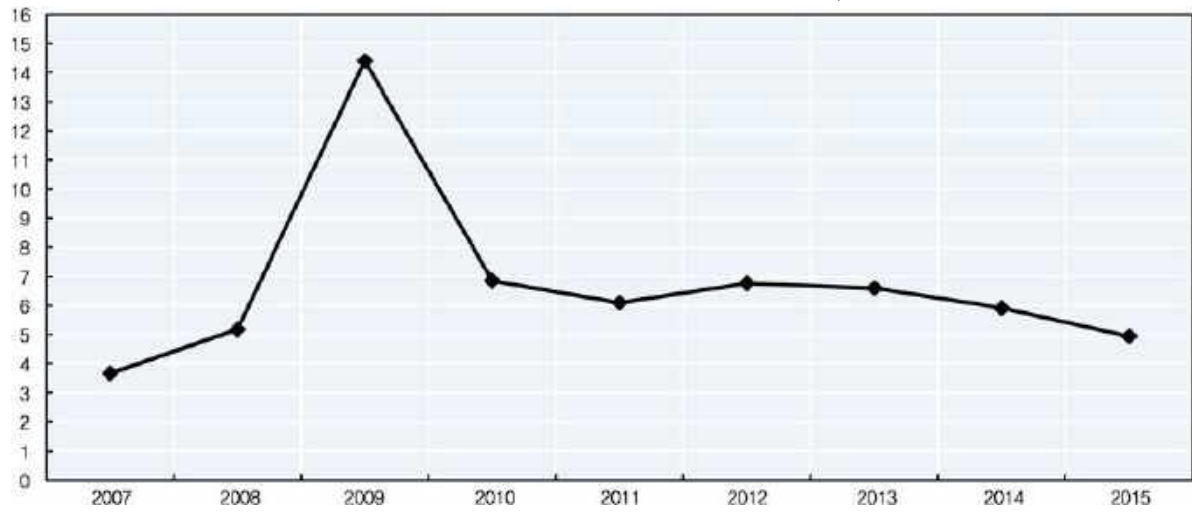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294>

그림 A.9. 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OECD 평균
실직 상태로 인한 이전 소득대비 평균 예상 금전적 손실, OECD 29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한국,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은 불안정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일자리 질(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313>

표 A.5. 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실직 상태로 인한 이전 소득대비 평균 예상 금전적 손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최근 연도
호주	AUS	2.7	2.8	5.4	3.4	3.5	3.7	4.3	4.7	4.3	AUS 4.3
오스트리아	AUT	2.1	1.5	5.0	1.9	1.8	2.4	2.9	2.8	2.7	AUT 2.7
벨기에	BEL	3.2	3.0	7.0	4.6	3.1	4.5	4.5	5.2	4.8	BEL 4.8
캐나다	CAN	3.3	3.4	5.5	4.2	3.9	4.0	3.9	3.8	3.9	CAN 3.9
칠레	CHL	8.1	CHL 8.1
체코	CZE	1.3	1.4	3.3	6.5	3.4	6.4	5.3	2.6	1.8	CZE 1.8
덴마크	DNK	1.2	1.2	6.3	3.7	2.7	2.6	2.2	2.4	2.3	DNK 2.3
에스토니아	EST	2.8	8.4	11.4	15.9	6.3	5.4	5.5	4.6	4.0	EST 4.0
핀란드	FIN	2.4	2.3	4.5	2.9	2.5	2.3	2.7	2.3	2.7	FIN 2.7
프랑스	FRA	2.6	2.5	22.1	4.5	4.0	6.1	6.2	4.8	5.0	FRA 5.0
독일	DEU	2.3	2.4	3.7	2.5	2.2	2.3	2.6	2.2	2.0	DEU 2.0
그리스	GRC	7.6	5.4	6.1	5.6	34.4	18.1	31.3	44.4	36.0	21.1	17.4	GRC 17.4
헝가리	HUN	3.7	5.4	6.9	10.1	9.7	11.4	8.9	4.2	4.8	HUN 4.8
아이슬란드	ISL	1.0	1.6	2.4	3.0	5.1	0.3	0.4	3.6	2.6	ISL 2.6
아일랜드	IRL	2.0	8.7	4.0	6.4	6.2	5.8	4.6	2.7	2.1	IRL 2.1
이스라엘	ISR	6.7	5.3	6.4	5.2	4.2	4.2	3.4	3.2	2.6	ISR 2.6
이탈리아	ITA	3.7	8.5	11.7	6.8	7.6	12.4	11.8	16.9	8.1	ITA 8.1
일본	JPN	1.9	3.3	3.4	3.3	1.6	1.9	1.6	1.2	1.5	JPN 1.5
한국	KOR	2.6	2.3	2.2	2.1	2.4	2.4	KOR 2.4
라트비아	LVA	LVA ..
룩셈부르크	LUX	1.2	2.8	2.4	1.2	2.2	2.3	3.9	2.7	3.2	LUX 3.2
멕시코	MEX	..	3.9	4.0	4.3	6.5	5.7	5.8	5.4	5.3	5.1	4.6	MEX 4.6
네덜란드	NLD	0.8	0.9	3.1	1.5	1.8	2.2	3.0	2.9	2.1	NLD 2.1
뉴질랜드	NZL	2.9	3.7	7.6	5.4	4.8	5.7	4.4	4.7	4.9	NZL 4.9
노르웨이	NOR	0.6	1.2	1.4	1.5	1.2	1.3	1.6	1.5	2.7	NOR 2.7
폴란드	POL	4.0	4.0	9.3	15.2	8.7	10.5	9.6	6.1	4.3	POL 4.3
포르투갈	PRT	7.3	5.0	..	9.9	10.4	16.0	11.7	6.2	6.5	PRT 6.5
슬로바키아	SVK	4.3	4.7	..	13.3	8.8	18.1	15.9	8.3	6.7	SVK 6.7
슬로베니아	SVN	1.5	1.6	17.5	4.0	3.9	5.0	5.2	5.0	4.0	SVN 4.0
스페인	ESP	5.7	15.4	13.5	18.4	22.4	28.9	27.0	20.5	17.3	ESP 17.3
스웨덴	SWE	4.5	10.1	7.3	5.7	6.7	6.7	6.6	5.7	SWE 5.7
스위스	CHE	0.9	0.9	3.2	2.8	1.3	1.8	2.1	2.0	1.8	CHE 1.8
터키	TUR	10.3	14.0	59.4	10.4	8.1	8.3	12.0	14.5	13.0	TUR 13.0
영국	GBR	3.1	3.7	12.4	5.0	5.2	4.6	4.1	2.6	2.6	GBR 2.6
미국	USA	3.4	4.9	17.5	8.1	6.6	6.0	5.4	4.3	3.8	USA 3.8
OECD	OECD 29	3.7	5.2	14.4	6.9	6.1	6.8	6.6	5.9	4.9	OECD 34 4.9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한국,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한 OECD 평균에는 라트비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OECD 일자리 질(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726>

추가 참고자료:

Cazes, S., A. Hijzen, A. Saint-Martin(2015), “일자리 질 측정 및 평가: OECD 일자리 질 프레임워크”, *OECD 사회, 고용, 이주 실무 보고서*, No. 174, OECD 출판국, 파리, DOI: <http://dx.doi.org/10.1787/5jrp02kjl1m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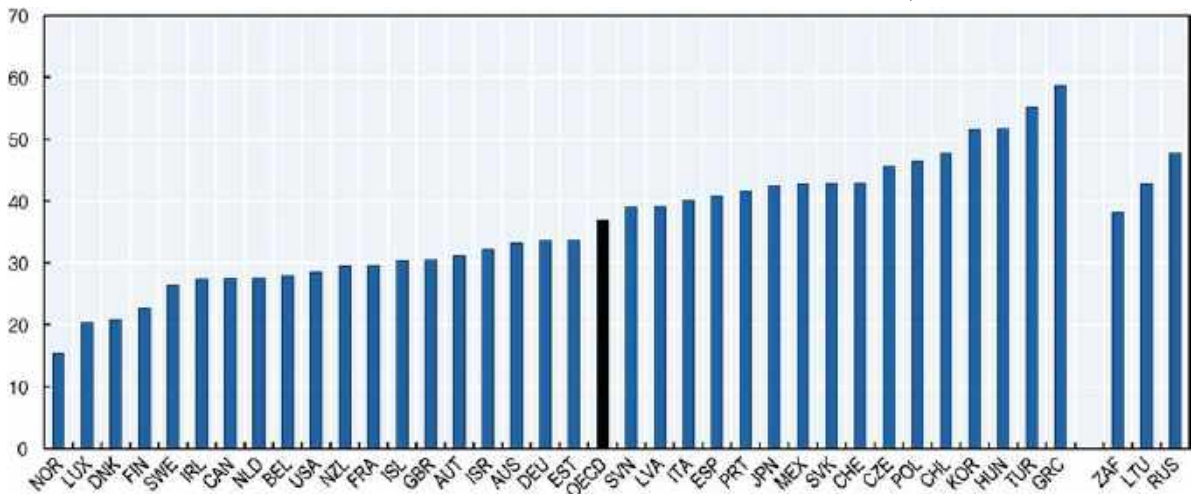
일자리와 임금: 직무 긴장

정의

이 지표는 직원들의 직무 긴장 빈도를 고려한다. 직무 긴장은 직원들이 보고한 직무 요구(예: 시간 압박, 신체적 건강 위협에 대한 노출)가 직무 자원(예: 업무 자율성, 학습 기회, 좋은 직장 관계)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근로 환경의 질 측정 지침*(OECD, 2017)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직무 요구가 확인된다. 즉 i) 힘든 육체 노동(예: 무거운 짐 운반 및 이동)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ii) 평균보다 긴 근무시간과 관련된 노동 강도, iii) 근로시간 경직성, iv)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일자리 불안*이다. 마찬가지로 4가지 유형의 직무 자원이 고려된다. 즉 i) 근로자가 작업과 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업무 자율성*, ii) 직장에서 공식(교육) 및 비공식 학습 기회를 포함하는 *교육 및 학습 기회*, iii) 직장에서 근로자의 동기 부여와 관련된 *승진 기회*, iv) 직무의 목적에 대한 만족도(예: 유용한 일을 하는 느낌, 다른 사람을 돕는 느낌)를 포착하는 직업의 *내재적 보상(intrinsic rewards)*이다. 직무 긴장은 사람들이 직무 자원보다 더 많은 직무 요구를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일 데이터 출처가 모든 OECD 국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긴장 지수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근로 지향(Work Orientations) 모듈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얻는다. 이 부록에 포함된 데이터는 OECD 일자리 질 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에 대해 2017년 9월에 작성된 임시 추정치이다.

그림 A.10. 직무 긴장

직무 자원의 수를 초과하는 많은 직무 요구를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 2015년



주: 캐나다와 한국의 경우 최신 연도는 2005 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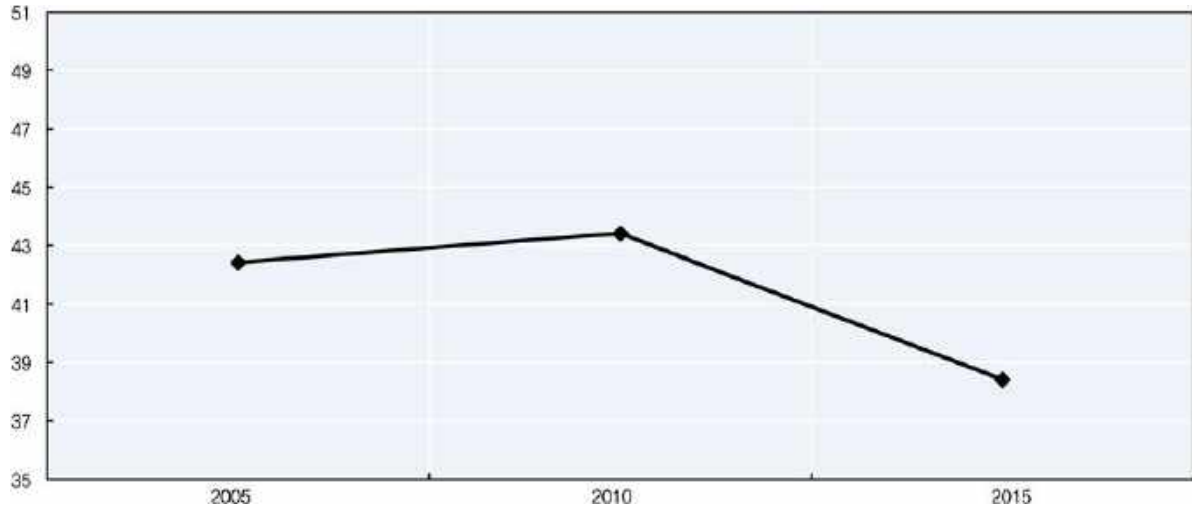
출처: OECD 일자리 질(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7년 9월에 작성된 임시 추정치,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332>

그림 A.11. 직무 긴장, OECD 평균

직무 자원의 수를 초과하는 많은 직무 요구를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 OECD 24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일자리 질(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7년 9월에 작성된 임시 추정치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351>

표 A.6. 직무 긴장


직무 자원의 수를 초과하는 많은 직무 요구를 경험하는 직원의 비율

		2005	2010	2015	최근 연도	
호주	AUS	29,9	..	33,2	AUS	33,2
오스트리아	AUT	29,3	36,9	31,1	AUT	31,1
벨기에	BEL	25,8	36,3	27,9	BEL	27,9
캐나다	CAN	27,5	CAN	27,5
칠레	CHL	47,8	CHL	47,8
체코	CZE	57,2	59,6	45,6	CZE	45,6
덴마크	DNK	20,1	20,3	20,8	DNK	20,8
에스토니아	EST	40,2	39,3	33,7	EST	33,7
핀란드	FIN	22,2	25,0	22,7	FIN	22,7
프랑스	FRA	30,2	36,1	29,5	FRA	29,5
독일	DEU	49,0	35,7	33,6	DEU	33,6
그리스	GRC	50,3	51,4	58,6	GRC	58,6
헝가리	HUN	57,0	54,1	51,7	HUN	51,7
아이슬란드	ISL	30,3	ISL	30,3
아일랜드	IRL	25,3	35,2	27,4	IRL	27,4
이스라엘	ISR	39,1	..	32,2	ISR	32,2
이탈리아	ITA	40,2	40,6	40,1	ITA	40,1
일본	JPN	47,5	..	42,5	JPN	42,5
한국	KOR	51,6	KOR	51,6
라트비아	LVA	43,1	44,9	39,2	LVA	39,2
룩셈부르크	LUX	22,5	28,0	20,3	LUX	20,3
멕시코	MEX	41,3	..	42,7	MEX	42,7
네덜란드	NLD	25,0	24,7	27,6	NLD	27,6
뉴질랜드	NZL	23,0	..	29,5	NZL	29,5
노르웨이	NOR	19,8	19,8	15,4	NOR	15,4
폴란드	POL	46,3	42,0	46,5	POL	46,5
포르투갈	PRT	49,3	37,5	41,6	PRT	41,6
슬로바키아	SVK	53,0	52,8	42,8	SVK	42,8
슬로베니아	SVN	45,2	43,3	39,1	SVN	39,1
스페인	ESP	49,4	46,3	40,8	ESP	40,8
스웨덴	SWE	23,9	29,4	26,3	SWE	26,3
스위스	CHE	27,3	..	42,9	CHE	42,9
터키	TUR	63,4	73,3	55,2	TUR	55,2
영국	GBR	26,5	35,3	30,4	GBR	30,4
미국	USA	26,5	..	28,5	USA	28,5
OECD	OECD 24	42,4	43,4	38,4	OECD	36,9
리투아니아	LTU	55,8	61,3	42,7	LTU	42,7
러시아 연방	RUS	55,9	..	47,7	RUS	47,7
남아프리카	ZAF	44,1	..	38,1	ZAF	38,1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일자리 질(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7년 9월에 준비한 임시 추정치,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745>

추가 참고자료:

Murtin, F., Fadic, M., C. Le Thi(2017), “OECD 국가에서 직무 긴장 측정: 2017년 개정판”, OECD 통계국 워킹페이퍼, 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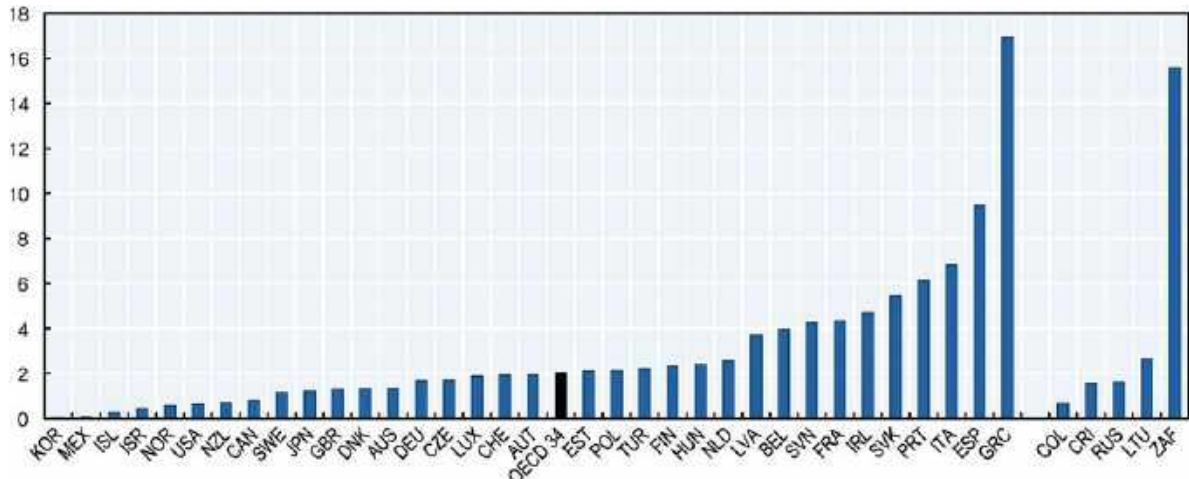
일자리와 임금: 장기 실업

정의

이 지표는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의 수를 노동 인구(고용된 사람과 실직한 사람의 합계)의 비율로 나타낸다. 실업자란 조사 기준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할 의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데이터는 *OECD 고용 전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국가 노동력 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A.12.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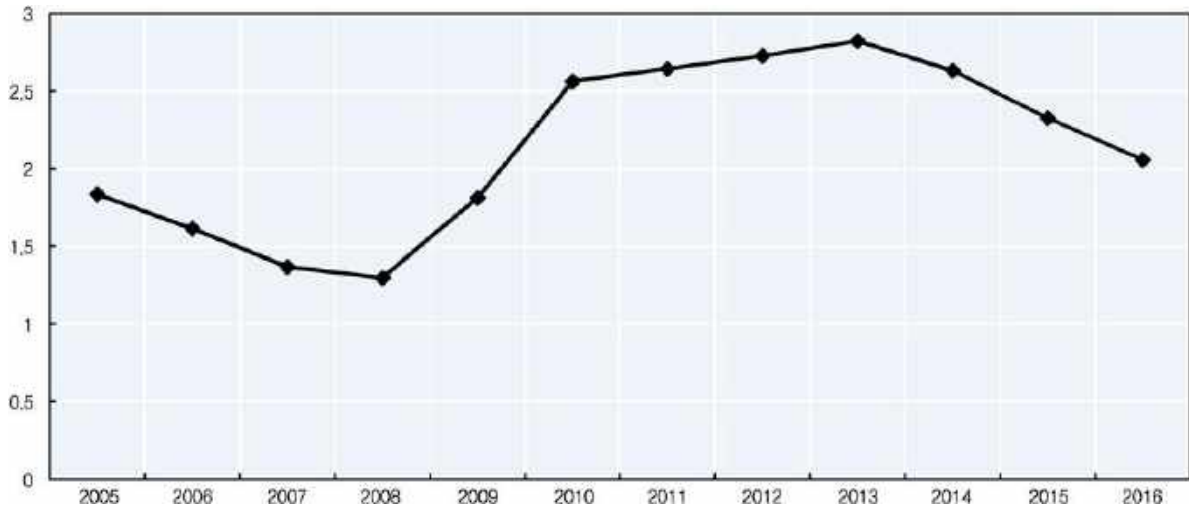
주: 룩셈부르크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370>

그림 A.13. 장기 실업률, OECD 평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OECD 26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독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는 데이터 중단 및/또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389>

표 A.7. 장기 실업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0.9	0.9	0.7	0.6	0.8	1.0	1.0	1.0	1.1	1.3	1.4	1.4	AUS 1.4
오스트리아	AUT	1.4	1.5	1.3	1.0	1.1	1.2	1.2	1.2	1.3	1.5	1.7	1.9	AUT 1.9
벨기에	BEL	4.4	4.2	3.8	3.3	3.5	4.0	3.4	3.4	3.9	4.3	4.4	4.0	BEL 4.0
캐나다	CAN	0.6	0.6	0.5	0.4	0.7	1.0	1.0	0.9	0.9	0.9	0.8	0.8	CAN 0.8
칠레	CHL	CHL ..
체코	CZE	4.2	3.9	2.8	2.2	2.1	3.2	2.8	3.0	3.1	2.7	2.4	1.7	CZE 1.7
덴마크	DNK	1.1	0.8	0.6	0.5	0.6	1.5	1.8	2.1	1.8	1.7	1.7	1.3	DNK 1.3
에스토니아	EST	4.3	2.9	2.3	1.7	3.7	7.5	7.0	5.4	3.8	3.3	2.4	2.1	EST 2.1
핀란드	FIN	2.1	1.9	1.6	1.1	1.4	2.0	1.8	1.6	1.7	2.0	2.3	2.3	FIN 2.3
프랑스	FRA	3.5	3.5	3.1	2.6	3.1	3.6	3.6	3.8	4.0	4.2	4.3	4.3	FRA 4.3
독일	DEU	5.9	5.8	4.9	3.9	3.5	3.3	2.8	2.4	2.3	2.2	2.0	1.7	DEU 1.7
그리스	GRC	5.2	4.9	4.2	3.7	3.9	5.7	8.8	14.4	18.4	19.5	18.2	17.0	GRC 17.0
헝가리	HUN	3.3	3.5	3.5	3.7	4.3	5.6	5.4	5.1	5.1	3.8	3.2	2.4	HUN 2.4
아이슬란드	ISL	0.3	0.2	0.2	0.1	0.5	1.6	2.0	1.7	1.2	0.7	0.6	0.3	ISL 0.3
아일랜드	IRL	1.6	1.5	1.4	1.5	3.6	6.8	8.6	9.2	8.4	7.0	5.6	4.7	IRL 4.7
이스라엘	ISR	2.9	2.9	2.3	1.7	1.9	1.9	1.4	0.9	0.8	0.6	0.6	0.5	ISR 0.5
이탈리아	ITA	3.8	3.4	2.9	3.1	3.5	4.1	4.3	5.7	6.9	7.8	7.0	6.8	ITA 6.8
일본	JPN	1.5	1.4	1.2	1.3	1.4	1.9	1.8	1.7	1.7	1.4	1.2	1.2	JPN 1.2
한국	KOR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KOR 0.0
라트비아	LVA	4.5	2.4	1.6	1.9	4.5	8.8	8.8	7.8	5.8	4.7	4.5	3.7	LVA 3.7
룩셈부르크	LUX	1.2	1.4	1.2	1.6	1.2	1.3	1.4	1.6	1.8	1.6	1.9	..	LUX 1.9
멕시코	MEX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MEX 0.1
네덜란드	NLD	2.1	1.9	1.4	1.0	0.9	1.2	1.5	1.8	2.4	2.7	3.0	2.6	NLD 2.6
뉴질랜드	NZL	0.4	0.3	0.2	0.2	0.4	0.6	0.6	0.9	0.8	0.8	0.8	0.7	NZL 0.7
노르웨이	NOR	0.4	0.5	0.2	0.2	0.2	0.3	0.4	0.3	0.3	0.4	0.5	0.6	NOR 0.6
폴란드	POL	9.3	7.0	4.4	2.1	2.1	2.5	3.0	3.5	3.8	3.3	2.9	2.1	POL 2.1
포르투갈	PRT	3.7	3.9	3.8	3.6	4.2	5.6	6.1	7.6	9.1	8.3	7.1	6.1	PRT 6.1
슬로바키아	SVK	11.0	9.7	7.8	6.3	6.1	8.5	8.7	8.9	9.5	8.8	7.1	5.5	SVK 5.5
슬로베니아	SVN	3.1	2.9	2.2	1.8	1.8	3.1	3.6	4.2	5.1	5.3	4.7	4.3	SVN 4.3
스페인	ESP	2.2	1.8	1.7	2.0	4.2	7.3	8.9	11.0	13.0	12.9	11.4	9.5	ESP 9.5
스웨덴	SWE	0.8	0.8	1.1	1.5	1.4	1.4	1.4	1.3	1.3	1.2	SWE 1.2
스위스	CHE	1.7	1.6	1.5	1.1	1.2	1.7	1.8	1.6	1.6	1.9	1.9	1.9	CHE 1.9
터키	TUR	4.2	3.6	3.1	2.9	3.5	3.4	2.6	2.3	2.4	2.0	2.2	2.2	TUR 2.2
영국	GBR	1.0	1.2	1.3	1.3	1.9	2.5	2.6	2.7	2.8	2.2	1.7	1.3	GBR 1.3
미국	USA	0.6	0.5	0.5	0.6	1.5	2.8	2.8	2.4	1.9	1.4	1.0	0.6	USA 0.6
OECD	OECD 26	1.8	1.6	1.4	1.3	1.8	2.6	2.6	2.7	2.8	2.6	2.3	2.1	OECD 34 2.0
콜롬비아	COL	3.3	..	1.3	1.1	1.4	1.4	1.1	1.0	0.8	0.8	0.7	0.7	COL 0.7
코스타리카	CRI	1.0	1.0	1.5	1.5	1.6	CRI 1.6
리투아니아	LTU	4.4	2.6	1.4	1.3	3.3	7.4	8.0	6.6	5.1	4.8	3.9	2.7	LTU 2.7
러시아 연방	RUS	2.8	3.0	2.4	2.2	2.4	2.2	2.1	1.7	1.7	1.4	1.5	1.6	RUS 1.6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15.2	13.4	12.9	11.3	11.8	14.0	14.7	14.5	14.2	14.4	14.3	15.6	ZAF 15.6

주: 설문조사의 재설계로 인해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우 2011년에 데이터가 중단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2006년에 실업의 정의가 바뀌었다. 2012년 이스라엘은 노동력의 정의를 “민간인”에서 “총 합계”(의무 또는 영구 병역 중인 사람 포함)로 변경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는 2011년 일본 데이터에서 제외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6년에 고용인에 육군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중단 전 셀은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칠레, 독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는 데이터 중단 및/또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OECD 평균에는 칠레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764>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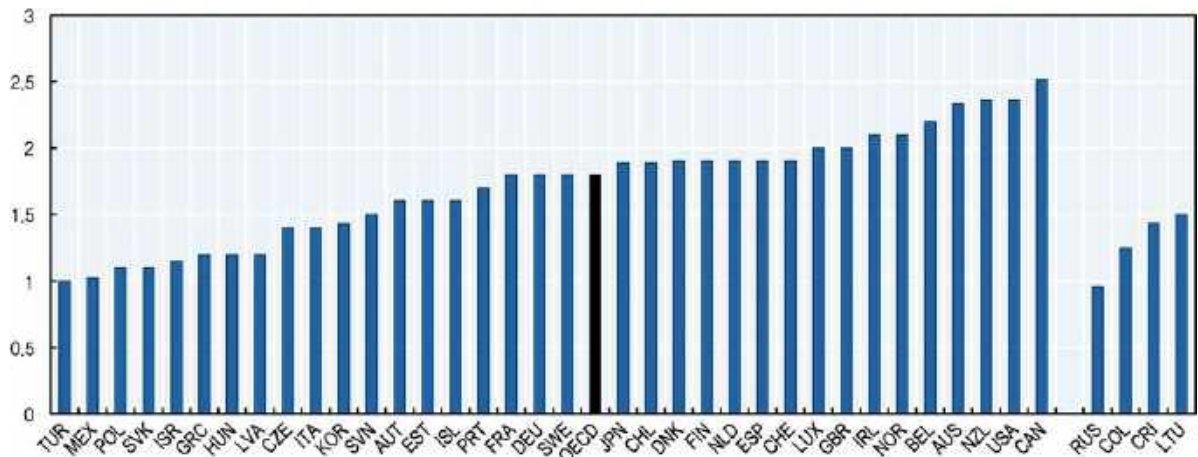
OECD(2017), OECD 고용 전망 2017,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주거: 1인당 방의 수

정의

이 지표는 사람들이 과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주거지에 있는 방의 수를 해당 주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로 나눈 값이다. 주방, 식기실/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차고, 상담실, 사무실, 상점 등의 방은 제외된다. 이 데이터 출처는 그림 주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림 A.14와 표 A.8은 여러 국가의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2005~2010년과 2011~2015년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그림 A.14. 1인당 방
평균 수,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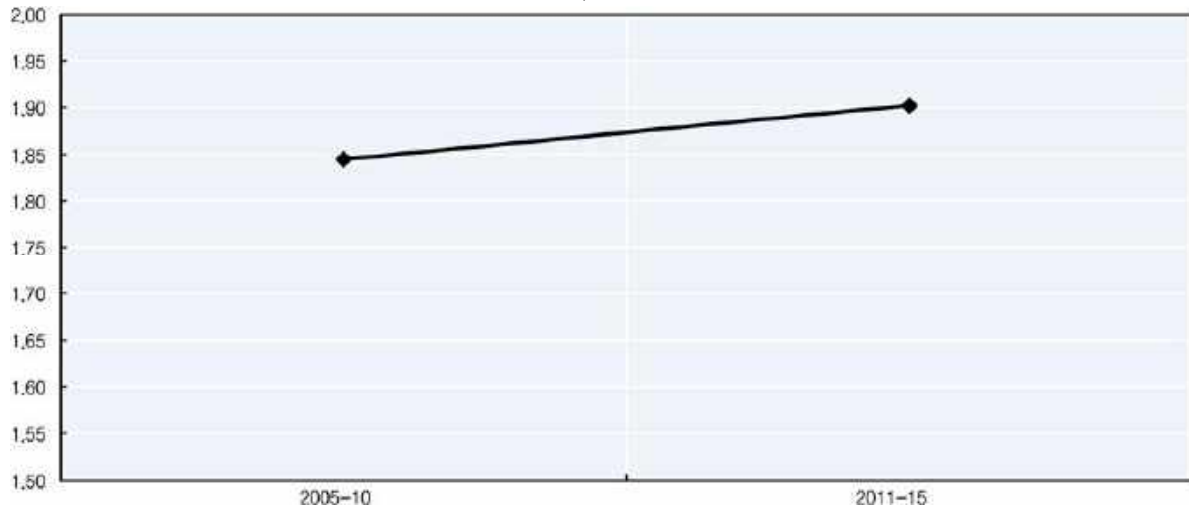


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6년, 이스라엘, 스위스의 경우 2014년, 일본, 뉴질랜드, 터키의 경우 2013년, 호주, 캐나다의 경우 2011년, 한국의 경우 2010년이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의 값은 국가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값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EU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경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호주의 경우 ABS 인구주택총조사,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가구 설문조사, 칠레의 경우 INE 조사, 2010년 이전 데이터의 경우 코스타리카 가구 및 다목적 조사, 2010년 이후 가구 설문조사,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가구지출조사, 일본의 경우 주택토지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 and Encuesta Intercensal 2015,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인구조사, 러시아의 경우 ROSSTAT 가구 소득, 지출, 소비 통계 보고서, 미국의 경우 미국 커뮤니티 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408>

그림 A.15. 1인당 방의 수, OECD 평균
 평균 수, OECD 30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한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EU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경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호주의 경우 ABS 인구주택총조사,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가구 설문조사, 칠레의 경우 INE 조사,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가구지출조사, 일본의 경우 주택토지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 및 Encuesta Intercensal 2015, 뉴질랜드의 경우 인구조사, 미국의 경우 미국 커뮤니티 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427>

추가 참고자료:


Balestra, C. 및 J. Sultan(2013), “즐거운 우리 집: 주거 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웰빙과의 관련성”, OECD 통계 워킹페이퍼, No. 2013/05,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zbcx0czc0x-en>

표 A.8. 1인당 방
평균 수

		2005-10	2011-15	최근 연도	
호주	AUS	2,3	2,3	AUS	2,3
오스트리아	AUT	1,7	1,6	AUT	1,6
벨기에	BEL	2,2	2,2	BEL	2,2
캐나다	CAN	2,6	2,5	CAN	2,5
칠레	CHL	..	1,9	CHL	1,9
체코	CZE	1,3	1,4	CZE	1,4
덴마크	DNK	1,9	1,9	DNK	1,9
에스토니아	EST	1,2	1,6	EST	1,6
핀란드	FIN	1,9	1,9	FIN	1,9
프랑스	FRA	1,7	1,8	FRA	1,8
독일	DEU	1,7	1,8	DEU	1,8
그리스	GRC	1,2	1,2	GRC	1,2
헝가리	HUN	1,0	1,2	HUN	1,2
아이슬란드	ISL	1,6	1,6	ISL	1,6
아일랜드	IRL	2,0	2,1	IRL	2,1
이스라엘	ISR	1,1	1,1	ISR	1,2
이탈리아	ITA	1,4	1,4	ITA	1,4
일본	JPN	1,8	1,9	JPN	1,9
한국	KOR	1,3	..	KOR	1,4
라트비아	LVA	1,0	1,2	LVA	1,2
룩셈부르크	LUX	1,8	2,0	LUX	2,0
멕시코	MEX	1,0	1,0	MEX	1,0
네덜란드	NLD	2,0	2,0	NLD	1,9
뉴질랜드	NZL	2,3	2,4	NZL	2,4
노르웨이	NOR	2,0	2,0	NOR	2,1
폴란드	POL	1,0	1,1	POL	1,1
포르투갈	PRT	1,4	1,6	PRT	1,7
슬로바키아	SVK	1,1	1,1	SVK	1,1
슬로베니아	SVN	1,1	..	SVN	1,5
스페인	ESP	1,9	..	ESP	1,9
스웨덴	SWE	1,8	1,7	SWE	1,8
스위스	CHE	1,8	1,9	CHE	1,9
터키	TUR	0,9	0,9	TUR	1,0
영국	GBR	1,8	..	GBR	2,0
미국	USA	2,3	2,4	USA	2,4
OECD	OECD 30	1,8	1,9	OECD	1,8
콜롬비아	COL	1,1	1,2	COL	1,2
코스타리카	CRI	1,1	1,2	CRI	1,4
리투아니아	LTU	1,1	..	LTU	1,5
러시아 연방	RUS	0,9	0,9	RUS	1,0

주: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에 대한 값은 국가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값이다. 오스트리아의 2005~2010 년 값은 2009~2010 년을 나타내고, 에스토니아와 스위스의 2011~2015 년 값은 2011~2013 년을 나타내는데, 각각 2009 년과 2014 년에 시계열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의 2011~2015 년 값은 2011~2016 년을 나타낸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6 년, 이스라엘, 스위스의 경우 2014 년, 일본, 뉴질랜드, 터키의 경우 2013 년, 호주, 캐나다의 경우 2011 년, 한국의 경우 2010 년, 다른 국가의 경우 2015 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한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은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해 OECD 평균은 전체 OECD 국가를 고려한다.

출처: EU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경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호주의 경우 ABS 인구주택총조사,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가구 설문조사, 칠레의 경우 INE 조사, 2010 년 이전 데이터의 경우 코스타리카 가구 및 다목적 조사, 2010 년 이후 가구 설문조사,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가구지출조사, 일본의 경우 주택토지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 및 Encuesta Intercensal 2015,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인구조사, 러시아의 경우 ROSSTAT 가구 소득, 지출, 소비 통계 보고서, 미국의 경우 미국 커뮤니티 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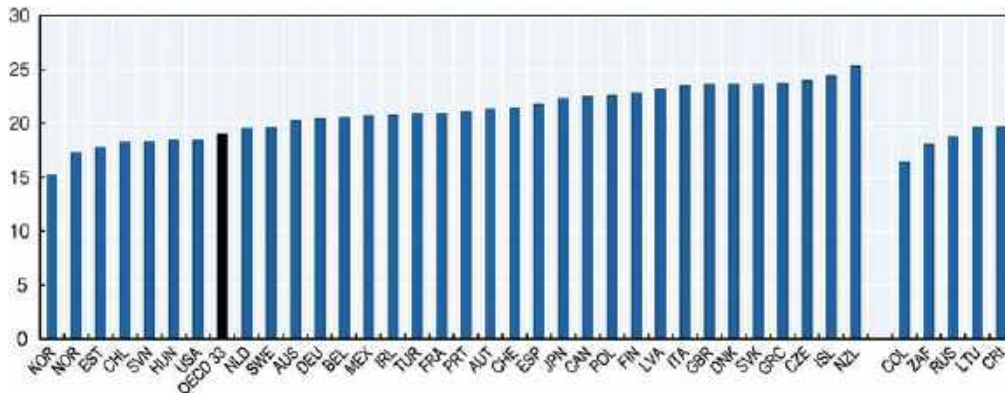
주거: 주택 구매력

정의

이 지표는 국민계정체계(SN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택과 해당 주택의 유지보수에 지출한 가구 총가처분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가구, 비품, 가정용 기기, 일상적인 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뿐 아니라 주택의 실질 및 귀속 임대료, 주거지의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기타 서비스 포함), 수도, 전기, 가스, 기타 연료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지출은 가구 총가처분소득의 비율로 표현된다. 이 주거비 지표는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및 원금에 대한 가구 지출은 제외한다. 이 데이터는 가구 및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의 합계를 나타내며, OECD 국민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한다.

그림 A.16. 주택에 대한 가구 지출

가구 총가처분소득의 비율,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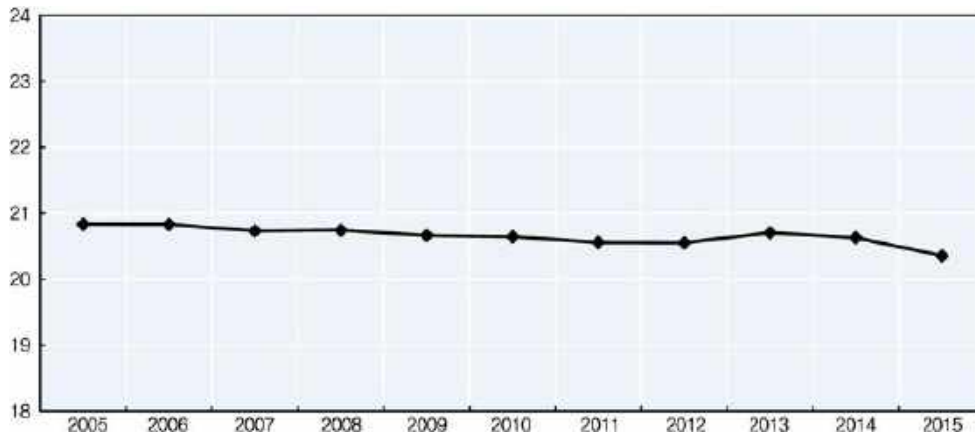
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6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4년, 스위스의 경우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446>

그림 A.17. 주택에 대한 가구 지출, OECD 평균

가구 총가처분소득의 비율, OECD 26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465>

표 A.9. 주택에 대한 가구 지출
가구 총가처분소득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19,3	19,2	19,0	18,8	19,3	19,2	19,3	19,8	19,9	20,1	20,3	..	AUS 20,3
오스트리아	AUT	20,0	19,9	19,5	19,7	19,8	20,2	20,6	20,6	21,1	21,0	21,3	..	AUT 21,3
벨기에	BEL	19,7	19,7	19,3	19,8	19,3	20,0	20,3	20,6	20,7	20,4	20,5	..	BEL 20,5
캐나다	CAN	22,9	22,5	22,7	22,6	22,3	22,1	22,1	22,0	22,0	22,5	22,5	22,3	CAN 22,3
칠레	CHL	18,1	18,0	18,5	..	CHL 18,5
체코	CZE	23,6	23,5	23,7	24,2	24,7	25,3	25,2	25,1	25,2	24,0	24,0	..	CZE 24,0
덴마크	DNK	23,3	23,2	23,4	23,6	23,0	23,5	23,6	23,8	24,1	23,8	23,6	23,5	DNK 23,5
에스토니아	EST	21,4	21,7	21,3	18,9	18,3	18,3	18,2	18,5	19,0	18,1	17,7	..	EST 17,7
핀란드	FIN	20,9	21,0	20,8	20,6	20,7	21,2	21,3	21,6	21,9	22,4	22,7	..	FIN 22,7
프랑스	FRA	20,2	20,3	20,1	20,2	20,2	20,4	20,3	20,8	21,1	20,9	20,9	..	FRA 20,9
독일	DEU	21,5	21,9	21,3	21,4	21,3	21,5	21,2	21,3	21,3	20,7	20,4	..	DEU 20,4
그리스	GRC	19,7	19,2	19,2	20,6	20,6	22,3	23,4	25,0	24,8	23,6	23,7	..	GRC 23,7
헝가리	HUN	18,9	19,1	19,6	20,1	20,8	21,4	20,6	20,7	19,7	18,4	18,4	..	HUN 18,4
아이슬란드	ISL	22,6	21,8	21,5	21,1	23,0	24,8	24,8	24,5	24,4	24,4	ISL 24,4
아일랜드	IRL	19,3	19,6	20,3	20,2	18,1	18,0	18,7	18,8	19,7	20,2	20,8	..	IRL 20,8
이스라엘	ISR	ISR ..
이탈리아	ITA	20,7	20,8	20,8	21,2	21,8	22,6	22,7	23,6	23,6	23,5	ITA 23,5
일본	JPN	21,5	21,9	21,9	22,3	22,2	22,3	22,2	22,3	22,8	23,0	22,3	..	JPN 22,3
한국	KOR	17,3	17,1	16,8	16,5	16,0	16,1	15,9	16,1	15,9	15,7	15,2	..	KOR 15,2
라트비아	LVA	18,1	20,4	21,6	20,6	20,3	20,8	22,8	23,6	23,7	24,2	23,2	..	LVA 23,2
룩셈부르크	LUX	LUX ..
멕시코	MEX	24,0	23,6	23,5	23,6	23,3	22,4	22,2	22,3	21,7	21,8	20,7	..	MEX 20,7
네덜란드	NLD	19,1	18,7	18,4	18,5	18,3	18,5	18,4	18,8	19,2	19,1	19,5	..	NLD 19,5
뉴질랜드	NZL	25,8	25,6	25,0	25,4	25,0	24,9	24,7	25,2	25,6	26,2	NZL 26,2
노르웨이	NOR	17,6	19,3	18,5	18,4	17,9	18,7	18,0	17,7	17,7	17,3	NOR 17,3
폴란드	POL	22,2	22,0	21,8	21,8	22,6	22,7	23,4	22,6	22,0	22,8	22,6	..	POL 22,6
포르투갈	PRT	16,2	16,5	16,9	17,1	17,3	17,8	18,7	19,8	20,0	20,9	21,1	..	PRT 21,1
슬로바키아	SVK	26,1	27,2	26,6	26,5	25,9	25,5	25,9	25,9	25,2	24,3	23,6	..	SVK 23,6
슬로베니아	SVN	18,9	18,6	18,5	18,5	19,8	20,4	20,0	19,7	19,0	18,6	18,3	..	SVN 18,3
스페인	ESP	18,2	19,0	19,7	19,8	19,9	21,0	21,4	22,3	22,5	22,1	21,8	..	ESP 21,8
스웨덴	SWE	21,9	21,5	21,1	20,9	20,9	21,3	20,7	20,0	19,9	19,8	19,6	..	SWE 19,6
스위스	CHE	22,2	22,0	21,6	22,2	21,8	22,2	22,0	21,7	21,5	CHE 21,5
터키	TUR	22,2	21,8	21,4	21,2	20,6	19,8	19,6	..	TUR 19,6
영국	GBR	23,9	24,0	23,9	24,0	23,3	23,4	23,6	23,6	23,9	23,8	23,6	23,7	GBR 23,7
미국	USA	19,5	19,4	19,2	19,0	19,0	18,8	18,5	18,1	18,6	18,4	18,4	..	USA 18,4
OECD	OECD 26	20,8	20,8	20,7	20,7	20,7	20,6	20,6	20,6	20,7	20,6	20,4	..	OECD 33 19,0
콜롬비아	COL	18,3	18,2	17,6	17,1	17,4	17,6	17,1	17,0	16,5	16,4	16,6	..	COL 16,6
코스타리카	CRI	20,1	20,4	19,7	CRI 19,7
리투아니아	LTU	17,5	17,3	18,1	17,6	17,5	17,2	18,9	19,7	19,6	19,9	19,7	..	LTU 19,7
러시아 연방	RUS	19,8	20,2	19,4	18,7	RUS 18,7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19,9	19,6	19,4	19,1	18,9	18,5	18,0	ZAF 18,0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서는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802>

추가 참고자료:

OECD(2011b), *OECD How's Life? 웰빙 측정의 “주거 상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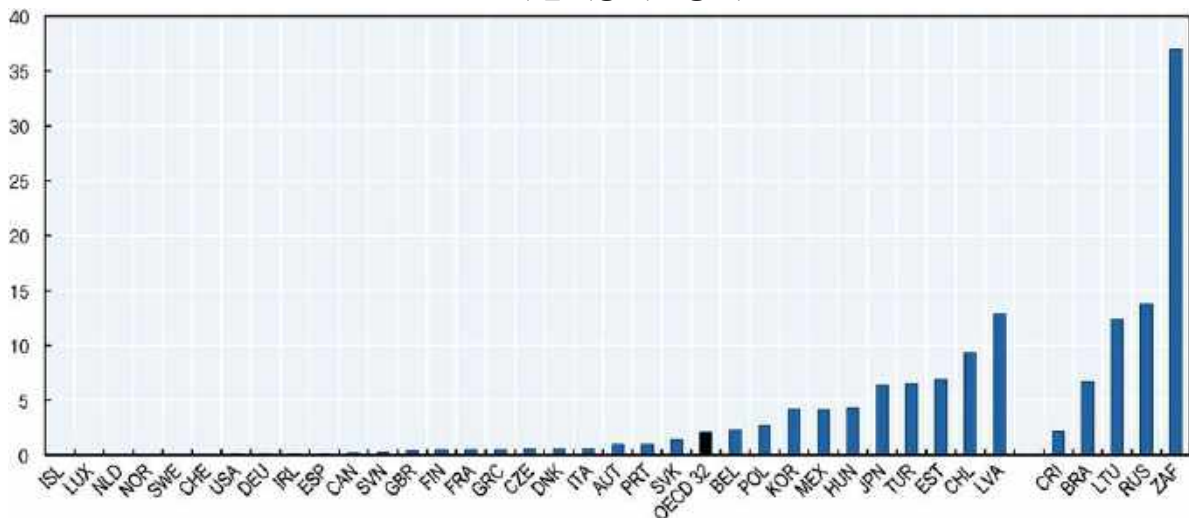
주거: 기본 위생시설

정의

이 지표는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주거지 외부의 수세식 화장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샤워 시설이나 욕조가 있는 방의 수세식 화장실은 포함된다. 데이터 출처는 그림 주석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림 A.18과 표 A.10은 여러 국가의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2005~2010년과 2011~2015년의 평균 값을 보여준다.

그림 A.18.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6년, 러시아의 경우 2014년, 미국의 경우 2013년,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2010년, 칠레의 경우 2001년, 캐나다의 경우 1997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제외되었다.

출처: EU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경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브라질의 경우 Universo do Censo Demográfico 2010,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가정용 시설 및 장비 조사, 칠레의 경우 INE 조사 2002, 2010년 이전 데이터의 경우 코스타리카 가구 및 다목적 조사, 2010년 이후 가구 설문조사, 일본의 경우 주택토지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 2010, 러시아의 경우 ROSSTAT 가구 소득, 지출, 소비 통계 보고서, 미국의 경우 미국주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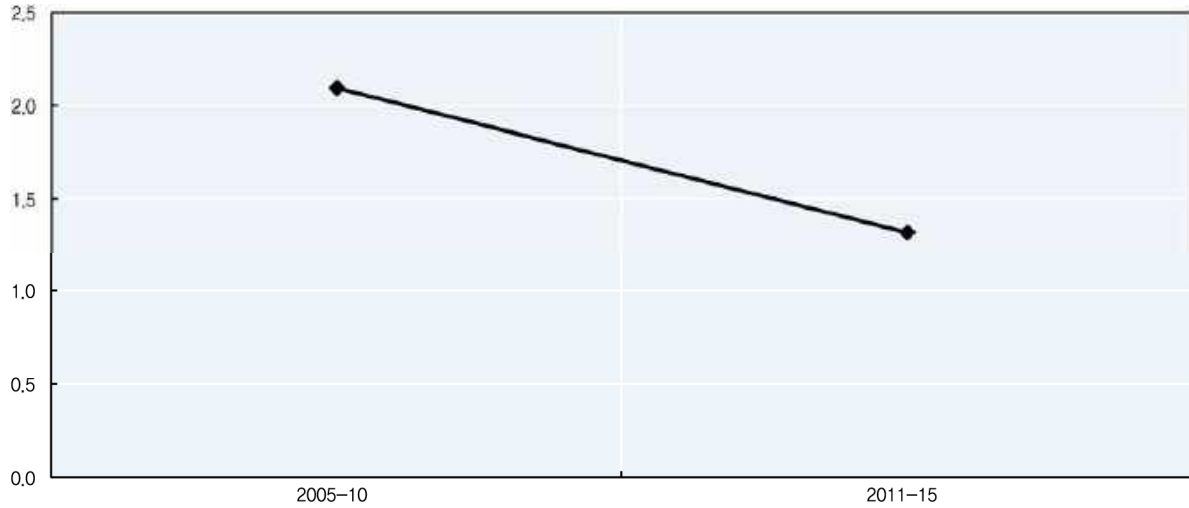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484>

그림 A.19.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 OECD 평균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 OECD 26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EU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경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가정용 시설 및 장비 조사,

칠레의 경우 INE 조사 2002, 일본의 경우 주택토지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 2010, 미국의 경우 미국주택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503>

추가 참고자료:

Balestra, C. 및 J. Sultan(2013), “즐거운 우리 집: 주거 만족도의 결정요인과 웰빙과의 관련성”, *OECD 통계 워킹페이퍼*, No. 2013/05,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zbcx0czc0x-en>

OECD(2011b), *OECD How's Life? 웰빙 측정의 “주거 상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6-en>


표 A.10. 기본 위생시설이 없는 주거지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

		2005-10	2011-15	최근 연도	
호주	AUS	AUS	..
오스트리아	AUT	1.3	1.0	AUT	1.0
벨기에	BEL	0.8	2.0	BEL	2.3
캐나다	CAN	CAN	0.2
칠레	CHL	CHL	9.4
체코	CZE	1.2	0.8	CZE	0.6
덴마크	DNK	0.0	0.5	DNK	0.6
에스토니아	EST	14.1	8.8	EST	6.9
핀란드	FIN	0.8	0.6	FIN	0.5
프랑스	FRA	0.9	0.5	FRA	0.5
독일	DEU	1.3	0.4	DEU	0.1
그리스	GRC	2.6	0.6	GRC	0.5
헝가리	HUN	6.8	4.8	HUN	4.3
아이슬란드	ISL	0.4	0.0	ISL	0.0
아일랜드	IRL	0.4	1.8	IRL	0.1
이스라엘	ISR	ISR	..
이탈리아	ITA	0.2	0.7	ITA	0.6
일본	JPN	6.4	..	JPN	6.4
한국	KOR	5.8	..	KOR	4.2
라트비아	LVA	18.8	14.9	LVA	12.9
룩셈부르크	LUX	0.6	0.2	LUX	0.0
멕시코	MEX	5.5	..	MEX	4.2
네덜란드	NLD	0.0	0.0	NLD	0.0
뉴질랜드	NZL	NZL	..
노르웨이	NOR	0.2	0.1	NOR	0.0
폴란드	POL	5.9	3.3	POL	2.7
포르투갈	PRT	2.8	1.0	PRT	1.0
슬로바키아	SVK	0.9	1.2	SVK	1.4
슬로베니아	SVN	1.0	0.5	SVN	0.3
스페인	ESP	0.2	0.1	ESP	0.1
스웨덴	SWE	0.0	0.0	SWE	0.0
스위스	CHE	0.1	0.1	CHE	0.0
터키	TUR	13.2	8.2	TUR	6.5
영국	GBR	0.7	..	GBR	0.4
미국	USA	0.1	0.1	USA	0.1
OECD	OECD 26	2.1	1.3	OECD 32	2.1
브라질	BRA	6.7	..	BRA	6.7
코스타리카	CRI	3.8	2.4	CRI	2.2
리투아니아	LTU	20.6	14.2	LTU	12.4
러시아 연방	RUS	18.8	14.8	RUS	13.8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41.3	38.0	ZAF	37.0

주: 스위스의 2005-2010 년 값은 2008-2010 년,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2009-2010 년을 나타낸다. 에스토니아의 2011-2015 년 값은 2011-2013 년을 나타낸다. 이는 각각 2008 년, 2009 년, 2014 년에 시계열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의 경우는 2011-2016 년을 나타낸다. 브라질, 캐나다, 한국의 데이터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멕시코의 데이터는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사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러시아의 경우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공공 하수도나 정화조에 연결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전체 주거지의 비율을 나타낸다. 코스타리카,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6 년, 러시아의 경우 2014 년, 미국의 경우 2013 년,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2010 년, 칠레의 경우 2001 년, 캐나다의 경우 1997 년, 다른 모든 국가의 경우 2015 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은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한 OECD 평균에서는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가 제외되었다.

출처: EU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경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브라질의 경우 Universo do Censo Demográfico 2010,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가정용 시설 및 장비 조사, 칠레의 경우 INE 조사 2002, 2010 년 이전 데이터의 경우 코스타리카 가구 및 다목적 조사, 2010 년 이후 가구 설문조사, 일본의 경우 주택토지조사, 한국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멕시코의 경우 INEGI Censo de Población y Vivienda 2010, 러시아의 경우 ROSSTAT 가구 소득, 지출, 소비 통계 보고서, 미국의 경우 미국주택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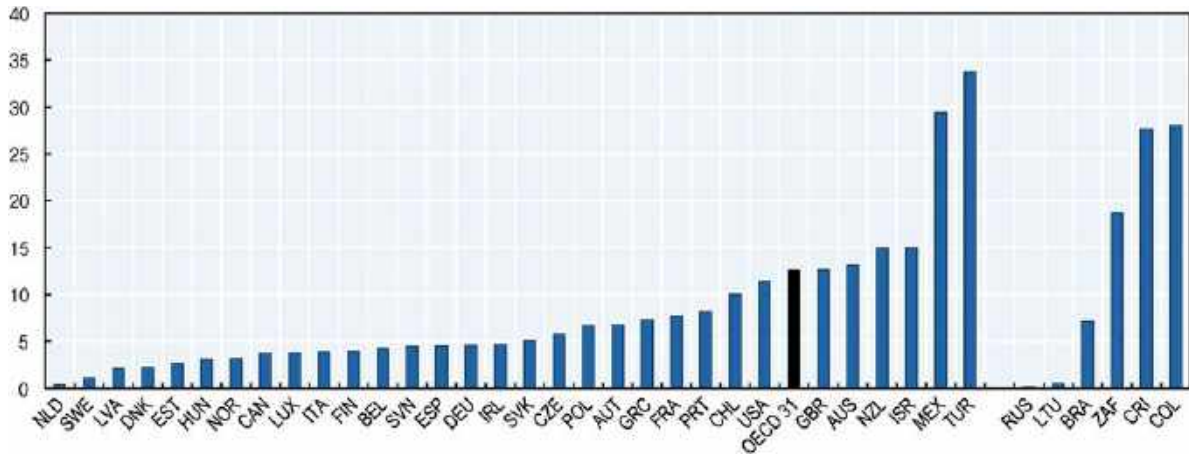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정의

이 지표는 평상 시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 이상인 직원의 수를 나타내며, 모든 연령의 총 직원 수 대비 비율로 표현된다. 자영업 근로자는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계점은 50시간으로 설정된다. 출퇴근, 무급 근로, 기본 요구(수면, 식사 등)를 고려한 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하루 1시간 또는 2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당 48시간 근무로 제한한다. 데이터는 국가 노동력 조사에서 가져온 것이며 국가 간에 광범위하게 비교할 수 있다.

그림 A.20.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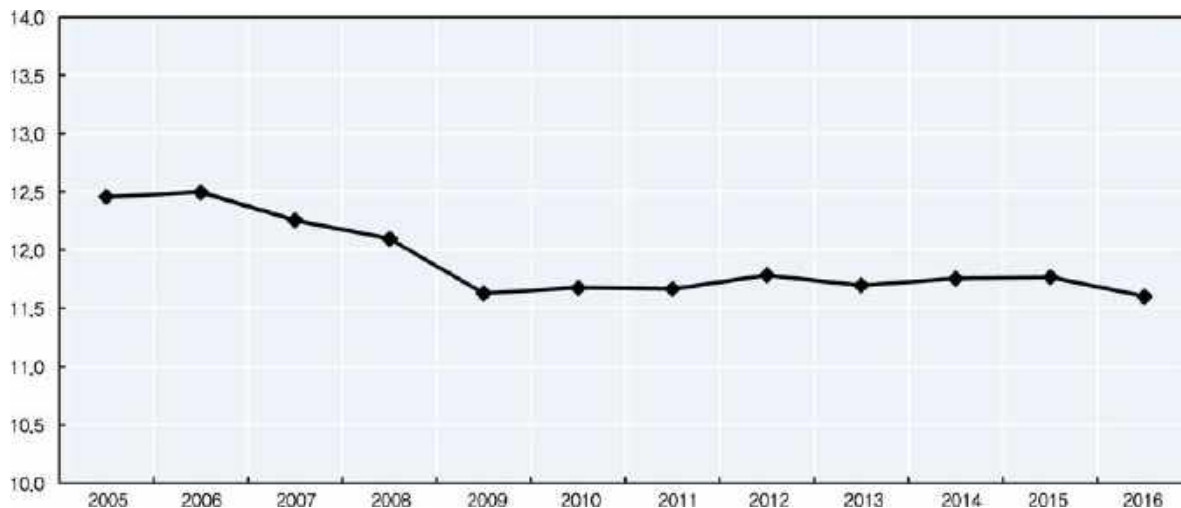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직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단, 데이터가 5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러시아는 예외이다.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의 경우 일자리는 주요 직업이며, 다른 모든 국가의 경우 모든 직업에 해당한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은 제외된다. 계약된 것이 아닐 경우 캐나다, 칠레, 헝가리, 노르웨이의 경우 추가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에서는 규칙적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의 경우 주요 식사 시간은 제외된다. 브라질에서는 세부 내용이 제공되지 않는다. 브라질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522>

그림 A.21.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 OECD 평균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OECD 24



주: 데이터는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직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단, 데이터가 5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러시아는 예외이다. 캐나다, 칠레, 체코,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의 경우 일자리는 주요 직업이며 다른 모든 국가의 경우 모든 직업에 해당된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은 제외된다. 계약된 것이 아닐 경우 캐나다, 칠레, 헝가리, 노르웨이의 경우 추가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에서는 규칙적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의 경우 주요 식사 시간은 제외된다. 브라질에서는 세부 내용이 제공되지 않는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 및/또는 데이터 중단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541>

표 A.11. 매우 장시간 일하는 직원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15.3	14.8	14.9	14.9	14.3	14.0	14.2	14.3	14.1	13.4	13.5	13.2	AUS 13.2
오스트리아	AUT	11.0	10.7	10.8	10.5	9.5	9.0	8.7	8.5	7.6	7.3	7.2	6.8	AUT 6.8
벨기에	BEL	4.4	4.3	4.6	4.3	4.2	4.5	4.4	4.4	4.6	4.7	4.3	4.3	BEL 4.3
캐나다	CAN	4.7	4.6	4.4	4.2	3.9	3.9	4.1	4.0	4.0	3.8	3.8	3.7	CAN 3.7
칠레	CHL	7.2	9.7	8.2	8.1	8.5	17.3	16.3	15.4	13.5	13.2	11.3	10.1	CHL 10.1
체코	CZE	9.0	8.8	9.4	9.6	9.3	8.8	7.6	7.2	7.0	6.0	6.1	5.8	CZE 5.8
덴마크	DNK	5.7	5.5	2.5	2.2	1.9	2.0	2.0	2.1	2.0	2.2	2.5	2.2	DNK 2.2
에스토니아	EST	5.1	5.5	5.1	3.6	3.0	3.7	4.2	3.7	3.4	3.4	3.4	2.7	EST 2.7
핀란드	FIN	4.5	4.5	4.0	3.9	3.6	3.9	3.9	3.7	3.6	3.6	3.7	3.9	FIN 3.9
프랑스	FRA	8.3	8.0	8.0	8.4	8.6	8.6	8.9	8.7	8.1	7.6	7.6	7.8	FRA 7.8
독일	DEU	4.5	4.7	4.6	4.8	5.3	5.1	5.4	5.6	5.3	5.0	4.8	4.6	DEU 4.6
그리스	GRC	6.6	6.0	5.6	5.6	5.6	5.1	5.2	5.6	6.1	6.4	6.5	7.3	GRC 7.3
헝가리	HUN	4.6	4.4	4.3	3.9	3.4	3.2	3.1	2.9	3.2	3.8	3.8	3.0	HUN 3.0
아이슬란드	ISL	ISL ..
아일랜드	IRL	4.7	4.2	4.0	3.7	3.4	3.7	3.9	4.2	4.2	4.1	4.6	4.7	IRL 4.7
이스라엘	ISR	22.0	21.9	22.9	21.2	18.8	19.1	17.8	19.0	16.1	14.8	15.1	15.0	ISR 15.0
이탈리아	ITA	5.4	5.8	5.4	5.3	4.6	4.6	4.0	3.7	3.6	3.8	3.9	3.9	ITA 3.9
일본	JPN	JPN ..
한국	KOR	KOR ..
라트비아	LVA	11.5	11.5	8.3	5.8	4.6	2.5	2.3	2.6	2.3	2.5	2.4	2.1	LVA 2.1
룩셈부르크	LUX	1.3	0.4	0.0	0.1	3.5	3.7	2.6	3.2	3.5	3.3	3.7	3.8	LUX 3.8
멕시코	MEX	29.2	29.4	29.2	29.4	29.1	29.4	28.7	29.0	29.0	28.8	29.6	29.5	MEX 29.5
네덜란드	NLD	0.6	0.7	0.6	0.6	0.6	0.7	0.7	0.6	0.4	0.5	0.5	0.5	NLD 0.5
뉴질랜드	NZL	15.7	14.9	14.7	14.2	13.4	13.8	13.3	13.3	14.1	14.0	13.6	15.0	NZL 15.0
노르웨이	NOR	3.1	3.5	3.5	3.2	3.0	2.7	2.8	3.1	2.8	3.1	3.2	3.2	NOR 3.2
폴란드	POL	10.0	9.3	9.1	8.6	7.6	7.4	7.3	7.6	7.4	7.3	6.9	6.7	POL 6.7
포르투갈	PRT	5.3	4.9	5.2	5.6	5.2	5.4	8.5	9.3	9.6	9.8	8.8	8.2	PRT 8.2
슬로바키아	SVK	6.3	6.9	7.1	7.1	5.7	5.4	6.1	6.5	7.0	6.2	5.6	5.0	SVK 5.0
슬로베니아	SVN	8.5	7.8	7.7	8.2	6.8	6.1	5.6	5.7	5.6	5.5	5.4	4.5	SVN 4.5
스페인	ESP	8.6	8.3	7.8	7.4	6.9	6.6	6.3	5.9	5.9	5.6	5.2	4.5	ESP 4.5
스웨덴	SWE	1.2	1.2	1.1	1.1	1.2	1.3	1.2	1.1	1.1	1.1	1.1	1.1	SWE 1.1
스위스	CHE	CHE ..
터키	TUR	..	49.7	47.4	46.2	45.3	45.6	46.1	43.3	40.9	39.2	36.7	33.8	TUR 33.8
영국	GBR	13.0	12.6	12.7	12.6	12.0	11.8	12.2	12.4	12.8	13.0	13.0	12.7	GBR 12.7
미국	USA	11.8	12.1	11.7	11.4	10.8	11.0	11.3	11.6	11.4	11.8	11.6	11.4	USA 11.4
OECD	OECD 24	12.5	12.5	12.3	12.1	11.6	11.7	11.7	11.8	11.7	11.8	11.8	11.6	OECD 31 12.6
브라질	BRA	15.5	15.0	14.5	13.8	12.5	..	10.7	10.4	9.5	8.5	7.1	..	BRA 7.1
콜롬비아	COL	37.1	..	36.5	34.4	33.6	35.0	35.4	34.3	33.4	30.6	29.2	28.1	COL 28.1
코스타리카	CRI	32.8	28.1	26.5	27.0	27.1	28.6	27.6	CRI 27.6
리투아니아	LTU	1.4	1.2	1.2	1.3	0.8	0.6	0.5	0.4	0.2	0.5	0.6	0.6	LTU 0.6
러시아 연방	RUS	0.3	0.2	0.2	0.3	0.2	0.2	0.2	0.2	0.2	0.2	0.2	0.2	RUS 0.2
남아프리카	ZAF	23.8	20.7	19.5	19.2	18.7	18.5	18.1	18.4	18.7	ZAF 18.7

주: 데이터는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직원의 비율을 나타낸다. 단, 데이터가 5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러시아는 예외이다. 캐나다, 칠레, 체코,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의 경우 일자리는 주요 직업이며 다른 모든 국가의 경우 모든 직업에 해당된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직원은 제외된다. 계약된 것이 아닐 경우 캐나다, 칠레, 헝가리, 노르웨이의 경우 추가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에서는 규칙적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의 경우 주요 식사 시간은 제외된다. 브라질에서는 세부 내용이 제공되지 않는다. 설문조사의 재설계로 인해 칠레의 경우 2010년에 데이터가 중단되었고, 독일과 포르투갈은 2011년에 중단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2006년에 실업의 정의가 바뀌었다. 2012년 이스라엘은 노동력의 정의를 “민간인”에서 “총 합계”(의무 또는 영구 병역 중인 사람 포함)로 변경했다. 중단 전 설문은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칠레,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서는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스위스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동력 통계”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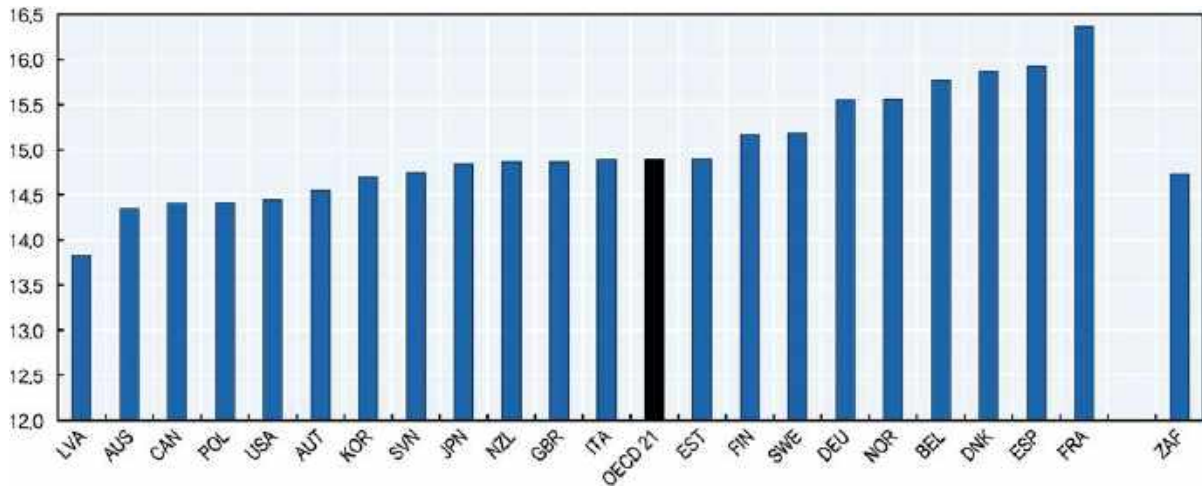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840>

일과 삶의 균형: 휴식 시간

정의

이 지표는 정규 직원이 레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표시된 값은 고용률이 다른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날과 정규 직원만을 나타낸다. 이 정보는 국가별 시간 사용 조사를 통해 수집되며, 참가자는 특정 기간 동안 하루 또는 여러 대표적인 날에 대해 자신의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한 시간”이라는 정의에 따라 고려한 활동에는 수면, 식사, 위생, 운동, 친구 및 가족과 보낸 시간,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요된 이동 시간이 포함된다. 일부 국가와 일부 특정 활동 유형의 경우 이러한 조사의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OECD에 의해 사후에 조화되었다. 데이터는 유럽통합생활시간조사(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Eurostat 시간 사용 데이터베이스, 공용 시간 사용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통계청의 표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A.22.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
정규 직원의 일일 시간, 최신 연도



주: 미국의 경우 데이터는 2016 년, 영국의 경우 2014-2015 년, 일본의 경우 2011 년, 캐나다,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0 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 2009-2010 년, 한국의 경우 2009 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9 년, 호주의 경우 2006 년, 벨기에의 경우 2005 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 년, 독일의 경우 2001-2002 년, 덴마크의 경우 2001 년,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의 경우 2000-2001 년이다. 데이터는 일일 1,440 분으로 표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사용이 1,440 분으로 요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 시간(일반적으로 약 30-40 분)은 모든 활동에 비례하게 분배되었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터는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조사 표본에는 뉴질랜드의 경우 12 세 이상,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의 경우 15 세 이상,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74 세, 한국의 경우 20 세 이상이 포함된다.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에서는 정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당 최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각각 30, 35, 36, 35 로 설정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유럽 국가의 경우 유럽통합생활시간조사(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웹 애플리케이션(www.tus.scb.se)에 기반한 OECD 계산, Eurostat 데이터베이스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비유럽 국가의 경우 통계청의 공공 시간 사용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및 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560>

표 A.12. 여가와 개인 생활에 소비하는 시간
정규 직원의 일일 시간,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최근 연도
호주	AUS	14.4
오스트리아	AUT	14.6
벨기에	BEL	15.8
캐나다	CAN	14.4
칠레	CHL	..
체코	CZE	..
덴마크	DNK	15.9
에스토니아	EST	14.9
핀란드	FIN	15.2
프랑스	FRA	16.4
독일	DEU	15.6
그리스	GRC	..
헝가리	HUN	..
아이슬란드	ISL	..
아일랜드	IRL	..
이스라엘	ISR	..
이탈리아	ITA	14.9
일본	JPN	14.9
한국	KOR	14.7
라트비아	LVA	13.8
룩셈부르크	LUX	..
멕시코	MEX	..
네덜란드	NLD	..
뉴질랜드	NZL	14.9
노르웨이	NOR	15.6
폴란드	POL	14.4
포르투갈	PRT	..
슬로바키아	SVK	..
슬로베니아	SVN	14.8
스페인	ESP	15.9
스웨덴	SWE	15.2
스위스	CHE	..
터키	TUR	..
영국	GBR	14.9
미국	USA	14.4
OECD	OECD 21	14.9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14.7

주: 미국의 경우 데이터는 2016년, 영국의 경우 2014~2015년, 일본의 경우 2011년, 캐나다,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 2009~2010년, 한국의 경우 2009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경우 2008~2009년, 호주의 경우 2006년, 벨기에의 경우 2005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의 경우 2000~2001년이다. 데이터는 일일 1,440분으로 표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사용이 1,440분으로 요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 시간(일반적으로 약 30~40분)은 모든 활동에 비례하게 분배되었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터는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조사 표본에는 뉴질랜드의 경우 12세 이상,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의 경우 15세 이상, 벨기에,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74세, 한국의 경우 20세 이상이 포함된다. 캐나다, 일본, 한국, 미국에서는 정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최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의하여 각각 30, 35, 36, 35로 설정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유럽 국가의 경우 유럽통합생활시간조사(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 웹 애플리케이션 (www.tus.scb.se)에 기반한 OECD 계산, Eurostat 데이터베이스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tus_00selfstat&lang=en, 비유럽 국가의 경우 공공 시간 사용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및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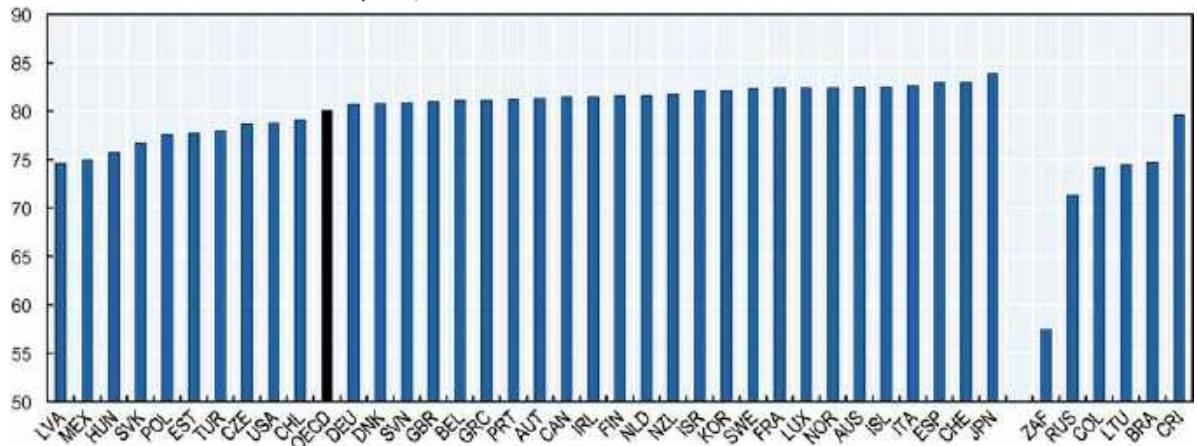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859>

건강 상태: 기대수명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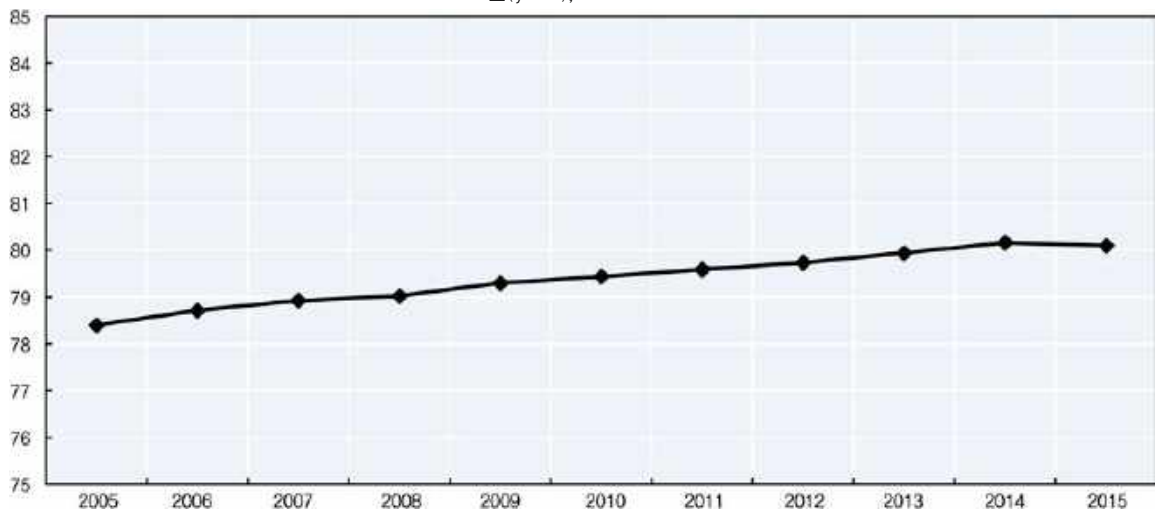
이 지표는 현재 우세한 연령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현재 태어난 사람들이 생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년 수를 측정한다. 전체 인구의 출생 시 기대여명은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 데이터는 OECD에서 수집하고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국가 통계와 Eurostat의 계산에 기반한다.

그림 A.23. 출생 시 기대여명
년(year),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캐나다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2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579>

그림 A.24. 출생 시 기대여명, OECD 평균
년(year), OECD 27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벨기에, 캐나다,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598>


표 A.13. 출생 시 기대여명

년(year)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최근연도	
호주	AUS	80.9	81.1	81.4	81.5	81.6	81.8	82.0	82.1	82.2	82.4	82.5	AUS	82.5
오스트리아	AUT	79.4	80.0	80.3	80.5	80.4	80.7	81.1	81.0	81.2	81.6	81.3	AUT	81.3
벨기에	BEL	79.1	79.5	79.9	79.8	80.1	80.3	80.7	80.5	80.7	81.4	81.1	BEL	81.1
캐나다	CAN	80.1	80.4	80.4	80.6	80.8	81.0	81.3	81.5	CAN	81.5
칠레	CHL	77.6	78.0	77.5	78.1	78.2	78.0	78.7	78.7	79.5	79.7	79.1	CHL	79.1
체코	CZE	76.1	76.7	77.0	77.3	77.4	77.7	78.0	78.2	78.3	78.9	78.7	CZE	78.7
덴마크	DNK	78.3	78.4	78.4	78.8	79.0	79.3	79.9	80.1	80.4	80.8	80.8	DNK	80.8
에스토니아	EST	72.9	73.1	73.2	74.2	75.2	75.9	76.4	76.5	77.3	77.2	77.7	EST	77.7
핀란드	FIN	79.1	79.5	79.6	79.9	80.1	80.2	80.6	80.7	81.1	81.3	81.6	FIN	81.6
프랑스	FRA	80.4	81.0	81.2	81.4	81.5	81.8	82.3	82.1	82.3	82.8	82.4	FRA	82.4
독일	DEU	79.4	79.8	80.1	80.2	80.3	80.5	80.5	80.6	80.6	81.2	80.7	DEU	80.7
그리스	GRC	79.7	79.9	79.7	80.3	80.4	80.7	80.8	80.7	81.4	81.5	81.1	GRC	81.1
헝가리	HUN	73.0	73.5	73.6	74.2	74.4	74.7	75.0	75.2	75.7	75.9	75.7	HUN	75.7
아이슬란드	ISL	81.6	81.2	81.5	81.7	81.8	82.0	82.4	83.0	82.1	82.9	82.5	ISL	82.5
아일랜드	IRL	79.0	79.3	79.7	80.2	80.3	80.8	80.8	80.9	81.1	81.4	81.5	IRL	81.5
이스라엘	ISR	80.2	80.6	80.6	81.0	81.5	81.7	81.7	81.8	82.1	82.2	82.1	ISR	82.1
이탈리아	ITA	80.9	81.4	81.5	81.6	81.7	82.1	82.3	82.3	82.8	83.2	82.6	ITA	82.6
일본	JPN	82.0	82.4	82.6	82.7	83.0	82.9	82.7	83.2	83.4	83.7	83.9	JPN	83.9
한국	KOR	78.2	78.8	79.2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KOR	82.1
라트비아	LVA	70.6	70.6	70.8	72.0	72.6	73.0	73.7	73.9	74.1	74.3	74.6	LVA	74.6
룩셈부르크	LUX	79.5	79.4	79.5	80.6	80.7	80.7	81.1	81.5	81.9	82.3	82.4	LUX	82.4
멕시코	MEX	74.0	74.1	74.2	74.1	74.0	74.1	74.2	74.4	74.6	74.8	75.0	MEX	75.0
네덜란드	NLD	79.5	79.9	80.3	80.5	80.8	81.0	81.3	81.2	81.4	81.8	81.6	NLD	81.6
뉴질랜드	NZL	79.8	80.1	80.3	80.5	80.7	80.8	81.0	81.2	81.4	81.5	81.7	NZL	81.7
노르웨이	NOR	80.3	80.6	80.6	80.8	81.0	81.2	81.4	81.5	81.8	82.2	82.4	NOR	82.4
폴란드	POL	75.1	75.3	75.4	75.7	75.8	76.5	76.8	76.9	77.1	77.7	77.6	POL	77.6
포르투갈	PRT	78.2	79.0	79.2	79.5	79.7	80.0	80.6	80.5	80.8	81.2	81.2	PRT	81.2
슬로바키아	SVK	74.2	74.4	74.5	75.0	75.3	75.6	76.1	76.2	76.5	76.9	76.7	SVK	76.7
슬로베니아	SVN	77.4	78.3	78.3	79.1	79.3	79.8	80.1	80.2	80.4	81.2	80.9	SVN	80.9
스페인	ESP	80.3	81.1	81.2	81.5	81.9	82.4	82.6	82.5	83.2	83.3	83.0	ESP	83.0
스웨덴	SWE	80.7	81.0	81.1	81.3	81.5	81.6	81.9	81.8	82.0	82.3	82.3	SWE	82.3
스위스	CHE	81.4	81.7	82.0	82.2	82.3	82.6	82.8	82.8	82.9	83.3	83.0	CHE	83.0
터키	TUR	73.1	73.4	73.7	73.9	74.1	74.3	74.6	74.6	78.0	78.0	78.0	TUR	78.0
영국	GBR	79.2	79.5	79.7	79.8	80.4	80.6	81.0	81.0	81.1	81.4	81.0	GBR	81.0
미국	USA	77.6	77.8	78.1	78.1	78.5	78.6	78.7	78.8	78.8	78.9	78.8	USA	78.8
OECD	OECD 27	78.4	78.7	78.9	79.0	79.3	79.4	79.6	79.7	79.9	80.2	80.1	OECD	80.1
브라질	BRA	71.8	72.1	72.4	72.7	73.0	73.3	73.6	73.8	74.1	74.4	74.7	BRA	74.7
콜롬비아	COL	72.3	72.5	72.7	72.9	73.1	73.3	73.5	73.6	73.8	74.0	74.2	COL	74.2
코스타리카	CRI	78.1	78.2	78.3	78.5	78.6	78.7	78.9	79.1	79.2	79.4	79.6	CRI	79.6
리투아니아	LTU	71.3	71.1	70.9	71.8	72.9	73.3	73.7	74.0	74.1	74.7	74.5	LTU	74.5
러시아 연방	RUS	65.7	66.9	67.7	68.1	68.8	69.0	69.8	70.2	70.7	70.9	71.3	RUS	71.3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51.6	51.6	52.0	52.6	53.5	54.4	55.3	56.1	56.7	57.2	57.4	ZAF	57.43

주: 캐나다의 경우 2007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8년, 이스라엘과 폴란드의 경우 2009년, 벨기에의 경우 2011년,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2012년, 터키의 경우 2013년, 러시아의 경우 2014년에 데이터 중단이 있다. 중단 전 셀은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벨기에, 캐나다,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터키는 데이터 중단 및/또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한 평균은 전체 OECD 국가를 고려한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878>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한눈에 보는 보건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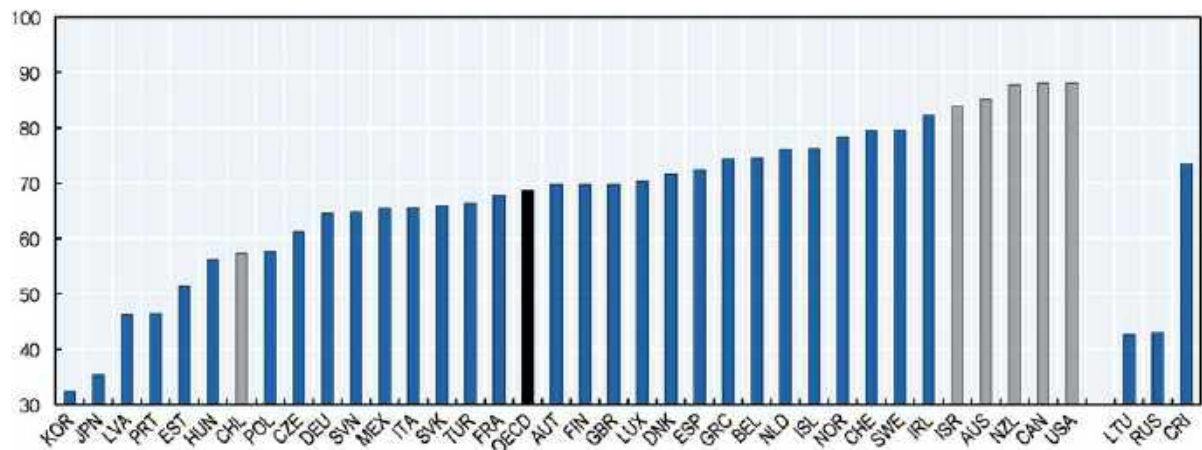
건강 상태: 인지된 건강

정의

이 지표는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16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지표는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기초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응답 범주는 “매우 양호/양호/보통/나쁨/매우 나쁨”이다. 측정 방법론(예: 서로 다른 응답 척도 사용)의 국가 간 차이는 그림 A.25의 주석에 설명된 것처럼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데이터는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수집되며,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일반적인 가구 설문조사 또는 여러 국가에서 국가 공식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보다 자세한 건강 인터뷰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A.25. 인지된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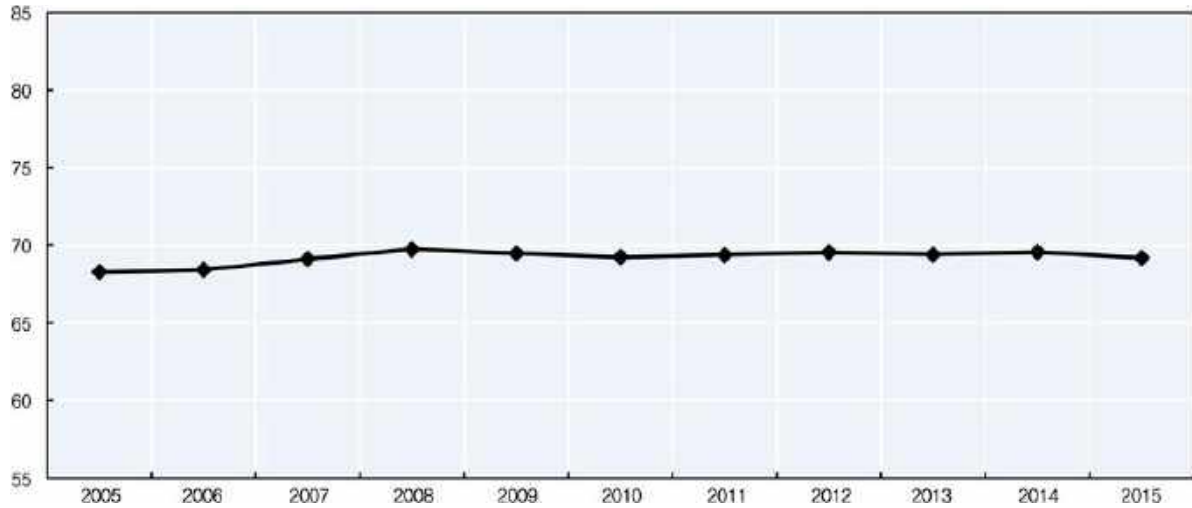
주: 성인은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미국의 데이터는 15세 이상, 이스라엘의 데이터는 20세 이상을 가리킨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6년, 호주, 캐나다의 경우 2014년, 일본의 경우 2013년, 멕시코의 경우 2006년이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회색으로 표시)의 데이터는 사용된 보고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데이터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보고된 추정치가 상향 편향될 수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및 코스타리카의 국민 건강 조사에 기반한 INEC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617>

그림 A.26. 인지된 건강 상태, OECD 평균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OECD 32



주: 성인은 일반적으로 16 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미국의 데이터는 15 세 이상, 이스라엘의 데이터는 20 세 이상을 가리킨다. OECD 평균 시계열은 일부 국가의 시계열에서 누락된 데이터 포인트를 내삽하여 추정되었다. 이 경우, 누락된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이전 해와 다음 해의 평균으로 대체되었다. 시계열에 최소 3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고 그 중 적어도 하나가 2014 년이나 2013 년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OECD 평균에 포함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와 스위스(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멕시코(단 2 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제공)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636>

표 A.14. 인지된 건강 상태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성인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5 or 근접 연도	2015 or 최근 연도	
호주	AUS	84.9	85.4	85.2	AUS	84.9	85.2
오스트리아	AUT	71.7	72.0	72.3	70.0	70.0	69.6	69.4	70.0	68.6	69.5	69.8	..	AUT	71.7	69.8
벨기에	BEL	73.1	74.3	74.0	73.9	73.5	73.0	73.5	74.5	74.3	75.0	74.6	..	BEL	73.1	74.6
캐나다	CAN	88.4	..	88.2	88.1	88.5	88.1	88.2	88.8	88.7	88.1	CAN	88.4	88.1
칠레	CHL	..	52.6	59.1	64.5	..	57.4	..	CHL	64.5	57.4
체코	CZE	58.9	59.2	61.2	61.4	61.3	62.2	59.4	60.4	59.6	60.7	61.2	..	CZE	58.9	61.2
덴마크	DNK	76.6	75.0	75.3	74.2	72.3	71.0	70.8	70.7	71.7	72.4	71.6	..	DNK	76.6	71.6
에스토니아	EST	53.8	53.2	53.3	54.5	51.5	52.7	51.8	52.4	53.4	51.8	51.4	..	EST	53.8	51.4
핀란드	FIN	68.5	68.7	68.3	68.6	68.9	68.3	68.8	67.1	64.6	69.2	69.8	..	FIN	68.5	69.8
프랑스	FRA	68.7	69.3	71.1	69.1	68.6	67.3	67.6	68.1	67.2	68.1	67.8	..	FRA	68.7	67.8
독일	DEU	60.1	60.5	59.8	64.5	65.2	65.2	64.8	65.4	64.9	65.2	64.5	..	DEU	60.1	64.5
그리스	GRC	77.4	76.7	76.6	76.0	75.3	75.5	76.4	74.9	73.9	73.5	74.4	..	GRC	77.4	74.4
헝가리	HUN	45.3	48.0	46.6	55.1	55.9	55.0	55.9	57.6	56.9	57.5	56.3	..	HUN	45.3	56.3
아이슬란드	ISL	79.5	80.9	79.2	80.5	80.3	77.8	77.6	76.8	76.6	76.1	76.3	..	ISL	79.5	76.3
아일랜드	IRL	82.7	83.1	84.0	84.3	83.1	82.8	83.2	82.7	82.0	82.5	82.3	..	IRL	82.7	82.3
이스라엘	ISR	77.3	78.9	79.1	79.7	79.8	81.1	81.5	83.5	80.0	84.3	83.9	..	ISR	77.3	83.9
이탈리아	ITA	58.1	56.8	63.4	63.5	63.7	66.7	64.6	68.4	66.1	67.9	65.6	..	ITA	58.1	65.6
일본	JPN	32.7	30.0	35.4	JPN	32.7	35.4
한국	KOR	43.9	43.7	44.8	37.6	36.8	33.3	35.1	32.5	32.5	..	KOR	43.9	32.5
라트비아	LVA	35.0	40.4	42.5	43.5	46.0	47.8	46.0	46.7	45.2	45.8	46.2	..	LVA	35	46.2
룩셈부르크	LUX	73.6	74.2	74.4	74.0	73.9	75.3	72.5	73.8	71.9	72.8	70.4	..	LUX	73.6	70.4
멕시코	MEX	65.6	65.5	MEX	65.6	65.5
네덜란드	NLD	76.3	76.8	76.3	77.3	77.6	78.0	76.3	75.6	75.6	77.3	76.2	..	NLD	76.3	76.2
뉴질랜드	NZL	89.7	89.3	89.5	91.4	88.9	87.8	NZL	89.7	87.8
노르웨이	NOR	77.0	74.4	76.4	76.6	76.5	76.7	73.2	78.7	76.0	78.5	78.3	..	NOR	77	78.3
폴란드	POL	54.3	54.5	56.8	57.7	56.1	57.8	57.6	57.7	58.3	58.1	57.8	..	POL	54.3	57.8
포르투갈	PRT	45.8	48.0	45.8	48.3	47.7	49.2	49.7	48.0	46.1	45.9	46.4	..	PRT	45.8	46.4
슬로바키아	SVK	52.0	52.0	52.9	59.6	61.9	63.5	63.2	65.7	65.9	64.7	65.9	..	SVK	52	65.9
슬로베니아	SVN	53.6	56.3	57.8	58.8	59.7	59.6	60.4	63.1	64.8	64.8	64.8	..	SVN	53.6	64.8
스페인	ESP	66.8	67.7	67.5	72.4	70.6	71.8	75.3	74.3	71.6	72.6	72.4	..	ESP	66.8	72.4
스웨덴	SWE	75.6	75.9	77.6	78.4	79.7	80.0	79.9	80.9	81.1	80.1	79.7	..	SWE	75.6	79.7
스위스	CHE	84.0	81.3	80.9	81.5	81.2	81.9	80.7	79.3	79.6	..	CHE	81.3	79.6
터키	TUR	..	63.4	66.8	68.0	65.1	66.0	67.2	68.6	67.8	68.1	66.4	..	TUR	63.4	66.4
영국	GBR	74.8	76.6	77.4	79.2	78.2	79.4	77.5	74.7	73.7	70.0	69.8	..	GBR	74.8	69.8
미국	USA	88.4	88.2	87.9	87.8	87.9	87.6	87.3	87.5	87.5	88.1	88.1	..	USA	88.4	88.1
OECD	OECD 32	68.3	68.4	69.1	69.7	69.5	69.3	69.4	69.5	69.4	69.6	69.2	..	OECD	68.1	68.7
코스타리카	CRI	..	73.5	LTU	42.4	42.6
리투아니아	LTU	42.4	43.3	48.5	48.3	48.0	50.2	43.9	44.3	46.1	44.9	42.6	..	RUS	38.1	43.0
러시아 연방	RUS	38.1	..	39.1	..	43.0			

주: 성인은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미국의 데이터는 15세 이상, 이스라엘의 데이터는 20세 이상을 가리킨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의 데이터는 보고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데이터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보고된 추정치가 상향 편향될 수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시계열은 누락된 데이터를 각 국가의 시계열에서 가장 가까운 이전 해와 다음 해의 평균으로 대체하여 추정되었다. 시계열에 최소 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고 그 중 적어도 하나가 2014년이나 2013년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OECD 평균에 포함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와 스위스(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멕시코(단 2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제공)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 상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및 코스타리카의 국민 건강 조사에 기반한 INEC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897>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한눈에 보는 보건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교육과 역량: 교육 성취도

정의

이 지표는 동일 연령의 전체 인구에 대해 최소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 성인의 수를 나타낸다. “최소 고등교육”의 정의는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2011) 수준 3 이상에 해당하며, i) 추가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반적으로” 정의된 프로젝트, ii) 직업 교육 및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에 맞춰진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 이 지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국가교육성취도범주(National Educational Attainment Categories, NEAC)의 연간 OECD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며 국가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A.27.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고등교육 성취도

최소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의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ISCED-97 분류에 기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ISCED 2011 분류에 따라 수집된다. 브라질, 칠레, 아일랜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 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일본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한눈에 보는 교육(데이터베이스)의 “교육 성취도 및 노동력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655>


표 A.15. 생산가능인구 중 성인의 고등교육 성취도

최소 고등교육을 받은 25~64세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65.0	66.7	68.2	69.9	71.0	73.2	74.1	76.4	75.7	77.1	79.0	79.9	AUS	79.9
오스트리아	AUT	76.9	80.1	79.9	80.9	81.6	82.4	82.4	82.9	83.0	83.9	84.6	84.5	AUT	84.5
벨기에	BEL	66.1	66.9	68.0	69.6	70.6	70.5	71.3	71.6	72.8	73.6	74.7	75.1	BEL	75.1
캐나다	CAN	85.2	85.5	86.5	87.0	87.5	88.3	88.6	89.0	89.5	90.0	90.4	90.6	CAN	90.6
칠레	CHL	56.5	..	57.7	..	61.4	..	64.9	..	CHL	64.9
체코	CZE	89.9	90.3	90.5	90.9	91.4	91.9	92.3	92.5	92.8	93.2	93.2	93.4	CZE	93.4
덴마크	DNK	81.0	81.6	74.3	73.8	74.8	75.6	76.9	77.9	78.3	79.6	80.4	80.7	DNK	80.7
에스토니아	EST	88.7	88.3	88.8	88.3	88.7	89.1	89.0	89.9	90.5	88.1	88.6	88.9	EST	88.9
핀란드	FIN	78.8	79.6	80.5	81.1	82.0	83.0	83.7	84.8	85.9	86.5	87.2	87.9	FIN	87.9
프랑스	FRA	66.8	67.4	68.5	69.6	70.3	70.8	71.6	72.5	74.8	77.3	77.5	78.1	FRA	78.1
독일	DEU	83.1	83.2	84.4	85.3	85.5	85.8	86.3	86.3	86.3	86.9	86.8	86.5	DEU	86.5
그리스	GRC	57.7	59.2	60.1	61.3	61.5	62.7	64.6	65.8	67.2	68.3	70.2	71.7	GRC	71.7
헝가리	HUN	76.4	78.1	79.2	79.7	80.6	81.3	81.8	82.1	82.5	83.1	83.2	83.4	HUN	83.4
아이슬란드	ISL	68.2	68.7	69.2	69.1	70.0	70.7	70.8	70.8	72.2	73.3	74.7	78.0	ISL	78.0
아일랜드	IRL	64.5	66.3	67.7	69.5	71.2	72.8	73.6	74.6	76.7	78.8	79.8	..	IRL	79.8
이스라엘	ISR	78.9	..	80.4	81.2	81.8	82.1	83.0	84.5	85.0	85.4	85.5	86.8	ISR	86.8
이탈리아	ITA	50.1	51.3	52.3	53.3	54.3	55.2	56.0	57.2	58.2	59.3	59.9	60.1	ITA	60.1
일본	JPN	JPN	..
한국	KOR	75.5	76.7	77.9	79.1	79.9	80.4	81.4	82.4	83.7	85.0	85.8	86.9	KOR	86.9
라트비아	LVA	84.4	84.1	84.6	85.9	86.8	88.6	87.9	89.1	89.4	86.7	87.8	88.7	LVA	88.7
룩셈부르크	LUX	65.9	65.5	65.7	67.9	77.3	77.7	77.3	78.3	80.5	82.0	74.6	78.8	LUX	78.8
멕시코	MEX	28.2	29.0	29.6	29.9	31.3	32.1	33.1	34.0	34.8	35.1	35.7	36.6	MEX	36.6
네덜란드	NLD	71.8	72.4	73.2	73.3	73.4	73.0	72.3	73.4	75.8	75.9	76.4	77.1	NLD	77.1
뉴질랜드	NZL	74.1	74.7	76.6	NZL	76.6
노르웨이	NOR	77.2	78.9	78.9	80.7	80.7	80.6	81.9	82.1	82.4	81.9	82.4	82.2	NOR	82.2
폴란드	POL	85.1	85.8	86.3	87.1	88.0	88.5	88.9	89.6	90.1	90.5	90.8	91.3	POL	91.3
포르투갈	PRT	26.5	27.6	27.5	28.2	29.9	31.9	35.0	37.6	40.0	43.3	45.1	46.9	PRT	46.9
슬로바키아	SVK	87.9	88.8	89.2	89.9	90.9	91.0	91.3	91.7	91.8	90.8	91.3	91.7	SVK	91.7
슬로베니아	SVN	80.3	81.6	81.8	82.0	83.3	83.3	84.5	85.0	85.5	85.7	86.8	87.3	SVN	87.3
스페인	ESP	48.8	49.7	50.6	51.1	51.6	52.9	54.0	54.7	55.5	56.6	57.4	58.3	ESP	58.3
스웨덴	SWE	83.6	84.1	84.6	85.0	85.7	86.3	87.0	87.5	88.2	81.6	82.0	82.7	SWE	82.7
스위스	CHE	85.2	85.4	86.0	86.8	86.9	85.0	84.8	85.7	86.4	87.2	87.3	87.4	CHE	87.4
터키	TUR	28.1	29.1	29.6	30.3	31.1	31.2	32.1	33.9	34.8	35.6	37.0	38.5	TUR	38.5
영국	GBR	66.8	70.9	72.2	71.6	73.7	75.1	76.8	78.1	79.2	79.2	79.6	80.7	GBR	80.7
미국	USA	87.8	87.8	87.9	88.7	88.6	89.0	89.3	89.3	89.6	89.6	89.5	90.1	USA	90.1
OECD	OECD 32	73.5	73.9	74.6	OECD 34	74.5
브라질	BRA	36.8	38.8	40.7	..	43.3	45.0	46.4	47.4	48.9	..	BRA	48.9
콜롬비아	COL	52.0	50.4	52.5	COL	52.5
코스타리카	CRI	35.1	35.7	37.0	38.1	38.9	36.9	37.4	39.1	40.3	40.5	39.4	39.9	CRI	39.9
리투아니아	LTU	87.5	88.3	88.9	90.6	91.3	91.9	92.9	93.3	93.4	91.2	91.4	92.5	LTU	92.5
러시아 연방	RUS	90.5	91.2	92.4	93.1	93.2	93.9	94.0	94.3	94.7	94.8	94.9	..	RUS	94.9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37.2	38.5	39.4	40.2	27.3	41.8	43.0	43.0	..	ZAF	43.0

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한국,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미국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ISCED 2011 분류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된다. 칠레의 경우 2013년 이후,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2014년 이후 데이터를 수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데이터는 ISCED-97에 기반한다. 중단 전 셀은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 영국에서 고등교육 성취도 데이터는 중간 고등 프로그램의 수료로 개별적으로 분류되는 충분한 수의 프로그램과 표준의 완료를 포함한다(2016년에 25~64세의 16%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해 일본은 제외되었다. 러시아의 2005-2009년 값은 러시아연방통계청(Rosstat)에서 제공했다.

출처: OECD 한눈에 보는 교육(데이터베이스)의 “교육 성취도 및 노동력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및 러시아연방통계청(Ros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916>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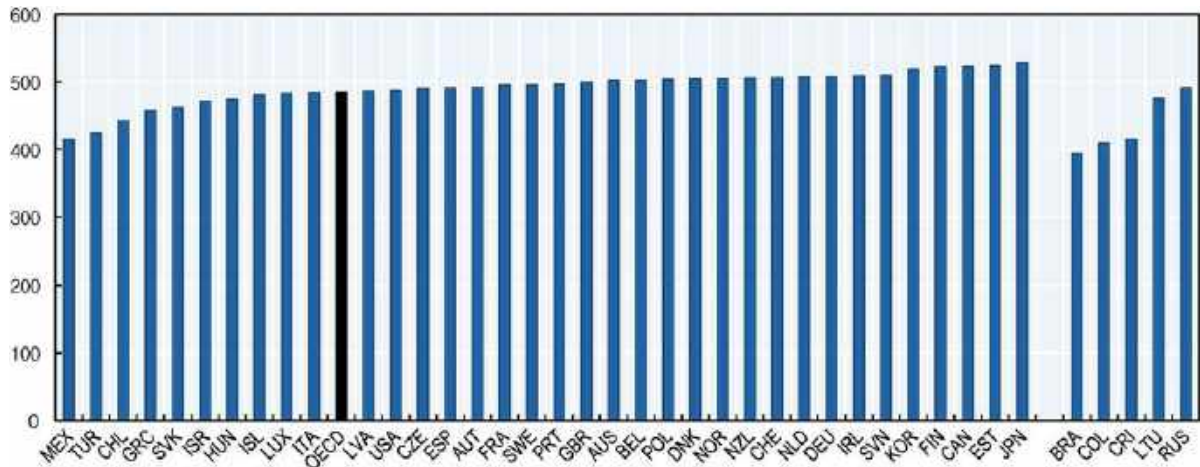
OECD(2017), 한눈에 보는 교육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87/eag-2017-en>

교육과 역량: 15세의 인지 능력

정의

이 지표는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 지표는 OECD에서 조정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on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읽기, 수학, 과학 역량은 별도로 평가되고, 500점이 OECD 평균을 나타내도록 표준화되는 척도로 측정된다. 여기에 표시된 요약은 3가지 평가에 걸친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

그림 A.28.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
읽기, 수학, 과학의 평균 점수, 2015년



주: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한 PISA 점수는 500점이 OECD 평균으로 표준화되는 척도로 각각 측정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PISA 2015 결과(제1권): 교육의 우수성과 형평성”, PISA,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6490-en>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674>

표 A.16.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
읽기, 수학, 과학의 PISA 평균 점수, 2015년

		2015
호주	AUS	502
오스트리아	AUT	492
벨기에	BEL	503
캐나다	CAN	523
칠레	CHL	443
체코	CZE	491
덴마크	DNK	504
에스토니아	EST	524
핀란드	FIN	523
프랑스	FRA	496
독일	DEU	508
그리스	GRC	458
헝가리	HUN	474
아이슬란드	ISL	481
아일랜드	IRL	509
이스라엘	ISR	472
이탈리아	ITA	485
일본	JPN	529
한국	KOR	519
라트비아	LVA	487
룩셈부르크	LUX	483
멕시코	MEX	416
네덜란드	NLD	508
뉴질랜드	NZL	506
노르웨이	NOR	504
폴란드	POL	504
포르투갈	PRT	497
슬로바키아	SVK	463
슬로베니아	SVN	509
스페인	ESP	491
스웨덴	SWE	496
스위스	CHE	506
터키	TUR	425
영국	GBR	500
미국	USA	488
OECD	OECD	486
브라질	BRA	395
콜롬비아	COL	410
코스타리카	CRI	416
리투아니아	LTU	475
러시아 연방	RUS	492

주: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한 PISA 점수는 500 점이 OECD 평균으로 표준화되는 척도로 각각 측정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PISA 2015 결과(볼륨 I): 교육의 우수성과 형평성", PISA,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6490-en> 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935>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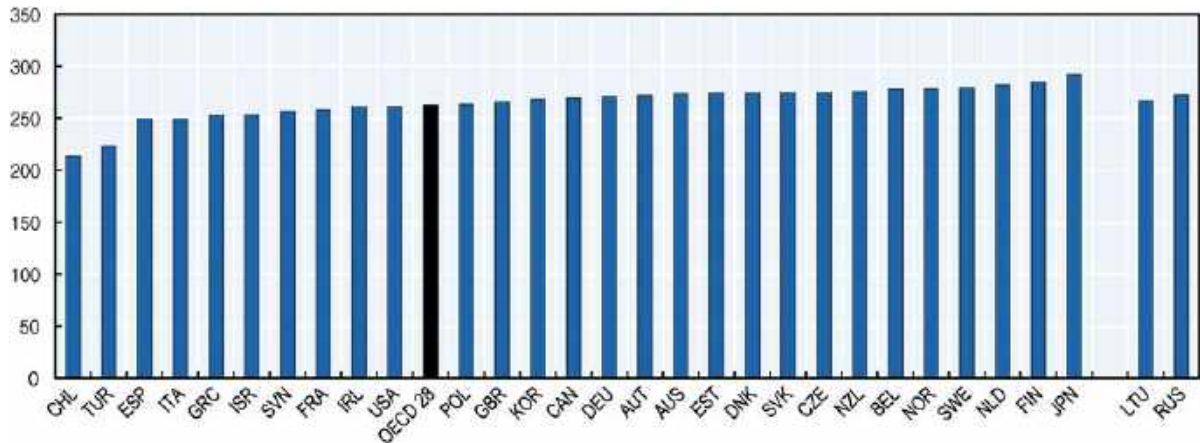
OECD(2016), PISA 2015 결과(볼륨 I): 교육의 우수성과 형평성, PISA,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6490-en>

교육과 역량: 성인 역량

정의

이 지표는 문해력과 수리력에서 성인의 평균 능숙도를 나타낸다. OECD에서 조정한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의 일환인 OECD 성인역량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지표는 16~65세 성인을 나타낸다. PIAAC의 주요 요소는 핵심 정보처리 기술, 즉 문해력, 수리력,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한 각 영역에서 능숙도는 복잡도가 증가하는 정보처리 과제의 숙달과 관련된 능력으로 간주된다. 국가 점수는 500점이 각 영역의 OECD 평균을 나타내도록 표준화된 척도로 측정된다.

그림 A.29. 16~65세 성인의 역량
문해력과 수리력의 평균 능숙도, 2012년경



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우 데이터는 2011~2012년,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4~2015년을 나타낸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내며, 러시아의 경우 모스크바 지역이 제외되었다. 각 영역에서 결과는 500점 척도로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역량 문제: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연구, OECD 출판국, 파리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693>

표 A.17. 16~65세 성인의 역량
문해력과 수리력의 평균 능숙도, 2012년경

		Around 2012
호주	AUS	274
오스트리아	AUT	272
벨기에	BEL	278
캐나다	CAN	269
칠레	CHL	213
체코	CZE	275
덴마크	DNK	275
에스토니아	EST	275
핀란드	FIN	285
프랑스	FRA	258
독일	DEU	271
그리스	GRC	253
헝가리	HUN	..
아이슬란드	ISL	..
아일랜드	IRL	261
이스라엘	ISR	253
이탈리아	ITA	249
일본	JPN	292
한국	KOR	268
라트비아	LVA	..
룩셈부르크	LUX	..
멕시코	MEX	..
네덜란드	NLD	282
뉴질랜드	NZL	276
노르웨이	NOR	278
폴란드	POL	263
포르투갈	PRT	..
슬로바키아	SVK	275
슬로베니아	SVN	257
스페인	ESP	249
스웨덴	SWE	279
스위스	CHE	..
터키	TUR	223
영국	GBR	266
미국	USA	261
OECD	OECD 28	263
리투아니아	LTU	267
러시아 연방	RUS	273

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우 데이터는 2011~2012년,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4~2015년을 나타낸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내며, 러시아의 경우 모스크바 지역이 제외되었다. 각 영역에서 결과는 500점 척도로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역량 문제: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연구, OECD 출판국, 파리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954>

추가 참고자료:

OECD(2016), *역량 문제: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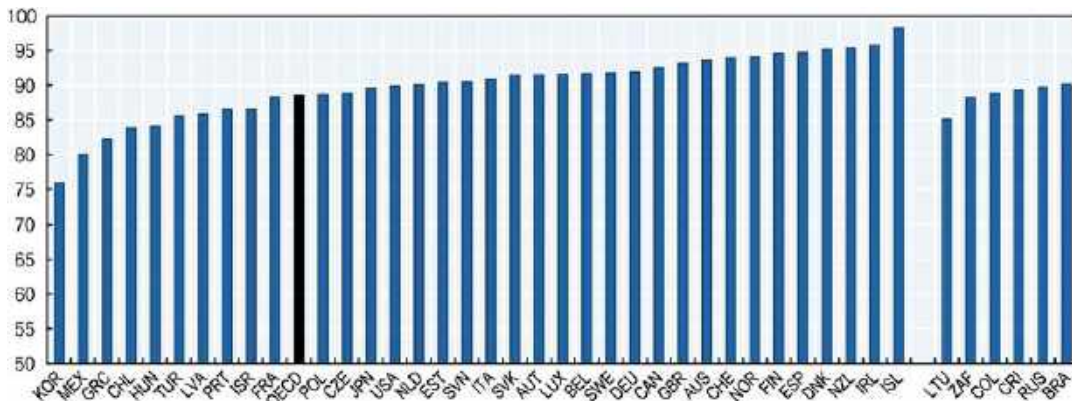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정의

이 지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할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설문조사 질문에 근거하며, “그렇다”고 답한 표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3년 평균 값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출처는 연간 국가별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세계여론조사이다. 표본은 전국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농촌 지역 포함)를 대표하도록 사전에 고안되었다. 표본 데이터는 갤럽에서 제공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인구에 대해 가중된다.

그림 A.30. 사회적 지원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4~2016년 평균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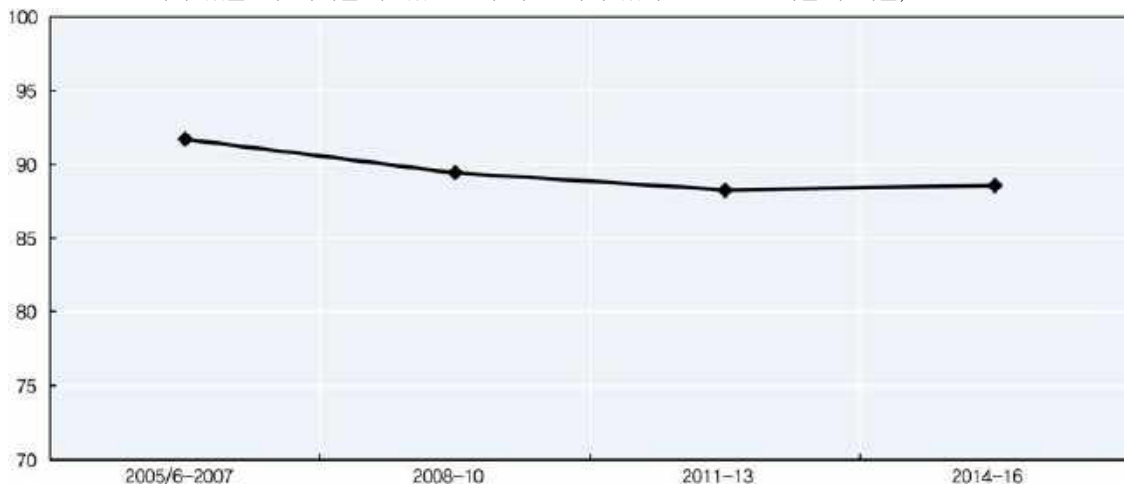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712>

그림 A.31. 사회적 지원, OECD 평균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OECD 33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731>


표 A.18. 사회적 지원

문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5/6-2007	2008-10	2011-13	2014-16	최근 연도	
호주	AUS	96.2	94.8	94.4	93.6	AUS	93.6
오스트리아	AUT	91.6	91.5	94.0	91.5	AUT	91.5
벨기에	BEL	92.3	92.3	92.2	91.7	BEL	91.7
캐나다	CAN	95.8	94.2	93.4	92.6	CAN	92.6
칠레	CHL	81.8	82.5	84.2	83.9	CHL	83.9
체코	CZE	87.6	90.3	88.1	89.0	CZE	89.0
덴마크	DNK	95.9	95.2	95.4	95.3	DNK	95.3
에스토니아	EST	85.4	86.2	87.7	90.5	EST	90.5
핀란드	FIN	95.6	93.8	92.7	94.6	FIN	94.6
프랑스	FRA	93.7	92.7	92.0	88.4	FRA	88.4
독일	DEU	94.1	92.5	93.1	92.0	DEU	92.0
그리스	GRC	81.5	82.6	78.0	82.3	GRC	82.3
헝가리	HUN	92.5	89.2	88.7	84.2	HUN	84.2
아이슬란드	ISL	..	97.6	96.6	98.3	ISL	98.3
아일랜드	IRL	96.4	97.1	96.3	95.7	IRL	95.7
이스라엘	ISR	88.3	88.1	89.5	86.6	ISR	86.6
이탈리아	ITA	90.7	86.4	89.2	90.8	ITA	90.8
일본	JPN	93.0	88.8	90.8	89.7	JPN	89.7
한국	KOR	78.1	77.8	78.2	75.9	KOR	75.9
라트비아	LVA	82.5	80.0	81.3	85.8	LVA	85.8
룩셈부르크	LUX	..	94.3	90.7	91.6	LUX	91.6
멕시코	MEX	87.8	86.8	76.3	80.1	MEX	80.1
네덜란드	NLD	93.9	94.3	93.0	90.1	NLD	90.1
뉴질랜드	NZL	95.6	95.6	94.5	95.4	NZL	95.4
노르웨이	NOR	94.4	93.1	92.8	94.1	NOR	94.1
폴란드	POL	89.5	91.6	89.4	88.7	POL	88.7
포르투갈	PRT	89.7	85.5	84.6	86.5	PRT	86.5
슬로바키아	SVK	93.3	89.6	88.9	91.5	SVK	91.5
슬로베니아	SVN	93.0	90.8	92.2	90.5	SVN	90.5
스페인	ESP	95.2	93.3	93.1	94.8	ESP	94.8
스웨덴	SWE	92.8	92.0	91.1	91.8	SWE	91.8
스위스	CHE	94.2	93.2	94.4	94.0	CHE	94.0
터키	TUR	79.9	72.7	73.4	85.6	TUR	85.6
영국	GBR	97.3	95.5	93.8	93.2	GBR	93.2
미국	USA	95.5	92.6	91.5	89.9	USA	89.9
OECD	OECD 33	91.7	89.4	88.3	88.6	OECD	88.6
브라질	BRA	88.0	89.2	90.2	90.1	BRA	90.1
콜롬비아	COL	89.7	88.3	90.3	88.9	COL	88.9
코스타리카	CRI	91.8	90.6	89.0	89.3	CRI	89.3
리투아니아	LTU	86.7	81.5	84.0	85.1	LTU	85.1
러시아 연방	RUS	85.6	87.0	85.2	89.8	RUS	89.8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84.3	86.6	86.7	88.3	ZAF	88.3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해서는 모든 OECD 국가가 고려되었다.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다른 모든 해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973>

추가 참고자료:

Scrivens, K. 및 C. Smith(2013), “사회 자본의 4가지 해석: 측정을 위한 의제”, *OECD 통계 워킹페이퍼*, No. 2013/06,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zbcx010wm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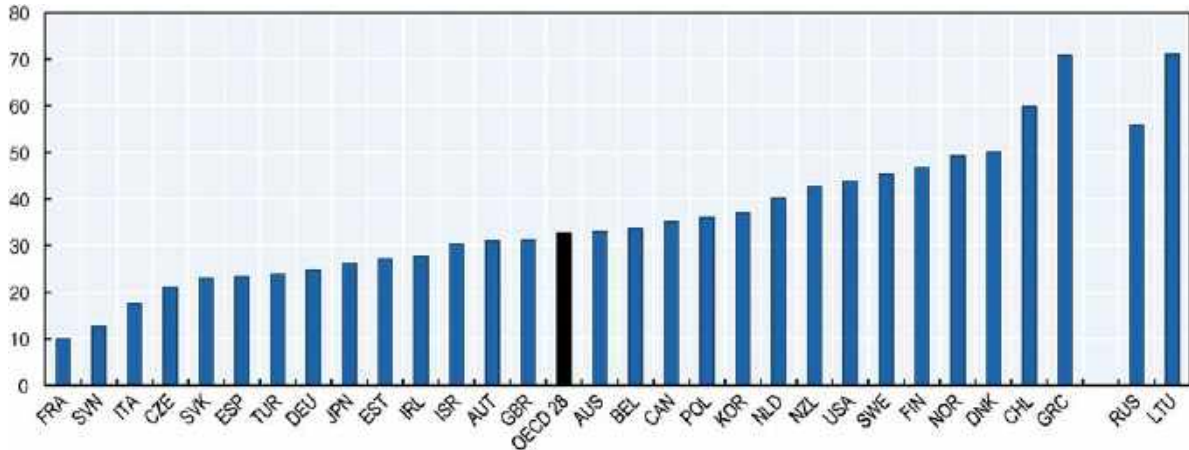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정부 내 발언권

정의

이 지표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 기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진술에 5점 척도 (1이 “강하게 동의함”, 5가 “강하게 동의하지 않음”)를 사용하여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16~65세 성인의 비율을 고려한다. 데이터는 OECD가 조정한 국제성인 역량평가(PIAAC)의 일환인 OECD 성인역량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림 A.32.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16~65세 인구의 비율, 2012년경



주: 데이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우 2011~2012년,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4~2015년을 나타낸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내며, 러시아의 경우 모스크바 지역이 제외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750>

표 A.19.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있음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16~65세 인구의 비율, 2012년경

		around 2012
호주	AUS	33.0
오스트리아	AUT	31.0
벨기에	BEL	33.8
캐나다	CAN	35.1
칠레	CHL	59.8
체코	CZE	21.2
덴마크	DNK	50.1
에스토니아	EST	27.2
핀란드	FIN	46.8
프랑스	FRA	10.0
독일	DEU	24.7
그리스	GRC	70.9
헝가리	HUN	..
아이슬란드	ISL	..
아일랜드	IRL	27.7
이스라엘	ISR	30.4
이탈리아	ITA	17.6
일본	JPN	26.3
한국	KOR	37.0
라트비아	LVA	..
룩셈부르크	LUX	..
멕시코	MEX	..
네덜란드	NLD	40.3
뉴질랜드	NZL	42.7
노르웨이	NOR	49.4
폴란드	POL	36.1
포르투갈	PRT	..
슬로바키아	SVK	23.0
슬로베니아	SVN	12.9
스페인	ESP	23.4
스웨덴	SWE	45.3
스위스	CHE	..
터키	TUR	24.0
영국	GBR	31.2
미국	USA	43.8
OECD	OECD 28	32.8
리투아니아	LTU	71.1
러시아 연방	RUS	55.8

주: 데이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우 2011~2012년,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4~2015년을 나타낸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내며, 러시아의 경우 모스크바 지역이 제외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9992>

추가 참고자료:

OECD(2016), *역량 문제: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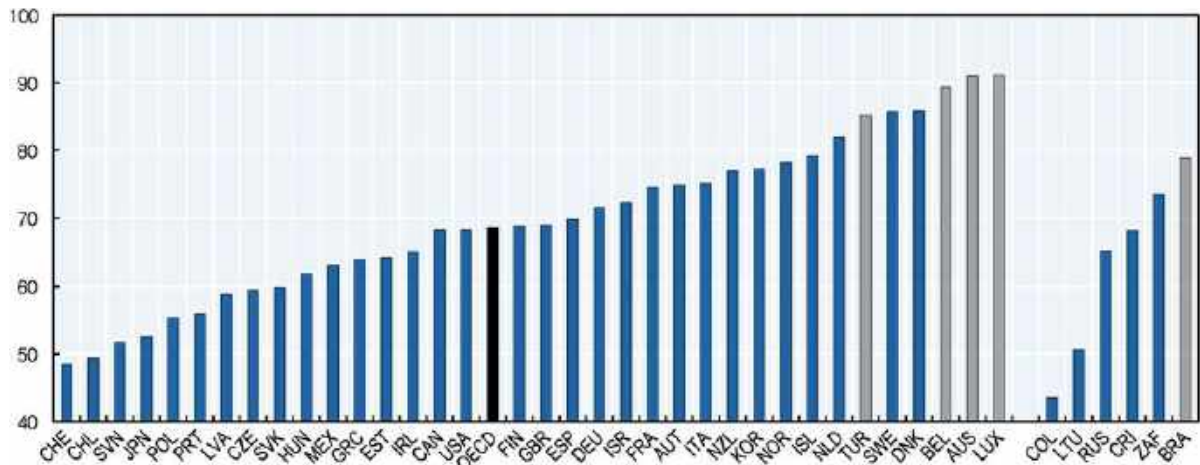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율

정의

이 지표는 유권자 등록 인구의 비율로 총선에서 투표한 개인의 수를 나타낸다. 투표 시스템의 제도적 특징은 국가마다 선거 유형별로 다르며, 여기에 표시된 지표는 총선(의원 또는 대통령)을 나타내고 각 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유권자가 참여한다. 호주, 벨기에, 브라질, 룩셈부르크, 터키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한다. 유권자 등록 인구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인구를 나타낸다. 투표율에 관한 데이터는 통계청과 국가선거관리기구에서 수집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IDEA)에서 편집한다.

그림 A.33. 투표율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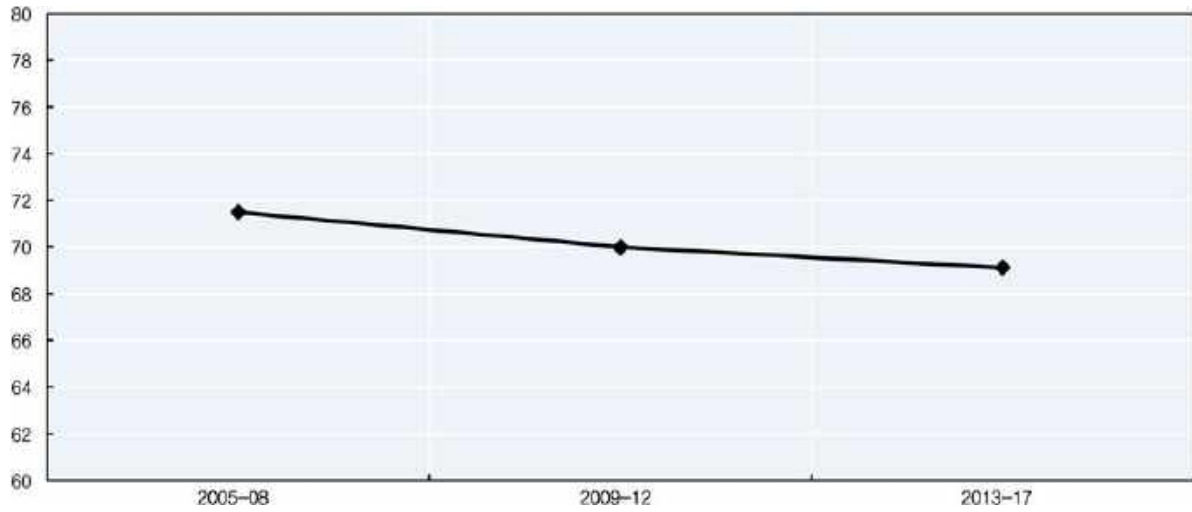


주: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는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미국을 제외하고 총선은 의원 선거를 나타낸다. 그림에 회색으로 표시된 호주, 벨기에, 브라질, 룩셈부르크, 터키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한다.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7년, 호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의 경우 2016년,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의 경우 2015년,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일본, 라트비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의 경우 2014년,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의 경우 2013년, 핀란드, 멕시코, 러시아의 경우 2012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IDEA)(2017), www.idea.int, 코스타리카 최고선거재판소 등록부, 스위스의 연방 통계청(FSO)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769>

그림 A.34. 투표율, OECD 평균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 OECD 29



주: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미국을 제외하고 총선은 의원 선거를 나타낸다.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OECD 평균은 4년에 걸쳐 계산되었다. 이로 인해 OECD 평균 계산에서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가 제외되었다. 칠레도 역시 2012년에 의무 투표제가 폐지되면서 시계열이 중단되어 제외되었다.

출처: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IDEA)(2017), www.idea.int, 코스타리카 최고선거재판소 등록부, 스위스의 연방 통계청(FSO)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788>

표 A.20. 투표율
유권자 등록 인구의 투표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근 연도
호주	AUS	94.8	93.2	93.2	91.0	..	AUS 91.0
오스트리아	AUT	..	78.5	..	78.8	74.9	AUT 74.9
벨기에	BEL	91.1	89.2	89.4	BEL 89.4
캐나다	CAN	..	64.7	..	59.5	61.1	68.3	CAN 68.3
칠레	CHL	87.7	87.7	49.4	CHL 49.4
체코	CZE	..	64.5	62.6	59.5	CZE 59.5
덴마크	DNK	84.5	..	86.6	87.7	85.9	DNK 85.9
에스토니아	EST	61.9	63.5	64.2	EST 64.2
핀란드	FIN	..	74.1	68.9	FIN 68.9
프랑스	FRA	84.0	80.4	74.6	FRA 74.6
독일	DEU	77.7	70.8	71.5	DEU 71.5
그리스	GRC	74.1	..	70.9	62.5	63.9	GRC 63.9
헝가리	HUN	..	67.6	64.4	61.8	HUN 61.8
아이슬란드	ISL	83.6	..	85.1	81.4	79.2	..	ISL 79.2
아일랜드	IRL	67.0	69.9	65.1	..	IRL 65.1
이스라엘	ISR	..	63.6	64.7	67.8	72.3	ISR 72.3
이탈리아	ITA	..	83.6	..	80.5	75.2	ITA 75.2
일본	JPN	67.5	69.3	59.3	..	52.7	JPN 52.7
한국	KOR	63.0	75.8	77.2	KOR 77.2
라트비아	LVA	..	61.0	64.7	59.5	58.8	LVA 58.8
룩셈부르크	LUX	90.9	91.2	LUX 91.2
멕시코	MEX	..	58.6	63.1	MEX 63.1
네덜란드	NLD	..	80.4	75.4	..	74.6	81.9	NLD 81.9
뉴질랜드	NZL	80.3	79.5	74.2	77.0	NZL 77.0
노르웨이	NOR	77.4	76.4	78.2	NOR 78.2
폴란드	POL	51.0	55.3	55.3	POL 55.3
포르투갈	PRT	64.3	59.7	..	58.0	55.8	PRT 55.8
슬로바키아	SVK	..	54.7	58.8	..	59.1	59.8	..	SVK 59.8
슬로베니아	SVN	63.1	65.6	51.7	SVN 51.7
스페인	ESP	75.3	68.9	73.2	69.8	..	ESP 69.8
스웨덴	SWE	..	82.0	84.6	85.8	SWE 85.8
스위스	CHE	48.3	49.1	48.5	CHE 48.5
터키	TUR	84.3	87.6	85.2	TUR 85.2
영국	GBR	61.4	65.8	66.1	..	68.9	GBR 68.9
미국	USA	70.3	66.7	68.3	..	USA 68.3
OECD	OECD 29	71.5	70.0	69.1	OECD 68.6
브라질	BRA	..	83.3	78.5	78.9	BRA 78.9
콜롬비아	COL	..	40.5	43.8	43.6	COL 43.6
코스타리카	CRI	..	65.2	69.1	68.2	CRI 68.2
리투아니아	LTU	48.6	52.9	50.6	..	LTU 50.6
러시아 연방	RUS	69.7	65.3	RUS 65.3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77.3	73.5	ZAF 73.5

주: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미국을 제외하고 총선의 의원 선거를 나타낸다.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영국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7년, 호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의 경우 2016년,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의 경우 2015년,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일본, 라트비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의 경우 2014년,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의 경우 2013년, 핀란드, 멕시코, 러시아의 경우 2012년이다. 호주, 벨기에, 브라질, 룩셈부르크, 터키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한다. 칠레에서는 의무 투표제가 2012년에 중단되었다. 중단 전 설문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 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4년에 걸쳐 계산된 시계열에서 오스트리아, 칠레,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는 제외되었고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해서는 모든 OECD 국가가 고려되었다.

출처: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IDEA)(2017), www.idea.int, 코스타리카 최고선거재판소 등록부, 스위스의 연방통계청(FSO)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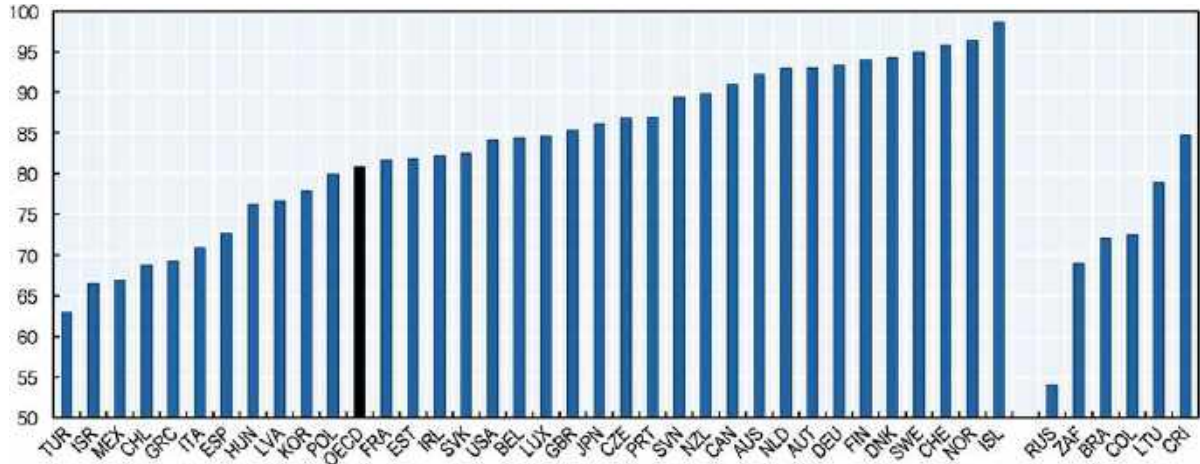
환경의 질: 수질

정의

이 지표는 지역의 수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포착한다. “거주 도시나 지역에서 수질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근거하며,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고려한다. 데이터는 3년 평균이며 연간 국가별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세계여론조사에서 제공한다. 표본은 전국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농촌 지역 포함)를 대표하도록 사전에 고안되었다. 표본 데이터는 갤럽에서 제공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인구에 대해 가중된다.

그림 A.35. 수질 만족도

전체 인구 중 만족한 사람의 비율, 2014~2016년 평균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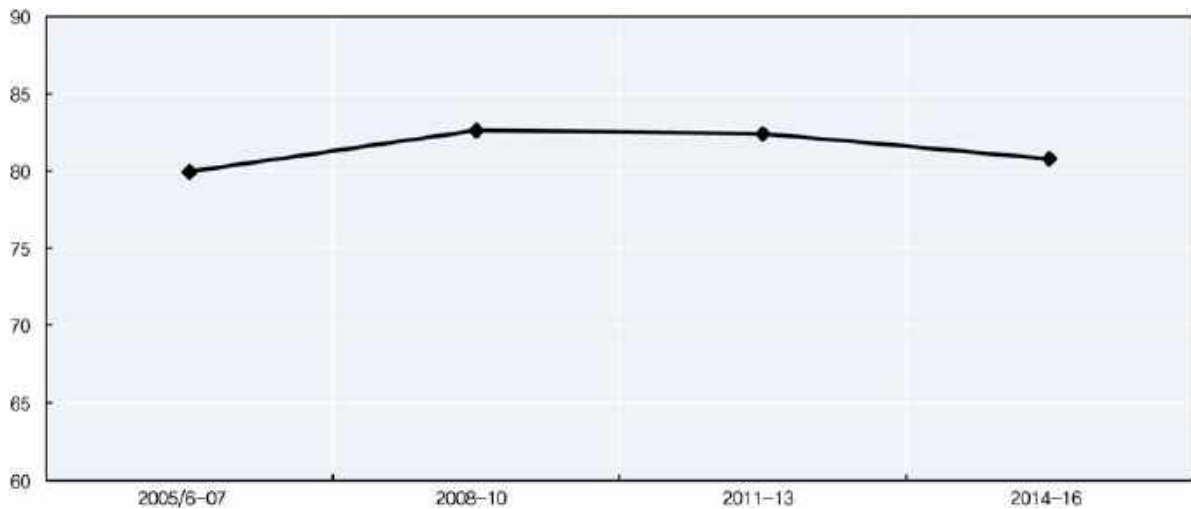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807>

그림 A.36. 수질 만족도, OECD 평균

전체 인구 중 만족한 사람의 비율, OECD 33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826>

표 A.21. 수질 만족도
전체 인구 중 만족한 사람의 비율

		2005/6-07	2008-10	2011-13	2014-16	최근 연도	
호주	AUS	86.6	90.9	91.7	92.2	AUS	92.2
오스트리아	AUT	94.7	94.9	95.1	93.0	AUT	93.0
벨기에	BEL	82.8	85.0	82.0	84.4	BEL	84.4
캐나다	CAN	87.5	88.7	89.4	91.0	CAN	91.0
칠레	CHL	83.7	84.3	76.4	68.8	CHL	68.8
체코	CZE	78.1	89.0	83.4	86.9	CZE	86.9
덴마크	DNK	95.1	96.6	95.0	94.3	DNK	94.3
에스토니아	EST	62.8	66.4	74.7	81.8	EST	81.8
핀란드	FIN	92.9	93.1	94.0	94.0	FIN	94.0
프랑스	FRA	80.5	83.4	81.6	81.7	FRA	81.7
독일	DEU	91.5	94.3	94.5	93.4	DEU	93.4
그리스	GRC	66.5	66.8	65.3	69.3	GRC	69.3
헝가리	HUN	75.3	82.0	76.6	76.2	HUN	76.2
아이슬란드	ISL	..	96.9	97.5	98.6	ISL	98.6
아일랜드	IRL	86.9	87.0	85.4	82.2	IRL	82.2
이스라엘	ISR	57.6	57.7	65.0	66.5	ISR	66.5
이탈리아	ITA	76.2	79.5	76.6	70.9	ITA	70.9
일본	JPN	75.3	83.0	85.6	86.1	JPN	86.1
한국	KOR	75.2	80.5	77.6	77.8	KOR	77.8
라트비아	LVA	64.1	64.5	71.5	76.6	LVA	76.6
룩셈부르크	LUX	..	90.6	86.5	84.7	LUX	84.7
멕시코	MEX	73.0	68.4	71.6	67.0	MEX	67.0
네덜란드	NLD	92.2	93.6	92.2	93.0	NLD	93.0
뉴질랜드	NZL	89.7	87.3	88.4	89.8	NZL	89.8
노르웨이	NOR	93.9	95.3	95.8	96.4	NOR	96.4
폴란드	POL	66.2	77.0	76.8	80.0	POL	80.0
포르투갈	PRT	86.3	88.7	86.3	86.9	PRT	86.9
슬로바키아	SVK	78.0	86.0	82.5	82.5	SVK	82.5
슬로베니아	SVN	85.0	87.3	87.8	89.4	SVN	89.4
스페인	ESP	74.9	78.8	78.7	72.7	ESP	72.7
스웨덴	SWE	94.8	96.1	95.9	95.0	SWE	95.0
스위스	CHE	95.7	96.1	94.5	95.9	CHE	95.9
터키	TUR	58.6	56.2	61.8	63.0	TUR	63.0
영국	GBR	91.8	93.3	93.8	85.3	GBR	85.3
미국	USA	84.9	88.4	85.9	84.1	USA	84.1
OECD	OECD 33	79.9	82.6	82.4	80.8	OECD	80.8
브라질	BRA	78.4	78.3	71.2	72.0	BRA	72.0
콜롬비아	COL	78.3	74.8	73.8	72.5	COL	72.5
코스타리카	CRI	85.6	88.8	88.6	84.7	CRI	84.7
리투아니아	LTU	59.6	67.6	67.9	78.9	LTU	78.9
러시아 연방	RUS	30.4	43.3	47.7	54.1	RUS	54.1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74.5	66.1	60.5	69.0	ZAF	69.0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하지만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모든 OECD 국가가 고려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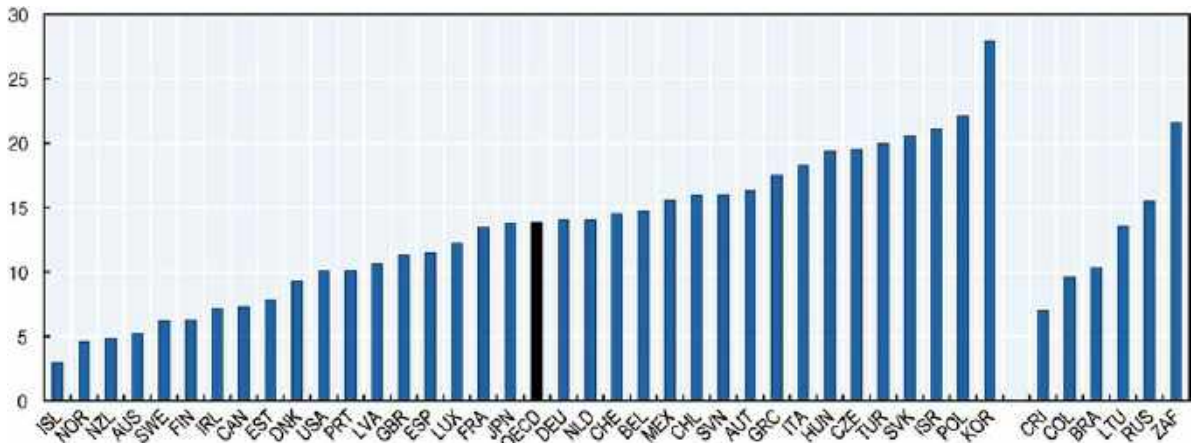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030>

환경의 질: 대기의 질

정의

이 지표는 직경 2.5미크론 미만의 초미세먼지(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에 대한 인구 전체 평균 노출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3년 평균 값이다. 기본 PM_{2.5} 농도 추정치는 van Donkelaar 외 자료(2016)에서 가져왔으며, 위성 관측과 화학 전달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0.01° 해상도로 공간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사용하여 글로벌 지상 관측으로 보정된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은 지상 대기 모니터링 관측소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상 관측소에서 얻은 추정치와 다른 지역 간에 비교할 수 있다. 위성 관측은 현장 모니터링보다 덜 정확하지만 두 데이터 출처는 보완적이다. 추정치에는 자연 및 인위적 소스에서 발생하는 입자가 모두 포함된다. 인구 노출은 그리드 농도 데이터의 각 셀에 있는 인구를 농도를 가중치하여 계산되며, 특정 위치에서 노출이 과다/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 인구 데이터인 GPWv4(Gridded Population of the World version 4)는 NASA의 SEDAC(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에서 가져온 것이다. 기본 경계 지오메트리는 FAO가 개발한 GAUL(Global Administrative Unit Layers)과 가능한 경우 OECD 영토 분류(Territorial Classification)에서 가져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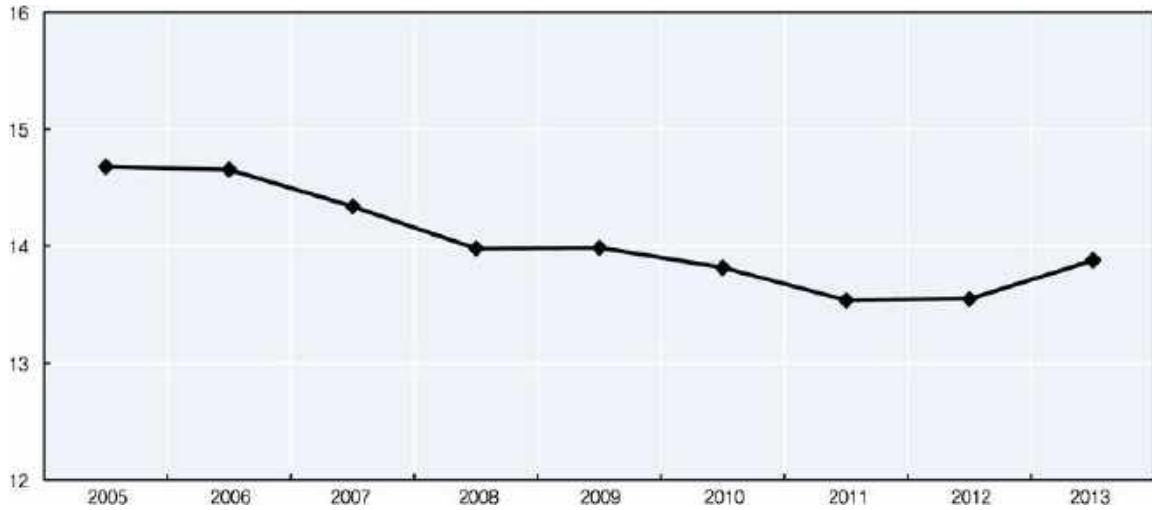
그림 A.37. 초미세먼지(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노출 인구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PM_{2.5} 농도, µg/m³, 3년 이동 평균, 2013년



주: 2013년 이동 평균은 2014년 추정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12년, 2013년, 2015년에서 내삽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대기오염 노출”(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845>

그림 A.38. 초미세먼지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노출 인구, OECD 평균(PM_{2.5})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PM_{2.5} 농도, $\mu\text{g}/\text{m}^3$, 3년 이동 평균



주: 값은 3년 이동 평균이다. 2013년 값은 2014년 추정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12년, 2013년, 2015년에서 내삽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대기오염 노출”(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864>

표 A.22. 초미세먼지(PM_{2.5})에 의한 실외 대기오염 노출 인구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PM_{2.5} 농도, µg/m³, 3년 이동 평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근 연도
호주	AUS	5.7	5.7	5.4	5.4	5.1	5.1	4.9	5.1	5.2	AUS	5.2
오스트리아	AUT	16.9	16.6	15.9	15.4	15.9	15.9	15.5	16.2	16.3	AUT	16.3
벨기에	BEL	15.9	15.4	15.2	14.5	15.6	15.5	15.5	14.6	14.7	BEL	14.7
캐나다	CAN	8.4	8.1	7.5	7.0	7.0	6.9	7.1	7.1	7.3	CAN	7.3
칠레	CHL	16.8	16.5	16.3	15.8	15.3	15.5	15.5	15.7	16.0	CHL	16.0
체코	CZE	20.4	20.1	18.4	18.0	20.2	20.9	20.5	19.2	19.5	CZE	19.5
덴마크	DNK	10.8	10.9	10.2	9.5	9.5	10.6	10.2	9.7	9.3	DNK	9.3
에스토니아	EST	9.8	9.9	9.3	9.0	9.7	9.8	9.3	8.4	7.9	EST	7.9
핀란드	FIN	8.0	7.7	7.5	7.4	8.1	8.3	7.6	6.9	6.2	FIN	6.2
프랑스	FRA	14.2	14.4	14.3	13.8	13.6	13.5	13.5	13.7	13.4	FRA	13.4
독일	DEU	14.6	14.4	14.1	13.6	14.7	14.8	14.8	13.9	14.0	DEU	14.0
그리스	GRC	15.9	16.5	17.7	18.2	19.5	18.4	17.7	17.0	17.5	GRC	17.5
헝가리	HUN	20.4	20.0	17.7	17.0	18.8	20.4	19.6	18.6	19.4	HUN	19.4
아이슬란드	ISL	3.3	3.1	3.2	3.2	3.3	3.4	3.3	3.2	3.0	ISL	3.0
아일랜드	IRL	6.9	7.4	7.7	7.5	7.1	6.8	6.8	7.3	7.1	IRL	7.1
이스라엘	ISR	16.1	17.9	19.5	20.1	20.0	18.8	18.9	19.3	21.1	ISR	21.1
이탈리아	ITA	17.3	17.0	16.9	17.1	17.2	17.2	16.7	17.4	18.3	ITA	18.3
일본	JPN	15.3	15.6	15.9	15.4	14.7	13.6	12.2	12.6	13.8	JPN	13.8
한국	KOR	26.8	27.2	27.3	27.6	27.0	25.5	23.0	24.7	27.9	KOR	27.9
라트비아	LVA	12.0	12.2	11.5	11.0	12.2	12.4	12.0	10.9	10.6	LVA	10.6
룩셈부르크	LUX	12.9	13.0	12.7	11.6	12.2	12.3	12.5	12.2	12.2	LUX	12.2
멕시코	MEX	16.7	16.5	15.1	15.1	14.6	15.2	15.6	16.6	15.6	MEX	15.6
네덜란드	NLD	15.5	15.0	14.8	14.3	15.2	15.2	15.3	13.9	14.0	NLD	14.0
뉴질랜드	NZL	5.2	5.0	4.8	4.7	4.7	4.8	4.8	4.9	4.9	NZL	4.9
노르웨이	NOR	5.9	5.7	5.8	5.8	5.7	5.9	5.4	5.3	4.6	NOR	4.6
폴란드	POL	23.1	23.1	21.4	20.4	23.2	24.7	24.3	21.9	22.1	POL	22.1
포르투갈	PRT	12.3	12.7	12.4	11.4	10.6	10.8	10.3	10.4	10.1	PRT	10.1
슬로바키아	SVK	22.3	21.7	19.2	18.5	20.3	21.9	21.2	20.2	20.6	SVK	20.6
슬로베니아	SVN	16.8	16.3	15.6	15.0	15.3	15.4	14.7	15.4	16.0	SVN	16.0
스페인	ESP	12.7	12.6	13.1	12.3	11.6	11.2	11.4	11.5	11.5	ESP	11.5
스웨덴	SWE	7.6	7.5	7.3	7.0	7.3	7.7	7.0	6.5	6.2	SWE	6.2
스위스	CHE	14.7	14.6	14.8	14.5	14.3	13.7	14.0	14.7	14.5	CHE	14.5
터키	TUR	17.8	18.3	20.1	20.3	22.1	20.1	19.7	18.3	20.0	TUR	20.0
영국	GBR	11.9	12.0	12.3	12.1	11.8	11.3	11.2	11.7	11.3	GBR	11.3
미국	USA	11.7	11.5	10.7	10.2	9.7	9.8	9.9	9.9	10.1	USA	10.1
OECD	OECD	14.7	14.7	14.3	14.0	14.0	13.8	13.5	13.6	13.9	OECD	13.9
브라질	BRA	10.5	10.5	10.0	9.7	9.5	9.7	10.1	9.8	10.3	BRA	10.3
콜롬비아	COL	10.3	10.4	9.4	9.1	9.0	8.8	9.6	9.1	9.6	COL	9.6
코스타리카	CRI	5.7	6.2	6.6	6.4	5.1	3.9	4.2	5.5	7.0	CRI	7.0
리투아니아	LTU	14.2	14.8	14.0	13.2	14.6	14.9	14.9	13.5	13.6	LTU	13.6
러시아 연방	RUS	14.9	14.8	14.9	15.2	16.6	16.2	15.6	15.0	15.5	RUS	15.5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20.2	19.5	19.1	19.1	20.4	20.3	19.9	19.5	21.6	ZAF	21.6

주: 값은 3년 이동 평균이다. 2013년 값은 2014년 추정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12년, 2013년, 2015년에서 내삽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대기오염 노출”(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049>

추가 참고자료:

Mackie, A., I. Haščić, M. Cárdenas Rodríguez(2016), *미세먼지 노출: OECD와 G20 국가의 방법론과 결과*, OECD 녹색 성장 보고서, No. 2016/02,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lsqs8g1t9r-en>

OECD(2017), *녹색 성장 지표 2017*, OECD 녹색 성장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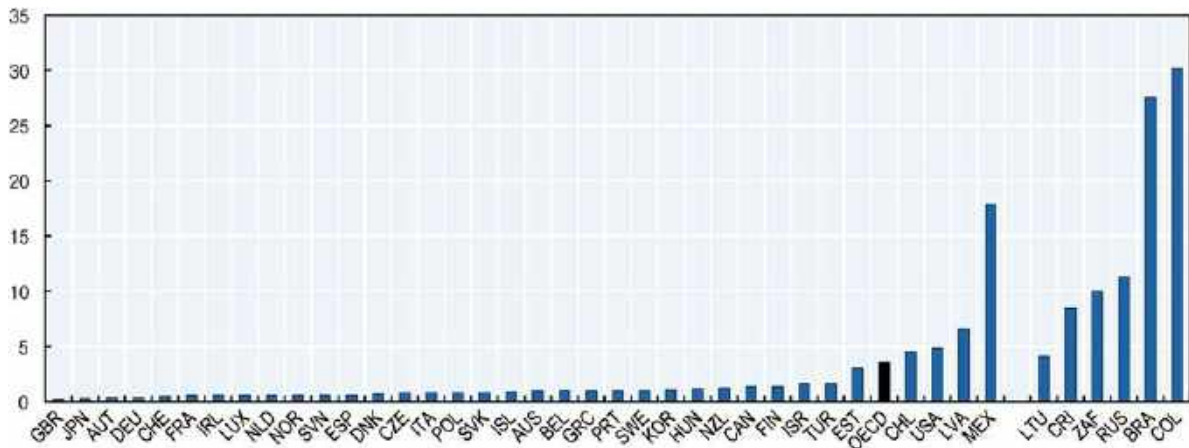
개인적 안전: 살인

정의

이 지표는 공식 사망신고서(ICD-10 코드: X85-Y09, Y87.1)에 폭행이 사망 원인으로 신고된 경우를 나타낸다. 인구 연령 구조가 다른 국가에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연령 표준화된 비율로 표시되며 10만 명 기준으로 표현된다. 데이터는 모든 OECD 국가에서 매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또는 4년 기간의 평균 값이다. 사망 원인 통계는 국가 기관에서 편집하고 WHO에서 수집/분석한 국가 주민등록체계에서 나온 것이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망 원인만 포함된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OECD 사망 원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한다.

그림 A.39.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연령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비율, 2014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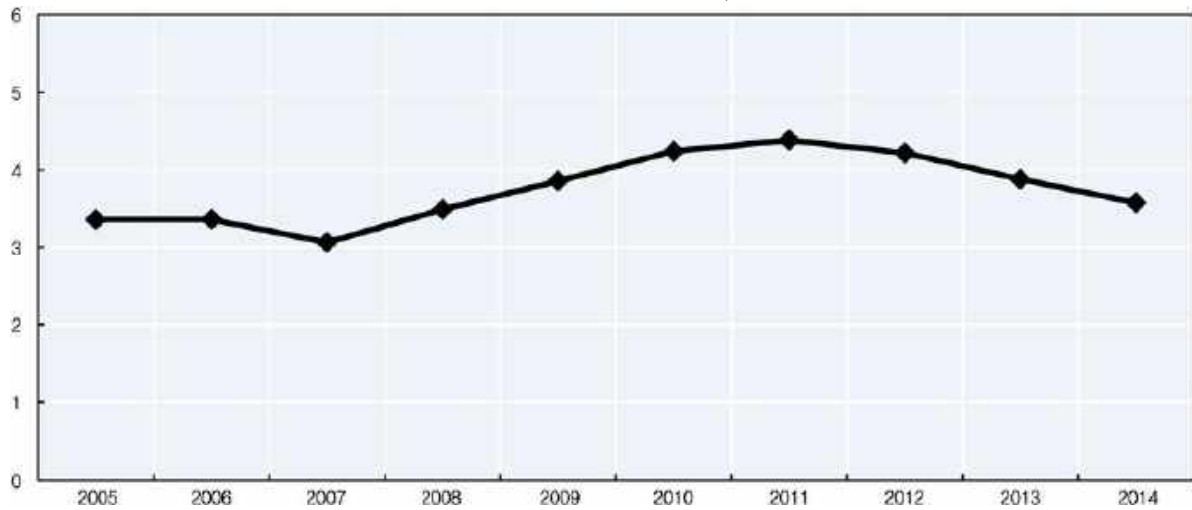
주: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년, 콜롬비아,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2013년, 캐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의 경우 2012년, 러시아의 경우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OECD 건강 데이터: 사망 원인”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883>

그림 A.40.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OECD 평균
연령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비율, OECD 34



주: OECD 평균 시계열은 시계열의 누락된 데이터를 내삽하여 추정되었다. 각 국가별로 누락된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이전 및 다음 해의 평균으로 대체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일랜드는 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OECD 건강 데이터: 사망 원인”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902>

추가 참고자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2013), *멕시코 국립지리통계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서*,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3/2013-11-CrimeStats-E.pdf>

표 A.23.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연령표준화한 인구 10만 명당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최근 연도
호주	AUS	..	1.2	1.0	1.2	1.2	1.1	1.1	1.3	1.0	1.0	..	AUS 1.0
오스트리아	AUT	0.8	0.8	0.6	0.6	0.7	0.5	0.5	0.4	0.4	0.4	..	AUT 0.4
벨기에	BEL	1.5	1.4	1.5	1.2	1.2	1.1	1.3	1.1	1.0	1.0	..	BEL 1.0
캐나다	CAN	1.7	1.5	1.5	1.7	1.7	1.5	1.5	1.4	CAN 1.4
칠레	CHL	5.8	5.5	4.5	4.2	5.2	4.4	4.4	3.8	3.7	4.5	..	CHL 4.5
체코	CZE	0.9	1.0	1.0	0.7	0.8	0.8	0.8	0.8	0.9	0.7	0.8	CZE 0.8
덴마크	DNK	1.0	0.7	0.8	0.8	0.8	0.8	0.8	0.3	0.4	0.7	..	DNK 0.7
에스토니아	EST	9.0	7.2	6.9	6.5	5.9	4.5	4.7	4.8	3.9	3.1	..	EST 3.1
핀란드	FIN	1.9	2.0	2.2	2.2	1.9	1.9	1.8	1.4	1.5	1.4	..	FIN 1.4
프랑스	FRA	0.7	0.7	0.6	0.7	0.8	0.6	0.6	0.6	0.6	FRA 0.6
독일	DEU	0.5	0.6	0.6	0.5	0.5	0.6	0.5	0.5	0.5	0.4	..	DEU 0.4
그리스	GRC	1.0	0.8	1.1	1.3	1.4	1.4	1.6	1.5	1.3	1.0	..	GRC 1.0
헝가리	HUN	1.9	1.9	1.7	2.0	1.4	1.4	1.5	1.3	1.2	0.9	1.2	HUN 1.2
아이슬란드	ISL	1.0	0.3	0.6	0.3	0.3	0.6	0.9	0.3	0.9	0.3	0.9	ISL 0.9
아일랜드	IRL	0.9	0.9	1.0	0.9	1.0	0.8	0.6	0.8	0.6	IRL 0.6
이스라엘	ISR	3.3	3.4	2.2	2.1	2.1	2.2	2.3	1.8	1.8	1.7	..	ISR 1.7
이탈리아	ITA	..	0.9	0.9	0.8	0.8	0.7	0.7	0.8	ITA 0.8
일본	JPN	0.5	0.5	0.4	0.4	0.4	0.3	0.3	0.3	0.3	0.3	..	JPN 0.3
한국	KOR	1.8	1.6	1.5	1.4	1.4	1.2	1.1	1.1	1.1	KOR 1.1
라트비아	LVA	10.2	9.6	8.5	7.8	6.4	6.3	6.0	6.1	5.6	6.6	..	LVA 6.6
룩셈부르크	LUX	1.5	1.4	1.2	1.1	0.9	2.1	0.4	0.2	0.2	0.6	..	LUX 0.6
멕시코	MEX	11.0	11.3	8.8	14.0	18.4	23.4	25.3	23.4	20.3	17.9	..	MEX 17.9
네덜란드	NLD	1.1	0.8	0.9	0.9	0.9	0.9	0.9	0.9	0.8	0.7	0.6	NLD 0.6
뉴질랜드	NZL	1.7	1.5	1.3	1.3	1.9	1.2	1.2	1.3	NZL 1.3
노르웨이	NOR	0.7	1.0	0.7	0.6	0.6	0.7	2.3	0.6	1.0	0.6	..	NOR 0.6
폴란드	POL	1.5	1.5	1.4	1.2	1.1	0.9	1.0	0.9	1.1	0.8	..	POL 0.8
포르투갈	PRT	1.0	1.4	1.0	1.2	0.9	1.1	0.9	1.0	..	PRT 1.0
슬로바키아	SVK	1.6	1.2	1.1	1.2	..	1.0	1.2	0.8	..	SVK 0.8
슬로베니아	SVN	1.1	0.6	1.0	0.6	0.5	0.4	0.9	0.7	0.9	0.9	0.6	SVN 0.6
스페인	ESP	0.9	0.8	0.7	0.8	0.7	0.7	0.7	0.6	0.6	0.6	..	ESP 0.6
스웨덴	SWE	0.9	0.9	1.2	0.8	0.9	1.0	0.8	0.7	0.8	0.8	1.0	SWE 1.0
스위스	CHE	0.9	0.6	0.6	0.6	0.7	0.5	0.5	0.5	0.5	CHE 0.5
터키	TUR	1.7	1.5	1.2	1.3	1.7	TUR 1.7
영국	GBR	0.4	0.4	0.4	0.3	0.3	0.3	0.3	0.2	0.2	GBR 0.2
미국	USA	6.0	6.0	6.0	5.7	5.4	5.2	5.1	5.3	5.1	4.9	..	USA 4.9
OECD	OECD 34	3.4	3.4	3.1	3.5	3.9	4.2	4.4	4.2	3.9	3.6	..	OECD 3.6
브라질	BRA	24.7	25.3	24.1	24.5	25.4	25.5	25.2	26.7	26.6	27.6	..	BRA 27.6
콜롬비아	COL	47.6	44.2	38.9	40.1	44.4	40.7	35.3	33.1	30.2	COL 30.2
코스타리카	CRI	7.4	7.8	5.8	8.4	9	10.2	9	7.3	7.4	8.5	..	CRI 8.5
리투아니아	LTU	9.4	7.8	7.3	7.6	6.1	5.5	5.1	4.3	4.7	3.7	4.1	LTU 4.1
러시아 연방	RUS	25	20.2	17.6	16.3	14.6	12.8	11.3	RUS 11.3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11.9	11.8	12.3	11.2	10.9	10.3	9.9	9.9	9.6	10	..	ZAF 10.0

주: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년, 콜롬비아,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2013년, 캐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의 경우 2012년, 러시아의 경우 2011년이다. 아일랜드에서는 2010년에 시계열이 중단되었다. 중단 전 셀은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시계열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내삽하여 추정되었다. 이 경우에 각 국가의 누락된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이전 및 다음 해의 평균으로 대체되었다. 아일랜드는 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OECD 평균에서 제외되었고,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는 모든 OECD 국가가 고려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OECD 건강 데이터: 사망 원인"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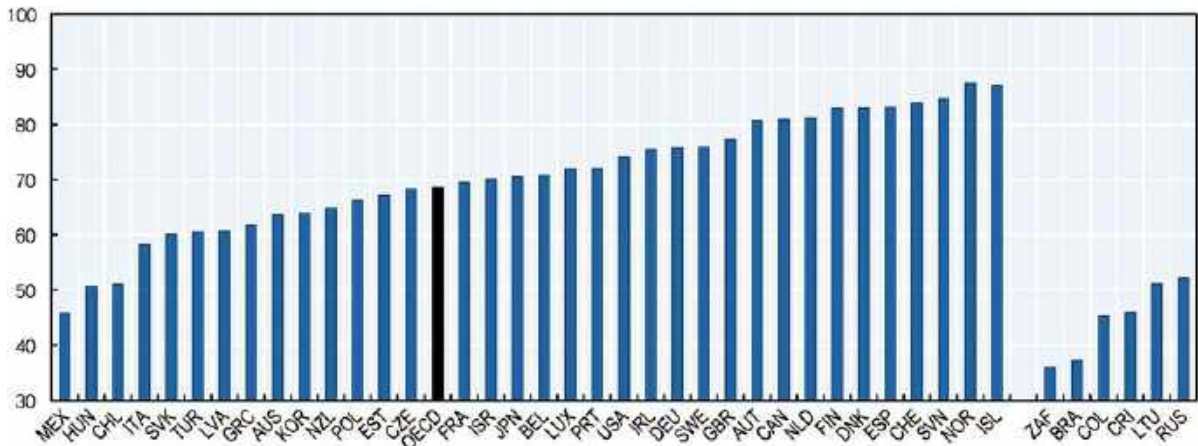
개인적 안전: 야간 안전감

정의

이 지표는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라는 설문조사 질문에 근거하며,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그렇다”고 대답한 모든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3년 평균이며, 연간 국가별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세계여론조사에서 제공한다. 표본은 전국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농촌 지역 포함)를 대표하도록 사전에 고안되었다. 표본 데이터는 갤럽에서 제공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인구에 대해 가중된다.

그림 A.41.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14~2016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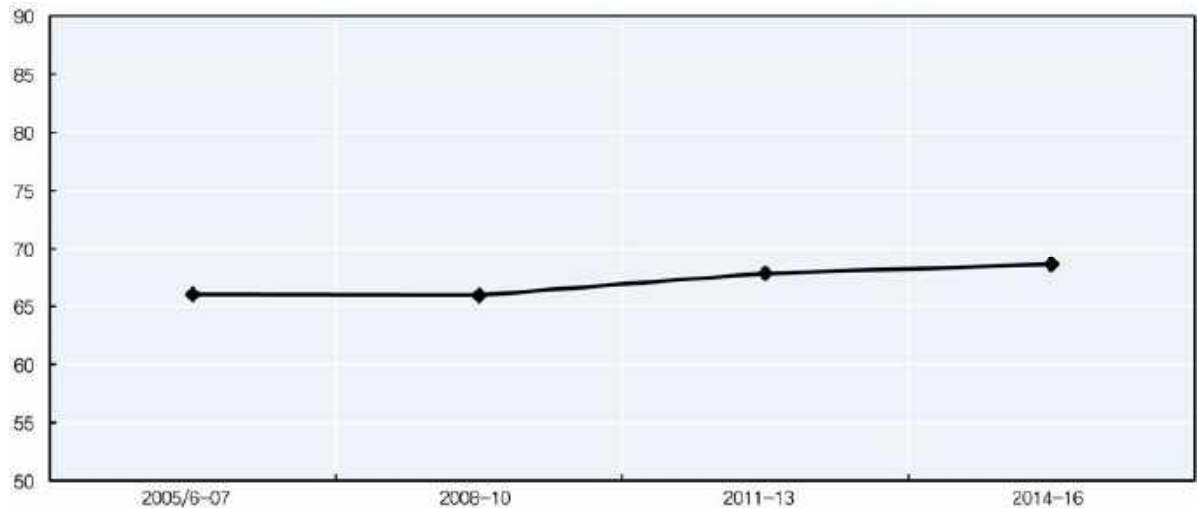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921>

그림 A.42.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 OECD 평균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OECD 33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940>


표 A.24.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의 안전감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2005/6-07	2008-10	2011-13	2014-16	최근 연도	
호주	AUS	62.8	63.4	65.3	63.6	AUS	63.6
오스트리아	AUT	74.7	77.2	82.9	80.7	AUT	80.7
벨기에	BEL	68.6	65.5	64.1	70.7	BEL	70.7
캐나다	CAN	77.2	77.1	79.8	80.9	CAN	80.9
칠레	CHL	39.0	44.7	53.8	51.1	CHL	51.1
체코	CZE	53.0	58.2	60.6	68.3	CZE	68.3
덴마크	DNK	83.6	81.0	79.3	83.0	DNK	83.0
에스토니아	EST	55.8	60.1	60.5	67.2	EST	67.2
핀란드	FIN	78.5	76.7	78.6	82.9	FIN	82.9
프랑스	FRA	69.5	63.8	65.6	69.6	FRA	69.6
독일	DEU	73.5	73.0	77.4	75.9	DEU	75.9
그리스	GRC	60.5	55.7	50.8	61.8	GRC	61.8
헝가리	HUN	58.9	56.2	54.5	50.7	HUN	50.7
아이슬란드	ISL	..	77.4	78.8	87.0	ISL	87.0
아일랜드	IRL	70.7	66.3	71.8	75.5	IRL	75.5
이스라엘	ISR	71.2	67.1	64.9	70.2	ISR	70.2
이탈리아	ITA	60.0	58.7	60.2	58.3	ITA	58.3
일본	JPN	62.5	68.7	71.4	70.6	JPN	70.6
한국	KOR	60.6	58.9	59.6	63.9	KOR	63.9
라트비아	LVA	47.1	48.6	54.1	60.7	LVA	60.7
룩셈부르크	LUX	..	75.6	69.7	72.0	LUX	72.0
멕시코	MEX	56.7	48.6	50.2	45.9	MEX	45.9
네덜란드	NLD	73.4	73.0	78.9	81.2	NLD	81.2
뉴질랜드	NZL	60.6	59.6	65.6	64.8	NZL	64.8
노르웨이	NOR	85.2	81.4	86.8	87.7	NOR	87.7
폴란드	POL	63.8	61.2	65.2	66.3	POL	66.3
포르투갈	PRT	64.0	62.7	63.4	72.1	PRT	72.1
슬로바키아	SVK	47.0	49.2	57.1	60.1	SVK	60.1
슬로베니아	SVN	79.4	80.6	83.5	84.7	SVN	84.7
스페인	ESP	64.6	65.3	73.6	83.1	ESP	83.1
스웨덴	SWE	70.7	70.9	78.7	75.9	SWE	75.9
스위스	CHE	77.3	76.5	77.6	84.0	CHE	84.0
터키	TUR	50.7	51.3	56.3	60.6	TUR	60.6
영국	GBR	62.4	66.8	73.1	77.4	GBR	77.4
미국	USA	75.1	76.6	74.5	74.1	USA	74.1
OECD	OECD 33	66.0	66.0	67.8	68.6	OECD	68.6
브라질	BRA	37.8	39.7	40.1	37.3	BRA	37.3
콜롬비아	COL	53.9	44.2	46.2	45.3	COL	45.3
코스타리카	CRI	49.7	42.6	50.6	45.9	CRI	45.9
리투아니아	LTU	32.3	33.1	45.3	51.2	LTU	51.2
러시아 연방	RUS	27.3	36.8	40.6	52.2	RUS	52.2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36.6	23.9	28.2	36.1	ZAF	36.1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기간에 대한 OECD 평균은 모든 OECD 국가를 고려한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087>

추가 참고자료:

OECD(2011d), *How's Life?: 웰빙 측정 “개인적 안전”*,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13-en>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특별 주석: 이 지표의 경우 현재 수준에 대한 정보(그림 A.43)는 대략적으로 비교 가능한 질문에 의존하는 국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통계청이 제공한 추정치에 근거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정보(그림 A.44)는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근거하며, 이 출처를 사용하여 더 긴 시계열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를 비교 가능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공된 정의를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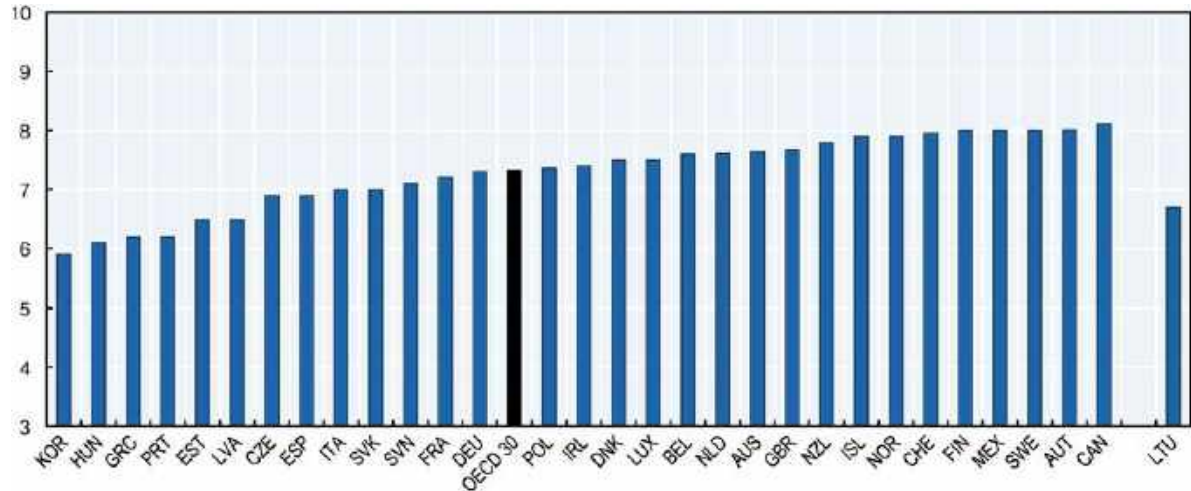
현재 수준

정의

이 지표는 11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며, *OECD 주관적 웰빙 측정 지침*(OECD, 2013)에서 권장하는 형식을 따르는 설문조사 질문에 기반한다. “전반적으로 요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응답은 0(“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함”)까지이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국가 SILC가 그리고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는 국가 사회조사의 조사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유럽 데이터는 2013년에 실시된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및 웰빙에 대한 특수 모듈에서 비롯되었다. EU-SILC는 16세 이상의 개인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표본(최소 회원국의 약 4,000명부터 최대 회원국의 약 16,000명까지)을 갖는 국가적인 대표 설문조사이다. 호주의 데이터는 호주 통계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의 캐나다 지역사회건강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이탈리아의 경우 ISTAT의 다목적 가구조사(Multipurpose survey on households), 멕시코의 경우 INEGI의 가구지출조사(National Survey of Household Expenditure),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통계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영국의 경우 ONS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에 근거한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데이터는 15세 이상의 인구를 나타내며, 멕시코의 데이터는 18~70세 인구를 나타낸다.

그림 A.43. 삶의 만족도

0~10 척도의 평균값, 2013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의 경우 2016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의 경우 2015년, 호주, 멕시코의 경우 2014년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칠레, 이스라엘, 일본, 터키,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EU 국가의 경우 Eurostat(2017),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경우 국가 SILC가 그리고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는 국가 사회조사의 조사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 호주의 경우 호주 통계청, 2014 종합사회조사, www.abs.gov.au/ausstats/abs@nsf/mf/4159.0#Anchor3, 오스트리아 통계청,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지역 사회건강조사 2015, <http://www23.statcan.gc.ca/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226>, 덴마크 통계, <http://dst.dk/en/Statistik/dokumentation/documentationofstatistics/quality-of-life-indicators>, INSEE, Statistiques sur les ressources et conditions de vie, <https://www.insee.fr/fr/metadonnees/source/s1220#consulter>, ISTAT, 다목적 가구조사 2016, 멕시코의 경우 INEGI, 가구 지출조사(BIARE-ENGASTO) 2014, www.inegi.org.mx/inegi/contenidos/investigacion/Experimentales/Bienestar/default.aspx, 뉴질랜드 통계청, 2016 종합사회조사, 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people_and_communities/Households/nzgss_HOTP2014/Tables.aspx, 영국의 경우 ONS 연간인구조사 2016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959>

표 A.25. 통계청의 삶의 만족도 측정

0~10 척도의 평균값

		2013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호주	AUS	7.6
오스트리아	AUT	8.0
벨기에	BEL	7.6
캐나다	CAN	8.1
칠레	CHL	..
체코	CZE	6.9
덴마크	DNK	7.5
에스토니아	EST	6.5
핀란드	FIN	8.0
프랑스	FRA	7.2
독일	DEU	7.3
그리스	GRC	6.2
헝가리	HUN	6.1
아이슬란드	ISL	7.9
아일랜드	IRL	7.4
이스라엘	ISR	..
이탈리아	ITA	7.0
일본	JPN	..
한국	KOR	5.9
라트비아	LVA	6.5
룩셈부르크	LUX	7.5
멕시코	MEX	8.0
네덜란드	NLD	7.6
뉴질랜드	NZL	7.8
노르웨이	NOR	7.9
폴란드	POL	7.4
포르투갈	PRT	6.2
슬로바키아	SVK	7.0
슬로베니아	SVN	7.1
스페인	ESP	6.9
스웨덴	SWE	8.0
스위스	CHE	7.9
터키	TUR	..
영국	GBR	7.7
미국	USA	..
OECD	OECD 30	7.3
리투아니아	LTU	6.7

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의 데이터는 2016년에 해당하고,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의 경우 2015년, 호주와 멕시코는 2014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칠레, 이스라엘, 일본, 터키,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EU 국가의 경우 Eurostat(2017),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국가 SILC가 그리고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는 국가 사회조사의 조사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 호주의 경우 호주 통계청, 2014 종합사회조사, www.abs.gov.au/ausstats/abs@.nsf/mf/4159.0#Anchor3, 오스트리아 통계청,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지역사회건강조사 2015, <http://www23.statcan.gc.ca/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226>, 덴마크 통계, <http://dst.dk/en/Statistik/dokumentation/documentationofstatistics/quality-of-life-indicators>; INSEE, Statistiques sur les ressources et conditions de vie, <https://www.insee.fr/fr/metadonnees/source/s1220#consulter>, ISTAT, 다목적 가구조사 2016, 멕시코의 경우 INEGI, 가구지출조사(BIARE-ENGASTO) 2014, www.inegi.org.mx/inegi/contenidos/investigacion/Experimentales/Bienestar/default.aspx, 뉴질랜드 통계청, 2016 종합사회조사, 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people_and_communities/Households/nzcss_HOTP2014/Tables.aspx, 영국의 경우 ONS 연간인구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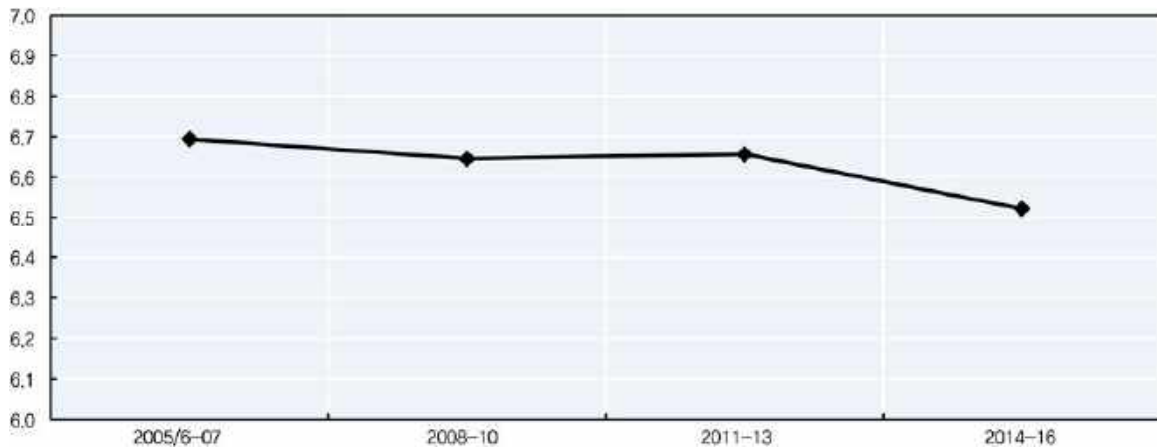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106>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정의

이 섹션은 갤럽세계여론조사에서 제공한 “캔트릴 사다리”에 근거하여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고려한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0부터 10까지(10은 최고의 삶, 0은 최악의 삶)의 단이 있는 사다리(즉 “캔트릴 사다리”)를 떠올려 보고, 자신이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다리의 위치를 가리킨다. 갤럽세계여론조사는 매년 국가당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는 3년 평균으로 표시된다. 표본은 전국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농촌 지역 포함)를 대표하도록 사전에 고안되었다. 표본 데이터는 갤럽에서 제공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인구에 대해 가중된다.

그림 A.44 삶의 만족도, OECD 평균
0~10 척도의 평균값, OECD 33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978>

표 A.26. 갤럽세계여론조사의 삶의 만족도 측정

0~10 척도의 평균값

		2005/6-07	2008-10	2011-13	2014-16
호주	AUS	7.3	7.4	7.3	7.3
오스트리아	AUT	7.1	7.3	7.5	7.0
벨기에	BEL	7.2	7.0	7.1	6.9
캐나다	CAN	7.4	7.5	7.5	7.3
칠레	CHL	5.9	6.3	6.6	6.7
체코	CZE	6.5	6.2	6.5	6.6
덴마크	DNK	7.9	7.8	7.6	7.5
에스토니아	EST	5.4	5.3	5.4	5.6
핀란드	FIN	7.7	7.5	7.4	7.5
프랑스	FRA	6.8	6.7	6.8	6.4
독일	DEU	6.5	6.6	6.8	7.0
그리스	GRC	6.3	5.9	5.1	5.2
헝가리	HUN	5.1	4.8	4.8	5.3
아이슬란드	ISL	..	6.9	7.5	7.5
아일랜드	IRL	7.1	7.3	6.9	7.0
이스라엘	ISR	7.0	7.3	7.3	7.2
이탈리아	ITA	6.7	6.5	6.0	5.9
일본	JPN	6.4	5.9	6.1	5.9
한국	KOR	5.5	5.7	6.3	5.9
라트비아	LVA	4.7	4.9	5.1	5.9
룩셈부르크	LUX	..	7.0	7.1	6.9
멕시코	MEX	6.6	6.9	7.2	6.6
네덜란드	NLD	7.5	7.6	7.5	7.4
뉴질랜드	NZL	7.5	7.3	7.2	7.3
노르웨이	NOR	7.4	7.6	7.7	7.5
폴란드	POL	5.7	5.8	5.8	6.0
포르투갈	PRT	5.4	5.3	5.1	5.2
슬로바키아	SVK	5.3	6.1	5.9	6.1
슬로베니아	SVN	5.8	6.0	6.0	5.8
스페인	ESP	7.1	6.6	6.3	6.4
스웨덴	SWE	7.3	7.4	7.5	7.3
스위스	CHE	7.5	7.5	7.8	7.5
터키	TUR	5.2	5.3	5.2	5.5
영국	GBR	6.9	7.0	6.9	6.7
미국	USA	7.3	7.2	7.1	6.9
OECD	OECD 33	6.7	6.6	6.7	6.5
브라질	BRA	6.5	6.8	7.0	6.6
콜롬비아	COL	6.1	6.3	6.5	6.4
코스타리카	CRI	7.3	7.2	7.2	7.1
리투아니아	LTU	5.9	5.4	5.6	5.9
러시아 연방	RUS	5.1	5.4	5.5	6.0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5.1	5.1	4.6	4.8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125>

추가 참고자료:

OECD(2013), *주관적 웰빙 측정 지침*, www.oecd.org/statistics/guidelines-on-measuring-subjective-well-being.htm

온라인 데이터 부록: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독자를 위한 가이드

이 온라인 전용 부록은 'How's Life? 2017'에 소개된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각 지표에 대한 정의, 수준, (가능한 경우) 2005년 이후 변화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일반적으로 1인당 기준으로 표현), 흐름(예: 이러한 자산에 관한 투자 및 가치 하락), 미래에 이러한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의 위험을 다룬다. 온라인 데이터 부록: 현재 웰빙에 제시된 통계와 함께 자연, 인적, 경제, 사회 자원(또는 "자본")에 관한 이러한 설명 지표들은 제1장의 분석을 위한 기초와 제5장의 국가별 현황을 제공한다. 각 국가별 현황의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및 위험 대시보드에는 이 부록과 현재 웰빙 지표에 대한 온라인 부록에서 얻은 지표가 포함된다. 이는 일부 경우(즉 실외 대기오염 노출, 15세의 인지 능력, 성인 역량, 장기 실업률, 출생 시 기대여명, 가구순자산, 투표율)에 동일한 지표가 현재 웰빙 성과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록에서 시계열이 중단된 경우 비교 불가능한 데이터를 회색으로 강조 표시한다. 누락된 데이터는 “.”로 표시된다. ISO3 코드는 차트와 표에서 국가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체 OECD 국가에 대해 OECD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평균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OECD 라벨 옆에 명시된다. 모든 지표는 2017년 7월 24~31일의 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 이 온라인 전용 부록의 한글 번역본은 'how's life 2017 한글판'의 pdf 파일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ow's life 2017 한글판'의 pdf 파일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홈페이지(oecdkorea.org)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목 차

자연 자본: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416
정의	416
추가 참고자료:	418
자연 자본: 국내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	419
정의	419
추가 자료:	421
자연 자본: 산림 면적	422
정의	422
추가 참고자료:	423
자연 자본: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424
정의	424
추가 참고자료:	425
자연 자본: 담수 취수	426
정의	426
추가 참고자료:	427
자연 자본: 위협 받는 종	428
정의	428
추가 참고자료:	429
인적 자본: 청년의 교육 성취도	430
정의	430
추가 참고자료:	430
인적 자본: 교육 기대년수	432
정의	432
추가 참고자료:	433
인적 자본: 흡연율	434
정의	434
추가 참고자료:	435
인적 자본: 비만율	436
정의	436
추가 참고자료:	437
경제 자본: 생산된 고정 자산	438
정의	438
추가 참고자료:	440
경제 자본: 총 고정 자본 형성	441
정의	441
추가 참고자료: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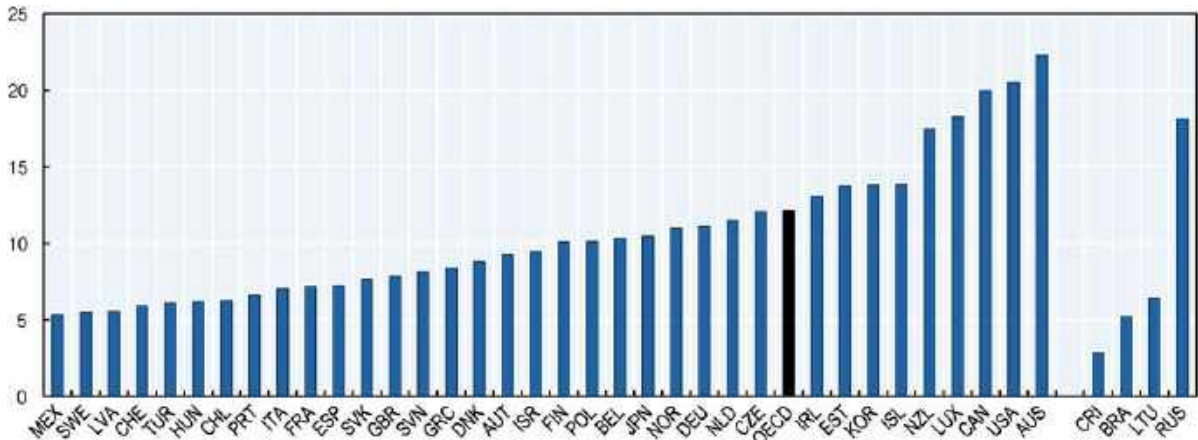
경제 자본: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443
정의	443
추가 참고자료:	444
경제 자본: 지적 재산 자산	445
정의	445
추가 참고자료:	446
경제 자본: R&D 투자	447
정의	447
추가 참고자료:	448
경제 자본: 가계 부채	449
정의	449
추가 참고자료:	450
경제 자본: 정부의 금융순자산	451
정의	451
추가 참고자료:	453
경제 자본: 은행 부문 레버리지	454
정의	454
추가 참고자료:	456
사회 자본: 타인에 대한 신뢰도	457
정의	457
추가 참고자료:	458
사회 자본: 경찰에 대한 신뢰도	459
정의	459
추가 참고자료:	460
사회 자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	461
정의	461
추가 참고자료:	463
사회 자본: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464
정의	464
추가 참고자료:	465
사회 자본: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466
정의	466
추가 참고자료:	467

자연 자본: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의

이 지표는 “온난화 가능성”으로 가중된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CO₂,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포함, 예: 시멘트 생산), 메탄(CH₄, 고체 폐기물, 가축, 경탄 및 갈탄 채굴, 논, 농업,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의 누출 등으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포함), 이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₆))의 인공 배출량에 관한 것이며, 1인당 CO₂ 당량 톤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배출량은 대기 중 GHG 농도를 증가시키는 흐름이다(자연 자원을 고갈시킨다).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 데이터는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제출(National Inventory Submissions) 2014와 OECD 회원국의 환경 설문지 응답을 기초로 편집된다. 데이터는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삼림 관리에 따른 배출 또는 제거를 제외한 총 직접 배출량을 나타낸다.

그림 A.45.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CO₂당량 톤,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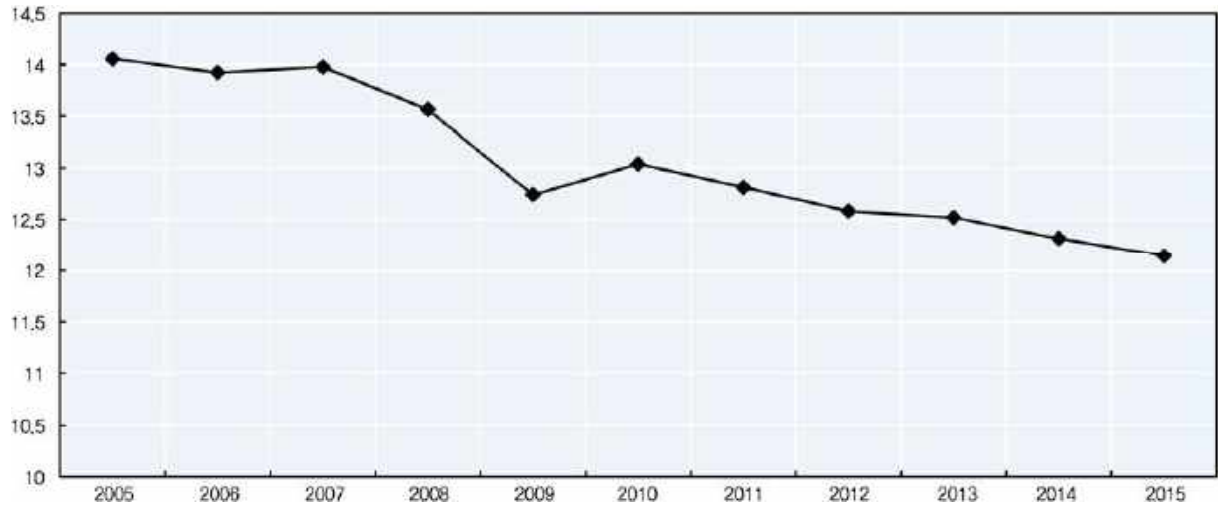


주: 최신 연도는 이스라엘의 경우 2014년, 칠레, 한국, 멕시코의 경우 2013년, 브라질과 코스타리카의 경우 2012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출처별 온실가스 배출량”, <http://dx.doi.org/10.1787/data-0059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7997>

그림 A.46.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OECD 평균
1인당 CO₂당량 톤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출처별 온실가스 배출량”, <http://dx.doi.org/10.1787/data-0059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016>

표 A.27.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CO₂당량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호주	AUS	25.8	25.7	25.6	25.2	24.9	24.4	24.1	23.8	23.0	22.4	22.3	AUS	22.3
오스트리아	AUT	11.3	10.9	10.5	10.4	9.6	10.2	9.9	9.5	9.5	9.0	9.2	AUT	9.2
벨기에	BEL	13.8	13.5	13.1	13.0	11.7	12.1	11.0	10.7	10.7	10.1	10.3	BEL	10.3
캐나다	CAN	22.9	22.4	22.8	21.9	20.4	20.5	20.5	20.5	20.6	20.4	20.0	CAN	20.0
칠레	CHL	5.1	5.1	5.6	5.6	5.3	5.4	5.9	6.1	6.3	CHL	6.3
체코	CZE	14.3	14.4	14.5	13.9	13.0	13.2	13.0	12.7	12.3	12.0	12.1	CZE	12.1
덴마크	DNK	12.4	13.8	12.9	12.1	11.6	11.6	10.6	9.7	10.0	9.3	8.8	DNK	8.8
에스토니아	EST	14.2	13.7	16.5	14.9	12.5	15.8	15.9	15.1	16.6	16.0	13.8	EST	13.8
핀란드	FIN	13.2	15.3	15.0	13.4	12.6	14.1	12.6	11.5	11.6	10.8	10.1	FIN	10.1
프랑스	FRA	9.1	8.9	8.7	8.5	8.1	8.2	7.7	7.7	7.6	7.1	7.2	FRA	7.2
독일	DEU	12.0	12.1	11.8	11.9	11.1	11.5	11.4	11.5	11.7	11.2	11.1	DEU	11.1
그리스	GRC	12.3	11.9	12.1	11.8	11.1	10.6	10.4	10.1	9.0	8.7	8.4	GRC	8.4
헝가리	HUN	7.5	7.4	7.2	7.1	6.5	6.5	6.4	6.1	5.8	5.9	6.2	HUN	6.2
아이슬란드	ISL	13.0	14.5	14.9	15.8	15.0	14.6	13.8	13.9	13.9	13.7	13.8	ISL	13.8
아일랜드	IRL	16.9	16.4	15.7	15.1	13.7	13.5	12.6	12.7	12.6	12.5	13.1	IRL	13.1
이스라엘	ISR	10.5	10.5	10.7	10.8	10.0	10.2	10.2	10.8	9.8	9.4	..	ISR	9.4
이탈리아	ITA	9.9	9.7	9.5	9.2	8.2	8.4	8.1	7.7	7.2	6.9	7.0	ITA	7.0
일본	JPN	10.9	10.8	11.1	10.4	9.8	10.2	10.6	10.9	11.1	10.7	10.4	JPN	10.4
한국	KOR	11.6	11.6	11.9	12.1	12.1	13.2	13.7	13.7	13.8	KOR	13.8
라트비아	LVA	5.0	5.3	5.6	5.4	5.2	5.8	5.6	5.6	5.5	5.5	5.6	LVA	5.6
룩셈부르크	LUX	28.1	27.3	25.7	25.0	23.5	24.2	23.5	22.4	20.9	19.6	18.3	LUX	18.3
멕시코	MEX	5.7	5.9	6.1	6.3	6.1	6.1	5.3	MEX	5.3
네덜란드	NLD	13.1	12.8	12.7	12.6	12.2	12.9	12.0	11.7	11.6	11.1	11.5	NLD	11.5
뉴질랜드	NZL	20.0	19.7	19.0	18.8	18.1	17.9	17.8	18.1	17.9	17.8	17.5	NZL	17.5
노르웨이	NOR	11.9	11.8	12.1	11.6	10.9	11.3	10.9	10.7	10.5	10.4	11.0	NOR	11.0
폴란드	POL	10.4	10.8	10.8	10.6	10.1	10.5	10.5	10.3	10.3	10.0	10.1	POL	10.1
포르투갈	PRT	8.2	7.7	7.5	7.2	6.9	6.6	6.5	6.3	6.2	6.2	6.6	PRT	6.6
슬로바키아	SVK	9.6	9.5	9.2	9.3	8.5	8.6	8.4	8.0	7.9	7.5	7.6	SVK	7.6
슬로베니아	SVN	10.2	10.3	10.3	10.6	9.6	9.6	9.6	9.3	8.9	8.1	8.1	SVN	8.1
스페인	ESP	10.1	9.7	9.7	8.9	8.0	7.7	7.6	7.5	6.9	7.0	7.2	ESP	7.2
스웨덴	SWE	7.4	7.4	7.1	6.8	6.3	6.9	6.4	6.0	5.8	5.6	5.5	SWE	5.5
스위스	CHE	7.4	7.3	7.0	7.1	6.8	6.9	6.4	6.5	6.6	6.0	5.9	CHE	5.9
터키	TUR	4.9	5.2	5.6	5.5	5.6	5.6	5.9	6.0	5.8	5.9	6.1	TUR	6.1
영국	GBR	11.6	11.5	11.2	10.8	9.8	9.9	9.1	9.3	9.0	8.3	7.9	GBR	7.9
미국	USA	24.7	24.3	24.4	23.5	21.8	22.4	21.7	20.8	21.1	21.1	20.5	USA	20.5
OECD	OECD	14.1	13.9	14.0	13.6	12.7	13.0	12.8	12.6	12.5	12.3	12.1	OECD	12.1
브라질	BRA	4.7	4.8	4.7	4.8	4.7	4.9	5.1	5.2	BRA	5.2
코스타리카	CRI	2.6	2.8	..	2.8	CRI	2.8
리투아니아	LTU	6.8	6.9	7.6	7.4	6.1	6.4	6.6	6.6	6.3	6.3	6.4	LTU	6.4
러시아 연방	RUS	17.4	18.0	18.1	18.3	17.4	18.2	18.6	18.9	18.4	18.4	18.1	RUS	18.1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출처별 온실가스 배출량”, <http://dx.doi.org/10.1787/data-0059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144>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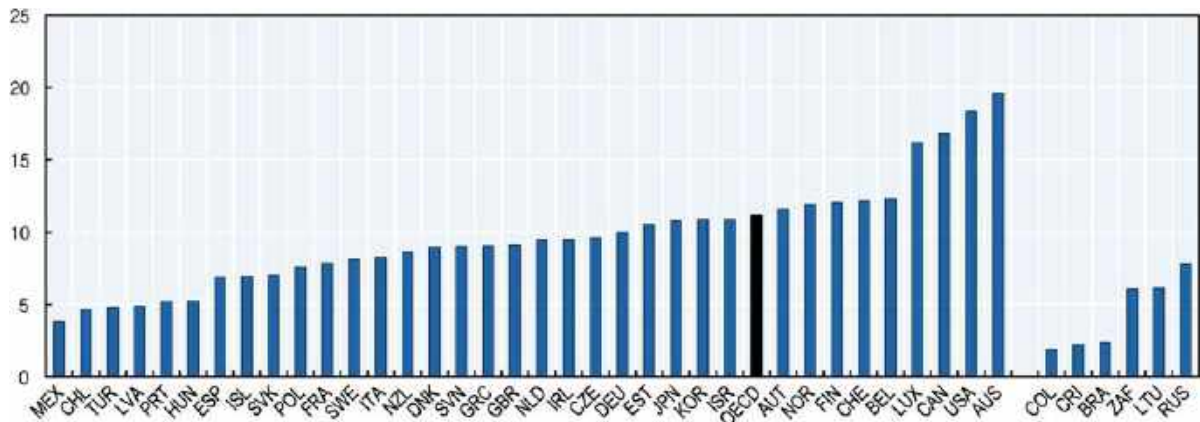
OECD(2012), 2050년까지의 OECD 환경 전망: 무대책의 결과,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2246-en>

자연 자본: 국내 소비로 인한 CO₂ 배출량

정의

“국내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소비로 인한 CO₂ 배출량 추정치도 고려한다. 이 지표는 국내에 배출되고 소비된 CO₂와 해외에서 배출되고 수입품에 포함된 CO₂를 모두 포함하여 국내 소비와 관련된 이산화탄소(CO₂)의 총 배출량 추정치이다. 한 국가의 국내 소비에 포함된 배출량은 국내 생산으로 인한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GHG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 지표는 연료 연소 및 기타 산업 통계의 CO₂ 배출량에 대한 IEA 통계와 결합된 OECD 국가간 입력-출력(OECD Inter-Country Input-Output, ICIO) 데이터베이스의 2015년 판에서 가져온 것이다. 1인당 값은 최종 수요에 포함된 CO₂를 UN 세계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 파일 POP/1-1에 나와 있는 국가의 인구로 나눈 값이다. OECD 구조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형성하는 데이터는 Wiebe 및 Yamano(2016)가 상세히 명시한 방법론에 따라 편집된다.

그림 A.47. 국내 최종 수요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톤,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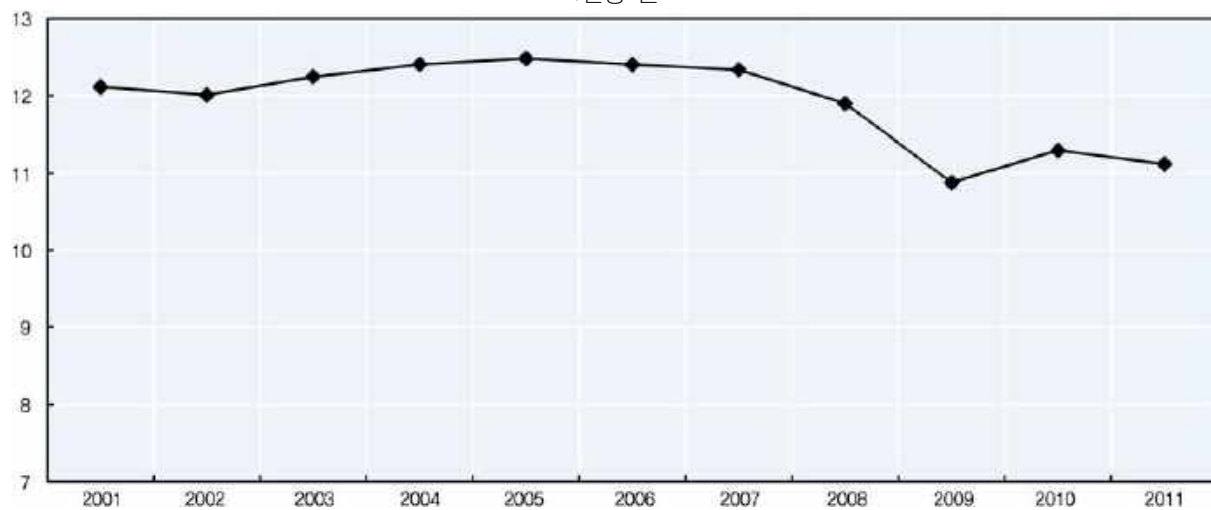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구조 분석(STAN) 데이터베이스의 “국제 무역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035>

그림 A.48. 국내 최종 수요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OECD 평균
1인당 톤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구조 분석(STAN) 데이터베이스의 “국제 무역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054>

표 A.28. 국내 최종 수요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
호주	AUS	17.0	18.0	18.9	19.9	20.2	19.9	20.4	19.8	19.4	19.3	19.6	AUS	19.6
오스트리아	AUT	11.6	12.0	12.1	12.0	11.9	11.3	11.3	11.4	10.4	11.2	11.6	AUT	11.6
벨기에	BEL	11.8	11.4	12.0	12.2	12.2	12.2	11.5	13.0	11.3	12.3	12.3	BEL	12.3
캐나다	CAN	15.6	15.7	16.7	16.8	17.1	17.3	17.8	17.3	16.3	16.9	16.8	CAN	16.8
칠레	CHL	3.1	3.3	3.3	3.5	3.6	3.6	4.0	4.2	3.8	4.3	4.7	CHL	4.7
체코	CZE	11.7	12.0	11.6	11.4	10.8	10.8	10.6	10.7	9.9	10.5	9.7	CZE	9.7
덴마크	DNK	11.9	12.3	12.5	12.8	11.7	12.5	12.3	11.7	10.6	9.7	9.0	DNK	9.0
에스토니아	EST	11.7	11.8	13.0	11.3	12.2	12.0	13.2	12.3	9.6	10.8	10.5	EST	10.5
핀란드	FIN	14.5	15.5	15.9	15.3	13.7	14.1	13.9	13.2	12.6	12.7	12.0	FIN	12.0
프랑스	FRA	8.3	8.0	8.6	8.7	8.7	8.6	8.6	8.7	8.0	8.1	7.9	FRA	7.9
독일	DEU	11.9	11.2	11.6	11.2	11.0	11.1	10.7	10.8	10.0	10.1	10.0	DEU	10.0
그리스	GRC	10.1	10.7	11.2	11.6	11.1	11.0	11.7	11.5	10.5	9.7	9.1	GRC	9.1
헝가리	HUN	6.8	7.1	7.3	7.4	6.8	6.5	6.2	6.2	5.6	5.5	5.3	HUN	5.3
아이슬란드	ISL	10.1	9.9	10.6	11.3	13.0	14.8	13.9	10.2	7.2	7.2	7.0	ISL	7.0
아일랜드	IRL	12.7	12.2	12.2	12.7	13.4	13.8	14.7	13.6	11.2	10.6	9.5	IRL	9.5
이스라엘	ISR	11.9	11.7	11.4	11.3	10.7	10.5	11.0	10.8	10.2	10.7	10.9	ISR	10.9
이탈리아	ITA	9.3	9.2	9.7	9.9	9.8	9.6	9.4	9.1	8.2	8.4	8.3	ITA	8.3
일본	JPN	10.8	10.8	10.9	11.1	11.1	10.8	10.8	10.4	9.7	10.2	10.8	JPN	10.8
한국	KOR	9.2	9.4	9.3	9.6	10.0	10.5	10.7	10.5	9.7	10.7	10.9	KOR	10.9
라트비아	LVA	4.3	4.5	5.3	5.2	5.4	5.9	6.6	6.1	4.5	4.7	4.9	LVA	4.9
룩셈부르크	LUX	15.9	15.3	16.5	17.1	19.4	17.8	17.3	18.3	14.1	16.4	16.2	LUX	16.2
멕시코	MEX	3.7	3.6	3.6	3.7	3.8	3.9	4.0	3.9	3.5	3.7	3.8	MEX	3.8
네덜란드	NLD	11.1	10.9	11.2	10.9	10.3	10.3	10.2	10.4	10.0	10.2	9.5	NLD	9.5
뉴질랜드	NZL	8.1	8.3	9.0	9.3	10.2	9.6	9.8	9.4	8.2	8.6	8.7	NZL	8.7
노르웨이	NOR	11.5	11.0	11.9	11.7	11.5	11.8	11.9	11.9	10.6	11.9	11.9	NOR	11.9
폴란드	POL	7.6	7.3	7.1	7.0	7.2	7.5	7.5	7.9	7.3	7.8	7.6	POL	7.6
포르투갈	PRT	7.0	7.2	6.8	7.0	7.5	6.8	6.6	6.5	6.0	5.5	5.2	PRT	5.2
슬로바키아	SVK	7.6	7.8	7.3	7.2	7.4	7.2	7.5	7.8	7.4	7.4	7.1	SVK	7.1
슬로베니아	SVN	9.7	8.6	9.7	9.7	9.3	9.6	10.0	10.4	8.8	9.0	9.1	SVN	9.1
스페인	ESP	7.8	8.1	8.5	9.0	9.4	9.4	9.6	8.7	7.4	7.1	6.9	ESP	6.9
스웨덴	SWE	8.0	8.6	9.2	8.9	8.8	8.7	8.9	8.4	6.9	8.5	8.1	SWE	8.1
스위스	CHE	12.6	11.5	11.2	11.2	12.0	11.6	11.7	11.7	11.1	12.0	12.2	CHE	12.2
터키	TUR	2.9	3.1	3.4	3.7	4.0	4.3	4.7	4.6	4.1	4.5	4.8	TUR	4.8
영국	GBR	11.4	11.3	11.5	11.8	11.9	11.9	11.9	11.0	9.5	9.8	9.1	GBR	9.1
미국	USA	21.6	21.4	21.5	21.9	21.9	21.6	21.2	20.0	18.3	19.0	18.4	USA	18.4
OECD	OECD	12.1	12.0	12.2	12.4	12.5	12.4	12.3	11.9	10.9	11.3	11.1	OECD	11.1
브라질	BRA	1.7	1.6	1.5	1.6	1.6	1.7	1.9	2.1	1.9	2.3	2.4	BRA	2.4
콜롬비아	COL	1.6	1.6	1.5	1.5	1.5	1.6	1.6	1.7	1.6	1.7	1.9	COL	1.9
코스타리카	CRI	2.0	2.1	1.9	1.9	1.9	2.0	2.1	2.2	1.8	2.1	2.3	CRI	2.3
리투아니아	LTU	4.4	4.4	5.0	5.1	5.4	5.9	6.2	6.3	5.4	6.0	6.1	LTU	6.1
러시아 연방	RUS	5.2	5.4	5.6	6.1	6.0	6.8	7.5	7.5	6.9	7.4	7.8	RUS	7.8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4.9	4.9	5.5	5.9	5.8	5.9	6.2	6.4	6.2	6.3	6.1	ZAF	6.1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구조 분석(STAN) 데이터베이스의 “국제 무역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_GHG_201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163>

추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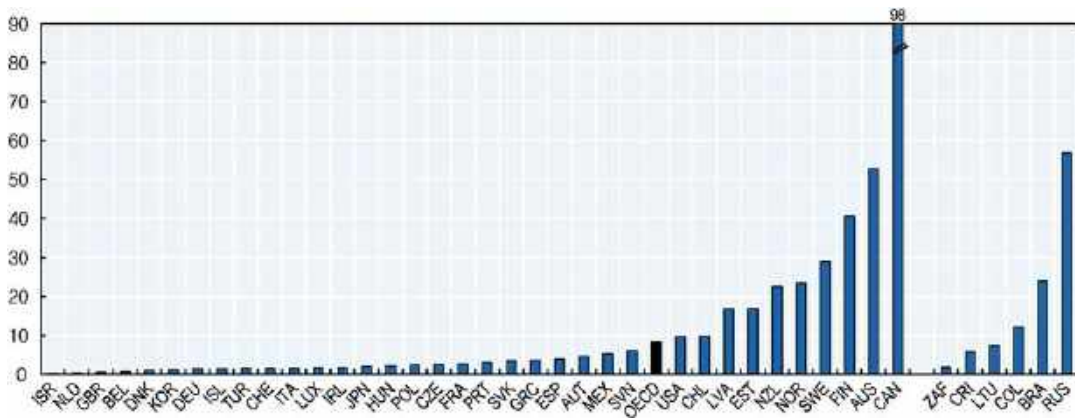
Wiebe, K. 및 N. Yamano(2016), “OECD ICIO 2015를 이용하여 최종 수요 및 무역에 포함된 CO₂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및 결과”, OECD 과학, 기술, 산업 워킹페이퍼, No. 2016/05,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lrcm216xkl-en>

자연 자본: 산림 면적

정의

이 지표는 숲과 삼림 지대를 나타내며, 인구 1,000명당 km^2 으로 표현된다. 0.5헥타르 이상이고 캐노피 덮개가 10% 이상이거나 현장에서 이러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삼림 지대를 포함한다. 주로 농업 또는 도시 토지 이용에 속하거나 오락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삼림 지대나 숲은 제외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UNECE와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FAO)의 세계삼림자원평가(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가 보고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FAO의 평가 방법론은 국가 통신원이 작성한 국가 보고서와 원격 탐지에 의존한다.

그림 A.49. 산림 면적
인구 1,000명당 km^2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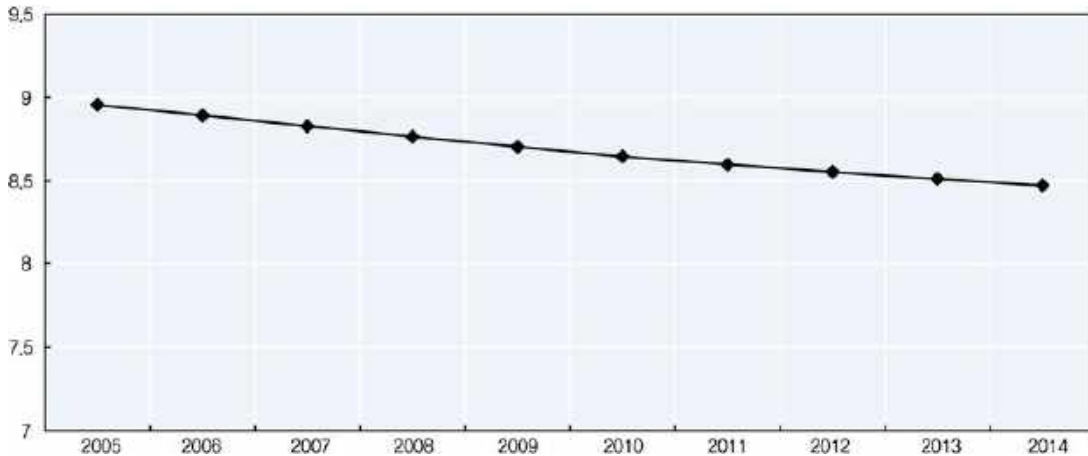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토지 자원”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U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073>

그림 A.50. 산림 면적,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km^2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토지 자원”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U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092>

표 A.29. 산림 면적
인구 1,000명당 km²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호주	AUS	63.0	61.5	60.0	58.5	57.0	55.6	54.8	54.0	53.3	52.7	AUS	52.7
오스트리아	AUT	4.7	4.7	4.6	4.6	4.6	4.6	4.6	4.6	4.6	4.5	AUT	4.5
벨기에	BEL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BEL	0.6
캐나다	CAN	107.8	106.6	105.3	104.1	102.9	101.8	100.7	99.6	98.5	97.5	CAN	97.5
칠레	CHL	10.0	9.9	9.8	9.7	9.6	9.5	9.6	9.7	9.7	9.8	CHL	9.8
체코	CZE	2.6	2.6	2.6	2.6	2.5	2.5	2.5	2.5	2.5	2.5	CZE	2.5
덴마크	DNK	1.0	1.0	1.0	1.0	1.1	1.1	1.1	1.1	1.1	1.1	DNK	1.1
에스토니아	EST	16.6	16.7	16.7	16.7	16.7	16.8	16.8	16.9	16.9	17.0	EST	17.0
핀란드	FIN	42.2	42.1	41.9	41.8	41.6	41.4	41.2	41.0	40.7	40.5	FIN	40.5
프랑스	FRA	2.6	2.6	2.6	2.6	2.6	2.6	2.6	2.6	2.6	2.6	FRA	2.6
독일	DEU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DEU	1.4
그리스	GRC	3.4	3.4	3.4	3.4	3.5	3.5	3.5	3.6	3.6	3.7	GRC	3.7
헝가리	HUN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HUN	2.1
아이슬란드	ISL	1.2	1.3	1.3	1.3	1.3	1.3	1.4	1.4	1.4	1.5	ISL	1.5
아일랜드	IRL	1.7	1.6	1.6	1.6	1.6	1.6	1.6	1.6	1.6	1.6	IRL	1.6
이스라엘	ISR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ISR	0.2
이탈리아	ITA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ITA	1.5
일본	JPN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JPN	2.0
한국	KOR	1.3	1.3	1.3	1.3	1.3	1.3	1.3	1.3	1.2	1.2	KOR	1.2
라트비아	LVA	14.8	15.0	15.3	15.5	15.8	16.0	16.3	16.5	16.7	16.9	LVA	16.9
룩셈부르크	LUX	1.9	1.9	1.8	1.8	1.7	1.7	1.7	1.6	1.6	1.6	LUX	1.6
멕시코	MEX	6.1	6.0	5.9	5.8	5.7	5.6	5.5	5.4	5.4	5.3	MEX	5.3
네덜란드	NLD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NLD	0.2
뉴질랜드	NZL	24.6	24.3	24.0	23.7	23.5	23.2	23.0	22.9	22.7	22.6	NZL	22.6
노르웨이	NOR	26.1	25.9	25.6	25.4	25.0	24.7	24.4	24.1	23.8	23.5	NOR	23.5
폴란드	POL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POL	2.4
포르투갈	PRT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PRT	3.1
슬로바키아	SVK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SVK	3.6
슬로베니아	SVN	6.2	6.2	6.2	6.1	6.1	6.1	6.1	6.0	6.0	6.0	SVN	6.0
스페인	ESP	3.9	3.9	3.9	3.9	3.9	3.9	3.9	3.9	3.9	4.0	ESP	4.0
스웨덴	SWE	31.2	31.0	30.8	30.5	30.2	29.9	29.7	29.4	29.2	28.9	SWE	28.9
스위스	CHE	1.6	1.6	1.6	1.6	1.6	1.6	1.6	1.5	1.5	1.5	CHE	1.5
터키	TUR	1.6	1.6	1.6	1.6	1.6	1.5	1.5	1.5	1.5	1.5	TUR	1.5
영국	GBR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GBR	0.5
미국	USA	10.3	10.2	10.2	10.1	10.0	10.0	9.9	9.8	9.8	9.7	USA	9.7
OECD	OECD	9.0	8.9	8.8	8.8	8.7	8.6	8.6	8.6	8.5	8.5	OECD	8.5
브라질	BRA	26.9	26.5	26.1	25.8	25.4	25.1	24.8	24.5	24.3	24.0	BRA	24.0
콜롬비아	COL	13.9	13.7	13.4	13.2	13.0	12.8	12.6	12.5	12.4	12.2	COL	12.2
코스타리카	CRI	5.9	5.8	5.8	5.8	5.8	5.7	5.7	5.7	5.7	5.7	CRI	5.7
리투아니아	LTU	6.3	6.4	6.6	6.7	6.8	6.9	7.1	7.2	7.3	7.5	LTU	7.5
러시아 연방	RUS	56	57	57	57	57	57	57	57	57	57	RUS	57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1.9	1.9	1.9	1.8	1.8	1.8	1.8	1.7	1.7	1.7	ZAF	1.7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토지 자원”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U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182>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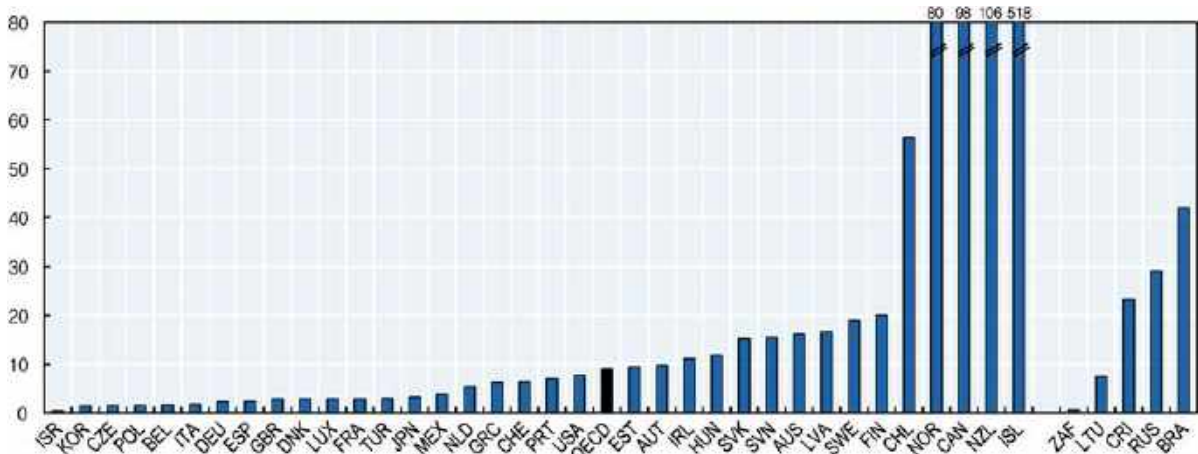
OECD(2017), *녹색 성장 지표 2017*, OECD 녹색 성장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자연 자원: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정의

이 지표는 1 인당 m^3 으로 표현된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의 장기 연평균 이용가능성을 나타낸다. 인근 영토에서 유입되는 강과 지하수의 총량뿐 아니라 영토의 강수에 의해서만 자연 조건에서의 강 유출수와 지하수의 총량을 나타낸다. 이 지표는 OECD의 녹색 성장 지표 세트의 일부이며, 데이터는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A.51.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1인당 1,000 m^3 , 장기 연평균



주: 영국의 값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나타낸다. 장기 연평균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961~1990년을 가리킨다. 벨기에의 경우 지하수는 제외하고 추정치를 포함한다. 캐나다의 경우 데이터는 1971~2004년, 칠레의 경우 2000~2014년, 콜롬비아의 경우 1974~2012년,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0~2014년, 체코의 경우 최신 20년, 에스토니아의 경우 최신 30년(신선한 지표 수 데이터만 포함), 프랑스의 경우 1981~2010년(유입 및 유출 포함, 후자는 프랑스에 수원이 있지만 다른 국가에 입구가 있는 강의 배출량을 사용하여 계산), 독일의 경우 1993~2013년, 헝가리의 경우 1971~2000년, 이스라엘의 경우 2000~2013년, 일본의 경우 1971~2006년, 한국의 경우 1974~2003년, 라트비아의 경우 2005~2013년, 리투아니아의 경우 2000~2014년, 네덜란드의 경우 1981~2010년, 폴란드의 경우 1951~2014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1971~2000년, 스웨덴의 경우 1990~2009년, 스위스의 경우 1981~2010년, 터키의 경우 1980~2011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물: 담수 자원(장기 평균)”,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ATER_RESOURC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111>

표 A.30.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1인당 1,000 m³, 장기 연평균

		장기 연평균
호주	AUS	16.2
오스트리아	AUT	9.8
벨기에	BEL	1.8
캐나다	CAN	97.6
칠레	CHL	56.4
체코	CZE	1.5
덴마크	DNK	2.9
에스토니아	EST	9.4
핀란드	FIN	20.1
프랑스	FRA	3.0
독일	DEU	2.3
그리스	GRC	6.3
헝가리	HUN	11.9
아이슬란드	ISL	518.2
아일랜드	IRL	11.1
이스라엘	ISR	0.3
이탈리아	ITA	1.9
일본	JPN	3.3
한국	KOR	1.5
라트비아	LVA	16.6
룩셈부르크	LUX	2.9
멕시코	MEX	3.9
네덜란드	NLD	5.4
뉴질랜드	NZL	105.6
노르웨이	NOR	80.1
폴란드	POL	1.6
포르투갈	PRT	7.1
슬로바키아	SVK	15.2
슬로베니아	SVN	15.5
스페인	ESP	2.4
스웨덴	SWE	19.0
스위스	CHE	6.4
터키	TUR	3.0
영국	GBR	2.9
미국	USA	7.7
OECD	OECD	9.1
브라질	BRA	41.9
코스타리카	CRI	23.3
리투아니아	LTU	7.5
러시아 연방	RUS	29.1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0.6

주: 영국의 값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나타낸다. 장기 연평균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961~1990년을 가리킨다. 벨기에의 경우 지하수는 제외하고 추정치를 포함한다. 캐나다의 경우 데이터는 1971~2004년, 칠레의 경우 2000~2014년, 콜롬비아의 경우 1974~2012년,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0~2014년, 체코의 경우 최신 20년, 에스토니아의 경우 최신 30년(신선한 지표수 데이터만 포함), 프랑스의 경우 1981~2010년(유입 및 유출 포함, 후자는 프랑스에 수원이 있지만 다른 국가에 입구가 있는 강의 배출량을 사용하여 계산), 독일의 경우 1993~2013년, 헝가리의 경우 1971~2000년, 이스라엘의 경우 2000~2013년, 일본의 경우 1971~2006년, 한국의 경우 1974~2003년, 라트비아의 경우 2005~2013년, 리투아니아의 경우 2000~2014년, 네덜란드의 경우 1981~2010년, 폴란드의 경우 1951~2014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1971~2000년, 스웨덴의 경우 1990~2009년, 스위스의 경우 1981~2010년, 터키의 경우 1980~2011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물: 담수 자원(장기 평균)”,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ATER_RESOURC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201>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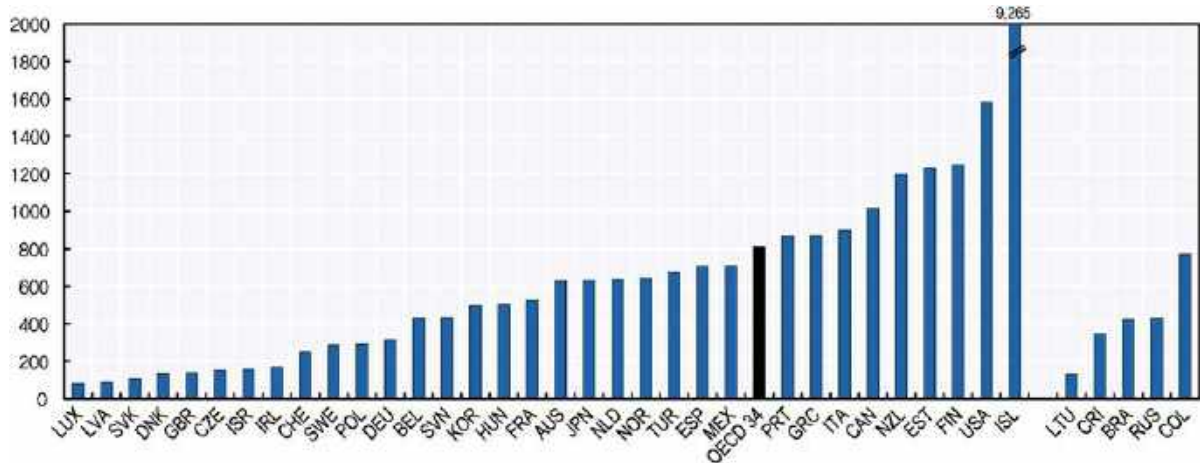
OECD(2017), *녹색 성장 지표 2017*, OECD 녹색 성장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자연 자본: 담수 취수

정의

이 지표는 1인당 m^3 으로 표현된 지하수 또는 지표 수역에서의 총 취수량을 나타낸다. 공공 용수뿐 아니라 농업(예: 관개) 및 산업용(예: 냉각 및 산업 공정) 취수를 포함한다. 이러한 취수는 가용 담수 자원을 고갈시키는 흐름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 취수량 보다는 물 허용량을 나타낸다. 이 지표는 OECD의 녹색 성장 지표 세트의 일부이며, 데이터는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A.52. 담수 취수
1인당 m^3 ,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러시아의 경우 2016년, 코스타리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스페인, 터키의 경우 2014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2013년, 브라질, 콜롬비아, 헝가리,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의 경우 2012년, 호주의 경우 2011년,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의 경우 2010년, 아일랜드의 경우 2009년,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의 경우 2007년, 핀란드의 경우 2006년, 아이슬란드와 한국의 경우 2005년이다. 영국의 값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전가(imputations)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칠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물: 담수 취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ATER_ABSTRACT 및 러시아 연방 수자원 기관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130>

표 A.31. 담수 취수

1인당 m³, 2015년 혹은 자료가 가능한 최근 연도

		최근 연도
호주	AUS	629
오스트리아	AUT	..
벨기에	BEL	431
캐나다	CAN	1015
칠레	CHL	..
체코	CZE	152
덴마크	DNK	133
에스토니아	EST	1232
핀란드	FIN	1246
프랑스	FRA	524
독일	DEU	314
그리스	GRC	869
헝가리	HUN	506
아이슬란드	ISL	9265
아일랜드	IRL	167
이스라엘	ISR	155
이탈리아	ITA	898
일본	JPN	631
한국	KOR	498
라트비아	LVA	87
룩셈부르크	LUX	80
멕시코	MEX	709
네덜란드	NLD	640
뉴질랜드	NZL	1195
노르웨이	NOR	643
폴란드	POL	292
포르투갈	PRT	868
슬로바키아	SVK	106
슬로베니아	SVN	433
스페인	ESP	708
스웨덴	SWE	287
스위스	CHE	252
터키	TUR	676
영국	GBR	138
미국	USA	1582
OECD	OECD 34	812
브라질	BRA	424
콜롬비아	COL	773
코스타리카	CRI	348
리투아니아	LTU	131
러시아 연방	RUS	430

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러시아의 경우 2016년, 코스타리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스페인, 터키의 경우 2014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2013년, 브라질, 콜롬비아, 헝가리,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의 경우 2012년, 호주의 경우 2011년,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의 경우 2010년, 아일랜드의 경우 2009년,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의 경우 2007년, 핀란드의 경우 2006년, 아이슬란드와 한국의 경우 2005년이다. 영국의 값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대체(imputations)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칠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물: 담수 취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ATER_ABSTRACT 및 러시아 연방 수자원 기관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220>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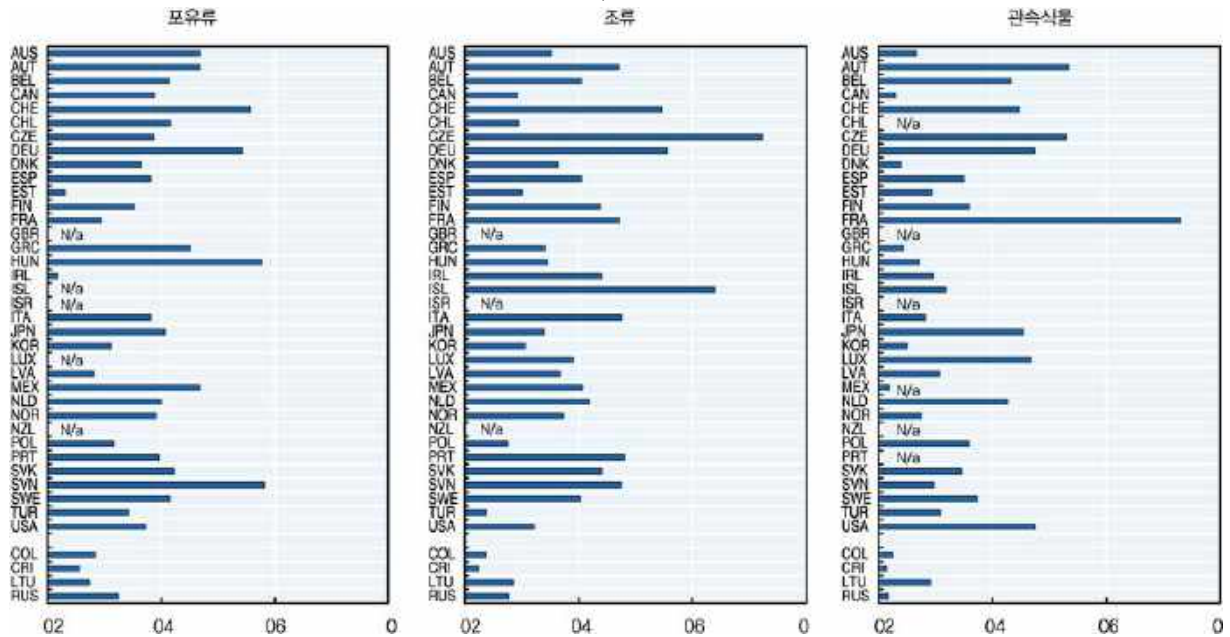
OECD(2017), *녹색 성장 지표 2017*, OECD 녹색 성장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자연 자본: 위협 받는 종

정의

이 지표는 멸종 위험이 매우 높고 멸종 위험이 있거나 취약한 포유류, 조류, 관속식물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IUCN 적색 목록(Red List) 범주와 기준을 토대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토착 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협 받는 종을 알려진 모든 종의 비율로 나타내며 어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동물 또는 균류를 제외한다. 위협 받는 종은 한 국가의 생물 다양성 자산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2000년대 후반에 해당하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를 나타낸다. 데이터 출처는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인 OECD의 녹색 성장 지표 세트이다. 위협 받는 종의 상태에 관한 데이터는 OECD 환경 참고문헌 시리즈의 연간 질적 보증(Annual Quality Assurance, AQA)에 대한 국가별 응답에 기초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OECD 환경 정보 작업반(Working Party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WPEI)의 활동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그림 A.53. 위협 받는 종
알려진 모든 종에 대한 비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위협 받는”은 “멸종 위기”, “멸종 직전”, “취약한” 종, 즉 멸종 위험에 있는 종과 곧 멸종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나타낸다. 여기에 제시된 데이터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를 나타내며, 국가 대부분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해당한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생물 다양성: 위협 받는 종,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ILD_LIF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149>

표 A.32. 위협 받는 종
알려진 모든 종에 대한 비율,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포유류	조류	관속식물
호주	AUS	26.9	15.1	6.6
오스트리아	AUT	26.7	27.3	33.4
벨기에	BEL	21.4	20.5	23.3
캐나다	CAN	18.8	9.2	2.9
칠레	CHL	21.7	9.4	..
체코	CZE	18.7	52.4	33.0
덴마크	DNK	16.4	16.3	4.0
에스토니아	EST	3.1	10.1	9.4
핀란드	FIN	15.3	23.8	15.9
프랑스	FRA	9.5	27.4	53.1
독일	DEU	34.4	35.6	27.4
그리스	GRC	25.2	14.1	4.4
헝가리	HUN	37.8	14.5	7.1
아이슬란드	ISL	..	44.0	11.9
아일랜드	IRL	1.8	24.1	9.6
이스라엘	ISR
이탈리아	ITA	18.3	27.7	8.2
일본	JPN	20.6	13.9	25.4
한국	KOR	11.2	10.5	5.1
라트비아	LVA	8.1	16.7	10.8
룩셈부르크	LUX	..	19.1	26.8
멕시코	MEX	26.8	20.7	1.9
네덜란드	NLD	20.0	21.8	22.6
뉴질랜드	NZL
노르웨이	NOR	19.1	17.4	7.6
폴란드	POL	11.6	7.5	15.8
포르투갈	PRT	19.6	28.2	..
슬로바키아	SVK	22.2	24.2	14.6
슬로베니아	SVN	38.2	27.6	9.7
스페인	ESP	18.3	20.5	15.0
스웨덴	SWE	21.5	20.2	17.3
스위스	CHE	35.7	34.6	24.7
터키	TUR	14.3	3.7	11.0
영국	GBR
미국	USA	17.2	12.2	27.5
콜롬비아	COL	8.4	3.6	2.5
코스타리카	CRI	5.6	2.4	1.4
리투아니아	LTU	7.4	8.5	9.1
러시아 연방	RUS	12.5	7.7	1.8

주: “위협 받는”은 “멸종 위기”, “멸종 직전”, “취약한” 종, 즉 멸종 위험에 있는 종과 곧 멸종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나타낸다. 여기에 제시된 데이터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를 나타내며, 국가 대부분의 경우 2000년대 후반에 해당한다.

출처: OECD 환경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생물 다양성: 위협 받는 종,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ILD_LIF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239>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녹색 성장 지표 2017*, OECD 녹색 성장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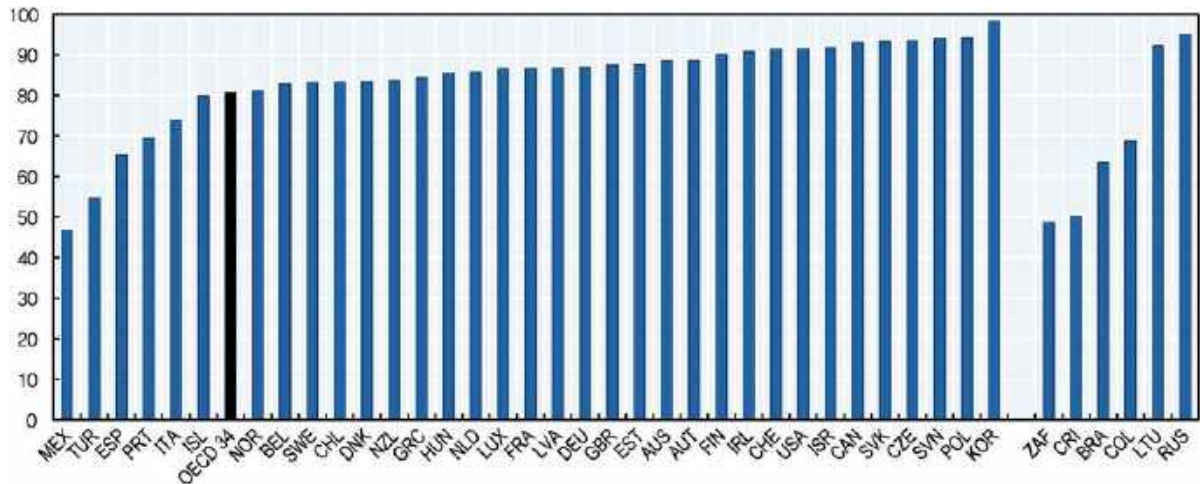
인적 자본: 청년의 교육 성취도

정의

이 지표는 동일 연령의 전체 인구에 대해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25~34세 성인의 수를 나타낸다. 총 인구의 교육 성취도는 한 국가의 인적 자본의 중요한 측면을 포착하지만, 이 지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빠져나가는 청년, 즉 자산의 갱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다. “최소 고등교육”의 정의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 수준 3 이상에 해당하며, i) 추가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반적으로” 정의된 프로젝트, ii) 직업 교육 및 훈련(VET)에 맞춰진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 이 지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는 국가교육성취도범주(National Educational Attainment Categories, NEAC)의 연간 OECD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며 국가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A.54. 고등교육 성취도, 25~34세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ISCED-97 분류에 기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ISCED 2011 분류에 따라 수집된다. 브라질, 칠레, 아일랜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2015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일본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한눈에 보는 교육(데이터베이스)의 “교육 성취도 및 노동력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168>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한눈에 보는 교육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87/eag-2017-en>

표 A.33. 고등교육 성취도, 25~34세

최소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78,6	80,1	81,4	82,5	82,9	84,8	84,4	86,6	85,7	86,7	88,1	88,6	AUS 88,6
오스트리아	AUT	85,6	87,0	86,5	87,5	88,1	87,8	88,0	88,4	89,1	90,0	90,0	88,6	AUT 88,6
벨기에	BEL	80,9	81,6	81,6	83,1	83,1	82,1	81,9	81,9	81,7	82,3	82,5	82,8	BEL 82,8
캐나다	CAN	90,8	91,0	91,3	91,8	91,8	92,1	92,4	92,2	92,5	92,6	93,3	93,1	CAN 93,1
칠레	CHL	74,5	..	76,9	..	80,0	..	83,2	..	CHL 83,2
체코	CZE	93,9	94,2	94,2	94,2	94,2	94,2	94,3	93,7	94,4	94,6	93,7	93,4	CZE 93,4
덴마크	DNK	87,4	88,4	80,6	78,9	79,7	79,6	80,3	81,7	81,9	82,2	83,6	83,4	DNK 83,4
에스토니아	EST	87,3	87,4	86,0	84,9	85,7	86,5	85,8	86,6	87,8	86,9	87,7	87,5	EST 87,5
핀란드	FIN	89,4	89,6	90,0	90,1	90,4	90,8	90,2	90,0	90,8	90,2	89,5	90,1	FIN 90,1
프랑스	FRA	81,5	82,2	82,7	82,8	83,8	83,8	83,3	83,3	85,3	86,7	86,5	86,7	FRA 86,7
독일	DEU	84,1	84,0	85,0	85,8	86,0	86,5	86,8	86,8	86,9	87,3	87,3	87,0	DEU 87,0
그리스	GRC	74,4	75,6	75,5	75,1	75,2	75,5	76,9	79,4	81,1	81,7	83,6	84,5	GRC 84,5
헝가리	HUN	85,0	85,6	85,3	85,6	86,0	86,3	87,3	87,5	87,3	87,0	86,0	85,5	HUN 85,5
아이슬란드	ISL	70,9	70,4	70,6	71,5	71,6	73,6	74,2	74,2	72,5	73,8	75,2	80,0	ISL 80,0
아일랜드	IRL	81,1	82,5	83,6	84,7	85,4	85,6	84,9	85,9	86,8	90,1	90,8	..	IRL 90,8
이스라엘	ISR	85,5	..	85,4	87,5	87,4	88,1	89,7	90,3	90,7	90,8	91,2	91,8	ISR 91,8
이탈리아	ITA	65,9	67,1	68,2	68,9	70,3	71,0	71,3	71,8	72,7	73,8	74,4	73,9	ITA 73,9
일본	JPN	JPN ..
한국	KOR	97,3	97,4	97,5	97,6	97,6	97,8	98,0	98,2	98,3	98,3	98,3	98,3	KOR 98,3
라트비아	LVA	80,4	79,3	80,4	80,9	80,7	83,7	82,8	85,4	86,7	83,6	84,9	86,7	LVA 86,7
룩셈부르크	LUX	76,5	78,3	77,1	79,4	83,8	84,0	83,4	86,1	86,0	86,9	84,5	86,6	LUX 86,6
멕시코	MEX	33,7	34,3	34,8	35,1	36,9	38,3	39,7	41,5	42,9	43,8	45,0	46,7	MEX 46,7
네덜란드	NLD	81,3	81,5	82,6	82,4	82,4	82,7	81,7	83,3	84,8	85,2	85,6	85,8	NLD 85,8
뉴질랜드	NZL	81,1	81,0	83,7	NZL 83,7
노르웨이	NOR	83,5	83,3	83,1	84,0	83,6	82,9	83,8	82,1	82,3	81,4	81,3	81,2	NOR 81,2
폴란드	POL	92,0	92,1	92,1	92,8	93,5	93,6	94,0	94,4	94,2	94,2	93,9	94,2	POL 94,2
포르투갈	PRT	42,8	44,1	44,4	46,7	48,2	52,1	55,7	57,9	60,8	64,7	66,7	69,5	PRT 69,5
슬로바키아	SVK	92,8	94,1	94,0	94,5	94,8	94,1	94,0	94,1	94,1	92,5	92,8	93,4	SVK 93,4
슬로베니아	SVN	91,2	91,5	92,3	92,4	93,5	93,5	94,0	94,2	94,5	93,9	94,1	94,1	SVN 94,1
스페인	ESP	64,5	64,8	65,4	65,7	64,6	65,3	65,4	64,9	64,7	65,6	65,6	65,3	ESP 65,3
스웨덴	SWE	90,6	90,7	91,0	91,2	91,1	90,8	90,9	90,8	91,4	81,8	82,3	83,1	SWE 83,1
스위스	CHE	89,8	89,2	89,7	90,3	90,0	87,8	88,0	88,8	89,8	90,5	91,0	91,4	CHE 91,4
터키	TUR	36,8	38,3	39,3	40,3	41,6	42,2	43,5	45,9	47,7	49,5	52,1	54,7	TUR 54,7
영국	GBR	73,1	78,5	80,0	80,3	81,7	82,9	84,3	84,8	86,1	86,2	86,2	87,5	GBR 87,5
미국	USA	86,7	87,0	87,1	88,1	88,3	88,4	89,0	89,3	89,4	90,0	90,5	91,5	USA 91,5
OECD	OECD	79,4	80,0	80,7	OECD 34 80,8
브라질	BRA	47,2	49,8	52,5	..	56,7	59,1	60,8	61,8	63,5	..	BRA 63,5
콜롬비아	COL	67,4	66,9	68,7	COL 68,7
코스타리카	CRI	38,5	38,4	41,0	42,0	43,7	44,9	45,5	47,9	47,8	48,4	48,6	50,2	CRI 50,2
리투아니아	LTU	86,8	85,7	85,6	87,0	87,8	88,3	89,6	89,9	90,4	88,4	89,7	92,2	LTU 92,2
러시아 연방	RUS	92,2	92,1	93,0	93,6	93,5	94,0	94,1	94,4	94,8	95,0	95,0	..	RUS 95,0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44,4	46,1	46,5	47,2	30,4	48,5	49,9	48,7	..	ZAF 48,7

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미국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ISCED 2011 분류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된다. 칠레의 경우 2013년 이후,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2014년 이후 데이터를 수집한다. 다른 국가의 데이터는 ISCED-97을 나타낸다. 중단 전 셀은 이후 연도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색으로 강조 표시된다. 영국에서 고등교육 성취도 데이터는 중간 고등 프로그램의 수료로 개별적으로 분류되는 충분한 수의 프로그램과 표준의 완료를 포함한다(2016년에 25-64세의 16%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일본은 제외되었다. 러시아의 2005-2009년 값은 러시아연방통계청(Rosstat)에서 제공했다.

출처: OECD 한눈에 보는 교육(데이터베이스)의 “교육 성취도 및 노동력 상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및 러시아연방통계청(Ros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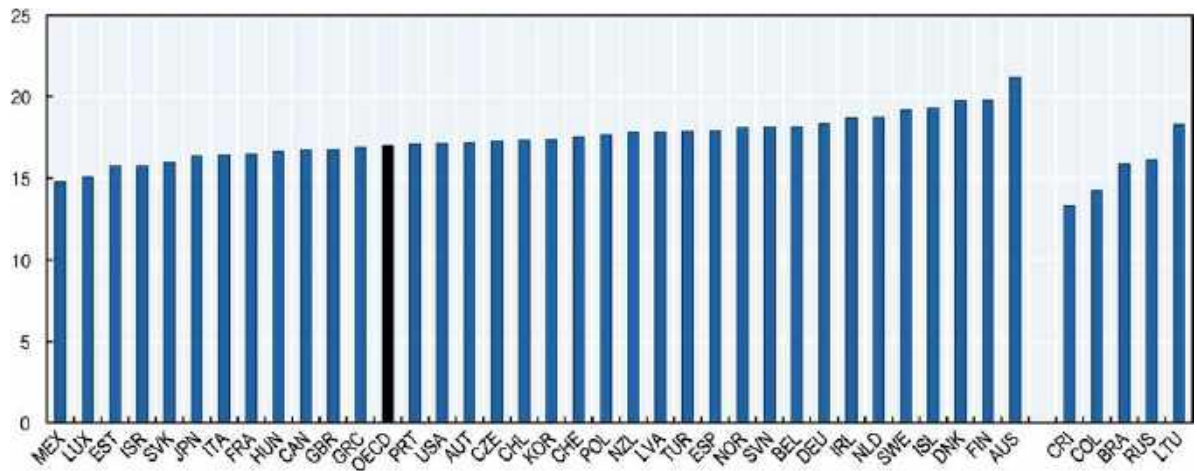
인적 자본: 교육 기대년수

정의

이 지표는 현재 취학률이 다음 34년 동안 지속될 경우, 5세 어린이가 39세가 될 때까지 평생 경험할 수 있는 평균 교육 기간으로 정의된다. 5세부터 각 1년당 순 취학률을 합산하여 현재 취학 조건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 지표는 교육 성취도가 미래에, 즉 어린이가 성인 연령에 도달할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뛰어난 척도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매년 실시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UOE(UNESCO, OECD, Eurostat) 공동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한다.

그림 A.55. 교육 기대년수

5세 어린이가 39세 이전까지 받을 수 있는 평균 교육 기대년수, 2015년



주: 그리스와 일본의 데이터는 2014년을 나타낸다. 캐나다의 데이터는 유아기와 중등 이후 비-고등교육을 제외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2017), 한눈에 보는 교육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7-en>”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187>

표 A.34. 교육 기대년수
5세 어린이가 39세 이전까지 받을 수 있는 평균 교육 기대년수

		2015
호주	AUS	21,2
오스트리아	AUT	17,1
벨기에	BEL	18,2
캐나다	CAN	16,7
칠레	CHL	17,3
체코	CZE	17,3
덴마크	DNK	19,7
에스토니아	EST	15,8
핀란드	FIN	19,8
프랑스	FRA	16,5
독일	DEU	18,3
그리스	GRC	16,9
헝가리	HUN	16,6
아이슬란드	ISL	19,3
아일랜드	IRL	18,7
이스라엘	ISR	15,8
이탈리아	ITA	16,4
일본	JPN	16,4
한국	KOR	17,4
라트비아	LVA	17,9
룩셈부르크	LUX	15,1
멕시코	MEX	14,8
네덜란드	NLD	18,7
뉴질랜드	NZL	17,8
노르웨이	NOR	18,1
폴란드	POL	17,7
포르투갈	PRT	17,1
슬로바키아	SVK	15,9
슬로베니아	SVN	18,1
스페인	ESP	17,9
스웨덴	SWE	19,2
스위스	CHE	17,5
터키	TUR	17,9
영국	GBR	16,8
미국	USA	17,1
OECD	OECD	17,0
브라질	BRA	15,9
콜롬비아	COL	14,2
코스타리카	CRI	13,3
리투아니아	LTU	18,3
러시아 연방	RUS	16,1

주: 그리스와 일본의 데이터는 2014년을 나타낸다. 캐나다의 데이터는 유아기와 중등 이후 비-고등교육을 제외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2017), 한눈에 보는 교육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7-en>”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277>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한눈에 보는 교육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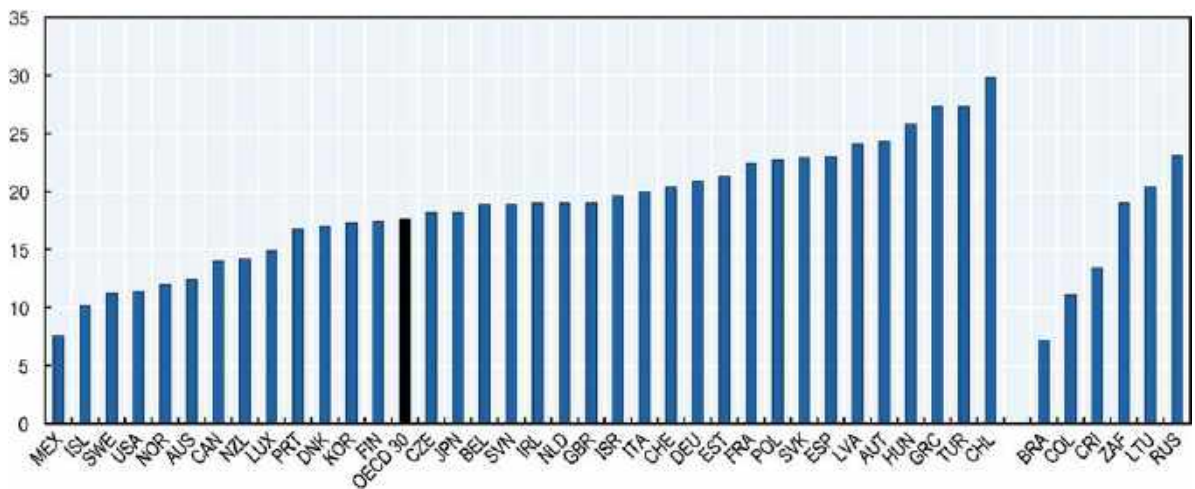
인적 자본: 흡연을

정의

이 지표는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한 15세 이상의 인구 비율로 정의된다. 흡연율은 인적 자본의 중요한 측면인 미래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고려된다. 국제 비교 가능성은 OECD 국가들에 대한 건강 인터뷰 조사에서 흡연 습관 측정의 표준화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별로 질문 문구, 응답자에게 제공된 응답 범주,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OECD 국가 내 데이터 수집 역시 매년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데이터는 국가 건강 인터뷰, 건강 조사, 기타 가구 설문조사에서 가져온 것이며, OECD의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일환으로 편집되었다.

그림 A.56. 매일 흡연율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자료기 가능한 최근 연도는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핀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미국의 경우 2015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의 경우 2014년, 독일의 경우 2013년, 스위스의 경우 2012년, 칠레의 경우 2009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LV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206>

표 A.35. 매일 흡연율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5 or 근접 연도	2016 or 최근 연도	
호주	AUS	16,9	15,4	13,0	12,4	AUS	16,9	12,4
오스트리아	AUT	..	23,2	AUT	23,2	24,3
벨기에	BEL	20,5	18,9	BEL	20,5	18,9
캐나다	CAN	17,3	..	18,2	17,5	16,2	16,3	15,7	16,1	14,9	14,0	CAN	17,3	14,0
칠레	CHL	29,8	CHL	..	29,8
체코	CZE	24,3	23,4	24,0	21,8	23,8	22,8	21,7	22,9	22,2	22,3	18,2	..	CZE	24,3	18,2
덴마크	DNK	26,0	25,0	24,0	23,0	19,0	20,9	17,0	17,0	17,0	..	DNK	20,9	17,0
에스토니아	EST	..	27,8	..	26,2	..	26,2	..	26,0	..	22,1	..	21,3	EST	27,8	21,3
핀란드	FIN	21,8	21,4	20,6	20,4	18,6	19,0	17,8	17,0	15,8	15,4	17,4	..	FIN	..	17,4
프랑스	FRA	..	25,9	..	26,2	..	23,3	..	24,1	..	22,4	FRA	25,9	22,4
독일	DEU	23,2	21,9	20,9	DEU	23,2	20,9
그리스	GRC	..	40,0	..	39,7	31,9	27,3	..	GRC	31,9	27,3
헝가리	HUN	26,5	25,8	..	HUN	26,5	25,8
아이슬란드	ISL	19,2	18,8	19,0	17,6	15,4	14,2	14,3	13,8	11,4	12,6	10,9	10,2	ISL	13,7	10,2
아일랜드	IRL	24,0	19,0	IRL	..	19,0
이스라엘	ISR	..	19,5	..	18,7	..	18,5	16,2	17,1	..	19,6	ISR	19,5	19,6
이탈리아	ITA	22,3	23,0	22,4	22,4	23,3	23,1	22,5	22,1	21,1	19,7	19,8	20,0	ITA	22,3	20,0
일본	JPN	24,2	23,8	24,1	21,8	23,4	19,5	20,1	20,7	19,3	19,6	18,2	..	JPN	24,2	18,2
한국	KOR	25,9	..	24,0	26,3	25,6	22,9	23,2	21,6	19,9	20,0	17,3	..	KOR	25,9	17,3
라트비아	LVA	27,9	24,1	LVA	27,9	24,1
룩셈부르크	LUX	23,0	21,0	21,0	20,0	19,0	18,3	16,9	16,8	15,7	15,3	15,0	14,9	LUX	23	14,9
멕시코	MEX	..	13,0	7,6	..	8,9	11,8	7,6	..	MEX	..	7,6
네덜란드	NLD	25,2	25,2	23,1	23,3	22,6	20,9	20,8	18,4	18,5	19,1	19,0	..	NLD	..	19,0
뉴질랜드	NZL	22,5	20,7	18,1	16,3	15,6	15,7	15,0	14,2	NZL	22,5	14,2
노르웨이	NOR	25,0	24,0	22,0	21,0	21,0	19,0	17,0	16,0	15,0	13,0	13,0	12,0	NOR	25	12,0
폴란드	POL	23,8	22,7	..	POL	23,8	22,7
포르투갈	PRT	..	18,6	16,8	PRT	18,6	16,8
슬로바키아	SVK	19,5	22,9	SVK	19,5	22,9
슬로베니아	SVN	18,9	18,9	SVN	18,9	18,9
스페인	ESP	..	26,4	26,2	..	23,9	23,0	ESP	26,2	23,0
스웨덴	SWE	15,7	15,2	13,8	14,6	14,0	13,6	13,1	12,8	10,7	11,9	11,2	..	SWE	15,7	11,2
스위스	CHE	20,4	20,4	CHE	20,4	20,4
터키	TUR	..	33,4	..	27,4	..	25,4	..	23,8	..	27,3	TUR	33,4	27,3
영국	GBR	24,0	22,0	21,0	21,0	21,0	20,0	20,0	20,0	19,0	19,0	GBR	24	19,0
미국	USA	16,9	16,7	15,4	16,5	16,1	15,1	14,8	14,2	13,7	12,9	11,4	..	USA	16,9	11,4
OECD	OECD	OECD 30	22,2	17,7
브라질	BRA	..	15,7	15,6	14,8	14,3	14,1	13,4	12,1	11,3	8,7	7,2	..	BRA	..	7,2
콜롬비아	COL	15,0	12,9	..	12,1	11,1	..	COL	15	11,1
코스타리카	CRI	17,7	15,4	..	14,5	13,4	..	CRI	17,7	13,4
리투아니아	LTU	24,5	20,4	LTU	24,5	20,4
러시아 연방	RUS	33,8	..	25,7	..	24,2	22,0	..	23,1	RUS	..	23,1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22,0	20,3	..	19,8	19,0	..	ZAF	22	19,0

주: 뉴질랜드의 경우 2006년, 그리스의 경우 2009년, 덴마크의 경우 2010년, 브라질,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2013년,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의 경우 2015년에 시계열이 중단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는 “2005년 또는 가장 근접 연도” 및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에 대해 불완전한 시계열 또는 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LV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296>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한눈에 보는 보건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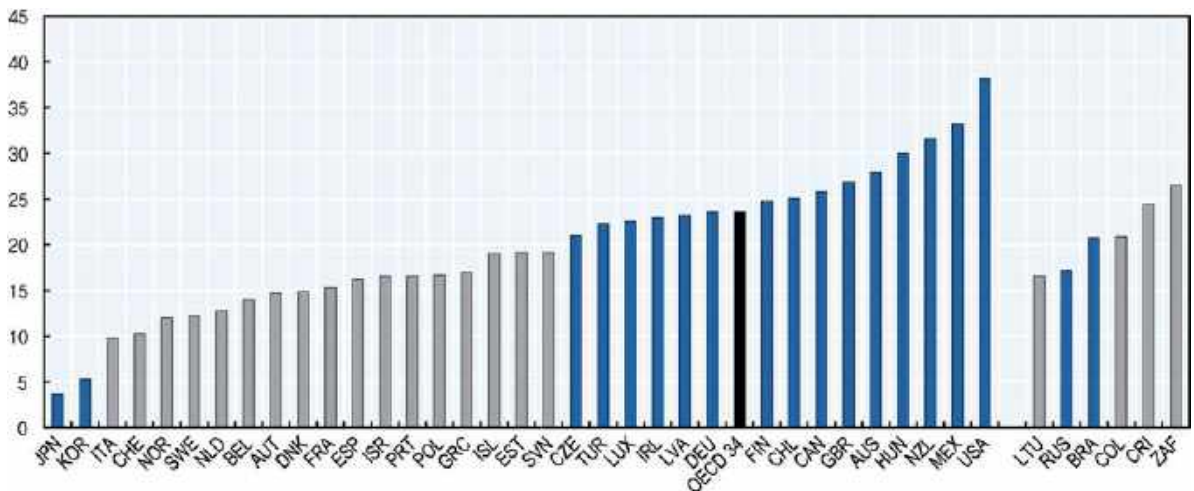
인적 자본: 비만을

정의

이 지표는 체질량지수 30 이상으로 정의된 비만 기준을 충족하는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낸다. 이 지표는 미래의 건강과 인적 자본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고려된다. 체질량지수는 신장과 관련하여 체중을 평가한다(체중/신장², 체중은 kg, 신장은 m로 측정된다). 여기에 사용된 비만 분류는 모든 인종 그룹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낮거나 높은 BMI에서 동등한 위험 수준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출처를 참조한다(표 A.36의 주석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 인터뷰 조사(다양한 질문 형식과 응답 척도 사용)에서 도출한 자기보고 정보에 기반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건강 검진(다양한 관리 방법)을 통해 직접 측정된다. 건강 검진에서 나온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건강 인터뷰의 추정치보다 더 높고 더 신뢰할 만하다. 데이터는 OECD의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림 A.57. 비만을

15세 이상의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15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미국의 경우 2014년, 브라질과 캐나다의 경우 2013년,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2012년, 핀란드와 터키의 경우 2011년, 체코의 경우 2010년, 칠레의 경우 2009년이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체코,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 미국의 데이터는 건강 검진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모든 국가(회색으로 표시)는 건강 인터뷰 조사에 근거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슬로바키아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LV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225>

표 A.36. 비만율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5 or 근접 연도	2015 or 최근 연도	
호주	AUS	24,6	28,3	27,9	AUS	24,6	27,9	
오스트리아	AUT	..	12,4	..	12,8	14,7	AUT	12,4	14,7	
벨기에	BEL	14,0	13,7	14,0	BEL	14	14,0	
캐나다	CAN	23,7	24,2	..	25,4	25,8	CAN	23,7	25,8	
칠레	CHL	25,1	CHL	..	25,1	
체코	CZE	17,0	22,0	..	21,0	CZE	17	21,0	
덴마크	DNK	11,4	13,4	14,2	14,9	DNK	11,4	14,9	
에스토니아	EST	..	15,9	..	18,0	..	16,9	..	19,0	..	19,5	..	19,2	EST	15,9	19,2	
핀란드	FIN	24,8	FIN	..	24,8	
프랑스	FRA	..	10,5	..	12,2	..	12,9	..	14,5	..	15,3	FRA	10,5	15,3	
독일	DEU	23,6	DEU	..	23,6	
그리스	GRC	..	16,4	..	17,6	17,3	17,0	GRC	16,4	17,0	
헝가리	HUN	28,5	30,0	HUN	28,5	30,0	
아이슬란드	ISL	20,1	20,1	..	21,0	..	22,2	19,0	..	ISL	..	19,0	
아일랜드	IRL	23,0	23,0	..	IRL	23	23,0	
이스라엘	ISR	..	12,1	..	13,8	..	15,7	15,7	17,8	..	16,6	ISR	12,1	16,6	
이탈리아	ITA	9,9	10,2	9,9	9,9	10,3	10,3	10,0	10,4	10,3	10,3	9,8	..	ITA	9,9	9,8	
일본	JPN	3,9	3,4	3,3	3,4	3,9	3,5	4,1	3,6	3,7	3,9	3,7	..	JPN	3,9	3,7	
한국	KOR	3,5	..	3,9	3,7	3,8	4,1	4,3	4,6	4,7	4,3	5,3	..	KOR	3,5	5,3	
라트비아	LVA	20,6	..	23,2	LVA	20,6	23,2	
룩셈부르크	LUX	18,6	20,4	20,0	20,3	22,1	22,5	23,5	23,0	22,7	22,6	LUX	22,1	22,6	
멕시코	MEX	30,2	30,0	32,4	33,3	MEX	30,2	33,3	
네덜란드	NLD	10,7	11,3	11,2	11,1	11,8	11,4	11,4	12,0	11,1	13,3	12,8	..	NLD	..	12,8	
뉴질랜드	NZL	26,5	..	27,8	28,6	30,8	29,9	30,7	31,6	NZL	..	31,6	
노르웨이	NOR	9,0	10,0	10,0	12,0	..	NOR	9	12,0	
폴란드	POL	16,4	15,8	16,7	POL	16,4	16,7	
포르투갈	PRT	..	15,4	16,6	PRT	15,4	16,6	
슬로바키아	SVK	17,6	16,9	SVK	17,6	..	
슬로베니아	SVN	16,4	16,8	19,2	SVN	16,4	19,2	
스페인	ESP	..	14,9	..	15,7	15,7	..	16,6	16,2	ESP	14,9	16,2	
스웨덴	SWE	10,9	9,0	10,6	10,3	10,9	11,3	11,0	11,8	11,7	12,2	12,3	..	SWE	10,9	12,3	
스위스	CHE	8,1	8,1	10,3	CHE	8,1	10,3	
터키	TUR	22,3	TUR	..	22,3	
영국	GBR	23,2	23,9	24,0	24,5	23,0	26,1	24,8	24,7	24,9	25,6	26,9	..	GBR	23,2	26,9	
미국	USA	..	35,1	..	34,3	..	36,1	..	35,3	..	38,2	USA	35,1	38,2	
OECD	OECD	OECD	27	21,5	23,8
브라질	BRA	20,8	BRA	..	20,8	
콜롬비아	COL	12,7	17,8	20,9	COL	12,7	20,9	
코스타리카	CRI	24,4	CRI	..	24,4	
리투아니아	LTU	16,0	16,6	LTU	16,0	16,6	
러시아 연방	RUS	17,2	RUS	..	17,2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33,0	26,5	ZAF	33,0	26,5	

주: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9년, 네덜란드의 경우 2014년,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5년에 시계열이 중단되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체코,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 미국의 데이터는 건강 검진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국가는 건강 인터뷰 조사에 근거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 또는 시계열 중단으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건강의 비의학적 결정요인”,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LV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315>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한눈에 보는 보건 2017: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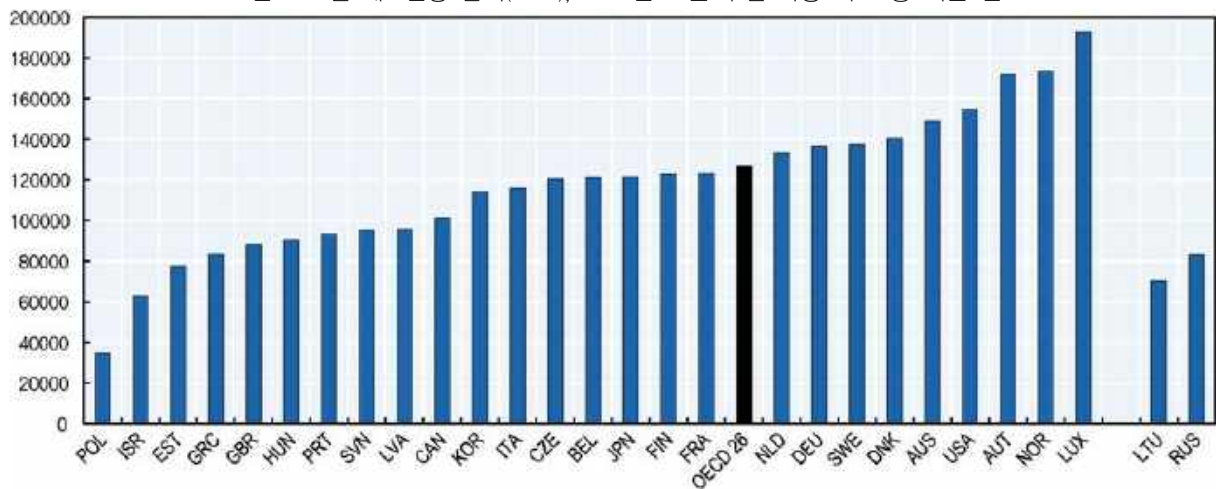
경제 자본: 생산된 고정 자산

정의

이 지표는 주거지, 비주거용 건물, 인프라, 기계, 장비와 같은 한 국가의 생산된 경제 자산의 가치를 고정 가격으로 고려한다. 자산은 물리적 악화, 정상적인 노후화 또는 정상적인 우발적 손상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고려하여 보정된다. 이러한 자산은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에 기초하여 과거 투자 흐름에서 파생된다. GDP에 대한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하여 2010년 가격으로 1인당 미 달러로 제시된다. 이 데이터는 국민계정체계(SNA) 2008에 따라 정의된 전체 경제를 나타낸다.

그림 A.58.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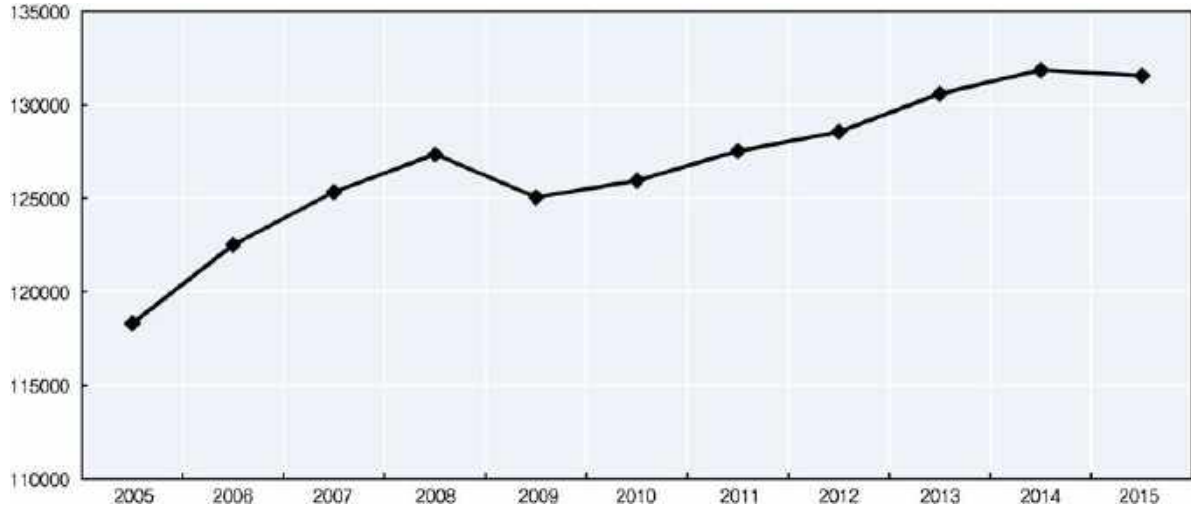


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의 경우 2014년이다.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며, 다른 연도를 나타내는 값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2010년으로 고정된다. 생산된 자산은 악화, 노후화, 우발적 손상에 대해 보정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9B. 비금융 자산을 위한 대차대조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244>

그림 A.59. 생산된 고정 자산, OECD 평균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OECD 18



주: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9B. 비금융 자산을 위한 대차대조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263>


표 A.37.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126223	128365	129945	127966	130472	127225	129017	134685	138956	145354	149014	..	AUS 149014
오스트리아	AUT	145761	149265	154312	159255	161254	164984	167427	169265	171076	171865	171953	..	AUT 171953
벨기에	BEL	109245	112786	115511	119873	118226	118572	119744	120264	119786	121109	BEL 121109
캐나다	CAN	76267	81384	83476	86183	88690	88686	89600	92767	92581	95146	98676	101138	CAN 101138
칠레	CHL	CHL ..
체코	CZE	108996	113177	118133	122140	118948	120420	122044	120078	118788	118116	119634	120453	CZE 120453
덴마크	DNK	137789	144791	148763	146607	136543	136736	139441	138555	138594	139554	140276	..	DNK 140276
에스토니아	EST	56914	63017	69059	68224	67066	66261	67227	70341	75553	77540	EST 77540
핀란드	FIN	112243	116883	122543	127078	123538	120505	122087	124855	123678	122779	121013	122851	FIN 122851
프랑스	FRA	105218	108971	112913	114390	115516	118038	121244	122285	122800	122935	122317	123130	FRA 123130
독일	DEU	116498	119644	124924	129097	129114	130660	133826	135857	136674	137268	136602	..	DEU 136602
그리스	GRC	81647	86099	88000	89240	87830	86035	82723	81457	83605	83411	GRC 83411
헝가리	HUN	82169	86655	88415	90315	90649	90662	91243	90822	90667	90423	HUN 90423
아이슬란드	ISL	ISL ..
아일랜드	IRL	IRL ..
이스라엘	ISR	56595	57526	59191	60101	58088	58948	61405	62631	63204	64191	62972	..	ISR 62972
이탈리아	ITA	108730	111174	113773	115903	115691	118461	121316	120736	118604	117021	115850	..	ITA 115850
일본	JPN	109731	112874	115885	118330	114962	116743	117986	118326	121725	122752	121260	..	JPN 121260
한국	KOR	74651	80137	87546	93879	96405	100684	105621	108209	110435	113653	114212	..	KOR 114212
라트비아	LVA	86180	106040	113861	113000	98799	99331	104005	110602	111536	95844	LVA 95844
룩셈부르크	LUX	178799	173541	179670	182975	185210	183059	182544	185465	187038	188898	192891	..	LUX 192891
멕시코	MEX	MEX ..
네덜란드	NLD	128847	131398	133847	136796	140761	142128	141460	139229	137225	135748	133493	..	NLD 133493
뉴질랜드	NZL	NZL ..
노르웨이	NOR	162432	165352	173423	NOR 173423
폴란드	POL	26622	26860	28987	29658	29805	30847	31892	32324	33553	34819	POL 34819
포르투갈	PRT	89166	91269	92556	96749	95932	97888	99888	95317	91432	93314	PRT 93314
슬로바키아	SVK	SVK ..
슬로베니아	SVN	85076	88055	91197	93866	91507	94314	95600	96310	96244	95689	95533	..	SVN 95533
스페인	ESP	ESP ..
스웨덴	SWE	112526	116805	121938	127014	126684	129246	131613	132864	134592	136687	137391	..	SWE 137391
스위스	CHE	CHE ..
터키	TUR	TUR ..
영국	GBR	80060	81420	84092	86953	85133	83645	84320	85065	86242	86708	88430	..	GBR 88430
미국	USA	146082	151862	153044	153571	148073	148026	148498	149301	152877	154862	154699	..	USA 154699
OECD	OECD 18	118311	122520	125341	127347	125058	125948	127525	128561	130591	131861	131561	..	OECD 26 126840
리투아니아	LTU	53771	59138	64557	62558	62014	61602	62958	65201	67994	70404	LTU 70404
러시아 연방	RUS	77114	78932	85974	83392	83102	..	RUS 83102

주: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서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9B. 비금융 자산을 위한 대차대조표”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334>

추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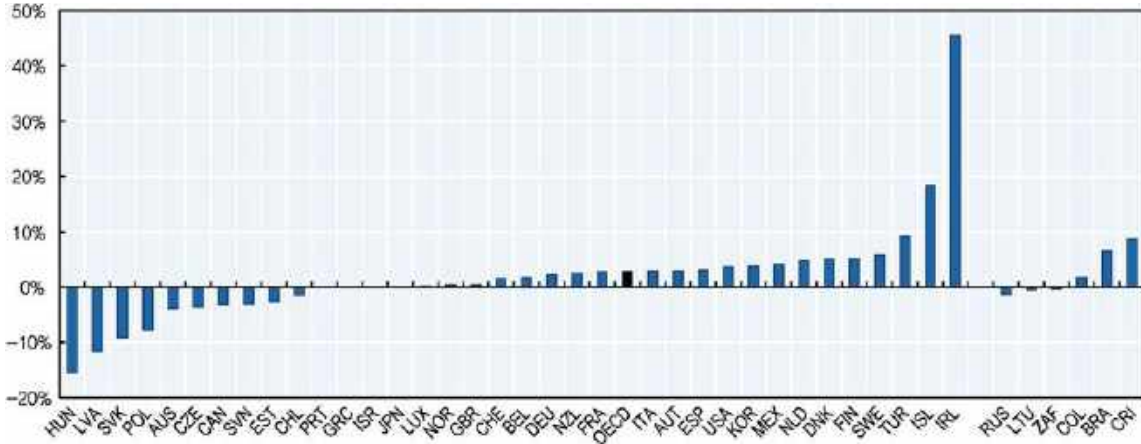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경제 자본: 총 고정 자본 형성

정의

이 지표는 국민계정체계(SNA) 2008에 따라 정의된 한 국가가 고정 가격의 건물과 기계(주거지, 건물 및 기타 구조물에 대한 투자, 운송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육성자산, 무형고정자산)에 소비한 총 지출을 측정한다. 이 지출은 한 국가의 경제 자본에 추가되는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A.60. 총 고정 자본 형성
연간 성장률,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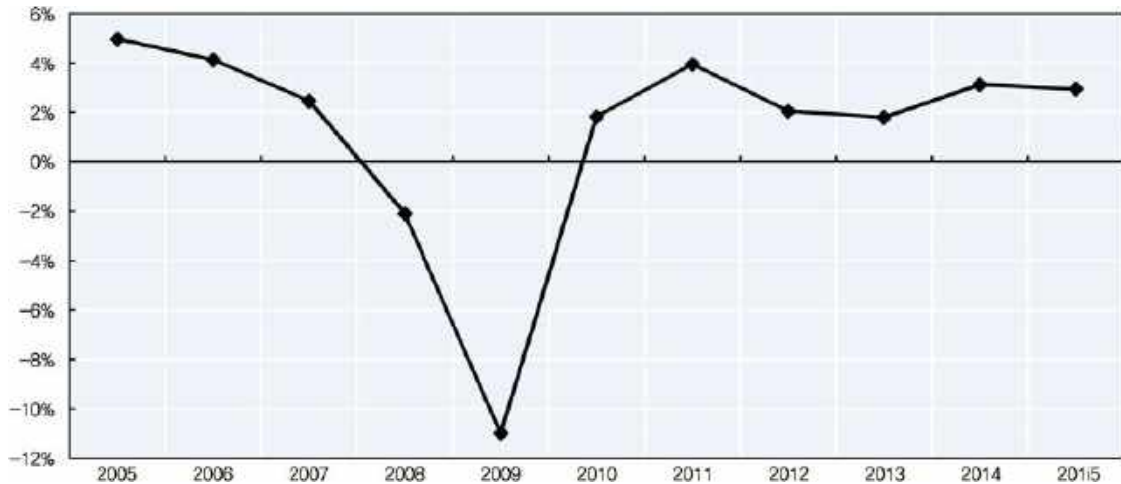
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미국의 경우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4년, 브라질의 경우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고정 가격의 건물과 기계에 소비된 총 지출의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282>

그림 A.61. 총 고정 자본 형성, OECD 평균

연간 성장률



주: OECD 평균은 고정 가격의 건물과 기계에 소비된 총 지출의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301>

표 A.38. 총 고정 자본 형성
연간 성장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9.3%	5.1%	9.5%	2.1%	2.1%	3.8%	11.0%	2.8%	-1.4%	-2.9%	-3.9%	..	AUS -3.9%
오스트리아	AUT	0.2%	1.1%	4.6%	1.4%	-7.3%	-2.1%	6.7%	1.4%	2.2%	-0.9%	0.7%	3.4%	AUT 3.4%
벨기에	BEL	6.1%	2.0%	6.8%	1.9%	-6.6%	-0.8%	4.2%	0.2%	-1.6%	5.0%	2.5%	1.9%	BEL 1.9%
캐나다	CAN	9.1%	6.3%	3.2%	1.6%	-11.3%	11.5%	4.6%	4.9%	1.3%	0.9%	-4.6%	-3.1%	CAN -3.1%
칠레	CHL	23.5%	6.0%	10.6%	18.5%	-13.3%	13.1%	16.1%	11.3%	3.3%	-4.8%	-0.8%	-0.8%	CHL -0.8%
체코	CZE	6.4%	5.9%	13.5%	2.5%	-10.1%	1.3%	0.9%	-3.1%	-2.5%	3.9%	9.0%	-3.7%	CZE -3.7%
덴마크	DNK	5.9%	13.7%	0.7%	-2.5%	-13.0%	-5.7%	0.4%	3.7%	2.7%	3.5%	2.5%	5.6%	DNK 5.6%
에스토니아	EST	15.3%	22.9%	10.3%	-13.1%	-36.7%	-2.7%	34.4%	12.7%	-2.8%	-8.1%	-3.3%	-2.8%	EST -2.8%
핀란드	FIN	3.2%	1.3%	10.0%	0.3%	-12.5%	1.1%	4.1%	-1.9%	-4.9%	-2.6%	0.7%	7.2%	FIN 7.2%
프랑스	FRA	2.9%	3.6%	5.5%	0.9%	-9.1%	2.1%	2.1%	0.2%	-0.8%	0.0%	1.0%	2.8%	FRA 2.8%
독일	DEU	0.7%	7.5%	4.1%	1.5%	-10.1%	5.4%	7.2%	-0.7%	-1.1%	3.4%	1.7%	2.2%	DEU 2.2%
그리스	GRC	-11.9%	19.4%	15.9%	-7.2%	-13.9%	-19.3%	-20.5%	-23.5%	-8.4%	-4.6%	-0.2%	0.1%	GRC 0.1%
헝가리	HUN	3.6%	0.7%	4.2%	1.0%	-8.3%	-9.5%	-1.3%	-3.0%	9.8%	9.9%	1.9%	-15.5%	HUN -15.5%
아이슬란드	ISL	32.0%	23.4%	-11.2%	-19.0%	-47.8%	-8.6%	11.6%	5.3%	2.2%	16.0%	17.8%	22.7%	ISL 22.7%
아일랜드	IRL	16.8%	7.2%	0.0%	-11.6%	-16.9%	-15.0%	3.7%	11.9%	-5.7%	18.3%	32.9%	45.4%	IRL 45.4%
이스라엘	ISR	2.1%	7.2%	11.0%	3.6%	-2.2%	10.1%	13.8%	3.6%	4.5%	0.0%	0.1%	..	ISR 0.1%
이탈리아	ITA	1.7%	3.2%	1.6%	-3.1%	-9.9%	-0.5%	-1.9%	-9.3%	-6.6%	-2.3%	1.6%	2.9%	ITA 2.9%
일본	JPN	3.1%	0.4%	-1.9%	-3.8%	-9.7%	-1.6%	1.7%	3.5%	4.9%	2.9%	0.1%	..	JPN 0.1%
한국	KOR	2.0%	3.6%	5.0%	-0.9%	0.3%	5.5%	0.8%	-0.5%	3.3%	3.4%	3.8%	..	KOR 3.8%
라트비아	LVA	20.4%	15.1%	22.5%	-9.1%	-33.3%	-19.8%	24.0%	14.4%	-6.0%	0.1%	-1.8%	-11.7%	LVA -11.7%
룩셈부르크	LUX	-1.0%	3.3%	12.5%	11.9%	-12.4%	3.5%	13.7%	6.1%	-2.5%	5.6%	-0.9%	0.2%	LUX 0.2%
멕시코	MEX	5.9%	8.7%	6.0%	5.0%	-9.3%	1.3%	7.8%	4.8%	-1.6%	3.0%	4.2%	..	MEX 4.2%
네덜란드	NLD	3.1%	7.2%	6.5%	4.1%	-9.2%	-6.5%	5.6%	-6.3%	-4.3%	2.3%	11.0%	5.3%	NLD 5.3%
뉴질랜드	NZL	5.7%	-1.7%	7.8%	-7.2%	-10.2%	3.7%	6.0%	5.1%	9.8%	6.8%	2.5%	..	NZL 2.5%
노르웨이	NOR	12.0%	9.1%	11.7%	0.9%	-6.8%	-6.7%	7.4%	7.6%	6.3%	-0.7%	-3.8%	0.3%	NOR 0.3%
폴란드	POL	8.3%	15.4%	19.0%	8.8%	-2.7%	0.0%	8.8%	-1.8%	-1.1%	10.0%	6.1%	-7.9%	POL -7.9%
포르투갈	PRT	0.1%	-0.8%	3.1%	0.4%	-7.6%	-0.9%	-12.5%	-16.6%	-5.1%	2.3%	4.5%	0.1%	PRT 0.1%
슬로바키아	SVK	16.5%	9.1%	8.9%	1.6%	-18.7%	7.2%	12.7%	-9.0%	-0.9%	1.2%	16.9%	-9.3%	SVK -9.3%
슬로베니아	SVN	3.5%	10.2%	12.0%	7.0%	-22.0%	-13.3%	-4.9%	-8.8%	3.2%	1.4%	1.0%	-3.1%	SVN -3.1%
스페인	ESP	7.5%	7.4%	4.4%	-3.9%	-16.9%	-4.9%	-6.9%	-8.6%	-3.4%	3.8%	6.0%	3.1%	ESP 3.1%
스웨덴	SWE	5.1%	9.3%	8.1%	0.6%	-13.4%	6.0%	5.7%	-0.2%	0.6%	5.5%	7.0%	5.3%	SWE 5.3%
스위스	CHE	3.2%	4.7%	4.9%	0.7%	-7.5%	4.4%	4.3%	2.9%	1.1%	2.8%	1.6%	2.4%	CHE 2.4%
터키	TUR	19.6%	15.4%	5.5%	-2.7%	-20.5%	22.5%	23.8%	2.7%	13.8%	5.1%	9.2%	..	TUR 9.2%
영국	GBR	3.5%	3.2%	5.7%	-6.5%	-15.2%	5.0%	1.9%	2.3%	3.2%	6.7%	3.4%	0.5%	GBR 0.5%
미국	USA	5.6%	2.2%	-1.2%	-4.8%	-13.1%	1.1%	3.7%	6.3%	3.0%	4.2%	3.7%	..	USA 3.7%
OECD	OECD	5.0%	4.1%	2.5%	-2.1%	-11.0%	1.8%	3.9%	2.0%	1.8%	3.1%	2.9%	..	OECD 2.4%
브라질	BRA	2.3%	6.1%	12.0%	12.7%	-1.9%	17.8%	6.6%	BRA 6.6%
콜롬비아	COL	13.2%	18.1%	14.4%	9.9%	-1.3%	4.9%	19.0%	4.7%	6.8%	9.8%	1.8%	..	COL 1.8%
코스타리카	CRI	4.6%	7.7%	19.0%	9.7%	-12.6%	4.3%	3.2%	9.9%	-0.3%	3.3%	8.8%	..	CRI 8.8%
리투아니아	LTU	11.5%	19.6%	22.3%	-4.0%	-38.9%	1.5%	20.1%	-1.8%	8.3%	3.7%	4.7%	-0.5%	LTU -0.5%
러시아 연방	RUS	10.2%	17.9%	21.1%	9.7%	-14.7%	6.4%	9.2%	7.0%	0.8%	-1.3%	-10.4%	-1.4%	RUS -1.4%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11.0%	12.1%	13.8%	12.8%	-6.7%	-3.9%	5.7%	3.6%	7.6%	-0.4%	ZAF -0.4%

주: OECD 평균은 고정 가격의 건물과 기계에 소비된 총 지출의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이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353>

추가 참고자료: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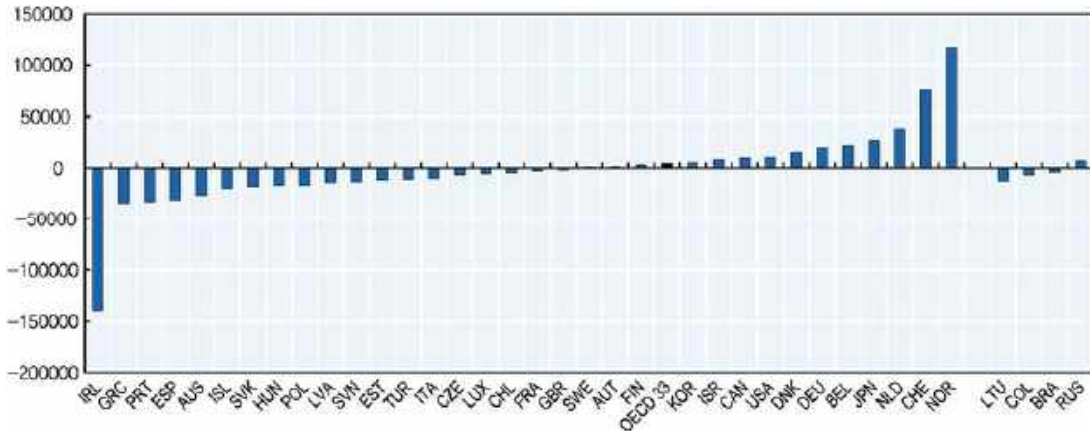
경제 자본: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정의

이 지표는 총 재정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값을 나타내며, 1인당 기준으로 표현된다. 국내 자산과 부채가 서로 상쇄되므로 이 지표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순외화 자산 위치를 파악한다. 이 자산에는 화폐용 금, 통화 및 기타 형태의 은행 예금, 부채 증권, 대출, 보통주 및 투자 펀드 주식, 보험 연금 및 표준화된 보증, 기타 미수금/외상매입금을 포함한다. 거래 가능 수단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기록되는 반면, 기타 수단은 명목 가격 또는 장부 가격으로 평가된다. 국가 통화 데이터는 GDP에 대한 현재 PPP를 사용하여 미 달러로 변환되었다.

그림 A.62.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현재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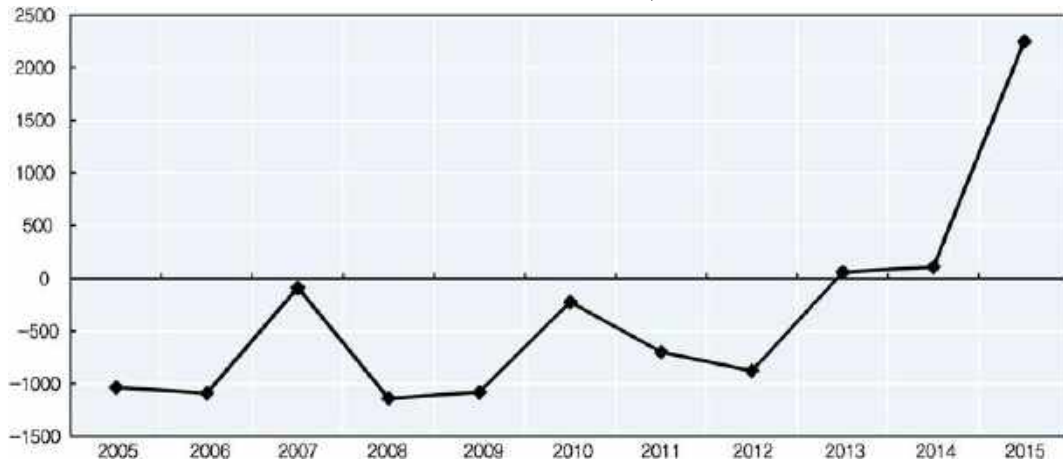
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미국의 경우 2015년, 일본의 경우 2014년, 브라질의 경우 2009년이다.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320>

그림 A.63.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OECD 평균

현재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OECD 30



주: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339>

표 A.39. 총 경제의 금융순자산

현재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18727	-20291	-21275	-21983	-23835	-22229	-23497	-23472	-25130	-25472	-27361	..	AUS	-27361
오스트리아	AUT	-4291	-4873	-3828	-4130	-2062	-2175	-851	-1481	620	1092	1644	1622	AUT	1622
벨기에	BEL	11978	12047	16436	18812	23509	23441	27759	22405	22351	22682	22050	21848	BEL	21848
캐나다	CAN	-4595	-1591	-4602	-3600	-5485	-7258	-7109	-7557	-311	866	9570	..	CAN	9570
칠레	CHL	-3459	-2207	-846	-2956	-1914	-2271	-2752	-3322	-3231	-3378	-4668	..	CHL	-4668
체코	CZE	-5887	-6823	-7857	-8531	-9886	-10537	-10843	-10219	-8076	-7460	-6497	-6452	CZE	-6452
덴마크	DNK	1276	-150	-2266	-2123	1028	5240	11762	15847	17107	20286	15638	15609	DNK	15609
에스토니아	EST	-13981	-14134	-15670	-17077	-16490	-15504	-13132	-13140	-13864	-13287	-11804	-11580	EST	-11580
핀란드	FIN	-5074	-4677	-10335	-1080	-1730	3787	4155	5469	1652	857	2984	2975	FIN	2975
프랑스	FRA	223	-342	-886	-3270	-2462	-2968	-3931	-3576	-1982	-3665	-3519	-3494	FRA	-3494
독일	DEU	3622	-1143	84	5393	6468	6634	8379	11441	11674	16315	20377	20003	DEU	20003
그리스	GRC	-19412	-26702	-31033	-28081	-31661	-28264	-19808	-30000	-30030	-34880	-35131	..	GRC	-35131
헝가리	HUN	-16943	-18864	-18107	-20999	-23710	-23291	-24102	-21585	-20376	-19672	-17028	-16690	HUN	-16690
아이슬란드	ISL	-40399	-57060	-59839	-315118	-264777	-239509	-211260	-144281	-128979	-114274	-19606	..	ISL	-19606
아일랜드	IRL	-18696	-11403	-14665	-42147	-48148	-49248	-62526	-63663	-63364	-82963	-142217	-140296	IRL	-140296
이스라엘	ISR	-3882	583	428	2571	1960	3382	5815	6819	7549	8593	8074	..	ISR	8074
이탈리아	ITA	-3850	-6143	-8515	-7575	-6386	-6974	-6674	-9055	-9721	-9475	-9958	-10031	ITA	-10031
일본	JPN	10826	13848	15922	16839	18348	18920	20643	23426	25106	26763	JPN	26763
한국	KOR	-2267	-2875	-3595	-2197	-2365	-900	2109	5315	..	KOR	5315
라트비아	LVA	-8045	-11167	-13811	-16964	-17608	-17828	-17900	-17325	-18121	-15347	-14298	-14502	LVA	-14502
룩셈부르크	LUX	22652	70667	6473	34591	22201	-50245	-47164	-38885	-50009	-28017	-5602	-5490	LUX	-5490
멕시코	MEX	1893	2133	2248	2363	2935	MEX	..
네덜란드	NLD	-12443	-11198	-12200	-4902	-1347	1463	7570	15591	19285	36435	38073	37926	NLD	37926
뉴질랜드	NZL	NZL	..
노르웨이	NOR	25816	29957	27400	34070	42336	49712	54912	60688	85010	110003	122308	117048	NOR	117048
폴란드	POL	-6493	-8180	-9586	-10707	-11874	-13520	-13996	-15413	-16848	-17565	-16553	-16657	POL	-16657
포르투갈	PRT	-15902	-19558	-22805	-25331	-28585	-28538	-26975	-30827	-32459	-33905	-33264	-33293	PRT	-33293
슬로바키아	SVK	-6356	-8592	-9416	-10236	-12325	-13516	-14563	-15502	-17103	-19658	-18398	..	SVK	-18398
슬로베니아	SVN	-2731	-4501	-7587	-11935	-12330	-13634	-13869	-15050	-14866	-15817	-13856	-13825	SVN	-13825
스페인	ESP	-15815	-20642	-25589	-26128	-29228	-27324	-28928	-29375	-30036	-32046	-31379	-31667	ESP	-31667
스웨덴	SWE	-7173	-5992	-3478	-6399	-4705	-5483	-6677	-6597	-2655	509	1277	1253	SWE	1253
스위스	CHE	50682	58463	70906	59372	68380	71947	78829	82776	75696	78101	76023	..	CHE	76023
터키	TUR	-18624	-14761	-19241	-15966	-11023	-10653	..	TUR	-10653
영국	GBR	-1987	-3884	-3135	3247	-3635	-1422	-2163	-8378	-6324	-7179	-1927	-1899	GBR	-1899
미국	USA	3841	6336	10580	5962	7332	8965	6832	7287	8228	6808	10122	..	USA	10122
OECD	OECD 30	-1035	-1090	-86	-1140	-1080	-223	-699	-879	60	110	2250	..	OECD 33	4157
브라질	BRA	-3792	-3850	-4468	-2860	-4222	BRA	-4222
콜롬비아	COL	-1866	-1973	-2101	-2454	-2407	-2583	-2793	-2936	-3603	-5073	-6809	..	COL	-6809
리투아니아	LTU	-6739	-8243	-10780	-10620	-10515	-11116	-11757	-12744	-12472	-13126	-13005	..	LTU	-13005
러시아 연방	RUS	1940	1638	1549	5770	7163	..	RUS	7163

주: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데이터 세트에 의해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서 멕시코와 뉴질랜드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372>

추가 참고자료: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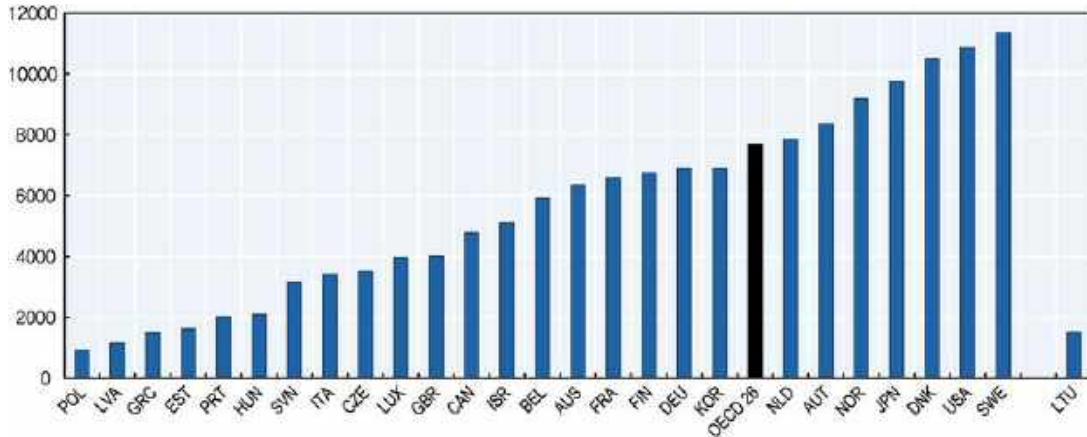
경제 자본: 지적 재산 자산

정의

지적 재산 자산(예: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광물 탐사 및 평가, 엔터테인먼트, 예술, 문학 원작)은 한 국가의 지식 자본의 척도이다. 데이터는 GDP에 대한 PPP를 사용하여 2010년 가격으로 1인당 미 달러로 제시되며, 국민계정체계(SNA) 2008에 따라 정의된 전체 경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자산은 영구재고법에 기초하여 과거 투자 흐름에서 파생된다.

그림 A.64. 지적 재산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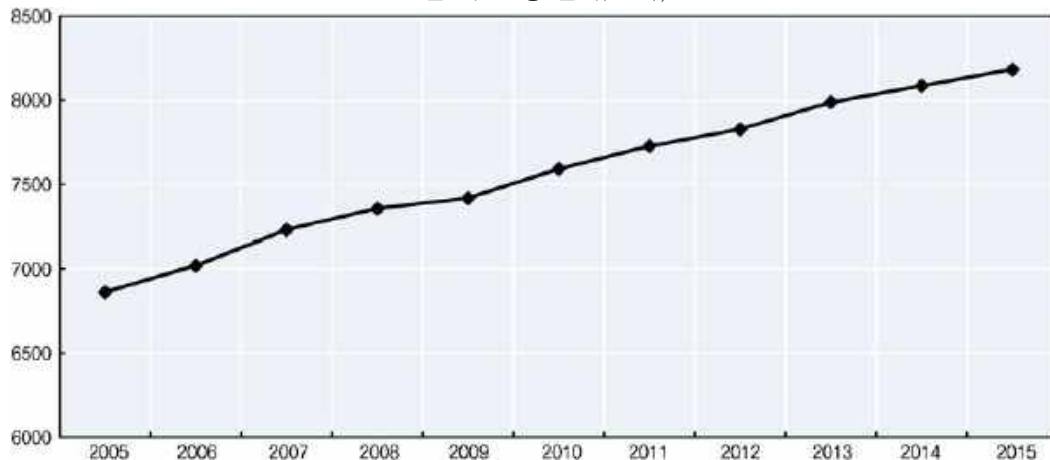
주: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의 경우 2016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의 경우 2014년이다.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며, 다른 연도를 나타내는 값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2010년으로 고정된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358>

그림 A.65. 지적 재산 자산, OECD 평균

2010년 PPP일 때 1인당 달러(USD), OECD 18



주: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377>


표 A.40. 지적 재산 상품

2010년 PPP 달러(USD)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4983	5150	5357	5396	5613	5600	5824	6131	6230	6323	6342	..	AUS	6342
오스트리아	AUT	5769	5989	6246	6492	6618	6836	7223	7525	7931	8181	8355	..	AUT	8355
벨기에	BEL	4468	4568	4692	4871	5057	5191	5419	5569	5707	5920	BEL	5920
캐나다	CAN	4145	4421	4600	4705	4839	4804	4822	4790	4859	4912	4847	4780	CAN	4780
칠레	CHL	CHL	..
체코	CZE	2491	2655	2813	2919	2956	2913	2896	2998	3061	3132	3338	3515	CZE	3515
덴마크	DNK	8221	8518	8720	9032	9560	9784	10075	10132	10225	10326	10497	..	DNK	10497
에스토니아	EST	522	662	812	992	1109	1194	1294	1505	1563	1625	EST	1625
핀란드	FIN	6580	6864	7076	7492	7680	7847	7812	7644	7390	7213	6921	6743	FIN	6743
프랑스	FRA	5457	5540	5566	5630	5743	5839	5954	6059	6165	6264	6382	6597	FRA	6597
독일	DEU	5485	5643	5769	5992	6042	6213	6479	6634	6690	6809	6884	..	DEU	6884
그리스	GRC	1436	1531	1636	1700	1701	1683	1642	1526	1516	1493	GRC	1493
헝가리	HUN	1422	1529	1615	1718	1810	1904	1910	1946	1953	2097	HUN	2097
아이슬란드	ISL	ISL	..
아일랜드	IRL	IRL	..
이스라엘	ISR	5147	5110	5208	5393	4905	4903	4943	5005	5051	5106	5108	..	ISR	5108
이탈리아	ITA	3314	3353	3377	3401	3363	3507	3448	3364	3357	3363	3418	..	ITA	3418
일본	JPN	8396	8697	9067	9066	9037	9235	9450	9500	9696	9799	9768	..	JPN	9768
한국	KOR	3760	4039	4334	4588	4794	5064	5402	5828	6233	6668	6887	..	KOR	6887
라트비아	LVA	715	727	743	731	798	846	918	1013	1026	1156	LVA	1156
룩셈부르크	LUX	3402	3165	3494	3535	3779	3976	3896	3913	3832	3830	3968	..	LUX	3968
멕시코	MEX	MEX	..
네덜란드	NLD	6491	6695	6880	7000	7097	7223	7333	7384	7459	7649	7853	..	NLD	7853
뉴질랜드	NZL	NZL	..
노르웨이	NOR	8312	8661	9192	NOR	9192
폴란드	POL	499	528	545	593	632	685	718	785	857	935	POL	935
포르투갈	PRT	1316	1295	1414	1615	1772	1904	2048	2120	2010	2031	PRT	2031
슬로바키아	SVK	SVK	..
슬로베니아	SVN	2805	2844	2796	2862	2863	3040	3049	3170	3099	3120	3166	..	SVN	3166
스페인	ESP	ESP	..
스웨덴	SWE	9949	10106	10548	10745	10483	10617	10806	10905	10986	11174	11359	..	SWE	11359
스위스	CHE	CHE	..
터키	TUR	TUR	..
영국	GBR	4238	4229	4279	4294	4147	4116	4094	4085	4068	4014	4012	..	GBR	4012
미국	USA	9158	9294	9553	9733	9850	10114	10236	10350	10592	10679	10855	..	USA	10855
OECD	OECD 18	6863	7021	7230	7356	7417	7591	7727	7828	7988	8086	8183	..	OECD 26	7668
리투아니아	LTU	687	764	872	1010	1176	1238	1271	1347	1413	1513	LTU	1513

주: 구매력평가(PPP)는 GDP에 대한 것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서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391>

추가 참고자료: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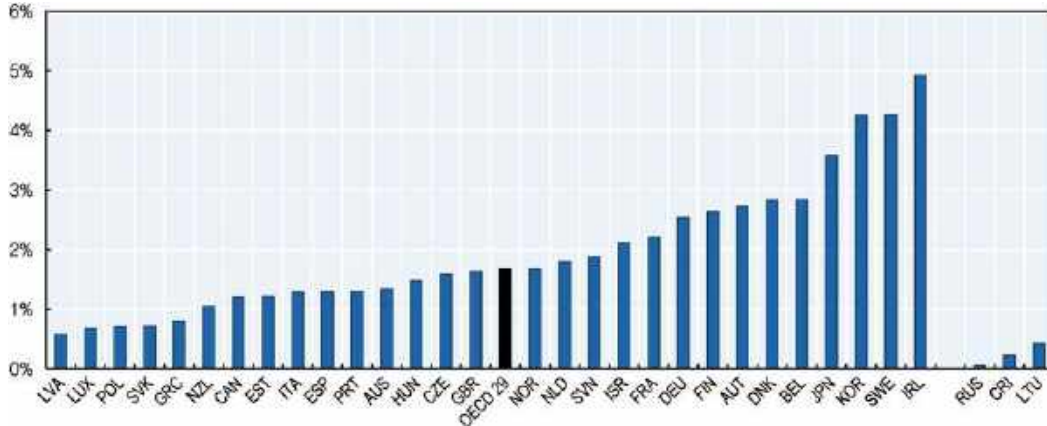
경제 자본: R&D 투자

정의

이 지표는 인류, 문화, 사회의 지식을 포함하여 지식 자산을 높이고 새로운 적용을 고안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거주 생산자가 체계적으로 수행한 창의적 작업에 소요된 지출로 구성된다. 연구는 중간 소비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활동이 소유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 형성으로 취급된다. R&D 투자는 GDP 비율로 표현되고 한 국가의 지적 재산 자산에 추가되는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A.66. R&D 투자

GDP의 비율,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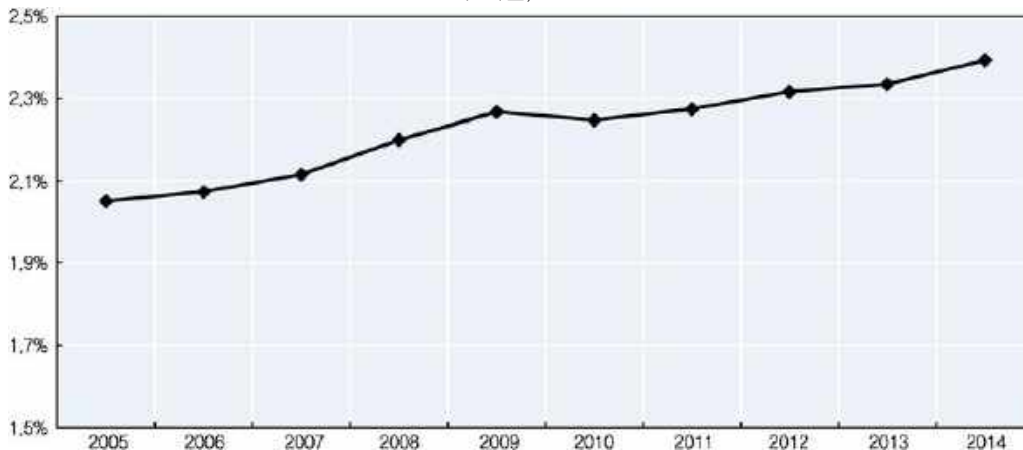


주: 수집 가능 자료 중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체코, 핀란드, 러시아의 경우 2016년,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2014년,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GDP의 비율에 의해 가중되며,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8A. 활동 ISIC rev4에 의한 자본 형성”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8A; 러시아연방통계청(Ros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396>

그림 A.67. R&D 투자, OECD 평균

GDP의 비율, OECD 28



주: OECD 평균은 GDP의 비율에 의해 가중되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시계열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8A. 활동 ISIC rev4에 의한 자본 형성”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8A; 러시아연방통계청(Ros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415>

표 A.41. R&D 투자
GDP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1.3%	1.3%	1.4%	1.4%	1.4%	1.3%	1.4%	1.4%	1.3%	1.3%	1.3%	..	AUS 1.3%
오스트리아	AUT	1.9%	2.1%	2.1%	2.2%	2.3%	2.3%	2.4%	2.5%	2.7%	2.7%	2.7%	..	AUT 2.7%
벨기에	BEL	1.9%	1.9%	1.9%	2.0%	2.1%	2.1%	2.2%	2.2%	2.3%	2.5%	2.8%	..	BEL 2.8%
캐나다	CAN	1.5%	1.4%	1.3%	1.4%	1.4%	1.3%	1.3%	1.2%	1.3%	1.2%	1.2%	..	CAN 1.2%
칠레	CHL	CHL ..
체코	CZE	1.1%	1.1%	1.1%	1.1%	1.2%	1.2%	1.3%	1.5%	1.5%	1.5%	1.5%	1.6%	CZE 1.6%
덴마크	DNK	2.3%	2.3%	2.3%	2.6%	2.8%	3.0%	2.8%	2.8%	2.8%	2.8%	DNK 2.8%
에스토니아	EST	0.7%	0.7%	0.8%	0.9%	1.1%	1.0%	1.1%	1.3%	1.3%	1.2%	EST 1.2%
핀란드	FIN	3.4%	3.4%	3.4%	3.7%	3.8%	3.8%	3.5%	3.2%	3.1%	3.0%	2.8%	2.6%	FIN 2.6%
프랑스	FRA	2.0%	2.0%	2.0%	2.0%	2.2%	2.2%	2.2%	2.2%	2.3%	2.2%	2.2%	..	FRA 2.2%
독일	DEU	2.2%	2.2%	2.2%	2.3%	2.5%	2.4%	2.4%	2.6%	2.5%	2.5%	DEU 2.5%
그리스	GRC	0.8%	0.7%	0.8%	0.9%	0.8%	0.7%	0.7%	0.8%	0.8%	0.8%	0.8%	..	GRC 0.8%
헝가리	HUN	0.7%	0.9%	0.9%	0.9%	1.0%	1.1%	1.0%	1.0%	1.3%	1.3%	1.5%	..	HUN 1.5%
아이슬란드	ISL	ISL ..
아일랜드	IRL	3.3%	3.0%	2.9%	3.0%	4.2%	4.3%	4.7%	5.6%	4.4%	4.9%	IRL 4.9%
이스라엘	ISR	3.1%	2.9%	2.8%	2.9%	2.8%	2.6%	2.4%	2.4%	2.3%	2.2%	2.1%	..	ISR 2.1%
이탈리아	ITA	1.1%	1.1%	1.1%	1.2%	1.3%	1.3%	1.3%	1.3%	1.3%	ITA 1.3%
일본	JPN	3.2%	3.3%	3.4%	3.5%	3.4%	3.3%	3.3%	3.3%	3.4%	3.5%	3.6%	..	JPN 3.6%
한국	KOR	2.8%	2.8%	3.0%	3.2%	3.4%	3.6%	3.7%	4.0%	4.2%	4.4%	4.3%	..	KOR 4.3%
라트비아	LVA	0.6%	0.6%	0.5%	0.5%	0.6%	0.7%	0.8%	0.6%	0.6%	0.6%	LVA 0.6%
룩셈부르크	LUX	0.5%	0.5%	0.5%	0.5%	0.7%	0.8%	0.7%	0.7%	0.7%	0.7%	0.7%	..	LUX 0.7%
멕시코	MEX	MEX ..
네덜란드	NLD	1.8%	1.7%	1.6%	1.6%	1.7%	1.7%	1.8%	1.8%	1.8%	1.8%	1.8%	..	NLD 1.8%
뉴질랜드	NZL	1.1%	1.1%	1.1%	1.1%	1.2%	1.2%	1.1%	1.0%	1.1%	1.1%	1.1%	..	NZL 1.1%
노르웨이	NOR	1.2%	1.2%	1.4%	1.4%	1.5%	1.6%	1.5%	1.6%	1.6%	1.7%	NOR 1.7%
폴란드	POL	0.5%	0.5%	0.5%	0.6%	0.6%	0.6%	0.6%	0.7%	0.7%	0.7%	POL 0.7%
포르투갈	PRT	0.7%	0.9%	1.1%	1.4%	1.5%	1.5%	1.5%	1.4%	1.3%	1.3%	PRT 1.3%
슬로바키아	SVK	0.6%	0.5%	0.5%	0.5%	0.6%	0.6%	0.6%	0.6%	0.7%	0.7%	SVK 0.7%
슬로베니아	SVN	1.5%	1.5%	1.4%	1.5%	1.7%	1.9%	1.9%	2.0%	2.0%	2.0%	1.9%	..	SVN 1.9%
스페인	ESP	0.9%	1.0%	1.0%	1.1%	1.2%	1.3%	1.3%	1.3%	1.3%	1.3%	ESP 1.3%
스웨덴	SWE	3.7%	3.6%	3.7%	3.7%	3.8%	3.8%	3.7%	3.6%	3.9%	4.3%	SWE 4.3%
스위스	CHE	CHE ..
터키	TUR	TUR ..
영국	GBR	1.4%	1.4%	1.5%	1.7%	1.6%	1.7%	1.7%	1.6%	1.6%	1.6%	1.6%	..	GBR 1.6%
미국	USA	USA ..
OECD	OECD 28	2.1%	2.1%	2.1%	2.2%	2.3%	2.2%	2.3%	2.3%	2.3%	2.4%	OECD 29 1.7%
코스타리카	CRI	0.3%	0.2%	CRI 0.2%
리투아니아	LTU	0.2%	0.3%	0.4%	0.6%	0.7%	0.6%	0.6%	0.5%	0.4%	LTU 0.4%
러시아 연방	RUS	0.0%	0.1%	0.1%	0.1%	RUS 0.1%

주: 스페인의 2013~2014년 값은 추정치이며, 그리스의 2011~2015년 값은 임시 값이다. OECD 평균은 GDP의 비율에 의해 가중되며, 칠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서 칠레,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8A. 활동 ISIC rev4에 의한 자본 형성”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8A; 러시아연방통계청(Ros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410>

추가 참고자료: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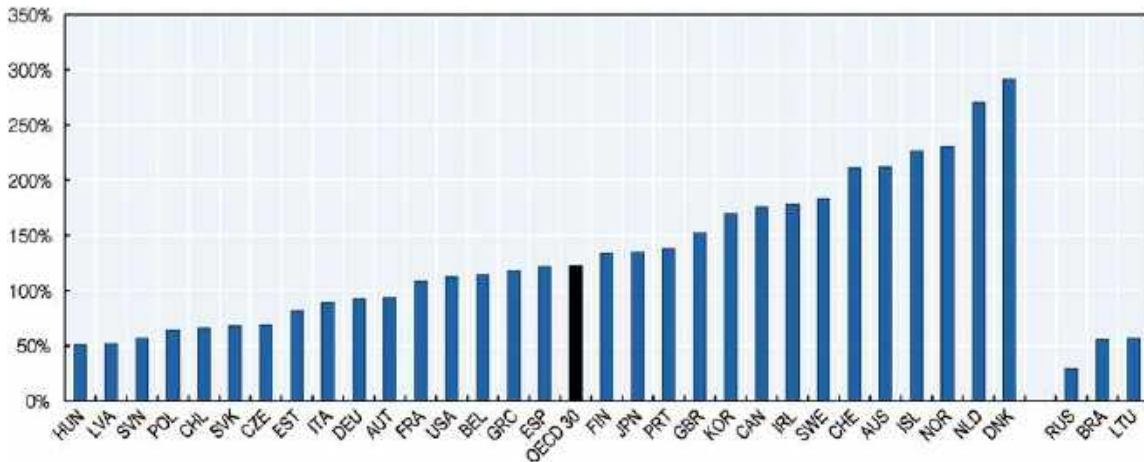
경제 자본: 가계 부채

정의

이 지표는 가구의 총 미지불 채무를 가처분소득의 비율로 나타낸다. 부채는 대출, 금융 파생상품을 제외한 부채 증권, 기타 외상매입금과 같은 부채 범주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대부분의 가구에 대해 부채는 주로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신용카드, 기타 소비자 신용(자동차 대출 또는 학생 대출 포함)과 같은 기타 부채로 구성된다. 가계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의 위험을 나타낸다.

그림 A.68. 가계 부채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비율, 2015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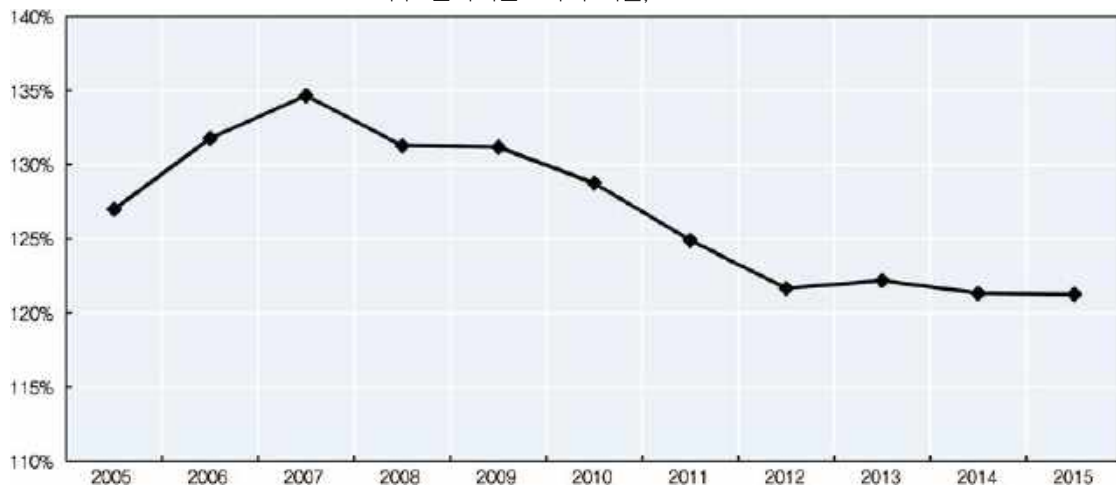
주: 수집 가능 자료 중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라질과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4년이다. OECD 평균은 가구 순가처분소득에 의해 가중되며,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434>

그림 A.69. 가계 부채, OECD 평균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비율, OECD 28



주: OECD 평균은 가구 순가처분소득에 의해 가중된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453>

표 A.42. 가계 부채
가구 순가처분소득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190%	194%	196%	191%	198%	198%	196%	196%	197%	204%	212%	..	AUS	212%
오스트리아	AUT	87%	89%	89%	90%	90%	94%	93%	91%	91%	91%	94%	..	AUT	94%
벨기에	BEL	80%	83%	87%	89%	90%	95%	102%	104%	107%	111%	114%	..	BEL	114%
캐나다	CAN	140%	144%	152%	157%	165%	166%	170%	171%	169%	172%	175%	176%	CAN	176%
칠레	CHL	46%	49%	57%	58%	59%	59%	59%	58%	60%	63%	66%	..	CHL	66%
체코	CZE	39%	44%	53%	59%	60%	62%	65%	66%	68%	67%	69%	..	CZE	69%
덴마크	DNK	282%	299%	325%	340%	340%	326%	320%	314%	306%	303%	293%	292%	DNK	292%
에스토니아	EST	70%	93%	104%	101%	108%	106%	93%	86%	85%	82%	82%	..	EST	82%
핀란드	FIN	99%	109%	115%	117%	118%	120%	123%	125%	124%	126%	130%	134%	FIN	134%
프랑스	FRA	88%	94%	97%	99%	104%	108%	107%	103%	104%	106%	108%	..	FRA	108%
독일	DEU	108%	106%	103%	99%	100%	98%	96%	95%	94%	94%	93%	..	DEU	93%
그리스	GRC	68%	74%	83%	87%	88%	105%	112%	120%	122%	118%	119%	..	GRC	119%
헝가리	HUN	50%	57%	65%	79%	80%	85%	78%	67%	61%	57%	51%	..	HUN	51%
아이슬란드	ISL	226%	ISL	226%
아일랜드	IRL	200%	224%	234%	230%	240%	233%	236%	221%	216%	198%	178%	..	IRL	178%
이스라엘	ISR	ISR	..
이탈리아	ITA	71%	76%	80%	82%	87%	90%	90%	92%	91%	90%	89%	..	ITA	89%
일본	JPN	134%	135%	130%	129%	128%	127%	127%	125%	128%	131%	135%	..	JPN	135%
한국	KOR	143%	148%	152%	158%	159%	160%	163%	170%	..	KOR	170%
라트비아	LVA	55%	75%	86%	77%	85%	89%	84%	71%	64%	57%	52%	..	LVA	52%
룩셈부르크	LUX	LUX	..
멕시코	MEX	MEX	..
네덜란드	NLD	257%	260%	265%	274%	287%	294%	288%	287%	281%	276%	276%	270%	NLD	270%
뉴질랜드	NZL	NZL	..
노르웨이	NOR	167%	198%	207%	207%	206%	212%	216%	220%	222%	225%	221%	230%	NOR	230%
폴란드	POL	25%	31%	39%	51%	53%	57%	60%	58%	60%	62%	64%	..	POL	64%
포르투갈	PRT	136%	141%	146%	149%	151%	154%	155%	156%	150%	149%	143%	138%	PRT	138%
슬로바키아	SVK	30%	33%	39%	42%	41%	45%	50%	55%	59%	64%	68%	..	SVK	68%
슬로베니아	SVN	40%	45%	52%	53%	56%	59%	58%	60%	59%	58%	57%	..	SVN	57%
스페인	ESP	128%	144%	154%	150%	145%	148%	142%	141%	134%	128%	122%	..	ESP	122%
스웨덴	SWE	147%	154%	157%	158%	163%	171%	168%	167%	170%	172%	178%	183%	SWE	183%
스위스	CHE	188%	188%	182%	181%	185%	190%	195%	197%	198%	203%	211%	..	CHE	211%
터키	TUR	TUR	..
영국	GBR	157%	168%	173%	169%	161%	156%	157%	152%	150%	152%	150%	152%	GBR	152%
미국	USA	135%	140%	143%	136%	134%	128%	120%	115%	116%	113%	112%	..	USA	112%
OECD	OECD 28	127%	132%	135%	131%	131%	129%	125%	122%	122%	121%	121%	..	OECD 30	123%
브라질	BRA	43%	49%	53%	56%	55%	BRA	55%
리투아니아	LTU	26%	42%	57%	58%	57%	56%	50%	47%	50%	53%	57%	..	LTU	57%
러시아 연방	RUS	23%	27%	30%	31%	29%	..	RUS	29%

주: OECD 평균은 각국의 가구 순가처분소득에 의해 가중된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429>

추가 참고자료: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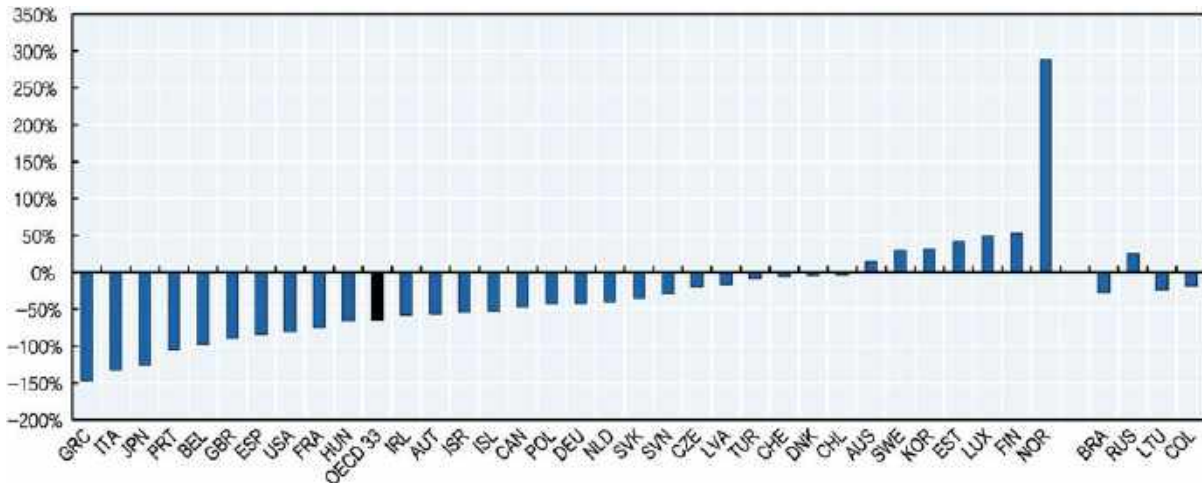
경제 자본: 정부의 금융순자산

정의

이 지표는 재정 자산의 총액에서 일반 정부 부문이 보유한 연금 부채를 제외한 미지불 부채의 총액(중앙, 주, 지방 정부뿐 아니라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를 뺀 값을 나타낸다. 표준 관행과 일치하도록 여기서는 GDP의 비율로 표현된다. SNA 2008은 정부 부문의 재정 자산을 통화 및 예금, 부채 증권, 대출, 보통주 및 투자 펀드 주식, 보험, 연금, 표준화된 보증 제도, 금융 파생상품 및 직원 스톡옵션, 기타 미수금으로 정의한다. 화폐용 금과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SDR)은 일본, 영국, 미국과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 정부 재정 자산에 속한다. 미상환 부채는 일반 정부의 재무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총 부채를 나타낸다. OECD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표는 일반 정부 부문의 연금 부채 기록 관행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금 부채를 제외한다(따라서 일반 정부의 “조정된” 금융순자산을 나타낸다). 그 결과 호주,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경우 일반 정부의 금융순자산과 조정금융순자산(즉 연금 부채를 제외하기 위해 “조정된”)이 다르다. 정부의 마이너스 금융순자산이 과도한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하면 한 국가의 경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A.70. 정부의 조정된 금융순자산

GDP의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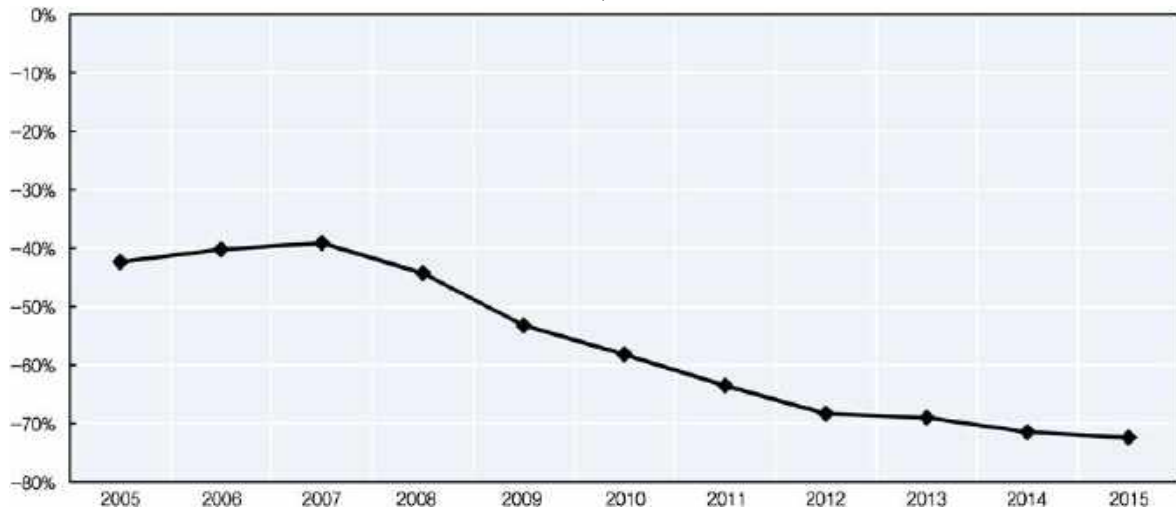


주: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의 최신 연도는 2015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472>

그림 A.71. 정부의 조정된 금융순자산, OECD 평균
GDP의 비율, OECD 31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491>

표 A.43. 정부의 조정된 금융순자산
GDP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27%	29%	30%	30%	27%	22%	16%	14%	15%	13%	14%	15%	AUS	15%
오스트리아	AUT	-45%	-42%	-40%	-44%	-50%	-51%	-53%	-58%	-57%	-59%	-57%	..	AUT	-57%
벨기에	BEL	-89%	-80%	-74%	-76%	-83%	-81%	-83%	-92%	-90%	-100%	-98%	-98%	BEL	-98%
캐나다	CAN	-31%	-27%	-24%	-23%	-29%	-31%	-34%	-35%	-31%	-31%	-30%	-47%	CAN	-47%
칠레	CHL	-7%	0%	7%	17%	6%	2%	5%	2%	2%	1%	1%	-4%	CHL	-4%
체코	CZE	11%	12%	15%	6%	1%	-6%	-9%	-17%	-18%	-20%	-20%	..	CZE	-20%
덴마크	DNK	-9%	-1%	5%	7%	6%	3%	-1%	-7%	-4%	-5%	-5%	-5%	DNK	-5%
에스토니아	EST	32%	31%	28%	26%	29%	36%	33%	31%	31%	31%	42%	..	EST	42%
핀란드	FIN	56%	67%	70%	50%	60%	62%	49%	49%	53%	54%	54%	53%	FIN	53%
프랑스	FRA	-41%	-36%	-32%	-43%	-50%	-55%	-60%	-67%	-66%	-74%	-76%	..	FRA	-76%
독일	DEU	-48%	-47%	-42%	-43%	-48%	-49%	-50%	-50%	-46%	-46%	-43%	..	DEU	-43%
그리스	GRC	-83%	-86%	-81%	-91%	-103%	-92%	-73%	-105%	-125%	-136%	-148%	-148%	GRC	-148%
헝가리	HUN	-44%	-51%	-53%	-51%	-59%	-61%	-62%	-70%	-70%	-71%	-67%	-66%	HUN	-66%
아이슬란드	ISL	-9%	3%	9%	-10%	-23%	-33%	-49%	-51%	-50%	-48%	-52%	..	ISL	-52%
아일랜드	IRL	-6%	-1%	0%	-12%	-25%	-48%	-62%	-79%	-81%	-80%	-58%	..	IRL	-58%
이스라엘	ISR	-55%	-45%	-45%	-49%	-54%	-50%	-52%	-55%	-54%	-55%	-54%	..	ISR	-54%
이탈리아	ITA	-96%	-92%	-89%	-92%	-103%	-101%	-96%	-112%	-118%	-130%	-132%	..	ITA	-132%
일본	JPN	-65%	-66%	-73%	-83%	-96%	-104%	-116%	-119%	-117%	-115%	-126%	..	JPN	-126%
한국	KOR	31%	33%	32%	31%	31%	32%	31%	30%	32%	KOR	32%
라트비아	LVA	5%	4%	4%	1%	-7%	-14%	-15%	-12%	-14%	-14%	-17%	..	LVA	-17%
룩셈부르크	LUX	49%	52%	55%	51%	56%	51%	45%	50%	51%	50%	50%	..	LUX	50%
멕시코	MEX	MEX	..
네덜란드	NLD	-30%	-27%	-24%	-23%	-28%	-32%	-37%	-40%	-40%	-44%	-42%	-41%	NLD	-41%
뉴질랜드	NZL	NZL	..
노르웨이	NOR	122%	135%	140%	124%	154%	164%	160%	169%	208%	249%	285%	289%	NOR	289%
폴란드	POL	-23%	-21%	-16%	-16%	-21%	-27%	-30%	-35%	-38%	-42%	-42%	-43%	POL	-43%
포르투갈	PRT	-56%	-55%	-55%	-60%	-70%	-71%	-67%	-91%	-99%	-109%	-109%	-105%	PRT	-105%
슬로바키아	SVK	-10%	-15%	-14%	-15%	-22%	-28%	-33%	-31%	-33%	-35%	-35%	..	SVK	-35%
슬로베니아	SVN	9%	10%	18%	7%	2%	1%	-2%	-9%	-15%	-23%	-26%	-29%	SVN	-29%
스페인	ESP	-29%	-22%	-17%	-22%	-34%	-40%	-48%	-59%	-70%	-82%	-82%	-84%	ESP	-84%
스웨덴	SWE	7%	17%	21%	15%	23%	24%	27%	29%	29%	28%	28%	30%	SWE	30%
스위스	CHE	-13%	-9%	-8%	-9%	-6%	-9%	-8%	-6%	-6%	-1%	-5%	..	CHE	-5%
터키	TUR	-19%	-17%	-17%	-14%	-14%	-8%	..	TUR	-8%
영국	GBR	-26%	-27%	-28%	-33%	-43%	-50%	-65%	-68%	-66%	-78%	-79%	-89%	GBR	-89%
미국	USA	-46%	-45%	-44%	-50%	-62%	-69%	-75%	-79%	-80%	-80%	-79%	-80%	USA	-80%
OECD	OECD 31	-42%	-40%	-39%	-44%	-53%	-58%	-64%	-68%	-69%	-71%	-72%	..	OECD 33	-65%
브라질	BRA	-30%	-29%	-27%	-27%	-24%	-27%	BRA	-27%
콜롬비아	COL	-17%	-19%	COL	-19%
리투아니아	LTU	9%	11%	11%	7%	-3%	-13%	-21%	-26%	-26%	-25%	-24%	..	LTU	-24%
러시아 연방	RUS	22%	21%	22%	25%	26%	..	RUS	26%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서 멕시코와 뉴질랜드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448>

추가 참고자료: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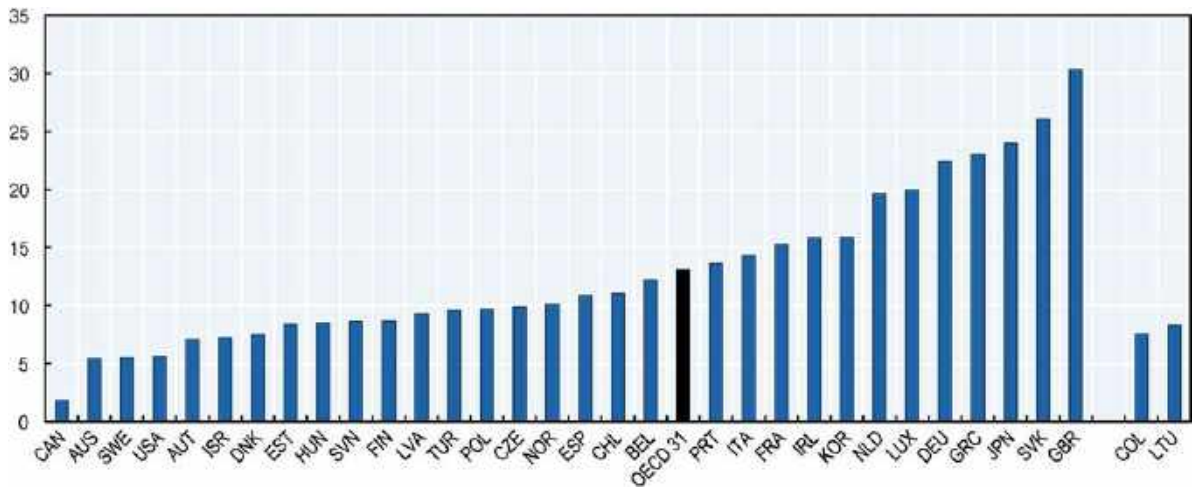
경제 자본: 은행 부문 레버리지

정의

이 지표는 은행 부문의 선택된 금융 자산(재무 대차대조표의 자산 측에 기록된 대출, 통화 및 예금, 금융 파생상품을 제외한 주식 이외의 증권)과 자기자본(재무 대차대조표의 부채 측에 기록된 뮤추얼 펀드 주식을 제외한 주식과 기타 자본)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은행 부문은 보험 회사와 연금 기금(S123)을 제외하고 기타 금융기관뿐 아니라 중앙은행(S121)과 수탁 회사(S122)로 정의된다. 그러나 국가별로 이 정의가 다를 수 있다. 특히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슬로바키아, 영국에서 “기타 금융기관”에는 재정 보조기관(S124)이 포함될 수 있다. 데이터는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 대해 비통합적이다. 은행 부문의 높은 레버리지는 위험 요소와 주기적 침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림 A.72. 은행 부문 레버리지

선택된 자산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2016년 또는 수집 가능 자료 중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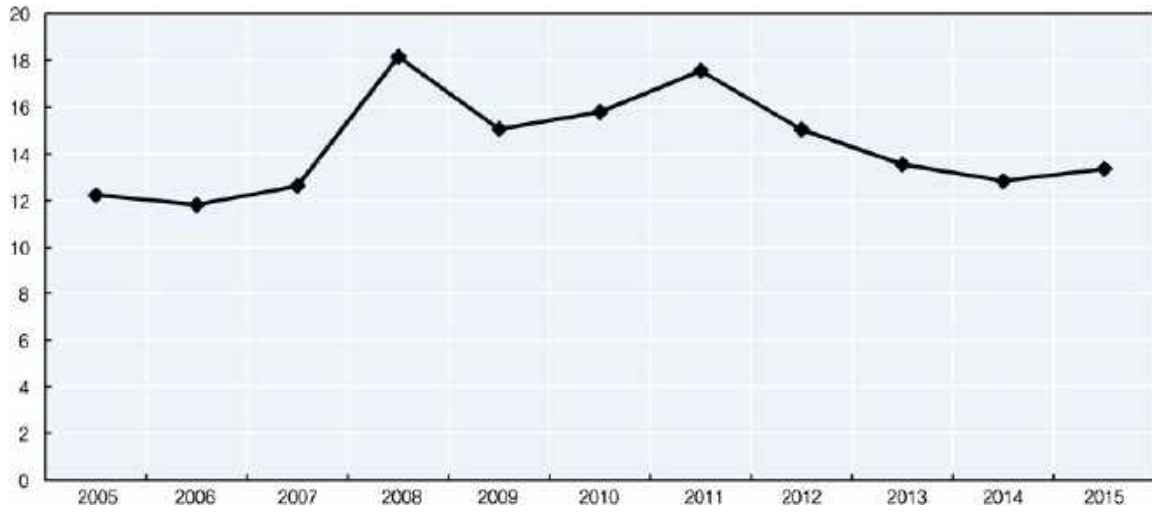


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터키, 영국의 최신 연도는 2015년, 체코의 경우 2014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510>

그림 A.73. 은행 부문 레버리지, OECD 평균
 선택된 자산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OECD 29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체코,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529>

표 A.44. 은행 부문 레버리지
선택된 자산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연도	
호주	AUS	3,9	3,8	3,9	6,6	5,2	5,6	6,2	5,6	4,9	5,1	5,3	5,5	AUS	5,5
오스트리아	AUT	9,6	9,2	7,5	10,5	7,9	7,0	8,3	7,5	7,2	7,5	7,1	..	AUT	7,1
벨기에	BEL	14,6	13,2	13,3	24,3	18,7	15,9	17,5	14,0	12,8	12,2	12,4	12,2	BEL	12,2
캐나다	CAN	2,0	1,9	1,9	2,5	2,2	1,9	2,0	2,0	1,9	1,9	2,1	1,8	CAN	1,8
칠레	CHL	9,8	8,4	9,7	11,0	9,8	6,3	7,8	8,5	8,9	10,0	10,1	11,1	CHL	11,1
체코	CZE	12,0	12,4	11,5	12,5	10,8	8,8	10,4	9,8	10,2	9,9	CZE	9,9
덴마크	DNK	7,2	8,0	10,5	16,6	10,7	10,2	10,4	12,4	10,7	8,9	7,7	7,5	DNK	7,5
에스토니아	EST	3,6	8,1	8,2	7,4	9,7	8,5	8,8	8,1	6,7	7,1	8,4	..	EST	8,4
핀란드	FIN	6,6	6,6	7,8	9,4	8,5	9,8	12,9	12,3	9,0	9,6	8,4	8,7	FIN	8,7
프랑스	FRA	10,4	9,5	13,3	22,7	15,7	15,8	21,2	17,8	15,5	16,4	15,2	..	FRA	15,2
독일	DEU	17,4	14,9	14,8	27,2	22,0	23,1	24,9	22,9	20,8	20,6	22,4	..	DEU	22,4
그리스	GRC	5,0	4,3	4,2	17,2	12,8	25,6	56,4	12,5	11,4	15,1	21,3	23,0	GRC	23,0
헝가리	HUN	7,1	6,8	7,7	13,3	11,1	11,9	12,3	12,3	12,4	13,4	10,9	8,5	HUN	8,5
아이슬란드	ISL	ISL	..
아일랜드	IRL	13,9	14,6	17,6	26,8	19,1	17,9	12,4	10,6	8,2	8,7	15,9	..	IRL	15,9
이스라엘	ISR	11,6	12,0	11,9	28,6	5,1	5,1	9,5	7,9	7,5	7,8	7,3	..	ISR	7,3
이탈리아	ITA	4,3	3,9	6,1	20,9	15,8	22,8	40,0	34,0	23,0	18,2	14,3	..	ITA	14,3
일본	JPN	11,5	12,9	16,9	23,9	22,5	26,2	26,1	21,7	21,9	20,2	24,0	..	JPN	24,0
한국	KOR	18,7	13,2	12,7	13,9	12,8	12,8	14,9	15,4	15,9	KOR	15,9
라트비아	LVA	12,5	13,3	12,4	12,9	11,5	11,1	9,8	9,1	8,3	8,4	9,3	..	LVA	9,3
룩셈부르크	LUX	29,2	28,1	28,3	21,8	18,4	21,3	23,3	21,8	20,0	18,8	20,0	..	LUX	20,0
멕시코	MEX	MEX	..
네덜란드	NLD	14,9	15,6	13,4	22,8	19,8	19,5	20,9	19,7	19,2	19,4	19,5	19,6	NLD	19,6
뉴질랜드	NZL	NZL	..
노르웨이	NOR	16,7	18,9	23,6	29,9	26,3	23,2	23,0	16,8	13,4	11,8	10,1	10,1	NOR	10,1
폴란드	POL	5,0	4,0	4,1	8,3	6,7	6,5	8,6	7,2	6,2	6,8	9,1	9,7	POL	9,7
포르투갈	PRT	10,9	9,4	9,8	16,9	15,1	16,8	20,4	15,9	15,6	14,1	15,8	13,6	PRT	13,6
슬로바키아	SVK	285,1	218,8	41,3	33,6	36,6	28,9	22,6	19,5	16,2	20,6	26,1	..	SVK	26,1
슬로베니아	SVN	11,9	11,9	11,3	12,7	12,0	11,6	13,3	14,3	11,5	9,6	8,8	8,6	SVN	8,6
스페인	ESP	9,5	8,5	10,2	18,4	13,4	16,1	15,5	16,8	11,5	9,6	10,9	10,9	ESP	10,9
스웨덴	SWE	5,3	5,1	6,1	12,3	8,0	6,9	7,9	6,9	5,8	5,4	5,7	5,6	SWE	5,6
스위스	CHE	CHE	..
터키	TUR	4,1	6,5	5,3	7,9	7,0	9,6	..	TUR	9,6
영국	GBR	40,1	43,8	49,4	51,6	48,0	45,1	38,9	35,9	35,0	31,9	30,3	..	GBR	30,3
미국	USA	6,7	6,5	7,7	9,2	7,3	6,8	7,2	6,1	5,9	5,8	5,9	5,6	USA	5,6
OECD	OECD 29	12,2	11,8	12,6	18,1	15,1	15,8	17,5	15,0	13,6	12,8	13,4	..	OECD 31	13,1
콜롬비아	COL	7,6	..	COL	7,6
리투아니아	LTU	7,9	9,1	9,9	12,7	9,8	7,5	7,9	7,6	7,6	7,9	8,3	..	LTU	8,3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체코,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수집 가능 자료 중 수집 가능 자료 중 최근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에서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재정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467>

추가 참고자료:

Lequiller, F. 및 D. Blades(2014), 국민계정 이해: 2판,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1463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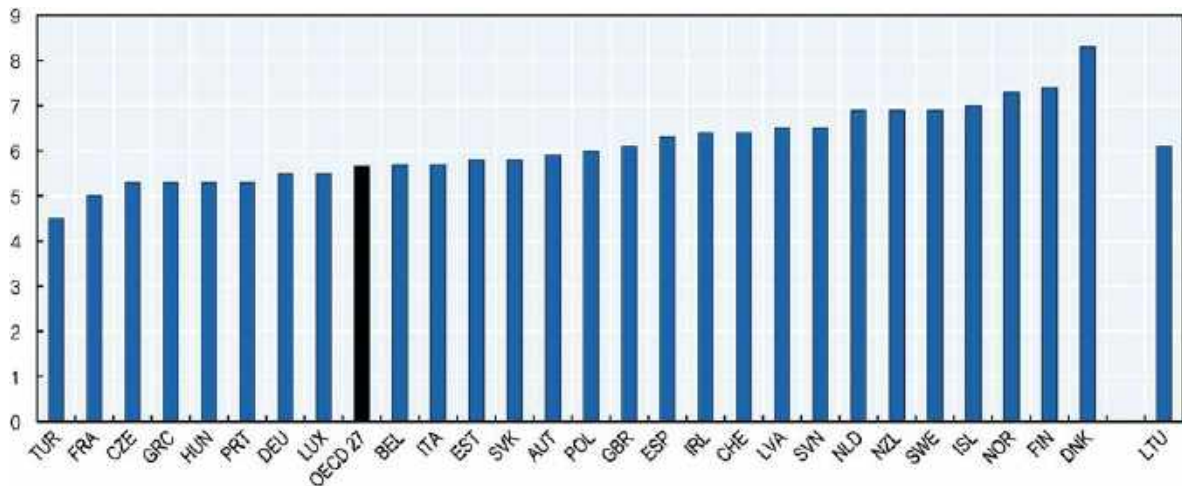
사회 자본: 타인에 대한 신뢰도

정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또는 ‘대인’ 또는 ‘일반화된’ 신뢰도)는 국가 사회 자본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를 포착한다. 이 지표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조사 질문에 기반한다. 응답자는 0(“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부터 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까지의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답했다. 유럽 국가의 데이터는 EU SILC 2013 웰빙에 관한 특별 모듈의 일환으로 수집되었고(Eurostat, 2015) 전국적으로 16세 이상의 인구를 대표한다. 뉴질랜드의 데이터는 뉴질랜드 통계청이 제공했다.

그림 A.74. 대인 신뢰도

평균, 0(다른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음)까지의 척도, 2013년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Eurostat(2015),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및 뉴질랜드 통계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3.0 뉴질랜드 라이선스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허가하고 조정한 보고서(2017년 4월 20일에 받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548>

표 A.45. 대인 신뢰도

평균, 0(다른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음)까지의 척도

		2013
호주	AUS	..
오스트리아	AUT	5,9
벨기에	BEL	5,7
캐나다	CAN	..
칠레	CHL	..
체코	CZE	5,3
덴마크	DNK	8,3
에스토니아	EST	5,8
핀란드	FIN	7,4
프랑스	FRA	5,0
독일	DEU	5,5
그리스	GRC	5,3
헝가리	HUN	5,3
아이슬란드	ISL	7,0
아일랜드	IRL	6,4
이스라엘	ISR	..
이탈리아	ITA	5,7
일본	JPN	..
한국	KOR	..
라트비아	LVA	6,5
룩셈부르크	LUX	5,5
멕시코	MEX	..
네덜란드	NLD	6,9
뉴질랜드	NZL	6,9
노르웨이	NOR	7,3
폴란드	POL	6,0
포르투갈	PRT	5,3
슬로바키아	SVK	5,8
슬로베니아	SVN	6,5
스페인	ESP	6,3
스웨덴	SWE	6,9
스위스	CHE	6,4
터키	TUR	4,5
영국	GBR	6,1
미국	USA	..
OECD	OECD 27	5,7
리투아니아	LTU	6,1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Eurostat(2015),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 (EU-SIL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및 뉴질랜드 통계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3.0 뉴질랜드 라이선스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허가하고 조정한 보고서(2017년 4월 20일에 받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486>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신뢰도 측정 지침*,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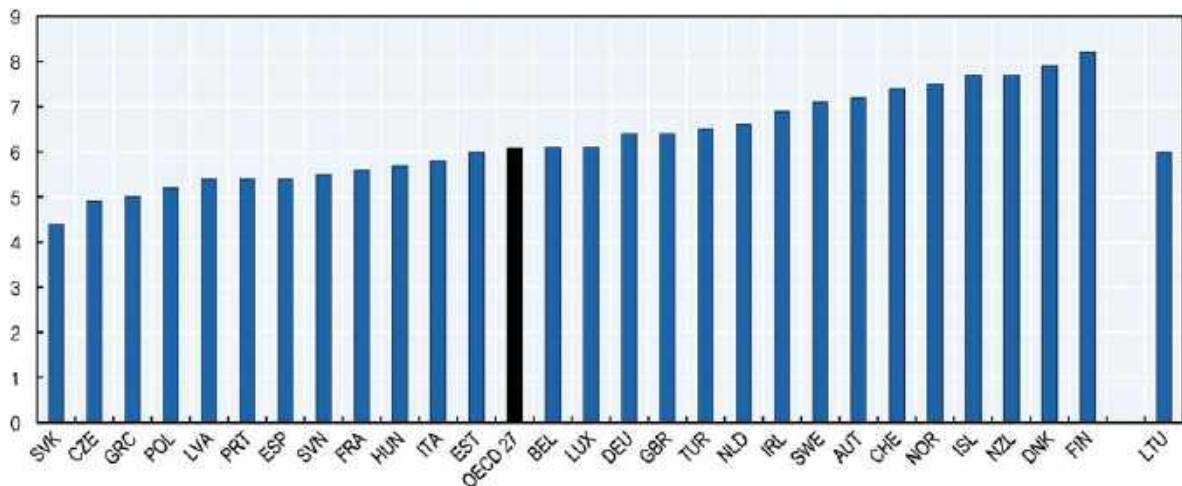
Scrivens, K. 및 C. Smith(2013), “사회 자본의 4가지 해석: 측정을 위한 의제”, *OECD 통계 위크 페이지*, No. 2013/06,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zbcx010wmt-en>

사회 자본: 경찰에 대한 신뢰도

정의

사람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서로 협력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이 지표는 “다음 국가 기관…… 경찰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조사 질문에 기반하며, 응답자는 0(“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신뢰함”)까지의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답했다. 이 지표는 *OECD 신뢰도 측정 지침*의 권고사항과 일치하며 기관 신뢰도를 측정할 때 OECD 지침이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3개 기관(국회, 경찰, 공무원) 중 하나를 나타낸다. *OECD 신뢰도 측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정치체계(정부, 정당, 국회 포함)에 대한 신뢰도, 사법제도(경찰, 군, 법원 포함)에 대한 신뢰도, 비정치적 기관(공무원 포함)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 유럽 국가의 데이터는 EU SILC 2013 웰빙에 관한 특별 모듈의 일환으로 수집되었고(Eurostat, 2015) 전국적으로 16세 이상의 인구를 대표한다. 뉴질랜드의 데이터는 뉴질랜드 통계청이 제공했다.

그림 A.75. 경찰에 대한 신뢰도
평균, 0(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신뢰함)까지의 척도, 2013년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Eurostat(2015),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및 뉴질랜드 통계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3.0 뉴질랜드 라이선스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허가하고 조정한 보고서(2017년 4월 20일에 받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567>

표 A.46. 경찰에 대한 신뢰도

평균, 0(전혀 신뢰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신뢰함)까지의 척도, 2013년

		2013
호주	AUS	..
오스트리아	AUT	7,2
벨기에	BEL	6,1
캐나다	CAN	..
칠레	CHL	..
체코	CZE	4,9
덴마크	DNK	7,9
에스토니아	EST	6,0
핀란드	FIN	8,2
프랑스	FRA	5,6
독일	DEU	6,4
그리스	GRC	5,0
헝가리	HUN	5,7
아이슬란드	ISL	7,7
아일랜드	IRL	6,9
이스라엘	ISR	..
이탈리아	ITA	5,8
일본	JPN	..
한국	KOR	..
라트비아	LVA	5,4
룩셈부르크	LUX	6,1
멕시코	MEX	..
네덜란드	NLD	6,6
뉴질랜드	NZL	7,7
노르웨이	NOR	7,5
폴란드	POL	5,2
포르투갈	PRT	5,4
슬로바키아	SVK	4,4
슬로베니아	SVN	5,5
스페인	ESP	5,4
스웨덴	SWE	7,1
스위스	CHE	7,4
터키	TUR	6,5
영국	GBR	6,4
미국	USA	..
OECD	OECD 27	6,1
리투아니아	LTU	6,0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미국은 제외되었다.

출처: Eurostat(2015), 소득 및 생활 여건에 대한 EU 통계(EU-SILC),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ilc_pw03&lang=en 및 뉴질랜드 통계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3.0 뉴질랜드 라이선스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허가하고 조정한 보고서(2017년 4월 20일에 받음)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505>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신뢰도 측정 지침*,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Scrivens, K. 및 C. Smith(2013), “사회 자본의 4가지 해석: 측정을 위한 의제”, *OECD 통계 워킹 페이퍼*, No. 2013/06,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jzbcx010wm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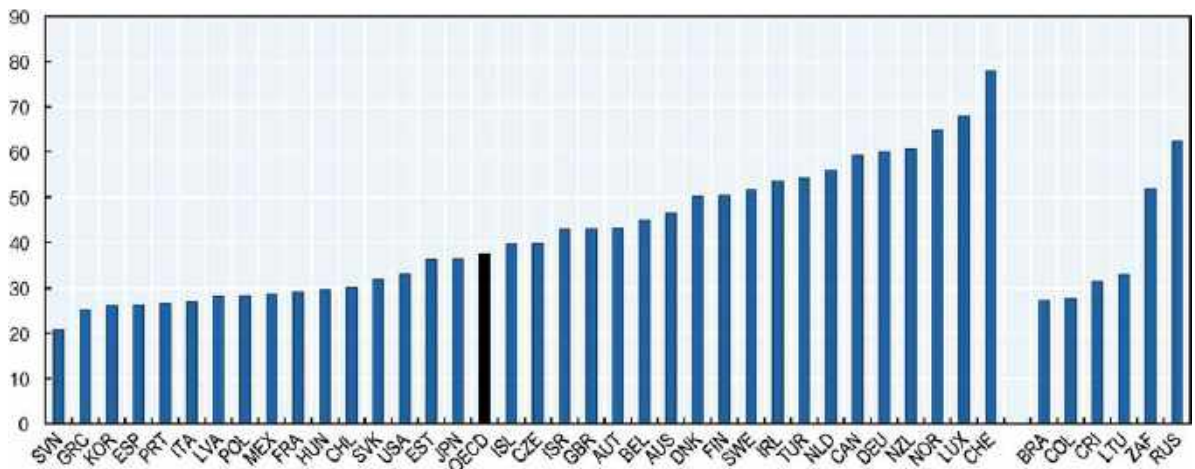
사회 자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의

이 지표는 “이 나라에서 다음 각 항목을 신뢰하는가? 정부를 신뢰하는가?”라는 조사 질문에 기반한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신뢰한다”고 답한 표본의 비율을 나타내며(다른 응답 범주는 “신뢰하지 않는다”와 “모르겠다”이다) 3년 평균을 낸 값이다. *OECD 신뢰도 측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정치체계(정부, 정당, 국회 포함)에 대한 신뢰도, 사법제도(경찰, 군, 법원 포함)에 대한 신뢰도, 비정치적 기관(공무원 포함)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적인 데이터 세트는 이러한 각각의 여러 제도적 요소를 포괄한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모든 OECD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선택되었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연간 국가별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세계여론조사이다. 표본은 전국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농촌 지역 포함)를 대표하도록 사전에 고안되었다. 표본 데이터는 갤럽에서 제공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인구에 대해 가중된다.

그림 A.76.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인구의 비율, 2014~2016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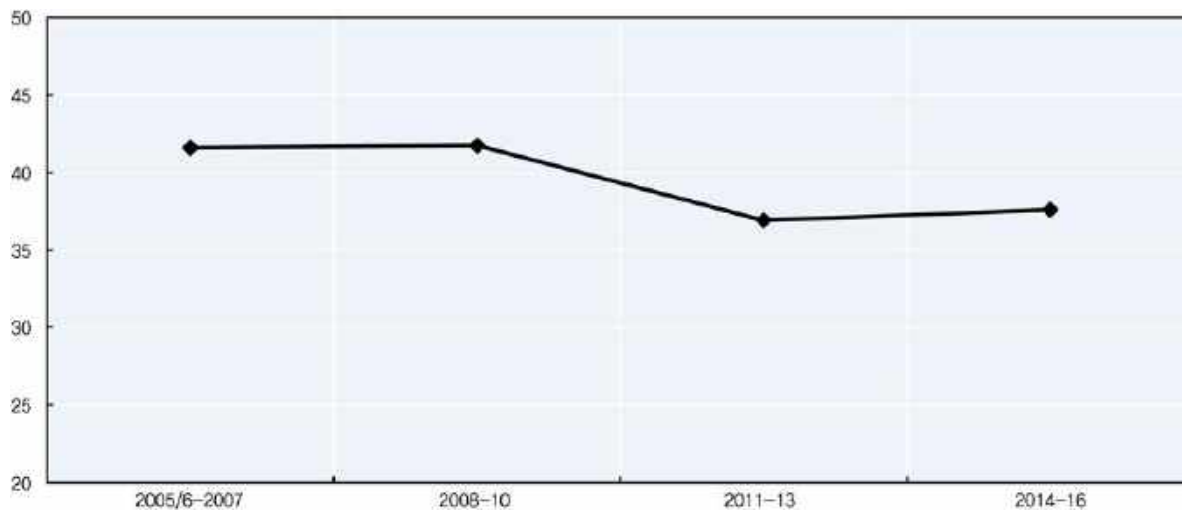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586>

그림 A.77. 정부에 대한 신뢰도, OECD 평균
정부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인구의 비율, OECD 33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605>


표 A.47.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정부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 “신뢰한다”고 답한 인구의 비율

		2005/6–2007	2008–10	2011–13	2014–16		최근 연도
호주	AUS	52.9	62.7	46.9	46.5	AUS	46.5
오스트리아	AUT	49.7	41.0	40.0	43.2	AUT	43.2
벨기에	BEL	57.7	40.0	42.8	44.9	BEL	44.9
캐나다	CAN	54.0	58.3	52.8	59.3	CAN	59.3
칠레	CHL	50.4	48.6	32.4	30.1	CHL	30.1
체코	CZE	27.6	33.3	20.6	39.7	CZE	39.7
덴마크	DNK	63.1	62.6	46.6	50.2	DNK	50.2
에스토니아	EST	43.1	27.8	31.7	36.4	EST	36.4
핀란드	FIN	75.8	59.3	52.8	50.4	FIN	50.4
프랑스	FRA	34.3	44.3	40.4	29.2	FRA	29.2
독일	DEU	33.6	45.4	50.0	60.0	DEU	60.0
그리스	GRC	43.4	27.6	14.8	25.3	GRC	25.3
헝가리	HUN	30.5	22.6	29.9	29.7	HUN	29.7
아이슬란드	ISL	..	23.8	35.7	39.5	ISL	39.5
아일랜드	IRL	63.3	38.0	38.7	53.5	IRL	53.5
이스라엘	ISR	28.0	34.6	35.5	42.9	ISR	42.9
이탈리아	ITA	27.1	36.6	22.9	26.9	ITA	26.9
일본	JPN	29.5	24.8	25.3	36.5	JPN	36.5
한국	KOR	23.3	28.9	28.7	26.2	KOR	26.2
라트비아	LVA	28.6	14.5	17.7	28.1	LVA	28.1
룩셈부르크	LUX	..	79.6	75.0	67.9	LUX	67.9
멕시코	MEX	42.2	41.1	38.0	28.7	MEX	28.7
네덜란드	NLD	54.5	62.7	57.4	55.9	NLD	55.9
뉴질랜드	NZL	60.6	55.2	59.8	60.7	NZL	60.7
노르웨이	NOR	68.3	54.1	66.3	64.8	NOR	64.8
폴란드	POL	12.8	31.7	23.5	28.2	POL	28.2
포르투갈	PRT	45.2	28.9	20.7	26.7	PRT	26.7
슬로바키아	SVK	16.3	30.9	31.0	32.0	SVK	32.0
슬로베니아	SVN	47.8	35.0	19.4	21.0	SVN	21.0
스페인	ESP	50.2	43.6	27.7	26.4	ESP	26.4
스웨덴	SWE	50.1	57.0	61.5	51.6	SWE	51.6
스위스	CHE	63.2	57.8	77.0	77.9	CHE	77.9
터키	TUR	57.7	57.2	55.5	54.2	TUR	54.2
영국	GBR	42.9	40.4	42.3	42.9	GBR	42.9
미국	USA	47.6	43.4	34.0	33.1	USA	33.1
OECD	OECD 33	41.6	41.7	36.9	37.6	OECD	37.6
브라질	BRA	36.2	48.3	43.1	27.3	BRA	27.3
콜롬비아	COL	49.7	54.2	36.5	27.7	COL	27.7
코스타리카	CRI	41.2	47.2	28.8	31.5	CRI	31.5
리투아니아	LTU	23.7	13.4	23.7	33.0	LTU	33.0
러시아 연방	RUS	37.2	54.1	44.0	62.5	RUS	62.5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63.1	52.6	52.1	51.8	ZAF	51.8

주: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다른 모든 해에 대해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불완전한 시계열로 인해 제외되었다. 최신 연도의 경우 OECD 평균은 모든 OECD 국가를 고려한다.

출처: 갤럽세계여론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524>

추가 참고자료:

OECD(2017), *신뢰도 측정 지침*,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González, S., L. Fleischer, M. Mira d'Ercole(2017), “OECD 국가와 그 이상의 거버넌스 통계: 무엇이 존재하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OECD 통계 위키페이퍼*, 2017/03,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c0d45b5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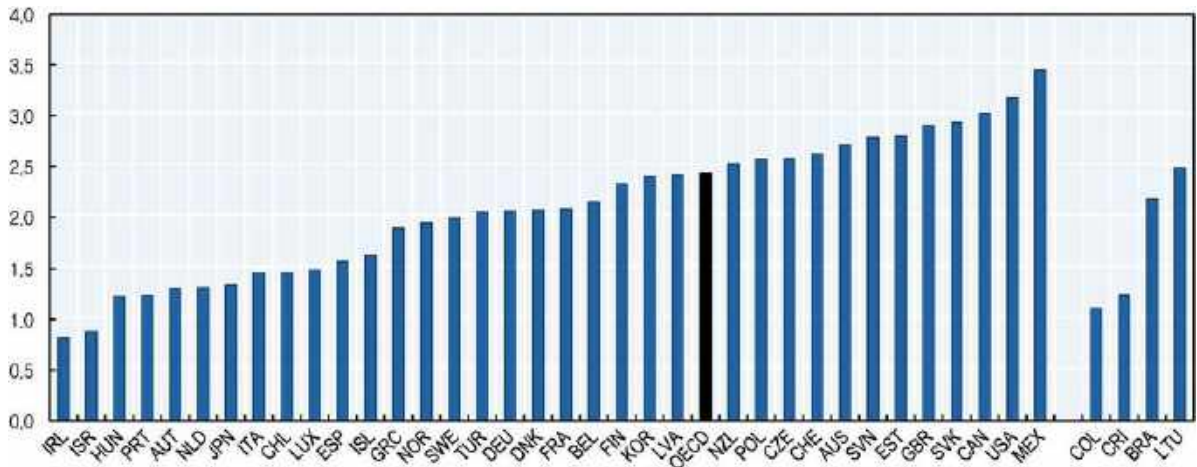
사회 자본: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정의

이 지표는 기본법과 하위 규정을 제정할 때 공식 이해관계자 참여가 어느 정도까지 확립되었는지 설명한다. 공식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존재로 포함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나타낸다. 이 지표는 4가지 측면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측정하는 (각각 기본법과 하위 규정을 다루는) 두 복합 지표의 단순 평균으로 계산된다. 즉 i)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요구사항의 *체계적 채택*, ii) 협의를 위한 *방법론*, iii) *투명성*(정부 결정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등 열린 정부의 원칙과 관련된 것), iv) 감독 기구의 존재와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나타내는 *감독 및 품질 관리*이다. 4개의 차원/범주에 대한 최대 점수는 1점이며, 복합 지표에 대한 최대 총 점수는 4점이다. 이해관계자 참여 지표는 응답자가 OECD 국가의 정부 공무원인 2014 OECD의 규제 지표 조사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계산된다. 기본법에 대한 점수는 행정부가 발의한 기본법 제정 과정만을 나타낸다. 모든 기본법을 의회에서 발의하는 미국 또는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의 기본법에 대한 점수는 없다. 상당 비율의 기본법을 국회/의회에서 발의하는 멕시코와 한국(각각 90.6%, 84%)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가에서 기본법 대부분은 행정부에서 발의한다.

그림 A.78. 기본법과 하위 규정을 제정할 때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0~4 척도, 2014년



주: 데이터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경우 2016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경우 2015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indicators-regulatory-policy-and-govern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624>


표 A.48. 기본법과 하위 규정을 제정할 때 정부 이해관계자 참여

0~4 척도

		2014
호주	AUS	2.7
오스트리아	AUT	1.3
벨기에	BEL	2.2
캐나다	CAN	3.0
칠레	CHL	1.5
체코	CZE	2.6
덴마크	DNK	2.1
에스토니아	EST	2.8
핀란드	FIN	2.3
프랑스	FRA	2.1
독일	DEU	2.1
그리스	GRC	1.9
헝가리	HUN	1.2
아이슬란드	ISL	1.6
아일랜드	IRL	0.8
이스라엘	ISR	0.9
이탈리아	ITA	1.5
일본	JPN	1.3
한국	KOR	2.4
라트비아	LVA	2.4
룩셈부르크	LUX	1.5
멕시코	MEX	3.5
네덜란드	NLD	1.3
뉴질랜드	NZL	2.5
노르웨이	NOR	1.9
폴란드	POL	2.6
포르투갈	PRT	1.2
슬로바키아	SVK	2.9
슬로베니아	SVN	2.8
스페인	ESP	1.6
스웨덴	SWE	2.0
스위스	CHE	2.6
터키	TUR	2.1
영국	GBR	2.9
미국	USA	3.2
OECD	OECD	2.4
브라질	BRA	2.2
콜롬비아	COL	1.1
코스타리카	CRI	1.2
리투아니아	LTU	2.5

주: 데이터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경우 2016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경우 2015년이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출처: OECD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indicators-regulatory-policy-and-governanc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543>

추가 참고자료:

OECD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indicators-regulatory-policy-and-governanc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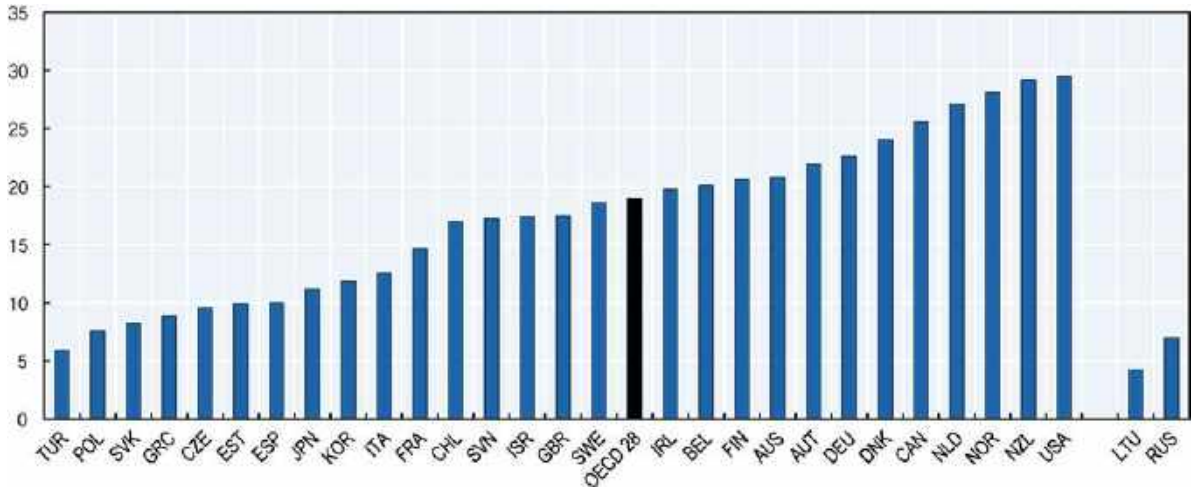
사회 자본: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정의

자원봉사는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자선단체, 정당, 노조 또는 기타 비영리 조직을 위한 무급 근로를 포함하여 자원봉사를 했는가?” 라는 질문에 기반한다. 응답 범주는 “전혀 하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1주일에 1회 미만이지만 한 달에 최소 1회 이상”, “1주일에 1회 이상이지만 매일은 아님”, “매일”이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16~65세 성인의 비율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OECD가 조정한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의 일환인 OECD 성인역량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그림 A.79. 공식적인 자원봉사 참여

전년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를 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2012년경



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데이터는 2011~2012년,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4~2015년을 나타낸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내며, 러시아의 경우 모스크바 지역이 제외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598643>

표 A.49. 공식적인 자원봉사 참여

전년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를 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2012년경

		2012년
호주	AUS	20.8
오스트리아	AUT	22.0
벨기에	BEL	20.1
캐나다	CAN	25.6
칠레	CHL	17.0
체코	CZE	9.6
덴마크	DNK	24.1
에스토니아	EST	10.0
핀란드	FIN	20.6
프랑스	FRA	14.7
독일	DEU	22.6
그리스	GRC	8.9
헝가리	HUN	..
아이슬란드	ISL	..
아일랜드	IRL	19.7
이스라엘	ISR	17.4
이탈리아	ITA	12.6
일본	JPN	11.1
한국	KOR	11.8
라트비아	LVA	..
룩셈부르크	LUX	..
멕시코	MEX	..
네덜란드	NLD	27.1
뉴질랜드	NZL	29.2
노르웨이	NOR	28.1
폴란드	POL	7.6
포르투갈	PRT	..
슬로바키아	SVK	8.3
슬로베니아	SVN	17.2
스페인	ESP	10.0
스웨덴	SWE	18.6
스위스	CHE	..
터키	TUR	5.9
영국	GBR	17.5
미국	USA	29.5
OECD	OECD 28	18.9
리투아니아	LTU	4.2
러시아 연방	RUS	7.0

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데이터는 2011~2012년, 프랑스의 경우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4~2015년을 나타낸다. 벨기에의 데이터는 플랑드르,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나타내며, 러시아의 경우 모스크바 지역이 제외되었다. OECD 평균은 인구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되었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www.oecd.org/site/piaa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600562>

추가 참고자료:

OECD(2016), *역량 문제: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연구*,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 연합도 OECD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OECD는 출판물을 통해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하고 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OECD Korea Policy Centre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이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2005년 설립된 보건 사회정책에 관한 지역 센터(RCHSP) 중 하나였던 기존의 OECD 한국센터를 통합한 후 2008년 7월 7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주요 기능은 OECD 회원국의 국제조세, 경쟁, 공공 거버넌스, 사회정책에 대한 국제 기준과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아시아 지역의 공공부문 관료와 전문가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보건 및 사회 정책 분야에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OECD 국가와 OECD 비회원국인 아태지역 국가 간에 정책적 대화와 정보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센터 내 사회정책본부의 역할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호통계(국제노동 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공동작업), 보건의료비 지출 및 재원조달 통계(아시아태평양 국가 보건의료 계정 네트워크 및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작업), 연금정책(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과 공동작업)이다. 이러한 비전을 추구하고면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을 주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How's Life? 2017

웰빙의 측정

*How's Life?*는 OECD 35개국과 기타 주요 6개국 국민들의 웰빙 현황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확인한다. 50개 지표를 통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증거와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웰빙 상태와 미래의 웰빙 자원을 모두 개관한다. 이 시기에 일부 분야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만큼 다른 분야의 손실도 있었다.

이번 네 번째 판은 사람들의 성취와 기회의 격차가 웰빙의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나이, 성별, 교육에 따른 분화와 OECD 국가들의 불평등한 부분들을 조명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외국에서의 새 삶에 적응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을 확인한다. 더불어 본 보고서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버넌스를 조사하여 공공 기관과 그들이 지원하는 시민 간의 관점 차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41개 국가의 프로파일을 통해 국가별 강점, 과제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웰빙의 변화를 보여준다.

*How's Life?*는 사람들의 웰빙과 그 측정에 관한 일련의 출간물을 발행하는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OECD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부이며, 쌍방향 웹사이트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를 포괄한다.



비매품/무선

9 33330

9 791186 043219
ISBN 979-11-86043-21-9